

# 2019 장애통계연보

조윤화 · 김용진 · 오윤지 · 왕영민 · 김태용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연구진

연구책임 : 조윤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특수 교육학 박사)

오윤지 (파리 12대학 노인복지학 박사수료)

왕영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선임연구원)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사패널팀 연구원)



## 발 간 사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과거의 ‘장애등급’에서 ‘서비스 욕구’ 중심으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자격기준 전환에 의미가 있으나, 소득 및 고용, 이외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5년부터 장애인 권리협약(CRPD)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에 기반을 둔 핵심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수집하고 있습니다.

‘2019 장애통계연보’는 총 13개의 대분류와 국외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정책 그리고 투입 및 산출지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정책 현안에 따라 주요지표들을 추가 생산 및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건강 및 보건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문재인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지표로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통계를, 2019년에는 ‘장애인학대통계’를 추가 수집하였습니다.

장애통계연보가 장애인복지정책수립 및 관련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 및 장애인복지정책 이해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 12.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 경 숙



# 목 차



<b>I. 2019 장애통계연보 체계</b>	<b>1</b>
1. 작성배경	3
2. 작성목표	4
3. 작성방향 및 체계	5
4. 세부작성원칙	7
5. 장애통계연보 체계	8
1) 국내지표	8
2) 국외지표	16
<b>II. 국내통계</b>	<b>21</b>
1. 장애인구	23
1) 장애인구	25
2. 건강 및 보건	35
1) 건강상태	36
2) 건강관리	45
3) 보건의료이용	56
3. 가족	69
1) 가구구성	71
2) 가족형성	72
3) 다문화 가족	77
4. 주거	79
1) 주거	81
2) 주택 환경	86
3) 주거복지사업	90
5. 교육	95
1) 교육수준	97
2) 보육	99
3) 유치원	103
4) 특수교육	105
5) 교육기관 편의시설	112

6. 노동과 직업재활 .....	115
1) 경제활동 .....	117
2) 의무고용 .....	129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	131
4) 장애인기업 .....	133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	137
6) 직업재활 .....	139
7. 재정 .....	147
1) 재정 .....	148
8. 소득과 소비 .....	153
1) 소득 .....	155
2) 소비 .....	158
3) 빈곤 .....	165
9. 문화 및 사회참여 .....	167
1) 문화 및 여가활동 .....	168
2) 사회참여 .....	170
10. 사회보장 .....	177
1) 사회보험 .....	179
2) 공공부조 .....	184
3) 사회서비스 .....	196
11. 인권보호 .....	223
1) 사회적 차별 .....	225
2) 장애인 인권보호 .....	236
3) 가정폭력 .....	244
4) 성폭력 .....	247
12. 접근성 .....	259
1) 물리적 접근성 .....	261
2) 정보 접근성 .....	272
3) 사법 접근성 .....	274
13. 재난 및 안전 .....	275
1) 장애인 응급안전망 .....	276
2) 장애인 안전시설 .....	277
3) 장애인 보호구역 .....	280
<b>III. 국외통계 .....</b>	<b>281</b>
1. OECD 회원국 .....	283
1) 장애인구 .....	285
2) 교육 .....	288
3) 고용 .....	290
4) 재정 .....	294



5) 복지 .....	303
6) 정신건강 .....	304
2. 프랑스 .....	309
1) 장애인구 .....	311
2) 교육 .....	314
3) 고용 .....	317
4) 재정 .....	330
5) 복지 .....	333
6) 정신건강 .....	339
3. 독일 .....	343
1) 장애인구 .....	345
2) 교육 .....	349
3) 고용 .....	353
4) 재정 .....	362
5) 복지 .....	364
6) 정신건강 .....	367
4. 일본 .....	371
1) 장애인구 .....	373
2) 교육 .....	377
3) 고용 .....	384
4) 재정 .....	394
5) 복지 .....	398
6) 정신건강 .....	401
<b>IV. 지표설명 .....</b>	<b>409</b>
1. 국내통계 지표 .....	411
2. 국외통계 지표 .....	424
1) OECD .....	424
2) 프랑스 .....	427
3) 독일 .....	434
4) 일본 .....	440

# 표 목 차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	25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6
〈표 1-1-3〉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	27
〈표 1-1-4〉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	28
〈표 1-1-5〉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	29
〈표 1-1-6〉 장애아동 현황 - 장애유형별 .....	30
〈표 1-1-7〉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	31
〈표 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장애유형별 .....	32
〈표 1-1-9〉 장애등급심사 - 연도별 .....	33
〈표 1-1-10〉 장애등급심사 - 장애유형별 .....	34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	36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38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	39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1
〈표 2-1-5〉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 .....	42
〈표 2-1-6〉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4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	45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6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 .....	47
〈표 2-2-4〉 현재 흡연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9
〈표 2-2-5〉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 장애유형별 .....	50
〈표 2-2-6〉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0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 .....	51
〈표 2-2-8〉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3
〈표 2-2-9〉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장애유형별 .....	54
〈표 2-2-1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4
〈표 2-2-11〉 생활체육 참여형태 - 연도별, 장애유형별 .....	55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56
〈표 2-3-2〉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	57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	58
〈표 2-3-4〉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	59



〈표 2-3-5〉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60
〈표 2-3-6〉 장애인 진료비 현황 .....	61
〈표 2-3-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	62
〈표 2-3-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3
〈표 2-3-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	64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5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	66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7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	71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	71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	72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2
〈표 3-2-3〉 평균초혼연령 - 장애유형별 .....	73
〈표 3-2-4〉 평균초혼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3
〈표 3-2-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장애유형별 .....	74
〈표 3-2-6〉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4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	75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5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총분도 - 장애유형별 .....	76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총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6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	77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	77
〈표 4-1-1〉 주택유형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1
〈표 4-1-2〉 주택사용면적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2
〈표 4-1-3〉 사용 방 수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3
〈표 4-1-4〉 무주택 기간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4
〈표 4-1-5〉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	85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	86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6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	87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7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	88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9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서비스별 .....	90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 .....	91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	93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	97
〈표 5-1-2〉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	98
〈표 5-1-3〉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98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99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00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원여부, 지역별 .....	101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	102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103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04
〈표 5-4-1〉 특수학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	105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	106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	107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	108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	109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10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11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	112
〈표 6-1-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	117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비교 .....	118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 .....	119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120
〈표 6-1-5〉 취업자의 산업 .....	121
〈표 6-1-6〉 취업자의 직업 .....	122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 .....	123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	124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 .....	125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 .....	126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	127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	128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	129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연도별 .....	130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31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32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	133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4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5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36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	137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	138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139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	140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	141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	142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143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144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145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 - 연도별	146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146
〈표 7-1-1〉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148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149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150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151
〈표 7-1-5〉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152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5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156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157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158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159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160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161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163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165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166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168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69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170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70
〈표 9-2-3〉 투표 미 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171
〈표 9-2-4〉 투표 미 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72
〈표 9-2-5〉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연도별, 직급별	173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시도별	174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175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179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180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182
〈표 10-1-4〉 건강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183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수(전체 수급자 비교)	184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185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186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188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190
〈표 10-2-6〉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192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193

〈표 10-2-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별 .....	195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196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	197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	199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등급별 .....	200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실시현황 .....	201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 이용현황 .....	202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이용현황 .....	203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	204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205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206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207
〈표 10-3-12〉 활동보조인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 근무시간 및 월 평균 보수 .....	208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209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210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211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212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212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213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213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214
〈표 10-3-21〉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15
〈표 10-3-22〉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 .....	217
〈표 10-3-2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19
〈표 10-3-2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	220
〈표 10-3-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221
〈표 10-3-26〉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	222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	225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27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	228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29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	230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31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232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233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	234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35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236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237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238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	239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	241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기간·각하 사유별 .....	242
〈표 11-2-7〉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시설별 .....	243
〈표 11-3-1〉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	244
〈표 11-3-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5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사실 현황 .....	246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	247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8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	249
〈표 11-4-4〉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현황 .....	250
〈표 11-4-5〉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 .....	251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252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253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254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	255
〈표 11-5-1〉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256
〈표 11-5-2〉 장애인학대 유형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	257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	261
〈표 12-1-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	263
〈표 12-1-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	264
〈표 1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265
〈표 12-1-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	266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	267
〈표 12-1-7〉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	269
〈표 12-1-8〉 저상버스 도입 현황 .....	270
〈표 12-1-9〉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271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	272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272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273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	274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	276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	277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	278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280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17년) .....	285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2017년) .....	287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2017년) .....	288
〈표 14-2-2〉 OECD 국가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2017년) .....	289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	290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	291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	292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11년) .....	293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	294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	295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비율 .....	296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0년) .....	297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1년) .....	298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2년) .....	299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3년) .....	300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4년) .....	301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5년) .....	302
〈표 14-5-1〉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303
〈표 14-6-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304
〈표 14-6-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305
〈표 14-6-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	306
〈표 14-6-4〉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307
〈표 14-6-5〉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308
〈표 15-1-1〉 장애인구 현황 .....	311
〈표 15-1-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현황 .....	312
〈표 15-1-3〉 장애인 출현율 - 성별, 연령별 .....	313
〈표 15-2-1〉 교육수준 - 장애정의별, 성별 .....	314
〈표 15-2-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	314
〈표 15-2-3〉 연도별 구직자 교육수준 .....	315
〈표 15-2-4〉 2015년 구직자 교육수준 .....	315
〈표 15-2-5〉 고용 및 비활동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	316
〈표 15-3-1〉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	317
〈표 15-3-2〉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및 실업률 .....	317
〈표 15-3-3〉 고용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18
〈표 15-3-4〉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구 근로자 및 근로자 인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수 .....	319
〈표 15-3-5〉 고용의무(OETH)로 고용된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20
〈표 15-3-6〉 고용의무(OETH)로 고용된 장애인구의 행정적 인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321
〈표 15-3-7〉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구 .....	322
〈표 15-3-8〉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전일제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 규모 및 활동분야별 .....	323
〈표 15-3-9〉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장애인구 .....	324
〈표 15-3-10〉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고용의무 달성 정도 .....	324
〈표 15-3-11〉 장애인구의 실업률 .....	326
〈표 15-3-12〉 장애인구 구직률 - 전체 인구 비교 .....	327
〈표 15-3-13〉 장애인구의 구직률 - 연도별 .....	328
〈표 15-3-14〉 구직 기간 .....	328



〈표 15-3-15〉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종사)업종군 .....	329
〈표 15-4-1〉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현황 .....	330
〈표 15-4-2〉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	331
〈표 15-5-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 .....	333
〈표 15-5-2〉 기능 제한과 기능 제한 정도에 따른 빈곤율 .....	335
〈표 15-5-3〉 성인장애수당(AAH) 신청 건수와 수급자격 인정 현황 .....	336
〈표 15-5-4〉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	337
〈표 15-5-5〉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	338
〈표 15-6-1〉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 .....	339
〈표 15-6-2〉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	340
〈표 15-6-3〉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	342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345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	346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 (2017년) .....	347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	348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	349
〈표 16-2-2〉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수치 .....	350
〈표 16-2-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2015/2016 대비 2017/2018년) .....	351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	352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률 - 연도별 .....	353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2017년 평균) .....	354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7년) .....	356
〈표 16-3-4〉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2017년) .....	357
〈표 16-3-5〉 연방 통합청(Integrationsamt) 지출 현황(2016/2017년) .....	358
〈표 16-3-6〉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	360
〈표 16-3-7〉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17년) .....	360
〈표 16-3-8〉 중증장애인 실업 지속기간(2017년 평균) .....	361
〈표 16-4-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2017년) .....	362
〈표 16-5-1〉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유형별, 연령별 .....	364
〈표 16-5-2〉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 유형별(2017년) .....	365
〈표 16-5-3〉 장애인 편입급여 급여내용 및 지출액(2017년) .....	366
〈표 16-6-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2017년) .....	367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수 및 병상 수(2017년) .....	368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17년) .....	369
〈표 17-1-1〉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	373
〈표 17-1-2〉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	373
〈표 17-1-3〉 일본 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	374
〈표 17-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375
〈표 17-1-5〉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375
〈표 17-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375

〈표 17-1-7〉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	375
〈표 17-1-8〉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376
〈표 17-1-9〉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	376
〈표 17-2-1〉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	377
〈표 17-2-2〉 특별지원학교의 재학생 수 - 장애별, 학교별 .....	377
〈표 17-2-3〉 초/중학교에 의한 특별지원학교의 재학생 수 - 국립, 공립, 사립 .....	378
〈표 17-2-4〉 특별지원학교 수 - 국립, 공립, 사립 .....	378
〈표 17-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	379
〈표 17-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	379
〈표 17-2-7〉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 .....	380
〈표 17-2-7-1〉 통급(通級)지도교실 설치 학교 수 .....	380
〈표 17-2-8〉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	381
〈표 17-2-9〉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	382
〈표 17-2-1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	382
〈표 17-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	383
〈표 17-2-12〉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	383
〈표 17-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	384
〈표 17-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	384
〈표 17-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	385
〈표 17-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	386
〈표 17-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	386
〈표 17-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	387
〈표 17-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	387
〈표 17-3-8〉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	388
〈표 17-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388
〈표 17-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388
〈표 17-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389
〈표 17-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389
〈표 17-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389
〈표 17-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389
〈표 17-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390
〈표 17-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390
〈표 17-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	391
〈표 17-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 장애별 .....	391
〈표 17-3-19〉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	392
〈표 17-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별(2018년도) .....	392
〈표 17-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별 .....	393
〈표 17-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이유별 .....	393
〈표 17-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16년~2017년도 .....	394
〈표 17-4-2〉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18년도 .....	396



〈표 17-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	398
〈표 17-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399
〈표 17-5-3〉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400
〈표 17-5-4〉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	400
〈표 17-6-1〉 정신질환 환자 수 .....	401
〈표 17-6-2〉 정신질환 환자 수 - 질병별 .....	401
〈표 17-6-3〉 정신질환 환자 수 - 연령별 .....	402
〈표 17-6-4〉 정신질환 외래환자 수 - 질병별 .....	403
〈표 17-6-5〉 정신질환 외래환자 수 - 연령별 .....	403
〈표 17-6-6〉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질병별 .....	404
〈표 17-6-7〉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연령별 .....	404
〈표 17-6-8〉 정신병상 입원환자 수 - 질병별 .....	405
〈표 17-6-9〉 정신병상 입원환자 수 - 연령별 .....	405
〈표 17-6-10〉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재원기간별 .....	406
〈표 17-6-11〉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입원상황별 .....	406
〈표 17-6-12〉 정신병상을 보유하는 병원 수 .....	407
〈표 17-6-13〉 정신병상 수 및 입원환자 수 .....	407
〈표 17-6-14〉 정신병상 퇴원환자 퇴원 후 상황 .....	407

# 그림 목 차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	7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	23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	23
[그림 2-1-3]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4
[그림 2-2-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35
[그림 2-2-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35
[그림 2-3-1] 장애인 가구 규모 .....	69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 .....	69
[그림 2-3-3] 다문화 장애가구 및 소득 .....	70
[그림 2-4-1] 무주택 기간 .....	79
[그림 2-4-2] 주거비 부담 수준 .....	79
[그림 2-4-3]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여부 .....	80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80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	95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 .....	95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 .....	96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96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2017) - 전체인구 비교 .....	115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	115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 .....	116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 .....	116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	116
[그림 2-7-1]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	147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147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 .....	153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 .....	153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 .....	154
[그림 2-8-4] 연도별 빈곤율 및 빈곤갭 - 전체가구 비교 .....	154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167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167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지급자 현황 .....	177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177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보조인 활동인원 .....	178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전체 .....	178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223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223
[그림 2-11-3]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	224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224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 .....	259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 .....	259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 .....	260
[그림 2-13-1] 응급출동 현황 .....	275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17년) .....	283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	283
[그림 3-1-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2012년) .....	284
[그림 3-1-4]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284
[그림 3-2-1] 장애인구 현황 .....	309
[그림 3-2-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309
[그림 3-2-3] 돌봄 지원 지출 현황 .....	310
[그림 3-2-4] 장애인 빈곤율 - 경제활동참여별 .....	310
[그림 3-2-5] 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달성정도 (2016년 기준) .....	322
[그림 3-2-6] 그림으로 보는 2008-2015년 민간기업 기여금 납부액 변화 .....	323
[그림 3-2-7] 민간기업체와 공공기업체의 고용의무 달성 정도 .....	325
[그림 3-2-8] 그림으로 보는 노인 및 장애인 자율성 상실 보상 수당 공공재원 분포 .....	332
[그림 3-2-9] 장애 정의와 기능제한 및 기능제한 정도에 따른 소득 수준 .....	335
[그림 3-2-10] 연령에 따른 성인장애수당 출현율 .....	338
[그림 3-3-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	343
[그림 3-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	343
[그림 3-3-3]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현황(2017년) .....	344
[그림 3-3-4] 중증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2017년) .....	344
[그림 3-4-1] 일본 장애인 수 .....	371
[그림 3-4-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	371
[그림 3-4-3]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 .....	372
[그림 3-4-4] 정신질환자 입원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유형 .....	372

# I

## 2019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2. 작성목표
3. 작성방향 및 체계
4. 세부작성원칙
5. 장애통계연보 체계



## I. 2019 장애통계연보 체계

### 1. 작성배경

-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이하 CRPD)의 제 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써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 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 2. 작성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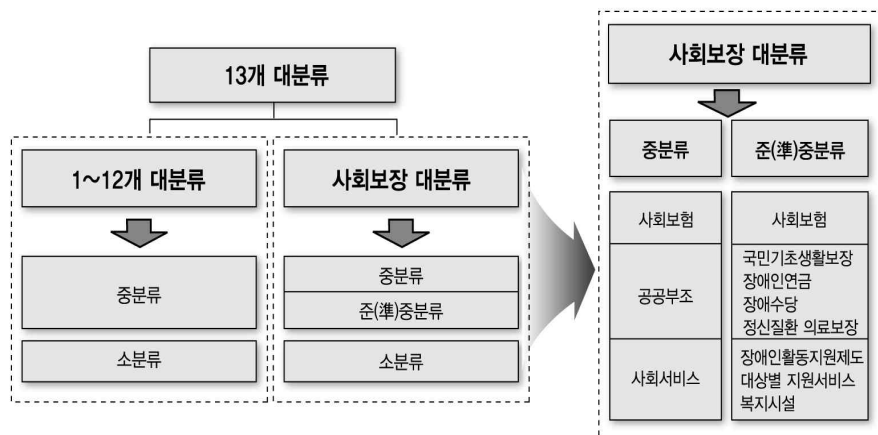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3.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들을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10분위 배율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등급 등)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 4. 세부작성원칙

- ☐ 2019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제시되도록 함
-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 5. 장애통계연보 체계

### 1) 국내지표<sup>1)</sup>

#### (1) 장애인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구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표 1-1-1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제1조 제2조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1-1-2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	연도별	표 1-1-3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출현율	연도별	표 1-1-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아동 현황	연도별	표 1-1-5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6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연도별	표 1-1-7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등급심사	연도별	표 1-1-9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유형별	표 1-1-10		

#### (2) 건강 및 보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ADL)	장애유형별	표 2-1-1	장애인실태조사	제25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장애유형별	표 2-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4			
		만성질환	장애유형별	표 2-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6			
	건강관리	스트레스 정도	장애유형별	표 2-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2			
		흡연 및 금연 여부	장애유형별	표 2-2-3			
				표 2-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4			
				표 2-2-6			
		음주 빈도 및 음주량	장애유형별	표 2-2-7			

1) 2018 장애통계연보에 수록된 사회보장 영역의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 지원 현황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현황은 제도 통합 등의 사유로 2019 장애통계연보에서 삭제되었고, 인권보호영역의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과 장애인학대 유형은 추가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표 2-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8		
				표 2-2-10		
	생활체육 참여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2-11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건의료 이용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2-3-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표 2-3-2		
		암검진 수검률		표 2-3-3		
		구강검진 수검률		표 2-3-4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의료기관 별	표 2-3-5		
		장애인 진료비 현황		표 2-3-6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장애유형별	표 2-3-7		장애인실태조사
				표 2-3-9		
				표 2-3-1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3-8		
				표 2-3-10		
표 2-3-12						

### (3) 가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가족	가구구성	가구구성 및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표 3-1-1	장애인실태조사	제6조 제7조 제23조
				표 3-1-2		
	가족형성	결혼상태	장애유형별	표 3-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2		
		평균초혼연령	장애유형별	표 3-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4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장애유형별	표 3-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6		
		자녀 현황	장애유형별	표 3-2-7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8		
		산후조리 도우미 및 층분도	장애유형별	표 3-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10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연도별,	표 3-3-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표 3-3-2		



## (4) 주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주거	주거	주택유형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표 4-1-1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제19조
		주택사용면적		표 4-1-2		
		사용 방 수		표 4-1-3		
		무주택 기간		표 4-1-4		
		주거비 부담수준		표 4-1-5		
	주택 환경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장애유형별	표 4-2-1	장애인실태조사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2		
			장애유형별	표 4-2-3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4		
			장애유형별	표 4-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6		
	주거 복지사업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부	행정구역, 점유형태별, 소득별	표 4-3-1	주거실태조사 (장애인가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표 4-3-2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실적	연도별	표 4-3-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5)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교육	교육수준	교육수준	연도별	표 5-1-1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7조 제24조 제26조
			장애유형별	표 5-1-2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1-3		
	보육	보육시설 이용	장애유형별	표 5-2-1	보육통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2-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여부, 지역별	표 5-2-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역별	표 5-2-4		
	유치원	유치원 이용	장애유형별	표 5-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3-2		
	특수교육	특수학교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표 5-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학급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2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연도별,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영역별	표 5-4-3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표 5-4-4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5		
		졸업생 진로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6		
				표 5-4-7		
	교육기관 편의시설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 편의시설 유형별	표 5-5-1		

## (6) 노동과 직업재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노동과 직업재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2		
		취업자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3		
			종사상지위별	표 6-1-4		
			산업별	표 6-1-5		
			직업별	표 6-1-6		
			(취업자 중 임금근로 장애인)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여부별	표 6-1-7		
			(취업자 중 임금근로 장애인)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8		
		실업자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9		
		실업자 특성	구직기간, 구직경로, 구직방법	표 6-1-10		
			희망 고용형태, 산업, 직업, 사업체, 근로시간, 월 평균 소득	표 6-1-11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2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부담금	연도별	표 6-2-2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업체 장애인 고용	기업체 장애인 고용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표 6-3-1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수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표 6-4-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표 6-4-4		
	취업 관련 활동 경험	최근 3년 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6-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최근 3년 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성별, 장애정도별	표 6-5-2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 지역별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표 6-6-2		
			시설유형별	표 6-6-3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6-6-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6-6-5		
			연도별, 사업별	표 6-6-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6-6-7		
			연도별, 생산시설 유형별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연도별, 지역별	표 6-6-9		



## (7) 재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정	재정	장애인 복지 예산	(GDP 대비 비율)연도별	표 7-1-1	SOCX Statistics	-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비율)연도별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	
		장애인 정책국 예산 추이	연도별	표 7-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세부항목별	표 7-1-4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세부사업별	표 7-1-5		

## (8) 소득과 소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소득과 소비	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1-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제28조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연도별, 소득원천별	표 8-1-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별 비중	연도별, 소득구간별	표 8-1-3		
	소비	월 평균 가구지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2-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비목별 소비지출액	연도별, 비목별	표 8-2-2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연도별, 비목별	표 8-2-3		
		최소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2-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추가비용 항목별, 장애유형별	표 8-2-5		
소득과 소비	빈곤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연도별, 소득원천별	표 8-3-1	가계금융·복지조사	제28조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연도별, 소득분위별	표 8-3-2		

## (9) 문화 및 사회참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문화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표 9-1-1	장애인실태조사	제29조 제30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1-2		
	장애인 투표 여부	장애유형별	표 9-2-1			
			표 9-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2-2			
			표 9-2-4			
	사회참여	장애인 공무원 수	연도별, 직급별	표 9-2-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연도별, 시도별	표 9-2-6		
		온라인 사회참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장애유형별	표 9-2-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10) 사회보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 보장	사회보험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연금 수급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0-1-2	국민연금통계연보	
		산재보험 수급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연령별	표 10-1-3	산재보험 사업연보	
		건강보험 가입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4	장애인실태조사	
사회 보장	공공 부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수급자 비교)연도별	표 10-2-1	보건복지통계연보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2-2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인 연금	장애연금 수급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표 10-2-3	
		장애 수당	장애수당 수급		표 10-2-4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5	
		정신 질환 의료 보장	만성 정신질환 급여	연도별	표 10-2-6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정신질환 의료급여	연도별, 상병별	표 10-2-7	의료급여통계
			정신보건 의료보장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10-2-8	중앙정신보건사업 지원단 내부자료
사회 보장	사회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예산 및 실적	연도별	표 10-3-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인정조사점수별, 소득별	표 10-3-2 표 10-3-3 표 10-3-4	
			인정조사 실시	연도별, 시도별	표 10-3-5	
			기본급여 이용	급여종류별, 연도별, 이용시간별	표 10-3-6	
			추가급여 이용	급여종류별, 연도별, 등급별, 인정조사점수별, 소득별	표 10-3-7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연도별, 장애등급별	표 10-3-8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인정조사점수별, 소득별	표 10-3-9	
			본인부담금 수준	연도별, 소득별	표 10-3-10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연도별, 시도별	표 10-3-11	
			활동보조인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0-3-12	
		대상별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월별	표 10-3-1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표 10-3-18 표 10-3-19 표 10-3-20	
		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표 10-3-21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표 10-3-22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10-3-2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4	
			정신보건기관	기관유형별	표 10-3-25 표 10-3-26	
					표 10-3-26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11) 인권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인권 보호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1	장애인실태조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장애유형별	표 11-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4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장애유형별	표 11-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6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연도별, 지역별,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소득별	표 11-1-7	사회조사 (복지·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9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10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연도별	표 11-2-1		인권통계
					표 11-2-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연도별, 영역별, 가각·각하 사유별	표 11-2-4		
					표 11-2-5		
					표 11-2-6		
		정신보건시설 입원현황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11-2-7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가정 폭력	장애인 가정폭력	장애유형별	표 11-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3-2			
	가정폭력 관련 시설		시도별	표 11-3-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장애유형별	표 11-4-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4-2			
		성폭력 상담소	시도별	표 11-4-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연도별, 상담 유형	표 11-4-4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연도별, 피해유형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표 11-4-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도별	표 11-4-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연도별	표 11-4-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연도별, 연령별			표 11-4-8
				연도별, 보호기간별			표 11-4-9
	학대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1-5-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장애인학대 유형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11-5-2			

## (12)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보조기구 종류별, 장애유형별	표 12-1-1	장애인실태조사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장애인보조기구 사업운영 실적	정부 부처별	표 12-1-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연도별	표 12-1-3	건강보험주요통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실적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12-1-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표 12-1-5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2-1-6			
			이동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표 12-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도별, 시도별	표 12-1-8		
		시도별		표 12-1-9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도별 디지털정보격차 자수 유형별	표 12-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활용 유형별	표 12-2-2			
		정보 접근성	연도별, 정보 접근성 유형별	표 12-2-3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사법 접근성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연도별	표 12-3-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13) 재난 및 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난 및 안전	장애인 응급안전망	응급 출동 실적	연도별, 월별, 응급상황별	표 13-1-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0조 제11조 제14조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 설치	연도별	표 13-2-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3-2-2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연도별, 시도별	표 13-3-1	재난안전통계연보	



## 2) 국외지표

## (1) OECD 회원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OECD 회원국	장애인구	장애출현율	국가별, 성별	표 14-1-1	Eurostat, EU-SILC, 국가별 통계	—
			국가별, 연령별	표 14-1-2	Eurostat, EU-SILC	
	교육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국가별, 학력별	표 14-2-1	Eurostat, EU-SILC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국가별, 학력별	표 14-2-2	Eurostat, EU-SILC	
	고용	고용율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국가별, 근로형태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2		
				표 14-3-3		
	실업률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4			
	재정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14-4-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금급여		표 14-4-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표 14-4-3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국가별,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4-4-4		
				표 14-4-5		
				표 14-4-6		
				표 14-4-7		
				표 14-4-8		
				표 14-4-9		
	복지	빈곤위험률	국가별, 장애여부	표 14-5-1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정신건강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6-1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인구 10만명 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국가별	표 14-6-2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국가별, 의료공급기관 별	표 14-6-3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국가별, 연도별, 정신질환 별	표 14-6-4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표 14-6-5						

## (2) 프랑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프랑스	장애인구	정의에 따른 장애인구	장애의미별	표 15-1-1	장애인 고용과 실업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별	표 15-1-2		
		장애인 출현율	성별, 연령별	표 15-1-3		
	교육	장애정의별 교육 수준	장애정의별, 성별	표 15-2-1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별	표 15-2-2		
		구직자 교육 수준	연도별	표 15-2-3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성별	표 15-2-4		
			연도별, 장애의미별, 경제활동상태별	표 15-2-5	장애인 고용과 실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연도별, 근로자 인정방식별	표 15-3-1 표 15-3-2		
	고용	고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직급별, 고용소속별, 고용상태별, 근로시간별, 종사업종별	표 15-3-3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연도별, 근로자 인정방식별	표 15-3-4		
			성별, 연령별, 경력별, 직급별, 고용상태별, 근로시간별, 종사업종별	표 15-3-5 표 15-3-6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성별, 연령별, 직급별, 근속기간별	표 15-3-7		
			기업규모별, 활동분야별	표 15-3-8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성별, 연령별, 직급별	표 15-3-9		
			공공기업체별	표 15-3-10	장애인 고용과 실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	
		실업 및 구직	연도별, 장애의미별	표 15-3-11		
			성별, 연령별	표 15-3-12	장애인 고용과 실업 주요통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5-3-13		
			연도별, 구직기간별	표 15-3-14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연도별, 종사업종별	표 15-3-15		
	재정	장애인복지 지출	연도별	표 15-4-1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보고서	
			연도별, 서비스형태별	표 15-4-2	장애 보상 수당 분석	
	복지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	연령별, 연도별	표 15-5-1	삶, 소득수준	
		장애인구 빈곤율	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5-5-2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 기능에 따른 차이	
		성인장애수당(AAH)	연도별	표 15-5-3	2007-2013년 성인장애수당(AA H) 관련 MDPH 활동통계보고서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족상황별, 장애인정률	표 15-5-4	사회기초수당조사	
			연도별	표 15-5-5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정신건강	정신건강관련 시설	연도별, 시설유형별	표 15-6-1 표 15-6-2	정신질환돌봄·치료 지역적분포,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연도별, 치료유형별	표 15-6-3		



### (3) 독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독일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연도별,성별,연령별	표 16-1-1	연방건강보고, 중증장애인통계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 유형별	표 16-1-2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3			
			연도별, 장애원인별	표 16-1-4			
	교육	특수교육	연도별	표 16-2-1	독일에서의 통합-정보와 요소, 교육문화부 장관협의회와 통계적 출판 - 학교에서의 특수 교육적 지원 - 세밀한 분석		
			연도별, 장소별	표 16-2-2			
			연도별, 지원영역별	표 16-2-3			
			연도별	표 16-2-4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연도별	표 16-3-1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연방노동에이전트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	표 16-3-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표 16-3-3			
			민간, 공공부문별	표 16-3-4			
		고용 관련 지출	지출항목별	표 16-3-5	연방노동에이전트 통합청연례보고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연도별	표 16-3-6	BIH 연례보고서		
			성별, 연령별, 국적별	표 16-3-7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기간별, 연령별	표 16-3-8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재정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6-4-1	재활정보
		복지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연도별, 유형별, 연령별	표 16-5-1	연방건강보고, 사회적 급여 통계-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유형별			표 16-5-2			
	급여내용별			표 16-5-3			
	정신건강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성별, 연령별, 장소별	표 16-6-1	아동 및 청소년 급여의 통계 - 사회법전 제8권 제35조에 따른 편입급여	병원기본통계	
		정신질환관련병원 및 병상수	병원유형별, 연도별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환자 유형별, 병원유형별	표 16-6-3			

## (4) 일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일본	장애인구	전체 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연령별	표 17-1-1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환자조사	-	
			성별, 장애유형별	표 17-1-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표 17-1-3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환자조사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7-1-4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7-1-5			
			연도별, 연령별	표 17-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정도별	표 17-1-7	환자조사		
			연도별, 연령별	표 17-1-8	환자조사		
			성별, 연령별	표 17-1-9			
	교육	특별지원교육	수혜 유형별	표 17-2-1	특별지원교육자료		
			장애별, 학교별	표 17-2-2			
			국립, 공립, 사립	표 17-2-3			
				표 17-2-4			
			교원유형별	표 17-2-5			
		방문교육 및 통급에 의한 지도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17-2-6
				표 17-2-7			
				표 17-2-7-1			
				표 17-2-8			
		특별지원학교 졸업 후 진로	국립, 공립, 사립	표 17-2-9			
				표 17-2-10			
		특별지원교육 관련 예산	출업자의 취직 직업별	표 17-2-11			
				표 17-2-12			
	고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주요지표별	표 17-3-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연도별	표 17-3-2			
			기업규모별	표 17-3-3			
			산업별	표 17-3-4			
			제조업별	표 17-3-5			
			기업규모별	표 17-3-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장애유형별	표 17-3-7			
			주요지표별	표 17-3-8			
			주요지표별	표 17-3-9			
			장애유형별	표 17-3-10			
			주요지표별	표 17-3-11			
장애유형별			표 17-3-12				
주요지표별			표 17-3-13				
장애유형별			표 17-3-14				
주요지표별			표 17-3-15				
장애유형별			표 17-3-16				
주요지표별			표 17-3-17				
장애유형별			표 17-3-18				
공공직업안내소 "Hello Work"		연도별	표 17-3-19				
		장애유형별	표 17-3-20				
장애인 해고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7-3-2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해고이유별	표 17-3-22	2018년 장애인백서			
	재정 재정	장애인사책 관계 예산	연도별	표 17-4-1				
				표 17-4-2				
	복지	거주환경 배리어프리화	연도별	표 17-5-1	2018년 장애인백서, 이동 원활화 실적보고서			
		이동환경 배리어프리화	여객유형별	표 17-5-2				
			차량유형별	표 17-5-3				
				장치유형별	표 17-5-4		2018년 장애인백서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수	연도별	표 17-6-1		환자조사	
	질병별			표 17-6-2				
	연령별			표 17-6-3				
	질병별			표 17-6-4				
	연령별			표 17-6-5				
	질병별			표 17-6-6				
	연령별			표 17-6-7				
	질병별			표 17-6-8				
	연령별			표 17-6-9				
	재원기간별			표 17-6-10				
	입원상황별			표 17-6-11				
	정신질환관련시설			연도별, 유형별	표 17-6-12			의료시설조사
					표 17-6-13			의료시설조사, 병원보고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유형별, 기간별	표 17-6-14	환자조사			

## Ⅱ

# 국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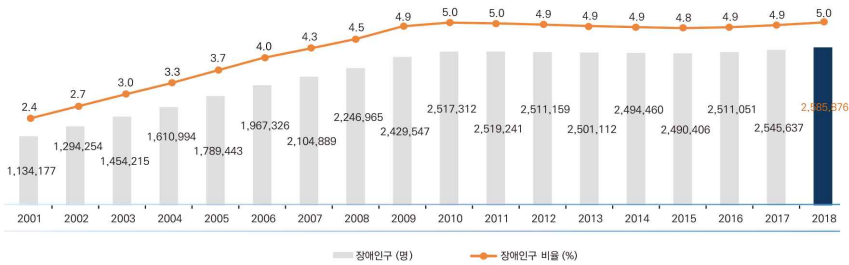
1. 장애인구
2. 건강 및 보건
3. 가족
4. 주거
5. 교육
6. 노동과 직업재활
7. 재정
8. 소득과 소비
9. 문화 및 사회참여
10. 사회보장
11. 인권보호
12. 접근성
13. 재난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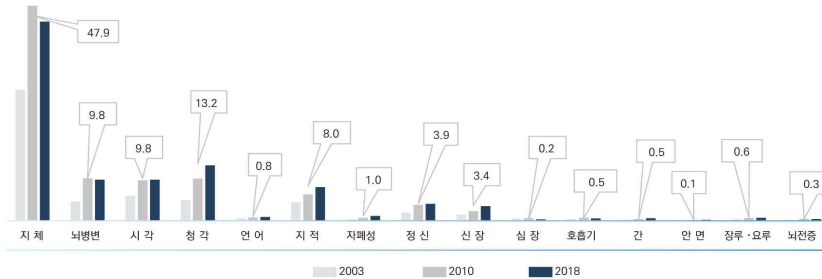
## II. 국내통계

### 1. 장애인구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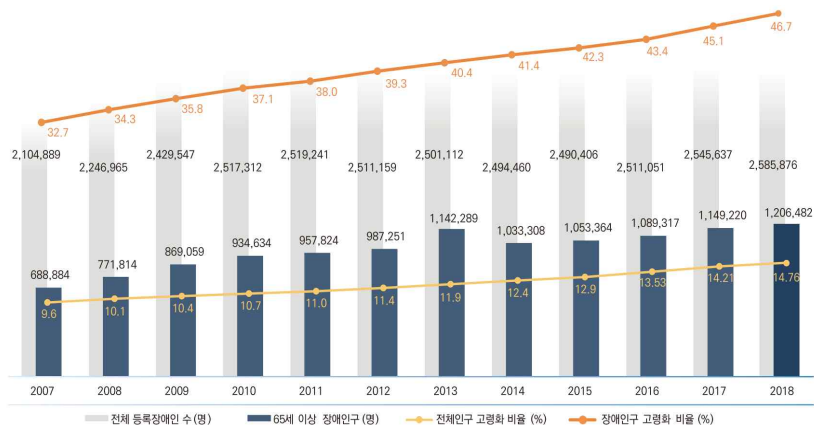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 2018년 전체 등록장애인은 2,585,876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  
 • 등록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7.9%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3.2%, 뇌병변장애 9.8%, 시각장애 9.8% 순임  
 ※※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0.1.) → 15개 유형(2003.7.)



[그림 2-1-3]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585,876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206,482명(46.7%)으로 고령화수준은 2013년 40%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장애인구 중 4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 장애인구

### (1) 등록장애인 수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노년증
2001	1,134,177	682,325	64,950	115,911	105,711	94,951	2,516	32,581	28,118	7,114	-	-	-	-	-	-
2002	1,294,254	754,651	91,998	135,704	123,823	103,640	4,014	39,494	32,094	8,836	-	-	-	-	-	-
2003	1,454,215	813,916	117,514	152,857	126,488	12,837	112,043	5,717	46,883	34,884	10,409	7,039	3,108	673	6,585	3,262
2004	1,610,994	883,296	142,804	170,107	141,908	13,474	119,207	7,740	54,333	38,175	11,634	9,768	4,072	1,114	8,182	5,180
2005	1,789,373	965,014	168,585	189,933	160,565	15,022	127,811	9,518	63,642	41,823	12,807	11,728	5,160	1,490	9,575	6,700
2006	1,967,326	1,049,396	195,253	196,507	182,361	22,794	137,596	10,926	75,058	44,571	13,739	13,035	5,875	1,863	10,461	7,891
2007	2,104,889	1,114,094	214,751	216,881	203,324	14,882	142,589	11,874	81,961	47,509	14,352	14,289	6,329	2,149	11,184	8,721
2008	2,246,965	1,191,013	232,389	228,126	223,102	15,458	146,898	12,954	86,624	50,474	14,732	14,984	6,968	2,337	11,740	9,166
2009	2,429,547	1,293,331	251,818	241,237	245,801	16,249	154,953	13,933	94,776	54,030	15,127	15,860	7,730	2,505	12,437	9,760
2010	2,517,312	1,337,722	261,746	249,259	260,403	17,207	161,249	14,888	95,821	57,142	12,864	15,551	7,920	2,696	13,072	9,772
2011	2,519,241	1,333,429	260,718	251,258	261,067	17,463	167,479	15,857	94,739	60,110	9,542	14,671	8,145	2,715	13,098	8,950
2012	2,511,159	1,322,131	257,797	252,564	258,589	17,743	173,257	16,906	94,638	63,434	7,744	13,879	8,588	2,709	13,374	7,806
2013	2,501,112	1,309,285	253,493	253,095	255,399	17,830	178,866	18,133	95,675	66,551	6,928	13,150	9,194	2,696	13,546	7,271
2014	2,494,460	1,295,608	251,543	252,825	252,779	18,275	184,355	19,524	96,963	70,434	6,401	12,445	9,668	2,689	13,867	7,084
2015	2,490,406	1,281,497	250,862	252,874	250,334	18,813	189,75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2016	2,511,051	1,267,174	250,456	252,794	271,843	19,409	195,283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2017	2,545,637	1,254,130	252,819	252,632	302,003	20,321	200,903	24,698	101,175	83,562	5,399	11,807	11,843	2,692	14,718	6,935
2018	2,585,876	1,238,532	253,083	252,957	342,582	20,744	206,917	26,703	102,140	87,892	5,304	11,761	12,524	2,689	15,027	7,021
	(100.0)	(47.9)	(9.8)	(9.8)	(13.2)	(0.8)	(8.0)	(1.0)	(3.9)	(3.4)	(0.2)	(0.5)	(0.5)	(0.1)	(0.6)	(0.3)

주: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18년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585,876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함
- 등록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7.9%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3.2%, 뇌병변장애 9.8%, 시각장애 9.8% 순임

#### ※※ 장애유형 변천사

- 1982년 2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자(「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조)
- 1990년 12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변경(「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2000년 1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1단계 확대: 5유형 → 10유형)
- 2003년 7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2단계 확대: 10유형 → 15개 유형)
-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2007년 10월 시행),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으로(2014년 6월 시행)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2,585,876 (100.0)	1,238,532 (47.9)	253,083 (9.8)	252,957 (9.8)	342,582 (13.2)	20,744 (0.8)	206,917 (8.0)	26,703 (1.0)	102,140 (3.9)	87,892 (3.4)	5,304 (0.2)	11,761 (0.5)	12,524 (0.5)	2,689 (0.1)	15,027 (0.6)	7,021 (0.3)
남	1,496,298 (57.9)	716,788 (47.9)	145,005 (57.3)	150,315 (58.4)	182,240 (53.2)	14,909 (71.9)	124,746 (60.3)	22,629 (84.7)	52,421 (51.3)	51,520 (58.6)	3,369 (63.5)	8,762 (74.5)	8,925 (71.3)	1,561 (58.1)	9,291 (61.8)	3,817 (54.4)
여	1,089,578 (42.1)	521,744 (42.1)	108,078 (42.7)	102,642 (46.8)	160,342 (28.1)	5,835 (28.1)	82,171 (39.7)	4,074 (15.3)	49,719 (48.7)	36,372 (41.4)	1,935 (36.5)	2,999 (25.5)	3,599 (28.7)	1,128 (41.9)	5,736 (38.2)	3,204 (45.6)
9세 이하	29,209 (1.1)	856 (0.1)	5,653 (2.2)	740 (0.3)	1,905 (0.6)	2,688 (13.0)	10,640 (5.1)	6,291 (23.6)	0 (0.0)	43 (0.0)	97 (1.8)	14 (0.1)	180 (1.4)	5 (0.2)	32 (0.2)	65 (0.9)
10-19세	60,859 (2.4)	3,679 (0.3)	6,728 (2.7)	2,418 (1.0)	2,937 (0.9)	780 (3.8)	33,618 (16.2)	9,479 (35.5)	86 (0.1)	220 (0.3)	309 (5.8)	35 (0.3)	301 (2.4)	62 (2.2)	60 (0.4)	147 (2.1)
20-29세	94,796 (3.7)	13,510 (1.1)	6,786 (2.7)	6,276 (2.5)	4,926 (1.4)	487 (2.3)	48,899 (23.6)	8,741 (32.7)	2,620 (2.6)	1,268 (1.4)	356 (6.7)	74 (0.6)	207 (1.7)	123 (4.6)	82 (0.5)	441 (6.3)
30-39세	135,881 (5.3)	48,320 (3.9)	9,228 (3.6)	14,296 (5.7)	7,002 (2.0)	1,154 (5.6)	37,066 (17.9)	1,937 (7.3)	9,665 (9.5)	4,796 (5.5)	321 (6.1)	165 (1.4)	368 (2.9)	342 (12.7)	237 (1.6)	984 (14.0)
40-49세	266,308 (10.3)	128,884 (10.4)	16,521 (6.5)	28,201 (11.1)	13,592 (4.0)	2,333 (11.2)	32,124 (15.5)	218 (0.8)	26,613 (26.1)	12,752 (14.5)	364 (6.9)	558 (4.7)	1,260 (10.1)	563 (20.9)	594 (4.0)	1,731 (24.7)
50-59세	492,771 (19.1)	273,384 (22.1)	38,089 (15.1)	46,213 (18.3)	33,616 (9.8)	3,747 (18.1)	26,154 (12.6)	29 (0.1)	36,592 (35.8)	23,159 (26.3)	774 (14.6)	1,838 (15.6)	4,339 (34.6)	679 (25.3)	1,994 (13.3)	2,164 (30.8)
60-69세	570,215 (22.1)	319,314 (25.8)	60,607 (23.9)	56,000 (22.1)	57,490 (16.8)	4,444 (21.4)	13,289 (6.4)	7 (0.0)	20,274 (19.8)	23,511 (26.7)	1,244 (23.5)	3,995 (34.0)	4,535 (36.2)	537 (20.0)	3,772 (25.1)	1,196 (17.0)
70-79세	573,031 (22.2)	295,358 (23.8)	70,149 (27.7)	61,317 (24.2)	104,651 (30.5)	3,692 (17.8)	4,199 (2.0)	1 (0.0)	5,446 (5.3)	16,178 (18.4)	1,301 (24.5)	3,939 (33.5)	1,277 (10.2)	304 (11.3)	4,962 (33.0)	257 (3.7)
80세 이상	362,806 (14.0)	155,227 (12.5)	39,322 (15.5)	37,496 (14.8)	116,463 (34.0)	1,419 (6.8)	928 (0.4)	0 (0.0)	844 (0.8)	5,965 (6.8)	538 (10.1)	1,143 (9.7)	57 (0.5)	74 (2.8)	3,294 (21.9)	36 (0.5)
1급	198,281 (7.7)	33,240 (2.7)	55,644 (22.0)	31,697 (12.5)	6,982 (2.0)	98 (0.5)	50,503 (24.4)	10,472 (39.2)	2,098 (2.1)	5,325 (6.1)	120 (2.3)	1,657 (14.1)	207 (1.7)	98 (3.6)	8 (0.1)	132 (1.9)
2급	342,160 (13.2)	62,211 (5.0)	48,292 (19.1)	6,410 (2.5)	44,821 (13.1)	2,174 (10.5)	72,445 (35.0)	12,158 (45.5)	27,815 (27.2)	60,550 (68.9)	637 (12.0)	3,443 (29.3)	249 (2.0)	125 (4.7)	125 (0.8)	409 (5.8)
3급	443,328 (17.1)	149,707 (12.1)	55,847 (22.1)	11,244 (4.4)	43,856 (12.8)	8,402 (40.5)	83,969 (40.6)	4,073 (15.3)	72,227 (70.7)	53 (0.1)	3,637 (68.6)	6,446 (54.8)	469 (3.7)	899 (33.4)	1,232 (8.2)	1,267 (18.0)
4급	385,205 (14.9)	233,449 (18.8)	32,490 (12.8)	13,229 (5.2)	79,934 (23.3)	10,068 (48.5)	0 (0.0)	0 (0.0)	0 (0.0)	794 (0.9)	56 (1.1)	9 (0.1)	389 (3.1)	1,165 (43.3)	9,526 (63.4)	4,096 (58.3)
5급	567,295 (21.9)	357,929 (28.9)	31,105 (12.3)	20,679 (8.2)	118,782 (34.7)	2 (0.0)	0 (0.0)	0 (0.0)	0 (0.0)	21,170 (24.1)	854 (16.1)	206 (1.8)	11,210 (89.5)	105 (3.9)	4,136 (27.5)	1,117 (15.9)
6급	649,607 (25.1)	401,996 (32.5)	29,705 (11.7)	169,698 (67.1)	48,207 (14.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0 (0.0)

주: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등록 장애인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은 57.9%로 여성 등록장애인 42.1%보다 15.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70-79세가 22.2%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가 22.1%, 50-59세가 19.1%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6급이 25.1%로 가장 높으며, 5급 21.9%, 3급 17.1% 순임

※※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표 1-1-3〉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비율
2001	48,021,543	1,134,177	2.4
2002	48,229,948	1,294,254	2.7
2003	48,386,823	1,454,215	3.0
2004	48,583,805	1,610,994	3.3
2005	48,782,274	1,789,443	3.7
2006	48,991,779	1,967,326	4.0
2007	49,268,928	2,104,889	4.3
2008	49,540,367	2,246,965	4.5
2009	49,773,145	2,429,547	4.9
2010	50,515,666	2,517,312	5.0
2011	50,734,284	2,519,241	5.0
2012	50,948,272	2,511,159	4.9
2013	51,141,463	2,501,112	4.9
2014	51,327,916	2,494,460	4.9
2015	51,529,338	2,490,406	4.8
2016	51,696,216	2,511,051	4.9
2017	51,778,544	2,545,637	4.9
2018	51,826,059	2,585,876	5.0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비율은 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장애인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그러나 최근 4년간(2015-2018년)은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585,876명으로 전체인구(51,778,544명) 대비 약 5.0%임.



## (2) 장애인 출현율

〈표 1-1-4〉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복장애
2011	5.61	2.72	0.59	0.51	0.50	0.04	0.28	0.01	0.23	0.10	0.04	0.04	0.02	0.00	0.03	0.02	0.48
2014	5.59	2.71	0.48	0.53	0.50	0.03	0.36	0.02	0.23	0.12	0.02	0.03	0.02	0.01	0.03	0.01	0.49
2017	5.39	2.51	0.52	0.51	0.52	0.03	0.38	0.03	0.22	0.15	0.01	0.02	0.02	0.01	0.03	0.02	0.42

주: 1) 2011년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중복 장애를 반영함

2) 2014, 2016년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4년 5.59%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 (3) 장애아동 현황

〈표 1-1-5〉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인구	장애아동 인구	비율
2008	10,655,575	77,594	0.73
2009	10,396,743	81,687	0.79
2010	10,156,455	80,075	0.79
2011	9,921,012	78,186	0.79
2012	9,691,876	76,191	0.79
2013	9,431,699	74,617	0.79
2014	9,186,841	73,195	0.80
2015	8,961,805	72,583	0.81
2016	8,736,051	72,139	0.83
2017	8,480,447	72,260	0.85
2018	8,176,335	72,618	0.89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아동인구(8,176,335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72,618명)는 0.89%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장애아동 인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2018년 까지 소폭 증가함. 반면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 추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0.79%로 유지되다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함.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감소폭이 장애아동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표 1-1-6〉 장애아동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72,618 (100.0)	3,142 (4.3)	10,635 (14.6)	2,370 (3.3)	4,025 (5.5)	3,309 (4.6)	34,557 (47.6)	13,331 (18.4)	24 (0.0)	183 (0.3)	295 (0.4)	40 (0.1)	409 (0.6)	46 (0.1)	79 (0.1)	173 (0.2)
남	47,681 (65.7)	1,863 (59.3)	6,008 (56.5)	1,364 (57.6)	2,170 (53.9)	2,315 (70.0)	22,213 (64.3)	11,073 (83.1)	13 (54.2)	112 (61.2)	178 (60.3)	27 (67.5)	179 (43.8)	20 (43.5)	45 (57.0)	101 (58.4)
여	24,937 (34.3)	1,279 (40.7)	4,627 (43.5)	1,006 (42.4)	1,855 (46.1)	994 (30.0)	12,344 (35.7)	2,258 (16.9)	11 (45.8)	71 (38.8)	117 (39.7)	13 (32.5)	230 (56.2)	26 (56.5)	34 (43.0)	72 (41.6)
0-13세	48,247 (66.4)	1,654 (52.6)	7,945 (74.7)	1,357 (57.3)	2,849 (70.8)	3,022 (91.3)	20,875 (60.4)	9,809 (73.6)	2 (8.3)	92 (50.3)	165 (55.9)	25 (62.5)	285 (69.7)	15 (32.6)	49 (62.0)	103 (59.5)
14-17세	24,371 (33.6)	1,488 (47.4)	2,690 (25.3)	1,013 (42.7)	1,176 (29.2)	287 (8.7)	13,682 (39.6)	3,522 (26.4)	22 (91.7)	91 (49.7)	130 (44.1)	15 (37.5)	124 (30.3)	31 (67.4)	30 (38.0)	70 (40.5)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7.6%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18.4%, 뇌병변장애 14.6% 순임
- 성별로는 남성 장애아동은 65.7%로 여성 장애아동 34.3%보다 31.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아동기에 해당되는 0-13세가 66.4%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4-17세 33.6%보다 32.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표 1-1-7〉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등록장애인 수	65세 이상 장애인구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
2007	2,104,889	688,884	32.7	9.9
2008	2,246,965	771,814	34.3	10.2
2009	2,429,547	869,059	35.8	10.6
2010	2,517,312	934,634	37.1	10.9
2011	2,519,241	957,824	38.0	11.2
2012	2,511,159	987,251	39.3	11.7
2013	2,501,112	1,142,289	45.7	12.2
2014	2,494,460	1,033,308	41.4	12.7
2015	2,490,406	1,053,364	42.3	13.2
2016	2,511,051	1,089,317	43.4	13.5
2017	2,545,637	1,149,910	45.2	14.2
2018	2,585,876	1,206,482	46.7	14.8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용어조희 '고령화율')이므로 전체 등록장애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구로 비율을 구성하였음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2)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585,876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206,482명(46.7%)으로 고령화수준은 2013년 40%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장애인구 중 4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고령화는 1956년 UN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 사용한 용어로 각 국가의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져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충격을 줄 만큼 기형적인 연령 구조를 말함.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함(권혁남, 전상길, 2009, 고령자의 고용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관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 지역연구 18권 2호, 여름 pp.39-78)



〈표 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206,482 (100.0)	600,150 (49.7)	140,265 (11.6)	126,738 (10.5)	252,132 (20.9)	7,204 (0.6)	9,655 (0.8)	1 (0.0)	13,290 (1.1)	32,617 (2.7)	2,488 (0.2)	7,220 (0.6)	3,154 (0.3)	608 (0.1)	10,282 (0.9)	678 (0.1)
남	571,672 (47.4)	256,218 (42.7)	70,411 (50.2)	64,261 (50.7)	130,391 (51.7)	5,194 (72.1)	5,220 (54.1)	1 (100.0)	5,543 (41.7)	18,016 (55.2)	1,574 (63.3)	5,792 (80.2)	2,141 (67.9)	306 (50.3)	6,251 (60.8)	353 (52.1)
여	634,810 (52.6)	343,932 (57.3)	69,854 (49.8)	62,477 (49.3)	121,741 (48.3)	2,010 (27.9)	4,435 (45.9)	0 (0.0)	7,747 (58.3)	14,601 (44.8)	914 (36.7)	1,428 (19.8)	1,013 (32.1)	302 (49.7)	4,031 (39.2)	325 (47.9)
65-74세	547,167 (45.4)	295,519 (49.2)	63,833 (45.5)	58,034 (45.8)	75,032 (29.8)	3,965 (55.0)	7,064 (73.2)	1 (100.0)	10,599 (79.8)	19,291 (59.1)	1,319 (53.0)	4,279 (59.3)	2,825 (89.6)	426 (70.1)	4,416 (42.9)	564 (83.2)
75세 이상	659,315 (54.6)	304,631 (50.8)	76,432 (54.5)	68,704 (54.2)	177,100 (70.2)	3,239 (45.0)	2,591 (26.8)	0 (0.0)	2,691 (20.2)	13,326 (40.9)	1,169 (47.0)	2,941 (40.7)	329 (10.4)	182 (29.9)	5,866 (57.1)	114 (16.8)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고령장애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9.7%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20.9%, 뇌병변장애 11.6% 순임

- 성별로는 여성 고령장애인은 52.6%로 남성 고령장애인 47.4%보다 5.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74세가 45.4%, 75세 이상이 54.6%로 나타남

## (5) 장애등급심사

〈표 1-1-9〉 장애등급심사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총계	등급결정							등급 외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누계	2,118,244 (100.0)	1,783,461 (84.2)	194,790 (9.2)	470,195 (22.2)	406,547 (19.2)	205,323 (9.7)	250,718 (11.8)	255,887 (12.1)	299,102 (14.1)	5,567 (0.3)	30,114 (1.4)
2007	15,204 (100.0)	14,414 (94.8)	3,459 (22.8)	6,874 (45.2)	3,541 (23.3)	303 (2.0)	163 (1.1)	74 (0.5)	370 (2.4)	29 (0.2)	391 (2.6)
	26,683 (100.0)	25,113 (94.1)	5,511 (20.7)	12,282 (46.0)	5,904 (22.1)	812 (3.0)	423 (1.6)	181 (0.7)	811 (3.0)	71 (0.3)	688 (2.6)
2008	37,230 (100.0)	35,365 (95.0)	7,138 (19.2)	18,938 (50.9)	7,505 (20.2)	1,129 (3.0)	470 (1.3)	185 (0.5)	916 (2.5)	155 (0.4)	794 (2.1)
	163,943 (100.0)	152,058 (92.8)	35,121 (21.4)	54,340 (33.1)	46,673 (28.5)	9,469 (5.8)	3,455 (2.1)	3,000 (1.8)	7,996 (4.9)	837 (0.5)	3,052 (1.9)
2009	211,371 (100.0)	169,602 (80.2)	21,298 (10.1)	40,465 (19.1)	50,087 (23.7)	17,918 (8.5)	17,214 (8.1)	22,620 (10.7)	36,653 (17.3)	1,325 (0.6)	3,791 (1.8)
	239,854 (100.0)	192,725 (80.4)	19,519 (8.1)	42,740 (17.8)	51,309 (21.4)	21,808 (9.1)	23,999 (10.0)	33,350 (13.9)	42,104 (17.6)	762 (0.3)	4,263 (1.8)
2010	232,655 (100.0)	189,433 (81.4)	17,657 (7.6)	44,820 (19.3)	49,421 (21.2)	22,038 (9.5)	23,406 (10.1)	32,091 (13.8)	39,102 (16.8)	656 (0.3)	3,464 (1.5)
	237,548 (100.0)	194,902 (82.0)	17,615 (7.4)	48,751 (20.5)	51,725 (21.8)	22,278 (9.4)	22,904 (9.6)	31,629 (13.3)	38,405 (16.2)	768 (0.3)	3,473 (1.5)
2011	226,931 (100.0)	189,157 (83.4)	17,607 (7.8)	49,342 (21.7)	47,138 (20.8)	21,376 (9.4)	23,001 (10.1)	30,692 (13.5)	34,501 (15.2)	289 (0.1)	2,984 (1.3)
	236,419 (100.0)	200,617 (84.9)	18,109 (7.7)	51,001 (21.6)	33,890 (14.3)	28,579 (12.1)	36,237 (15.3)	32,801 (13.9)	33,207 (14.0)	130 (0.1)	2,465 (1.0)
2012	237,330 (100.0)	203,844 (85.9)	17,242 (7.3)	48,981 (20.6)	30,135 (12.7)	29,439 (12.4)	43,878 (18.5)	34,169 (14.4)	31,021 (13.1)	227 (0.1)	2,238 (0.9)
	253,076 (100.0)	216,231 (85.4)	14,514 (5.7)	51,661 (20.4)	29,219 (11.5)	30,174 (11.9)	55,568 (22.0)	35,095 (13.9)	34,016 (13.4)	318 (0.1)	2,511 (1.0)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 등급 심사건수는 253,076건, 등급외 판정 비율은 13.9%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 등급 심사는 총 2,118,244건이 있었고, 이 중 84.2%(1,783,461명)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 중에서는 2급의 비율이 22.2%로 가장 높고 3급이 19.2%, 6급이 12.1% 순임



〈표 1-1-10〉 장애등급심사 - 장애유형별

구분	총계	등급결정							등급 외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2,118,244 (100.0)	1,783,457 (84.2)	194,790 (9.2)	470,201 (22.2)	406,541 (19.2)	205,320 (9.7)	250,725 (11.8)	255,880 (12.1)	299,107 (14.1)	5,566 (0.3)	30,114 (1.4)
뇌병변 (89.8)	392,449 (100.0)	352,556 (89.8)	89,033 (22.7)	49,631 (12.6)	62,094 (15.8)	52,187 (13.3)	52,196 (13.3)	47,415 (12.1)	33,504 (8.5)	1,293 (0.3)	5,096 (1.3)
지체 (61.9)	432,626 (100.0)	267,677 (61.9)	13,920 (3.2)	17,085 (3.9)	20,324 (4.7)	46,120 (10.7)	53,963 (12.5)	116,265 (26.9)	160,392 (37.1)	621 (0.1)	3,936 (0.9)
정신 (87.8)	282,209 (100.0)	247,900 (87.8)	2,818 (1.0)	73,923 (26.2)	171,159 (60.6)	-	-	-	28,073 (9.9)	271 (0.1)	5,965 (2.1)
지적 (94.8)	195,718 (100.0)	185,457 (94.8)	37,122 (19.0)	64,988 (33.2)	83,347 (42.6)	-	-	-	9,007 (4.6)	947 (0.5)	307 (0.2)
신장 (99.7)	214,231 (100.0)	213,622 (99.7)	2 (0.0)	20,015 (9.2)	-	-	7,605 (3.5)	-	79 (0.0)	8 (0.0)	522 (0.2)
시각 (86.6)	145,958 (100.0)	126,342 (86.6)	23,336 (16.0)	4,067 (2.8)	7,025 (4.8)	11,320 (7.8)	14,941 (10.2)	65,653 (45.0)	14,324 (9.8)	1,240 (0.8)	4,052 (2.8)
청각 (91.3)	242,671 (100.0)	221,528 (91.3)	3 (0.0)	19,100 (7.9)	17,953 (7.4)	52,570 (21.7)	105,360 (43.4)	26,542 (10.9)	19,736 (8.1)	124 (0.1)	1,283 (0.5)
중복 (98.0)	32,401 (100.0)	31,758 (98.0)	11,810 (36.4)	9,414 (29.1)	7,461 (23.0)	2,743 (8.5)	325 (1.0)	5 (0.0)	525 (1.6)	41 (0.1)	77 (0.2)
자폐성 (94.8)	33,923 (100.0)	32,173 (94.8)	12,031 (35.5)	15,643 (46.1)	4,499 (13.3)	-	-	-	1,704 (5.0)	28 (0.1)	18 (0.1)
뇌진증 (64.1)	28,286 (100.0)	18,118 (64.1)	-	1,068 (3.8)	2,983 (10.5)	11,179 (39.5)	2,888 (10.2)	-	7,603 (26.9)	66 (0.2)	2,499 (8.8)
호흡기 (75.8)	27,306 (100.0)	20,704 (75.8)	3,854 (14.1)	6,356 (23.3)	10,271 (37.6)	-	223 (0.8)	-	4,393 (16.1)	483 (1.8)	1,726 (6.3)
언어 (78.0)	33,908 (100.0)	26,435 (78.0)	-	(0.0)	13,132 (38.7)	13,303 (39.2)	-	-	5,010 (14.8)	362 (1.1)	2,101 (6.2)
장루·요루 (91.7)	22,583 (100.0)	20,706 (91.7)	-	162 (0.7)	1,019 (4.5)	15,708 (69.6)	3,817 (16.9)	-	517 (2.3)	2 (0.0)	1,358 (6.0)
심장 (34.7)	16,034 (100.0)	5,562 (34.7)	160 (1.0)	928 (5.8)	3,734 (23.3)	-	740 (4.6)	-	9,798 (61.1)	50 (0.3)	624 (3.9)
간 (76.1)	16,055 (100.0)	12,216 (76.1)	701 (4.4)	1,726 (10.8)	1,366 (8.5)	-	8,423 (52.5)	-	3,274 (20.4)	30 (0.2)	535 (3.3)
안면 (37.3)	1,886 (100.0)	703 (37.3)	-	95 (5.0)	174 (9.2)	190 (10.1)	244 (12.9)	-	1,168 (61.9)	-	15 (0.8)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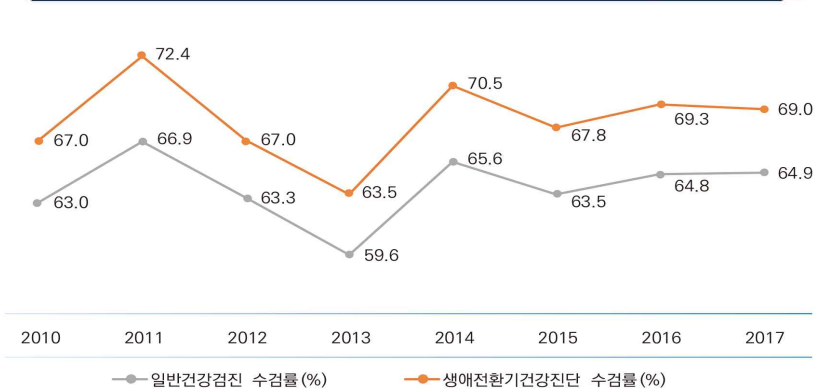
-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장애 34.7%, 안면장애 37.3%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를 인정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적, 신장, 청각, 자폐성,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인정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심사: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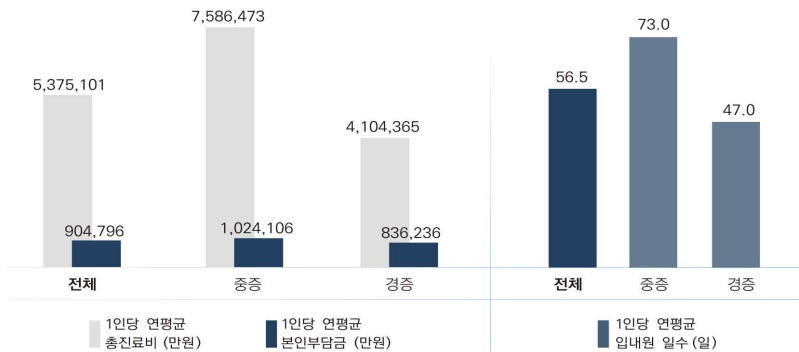
- 2007년 4월부터 의사중심의 장애등급심사 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로 변경됨

## 2. 건강 및 보건

[그림 2-2-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그림 2-2-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연도별로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의 변화 추이는 비슷함
  - 201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4.9%로 2016년에 비해 0.1%p 증가한 반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69.0%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함
- 2017년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5,375,101원이며, 본인부담금은 904,796원임.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47.0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입내원 일수 모두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 건강상태

##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옷 입고 벗기	지원 불필요	80.7	89.4	44.0	86.3	92.5	83.8	49.3	23.3
	일부 지원필요	11.8	6.5	24.3	10.6	5.3	11.9	37.6	55.2
	상당 지원필요	4.8	2.9	16.3	2.5	1.7	4.3	10.2	18.7
	전적 지원필요	2.7	1.1	15.5	0.6	0.5	0.0	2.9	2.9
세수하기	지원 불필요	75.6	84.6	32.4	84.0	89.2	73.4	47.1	19.6
	일부 지원필요	13.8	9.1	27.8	12.2	5.8	22.3	33.7	45.3
	상당 지원필요	6.8	4.6	19.5	3.1	3.5	4.3	14.6	22.5
	전적 지원필요	3.9	1.8	20.3	0.7	1.4	0.0	4.6	12.7
안치질 하기	지원 불필요	89.2	96.3	67.9	94.8	95.4	92.9	58.8	32.2
	일부 지원필요	6.5	1.9	12.0	4.2	4.0	6.6	31.6	42.8
	상당 지원필요	2.3	1.1	8.5	0.9	0.4	0.6	6.6	18.0
	전적 지원필요	1.9	0.7	11.7	0.2	0.1	0.0	3.1	6.9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97.2	99.1	82.5	99.5	99.4	97.0	98.0	96.4
	일부 지원필요	1.2	0.5	6.7	0.3	0.5	0.0	0.7	3.6
	상당 지원필요	0.5	0.0	3.5	0.2	0.1	3.0	0.9	0.0
	전적 지원필요	1.1	0.4	7.3	0.0	0.0	0.0	0.4	0.0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1.9	96.7	68.8	92.7	97.8	88.7	82.7	76.8
	일부 지원필요	4.9	2.3	13.2	5.3	2.1	10.7	13.9	15.9
	상당 지원필요	1.8	0.6	9.1	2.0	0.1	0.6	2.0	6.4
	전적 지원필요	1.3	0.4	8.9	0.0	0.1	0.0	1.5	0.9
체위변경 하기	지원 불필요	94.5	96.0	73.1	99.2	98.0	100.0	98.7	96.9
	일부 지원필요	3.1	2.6	12.5	0.6	1.5	0.0	0.6	3.1
	상당 지원필요	1.2	0.7	6.9	0.1	0.5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1.2	0.6	7.5	0.1	0.1	0.0	0.7	0.0
일어나 앉기	지원 불필요	92.1	94.0	66.2	96.9	96.7	100.0	97.3	94.5
	일부 지원필요	4.5	3.7	15.6	2.7	2.5	0.0	1.5	5.5
	상당 지원필요	1.7	1.3	8.2	0.3	0.7	0.0	0.3	0.0
	전적 지원필요	1.7	1.0	10.0	0.1	0.1	0.0	1.0	0.0
움켜 앉기	지원 불필요	93.0	94.1	71.5	98.6	97.6	100.0	96.4	91.3
	일부 지원필요	4.4	4.6	13.3	1.0	1.7	0.0	2.6	8.7
	상당 지원필요	1.3	0.6	7.6	0.3	0.7	0.0	0.6	0.0
	전적 지원필요	1.2	0.7	7.7	0.1	0.0	0.0	0.4	0.0
방 밖으로 나가기	지원 불필요	75.2	75.5	32.0	82.0	87.1	80.1	90.7	86.6
	일부 지원필요	17.2	18.6	36.3	13.3	10.8	19.9	5.2	11.6
	상당 지원필요	3.7	2.8	12.6	4.0	1.4	0.0	2.3	1.7
	전적 지원필요	3.9	3.1	19.1	0.7	0.7	0.0	1.8	0.0
화장실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68.8	72.9	25.8	76.5	82.5	78.0	60.6	46.9
	일부 지원필요	19.9	20.0	35.4	13.9	13.3	13.8	22.7	20.8
	상당 지원필요	6.8	4.2	17.3	8.1	3.1	4.1	11.9	29.0
	전적 지원필요	4.5	2.9	21.5	1.6	1.2	4.1	4.8	3.3
대변 조절하기	지원 불필요	91.5	95.9	69.2	96.9	96.7	99.4	81.7	66.4
	일부 지원필요	3.4	1.6	8.6	2.3	2.2	0.0	11.1	19.3
	상당 지원필요	2.9	1.1	11.4	0.6	0.9	0.6	4.9	11.5
	전적 지원필요	2.2	1.4	10.9	0.1	0.2	0.0	2.4	2.9
소변 조절하기	지원 불필요	91.6	51.1	69.3	96.2	93.9	100.0	86.5	81.1
	일부 지원필요	3.8	28.1	9.8	2.8	3.9	0.0	7.8	14.3
	상당 지원필요	2.4	19.1	10.1	0.7	1.9	0.0	3.7	1.7
	전적 지원필요	2.2	32.2	10.8	0.3	0.3	0.0	2.1	2.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화장실사용하기'가 68.8%, '방밖으로 나가기'가 75.2%, '세수하기'가 75.6%로 다른 항목에 비해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옷 입고 벗기	지원 불필요	83.9	91.6	94.6	84.0	98.3	100.0	95.1	89.8
	일부 지원필요	14.8	4.6	5.4	11.8	0.0	0.0	4.0	10.2
	상당 지원필요	0.6	3.7	0.0	3.7	0.0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0.7	0.1	0.0	0.4	1.7	0.0	0.8	0.0
세수하기	지원 불필요	79.7	84.1	94.6	73.6	97.4	100.0	82.8	89.8
	일부 지원필요	18.3	8.7	5.4	17.5	0.9	0.0	15.4	10.2
	상당 지원필요	1.2	7.1	0.0	8.5	0.0	0.0	0.9	0.0
	전적 지원필요	0.7	0.1	0.0	0.4	1.7	0.0	0.8	0.0
양치질 하기	지원 불필요	86.4	98.6	100.0	92.3	98.3	100.0	99.2	92.1
	일부 지원필요	12.9	0.5	0.0	5.3	0.0	0.0	0.8	7.9
	상당 지원필요	0.6	0.9	0.0	2.5	0.0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0.2	0.0	0.0	0.0	1.7	0.0	0.0	0.0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99.0	100.0	100.0	91.0	100.0	98.4	99.2	100.0
	일부 지원필요	1.0	0.0	0.0	0.0	0.0	1.6	0.8	0.0
	상당 지원필요	0.0	0.0	0.0	1.2	0.0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0.0	0.0	0.0	7.8	0.0	0.0	0.0	0.0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2.5	99.1	100.0	91.1	98.3	100.0	99.2	92.6
	일부 지원필요	5.3	0.9	0.0	7.3	1.7	0.0	0.8	7.4
	상당 지원필요	2.2	0.0	0.0	1.6	0.0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0.0	0.0	0.0	0.0	0.0	0.0	0.0	0.0
체위변경 하기	지원 불필요	99.0	98.1	100.0	91.0	100.0	100.0	99.2	99.5
	일부 지원필요	1.0	1.9	0.0	9.0	0.0	0.0	0.0	0.5
	상당 지원필요	0.0	0.1	0.0	0.0	0.0	0.0	0.8	0.0
	전적 지원필요	0.0	0.0	0.0	0.0	0.0	0.0	0.0	0.0
일어나 앉기	지원 불필요	99.0	95.1	100.0	91.0	100.0	100.0	99.2	99.5
	일부 지원필요	1.0	4.6	0.0	8.5	0.0	0.0	0.0	0.5
	상당 지원필요	0.0	0.2	0.0	0.4	0.0	0.0	0.8	0.0
	전적 지원필요	0.0	0.1	0.0	0.0	0.0	0.0	0.0	0.0
움켜앉기	지원 불필요	99.0	97.4	100.0	92.3	100.0	98.3	99.2	99.5
	일부 지원필요	1.0	2.6	0.0	5.7	0.0	1.7	0.8	0.5
	상당 지원필요	0.0	0.0	0.0	2.1	0.0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0.0	0.1	0.0	0.0	0.0	0.0	0.0	0.0
방 밖으로 나가기	지원 불필요	95.7	81.8	90.4	63.4	97.0	100.0	94.9	93.2
	일부 지원필요	4.1	13.1	9.6	29.7	1.3	0.0	4.3	6.8
	상당 지원필요	0.2	5.0	0.0	6.5	0.0	0.0	0.8	0.0
	전적 지원필요	0.0	0.1	0.0	0.4	1.7	0.0	0.0	0.0
화장실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83.0	76.8	90.4	53.0	96.7	100.0	95.6	81.2
	일부 지원필요	15.4	14.6	9.6	28.4	1.6	0.0	3.6	18.3
	상당 지원필요	1.6	8.5	0.0	18.2	0.0	0.0	0.8	0.5
	전적 지원필요	0.0	0.0	0.0	0.4	1.7	0.0	0.0	0.0
대변 조절하기	지원 불필요	97.5	97.5	100.0	91.9	98.3	100.0	21.5	97.7
	일부 지원필요	1.1	1.4	0.0	3.6	0.0	0.0	8.2	2.3
	상당 지원필요	0.7	1.1	0.0	4.0	0.0	0.0	69.5	0.0
	전적 지원필요	0.6	0.0	0.0	0.4	1.7	0.0	0.8	0.0
소변 조절하기	지원 불필요	97.4	95.6	100.0	90.8	98.3	100.0	59.7	100.0
	일부 지원필요	1.3	2.6	0.0	3.6	0.0	0.0	13.3	0.0
	상당 지원필요	0.7	1.7	0.0	4.0	0.0	0.0	25.0	0.0
	전적 지원필요	0.6	0.1	0.0	1.6	1.7	0.0	2.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적 지원이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지체장애의 '소변조절하기'가 32.2%로 가장 높다.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옷 갈아 입기	지원 불필요	80.7	81.0	80.3	37.7	75.3	86.9	80.1	61.7	92.9
	일부 지원필요	11.8	12.3	11.2	32.6	17.2	8.9	11.3	22.6	5.0
	상당 지원필요	4.8	4.3	5.4	17.2	5.6	2.8	5.4	9.9	1.6
	전적 지원필요	2.7	2.4	3.1	12.5	1.9	1.5	3.2	5.9	0.6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5.6	77.5	73.0	30.2	72.1	84.7	72.4	55.1	88.9
	일부 지원필요	13.8	13.2	14.5	30.7	17.7	9.8	14.7	23.9	7.2
	상당 지원필요	6.8	6.0	7.7	22.2	6.8	3.6	8.3	12.7	3.0
	전적 지원필요	3.9	3.2	4.7	16.9	3.4	1.9	4.7	8.4	0.9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9.2	89.5	88.6	43.2	83.2	94.0	90.0	76.2	97.4
	일부 지원필요	6.5	6.4	6.7	31.3	11.5	3.9	5.6	14.4	1.5
	상당 지원필요	2.3	2.3	2.5	13.7	3.4	1.0	2.4	5.0	0.7
	전적 지원필요	1.9	1.8	2.2	11.8	1.9	1.1	2.0	4.4	0.4
음식물 남기기	지원 불필요	97.2	97.5	96.8	88.5	98.2	98.4	96.6	94.1	99.3
	일부 지원필요	1.2	1.1	1.4	6.2	0.6	0.5	1.6	2.5	0.3
	상당 지원필요	0.5	0.6	0.4	3.1	0.5	0.3	0.5	1.3	0.1
	전적 지원필요	1.1	0.8	1.5	2.2	0.7	0.8	1.3	2.1	0.3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1.9	92.2	91.6	69.3	90.3	95.3	91.2	82.6	97.8
	일부 지원필요	4.9	5.0	4.8	17.7	6.4	2.8	5.4	10.3	1.5
	상당 지원필요	1.8	1.6	2.1	7.6	2.1	0.9	2.0	4.1	0.4
	전적 지원필요	1.3	1.1	1.6	5.4	1.1	1.0	1.4	2.9	0.3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4.5	95.4	93.3	92.0	97.0	96.1	92.6	89.4	97.7
	일부 지원필요	3.1	2.5	3.9	2.5	1.8	2.2	4.3	5.6	1.5
	상당 지원필요	1.2	1.2	1.2	1.4	0.4	1.0	1.6	2.5	0.4
	전적 지원필요	1.2	0.9	1.6	4.1	0.8	0.8	1.5	2.5	0.4
움거 앉기	지원 불필요	92.1	93.6	90.1	88.0	95.4	95.0	89.2	85.2	96.8
	일부 지원필요	4.5	3.6	5.7	3.9	2.4	2.6	6.6	7.7	2.3
	상당 지원필요	1.7	1.5	1.9	2.8	0.8	1.4	2.1	3.6	0.5
	전적 지원필요	1.7	1.3	2.2	5.2	1.3	1.0	2.2	3.6	0.5
앉은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3.0	93.8	92.1	89.5	95.4	95.1	90.9	87.6	96.6
	일부 지원필요	4.4	4.0	5.1	5.0	3.0	3.1	5.9	7.0	2.8
	상당 지원필요	1.3	1.3	1.3	3.2	0.6	1.1	1.6	2.9	0.2
	전적 지원필요	1.2	1.0	1.6	2.3	0.9	0.8	1.6	2.5	0.4
보행	지원 불필요	75.2	80.1	68.6	75.5	88.4	83.8	64.6	65.5	81.4
	일부 지원필요	17.2	13.6	21.9	9.9	5.7	11.6	25.3	19.3	16.0
	상당 지원필요	3.7	2.9	4.8	6.4	2.8	2.4	4.9	6.8	1.6
	전적 지원필요	3.9	3.4	4.7	8.2	3.2	2.3	5.2	8.4	1.0
이동	지원 불필요	68.8	73.9	62.0	54.3	75.2	79.3	59.6	53.8	78.4
	일부 지원필요	19.9	16.5	24.6	12.4	13.7	14.4	26.5	24.0	17.5
	상당 지원필요	6.8	6.0	7.8	17.8	7.3	3.8	8.2	12.0	3.2
	전적 지원필요	4.5	3.6	5.7	15.5	3.7	2.4	5.7	10.1	0.9
배변	지원 불필요	91.5	92.0	90.8	63.1	90.8	95.6	90.3	83.4	96.8
	일부 지원필요	3.4	3.4	3.3	14.9	5.1	1.3	3.7	6.6	1.2
	상당 지원필요	2.9	2.8	3.1	13.7	2.1	1.8	3.4	5.3	1.4
	전적 지원필요	2.2	1.8	2.8	8.3	2.1	1.3	2.5	4.6	0.6
배뇨	지원 불필요	91.6	92.9	89.9	71.8	92.9	95.9	89.1	84.5	96.2
	일부 지원필요	3.8	3.2	4.7	12.3	3.6	1.5	5.2	6.3	2.1
	상당 지원필요	2.4	2.3	2.6	7.3	1.6	1.4	3.1	4.6	1.0
	전적 지원필요	2.2	1.7	2.9	8.6	1.9	1.2	2.6	4.6	0.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성별에 따른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주요 항목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7세 이하에서 '목욕하기' 16.9%, '옷 갈아 입기' 12.5%, '구강청결' 11.80% 로 각 항목에서의 자립정도가 다른 연령대 보다 낮음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7.6	91.9	59.8	82.7	54.6	53.1	35.9	22.0
	일부 지원필요	12.6	6.1	17.3	12.9	27.2	14.1	30.5	21.7
	상당 지원필요	4.9	1.2	7.3	2.7	10.4	20.9	18.0	34.3
	전적 지원필요	4.8	0.8	15.6	1.7	7.7	11.9	15.5	22.0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72.4	84.6	40.1	80.8	77.6	58.1	23.1	8.1
	일부 지원필요	13.6	9.1	20.8	10.5	15.0	27.8	32.8	20.1
	상당 지원필요	7.9	4.0	17.9	5.6	5.0	9.3	24.5	43.3
	전적 지원필요	6.1	2.3	21.2	3.1	2.4	4.8	19.6	28.5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3.6	74.5	23.0	73.5	75.8	66.4	23.1	13.2
	일부 지원필요	18.2	16.0	24.3	13.9	14.3	20.0	29.4	13.0
	상당 지원필요	10.7	6.3	23.3	8.1	6.6	12.9	29.8	35.6
	전적 지원필요	7.5	3.2	29.4	4.5	3.3	0.7	17.7	38.2
집안일	지원 불필요	62.3	71.1	21.5	74.5	77.7	71.2	26.9	11.5
	일부 지원필요	20.6	18.0	27.7	13.4	13.5	15.2	40.8	34.3
	상당 지원필요	9.7	7.3	20.7	7.7	5.6	12.9	18.4	26.9
	전적 지원필요	7.4	3.6	30.1	4.4	3.2	0.7	13.9	27.4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3.7	73.4	24.2	75.1	77.1	67.4	27.0	11.5
	일부 지원필요	19.2	16.4	25.0	13.6	14.6	19.0	35.7	30.6
	상당 지원필요	9.6	6.7	21.6	6.7	5.1	9.2	22.3	23.8
	전적 지원필요	7.4	3.6	29.2	4.6	3.2	4.4	15.0	34.1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5.2	95.3	61.2	87.6	91.8	88.2	41.9	22.6
	일부 지원필요	9.8	3.1	18.4	10.2	6.6	11.2	42.2	36.4
	상당 지원필요	2.4	0.9	8.2	1.7	1.3	0.7	8.1	16.4
	전적 지원필요	2.6	0.7	12.2	0.5	0.4	0.0	7.8	24.6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1.9	86.4	43.3	77.5	79.0	60.4	11.7	6.2
	일부 지원필요	13.4	9.1	19.7	12.1	12.9	15.1	27.4	17.9
	상당 지원필요	7.5	2.7	13.9	7.6	5.1	16.0	29.2	29.3
	전적 지원필요	7.3	1.8	23.0	2.8	2.9	8.5	31.7	46.5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2.7	74.2	23.0	73.5	70.7	61.5	21.5	6.7
	일부 지원필요	17.9	14.7	22.3	13.3	19.5	20.2	31.6	26.4
	상당 지원필요	10.0	6.3	23.1	7.5	6.2	13.5	22.7	36.8
	전적 지원필요	9.4	4.8	31.6	5.7	3.6	4.8	24.3	3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유형이 평균적으로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짐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4.6	95.4	99.3	92.1	95.1	98.4	96.9	86.4
	일부 지원필요	15.9	3.6	0.0	6.2	3.2	1.6	2.3	6.2
	상당 지원필요	5.0	1.0	0.7	1.7	0.0	0.0	0.8	7.4
	전적 지원필요	4.5	0.0	0.0	0.0	1.7	0.0	0.0	0.0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66.3	87.1	89.7	72.2	93.1	100.0	92.8	79.6
	일부 지원필요	20.4	6.9	4.9	20.6	5.2	0.0	5.5	13.0
	상당 지원필요	8.0	5.0	5.4	5.6	0.0	0.0	0.9	7.4
	전적 지원필요	5.4	1.0	0.0	1.7	1.7	0.0	0.8	0.0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56.3	62.4	65.5	49.0	88.0	100.0	72.6	75.3
	일부 지원필요	25.3	26.3	17.7	27.3	9.1	0.0	22.9	15.0
	상당 지원필요	12.5	9.0	16.9	19.3	1.2	0.0	3.6	9.7
	전적 지원필요	5.9	2.3	0.0	4.5	1.7	0.0	0.8	0.0
집안일	지원 불필요	57.8	59.9	60.2	41.3	91.1	98.3	71.9	80.3
	일부 지원필요	29.1	26.8	22.9	41.9	3.7	1.7	23.5	8.9
	상당 지원필요	8.3	9.5	16.9	10.7	3.5	0.0	3.8	10.7
	전적 지원필요	4.8	3.8	0.0	6.1	1.7	0.0	0.8	0.0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57.4	62.8	54.1	45.1	88.6	98.3	65.8	80.3
	일부 지원필요	29.0	25.8	31.2	31.9	8.0	1.7	29.6	8.9
	상당 지원필요	8.8	8.2	14.7	17.3	1.7	0.0	3.8	10.7
	전적 지원필요	4.8	3.3	0.0	5.6	1.7	0.0	0.8	0.0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74.5	94.6	100.0	89.4	98.3	100.0	98.2	82.5
	일부 지원필요	22.7	4.4	0.0	8.5	0.0	0.0	1.0	17.5
	상당 지원필요	1.1	0.1	0.0	2.1	1.7	0.0	0.0	0.0
	전적 지원필요	1.8	0.9	0.0	0.0	0.0	0.0	0.8	0.0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49.2	86.7	79.6	84.1	95.1	85.8	93.6	70.2
	일부 지원필요	30.4	6.7	20.4	13.8	3.2	14.2	4.8	21.4
	상당 지원필요	12.7	4.3	0.0	0.0	0.0	0.0	0.8	8.5
	전적 지원필요	7.8	2.3	0.0	2.1	1.7	0.0	0.8	0.0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56.7	72.1	89.0	44.4	98.1	98.3	81.2	74.1
	일부 지원필요	28.3	15.1	5.6	30.1	0.2	1.7	13.9	15.8
	상당 지원필요	8.6	8.2	5.4	14.0	0.0	0.0	4.1	10.2
	전적 지원필요	6.5	4.7	0.0	11.6	1.7	0.0	0.8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7.6	80.2	74.2	38.7	71.3	88.1	73.8	60.1	88.8	77.8
	일부 지원필요	12.6	10.8	15.0	20.5	15.6	6.1	16.4	19.2	8.5	12.6
	상당 지원필요	4.9	4.8	5.2	17.5	6.5	3.1	5.1	10.0	1.7	4.9
	전적 지원필요	4.8	4.2	5.6	23.3	6.6	2.7	4.8	10.7	0.9	4.7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72.4	75.2	68.6	24.8	63.4	82.1	70.4	49.3	87.2	72.6
	일부 지원필요	13.6	12.2	15.5	24.0	17.9	9.1	15.2	21.7	8.5	13.6
	상당 지원필요	7.9	7.4	8.5	22.6	10.3	5.9	7.9	15.7	2.9	7.8
	전적 지원필요	6.1	5.1	7.3	28.6	8.4	2.9	6.5	13.3	1.5	6.0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3.6	63.4	63.8	20.0	56.3	74.7	58.5	37.7	79.6	63.8
	일부 지원필요	18.2	18.0	18.6	15.7	18.7	14.0	21.4	26.3	13.5	18.3
	상당 지원필요	10.7	12.0	8.9	25.3	14.5	7.9	11.2	19.5	4.9	10.5
	전적 지원필요	7.5	6.6	8.7	39.0	10.5	3.4	8.8	16.5	1.9	7.4
청소	지원 불필요	62.3	64.5	59.4	21.6	57.5	73.7	56.2	37.9	77.6	62.6
	일부 지원필요	20.6	19.5	22.1	27.1	23.8	15.5	23.4	29.5	15.2	20.6
	상당 지원필요	9.7	9.6	9.8	16.9	10.3	7.1	11.3	16.7	5.1	9.5
	전적 지원필요	7.4	6.4	8.7	34.4	8.4	3.7	9.1	15.8	2.1	7.3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3.7	64.4	62.8	19.0	58.3	75.2	57.9	39.5	78.7	63.9
	일부 지원필요	19.2	19.2	19.3	25.5	21.2	14.2	22.4	27.6	14.4	19.4
	상당 지원필요	9.6	9.7	9.3	18.7	11.5	6.9	10.7	16.7	4.9	9.4
	전적 지원필요	7.4	6.6	8.5	36.8	9.0	3.7	9.0	16.2	2.0	7.3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5.2	85.9	84.3	42.5	74.0	90.9	85.5	67.9	96.0	85.4
	일부 지원필요	9.8	9.3	10.4	25.8	17.8	6.5	9.5	20.9	2.8	9.6
	상당 지원필요	2.4	2.5	2.3	10.8	4.5	1.2	2.5	5.3	0.7	2.5
	전적 지원필요	2.6	2.3	2.9	20.9	3.7	1.4	2.5	5.8	0.5	2.5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1.9	76.2	66.1	17.0	58.2	84.2	69.7	48.4	86.9	72.1
	일부 지원필요	13.4	10.4	17.4	17.1	17.0	7.5	16.7	20.3	8.9	13.3
	상당 지원필요	7.5	7.1	8.0	24.6	12.2	4.7	7.1	15.1	2.7	7.4
	전적 지원필요	7.3	6.4	8.5	41.4	12.7	3.5	6.5	16.2	1.5	7.2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2.7	68.6	54.7	16.7	58.4	76.5	56.0	38.5	78.4	63.0
	일부 지원필요	17.9	15.2	21.5	20.6	18.1	11.8	22.4	23.8	14.0	17.7
	상당 지원필요	10.0	8.5	12.0	24.4	12.5	6.7	11.0	17.6	5.2	9.9
	전적 지원필요	9.4	7.7	11.8	38.4	11.0	5.0	10.6	20.2	2.5	9.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본인 물건 관리하기'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7세 이하의 자립정도가 낮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이란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3) 만성질환

〈표 2-1-5〉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연도별	2011	70.0	68.3	88.1	64.7	70.7	56.1	36.1	20.8
	2014	75.8	75.5	88.1	71.5	76.7	54.0	44.7	37.2
	2017	79.3	81.4	89.4	74.5	79.1	63.8	45.0	36.4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54.5	56.4	70.3	56.1	55.6	38.3	23.1	0.0
	뇌졸중(중풍)	13.6	4.8	75.2	5.0	7.1	28.3	0.0	0.0
	심근경색증	4.3	3.6	8.2	4.8	4.6	0.0	0.0	0.0
	협심증	4.8	5.2	4.8	5.4	5.7	1.7	1.3	0.0
	이상지혈증	18.8	22.3	20.4	18.0	14.9	7.2	7.2	0.0
	당뇨병	25.6	24.9	29.0	29.7	26.0	25.3	14.0	0.0
	갑상선 장애	3.2	3.1	2.1	4.8	2.9	0.0	2.5	0.0
	천식	3.4	3.0	2.6	3.1	5.1	7.7	4.6	0.0
	폐결핵	0.3	0.2	0.3	0.6	0.9	0.0	0.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2.1	1.3	2.9	1.4	3.6	6.6	0.9	0.0
	위십이지장궤양	4.2	4.2	3.0	5.7	5.7	10.0	2.8	0.0
	B형간염	1.9	1.7	1.3	2.2	2.0	0.8	2.2	0.0
	C형간염	0.3	0.2	-	0.5	-	-	-	-
	간경변증	0.7	0.6	0.2	0.8	0.5	0.0	0.0	0.0
	신부전	4.4	0.9	1.1	1.7	1.5	0.0	0.0	0.0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27.6	37.2	17.0	20.4	31.7	12.3	4.0	0.0
	류마티스 관절염	2.7	3.6	1.0	4.2	2.1	0.0	0.0	0.0
	골다공증	10.0	12.9	7.5	10.3	9.4	4.6	1.3	0.0
	척추측만증	2.3	3.0	3.1	0.9	0.9	0.0	1.3	0.0
	허리·목통증	36.0	50.8	22.3	26.6	28.9	18.4	12.6	0.0
	피부염	3.3	3.5	3.4	1.7	4.0	6.4	4.9	1.1
	백내장	6.1	6.6	4.6	12.1	5.7	4.3	0.6	0.0
	우울증	7.6	5.7	7.9	6.0	2.5	11.7	7.5	8.0
	암	5.2	4.6	4.4	7.3	5.4	11.7	0.5	0.0
	기타	28.4	19.8	30.3	38.5	30.8	23.6	53.2	10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은 2014년 75.8%에서 2017년 79.3%로 다소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2017년 기준, 심장장애 100%, 뇌전증장애 98.5%, 호흡기장애 97.9% 순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임

〈표 2-1-5〉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1	83.2	95.8	69.5	96.6	70.0	57.9	81.1	100.0
	2014	92.6	96.3	100.0	97.9	94.1	68.1	95.9	98.5
	2017	91.9	98.6	88.2	100.0	91.9	77.1	87.9	99.6
만성 질환 유형별	고혈압	17.4	72.8	48.9	36.4	36.3	51.2	40.5	17.6
	뇌졸중(중풍)	1.3	5.7	6.2	1.7	0.0	0.0	6.4	0.0
	심근경색증	0.6	8.3	20.2	8.9	1.9	0.0	0.0	2.1
	협심증	0.1	7.2	18.4	7.0	0.0	0.0	0.0	2.1
	이상지혈증	8.6	15.4	9.0	8.6	15.0	0.0	22.7	5.5
	당뇨병	14.4	44.8	27.8	14.6	36.9	16.3	24.7	5.5
	갑상선 장애	3.2	7.2	2.4	7.8	0.0	0.0	7.6	0.0
	천식	0.8	2.2	1.1	45.0	0.0	0.0	0.0	2.3
	폐결핵	0.0	0.0	0.0	4.5	0.0	0.0	0.0	0.0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0.0	0.6	4.8	67.5	0.0	0.0	0.0	0.0
	위십이지장궤양	3.8	3.3	4.1	3.4	2.5	0.0	1.7	0.0
	B형간염	0.5	2.1	0.0	4.0	37.4	0.0	0.0	1.1
	C형간염	-	1.5	-	2.4	3.3	-	-	-
	간경변증	0.0	0.9	0.0	2.4	32.0	0.0	0.0	0.0
	신부전	0.4	83.8	6.9	3.6	2.5	0.0	4.4	0.0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7.0	14.1	11.1	11.4	2.1	2.2	6.0	1.1
	류마티스 관절염	0.5	1.4	8.6	0.4	0.0	0.0	2.3	0.0
	골다공증	1.1	6.9	10.3	9.8	0.0	2.2	4.8	1.0
	척추측만증	0.0	2.2	0.0	3.6	0.0	24.5	0.0	0.0
	허라·목통증	7.6	15.6	11.8	16.5	9.9	33.9	9.9	13.7
	피부염	0.3	2.9	0.0	9.6	0.0	14.8	6.3	6.2
	백내장	0.2	6.1	0.0	5.5	5.2	0.0	6.1	1.1
	우울증	45.3	3.6	5.6	11.3	5.9	10.3	3.9	8.2
	암	2.2	3.0	5.2	18.4	31.2	1.9	67.8	0.8
	기타	71.9	11.6	63.4	27.1	3.1	17.3	15.0	99.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질환유형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이 5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허라·목통증이 36.0%, 기타가 28.4% 순임
- 질환유형 및 장애유형별로는 고혈압에서는 신장장애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허라·목통증에서는 지체장애가 50.8%, 당뇨병에서는 신장장애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6〉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연도별	2011	70	63.4	79.1	33.2	38.9	68.9	88.3	68.0	70.2
	2014	75.8	70.0	83.7	33.8	45.5	73.3	92.0	74.4	75.8
	2017	79.3	74.3	85.9	29.2	49.9	76.1	94.0	74.7	81.7
만성 질환 유형별	고혈압	54.5	53.7	55.5	0.0	17.6	46.9	66.3	48.6	57.8
	뇌졸중(중풍)	13.6	14.4	12.7	0.0	4.1	11.4	16.8	20.0	9.8
	심근경색증	4.3	4.8	3.8	0.0	0.5	3.5	5.5	4.6	4.2
	협심증	4.8	4.6	5.1	0.0	0.8	2.4	7.1	4.4	4.8
	이상지혈증	18.8	17.1	20.7	1.0	6.3	18.6	21.3	15.2	20.7
	당뇨병	25.6	27.1	23.9	0.0	8.6	22.8	30.6	24.7	26.2
	갑상선장애	3.2	1.7	5.1	6.2	3.2	3.6	3.0	3.1	3.1
	천식	3.4	3.1	3.6	3.5	3.6	1.7	4.4	3.4	3.5
	폐결핵	0.3	0.4	0.2	0.0	0.0	0.1	0.5	0.4	0.2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2.1	3.1	0.9	3.7	0.9	1.4	2.7	2.7	1.7
	위십이지장궤양	4.2	3.4	5.1	0.0	2.2	3.9	4.8	4.1	4.2
	B형간염	1.9	2.5	1.2	0.0	1.7	3.1	1.1	1.5	2.1
	C형간염	0.3	0.3	0.2	0.0	0.5	0.4	0.1	0.3	0.2
	간경변증	0.7	1.1	0.2	0.0	0.6	1.1	0.5	0.5	0.8
	신부전	4.4	5.0	3.7	0.0	4.8	5.8	3.6	9.4	1.4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27.6	18.4	38.2	4.7	3.7	18.6	37.4	17.2	33.2
	류마티스관절염	2.7	1.5	4.0	0.0	0.7	2.7	3.0	2.6	2.9
	골다공증	10.0	1.8	19.5	0.0	0.7	4.0	15.4	6.8	11.3
	척추측만증	2.3	1.7	3.0	7.8	2.8	1.4	2.6	2.1	2.5
	허라목통증	36.0	29.7	43.4	5.2	21.0	31.7	41.8	23.3	43.3
	피부염	3.3	3.9	2.7	2.6	4.4	2.7	3.6	3.9	3.0
	백내장	6.1	4.6	7.9	0.0	0.6	2.3	9.5	4.1	6.9
	우울증	7.6	6.1	9.3	1.3	13.4	8.4	6.3	12.0	4.8
	암	5.2	5.9	4.4	3.6	1.6	5.2	5.8	4.0	5.7
	기타	28.4	30.8	25.7	90.2	49.7	25.0	25.9	37.6	2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 유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5.9%, 남성이 74.3%로 남성보다 여성의 만성질환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4.0%로 가장 많고 45-64세가 76.1%, 18-44세가 49.9% 순임
  - 2011년 측정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 건강관리

### (1) 스트레스 정도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0.0	16.1	14.6	7.8	18.8	6.3	19.9	18.0	19.3	6.1	10.7	19.9	23.9	13.1	22.5
	많이 느끼는 편	41.2	41.4	46.2	36.6	38.1	44.5	36.1	45.2	44.0	43.4	68.6	52.7	19.3	31.0	48.0	57.9
	조금 느끼는 편	34.5	37.4	26.6	34.4	38.5	20.9	36.0	23.9	21.8	31.5	24.7	24.3	35.9	30.1	30.8	13.9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1.6	11.1	14.3	15.6	15.8	21.6	11.1	16.2	5.7	0.7	12.3	24.9	15.0	8.2	5.7
	전혀 느끼지 않음	2.9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매우 많이 느낌	20.9	21.2	24.9	18.1	17.2	17.4	13.0	37.9	27.1	24.7	32.7	13.8	33.0	40.9	39.2	27.3
	느끼는 편	40.1	40.3	41.0	44.2	37.8	41.0	36.8	31.0	38.5	39.9	32.3	45.9	17.2	33.5	30.2	42.5
	보통	21.1	21.0	19.7	21.1	24.3	23.3	23.0	26.6	16.8	16.7	24.2	24.1	17.1	—	23.0	24.8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0.6	13.2	17.7	15.5	22.3	—	13.7	13.7	10.8	12.9	30.7	25.6	7.6	5.4
	전혀 느끼지 않음	2.9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매우 많이 느낌	18.0	18.7	23.1	16.0	14.2	19.6	9.6	21.2	20.6	23.1	16.3	34.0	13.1	4.7	16.1	20.9
	느끼는 편	40.1	40.4	41.2	41.5	37.5	29.9	37.6	41.1	39.5	39.9	52.7	36.3	41.8	53.4	50.0	45.8
	보통	20.6	20.1	16.5	22.3	24.8	34.9	22.9	24.4	15.9	20.2	16.2	20.1	22.4	27.9	13.5	15.6
	느끼지 않는 편	18.4	18.5	14.9	18.0	19.4	14.9	25.2	9.7	19.1	15.1	14.8	9.6	19.5	14.1	20.4	16.9
	전혀 느끼지 않음	3.0	2.3	4.3	2.1	4.2	0.8	4.6	3.6	4.9	1.7	0.0	0.0	3.2	0.0	0.0	0.8

주: 1) 무응답 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에서 '매우 많이 느낌(대단히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매우 많이 느끼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2014년 61.0%에서 2017년 58.1%로 소폭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 장애의 경우 '매우 많이 느낌'의 응답이 34.0%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안면 장애의 경우 '매우 많이 느낌'의 응답이 4.7%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낮다.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1.5	11.4	8.2	11.4	12.8	10.5	17.5	9.5
	많이 느끼는 편	41.2	40.6	42.1	34.8	41.2	43.6	39.3	42.7	41.0
	조금 느끼는 편	34.5	34.5	34.4	39.5	34.6	32.8	35.8	26.8	37.0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3.4	12.0	17.5	12.8	10.8	14.4	13.0	1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매우 많이 느낌	20.9	20.3	21.9	—	22.8	23.5	18.0	23.4	19.1
	느끼는 편	40.1	39.5	40.9	—	41.6	40.9	38.8	39.5	40.3
	보통	21.1	22.2	19.6	—	19.7	19.9	22.6	19.6	22.1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4.6	—	12.9	13.6	17.0	14.1	15.1
	전혀 느끼지 않음	2.9	2.8	3.0	—	2.9	2.1	3.5	3.4	3.0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매우 많이 느낌	18.0	17.7	18.5	15.2	16.4	21.6	15.8	20.7	16.2
	느끼는 편	40.1	40.5	39.5	47.5	43.8	40.2	38.6	39.4	40.5
	보통	20.6	20.2	21.1	13.7	20.8	19.7	21.4	19.5	21.4
	느끼지 않는 편	18.4	18.7	18.1	21.5	16.2	15.8	21	17.3	19.2
	전혀 느끼지 않음	3.0	3.0	2.9	2.0	2.8	2.8	3.2	3.0	2.9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정도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58.0%, 남성 58.2%로 크게 차이가 없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60.1%로 경증 56.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 흡연 및 금연 여부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매일 피움	22.4	27.1	13.0	24.0	17.0	4.7	9.6
	가끔 피움	1.1	1.3	1.0	1.0	—	1.0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1.3	19.7	29.5	22.9	24.2	42.6	4.5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5.2	51.9	56.6	52.1	57.9	52.7	84.9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7.7	20.9	9.0	20.9	12.6	11.5	12.1
	가끔 피움	2.5	2.6	2.2	3.1	1.8	1.3	1.5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19.7	26.9	22.0	17.9	18.6	1.7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0.2	56.9	61.9	54.1	67.7	68.7	84.7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피움	15.7	18.3	6.8	19.1	10.1	20.1	8.1
	가끔피움	2.6	2.9	2.3	2.2	2.5	0.6	2.0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3.0	22.8	34.5	22.8	26.6	27.4	4.9
	담배를 피운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8.7	56.1	56.4	55.9	60.8	51.9	85.1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흡연여부에서 '매일 피움'의 비율은 2014년 17.7%에서 2017년 15.7%로 감소함
- 2017년 기준으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는다'의 비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매일 피움	38.7	9.2	—	3.8	39.3	12.8	6.9
	가끔 피움	0.9	1.1	—	—	—	—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8.1	34.8	28.2	68.8	15.7	28.8	35.7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2.2	54.9	71.8	27.4	45.0	58.3	5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매일 피움	29.7	10.2	—	3.1	6.1	16.3	10.8
	가끔 피움	2.6	4.5	—	0.7	3.6	—	1.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4.8	26.7	39.2	58.6	49.8	22.6	30.2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2.9	58.7	60.8	37.6	40.5	61.1	5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매일 피움	35.6	11.7	0.0	13.5	10.3	21.2	6.7
	가끔 피움	3.4	2.6	0.8	4.0	6.6	0.0	0.0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9.9	25.8	39.7	45.4	37.0	29.6	37.6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1.1	60.0	59.5	37.1	46.1	49.2	55.7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흡연여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흡연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85.1%, 97.7%로 매우 높음
- 흡연 여부 '매일피움'과 '가끔피움'에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0.2%, 2017년 18.3%로 감소함

〈표 2-2-4〉 현재 흡연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매일 피움	22.4	36.1	3.7	0.5	34.1	28.8	11.6	15.7	24.6
	가끔 피움	1.1	1.7	0.3	-	1.6	1.1	0.9	1.2	1.0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1.3	34.8	2.7	0.0	8.6	22.5	26.6	19.7	21.7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5.2	27.4	93.3	99.5	55.7	47.6	60.9	63.3	5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매일 피움	17.7	28.3	3.2	-	24.4	27.0	7.7	14.9	19.7
	가끔 피움	2.5	3.8	0.7	-	3.2	3.2	1.6	2.4	2.5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32.5	2.3	-	9.8	22.1	22.2	17.4	20.8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0.2	35.4	93.8	100.0	62.6	47.7	68.6	65.3	5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매일 피움	15.7	25.9	2.0	0.0	19.7	24.9	7.9	14.0	16.7
	가끔 피움	2.6	3.8	1.1	0.0	4.0	3.2	1.9	2.3	2.8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3.0	38.2	2.6	0.0	11.0	23.8	26.7	21.6	24.0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8.7	32.1	94.3	100.0	65.3	48.1	63.5	62.0	5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흡연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흡연율은 3.1%로 남성의 흡연율 34.7%보다 매우 낮음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45~64세 이하의 흡연율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흡연율이 19.5%로 중증의 흡연율인 1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5〉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28.1	32.2	18.7	27.7	23.2	4.7	34.0	—	27.3	20.1	—	5.2	36.7	30.8	17.4	32.9
예	28.5	30.8	23.8	28.2	24.3	37.3	17.5	—	23.5	34	32.3	20.4	28.1	41.9	21.4	33.3
2014 아니오	71.5	69.2	76.2	71.8	75.7	62.7	82.5	—	76.5	66	67.7	79.6	71.9	58.1	78.6	66.7
예	22.8	24.5	16.8	21.4	16.5	34.2	34.2	0.0	25.9	26.3	0.0	35.8	22.1	38.7	0.0	27.7
2017 아니오	77.2	75.5	83.2	78.6	83.5	65.8	65.8	100	74.1	73.7	100	64.2	77.9	61.3	100	72.3

주: 국민건강통계(2014)에 의하면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57.5%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6〉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28.1	28.2	25.9	—	44.1	29.2	18.4	22.9	29.7	28.5
예	28.5	28.2	32.9	—	34.2	30.4	23.1	27.9	28.7	28.4
2014 아니오	71.5	71.8	67.1	—	65.8	69.6	76.9	72.1	71.3	71.6
예	22.8	22.7	23.4	—	32.2	25.5	17.0	22.4	23.0	22.8
2017 아니오	77.2	77.3	76.6	—	67.8	74.5	83.0	77.6	77.0	77.2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2017년 금연 시도율은 22.8%로 2014년 28.5%로 소폭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 호흡기장애의 금연 시도율이 각각 38.7%, 35.8%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다소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금연 시도율은 23.4%로 남성의 금연 시도율 22.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44세 이하의 금연 시도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금연 시도율이 23.0%로 중증의 금연시도율 22.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3) 음주 빈도 및 음주량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전혀 마시지 않음	60.1	51.9	76.0	53.1	60.7	55.9	82.9	95.4
한 달에 1번미만	6.8	7.0	4.9	7.6	8.9	15.1	3.8	4.6
한 달에 1번정도	5.5	6.6	4.3	6.0	4.6	4.8	2.3	—
한 달에 2~4번	10.7	13.1	6.4	13.7	9.5	1.3	5.9	—
일주일에 2~3번	9.7	13.1	4.2	9.9	8.8	17.9	1.3	—
일주일에 4번이상	7.1	8.4	4.2	9.7	7.5	5.0	3.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전혀 마시지 않음	63.9	54.5	82.7	57.5	65.7	69.9	85.3	100.0
한 달에 1번미만	4.8	5.1	4.0	5.4	6.0	3.9	4.8	—
한 달에 1번정도	4.9	5.9	3.2	4.6	4.7	4.8	3.4	—
한 달에 2~4번	9.7	12.6	4.6	11.3	7.4	13.6	3.0	—
일주일에 2~3번	10.6	14.4	2.4	13.4	10.1	4.4	1.9	—
일주일에 4번이상	6.1	7.5	3.2	7.7	6.1	3.4	1.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전혀 마시지 않음	63.5	54.7	81.7	57.6	65.1	60.4	80.8	95.3
한 달에 1번미만	6.7	7.6	4.7	5.6	6.3	6.0	5.1	0.0
한 달에 1번정도	5.2	6.0	2.7	6.8	4.6	4.1	3.8	0.0
한 달에 2~4번	9.4	11.8	4.2	12.2	9.6	16.7	4.9	4.7
일주일에 2~3번	9.5	12.4	4.2	12.4	7.9	11.5	3.6	0.0
일주일에 4번이상	5.7	7.6	2.5	5.4	6.5	1.2	1.8	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최근 1년 동안 음주빈도에서 '전혀 마시지 않음'은 2014년 63.9%에서 2017년 63.5%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술을 마시는 장애인의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주로 '일주일에 2~3번', '한 달에 2~4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전혀 마시지 않음	73.5	82.4	81.0	83.6	87.2	84.5	66.6
	한 달에 1번미만	7.8	6.6	5.4	6.8	1.5	—	7.5
	한 달에 1번정도	4.0	2.5	7.5	6.1	—	—	3.5
	한 달에 2~4번	5.2	5.2	6.1	—	6.9	15.5	1.3
	일주일에 2~3번	2.8	3.0	—	2.1	4.5	—	18.3
	일주일에 4번이상	6.7	0.3	—	1.4	—	—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전혀 마시지 않음	79.8	91.1	77.2	85.7	84.4	87.9	76.5
	한 달에 1번미만	2.5	1.9	8.3	2.1	2.6	—	4.6
	한 달에 1번정도	3.2	5.0	3.0	3.9	2.6	—	—
	한 달에 2~4번	5.8	7.5	7.5	2.1	1.6	—	5.6
	일주일에 2~3번	2.4	3.9	4.0	6.3	8.9	—	6.6
	일주일에 4번이상	6.3	0.7	—	—	—	12.1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전혀 마시지 않음	79.0	80.6	82.2	77.4	81.6	32.1	67.5
	한 달에 1번미만	5.2	8.0	3.6	11.1	8.5	18.4	7.5
	한 달에 1번정도	4.2	2.8	12.0	4.0	4.6	20.3	8.7
	한 달에 2~4번	2.4	4.3	0.0	4.0	0.0	23.0	7.2
	일주일에 2~3번	5.3	3.8	2.2	0.9	0.2	6.3	5.8
	일주일에 4번이상	3.9	0.6	0.0	2.5	5.1	0.0	3.3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비율은 자폐성장애 95.3%, 심장장애 82.2%, 간장애 81.6% 순으로 높음
- 반면 안면장애는 32.1%, 지체장애는 54.7%, 시각장애는 57.6%로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8〉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전혀 마시지 않음	60.1	46.2	79.2	97.2	50.9	50.5	72.4	76.9	59.7
	한 달에 1번미만	6.8	6.0	8.0	0.0	7.7	7.8	5.7	5.4	6.8
	한 달에 1번정도	5.5	6.1	4.8	0.0	5.6	7.2	4.1	3.8	5.5
	한 달에 2~4번	10.7	14.9	4.9	2.8	16.7	12.6	6.3	5.1	10.8
	일주일에 2~3번	9.7	15.3	2.1	0.0	13.3	13.2	4.9	5.1	9.9
	일주일에 4번이상	7.1	11.5	1.1	0.0	5.8	8.6	6.5	3.9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전혀 마시지 않음	63.9	49.9	82.9	100.0	57.7	51.8	75.3	74.2	63.3
	한 달에 1번미만	4.8	5.0	4.6	-	6.0	5.0	4.4	3.5	4.8
	한 달에 1번정도	4.9	5.7	3.9	-	6.2	6.3	3.4	4.6	5.0
	한 달에 2~4번	9.7	13.1	5.2	-	13.7	13.5	5.3	6.5	10.0
	일주일에 2~3번	10.6	16.5	2.5	-	12.9	15.1	6.2	6.9	10.9
	일주일에 4번이상	6.1	9.9	0.9	-	3.5	8.3	5.4	4.2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전혀 마시지 않음	63.5	50.9	80.4	100	59.8	50.2	73.7	74.6	63.2
	한 달에 1번미만	6.7	5.9	7.6	0.0	6.6	7.3	6.4	5.3	6.7
	한 달에 1번정도	5.2	6.0	4.1	0.0	6.3	7.0	3.6	4.3	5.2
	한 달에 2~4번	9.4	13.1	4.6	0.0	11.4	13.6	5.9	5.8	9.6
	일주일에 2~3번	9.5	14.8	2.4	0.0	12.5	14.2	5.3	6.7	9.7
	일주일에 4번이상	5.7	9.3	1.0	0.0	3.5	7.7	5.0	3.4	5.6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최근 1년 동안 음주빈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음주율은 49.1%로 여성의 음주율 19.6%보다 매우 높음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45~46세 이하의 음주율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음주율이 43.8%로 중증 음주율 25.4%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9〉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1-2잔	30.5	26.0	41.8	28.2	34.6	11.9	51.9	100.0	55.9	61.1	64.0	79.6	54.8	88.7	58.2	38.7
3-4잔	23.1	22.1	23.8	25.1	26.1	57.3	16.3	-	25.3	12.2	10.3	5.5	45.2	-	29.1	2.7
5-6잔	11.2	12.1	7.2	12.5	10.7	9.2	4.3	-	4.8	15.6	25.8	-	-	-	5.6	-
7-9잔	24.2	27.2	17.7	25.8	18.6	12.6	15.4	-	9.8	9.2	-	14.9	-	11.3	5.6	47.9
10잔 이상	11.1	12.6	9.6	8.3	10.0	9.0	12.1	-	4.2	1.9	-	-	-	-	1.5	10.7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0	25.8	49.8	25.8	44.7	31.6	49.8	-	33.9	23.4	50.1	49.3	84.5	-	39.9	85.2
3-4잔	25.1	26.6	15.0	21.8	23.1	36.0	28.1	-	24.2	29.2	35.7	18.2	-	-	38.5	14.8
5-6잔	14.3	14.1	13.9	18.5	8.7	13.3	7.7	-	28.4	25.7	-	5.0	-	-	-	-
7-9잔	19.7	20.6	16.7	24.0	17.1	19.2	10.7	-	4.2	16.1	14.2	12.7	15.5	100.0	21.6	-
10잔 이상	10.8	12.9	4.6	10.0	6.5	-	3.9	-	9.4	5.6	-	14.8	-	-	-	-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2.1	28.5	45.9	23.7	38.2	49.3	52.6	100.0	40.3	51.5	82.1	78.0	64.6	16.7	53.1	28.4
3-4잔	22.9	22.8	23.0	23.5	27.7	10.7	16.9	0.0	27.3	16.3	0.0	8.0	22.7	25.0	12.0	17.9
5-6잔	12.7	11.5	18.2	15.3	14.8	17.7	10.0	0.0	7.6	24.5	17.9	8.0	3.1	8.5	5.1	8.2
7-9잔	22.4	26.0	8.7	27.1	12.8	17.9	10.9	0.0	16.4	5.8	0.0	0.0	0.0	49.7	20.3	37.3
10잔 이상	9.8	11.1	4.3	10.4	6.5	4.4	9.5	0.0	8.4	2.0	0.0	6.1	9.6	0.0	9.6	8.2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1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1-2잔	30.5	21.0	64.1	100.0	21.3	25.0	47.8	42.0	28.6	30.3
3-4잔	23.1	23.7	20.7	0.0	20.2	23.6	24.5	21.2	23.0	22.8
5-6잔	11.2	12.6	6.2	0.0	14.3	12.0	7.2	12.4	11.0	11.2
7-9잔	24.2	28.9	7.5	0.0	26.4	28.0	15.4	13.7	26.1	24.5
10잔 이상	11.1	13.8	1.5	0.0	17.9	11.4	5.0	10.7	11.3	11.2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0	22.5	60.3	-	23.5	20.1	51.0	33.9	28.4	29.8
3-4잔	25.1	25.3	24.4	-	22.8	26.3	24.6	27.4	24.4	25.2
5-6잔	14.3	15.9	7.9	-	16.1	17.4	7.8	12.8	14.5	14.1
7-9잔	19.7	23.1	6.3	-	22.3	22.9	12.6	18.4	20.8	20.1
10잔 이상	10.8	13.3	1.1	-	15.3	13.2	3.9	7.6	11.9	10.8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2.1	23.8	60.0	-	23.8	24.4	47.4	38.4	29.9	32.1
3-4잔	22.9	22.6	23.8	-	17.7	23.9	23.8	23.3	22.9	23.0
5-6잔	12.7	14.6	6.6	-	15.0	14.5	9.1	11.5	13.0	12.6
7-9잔	22.4	27.3	6.1	-	28.0	26.9	13.4	18.7	23.8	22.5
10잔 이상	9.8	11.6	3.5	-	15.5	10.3	6.3	8.1	10.4	9.8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2017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이 1-2잔의 경우, 32.1%로 가장 높았으며 10잔 이상은 9.8%로 나타나 대체로 음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0잔 이상의 음주량은 지체장애 11.1%, 시각장애 10.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음주량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11.6%로 여성 3.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15.5%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10.4%로 중증 8.1%보다 높게 나타남

## (4) 생활체육 참여형태

〈표 2-2-11〉 생활체육 참여형태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연도별	2008	100.0	6.3	55.5	24.3	13.9
	2009	100.0	7.0	62.8	19.5	10.7
	2010	100.0	8.6	56.0	22.9	12.3
	2011	100.0	9.6	60.8	15.9	13.7
	2012	100.0	10.6	49.0	25.7	14.7
	2013	100.0	12.3	57.0	21.8	8.9
	2014	100.0	14.1	51.7	20.5	13.7
	2015	100.0	15.8	54.6	16.5	13.1
	2016	100.0	17.7	57.1	13.2	12.0
	2017	100.0	20.1	55.8	12.8	11.3
	2018	100.0	23.8	52.5	12.3	11.4
장애 유형별	지체	100.0	23.5	54.5	11.8	10.2
	시각	100.0	30.4	50.0	12.0	7.6
	청각·언어	100.0	25.0	48.4	14.8	11.8
	지적·자폐	100.0	24.9	47.9	13.9	13.3
	뇌병변	100.0	16.1	56.8	10.7	16.4
	기타	100.0	23.0	50.7	12.6	13.8

주: 1) 15개 장애유형을 연구편의상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함

2) 참여형태 구분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미실시	-	-	-	-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미실시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8),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애인 생활체육의 완전실행자의 비율은 2008년 6.3%, 2009년 7.0%, 2010년 8.6%, 2011년 9.6%, 2012년 10.6%, 2013년 12.3%, 2014년 14.1%, 2015년 15.8%, 2016년 17.7%, 2017년 20.1%, 2018년 23.8%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에서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생활체육’이란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함

### 3) 보건의료이용

#### (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구분	수검률
연도별		지체	70.6
2012	63.3	뇌병변	45.4
2013	59.6	시각	67.7
2014	65.6	청각	64.2
2015	63.5	언어	59.8
2016	64.8	지적	56.4
2017	64.9	자폐성	72.3
성별		장애유형	
남성	66.6	정신	46.0
여성	62.5	신장	44.7
연령별		심장	60.0
20~44세	66.7	호흡기	55.6
45~64세	67.2	간	58.2
65세 이상	62.0	안면	72.6
장애기간		장루·요루	53.0
10년 미만	62.4	뇌전증	59.6
10년~19년	66.6		
20년 이상	64.5		
장애정도			
중증	54.0		
경증	70.0		

주: 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만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8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pp.275.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p.33-34.

– 2017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4.9%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4.1%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안면과 자폐성장애인 각각 72.6%, 72.3%로 수검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신장, 정신, 뇌병변 장애인은 각각 44.7%, 46.0%, 45.4%로 낮게 나타남

#### ※※ 일반건강검진

##### – 실시범위 및 대상

- 1차 대상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피부양자'
- 2차 대상자: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또는 만 70세, 만74세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판정자

##### – 주요항목

- 1차 대상자: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공복혈당, 콜레스테롤 등), 요검사, 구강검진 등
- 2차 대상자: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표 2-3-2〉 장애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구분	수검률
연도별	2012	지체	75.6
	2013	뇌병변	51.6
	2014	시각	72.3
	2015	청각	74.3
	2016	언어	59.0
	2017	지적	51.0
성별	남성	자폐성	52.6
	여성	정신	46.4
연령별	40세	신장	46.8
	66세	심장	65.2
장애기간	10년 미만	호흡기	60.8
	10년~19년	간	60.2
	20년 이상	안면	74.6
장애정도	중증	장루·요루	55.9
	경증	뇌전증	56.3

주: 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만40세, 만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8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pp.275.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p.33-34.

- 2017년 기준, 장애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69.0%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6세의 수검률이 71.3%인 반면 40세는 63.2%로 낮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 안면장애인이 70% 이상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정신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은 각각 46.4%, 46.8%로 낮게 나타남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실시범위 및 대상

- 1차 대상자: 만40세, 만66세에 해당하는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 근로자, 직장피부양자
- 2차 대상자: 1차검진 대상자 전체

- 주요항목

검진종류	검진항목
1차	만40세 - 진찰 및 상담, B형 간염항원, 항체검사 등
	만66세 - 진찰 및 상담,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2차	만40세 -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만66세 - 만40세와 동일, 정신건강검사(인지기능장애)항목 추가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구분	수검률
연도별		장애유형	
2013	37.4	지체	48.2
2014	41.1	뇌병변	28.7
2015	42.4	시각	45.2
2016	43.6	청각	42.0
2017	43.6	언어	37.6
성별		지적	32.3
남성	44.2	지폐성	9.2
여성	42.8	정신	36.8
연령별		신장	31.7
20~44세	43.1	심장	40.9
45~64세	47.0	호흡기	38.9
65세 이상	41.0	간	40.4
장애기간		안면	47.9
10년 미만	42.0	장루·요루	31.3
10년~19년	44.8	뇌전증	46.4
20년 이상	42.8		
장애정도			
중증	35.5		
경증	47.4		

주: 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8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pp.279.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p.53-55.

－ 2017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43.6%로 전년도와 동일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11.9%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안면, 뇌전증장애인이 45% 이상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지폐성,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 암검진

검진종류	검진대상	검진항목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	－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반증, 만성간지효로환자 등) 중 만40세 이상인 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 간초음파검사, 혈청아피타이단백검사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 유방촬영(암초)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표 2-3-4〉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구분	수검률
연도별		지체	24.3
2012	19.1	뇌병변	14.3
2013	18.5	시각	22.6
2014	21.3	청각	20.4
2015	21.5	언어	22.8
2016	22.2	지적	20.2
2017	22.0	자폐성	35.5
성별		장애유형	
남성	24.1	정신	14.8
여성	18.8	신장	16.3
연령별		심장	23.1
20~44세	31.0	호흡기	18.8
45~64세	24.7	간	23.2
65세 이상	16.5	안면	31.0
장애기간		장루·요루	16.4
10년 미만	20.4	뇌전증	21.2
10년~19년	22.8		
20년 이상	23.1		
장애정도			
중증	18.1		
경증	23.8		

주: 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만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8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pp.287.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p.104-106.

- 2017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22.0%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5.3%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안면 장애인이 30% 이상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뇌병변, 정신장애인의 경우 1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표 2-3-5〉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단위: 명, 일, 원)

구분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회당 진료비
전체		2,404,224	139,937,688	56.5	78,358.6
성별	남성	1,378,039	71,235,720	49.7	82,715.7
	여성	1,026,185	68,701,968	65.9	73,840.0
연령별	0-19세	86,210	3,238,963	36.4	81,973.7
	20-44세	310,430	11,055,546	33.0	86,462.2
	45-64세	901,090	47,227,552	50.6	82,819.4
	65세 이상	1,106,494	78,415,627	70.2	74,380.2
장애기간	10년 미만	886,099	62,575,733	69.4	92,856.0
	10년-19년	1,265,370	66,890,518	51.2	67,125.0
	20년 이상	252,755	10,471,437	39.2	63,484.0
장애정도	중증	877,381	66,493,684	73.0	91,017.7
	경증	1,526,843	73,444,004	47.0	66,897.6
장애유형	지체	1,226,517	57,790,443	45.8	63,377.2
	뇌병변	219,598	23,393,363	104.7	95,284.7
	시각	235,137	9,853,666	40.6	61,962.5
	청각	292,474	14,767,064	49.5	59,234.0
	언어	17,587	916,618	50.2	75,055.7
	지적	181,026	8,849,126	45.4	54,133.6
	자폐성	20,648	513,889	23.3	41,782.9
	정신	86,010	10,933,100	126.0	53,511.9
	신장	75,766	10,456,905	137.8	191,049.6
	심장	5,687	280,738	49.1	155,015.9
	호흡기	10,257	575,032	55.7	105,178.2
	간	11,527	505,627	43.8	437,158.2
	안면	2,115	63,803	28.8	62,140.0
	장루·요루	13,636	719,147	52.4	121,015.1
	뇌전증	6,239	319,167	50.9	63,475.5
의료기관	입원	717,192	53,061,899	21.4	122,401.3
	외래	2,354,973	86,875,789	35.1	51,458.3

주: 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만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계속 제외

3)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말함

4) 입내원일수는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5)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6) 1회당 진료비 = 총진료비/입내원일수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p.391-393.

- 2017년 기준, 장애인 진료실 이용자 수는 총 2,404,224명이고, 입내원일수는 총 139,937,688일임. 이에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6.5일이며, 1회당 진료비는 78,358.6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6.2일 더 오래 입내원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회당 8,875.7원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회당 진료비는 가장 낮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와 1회당 진료비가 더 크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신장, 정신장애인이 각각 137.8일, 126.0일로 가장 높게 나타남. 1회당 진료비는 간 장애가 437,158.2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표 2-3-6〉 장애인 진료비 현황

(단위: 명, 천원, 원)

구분	진료실인원 (명)	총진료비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원)	본인부담금 (원)
전체	2,404,224	12,922,948,012	2,175,332,493	5,375,101	904,796
성별	남성	1,378,039	6,923,689,170	5,024,306	811,992
	여성	1,026,185	5,999,258,842	5,846,177	1,029,421
연령별	0-19세	86,210	292,392,607	3,391,632	508,878
	20-44세	310,430	1,064,300,057	3,428,470	442,690
	45-64세	901,090	4,509,499,876	5,004,494	680,124
	65세 이상	1,106,494	7,056,755,473	6,377,581	1,248,254
장애기간	10년 미만	886,099	6,598,579,822	7,446,775	1,219,377
	10년-19년	1,265,370	5,495,543,759	4,343,033	764,648
	20년 이상	252,755	828,824,431	3,279,161	503,575
장애정도	중증	877,381	6,656,227,471	7,586,473	1,024,106
	경증	1,526,843	6,266,720,541	4,104,365	836,236
장애유형	지체	1,226,517	4,673,090,318	3,810,049	784,384
	뇌병변	219,598	2,464,416,504	11,222,400	2,026,859
	시각	235,137	802,195,070	3,411,607	683,419
	청각	292,474	1,128,703,833	3,859,160	829,610
	언어	17,587	82,266,693	4,677,699	788,320
	지적	181,026	552,141,084	3,050,065	323,811
	자폐성	20,648	27,339,211	1,324,061	320,721
	정신	86,010	624,016,981	7,255,168	488,476
	신장	75,766	2,058,415,255	27,168,060	2,412,239
	심장	5,687	54,010,777	9,497,235	1,203,836
	호흡기	10,257	76,744,424	7,482,151	1,297,906
	간	11,527	244,867,916	21,242,987	1,934,685
	안면	2,115	4,991,250	2,359,929	411,393
	장루·요루	13,636	98,641,938	7,233,935	1,019,577
	뇌전증	6,239	31,106,759	4,985,856	596,862
의료기관	입원	717,192	6,494,847,225	9,055,939	1,313,327
	외래	2,354,973	4,470,479,721	1,898,315	346,338
	약국	2,246,164	1,957,621,067	871,540	186,010

- 주: 1) 장애인 건강보전통계의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원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말함  
 4) 진료비는 용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를 말함  
 5) 본인부담금은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6)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 총 진료비/진료실인원  
 7)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진료실인원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전통계」 pp.403-405.

- 2017년 기준,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약 12조 9천억여 원이며, 그 중 본인부담금 총액인 약 2조 1천 7백억여 원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5,375,101원이며, 본인부담금은 904,796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7,429원 더 부담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248,254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담 정도가 큼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187,870원 더 부담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신장, 뇌병변, 간장애가 각각 2,412,239원, 2,026,859원, 1,934,685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수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3)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표 2-3-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0.3	26.7	29.6	9.1	11.7	5.3	5.6	—	7.6	4.7	11.5	2.5	4.2	21.9	8.5	3.3
	작업치료	1.0	0.2	4.0	0.4	—	—	2.4	12.1	3.1	—	—	—	—	11.2	—	—
	언어치료	1.5	0.1	2.1	0.1	0.6	11.0	12.5	45.3	0.3	—	—	—	—	—	—	—
	음악치료	0.9	—	0.9	0.1	0.3	2.4	5.5	22.1	6.4	—	—	—	—	—	—	—
	놀이치료	0.5	—	0.6	—	0.1	5.2	3.9	11.9	—	—	—	—	—	—	—	—
	미술치료	1.1	—	1.6	0.1	0.3	5.1	7.9	23.6	4.6	—	—	—	—	—	—	—
	심리행동치료	1.0	0.1	0.5	0.1	—	7.5	5.8	8.8	8.8	—	—	—	—	11.2	—	11.2
	기타	1.2	0.5	1.9	0.4	0.1	5.2	6.4	23.1	2.3	—	—	—	—	—	—	—
2014	물리치료	22.4	29.6	31.6	12.7	15.8	11.9	4.4	4.2	2.0	4.8	19.8	3.4	11.8	7.9	16.8	20.6
	작업치료	1.6	0.2	7.4	—	0.2	—	5.1	14.1	4.6	—	4.6	—	—	—	—	4.2
	언어치료	1.7	—	3.5	0.2	1.7	5.3	9.9	42.6	—	—	—	—	—	—	—	4.0
	음악치료	1.0	—	0.6	—	0.4	—	7.8	17.4	6.9	—	—	—	—	—	—	—
	놀이치료	0.7	—	0.9	—	0.4	—	3.5	14.5	4.6	—	—	—	—	—	—	—
	미술치료	1.1	—	0.8	0.2	0.4	3.5	7.4	28.5	4.2	—	—	—	—	—	—	—
	심리행동치료	1.1	0.2	0.7	0.2	—	—	4.8	23.1	6.6	—	1.4	—	—	—	—	3.3
	기타	1.1	0.3	1.5	—	0.2	1.8	6.7	26.8	1.4	—	—	3.2	—	—	—	—
2017	물리치료	22.9	29.6	34.2	14.3	16.0	4.1	6.0	2.3	8.9	10.2	14.5	18.1	5.8	26.1	4.2	3.4
	작업치료	1.5	0.4	6.0	0.5	0.0	0.0	5.1	13.6	1.1	0.0	0.0	0.0	0.0	0.0	0.0	0.0
	언어치료	2.1	0.1	3.1	0.2	0.5	26.3	13.7	41.0	0.0	0.0	0.0	0.0	0.0	0.0	0.0	0.0
	음악치료	0.9	0.0	1.0	0.0	0.0	6.7	6.6	15.2	2.5	0.0	0.0	0.0	0.0	0.0	0.0	0.0
	놀이치료	0.9	0.1	0.7	0.1	0.0	13.1	5.2	19.2	2.3	0.0	0.0	0.0	0.0	0.0	0.0	0.0
	미술치료	0.9	0.0	0.6	0.2	0.0	7.4	6.6	17.0	2.9	0.0	0.0	0.0	0.0	0.0	0.0	0.0
	심리행동치료	1.0	0.1	0.6	0.0	0.0	4.2	8.2	17.7	2.9	0.0	0.0	0.0	0.0	0.0	0.0	0.0
	기타	1.4	0.3	3.8	0.2	0.0	4.1	7.2	19.4	2.0	0.0	0.0	0.0	0.0	0.0	0.0	0.0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은 기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전기 조사 대비 큰 차이가 없음
- 재활치료서비스 중 언어치료의 이용률이 2014년 1.7%에서 2017년 2.1%로 소폭으로 증가함
- 전체적으로는 물리치료가 22.9%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로 나타났다, 그 외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 행동치료 등은 1~2% 정도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음

〈표 2-3-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0.3	15.8	26.4	14.1	11.2	17.4	27.8	15.6	21.6
	작업치료	1.0	0.9	1.0	9.9	1.7	0.5	0.4	3.2	0.3
	언어치료	1.5	1.7	1.3	36.8	0.9	0.2	0.0	4.7	0.6
	음악치료	0.9	0.9	0.9	14.0	1.9	0.0	0.1	3.0	0.3
	놀이치료	0.5	0.5	0.4	9.3	0.6	0.1	0.1	1.6	0.2
	미술치료	1.1	1.1	1.0	20.6	1.8	0.1	0.1	3.2	0.5
	심리행동치료	1.0	1.1	0.8	13.7	1.9	0.4	0.0	2.1	0.7
	기타	1.2	1.2	1.2	15.6	1.3	0.6	0.4	2.9	0.7
2014	물리치료	22.4	16.2	30.8	16.8	7.1	19	31.4	16.8	25.7
	작업치료	1.6	1.9	1.2	24.3	2.3	0.8	0.6	9.7	0.3
	언어치료	1.7	1.9	1.3	45.9	1.4	0.2	0.2	3.9	0.2
	음악치료	1	1.1	0.9	14.5	2.9	0.4	-	2.7	-
	놀이치료	0.7	0.8	0.5	9.2	1.6	0.3	0.1	1.7	-
	미술치료	1.1	1.2	0.9	20.4	2.4	0.2	0.1	1.1	0.1
	심리행동치료	1	1.5	0.3	16.6	1.7	0.7	-	2.2	0.2
	기타	1.1	1.4	0.7	16.9	2	0.5	0.3	2.5	0.2
2017	물리치료	22.9	16.0	32.1	17.8	10.1	17.7	31.1	17.5	26.2
	작업치료	1.5	1.3	1.8	20.0	2.0	0.9	0.4	3.4	0.3
	언어치료	2.1	2.5	1.6	52.0	2.3	0.2	0.1	5.3	0.1
	음악치료	0.9	1.0	0.7	15.7	2.4	0.1	0.0	2.4	0.0
	놀이치료	0.9	1.1	0.7	17.7	1.7	0.1	0.1	2.2	0.1
	미술치료	0.9	0.9	0.9	15.7	2.7	0.1	0.0	2.4	0.0
	심리행동치료	1.0	1.1	1.0	18.4	2.3	0.3	0.0	2.5	0.1
	기타	1.4	1.4	1.5	21.8	2.2	0.7	0.3	3.0	0.4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32.1%로 남성 16.0%로 월등히 높다.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31.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17세 이하의 발달재활과 관련된 치료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6.2%로 중증에 17.5%에 비해 높은 반면, 그 외의 서비스에서는 중증이 경증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4	2.2	3.2	1.9	2.0	2.1	1.6	-	2.5	1.7	2.9	2.2	2.0	3.0	1.9
	작업치료	3.4	2.5	2.8	1.0	-	-	7.5	2.3	3.2	-	-	-	1.0	-	-
	언어치료	1.8	2.0	2.5	1.0	1.6	1.7	1.7	1.8	2.0	-	-	-	-	-	-
	음악치료	1.8	-	2.8	2.0	1.0	1.0	1.6	1.6	2.0	-	-	-	-	-	-
	놀이치료	2.7	-	3.1	-	1.0	1.2	2.4	1.5	4.2	-	-	-	-	-	-
	미술치료	1.8	2.0	2.4	1.0	1.0	1.3	1.4	1.6	2.4	-	-	-	-	-	-
	심리행동치료	1.5	1.0	1.1	1.0	-	1.2	1.5	1.9	1.6	-	-	-	1.0	-	1.0
	기타	2.9	4.0	3.7	5.0	1.0	2.0	2.3	2.6	1.0	-	-	-	-	-	-
2014	물리치료	2.4	2.3	3.2	2.3	2.2	2.5	2.6	2.1	1.6	1.9	2.4	1.9	2.5	1.0	2.3
	작업치료	4.5	3.9	3.5	-	1.6	-	7.3	2.8	6.3	-	-	1.0	-	-	1.0
	언어치료	2.0	2.0	2.3	2.7	2.7	1.5	1.7	1.8	-	-	-	-	-	-	1.0
	음악치료	2.2	1.0	2.4	-	4.0	-	2.4	1.2	2.0	-	-	-	-	-	-
	놀이치료	2.2	-	1.5	-	4.0	-	1.7	1.5	3.1	-	-	-	-	-	-
	미술치료	1.8	1.0	1.6	2.0	4.0	4.4	1.3	1.3	3.1	-	-	-	-	-	-
	심리행동치료	2.3	1.2	1.6	2.0	-	-	2.1	1.8	3.6	-	1.0	-	-	-	1.0
	기타	6.0	2.3	3.6	-	3.0	1.0	7.9	4.1	15.0	-	-	13.0	-	-	-
2017	물리치료	2.0	1.9	2.9	1.6	1.8	1.0	1.5	1.0	1.9	1.3	1.0	1.6	2.8	1.7	2.8
	작업치료	2.8	2.6	2.6	9.6	-	-	2.3	1.6	7.0	-	-	4.6	-	-	4.2
	언어치료	1.7	3.1	2.6	1.0	2.5	2.5	1.2	1.7	-	-	-	-	-	-	4.0
	음악치료	1.6	1.0	1.3	-	-	1.0	1.7	1.6	1.8	-	-	-	-	-	-
	놀이치료	2.0	1.0	1.7	5.0	1.0	1.5	1.6	3.3	2.1	-	-	-	-	-	-
	미술치료	1.8	-	0.6	2.0	1.0	1.0	1.9	2.7	1.4	-	-	-	-	-	-
	심리행동치료	1.4	1.7	1.7	-	1.0	0.5	1.4	1.3	2.1	-	-	-	-	-	-
	기타	2.9	2.8	2.8	1.0	-	1.1	2.7	2.0	5.2	-	-	-	-	-	-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은 미술치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가 2014년에 비해 2017년 다소 감소함
-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시간은 기타를 제외하고 작업치료가 주당 평균 2.8시간으로 가장 길고 물리치료와 놀이치료가 2.0시간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의 경우 작업치료와 놀이치료가 각각 9.6시간, 5.0시간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와 호흡기장애의 경우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각각 7.0시간, 4.6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4	2.5	2.3	2.2	2.6	2.4	2.3	3.2	2.2	2.3
	작업치료	3.4	4.3	2.3	1.8	5.3	5.0	1.7	3.2	3.9	3.4
	언어치료	1.8	1.7	2.1	1.7	3.1	2.1	1.0	1.9	1.6	1.8
	음악치료	1.8	1.6	2.2	1.6	2.1	1.0	2.6	1.9	1.5	1.8
	놀이치료	2.7	1.9	4.1	1.9	3.4	7.5	4.4	3.0	2.0	2.7
	미술치료	1.8	1.5	2.2	1.4	1.9	7.5	3.3	2.1	1.2	1.8
	심리행동치료	1.5	1.4	1.6	1.5	1.7	1.0	-	1.8	1.1	1.4
	기타	2.9	2.7	3.2	2.3	2.9	3.8	3.7	3.1	2.8	2.9
2014	물리치료	2.4	2.4	2.4	2.9	2.1	2.5	2.4	2.6	2.4	2.5
	작업치료	5.4	4.6	4.4	2.9	7.6	4.2	4.8	4.5	5.6	4.6
	언어치료	2.0	2.0	1.9	1.8	1.7	3.3	3.8	2.0	2.3	2.0
	음악치료	2.2	2.4	1.8	3.0	1.7	1.8	1.0	2.2	2.4	2.2
	놀이치료	2.2	2.3	1.9	1.8	2.3	2.7	2.1	2.2	1.0	2.2
	미술치료	1.8	1.7	1.9	1.5	2.1	2.5	1.5	1.7	3.4	1.8
	심리행동치료	2.3	2.3	2.3	1.6	3.8	1.8	-	2.4	1.2	2.3
	기타	6.0	7.4	2.0	5.1	8.0	6.3	3.4	6.5	2.0	5.9
2017	물리치료	2.0	2.0	2.0	1.8	1.7	2.0	2.0	2.3	1.9	2.0
	작업치료	2.8	3.8	1.9	1.2	3.1	4.7	4.7	2.4	5.7	2.8
	언어치료	1.7	1.9	1.5	1.7	1.6	2.4	3.0	1.7	3.4	1.8
	음악치료	1.6	1.7	1.3	1.3	2.1	1.6	1.0	1.6	-	1.6
	놀이치료	2.0	2.0	2.1	1.6	2.7	4.2	1.0	2.1	0.7	2.0
	미술치료	1.8	2.0	1.5	1.7	1.8	2.6	-	1.8	1.0	1.8
	심리행동치료	1.4	1.2	1.8	1.3	1.6	1.7	1.0	1.5	0.6	1.4
	기타	2.9	2.6	3.2	1.8	3.6	4.2	3.8	3.0	2.4	2.9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물리치료 2.4시간 심리행동치료 2.3시간으로 같았고 그 외의 치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46-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이 작업치료에 각각 주당 평균 4.7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중증에 비해 작업치료, 언어치료에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증은 경증에 비해 물리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함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4.4	4.0	7.0	3.6	1.9	4.4	7.3	-	1.4	3.2	1.0	1.0	-	-	4.8	180.0
	작업치료	11.2	18.0	9.3	20.0	-	-	10.2	12.9	2.0	-	-	-	-	-	-	-
	언어치료	13.0	16.5	17.0	6.0	9.4	6.7	10.2	18.3	-	-	-	-	-	-	-	-
	음악치료	7.8	-	2.3	24.0	4.0	6.8	8.8	12.0	1.2	-	-	-	-	-	-	-
	놀이치료	6.9	-	7.2	-	5.0	7.3	5.1	17.3	1.0	-	-	-	-	-	-	-
	미술치료	6.8	26.0	2.8	3.0	-	18.4	7.0	7.8	1.0	-	-	-	-	-	-	-
	심리행동치료	10.2	1.0	14.8	2.5	-	3.4	11.3	30.6	2.0	-	-	-	-	1.0	-	2.0
	기타	11.1	5.7	9.1	1.0	6.0	14.5	12.5	23.9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7	2.5	4.9	2.6	1.4	1.5	2.3	0.9	1.4	1.7	3.4	0.9	5.1	2.0	5.7	0.5
	작업치료	5.2	3.7	6.7	-	1.0	-	4.2	11.8	0.1	-	-	-	-	-	-	2.9
	언어치료	9.3	-	7.2	5.6	6.1	4.2	9.0	16.2	-	-	-	-	-	-	-	4.0
	음악치료	2.5	-	5.5	-	-	-	2.5	6.4	0.8	-	-	-	-	-	-	-
	놀이치료	5.3	-	4.9	-	-	-	9.2	6.5	0.3	-	-	-	-	-	-	-
	미술치료	3.7	3.7	6.7	0.7	-	7.9	2.3	9.3	0.6	-	-	-	-	-	-	-
	심리행동치료	4.0	3.3	4.7	0.7	-	-	4.2	8.1	1.5	-	5.0	-	-	-	-	4.2
	기타	9.2	19.0	13.7	-	2.5	0.4	6.3	6.1	0.4	-	-	22.0	-	-	-	-
2017	물리치료	2.8	2.8	3.6	2.4	2.0	-	5.1	18.0	1.5	2.1	1.6	1.4	0.3	1.6	1.1	0.2
	작업치료	5.4	3.3	4.6	5.6	-	-	5.8	13.5	-	-	-	-	-	-	-	-
	언어치료	12.3	21.6	11.5	4.0	2.4	8.1	9.0	22.4	-	-	-	-	-	-	-	-
	음악치료	6.4	1.5	4.5	-	-	15.0	3.3	16.5	-	-	-	-	-	-	-	-
	놀이치료	7.1	0.1	1.7	4.0	24.0	17.0	3.3	14.7	-	-	-	-	-	-	-	-
	미술치료	7.0	-	4.4	4.0	24.0	12.0	4.5	16.9	0.7	-	-	-	-	-	-	-
	심리행동치료	7.6	-	11.6	-	60.0	-	5.6	16.7	2.9	-	-	-	-	-	-	-
	기타	8.7	5.1	10.1	1.0	-	4.6	7.1	18.1	2.7	-	-	-	-	-	-	-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은 모든 서비스가 2014년에 비해 2017년 증가함

- 재활치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치료를 제외하고 언어치료가 평균 12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심리행동치료 7만 6천원, 놀이치료 7만 1천원, 미술치료 7만원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의 각 서비스별 치료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 두 장애가 배우자로 시행되고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서 작업,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으며 그에 따라 비용부담 역시 커짐을 알 수 있음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4.4	4.6	4.2	15.0	4.7	5.5	3.1	6.5	3.9	4.3
	작업치료	11.2	13.2	8.8	11.9	5.7	23.7	8.5	11.8	9.3	11.2
	언어치료	13.0	12.8	13.3	13.1	13.7	12.2	5.0	15.0	9.9	13.3
	음악치료	7.8	7.8	7.9	9.5	4.7	4.0	3.0	6.9	10.6	7.8
	놀이치료	6.9	8.0	4.7	8.4	2.4	—	4.7	6.8	7.1	6.9
	미술치료	6.8	7.2	6.3	8.0	2.6	—	4.3	7.1	6.1	6.8
	심리행동치료	10.2	11.5	7.4	12.4	2.6	1.4	—	9.1	7.8	8.5
	기타	11.1	12.4	8.9	17.9	4.6	6.0	4.3	13.2	8.5	11.1
2014	물리치료	2.7	3	2.6	8.6	3.4	3.5	2.1	3.3	2.6	2.8
	작업치료	5.2	5.5	4.3	5.8	2.6	1.9	12.3	4	14.5	5
	언어치료	9.3	10.6	6.7	9.3	9.6	0.8	13.4	9.4	8.8	9.4
	음악치료	2.5	1.9	3.4	5.1	1	—	—	2.4	7.4	2.5
	놀이치료	5.3	5	5.8	9.3	3.4	—	3.2	4.6	20	4.8
	미술치료	3.7	4.5	2.2	5.8	1.5	—	4.7	3.4	12.0	3.7
	심리행동치료	4	4.3	2.3	4.7	4	2.7	—	3.5	5.6	3.8
	기타	9.2	6.5	16.7	10.7	4.4	11.3	13.3	7.2	18.2	8.6
2017	물리치료	2.8	3.0	2.7	7.2	5.2	3.4	2.2	3.4	2.7	2.9
	작업치료	5.4	5.6	5.2	6.3	5.7	1.3	8.1	6.0	0.6	5.4
	언어치료	12.3	12.4	12.0	11.8	12.4	13.0	36.0	12.3	13.9	12.4
	음악치료	6.0	7.7	2.4	7.2	4.9	—	1.5	6.0	—	6.0
	놀이치료	7.1	8.2	4.7	9.3	0.5	—	0.1	6.8	10.2	7.1
	미술치료	7.0	8.6	4.7	10.2	2.6	—	—	7.0	24.0	7.1
	심리행동치료	7.6	8.2	6.6	10.7	3.1	—	—	7.1	6.2	7.0
	기타	8.7	9.5	7.6	10.8	6.0	5.0	10.2	9.3	5.4	8.6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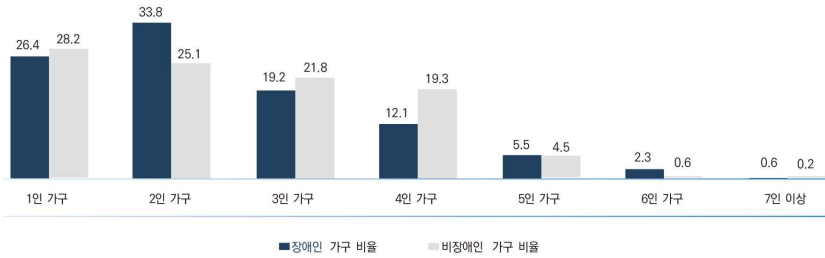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월 평균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서비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물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작업치료와 언어치료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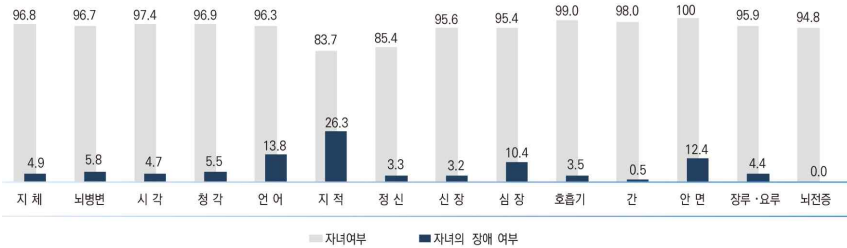


### 3. 가족

[그림 2-3-1] 장애인 가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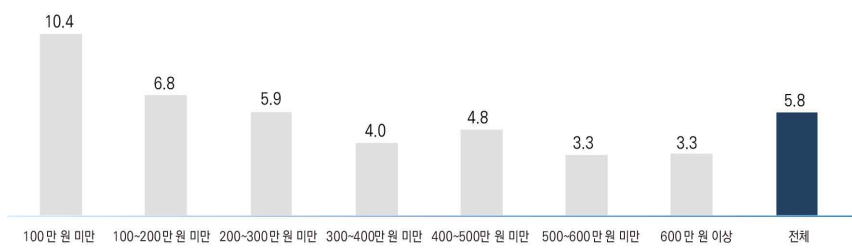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



- 비장애인 가구의 규모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짐
  - 장애인가구는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음
-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6.4%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5.3%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16.3%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14.6%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6.3%로 가장 높았고 언어장애 13.8%, 안면장애 12.4% 순임



[그림 2-3-3] 다문화 장애가구 및 소득



주: 그림에서 전체의 비율은 다문화 가구 중 장애가구의 비율임

- 다문화가구의 소득별로 장애인 가구원 유무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0.4%,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6.8% 등 가구소득이 낮은 다문화 가구 집단에서는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가구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각각 3.3% 켜으로 조사되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 가구구성

### (1) 가구구성 및 규모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100.0	100.0	100.0
1인 가구	27.9	26.4	28.2
부부	20.0	26.4	18.8
기타1세대(형제, 자매)	0.6	0.8	0.6
부부+미혼자녀	36.0	24.6	38.1
부부+기혼자녀	0.2	0.4	0.2
편부+미혼자녀	1.6	2.0	1.5
편모+미혼자녀	6.5	5.3	6.7
부부+양친	0.0	0.1	0.0
부부+편부모	0.9	1.7	0.7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0.3	0.4	0.2
조부모+손자녀	0.5	0.7	0.5
기타2세대	1.0	2.4	0.8
부부+자녀(미혼, 기혼)+양친	0.5	1.2	0.4
부부+자녀(미혼, 기혼)+편부모	2.1	4.3	1.7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1.7	3.1	1.5
비 혈연 가구	0.2	0.2	0.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장애인 실태조사」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단위: %, 명)

구분	전체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가구
계	100.0	100.0	100.0
1인 가구	27.9	26.4	28.2
2인 가구	26.5	33.8	25.1
3인 가구	21.4	19.2	21.8
4인 가구	18.1	12.1	19.3
5인 가구	4.7	5.5	4.5
6인 가구	1.1	2.3	0.6
7인 이상	0.3	0.6	0.2
평균 가구원 수	2.50	2.46	2.5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전체 가구의 구성은 부부+미혼자녀의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 27.9%, 부부 20.0% 순임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율은 낮음
  - '부부+자녀(미혼, 기혼)+양친', '부부+자녀(미혼, 기혼)+편부모'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인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5.5%로 3세대 이상인 비장애인 가구의 비율 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가구의 규모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적어짐
  -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 가족형성

## (1) 결혼상태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5.3	61.0	57.8	61.4	58.8	48.9	12.5	0.0	19.2	59.8	75.8	62.0	78.7	52.5	73.5	37.0
사별	18.7	20.9	19.4	16.8	29.2	11.2	4.9	0.0	3.4	11.7	13.5	10.7	4.4	15.9	13.5	3.0
이혼	9.0	9.2	7.6	10.3	5.5	13.8	4.5	0.0	20.0	12.7	3.4	25.1	11.2	1.5	8.7	8.5
별거	1.6	1.7	1.4	1.3	1.6	4.6	0.2	0.0	0.6	3.4	4.5	0.0	0.0	0.0	2.0	3.2
미혼	15.3	7.2	13.9	10.2	4.9	21.5	77.9	100	55.7	12.4	2.9	2.1	5.6	30.1	2.3	48.2
기타(미혼모/부)	0.1	0.0	0.0	0.0	0.0	0.0	0.0	0.0	1.1	0.0	0.0	0.0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5.3	65.0	42.5	-	28.1	62.1	58.1	43.8	62.7	55.7
사별	18.7	5.3	36.6	-	0.7	5.6	34.3	13.9	21.0	18.4
이혼	9.0	9.9	7.9	-	5.2	15.7	5.0	9.8	8.5	9.0
별거	1.6	1.6	1.5	-	0.2	2.2	1.4	1.4	1.5	1.5
미혼	15.3	18.1	11.5	-	65.7	14.3	1.2	31.0	6.3	15.4
기타(미혼모/부)	0.1	0.0	0.1	-	0.2	0.1	0.0	0.1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가 55.3%로 가장 많았고 사별 18.7%, 미혼 15.3%, 이혼 9.0%, 별거 1.6%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인은 미혼율이 100%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 정신장애, 뇌전증, 안면장애의 또한 각각 77.9%, 55.7%, 48.2%, 30.1%로 다른 장애에 비해 미혼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65.0%로 여성 42.5%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한 비율이 36.6%로 남성 5.3%에 비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유배우자 비율이 62.7%로 중증 43.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 평균초혼연령

〈표 3-2-3〉 평균초혼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10-19세	8.3	9.4	6.6	7.0	10.5	1.2	6.4	-	1.4	4.3	0.0	0.0	2.9	0.0	1.7	0.0
만20-29세	69.7	70.1	71.3	65.8	71.9	48.9	60.3	-	65.3	70.5	64.2	68.9	72.7	60.5	77.7	77.6
만30-39세	18.6	17.3	18.7	23.4	15.4	38.5	26.1	-	27.7	20.7	29.9	29.6	22.6	39.5	16.9	18
만40-49세	2.5	2.3	2.9	2.6	1.9	11.4	4.9	-	4.2	2.9	5.9	1.5	1.9	0.0	2.1	2.2
만50세이상	0.9	1.0	0.5	1.1	0.3	0.0	2.2	-	1.3	1.7	0.0	0.0	0.0	0.0	1.6	2.2
평균연령	26.3	26.1	26.5	26.8	25.4	30.6	27.5	-	28.6	27	28.9	27.6	27.6	28.7	27.7	28.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4〉 평균초혼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10-19세	8.3	1.5	16.7	-	1.4	2.7	12.8	6.2	8.7	8.0
만20-29세	69.7	65.5	74.8	-	51.8	67.7	72.8	68.2	70.7	70.0
만30-39세	18.6	28.4	6.7	-	44.9	23.8	12.4	21.0	17.7	18.7
만40-49세	2.5	3.5	1.3	-	1.8	4.6	1.1	3.2	2.1	2.5
만50세이상	0.9	1.2	0.6	-	0.0	1.2	0.8	1.4	0.7	0.9
평균연령	26.3	28.6	23.6	-	29.1	28.1	24.9	27.1	26.1	26.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26.3세이며, 초혼연령 중 만20-29세가 69.7%로 가장 많았고 만30-39세 18.6%, 만10-19세 8.3%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만20-39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하는 반면, 여성은 만10-29세 사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초혼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3)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표 3-2-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배우자	2.5	1.7	0.8	3.1	4.7	2.4	25.4	—	4.4	0.6	0.0	9.0	0.0	0.0	4.6	1.3
2014 배우자	2.7	1.7	1.0	2.1	6.2	3.4	22.1	—	9.5	0.7	0.0	0.0	0.0	0.0	0.0	16.1
2017 배우자	2.4	1.4	2.3	2.5	4.1	7.3	21.1	—	4.1	1.0	—	4.1	—	14.7	0.4	9.8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6〉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배우자	2.5	1.9	3.3	—	7.9	3.3	0.7	8.0	1.5	2.6
2014 배우자	2.7	2.1	3.4	—	10	3.8	0.7	7.1	0.8	2.7
2017 배우자	2.4	1.9	3.0	—	6.6	3.7	1.1	5.9	0.9	2.4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2017년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여부는 2.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과 유사한 수치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지적장애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면장애가 14.7%, 뇌전증장애가 9.8% 순임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아짐

• 장애정도별로 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중증이 5.8%로 경증 0.9%에 비해 높게 나타남

#### (4) 자녀 현황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6.4	96.8	96.7	97.4	96.9	96.3	83.7	-	85.4	95.6	95.4	99	98	100	95.9
	아니오	3.6	3.2	3.3	2.6	3.1	3.7	16.3	-	14.6	4.4	4.6	1.0	2.0	0.0	4.1
자녀 수	1명	14.3	13.3	12.3	16.1	8.3	41.1	50.9	-	28.2	20.7	13.5	28.2	21.2	28.7	7.4
	2명	40.9	41.9	41.8	43.2	32.5	42.3	31.1	-	42.1	46.7	42.4	25.4	60.2	68.9	49.4
	3명	21.7	21.9	24.4	22.1	22	9.9	13.9	-	15.3	18.6	26	19.5	12.9	0.0	20.8
	4명	12.5	12.3	13.9	10.5	17.3	4.5	4.1	-	7.5	7.5	18.1	20.2	5.2	2.4	16.1
	5명이상	10.6	10.6	7.7	8.1	19.9	2.2	0.0	-	7.0	6.4	0.0	6.7	0.5	0.0	6.3
자녀의 장애 여부	예	5.3	4.9	5.8	4.7	5.5	13.8	26.3	-	3.3	3.2	10.4	3.5	0.5	12.4	4.4
	아니오	94.7	95.1	94.2	95.3	94.5	86.2	73.7	-	96.7	96.8	89.6	96.5	99.5	87.6	95.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6.4	95.9	97.0	-	87.5	94.8	98.3	94.5	97.2
	아니오	3.6	4.1	3.0	-	12.5	5.2	1.7	5.5	2.8
자녀 수	1명	14.3	15.6	12.8	-	34.6	22.9	6.9	16.9	13.3
	2명	40.9	47.8	32.6	-	54.8	59.7	27.4	41.0	41.3
	3명	21.7	20.9	22.6	-	10.4	14.0	27.7	20.3	21.5
	4명	12.5	9.0	16.7	-	0.1	2.7	20.0	13.0	12.2
	5명이상	10.6	6.6	15.4	-	0.1	0.7	18.0	8.8	11.1
자녀의 장애 여부	예	5.3	3.9	7.1	-	2.6	4.1	6.3	5.9	4.9
	아니오	94.7	96.1	92.9	-	97.4	95.9	93.7	94.1	95.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6.4%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5.3%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16.3%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14.6%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6.3%로 가장 높았고 언어장애 13.8%, 안면장애 12.4% 순임



## (5)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	-	100.0
남편	8.3	15.2	13.6	3.6	0.0	0.0	11.7	-	0.0	-	-	-	-	0.0	-	2.9
친정식구	43.8	44.4	33.0	37.8	37.2	0.0	45.8	-	87.3	-	-	-	-	0.0	-	23.9
시댁식구	12.5	7.0	21.4	7.1	14.3	100.0	21.3	-	12.7	-	-	-	-	0.0	-	10.0
복지기관	-	-	-	-	-	-	-	-	-	-	-	-	-	-	-	-
산후조리원	27.0	21.1	17.2	44.2	48.5	0.0	12.1	-	0.0	-	-	-	-	0.0	-	45.1
산후도우미	3.8	4.7	14.8	6.0	0.0	0.0	0.0	-	0.0	-	-	-	-	0.0	-	0.0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2.9	2.4	0.0	1.3	0.0	0.0	9.1	-	0.0	-	-	-	-	100.0	-	18.1
기타	1.6	5.2	0.0	0.0	0.0	0.0	0.0	-	0.0	-	-	-	-	0.0	-	0.0
매우 충분하다	2.7	3.4	0.0	8.9	0.0	0.0	0.0	-	0.0	-	-	-	-	0.0	-	0.0
충분하다	49.8	52.2	39.9	52.6	54.1	100.0	53.9	-	23.3	-	-	-	-	0.0	-	57.6
부족하다	31.9	28.7	31.5	33.6	35.7	0.0	27.2	-	52.2	-	-	-	-	0.0	-	10.0
매우 부족하다	15.6	15.8	28.6	4.9	10.2	0.0	18.9	-	24.5	-	-	-	-	100.0	-	32.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남편	8.3	-	8.3	-	7.3	9.7	-	6.5	9.8	8.4
친정식구	43.8	-	43.8	-	28.7	65.1	-	50.5	39	44.1
시댁식구	12.5	-	12.5	-	11.3	14.3	-	13.3	10.6	11.8
복지기관	0.0	-	0.0	-	0.0	0.0	-	0.0	0	0.0
산후조리원	27	-	27	-	41.3	6.8	-	21.8	31.5	27.2
산후도우미	3.8	-	3.8	-	6.6	0	-	2.9	4.7	3.9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2.9	-	2.9	-	2.1	4.1	-	5.0	1.3	3.0
기타	1.6	-	1.6	-	2.8	0.0	-	0.0	3	1.6
매우 충분하다	2.7	-	2.7	-	0.0	6.5	-	2.4	3	2.7
충분하다	49.8	-	49.8	-	61.2	33.8	-	37.4	59	49.4
부족하다	31.9	-	31.9	-	25.7	40.6	-	38.4	27	32.1
매우 부족하다	15.6	-	15.6	-	13.2	19.1	-	21.8	10.9	15.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43.6%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원이 27%, 시댁식구 12.5%, 남편 8.3% 순임
-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 장애인의 52.0%가 충분했던 것으로, 47.5%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장애인의 산후조리 충분도가 100%로 가장 높은 반면, 안면장애에서 산후조리의 부족함이 100%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이용 비율에서 '18-44세 이하'가 47.9%로 '45-64세 이하'의 6.8%에 비해 매우 높음
  - 장애정도별로 보면 친정식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중증 50.5%로 경증 39%에 높은 반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경증이 31.5%로 중증 21.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의 충분함은 경증이 62.0%로 중증 39.8%에 비해 높음

### 3) 다문화 가족

#### (1)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가구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2012	8.6	9.7	60.4	11.2	0.1	1.5	22.8	0.2	0.2	0.4	2.6	0.4	-
2015	6.4	10.7	61.6	9.5	-	1.7	14.9	-	0.1	0.4	-	1.0	0.1
2018	5.8	16.6	42.6	13.3	-	2.6	17.1	-	0.0	2.3	-	5.0	0.5

주: 1) 다문화 가구원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

2) 본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 39, 40

- 2018년 다문화 가족의 장애인 가구 비율은 5.8%로 2015년 6.4%에 비해 낮아졌으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전체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인 1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에 비하여 2018년의 본인과 자녀의 등록장애 비율은 각각 6.1, 3.8%p증가함
- 반면, 배우자의 등록장애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단위: %, 가구)

		있음	없음	계
전체		5.8 (17,767)	94.2 (289,228)	100.0 (278,036)
거주지역	동부	5.2	93.9	100.0
	읍면부	7.9	92.1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89.6	100.0
	100~200만원 미만	6.8	93.2	100.0
	200~300만원 미만	5.9	94.1	100.0
	300~400만원 미만	4.0	96.0	100.0
	400~500만원 미만	4.8	95.2	100.0
	500~600만원 미만	3.3	96.7	100.0
	600만원 이상	3.3	96.7	100.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39.

- 2018년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 가구 분포는 동부가 5.2%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가 취약한 읍면부가 7.9%로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0.4%,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6.8% 등 가구소득이 낮은 다문화 가구 집단에서는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가구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각각 3.3%씩으로 조사되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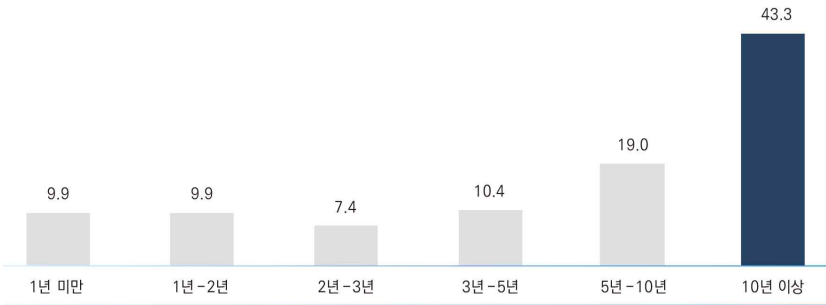
#### ※※ '다문화 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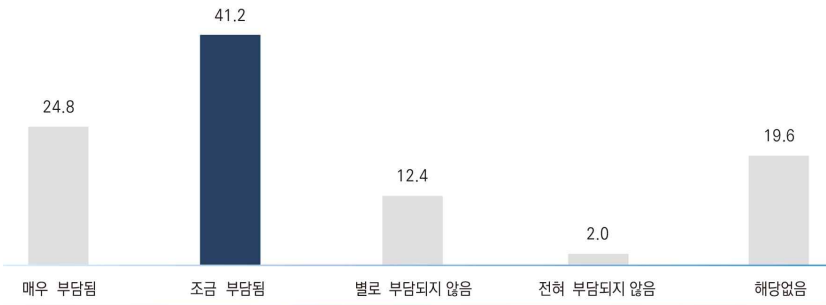


## 4. 주거

[그림 2-4-1] 무주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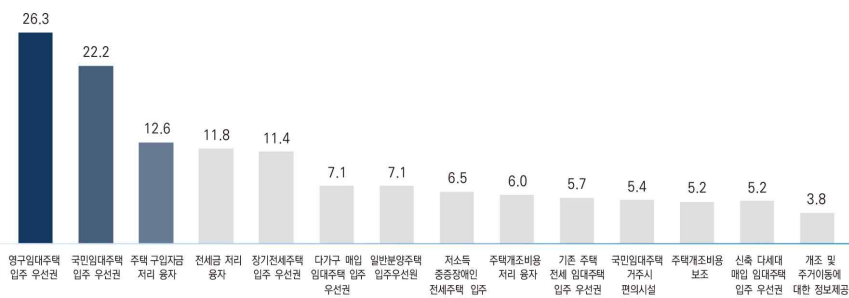
[그림 2-4-2] 주거비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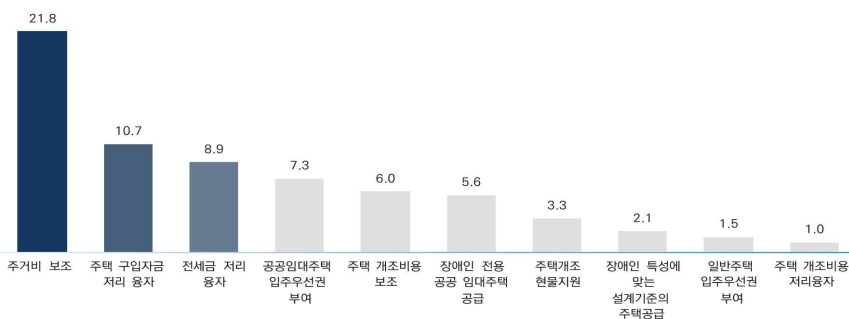
- 무주택 가구 중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조사 장애인 중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임을 의미함
-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부담된다고 한 응답 비율이 66%(매우부담24.8%, 조금 부담 41.2%)로 나타남. 반면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은 14.4%로 나타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3]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26.33%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국민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이 22.22%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또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20.0% 이상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 다른 주택형태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 1순위를 살펴보면 주거비 보조가 2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구입자금 지원 용자가 10.6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1) 주거

### (1) 주택유형

〈표 4-1-1〉 주택유형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주
계	100	43.81	41.59	4.67	7.44	1.43	1.07
행정 구역	서울	16.22	5.84	6.41	0.95	2.39	0.4
	부산	6.87	3.06	2.81	0.39	0.55	0.03
	대구	4.63	2.08	2.03	0.17	0.35	-
	인천	5.41	1.3	2.54	0.79	0.58	0.15
	광주	2.74	0.73	1.79	0.06	0.12	0.03
	대전	2.82	0.71	1.73	0.12	0.22	0.03
	울산	1.96	0.66	1.08	0.08	0.11	0.03
	경기	20.36	5.01	11.76	1.17	1.7	0.3
	강원	3.92	1.87	1.66	0.16	0.2	0.02
	충북	3.65	2.12	1.36	0.07	0.05	0.06
	충남	5.29	3.1	1.64	0.28	0.13	0.08
	전북	5.2	3.35	1.58	0.02	0.11	0.11
	전남	5.73	4.29	1.25	0.02	0.07	0.05
	경북	6.72	4.86	1.37	0.07	0.21	0.1
	경남	7.19	4.01	2.42	0.17	0.55	0.02
	제주	1.28	0.82	0.18	0.16	0.09	0.01
점유 형태	자가	58.47	27.31	23.32	3.24	3.73	0.47
	전세	11	4.65	3.97	0.47	1.49	0.27
	보증금 있는 월세	20.15	5.84	11.85	0.59	1.44	0.29
	보증금 없는 월세	2.69	1.86	0.27	0.03	0.25	0.09
	무상	7.69	4.15	2.18	0.33	0.53	0.31
소득	1분위	20.5	11.74	6.15	0.82	1.45	0.12
	2분위	21.35	11.35	7.05	0.95	1.37	0.26
	3, 4분위	26.8	11.19	10.8	1.63	2.51	0.5
	5, 6분위	14.73	5.26	7.42	0.88	0.85	0.11
	7, 8분위	7.21	2.35	3.83	0.22	0.61	0.2
	9, 10분위	8.9	1.73	6.14	0.17	0.59	0.19
	모름/무응답	0.5	0.18	0.2	-	0.05	0.05

주: 1)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2)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고소득 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43.81%로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 41.59%,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7.44% 순임
-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85.4%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36.58%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 거주 형태는 아파트 인 것으로 나타남. 광역·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도 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세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보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비율이 모든 주거유형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4분위까지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5분위부터는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 주택사용면적

〈표 4-1-2〉 주택사용면적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60㎡ 이하 (18평이하)	60㎡~85㎡ (18~25평)	85㎡~102㎡ (25~30평)	102㎡ 초과 (30평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계	100	39.53	30.71	12.92	16.8	0.04	73.39
행정 구역	서울	16.22	9.12	3.97	1.37	1.76	63.24
	부산	6.87	3.13	2.01	0.69	1.03	70.8
	대구	4.63	1.61	1.62	0.72	0.69	75.23
	인천	5.41	2.55	1.4	0.43	1	70.28
	광주	2.74	0.64	0.64	0.38	1.08	87.45
	대전	2.82	1.13	0.76	0.39	0.54	70.51
	울산	1.96	0.39	0.64	0.34	0.59	87.19
	경기	20.36	7.59	4.61	2.87	5.29	79.52
	강원	3.92	1.46	1.45	0.61	0.4	70.61
	충북	3.65	1.26	1.37	0.56	0.47	73.94
	충남	5.29	1.48	2.07	0.88	0.86	77.79
	전북	5.2	1.6	1.97	1.07	0.56	74.72
	전남	5.73	2.02	2.19	0.6	0.92	75.66
	경북	6.72	2.37	2.97	0.88	0.5	70.7
	경남	7.19	2.67	2.66	0.93	0.93	72.55
	제주	1.28	0.54	0.39	0.19	0.16	72.35
점유 형태	자가	58.47	12.43	22.33	10.2	13.5	84.92
	전세	11	6.18	2.39	0.99	1.42	64.63
	보증금 있는 월세	20.15	15.34	3.3	0.73	0.78	50.7
	보증금 없는 월세	2.69	2.06	0.39	0.16	0.08	44.31
	무상	7.69	3.52	2.31	0.83	1.03	67.91
소득	1분위	20.5	12.78	5.49	1.4	0.8	56.11
	2분위	21.35	10.62	6.71	2.26	1.76	64.18
	3, 4분위	26.8	10.49	9.33	3.35	3.63	72.38
	5, 6분위	14.73	3.58	4.9	2.86	3.38	83.49
	7, 8분위	7.21	1.2	2.34	1.23	2.43	91.69
	9, 10분위	8.9	0.68	1.85	1.66	4.71	106.89
	모름/무응답	0.5	0.18	0.09	0.15	0.08	71.56

주: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주택사용 면적 중 60㎡ 이하(18평이하)가 39.53%로 가장 많은 장애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60~85㎡ 가 2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세 및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의 경우 60㎡ 이하가 각각 6.18%, 15.34%, 2.0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앞서 살펴본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LH주택공사나 S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음
- 소득별로 1~4분위까지는 60㎡ 이하의 주택의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5,6분위는 60~85㎡ 에 7분위부터 10분위는 102㎡ 이상 면적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3) 사용 방 수

〈표 4-1-3〉 사용 방 수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평균(개)
계		100	2.45	5.54	25.92	38.8	22.83	4.45	3.89
행정 구역	서울	16.22	0.32	1.33	6.15	5.24	2.74	0.44	3.63
	부산	6.87	0.05	0.59	1.96	2.39	1.39	0.5	3.91
	대구	4.63	0.09	0.22	0.92	2.22	0.9	0.28	3.96
	인천	5.41	0.1	0.56	1.51	1.91	1.13	0.2	3.74
	광주	2.74	0.08	0.11	0.54	1.01	0.86	0.13	4.05
	대전	2.82	0.11	0.14	0.83	1.03	0.57	0.13	3.8
	울산	1.96	0.04	0.11	0.56	0.95	0.23	0.08	3.75
	경기	20.36	0.55	0.98	4.84	8.34	4.57	1.09	3.93
	강원	3.92	0.1	0.25	1.21	1.49	0.87	0.01	3.72
	충북	3.65	0.14	0.11	0.82	1.55	0.88	0.15	3.95
	충남	5.29	0.21	0.1	1.38	2.38	1.08	0.14	3.86
	전북	5.2	0.14	0.25	1.24	1.65	1.77	0.15	3.98
	전남	5.73	0.15	0.18	0.85	2.44	1.8	0.31	4.15
	경북	6.72	0.17	0.33	1.53	2.62	1.7	0.37	3.97
	경남	7.19	0.13	0.28	1.4	3.24	1.71	0.43	4.04
	제주	1.28	0.06	0.02	0.19	0.34	0.64	0.04	4.25
점유 형태	자가	58.47	0.16	1.13	8.21	27.42	17.86	3.68	4.26
	전세	11	0.43	0.84	3.89	4.05	1.53	0.25	3.56
	보증금 있는 월세	20.15	0.84	2.51	11.22	4.08	1.28	0.21	3.15
	보증금 없는 월세	2.69	0.55	0.61	0.79	0.55	0.19	0	2.71
	무상	7.69	0.46	0.44	1.81	2.69	1.96	0.31	3.83
소득	1분위	20.5	1.01	2.47	8.01	5.93	2.78	0.3	3.39
	2분위	21.35	0.75	1.67	6.68	7.82	3.91	0.53	3.67
	3, 4분위	26.8	0.51	1.01	7.29	10.74	6.27	0.98	3.91
	5, 6분위	14.73	0.12	0.19	2.42	7.16	4.18	0.67	4.17
	7, 8분위	7.21	0.01	0.08	0.8	3.47	2.25	0.6	4.36
	9, 10분위	8.9	0.01	0.11	0.65	3.56	3.2	1.38	4.62
	모름/무응답	0.5	0.06	-	0.06	0.13	0.25	-	4.02

주: 1) 원룸은 사용 방 수를 1개로 표시함

2)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는 4개가 38.8%로 가장 많았고 3개 25.92%, 5개 22.83% 순임

•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와 전세 경우 방 4개가 각각 27.42%, 4.05%로 가장 많았고 무상의 경우 역시 2.69%로 방 4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의 경우 각각 11.22%, 0.79%로 방 3개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소득 1분위만 방 3개에 거주하는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다른 분위에서는 방 4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4) 무주택 기간

〈표 4-1-4〉 무주택 기간 현황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100	3.36	2.64	2.8	5.57	13.38	11.92	13.08	11.01	36.23
행정 구역	서울	23.02	0.41	0.36	0.38	1.17	2.56	2.26	3.82	10.04
	부산	8.08	0.1	0.13	0.19	0.47	1.58	0.96	0.76	1.1
	대구	4.09	0.05	0.14	0.04	0.17	0.28	0.58	0.53	0.41
	인천	5	0.07	-	0.05	0.39	0.68	0.59	0.55	0.62
	광주	2.82	0.3	0.15	0.06	0.12	0.3	0.36	0.17	0.16
	대전	3.92	0.11	0.15	0.11	0.25	0.41	0.61	0.3	0.63
	울산	1.21	0.04	0.02	0.15	0.1	0.14	0.04	0.19	0.15
	경기	20.29	0.46	0.99	0.83	1.33	2.62	2.44	2.21	2.8
	강원	4.4	0.09	0.23	0.25	0.11	0.16	0.89	0.78	0.33
	충북	2.71	0.43	0.23	0.04	0.09	0.16	0.33	0.19	0.24
	충남	3.9	0.12	0.08	0.16	0.19	0.68	0.66	0.81	0.39
	전북	4.88	0.28	0.08	0.13	0.18	0.99	0.62	0.62	0.69
	전남	3.99	0.1	0.01	0.18	0.25	0.7	0.43	0.41	0.37
	경북	5.05	0.62	0.01	0.14	0.31	0.61	0.39	0.71	0.54
	경남	5.44	0.1	0.02	0.02	0.38	1.33	0.62	0.75	0.42
	제주	1.21	0.07	0.04	0.07	0.05	0.18	0.13	0.28	0.15
점유 형태	자가	-	-	-	-	-	-	-	-	-
	전세	22.53	0.65	0.58	0.85	1.87	2.42	2.9	3.26	2.53
	보증금 있는 월세	52.5	1.52	1.72	1.03	2.09	6.87	5.92	6.68	6.8
	보증금 없는 월세	7.07	0.23	0.11	0.19	0.27	0.99	0.96	0.8	0.62
	무상	17.9	0.96	0.23	0.74	1.34	3.1	2.14	2.34	1.05
소득	1분위	30.33	1.2	0.48	0.9	2.04	4.09	3.88	2.87	3.02
	2분위	25.77	0.71	0.78	0.46	1.35	3.43	2.59	3.41	2.65
	3, 4분위	29.2	0.92	0.67	1	1.25	4.34	3.56	4.05	3.79
	5, 6분위	9.64	0.11	0.51	0.22	0.45	0.92	1.2	1.91	0.9
	7, 8분위	2.49	0.04	0.2	0	0.09	0.39	0.48	0.48	0.46
	9, 10분위	2.37	0.38	-	0.23	0.38	0.22	0.19	0.36	0.19
	모름/무응답	0.21	-	-	-	-	0.01	-	-	0.19

주: 1) 계는 현재주택 외 보유주택이 없는 자가 및 무상가구 중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함

2)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무주택 가구 중 25년 이상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36.2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조사 장애인 중 약 1/3이 25년 이상 무주택 상황임을 의미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3.02%, 20.29%로 1년 이상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인 비율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10.04%,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제주지역은 무주택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2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52.5%가 1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도 19.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2분위가 56.1%로 1년 이상 무주택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며, 3,4분위에서 5,6분위로 넘어가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5) 주거비 부담 수준

〈표 4-1-5〉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계		100	41.49	28.73	6.43	1.09	22.26
행정 구역	서울	18.61	8.13	5.9	0.72	0.39	3.47
	부산	6.39	2.45	2.41	0.37	0.08	1.08
	대구	5.82	2.42	1.29	0.28	0.02	1.8
	인천	7.04	2.94	1.84	0.39	0.03	1.83
	광주	2.74	0.92	1.02	0.09	—	0.71
	대전	3.48	1.24	1.0	0.38	0.03	0.81
	울산	1.87	0.75	0.49	0.07	0.06	0.5
	경기	23.15	10.46	7.43	1.43	0.26	3.56
	강원	3.28	1.72	0.92	0.3	0.03	0.3
	충북	2.74	0.69	0.73	0.36	0.04	0.92
	충남	4.58	1.18	1.14	0.66	0.01	1.59
	전북	5.21	2.01	1.41	0.22	0.03	1.54
	전남	3.97	1.55	0.69	0.21	0.02	1.5
	경북	4.15	1.73	1.02	0.45	0.05	0.9
	경남	5.65	2.71	1.18	0.4	0.04	1.31
	제주	1.34	0.57	0.24	0.1	—	0.43
점유 형태	자가	44.91	13.31	8.15	1.99	0.14	21.33
	전세	5.71	2.3	2.18	0.27	0.04	0.92
	보증금 있는 월세	43.56	22.37	16.92	3.41	0.87	—
	보증금 없는 월세	5.81	3.52	1.49	0.77	0.05	—
	무상	—	—	—	—	—	—
소득	1분위	17.4	8.47	4.99	1.38	0.06	2.51
	2분위	19.89	8.96	5.81	1.14	0.33	3.65
	3, 4분위	30.05	12.96	8.75	1.56	0.48	6.3
	5, 6분위	15.19	5.95	3.9	1.13	0.14	4.08
	7, 8분위	8.04	2.77	2.4	0.36	0.02	2.5
	9, 10분위	9.19	2.21	2.88	0.86	0.07	3.16
	모름/무응답	0.24	0.18	0.01	—	—	0.05

주: 1) 계는 점유형태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이거나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해당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이면서 주택마련 및 임차 당시 대출을 했더라도 현재 모두 상환한 경우임

3) 점유형태 중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부담된다고 한 응답 비율이 70.22%(매우부담41.49%, 조금 부담 28.73%)로 나타남. 반면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은 7.52%로 나타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약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과 서울 지역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각각 17.89%,14.0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가 매우 부담됨이 22.37, 조금 부담됨이 16.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의 경우 대출금 상환부담 정도가 매우 부담됨이 13.3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소득 3,4분위가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2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 7분위이상부터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약 5%정도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



## 2) 주택 환경

### (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3.9	84.2	83.7	80.7	86.3	76.0	84.0	86.4	78.0	89.9	97.2	76.8	85.5	72.0	86.6	86.3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추	83.0	83.8	83.5	80.7	82.4	78.9	80.6	83.5	80.5	87.6	97.9	80.9	84.0	83.2	82.8	81.4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83.3	84.3	84.0	80.1	83.9	78.8	80.7	78.4	77.9	86.7	97.3	79.1	92.6	79.0	85.9	94.5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92.5	92.6	92.3	91.6	92.2	79.0	93.8	97.1	89.0	97.8	100	91.1	93.2	100.0	97.5	100.0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48.6	48.5	50.3	45.6	44.2	35.2	49.8	73.1	46.0	61.7	64.6	42.3	65.0	38.1	57.8	44.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3.9	83.0	85.0	88.5	85.8	84.0	82.9	84.1	84.3	84.2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추	83.0	82.7	83.5	85.0	83.4	83.6	82.3	82.7	83.6	83.3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83.3	82.7	84.1	86.1	82.9	82.8	83.6	82.0	84.3	83.4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92.5	92.7	92.3	94.9	93.9	93.3	91.4	93.2	92.2	92.6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48.6	48.8	48.3	63.8	59.5	51.6	41.9	51.9	47.3	49.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이 48.6%로 가장 열악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7세이하가 83.7%, 18-44세 이하가 81.1%, 45-64세 이하가 79.1%, 65세 이상이 76.42%로 연령이 높을수록 충족도가 낮아진다.
- 자폐성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한 비율이 73.1%로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14.8	14.5	12.4	17.5	14.6	15.4	19.3	25.8	7.8	12.2	17.5	15.2	21.4	19.6	12.8	11.6
약간편리함	59.8	59.9	50.4	56.4	65.2	59.9	61.8	58.4	63.7	63.7	61.9	68.0	69.8	35.2	66.6	72.0
약간불편함	21.1	21.7	27.3	21.8	17.6	19.2	16.6	13.6	20.5	20.5	20.6	7.9	6.5	45.2	16.1	13.0
매우불편함	4.3	3.9	9.8	4.2	2.6	5.5	2.3	2.3	4.7	3.5	-	9.0	2.2	-	4.5	3.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14.8	15.4	13.9	24.9	18.5	14.9	12.8	14.4	15.5	15.1
약간편리함	59.8	60.0	59.5	59.1	60.8	60.0	59.4	58.7	60.6	59.9
약간불편함	21.1	20.2	22.4	14.0	16.7	21.1	22.9	21.4	20.4	20.8
매우불편함	4.3	4.4	4.2	2.0	4.0	4.0	4.9	5.5	3.5	4.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74.6%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5.4%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집 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은 안면장애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간장애가 8.7%로 가장 낮았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이 26.9%로 경증 23.9%에 비해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개조 의사	반드시 개조 원함	3.2	3.0	7.4	2.5	2.3	0.5	1.6	2.9	3.0	1.4	-	3.6	-	3.4	2.9
	가급적 개조 원함	13.4	13.9	20.1	13.1	11.2	17.9	9.5	9.1	6.4	11.2	13.5	16.1	4.2	29.9	12.5
	별로개조 원치 않음	48.8	48.2	49.2	45.6	51.8	52.8	46.0	46.1	57.4	53.2	47.5	40.6	61.1	44.9	54.4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1.1	31.1	20.0	33.9	31.7	25.6	40.3	36.5	32.5	32.6	34.8	31.9	32.9	10.9	34.7
	이미 개조하였음	3.5	3.8	3.2	4.8	3.1	3.1	2.6	5.4	0.7	1.6	4.2	7.8	1.8	14.2	4.7
희망 개조 장소 (1순위)	부엌	14.9	14	11.9	26.6	13.9	16.2	15.5	-	11.8	22.6	-	22.8	-	67.8	2.3
	변기	8.5	8.0	9.0	5.5	6.9	-	13.3	-	18.0	-	-	4.5	42.2	26.8	82.1
	욕조	11.2	10.7	14.4	3.6	2.3	-	23.2	30.9	11.2	24.3	63.8	14.8	42.2	-	20.2
	문턱 낮추기	21.9	25.1	28.1	21.3	12.8	34.6	2.8	-	-	18.0	-	21.0	-	-	4.3
	방문(출입문 고치기)	5.6	5.5	2.6	5.9	6.6	22.6	8.0	7.1	9.1	9.2	5.0	14.7	-	-	-
	냉·난방	7.9	8.7	2.6	5.0	13.3	6.5	12.7	43.2	18.5	-	-	-	15.6	5.4	6.5
	채광	2.6	2.2	1.1	3.9	4.0	2.9	1.3	18.9	12.3	1.0	-	-	-	-	6.9
	이파트 출입구(계단)	3.3	3.8	4.5	1.7	-	-	5.3	-	-	6.6	-	-	-	-	-
	청각장애인 용초인종 (경광등)	2.1	-	-	-	24.3	-	-	-	-	-	-	-	-	-	-
	현관(계단)	16.6	17.6	20.2	18.5	13.4	17.2	8.0	-	7.9	10.9	31.2	6.7	-	-	17.9
	미끄럼방지	2.5	1.3	5.1	4.5	1.5	-	7.0	-	-	-	-	-	-	-	-
	비상 연락장치	1.3	1.4	-	1.7	0.7	-	3.0	-	-	3.1	-	15.5	-	-	4.8
	기타	1.7	1.8	0.5	1.7	0.5	-	-	-	11.2	4.4	-	-	-	-	17.8

주: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주택 개조 의사를 살펴보면, 개조를 원치 않는 비율이 79.9%로 개조를 원한다고 답한 16.6%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는 문턱 낮추기가 21.9%로 가장 많았고, 현관(계단) 16.6%, 부엌 14.9%, 욕조 11.2% 순임
  - 장애유형별로 주택개조 의사(반드시 개조 원함 + 가급적 개조 원함)를 살펴보면, 안면장애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장애가 27.5%, 호흡기장애 19.7%, 언어장애 18.4% 순임
  - 장애유형별 희망개조장소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의 경우 문턱낮추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언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의 희망개조장소는 현관(계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부엌, 자폐성장애와 장루·요루장애는 욕조가 가장 높음
  - 그 외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호흡기장애는 미끄럼방지, 뇌전증장애는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주택개조 의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드시 개조 원함	3.2	2.6	3.9	3.6	3.2	2.9	4.0	2.4	3.0
	가급적 개조 원함	13.4	11.6	15.8	10.4	9.1	11.1	14.3	12.8	13.4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8.8	49.9	47.4	42.6	47.2	49.5	48.9	48.8	48.8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1.1	32.8	28.8	40.7	38.1	26.9	29.1	32.7	31.3
	이미 개조하였음	3.5	3.1	4.1	2.8	2.4	4.0	3.6	3.3	3.4
희망 개조장소 (1순위)	부엌	14.9	13.3	16.5	5.6	16.5	13.5	12.5	16.7	14.9
	변기	8.5	8.8	8.1	0.0	8.5	11.6	7.1	8.6	8.2
	욕조	11.2	13.0	9.3	17.9	13.1	14.7	8.4	13.7	11.5
	문턱 낮추기	21.9	18.7	24.9	18.6	8.9	18.2	26.5	20.3	21.5
	방문 (출입문 고치기)	5.6	4.9	6.2	15.4	11.7	4.4	6.7	4.9	5.7
	냉·난방	7.9	8.7	7.2	4.0	7.6	6.0	9.3	6.3	8.1
	채광	2.6	3.7	1.6	1.4	3.9	2.7	2.4	2.8	2.7
	아파트 출입구(계단)	3.3	3.0	3.6	0.0	5.0	2.6	3.6	2.4	3.3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2.1	3.0	1.4	0.0	3.9	0.5	2.8	2.2	2.2
	현관(계단)	16.6	16.8	16.4	23.7	14.4	14.2	18.0	17.2	16.5
	미끄럼방지	2.5	3.2	1.9	13.4	3.5	2.4	1.9	3.5	2.6
	비상연락장치	1.3	1.1	1.4	0.0	1.5	1.5	1.1	1.7	1.3
	기타	1.7	1.8	1.6	0.0	1.3	3.3	0.9	2.2	1.5

주: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주택 개조 의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개조여의사가 24.6%로 남성 22.1%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45-64세 이하의 주택개조여의사가 29.1%로 가장 높고, 18-44세 이하 25.0%, 65세 이상 20.6% 순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개조여의사가 21.1%로 경증 24.6%보다 낮게 나타남
- 연령별 희망개조장소를 보면 평균적으로 미끄럼방지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상연락장치가 34.7%, 방문(출입문 고치기)가 17.6% 순임



### 3) 주거복지사업

#### (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서비스별

(단위: %)

구분	전체	알고 있음	모름
주택 구입자금 저리 융자	100.0	12.62	87.38
전세금 저리 융자	100.0	11.83	88.17
주택개조비용 저리 융자	100.0	6.04	93.96
주택개조비용 보조	100.0	5.22	94.78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26.33	73.67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22.22	77.78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100.0	11.43	88.57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7.13	92.87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5.23	94.77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100.0	5.69	94.3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우선권	100.0	6.45	93.55
일반분양주택 입주우선권	100.0	7.14	92.86
국민임대주택 거주시 편의시설 무료설치	100.0	5.38	94.62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	100.0	3.82	96.18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26.33%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국민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이 22.22%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또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20%이상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 다른 주택형태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 주거지원 프로그램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주택 구입자금 저리용자	전세금 저리용자	주거비 보조	주택 개조비용 보조	주택 개조비용 저리용자
계	100.0	10.66	8.88	21.76	5.97	0.99
행정 구역	서울	16.22	1.65	1.6	2.29	0.73
	부산	6.87	0.99	0.89	1.05	0.37
	대구	4.63	0.28	0.19	0.88	0.17
	인천	5.41	0.68	0.32	1.33	0.33
	광주	2.74	0.35	0.31	0.75	0.25
	대전	2.82	0.33	0.2	0.55	0.12
	울산	1.96	0.28	0.26	0.15	0.01
	경기	20.36	3.13	2.48	3.5	0.84
	강원	3.92	0.21	0.52	1.05	0.16
	충북	3.65	0.48	0.49	0.61	0.45
	충남	5.29	0.43	0.16	2.11	0.25
	전북	5.2	0.23	0.54	2.09	0.77
	전남	5.73	0.55	0.17	1.56	0.7
	경북	6.72	0.26	0.21	1.12	0.35
	경남	7.19	0.68	0.5	2.4	0.35
	제주	1.28	0.13	0.04	0.31	0.11
장애 유형	지체장애	53.24	6.31	4.45	11.37	3.69
	뇌병변장애	9.64	0.82	0.99	2.43	0.5
	시각장애	10.3	1.06	1.05	1.79	0.48
	청각장애	10.26	0.89	0.79	2.28	0.58
	언어장애	0.76	0.07	0.09	0.14	0.04
	지적장애	6.4	0.51	0.62	1.47	0.28
	자폐성장애	0.75	0.13	0.08	0.12	0.01
	정신장애	3.54	0.25	0.29	0.96	0.22
	신장장애	2.94	0.42	0.32	0.71	0.07
	심장장애	0.26	0.04	0.03	0.06	0.01
	호흡기장애	0.51	0.04	0.05	0.13	0.01
	간장애	0.41	0.06	0.03	0.09	0.02
	안면장애	0.11	0.01	0.01	0.02	-
	장루·요루장애	0.59	0.04	0.05	0.12	0.03
	뇌전증장애	0.29	0.02	0.02	0.09	0.02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필요한 주거지원프로그램 1순위를 살펴보면 주거비 보조가 2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구입자금 저리 용자가 10.6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는 앞서 〈표 4-1-5〉 주거비 부담수준에서 살펴본 임차료나 대출상환금 부담에 대한 정도와 같은 의미의 결과라 할 수 있겠음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주택개조 현물지원	장애인 전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의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주우선권 부여	일반주택 임주우선권 부여	기타	없음
계	3.33	5.61	2.05	7.28	1.5	0.11	31.88
행정 구역	서울	0.23	1.62	0.59	1.79	0.65	5.02
	부산	0.14	0.52	0.2	0.53	0.04	2.06
	대구	0.1	0.17	0.03	0.53	0.13	2.13
	인천	0.06	0.2	0.12	0.59	0.06	1.71
	광주	0.35	0.16	0.05	0.05	0.06	0.38
	대전	0.03	0.18	0.09	0.1	0.02	1.09
	울산	0.02	0.06	0.01	0.15	0.02	0.99
	경기	0.55	1.42	0.32	2.16	0.17	5.61
	강원	0.07	0.16	0.04	0.07	-	1.61
	충북	0.3	0.24	0.12	0.1	0.03	0.73
	충남	0.36	0.25	0.25	0.29	0.19	0.89
	전북	0.17	0.11	0.06	0.18	0.03	0.95
	전남	0.34	0.23	0.03	0.09	0.02	2.0
	경북	0.46	0.1	0.08	0.34	0.03	3.7
	경남	0.12	0.11	0.04	0.22	0.02	2.55
	제주	0.04	0.07	0.02	0.09	-	0.47
장애 유형	지체장애	1.8	2.75	1.08	3.38	0.74	17.07
	뇌병변장애	0.32	0.71	0.23	0.67	0.1	2.77
	시각장애	0.37	0.49	0.3	1.07	0.17	3.38
	청각장애	0.41	0.43	0.19	0.73	0.2	3.65
	언어장애	0.03	0.04	0.02	0.06	0.02	0.24
	지적장애	0.21	0.55	0.06	0.46	0.09	2.09
	자폐성장애	0.01	0.08	0.03	0.05	0.01	0.22
	정신장애	0.09	0.3	0.05	0.32	0.03	1.01
	신장장애	0.04	0.11	0.03	0.32	0.05	0.83
	심장장애	-	0.03	0.01	0.02	-	0.06
	호흡기장애	0.01	0.03	0.02	0.04	0.01	0.17
	간장애	-	0.02	0.01	0.04	0.02	0.1
	인면장애	-	-	-	0.01	-	0.04
	장루·요루장애	0.02	0.03	0.02	0.08	0.02	0.18
	뇌전증장애	-	0.03	-	0.02	0.02	0.07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즉, 주택에 개조에 대한 지원 또는 입주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하는 것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있어 필요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을 더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가구)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도배	싱크대 설치	기타
2006	4,000	2,000	2,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3,800	1,900	1,9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3,800	1,900	1,900	1,075	491	111	193	160	291
2009	3,800	1,900	1,900	1,093	544	94	143	111	432
2010	3,800	1,900	1,900	1,090	487	128	151	137	444
2011	3,800	1,900	1,9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3,800	1,900	1,900	1,054	423	107	58	123	489
2013	3,800	1,900	1,900	1,048	408	128	50	132	443
2014	3,420	1,710	1,710	934	387	102	69	120	385
2015	3,028	1,514	1,514	806	384	109	76	108	312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기타
2016	1,508	753	755	413	188	76	81	59	145
2017	2,788	1,394	1,394	754	345	106	182	105	277
2018	3,318	1,659	1,659	877	424	119	181	111	231

주: 1) 한 가구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 이에 세부지원 합과 총 지원가구의 합이 다름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함  
 3)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2017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액 및 지원가구가 전년대비 각각 530백만원, 123가구 증가함
- 세부지원별로 살펴보면, 화장실 개조가 424가구로 가장 많고, 기타 231가구, 경사로 설치 181가구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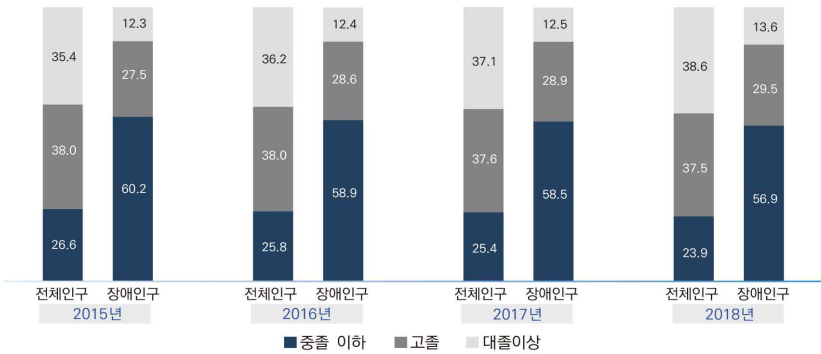
####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국토교통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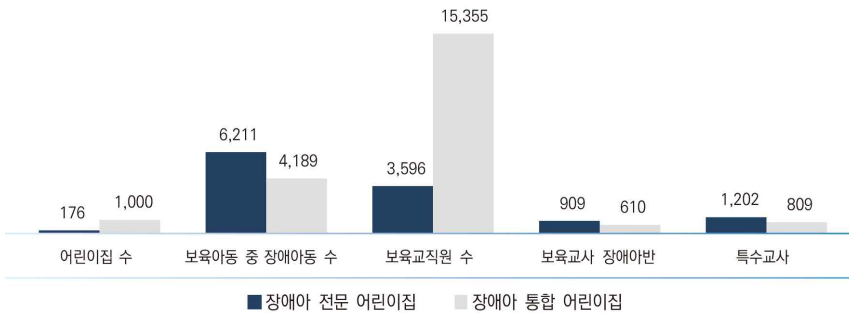


## 5. 교육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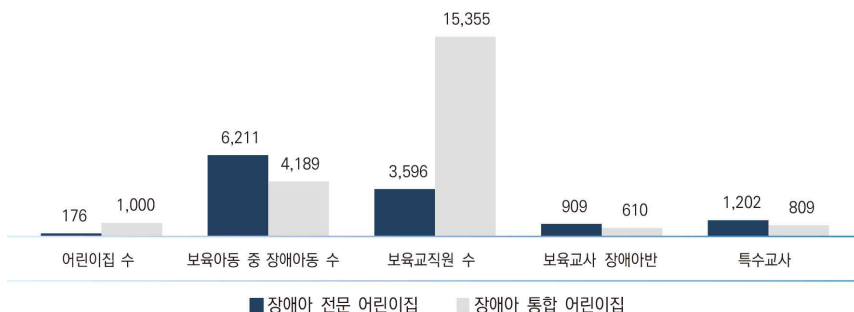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18년 기준 중졸 이하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9.5%, 대졸 이상 13.6%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8.6%로 가장 높고, 고졸 37.5%, 중졸 이하 23.9% 순이며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2018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은 전체 176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 6,211명, 보육교직원 수 3,596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909명, 특수교사 수 1,202명임
- 2018년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1,000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 4,189명, 보육교직원 수 15,355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610명, 특수교사 수 80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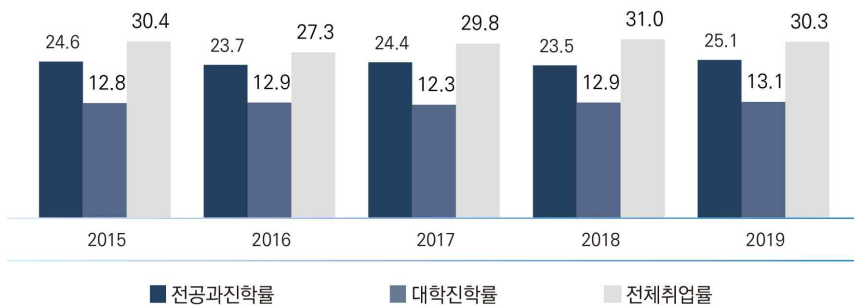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



주: 교사수는 장애아반, 특수교사, 치료사를 합한 수임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곳 당 약 35.3명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반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1곳당 2.4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교사 1인당 장애아동수를 살펴보면, 전문 어린이집은 1명 당 2.4명인 것에 비해, 통합 어린이집은 1명당 2.9명으로 나타남

- 2019년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전공과 진학률과 대학진학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취업률은 전년 대비 감소함

## 1) 교육수준

### (1) 교육수준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명	%	명	%	명	%	
장애 인구	2014년	2,449,437	1,473,017	60.1	692,724	28.3	283,696	11.6
	2015년	2,444,194	1,470,735	60.2	672,425	27.5	301,032	12.3
	2016년	2,441,167	1,438,700	58.9	699,331	28.6	303,136	12.4
	2017년	2,460,079	1,439,784	58.5	712,167	28.9	308,128	12.5
	2018년	2,495,043	1,462,403	58.6	713,451	28.6	319,187	12.8
	2019년	2,526,200	1,437,603	56.9	745,769	29.5	342,828	13.6
	증 감	66,121	-2,181	-1.6	33,602	0.6	34,700	1.1
전체 인구	2014년	42,513,000	11,642,000	27.4	16,269,000	38.6	14,601,000	34.7
	2015년	42,975,000	11,422,000	26.6	16,330,000	38	15,223,000	35.4
	2016년	43,387,000	11,192,000	25.8	16,487,000	38	15,708,000	36.2
	2017년	43,735,000	11,095,000	25.4	16,435,000	37.6	16,205,000	37.1
	2018년	44,141,000	10,882,000	24.7	16,569,000	37.5	16,690,000	37.8
	2019년	44,460,000	10,605,000	23.9	16,682,000	37.5	17,173,000	38.6
	증 감	725,000	-490,000	-1.5	247,000	-0.1	968,000	1.5

주: 1) 대졸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증감은 '16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5월)」

- 2019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38.6%는 장애인구 13.6%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편임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19년 기준 중졸 이하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9.5%, 대졸 이상 13.6%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8.6%로 가장 높고, 고졸이 37.5%, 중졸 이하 23.9%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5-1-2〉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10.4	11.2	9.3	8.9	18.6	18.6	7.4	3.1	1.3	2.8	0.0	8.1	2.7	1.7	9.4	0.0
초등학교	27.3	28.9	26.3	26.9	32.7	25.4	23.3	31.1	15.1	22.6	23.5	14.4	1.9	14.1	24.8	14.1
중학교	16.7	18.8	15.6	15.8	14.2	18.6	12.2	7.6	11.9	17.8	9.8	28.0	12.6	15.0	11.5	13.8
고등학교	30.4	27.6	29.6	29.4	22.3	25.1	48.5	51.5	42.1	35.2	42.8	38.3	48.2	46.8	37.4	66.1
대학이상	15.1	13.5	19.1	19.0	12.2	12.3	8.6	6.7	29.6	21.6	23.8	11.2	34.6	22.6	16.8	6.0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표 5-1-3〉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10.4	4.0	19.1	5.5	1.2	2.9	19.3	8.3	11.3	10.2
초등학교	27.3	20.5	36.5	46.5	3.8	19.0	39.6	25.7	28.4	27.4
중학교	16.7	18.3	14.5	26.4	5.2	19.8	17.0	15.0	17.6	16.6
고등학교	30.4	37.6	20.9	21.6	52.1	40.4	16.8	35.2	27.6	30.5
대학이상	15.1	19.7	9.0	0.0	37.6	17.9	7.3	15.8	15.0	15.3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가 28.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7.6%, 중학교 18.8%, 대학이상 13.5%, 무학 11.2%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학의 비율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각 18.6%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11.2%, 장루요루9.4%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가 89.7%로 가장 높고, 45-46세 이하 58.3%, 65세 이상 24.1%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중증이 51.0%로 경증 42.6%보다 높게 나타남

## 2) 보육

### (1) 보육시설 이용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보육시설 형태	일반보육시설	3.6	0.0	0.0	18.5	13.8	0.0	3.4	6.0	-	-	-	-	-	0.0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12.2	0.0	10.4	0.0	0.0	31.4	9.8	15.5	-	-	-	-	-	0.0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2.2	0.0	15.6	0.0	0.0	0.0	23.1	4.2	-	-	-	-	-	0.0	-
	다나지 않음	72.0	100.0	74.0	81.5	86.2	68.6	63.6	74.3	-	-	-	-	-	100.0	-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1~5시간	50.2	-	96.4	0.0	100.0	33.3	36.9	58.2	-	-	-	-	-	-	-
	6~10시간	49.8	-	3.6	100.0	0.0	66.7	63.1	41.8	-	-	-	-	-	-	-
	평균이용시간	5.1	-	4.4	8.0	2.0	5.1	5.1	4.5	-	-	-	-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
	무료	68.3	-	60.0	0.0	0.0	100.0	65.8	74.7	-	-	-	-	-	-	-
	1~5만원	1.7	-	0.0	0.0	0.0	0.0	3.6	0.0	-	-	-	-	-	-	-
	6~10만원	21.3	-	40.0	0.0	100.0	0.0	18.3	25.3	-	-	-	-	-	-	-
	11~15만원	2.8	-	0.0	100.0	0.0	100.0	0.0	0.0	-	-	-	-	-	-	-
	16~20만원	5.9	-	0.0	0.0	0.0	0.0	12.3	0.0	-	-	-	-	-	-	-
	평균비용	4.8	-	3.6	11.0	8.0	7.0	2.5	2.5	-	-	-	-	-	-	-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나지 않음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각각 12.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보육시설은 3.6%임
- 장애유형별로 일반보육시설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는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 8시간, 언어장애와 지적장애가 각각 5.1시간 순임
-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68.3%로 가장 많았고 6~10만원 21.3%, 16~20만원 5.9% 순임
- 장애유형별 월 평균 비용은 시각장애가 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가 8만원, 언어장애가 7만원 순임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보육시설 형태	일반보육시설	3.6	4.4	2.3	3.6	-	-	2.4	11.5	3.3
	장애아통합보육시설	12.2	12.6	11.5	12.2	-	-	14.4	0.0	13.0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2.2	13.9	9.4	12.2	-	-	14.4	0.0	13.0
	다나지 않음	72.0	69.1	76.8	72.0	-	-	68.8	88.6	70.7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5시간	50.2	47.7	55.5	50.2	-	-	52.1	25.0	51.0
	6-10시간	49.8	52.3	44.5	49.8	-	-	47.9	75.0	49.0
	평균이용시간	5.1	4.8	5.8	5.1	-	-	5.0	6.5	5.1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무료	68.3	80.6	41.7	68.3	-	-	72.2	0.0	69.5
	1-5만원	1.7	2.5	0.0	1.7	-	-	0.0	0.0	0.0
	6-10만원	21.3	4.2	58.3	21.3	-	-	21.6	25.0	21.7
	11-15만원	2.8	4.1	0.0	2.8	-	-	0.0	75.0	2.9
	16-20만원	5.9	8.6	0.0	5.9	-	-	6.2	0.0	6.0
	평균비용	4.8	4.7	5.2	4.8	-	-	4.7	10.2	4.9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2.3%로 남성 4.4%보다 낮음
- 여성의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5.8시간으로 남성 4.8시간보다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도 여성은 5.2만원, 남성은 4.7만원으로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증은 88.6% 중증은 68.8%로 경증이 보육시설을 더 많이 다니지 않음

##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원여부,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계	176	8397	7065	6211	854	3596	176	909	318	1202	549	187	255
서울	9	311	244	222	22	135	9	22	11	52	15	9	17
부산	16	594	552	552	0	299	16	60	14	124	50	16	19
대구	17	975	828	766	62	403	17	123	23	136	71	18	15
인천	6	140	127	126	1	85	6	20	8	23	13	6	9
광주	11	673	586	506	80	287	11	81	23	93	49	14	16
대전	5	121	104	103	1	67	5	21	6	16	10	5	4
울산	9	472	411	347	64	206	9	63	20	58	33	11	12
세종시	1	39	23	21	2	12	1	5	1	2	2	1	0
지원	20	751	661	566	95	364	20	49	50	147	51	21	26
경기도	미지원	1	36	28	28	0	15	7	1	2	2	1	1
강원	4	199	148	122	26	64	4	25	8	14	5	4	4
충북	7	337	278	199	79	134	7	47	24	19	16	7	14
충남	10	441	374	305	69	184	10	55	20	45	25	10	19
전북	10	453	340	331	9	174	10	59	5	53	28	10	9
전남	13	869	681	541	140	320	13	80	29	104	59	17	18
경북	14	940	843	729	114	420	14	92	39	162	64	14	35
경남	21	924	719	674	45	381	21	102	28	126	49	21	34
제주	3	158	146	101	45	61	3	5	9	28	9	3	4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서울과 경기도는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운영됨

3)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4)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5) 장애아동: 아동자격을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p.140-145.

- 2018년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은 전체 176개소이며, 경기와 경남이 21개소로 가장 많으며, 대구 17개소, 부산 16개소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대구가 766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729명, 경남이 674명 순이었음
- 보육교직원 중 특수 교사가 1,202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현황을 보였으며, 지역별 전체 보육 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42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가 403, 경남이 381명으로 장애아동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보 육 아 동						보 육 교 직 원							
	어린이집 수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 아동	비 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계	1,000	90,431	79,250	4,189	75,061	15,355	984	610	10,266	809	72	1,515	1,099	
서울	354	33,375	29,920	1,639	28,281	5,790	350	175	3,847	395	45	566	412	
부산	37	2,948	2,588	133	2,455	501	36	18	328	25	0	48	46	
대구	14	1,198	976	107	869	231	14	23	146	11	0	20	17	
인천	68	5,904	4,911	319	4,592	1000	68	65	663	44	14	102	44	
광주	1	163	118	18	100	24	1	2	13	4	0	2	2	
대전	17	1,054	909	57	852	223	17	15	158	5	0	18	10	
울산	16	1,503	1,357	74	1,283	238	16	11	157	15	0	29	10	
세종	6	1,177	1,086	7	1,079	216	6	1	163	2	0	19	25	
경기	316	28,158	25,172	1,324	23,848	4,740	307	208	3,203	241	9	480	292	
강원	17	1,679	1,289	56	1,233	263	17	9	171	7	0	26	33	
충북	11	985	757	16	741	142	11	3	99	4	0	16	9	
충남	31	2,548	1,949	45	1,904	369	30	9	244	2	0	34	50	
전북	11	1,125	781	61	720	166	11	8	102	11	4	15	15	
전남	13	1,547	1,287	31	1,256	213	13	8	147	2	0	21	22	
경북	17	1,468	1,195	101	1,094	260	17	23	163	8	0	20	29	
경남	28	2,391	1,968	96	1,872	395	27	19	265	12	0	40	32	
제주	43	3,208	2,987	105	2,882	584	43	13	397	21	0	59	51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3)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4) 장애아동: 아동자격을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pp.149-151.

-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1,000개소이며, 서울이 354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16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광주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에 1곳에 불과하며, 장애아동 또한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의 경우 어린이집 수는 6곳이지만 장애아동수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 중 장애아반은 전체 610명이었으며, 특수교사는 809명으로 나타남
  -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우나, 장애아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를 합친 수와 장애아동 수를 비교해 보면, 교사 수는 총 1,419명 장애아동수는 총 4,189명으로 교사 일인당 약 3.0명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3) 유치원

#### (1) 유치원 이용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
유치원 형태	일반유치원	1.8	0.0	0.0	0.0	0.0	16.6	0.0	0.0	-	-	-	-	-	0.0	-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0.6	0.0	0.0	0.0	0.0	0.0	3.0	-	-	-	-	-	-	0.0	-
	특수학교 유치원(부)	4.2	25.6	0.0	21.2	0.0	0.0	7.8	-	-	-	-	-	-	0.0	-
	기타	0.0	0.0	0.0	0.0	0.0	0.0	0.0	-	-	-	-	-	-	0.0	-
	다나지 않음	93.3	74.4	100.0	78.8	100.0	83.4	100.0	89.3	-	-	-	-	-	100.0	-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
	1~5시간	61.7	100.0	-	0.0	-	100.0	-	27.6	-	-	-	-	-	-	-
	6~10시간	38.3	0.0	-	100.0	-	0.0	-	72.4	-	-	-	-	-	-	-
	평균이용시간	4.6	2.0	-	6.0	-	5.0	-	5.7	-	-	-	-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	-	-	-	-	-
	무료	48.0	100.0	-	100.0	-	0.0	-	27.6	-	-	-	-	-	-	-
	1~5만원	52.0	0.0	-	0.0	-	100.0	-	72.4	-	-	-	-	-	-	-
	6만원 이상	-	-	-	-	-	-	-	-	-	-	-	-	-	-	-
	평균비용	1.3	0.0	-	0.0	-	2.9	-	2.9	-	-	-	-	-	-	-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나지 않음이 9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 중에서는 특수학교 유치원(부)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유치원 1.8%,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0.6% 순임
- 장애유형별로 일반유치원에는 언어장애,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에는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1~5시간이 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6시간, 자폐성장애 5.7시간, 언어장애 5시간 순으로 평균 이용시간이 높음
-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1~5만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무료가 48%이며 6만원 이상은 없음
- 장애유형별 월 평균 비용은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가 각각 2.9%임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유치원 형태	일반유치원	1.8	2.9	0.0	1.8	-	-	0.0	19.9	1.9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0.6	1.0	0.0	0.6	-	-	0.7	0.0	0.7
	특수학교 유치원(부)	4.2	5.4	2.3	4.2	-	-	3.9	0.0	3.5
	기타	-	-	-	-	-	-	-	-	-
	다나지 않음	93.3	90.7	97.7	93.3	-	-	95.3	80.1	93.9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00.0
	1-5시간	61.7	71.3	0.0	61.7	-	-	68.1	100.0	71.3
	6-10시간	38.3	28.7	100.0	38.3	-	-	41.9	0.0	28.7
	평균이용시간	4.6	4.4	6.0	4.6	-	-	4.2	5.0	4.4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6.0	100.0	-	-	100.0	100.0	100.0
	무료	48.0	39.9	100.0	48.0	-	-	58.1	0.0	39.9
	1-5만원	52.0	60.1	0.0	52.0	-	-	41.9	100.0	60.1
	6만원 이상	-	-	-	-	-	-	-	-	-
	평균비용	1.3	1.5	0.0	1.3	-	-	1.7	1.0	1.5

주: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97.7%, 남성은 90.7%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여성이 6만원, 남성은 4.4만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시간이 더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중증이 95.3%, 경증이 80.1%로 경증에 비해 중증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

## 4) 특수교육

### (1) 특수학교 수

〈표 5-4-1〉 특수학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단위: 교)

구분	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장애	정서 장애	영아 학급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공과
2009	150	5	55	90	12	18	94	18	8	-	-	-	-	-	-
2010	150	5	55	90	12	18	95	18	7	18	118	140	139	136	83
2011	155	5	59	91	12	18	100	18	7	23	118	145	145	141	100
2012	156	5	60	91	12	16	102	19	7	23	116	145	146	143	108
2013	162	5	66	91	12	16	107	20	7	25	119	150	152	149	115
2014	166	5	69	92	12	15	112	20	7	22	120	154	157	155	121
2015	167	5	70	92	12	15	113	20	7	23	118	155	158	155	127
2016	170	5	74	91	12	14	119	18	7	24	124	158	161	160	133
2017	173	5	76	92	12	14	121	19	7	21	122	159	162	162	137
2018	175	5	78	92	13	14	121	20	7	26	125	161	164	163	143
2019	177	5	81	91	13	14	122	21	7	28	127	163	166	164	147
서울	30	3	8	19	3	4	15	5	3	8	22	26	26	26	24
부산	15	-	8	7	1	1	12	1	-	7	10	12	13	11	9
대구	9	-	3	6	1	1	4	2	1	-	3	9	9	9	9
인천	9	-	5	4	1	1	6	1	-	1	6	8	8	8	7
광주	5	-	3	2	1	-	3	1	-	3	5	5	5	5	4
대전	5	-	3	2	1	-	3	1	-	1	5	5	5	5	5
울산	4	-	2	2	-	1	3	-	-	-	3	4	4	4	4
세종	1	-	1	-	-	-	1	-	-	1	1	1	1	1	1
경기	36	2	12	22	-	2	30	3	1	3	31	31	33	33	26
강원	7	-	6	1	1	1	5	-	-	-	6	7	7	7	6
충북	10	-	3	7	2	1	4	2	1	2	9	10	10	10	10
충남	7	-	5	2	-	-	6	1	-	1	2	7	7	7	6
전북	10	-	6	4	1	1	6	2	-	1	5	9	9	9	8
전남	8	-	3	5	1	1	6	-	-	-	6	8	8	8	8
경북	8	-	3	5	-	-	7	-	1	-	5	8	8	8	8
경남	10	-	8	2	-	-	9	1	-	-	6	10	10	10	9
제주	3	-	2	1	-	-	2	1	-	-	2	3	3	3	3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 26, 39, 40, 41.

- 2019년 특수학교의 수는 177개교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수학교의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개교, 부산 15개교 순임
- 설립별로 보면 사립이 92개교로 가장 많으며, 공립 78개교, 국립 5개교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지적장애)가 121개교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20개교, 청각장애 14개교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66, 164개교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61개교 순임

#### ※※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2) 특수학급 수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단위:교,개)

구분	학교수	특수학급수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5,797	7,792	40	7,641	111	274	4,682	1,748	1,088
2011	6,243	8,415	41	8,236	138	287	4,897	1,971	1,260
2012	6,595	8,927	45	8,726	156	344	4,999	2,144	1,440
2013	6,915	9,343	46	9,102	195	380	5,085	2,268	1,610
2014	7,136	9,617	48	9,363	206	464	5,073	2,353	1,709
2015	7,378	9,868	46	9,590	232	551	5,121	2,378	1,789
2016	7,543	10,065	46	9,781	238	640	5,155	2,353	1,917
2017	7,799	10,325	46	10,036	243	731	5,281	2,364	1,916
2018	8,200	10,676	46	10,377	253	853	5,380	2,372	1,971
2019	8,200	11,105	46	10,807	252	949	5,807	2,384	1,965
서울	808	1,358	7	1,322	29	83	729	291	255
부산	489	575	2	561	12	28	333	122	92
대구	324	454	4	450	—	34	246	101	73
인천	466	648	1	639	8	70	345	118	115
광주	216	275	4	262	9	16	147	61	51
대전	270	357	—	346	11	48	171	79	59
울산	198	265	—	265	—	27	135	56	47
세종	93	109	—	109	—	25	50	21	13
경기	2,048	2,955	—	2,897	58	316	1,406	657	576
강원	360	383	3	380	—	29	217	80	57
충북	368	468	8	456	4	51	235	99	83
충남	495	684	4	668	12	70	355	144	115
전북	359	421	3	411	7	28	247	84	62
전남	451	579	1	571	7	44	312	126	97
경북	518	624	1	571	52	19	361	135	109
경남	637	820	3	776	41	54	444	182	140
제주	100	130	5	123	2	7	74	28	21

주: 1) 학교 수 :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수

2) 2010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1학급 포함(인천)

3) 2011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학급 포함(인천 1, 경기 1)

4) 2012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5학급 포함(인천 공립 2, 경기 공립 3)

5) 2013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7학급 고등학교에 포함(인천 공립 2, 경기 공립 4, 충북공립 1)

6) 2014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18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2, 경기 12, 충북 3)

7) 2015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9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8) 2016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2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3)

9) 2017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10) 2019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43.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통계」 pp.72-73.

－ 2019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수는 8,200개교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48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808개교, 경남 637개교 순임
- 특수학급 수는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10,807개로 가장 많았고 사립 252개, 국립 46개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807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384개, 고등학교 1,965개 순임

### ※※ 특수학급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3)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2009	23,606	1,470	1,257	15,353	3,206	860	983	92	13	16	356
2010	23,776	1,563	1,150	15,316	3,238	895	1,267	79	15	24	229
2011	24,580	1,495	1,153	15,819	3,371	429	1,917	86	20	35	255
2012	24,720	1,479	1,060	15,513	3,548	340	2,459	79	12	19	211
2013	25,138	1,468	1,053	15,172	3,584	279	3,191	113	38	33	207
2014	25,288	1,380	976	15,235	3,615	217	3,531	76	23	29	206
2015	25,531	1,353	952	14,891	3,707	199	4,000	85	13	48	283
2016	25,467	1,313	863	14,285	3,889	97	4,639	97	18	12	254
2017	25,798	1,307	819	14,379	3,858	229	4,747	88	15	33	323
2018	25,919	1,260	762	14,390	3,680	214	6,065	124	20	30	374
2019	26,084	1,221	709	14,205	3,730	210	5,424	134	17	16	418
서울	4,362	360	301	1,785	835	11	943	3	-	-	124
부산	1,802	80	46	869	302	10	410	6	6	1	72
대구	1,591	58	47	880	245	1	327	13	-	-	20
인천	1,535	93	50	874	190	2	300	18	3	1	4
광주	1,026	97	12	520	198	1	181	5	-	-	12
대전	1,023	116	21	500	110	-	265	4	-	-	7
울산	804	19	31	499	88	7	147	-	-	-	13
세종	145	2	1	71	17	-	44	-	-	1	9
경기	4,862	29	41	2,869	571	19	1,254	26	4	2	47
강원	844	65	13	526	63	1	154	4	-	1	17
충북	1,264	156	92	630	172	6	193	4	-	-	11
충남	1,067	3	7	676	152	3	211	8	-	2	5
전북	1,135	54	11	715	159	8	144	15	-	-	29
전남	1,110	72	14	737	121	4	142	6	-	5	9
경북	1,460	6	12	1,032	123	2	251	15	-	3	16
경남	1,605	10	7	869	302	5	380	5	4	-	23
제주	449	1	3	153	82	130	78	2	-	-	-

주: 1) 정신지체: 2016.2.3.부터 지적장애로 개정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장애 구분과 다름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 2019년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6,084명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함
-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362명, 부산 1,802명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4,205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과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5,424명 지체장애 3,730명 순임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9	23,606	958	10,641	12,007
2010	23,776	948	10,842	11,986
2011	24,580	946	11,313	12,321
2012	24,720	904	11,536	12,280
2013	25,138	892	12,232	12,014
2014	25,288	858	12,706	11,724
2015	25,531	856	13,087	11,588
2016	25,467	855	13,416	11,196
2017	25,798	853	13,874	11,071
2018	25,919	857	14,091	10,971
2019	26,084	877	14,455	10,752
서울	4,362	496	1,447	2,419
부산	1,802	-	1,251	551
대구	1,591	-	835	756
인천	1,535	-	1,105	430
광주	1,026	-	762	264
대전	1,023	-	685	338
울산	804	-	533	271
세종	145	-	145	-
경기	4,862	381	2,322	2,159
강원	844	-	762	82
충북	1,264	-	451	813
충남	1,067	-	846	221
전북	1,135	-	703	432
전남	1,110	-	545	565
경북	1,460	-	376	1,084
경남	1,605	-	1,402	203
제주	449	-	285	164

주: 학생 개인의 장애영역이 아닌,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 임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 34-35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 전체 26,084명 중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수가 총 15,332명으로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 전남, 경북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대상자 수가 국·공립학교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립학교 대상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단위: 명)

구분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9	39,380	—	—	—	720	22,469	9,197	6,994
2010	42,021	256	41,087	678	815	22,886	10,230	8,090
2011	43,183	266	42,112	805	924	22,414	10,951	8,894
2012	44,433	261	43,248	924	1,138	21,695	11,659	9,941
2013	45,181	262	43,762	1,157	1,394	21,087	12,023	10,677
2014	45,803	267	44,349	1,187	1,675	20,586	11,973	11,569
2015	46,351	254	44,808	1,293	2,039	20,991	11,312	12,009
2016	46,645	233	45,123	1,289	2,504	21,192	10,602	12,347
2017	47,564	250	46,012	1,302	2,763	22,400	10,256	12,145
2018	48,848	256	47,295	1,298	3,058	24,169	9,990	11,631
2019	50,812	265	49,323	1,224	3,422	26,282	9,907	11,201
서울	6,246	53	6,032	161	337	3,312	1,265	1,332
부산	2,743	16	2,653	74	118	1,508	489	628
대구	2,044	26	2,018	—	132	1,008	429	475
인천	3,345	5	3,284	56	259	1,821	593	672
광주	1,321	24	1,252	45	67	712	245	297
대전	1,760	—	1,697	63	176	873	332	379
울산	1,266	—	1,266	—	101	644	267	254
세종	364	—	364	—	81	171	55	57
경기	13,824	—	13,552	272	1,079	6,689	2,712	3,344
강원	1,593	20	1,573	—	103	872	302	316
충북	2,076	38	2,023	15	188	997	417	474
충남	3,105	16	3,043	46	264	1,625	558	658
전북	1,710	15	1,669	26	98	944	327	341
전남	2,455	4	2,420	31	126	1,301	502	526
경북	2,569	3	2,311	255	65	1,381	540	583
경남	3,730	14	3,543	173	196	2,045	752	737
제주	661	31	623	7	32	379	122	128

- 주: 1) 2010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5명 포함  
 2) 2011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6명 포함  
 3) 2012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30명(인천 10명, 경기 20명) 포함  
 4) 2013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46명(인천 13명, 경기 27명, 충북 6명) 고등학교에 포함  
 5) 2014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15명(인천 22명, 대구 11명, 경기 65명, 충북 17명) 고등학교에 포함  
 6) 2015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86명(대구 11명, 인천 33명, 경기 123명, 충북 19명) 고등학교에 포함  
 7) 2016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5명(대구 11명, 인천 27명, 경기 155명, 충북 22명) 고등학교에 포함  
 8) 2017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고등학교에 포함  
 9) 2019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23명(대구 11명, 인천 25명, 경기 151명, 충북 36명) 고등학교에 포함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 36

- 특수학급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2015년과 2016년에 학생 수가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났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들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학생이 13,824명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 수 보다 많았으며, 그 중 공립학교 학생수가 13,55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 졸업생 진로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전공과	대학 (전문대 포함)	
2009	5,317	2,018	1,258	759	38.0
2010	6,937	2,359	1,391	968	34.0
2011	6,663	2,509	1,577	932	37.7
2012	7,493	2,828	1,803	1,025	37.7
2013	8,103	2,992	1,967	1,025	36.9
2014	8,672	3,266	2,139	1,127	37.7
2015	8,979	3,358	2,212	1,146	37.4
2016	9,482	3,471	2,246	1,225	36.6
2017	9,786	3,595	2,391	1,204	36.8
2018	10,063	3,668	2,367	1,301	36.5
2019	9,961	3,835	2,503	1,309	38.5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2,447	1,364	1,271	93	55.7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52	1,707	1,193	514	43.2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328	741	39	702	55.8
전공과 졸업자	2,234	23	—	—	1.0

주: 1)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2)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p.95.

- 2019년 특수교육기관 졸업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진학자 수는 매년 증가함. 2019년 전체 진학률은 38.5%로 2018년 36.5%보다 다소 증가하였음. 고등학교 졸업이후 진로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비하여 절반 정도가 전공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및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각각 약 55%로 높은 진학률을 보임
  -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진학률 보다 전공과로의 진학의 비율이 더 높으며, 그 비율은 특수학교가 특수학급에 비해 높음.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전체 진학자 741명중 702명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취업															
	졸업 생 수	전체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정보 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 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 등	기타	취업률	
2009	5,317	1,632	29	245	37	21	16	7	133	122	14	90	863	55	49	
2010	6,937	1,937	16	196	121	62	13	10	126	121	32	385	933	225	42	
2011	6,663	2,100	14	405	21	30	16	7	118	143	40	66	749	491	51	
2012	7,493	2,338	19	412	26	33	26	5	120	208	63	98	711	617	50	
2013	8,103	1,788	17	451	19	53	16	2	105	314	138	139	-	534	36	
2014	8,672	2,187	8	512	24	48	35	10	110	334	170	168	-	768	40	
구분	취업															
	졸업 생 수	전체	보건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제과 제빵	의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취업률
2015	8,979	1,710	43	522	21	15	119	64	17	150	211	12	125	68	343	30.4
2016	9,482	1,639	44	611	22	14	127	63	31	122	168	10	120	49	258	27.3
2017	9,786	1,847	73	633	14	10	109	80	59	153	262	10	140	29	275	29.8
2018	9,694	1,903	49	641	9	14	148	93	51	193	283	16	139	29	238	31.0
2019	9,961	1,773	59	252	279	8	41	42	77	131	283	19	167	34	251	30.3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2,447	64	2	21	0	0	2	4	0	6	13	2	3	0	11	5.9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52	718	33	173	3	3	29	0	9	95	145	6	97	24	101	32.0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328	69	1	19	0	3	8	0	1	6	4	4	7	0	16	11.8
전공과 이수자	2,234	922	23	39	276	2	2	38	67	24	121	7	60	10	123	43.7

주: 1)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전학자 수)) \* 100

2) 복지관 등: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3)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4)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부터 취업 분류가 세분화 됨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pp.89-92.

- 2019년 전체 졸업생 수 9,961명 중 취업한 경우는 1,773명으로 30.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함. 취업분야는 식음료 서비스가 2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분야 279명, 제품제조 분야 252명 순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공과 이수자가 43.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이 32.0%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경우 제품제조영역과 식음료 서비스영역에 각각 21명과 13명으로 가장 많이 취업하였으며, 그 외 졸업 유형에서는 제품제조영역의 취업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 교육기관 편의시설

## (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연도별	2009	12,145	82.8	88.1	79.8	79.2	64.3	51.2
	2010	11,655	84.8	87.9	80.3	81.9	62.1	51.1
	2011	11,788	89.1	93.7	87.0	86.1	71.0	64.3
	2012	11,897	93.2	97.2	93.4	90.7	80.4	72.0
	2013	12,122	91.6	94.7	93.2	92.8	78.1	73.6
	2014	12,253	93.6	96.0	94.1	94.5	89.6	82.5
	2015	12,332	95.5	97.4	95.8	96.0	93.0	88.0
	2016	12,442	96.6	97.9	96.9	97.3	95.7	90.4
	2017	12,292	94.5	95.4	94.5	95.0	93.1	89.7
	2018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설립별	국공립	10,322	96.8	97.9	96.5	93.0	88.4	97.9
	사립	1,795	88.6	95.3	88.5	84.1	69.7	95.3
학교급별	초등학교	6,247	96.2	97.0	95.6	92.5	88.4	81.3
	중학교	3,232	95.5	98.2	95.5	91.0	84.3	77.7
	고등학교	2,389	94.3	98.5	94.5	90.2	79.5	78.1
	특수학교	175	98.9	98.9	99.4	100.0	99.4	97.1
	각종학교	74	90.5	78.4	83.8	82.4	77.0	62.2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7,307	98.4	99.4	98.3	95.0	91.1	90.4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4,810	91.4	94.7	90.9	86.6	77.4	63.7
	계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자료: 교육부(각 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18년 교육기관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0.0%로써 2010년 이후 꾸준히 비율이 높아지다가 2019년 소폭 감소함. 편의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가 용이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97.5%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도 및 안내설비가 85.5%, 점자블록이 90.0%, 경보 및 피난설비가 81.9%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안내시설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평균 99.2%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가 88%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계속)

(단위: 교, %)

구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파난설비	
연도별	2009	81.9	—	—	—	—	75.3
	2010	80.4	67.9	35.8	37.1	48.0	65.2
	2011	88.8	81.1	57.5	51.9	67.2	76.2
	2012	94.0	87.6	72.9	70.1	80.3	84.7
	2013	92.3	79.8	68.8	55.8	75.0	81.4
	2014	93.0	82.6	72.6	64.8	77.8	85.6
	2015	94.7	89.4	80.1	70.8	84.2	89.5
	2016	95.8	90.0	83.4	75.5	85.4	91.4
	2017	93.9	89.5	89.0	82.6	89.5	91.5
	2018	96.3	90.7	90.0	85.5	81.9	90.0
학교별	국공립	97.0	91.7	91.5	87.2	83.4	92.9
	사립	92.3	85.3	81.0	75.8	73.3	84.5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	92.0	91.0	86.6	82.6	90.8
	중학교	96.6	89.4	89.3	85.0	80.5	89.4
	고등학교	96.5	89.0	87.9	83.0	81.3	88.4
	특수학교	98.9	98.9	97.1	98.3	98.3	98.6
	각종학교	87.8	71.6	75.7	56.8	63.5	75.4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99.2	93.5	94.1	89.1	86.2	94.1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91.9	86.5	83.7	80.0	75.4	83.8
	계	96.3	90.7	90.0	85.5	81.9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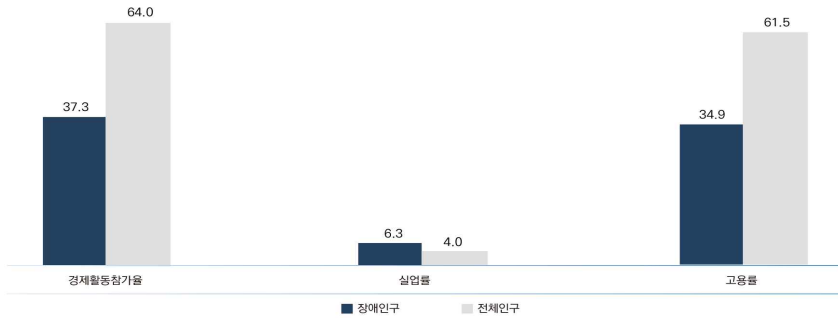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61-63.

- 교육기관 유형별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주 출입구 접근로의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율이 가장 높은 반면, 유도 및 안내설비(80.0%), 점자블록(83.7%), 계단 또는 승강기(63.7%)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98%이상의 설치율을 보였음



## 6. 노동과 직업재활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2017) - 전체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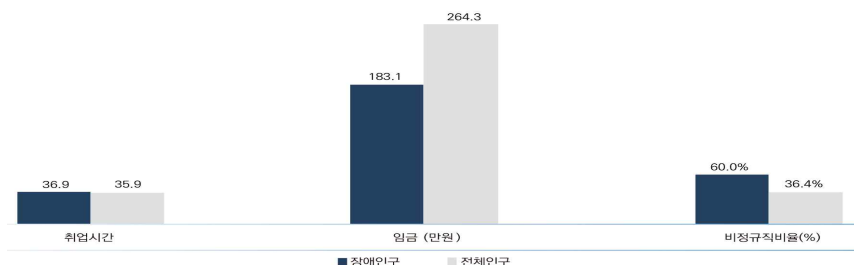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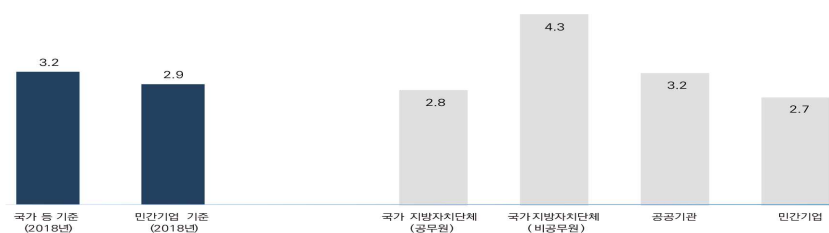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64% 보다 26.7%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 6.3%로 전체인구 4%보다 2.2%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 34.9%로 전체인구 61.5% 보다 26.6%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에서 2018년 소폭 감소 후 2019년 소폭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2017년에서 2018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9년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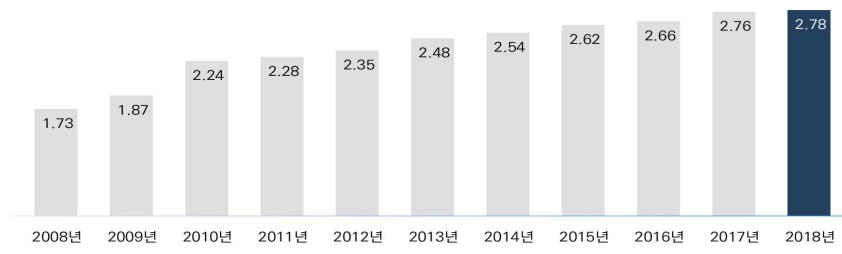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2%, 민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

- 2019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6.9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인 35.9시간과 비슷하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64.3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83.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69%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고용률은 2.78%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3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의무고용률 2.9%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 경제활동

### (1) 경제활동상태

〈표 6-1-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 경제활동인구	경활동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장 에 인 구	전체	2,526,200	100.0	941,136	881,890	59,246	1,585,064	37.3	6.3	34.9
	남성	1,457,582	57.7	707,053	664,770	42,283	750,529	48.5	6	45.6
	여성	1,068,618	42.3	234,083	217,120	16,963	834,535	21.9	7.2	20.3
	15-29세	129,699	5.1	46,702	39,638	7,064	82,997	36	15.1	30.6
	30-39세	131,941	5.2	77,366	70,467	6,899	54,575	58.6	8.9	53.4
	40-49세	257,988	10.2	158,272	150,695	7,577	99,716	61.3	4.8	58.4
	50-59세	483,745	19.1	275,517	257,570	17,947	208,228	57	6.5	53.2
	60세 이상	1,522,827	60.3	383,278	363,519	19,759	1,139,549	25.2	5.2	23.9
	수도권	1,054,380	41.7	400,788	369,977	30,811	653,592	38	7.7	35.1
	광역시권	478,175	18.9	168,025	155,686	12,339	310,150	35.1	7.3	32.6
	기타시도	993,646	39.3	372,323	356,226	16,097	621,323	37.5	4.3	35.9
	중졸이하	1,437,603	56.9	356,416	336,380	20,036	1,081,187	24.8	5.6	23.4
	고졸	745,769	29.5	377,982	354,185	23,797	367,787	50.7	6.3	47.5
	대졸이상	342,828	13.6	206,738	191,325	15,413	136,090	60.3	7.5	55.8
전 체 인 구	전체	44,460,000	100	28,468,000	27,322,000	1,145,000	15,992,000	64	4	61.5
	남성	21,859,000	49.2	16,225,000	15,535,000	690,000	5,634,000	74.2	4.3	71.1
	여성	22,601,000	50.8	12,243,000	11,788,000	455,000	10,358,000	54.2	3.7	52.2
	15-29세	9,073,000	20.4	4,390,000	3,953,000	437,000	4,683,000	48.4	9.9	43.6
	30-39세	7,292,000	16.4	5,758,000	5,543,000	214,000	1,534,000	79	3.7	76
	40-49세	8,304,000	18.7	6,682,000	6,519,000	163,000	1,623,000	80.5	2.4	78.5
	50-59세	8,543,000	19.2	6,659,000	6,488,000	171,000	1,884,000	77.9	2.6	75.9
	60세 이상	11,248,000	25.3	4,979,000	4,819,000	160,000	6,269,000	44.3	3.2	42.8
	수도권	22,205,000	49.9	14,329,000	13,706,000	624,000	7,877,000	64.5	4.4	61.7
	광역시권	8,588,000	19.3	5,214,000	4,995,000	220,000	3,375,000	60.7	4.2	58.2
	기타시도	13,667,000	30.7	8,924,000	8,625,000	304,000	4,741,000	65.3	3.4	63.1
	중졸이하	10,605,000	23.9	4,269,000	4,141,000	128,000	6,338,000	40.3	3	39
	고졸	16,682,000	37.5	10,801,000	10,322,000	479,000	5,881,000	64.7	4.4	61.9
	대졸이상	17,173,000	38.6	13,398,000	12,861,000	538,000	3,775,000	78	4	74.9

주: 1) 경활동(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4)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5)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14-118.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2019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64% 보다 26.7%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구 6.3%로 전체인구 4%보다 2.2%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4.9%로 전체인구 61.5% 보다 26.6%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보다 성별,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5.6%로 여성 20.3%에 비해 25.3%p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55.8%로 가장 높고, 고졸 47.5%, 중졸이하 23.4% 순임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비교

(단위: 명,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전체	38.7	37.0	37.3	0.3	5.7	6.6	6.3	-0.3	36.5	34.5	34.9	0.4
남성	49.5	47.1	48.5	1.4	5.5	6.3	6.0	-0.3	46.8	44.1	45.6	1.5
여성	23.9	23.1	21.9	-1.2	6.3	7.4	7.2	-0.2	22.4	21.4	20.3	-1.1
15~29세	31.8	33.9	36.0	2.1	9.8	12.3	15.1	2.8	28.7	29.7	30.6	0.9
30~39세	56.4	57.7	58.6	0.9	6.5	8.2	8.9	0.7	52.7	53.0	53.4	0.4
40~49세	59.3	60.1	61.3	1.2	4.7	6.4	4.8	-1.6	56.5	56.3	58.4	2.1
50~59세	55.1	56.1	57.0	0.9	4.6	5.7	6.5	0.8	52.6	52.9	53.2	0.3
60세 이상	26.9	24.5	25.2	0.7	6.5	6.5	5.2	-1.3	25.2	22.9	23.9	1.0
중증	21.1	22.1	22.6	0.5	7.7	8.4	7.3	-1.1	19.5	20.2	20.9	0.7
경증	46.9	43.9	43.3	-0.6	5.3	6.2	6.1	-0.1	44.4	41.1	40.6	-0.5
신체	48.3	45.1	46.9	1.8	5.0	5.8	5.4	-0.4	45.9	42.5	44.3	1.8
지체장애												
외부	12.8	14.5	13.4	-1.1	5.7	12.5	6.7	5.8	12.1	12.7	12.5	-0.2
지체 외	46.5	44.6	45.6	1.0	7.4	7.2	8.0	0.8	43.1	41.4	41.9	0.5
시각장애												
시각 외	35.0	33.9	29.5	-4.4	5.2	5.9	7.7	1.8	33.2	31.8	27.2	-4.6
정신적	20.9	23.1	23.9	0.8	10.7	10.6	8.8	-1.8	18.7	20.6	21.8	1.2
신체내부	27.1	26.4	28.0	1.6	6.0	6.0	5.9	-0.1	25.5	24.8	26.4	1.6
수도권	38.2	36.9	38.0	1.1	5.5	5.2	7.7	2.5	36.1	34.9	35.1	0.2
광역시권	35.8	36.4	35.1	-1.3	5.1	10.8	7.3	-3.5	34.0	32.5	32.6	0.1
기타시도	40.7	37.4	37.5	0.1	6.2	6.2	4.3	-1.9	38.2	35.1	35.9	0.8
중졸이하	27.6	25.9	24.8	-1.1	5.2	7.0	5.6	-1.4	26.2	24.0	23.4	-0.6
고졸	51.7	50.1	50.7	0.6	7.0	7.1	6.3	-0.8	48.1	46.5	47.5	1.0
대졸이상	60.9	58.7	60.3	1.6	4.3	5.1	7.5	2.4	58.2	55.7	55.8	0.1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5)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7) 증감은 2019년 수치에서 2018년 수치를 뺀 값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격년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실업률은 2018년 증가하였다가 2019년 감소하였다.
- 2018년 대비 2019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0.3%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0.8%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 모두 각각 1.2%p, 0.2%p, 1.1%p 감소했음.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1.4%p, 1.5%p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3%p 감소함
  -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가장 큰 증감을 보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은 2018년에 비해 각각 2.1%p, 2.8%p, 0.9%p 증가함

## (2) 취업자 특성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취업자		장애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27,322,000	100.0	881,890	100.0	
성별	남성	15,535,000	56.9	664,770	75.4	
	여성	11,788,000	43.1	217,120	24.6	
연령별	15-29세	3,953,000	14.5	39,638	4.5	
	30-39세	5,543,000	20.3	70,467	8.0	
	40-49세	6,519,000	23.9	150,695	17.1	
	50-59세	6,488,000	23.7	257,570	29.2	
	60세 이상	4,819,000	17.6	363,519	41.2	
장애정도별	중증	—	—	153,275	17.4	
	경증	—	—	728,615	82.6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	—	547,040	62.0
		지체 외	—	—	30,721	3.5
	감각	시각	—	—	105,173	11.9
		시각 외	—	—	96,752	11.0
	정신적	—	—	65,900	7.5	
	신체내부	—	—	36,304	4.1	
지역별	수도권	13,706,000	50.2	369,977	42.0	
	광역시권	4,995,000	18.3	155,686	17.7	
	기타 시도	8,625,000	31.6	356,226	40.4	
학력별	중졸 이하	4,141,000	15.2	336,380	38.1	
	고졸	10,322,000	37.8	354,185	40.2	
	대졸 이상	12,861,000	47.1	191,325	21.7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부·요부,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8.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취업률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남녀 성비는 56.9% 대 43.1%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구의 남녀성비는 75.4% 대 24.6%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른 취업률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49세까지는 전체인구의 취업률이 낮은 반면, 50-60세 이상에서는 장애인구의 취업률이 전체인구의 취업률 보다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취업률은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의 취업률은 중졸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1,890	100.0	27,322,000	100.0
소계	627,706	71.2	20,504,000	74.6
임금근로자	351,926	39.9	14,070,000	50.8
임시근로자	183,884	20.9	4,954,000	18.4
일용근로자	91,896	10.4	1,480,000	5.4
비	254,184	28.8	6,818,000	25.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2,296	5.9	1,584,000	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5,859	19.9	4,099,000	15.1
무급 가족 종사자	26,028	3.0	1,135,000	4.3

주: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경우, 74.6%가 임금근로자인 반면에 장애인구는 71.2% 수준임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각각 50.8%, 39.9%이며,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15.1%와 19.9%로 가장 높음
- 임금근로자중 일용근로자 비율이 전체 인구 5.4%에 비해 장애인구는 10.4%로 더 높음

〈표 6-1-5〉 취업자의 산업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1,890	100	627,706	100	254,183	100	27,358,000	1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94,573	10.7	11,570	1.8	83,003	32.7	1,552,000	5.7
제조업	134,584	15.3	119,429	19	15,154	6	4,415,000	1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114	0.2	2,114	0.3	0	0	72,000	0.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307	0.6	3,457	0.6	1,851	0.7	139,000	0.5
건설업	85,331	9.7	67,088	10.7	18,243	7.2	2,031,000	7.4
도매 및 소매업	88,962	10.1	42,993	6.8	45,969	18.1	3,632,000	13.3
운수업	57,524	6.5	32,477	5.2	25,047	9.9	1,417,000	5.2
숙박 및 음식점업	45,205	5.1	25,773	4.1	19,432	7.6	2,332,000	8.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180	1.3	10,660	1.7	520	0.2	847,000	3.1
금융 및 보험업	18,445	2.1	16,505	2.6	1,940	0.8	798,000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692	3.1	19,721	3.1	7,971	3.1	570,000	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055	2	13,762	2.2	4,292	1.7	1,161,000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7,858	5.4	43,664	7	4,194	1.6	1,330,000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4,082	7.3	63,901	10.2	180	0.1	1,079,000	3.9
교육 서비스업	35,727	4.1	31,530	5	4,197	1.7	1,883,000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579	11.5	98,812	15.7	2,767	1.1	2,259,000	8.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231	1.2	4,917	0.8	5,313	2.1	525,000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688	3.4	16,235	2.6	13,453	5.3	1,219,000	4.5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3,754	0.4	3,098	0.5	657	0.3	97,000	0.4

주: 1)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2) '기타' =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7-18.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2019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제조업이 16.1%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13.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한편, 장애인구에서도 제조업이 15.3%로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5%로 나타났다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제조업 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5.7% 순이었으며,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32.7%, 도매 및 소매업 18.1% 순임



〈표 6-1-6〉 취업자의 직업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1,890	100	5,845	0.9	3,975	1.6	27,322,000	100
관리자	9,821	1.1	57,933	9.2	19,617	7.7	425,000	1.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550	8.8	105,366	16.8	19,367	7.6	5,542,000	20.3
사무 종사자	124,734	14.1	48,340	7.7	18,752	7.4	4,728,000	17.3
서비스 종사자	67,092	7.6	27,261	4.3	45,154	17.8	3,127,000	11.4
판매종사자	72,415	8.2	9,363	1.5	84,283	33.2	3,043,000	1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3,646	10.6	55,226	8.8	19,492	7.7	1,416,000	5.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4,719	8.5	85,645	13.6	34,003	13.4	2,393,000	8.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9,648	13.6	232,576	37.1	9,482	3.7	3,017,000	11
단순노무 종사자	242,058	27.4	150	0	57	0	3,632,000	13.3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207	0	627,705	100	254,182	100	0	0

주: 1) 기타에는 군인 등이 포함됨

2)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9-20.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2019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3%로 가장 높으며 사무종사자 17.3%, 단순노무 종사자 13.3% 순임
- 반면, 장애인구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가장 높았고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4%, 사무 종사자 12.9%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

(단위: 명, %, 시간, 만원)

구분	추정 수	비율	취업시간	임금
전체인구	20,559,000	100.0	35.9	264.3
장애인구	627,706	100.0	36.9	183.1
총상 지위	상용근로자	351,926	56.1	267.6
	임시근로자	183,884	29.3	92.7
	일용근로자	91,896	14.6	136.5
산업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11,570	1.8	139.1
	제조업	119,429	19.0	260.3
	건설업	67,088	10.7	244
	도소매, 음식 숙박업	68,766	11.0	179.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95,181	47.0	153.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65,213	10.4	260.6
직업	관리자, 전문가	459	0.1	-
	사무 종사자	63,779	10.2	318.7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5,366	16.8	287.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5,602	12.0	148.1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9,363	1.5	118.4
	단순노무 종사자	140,871	22.4	247.1
사업체 규모	1~4인	232,576	37.1	113
	5~49인	150	0.0	-
	50~299인	128,898	21.0	139.2
	300인 이상	311,376	50.8	190.8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118,602	19.3	225.9
	정규직	54,480	8.9	325.9

주: 1) 취업시간은 '지난 주 평균 실제로 일한 시간',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2) 취업시간과 임금의 임금노동자 추정 수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업시간의 추정 수를 표기함.

3) 평균 취업시간은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대입하여 산정함

4)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에 대해 모름/ 응답 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5)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6)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7)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44, p.145, p.146, p.153.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3월)」

- 2019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6.9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인 35.9시간과 비슷하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64.3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83.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69%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37.1%로 가장 높음.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41.1시간으로 가장 높으나, 월 평균 임금은 247.1만원으로 관리자, 전문가(318.7만원), 사무 종사자(287.6만원)보다 낮음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단위: %)

구분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60.0	36.4
남성	51.6	29.4
여성	83.7	45.0
15-29세	67.8	40.4
30-39세	41.3	23.7
40-49세	40.5	27.0
50-59세	47.9	35.5
60세 이상	84.3	71.6
중증	71.6	-
경증	57.1	-
신체외부	지체 56.7	-
	지체 외 68.3	-
감각	시각 55.2	-
	시각 외 67.3	-
정신적	77.7	-
신체내부	57.1	-
수도권	55.6	35.9
광역시권	53.3	36.2
기타 시도	68.6	37.4
중졸 이하	80.8	69.3
고졸	57.9	43.3
대졸 이상	34.0	24.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부·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새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58.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9년 3월)」

- 2019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60.0%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6.4% 비해 약 1.6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남성이 29.4%, 여성이 45.0%이며 장애인구에서는 남성이 51.6%, 여성이 83.7%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에서 60세 이상이 비율이 각각 71.6%, 84.3%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71.6%, 경증 57.1%로 중증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장애가 77.7%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69.3%, 80.8%로 가장 높음, 고졸과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가 높게 나타남

### (3) 실업자 특성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59,246	100	1,145,000	100
성별	남성	42,283	71.4	690,000	60.3
	여성	16,963	28.6	455,000	39.7
연령별	15-29세	7,064	11.9	437,000	38.2
	30-39세	6,899	11.6	214,000	18.7
	40-49세	7,577	12.8	163,000	14.2
	50-59세	17,947	30.3	171,000	14.9
	60세 이상	19,759	33.4	160,000	14.0
장애정도별	중증	12,086	20.4	—	—
	경증	47,161	79.6	—	—
장애유형별	지체	31,157	52.6	—	—
	신체외부				
	지체 외	2,202	3.7	—	—
	시각	9,125	15.4	—	—
	감각				
	시각 외	8,126	13.7	—	—
	정신적	6,354	10.7	—	—
	신체내부	2,283	3.9	—	—
지역별	수도권	30,811	52.0	624,000	54.5
	광역시권	12,339	20.8	220,000	19.2
	기타 시도	16,097	27.2	304,000	26.6
학력별	중졸 이하	20,036	33.8	128,000	11.2
	고졸	23,797	40.2	479,000	41.8
	대졸 이상	15,413	26.0	538,000	47.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 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76.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2019년 기준 실업률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60.3%, 여성이 39.7%이며 장애인구는 남성이 71.4%, 여성이 28.6%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남성의 실업률이 더 높음
- 그러나 실업률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장애인구는 42.8%p로 전체 인구 20.6%p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30대 이하가 38.2%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는 60세 이상이 33.4%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임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비율이 79.6%로 중증 20.4%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대졸 이상이 47%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는 고졸이 40.2%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임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59,247	100.0	1,145,000	100.0
구직 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28,928	48.8	628,000	54.8
		3~6개월 미만	23,775	40.1	408,000	35.6
		소계	52,703	89.0	1,036,000	90.5
	6개월 이상	6~12개월 미만	4,544	7.7	105,000	9.2
		12개월 이상	1,999	3.4	4,000	0.3
		소계	6,544	11.0	109,000	9.5
구직 경로	공공 취업알선기관		27,623	46.6	—	—
	민간 취업알선기관		7,649	12.9	—	—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14,031	23.7	—	—
	학교, 학원		781	1.3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24,302	41.0	—	—
	기타		955	1.6	—	—
구직 방법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33,030	55.7	—	—
	시험접수, 시험응시		1,902	3.2	—	—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11,552	19.5	—	—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1,084	1.8	—	—
	자영업 준비		925	1.6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		26,826	45.3	—	—

주: 1) '공공 취업알선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가 포함됨

2)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은 두 개까지 응답받을 수 있음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9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31, p.32, p.181.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경우 6개월 이상이 11.0%로 전체인구 9.5%에 비해 1.5%p 높게 나타남

- 장애인구의 구직경로는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46.6%로 가장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41.0%, 대중매체 23.7%순임
- 구직방법은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가 55.7%로 가장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이 45.3% 두 번째로 많음
-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에서 취업알선기관(공공 및 민간포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 장애인의 구직활동이 직접 취업(사업주-구직자)보다는 주로 간접취업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전체	175,503	100.0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157,789	90.1
비 임금근로	17,264	9.9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5,598	3.2
제조업	24,784	14.2
건설업	15,551	8.9
도소매, 음식 숙박업	16,783	9.6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97,826	55.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13,916	7.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595	0.3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14,211	8.1
사무 종사자	23,902	13.7
서비스, 판매 종사자	35,545	2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95	1.0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20,969	12.0
단순노무 종사자	78,631	44.9
희망 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등)	1,329	2.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11,749	22.1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218	7.9
그 외 일반사업체(공무원 등 포함)	35,883	67.5
희망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	37,385	70.3
시간제 근로	15,795	29.7
희망 월 평균소득		
49만원 이하	3,252	5.5
50-99만원	2,332	3.9
100-149만원	8,534	14.4
150-199만원	13,756	23.2
200-299만원	22,778	38.4
300만원 이상	8,595	14.5

주: 1) 희망 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절편함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3)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3, p.184, p.197.

- 실업자의 희망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55.9%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4.9%로 가장 많음
- 희망사업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보다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일반사업체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67.5%로 가장 많음
- 희망 근로시간은 전일제 근로 70.3%, 시간제 근로 29.7%로 전일제 근로를 더 선호함
- 월 평균 희망소득은 200-299만원이 38.4%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이 23.2%로 두 번째로 많음



#### (4)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1,585,064	100	15,992,000	100
성별	남성		750,529	47.4	5,634,000	35.2
	여성		834,535	52.6	10,358,000	64.8
연령별	15-29세		82,997	5.2	4,683,000	29.3
	30-39세		54,575	3.4	1,534,000	9.6
	40-49세		99,716	6.3	1,623,000	10.1
	50-59세		208,228	13.1	1,884,000	11.8
	60세 이상		1,139,549	71.9	6,269,000	39.2
장애정도별	중증		567,859	35.8	-	-
	경증		1,017,205	64.2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655,743	41.4	-	-
		지체 외	212,733	13.4	-	-
	감각	시각	136,482	8.6	-	-
		시각 외	250,891	15.8	-	-
	정신적	정신적	230,137	14.5	-	-
		신체내부	99,078	6.3	-	-
지역별	수도권		653,592	41.2	7,877,000	49.3
	광역시권		310,150	19.6	3,375,000	21.1
	기타시도		621,323	39.2	4,741,000	29.6
학력별	중졸		1,081,187	68.2	6,338,000	39.6
	고졸		367,787	23.2	5,881,000	36.8
	대졸이상		136,090	8.6	3,775,000	23.6
구직단념자 수	통계청 기준		6,453	0.4	538,000	3.4
	EDI 기준		39,265	2.5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9, p.192.

2) 통계청(2019).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35.2%, 여성이 64.8%로 나타났고 장애인구는 남성이 47.4%, 여성이 52.6%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장애인구는 71.9%, 전체인구는 39.2%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비율이 64.2%로 중증 35.8%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1.4%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수도권에서 각각 49.3%, 41.2%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중졸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장애인구는 68.2%로 전체인구의 39.6%에 비해 약 28.6%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자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 2) 의무고용

### (1) 장애인 의무고용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수(개소)	상시근로자수(명)	장애인수(명)	고용률(%)	
연도별	2008	22,106	6,035,950	104,132	1.73	
	2009	22,209	6,091,555	114,053	1.87	
	2010	23,249	6,511,624	126,416	2.24	
	2011	24,083	6,909,276	133,451	2.28	
	2012	25,688	7,199,417	142,022	2.35	
	2013	27,349	7,499,665	153,955	2.48	
	2014	27,488	7,570,281	158,388	2.54	
	2015	28,218	7,713,036	164,876	2.62	
	2016	28,708	7,852,861	168,614	2.66	
	2017	28,018	7,912,772	175,935	2.76	
2018	29,018	8,177,401	180,328	2.78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계	314	885,727	21,207	2.78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50	176,790	5,184	3.43
		헌법기관	4	26,866	578	2.43
		지방자치단체	243	279,266	9,412	3.95
		교육청	17	402,805	6,033	1.70
	비공무원	계	302	329,543	10,284	4.32
		중앙행정기관	39	63,660	1,410	2.63
		헌법기관	3	2,065	53	2.95
		지방자치단체	243	103,768	5,543	7.18
		교육청	17	160,050	3,278	3.16
공공 기관	소계	652	496,579	13,564	3.16	
	공기업	35	138,727	4,204	3.32	
	준정부기관	93	115,093	3,484	3.60	
	기타공공기관	384	173,581	3,444	2.40	
	지방공기업	140	69,178	2,432	4.04	
민간기업		27,750	6,465,552	135,273	2.67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고용률은 2.78%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3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7%로 의무고용률 2.9%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제27조, 제28조의2, 시행 2017.1.1.)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2%
  - 2019년 이후: 3.4%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7%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9%
  - 2019년 이후: 3.1%



## (2) 장애인 고용부담금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합계	98,043	4,898,002	92,955	4,747,300	5,088	150,702	96.9
2018	9,456	567,773	9,031	552,121	425	15,652	97.2
2017	8,439	470,032	7,996	453,236	443	16,796	96.4
2016	8,283	449,178	7,877	434,718	406	14,460	96.8
2015	8,247	428,433	7,945	418,087	302	10,346	97.6
2014	7,662	351,962	7,373	341,958	289	10,004	97.2
2013	7,678	326,515	7,403	318,777	275	7,738	97.6
2012	7,331	250,506	7,034	243,466	297	7,040	97.2
2011	6,778	219,130	6,512	214,384	266	4,746	97.8
2010	6,119	149,947	5,880	146,086	239	3,861	97.4
2009	6,372	151,771	5,890	144,860	482	6,911	95.4
2008	6,123	151,240	5,644	143,249	479	7,991	94.7
2007	3,319	156,716	3,034	151,269	285	5,447	96.5
2006	2,364	139,912	2,180	136,298	184	3,614	97.4
2005	2,321	129,140	2,146	125,910	175	3,230	97.5
2004	2,311	121,873	2,142	118,669	169	3,204	97.4
20030 전	5,240	833,874	4,868	804,212	372	29,662	96.4

주: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2019),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p.620.

-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2018년까지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건수는 9,45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7건 증가함
- 부가금액 대비 징수금액인 징수율은 매년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신설)」 제32조의2, 시행 2017.1.1.)

###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 (1) 기업체 장애인 고용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17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전 체	1,699,638	100.0	69,194	100.0	1,630,445	100.0	4.1	4.3	
고용비율 기업체	계	1,664,321	98.0	46,997	68.0	1,617,324	99.2	2.8	3.1
	1-4명	1,277,767	75.2	24,801	35.8	1,252,966	76.8	1.9	2.0
	5-49명	386,554	22.7	22,196	32.1	364,358	22.3	5.7	6.1
	계	35,317	2.1	22,197	32.1	13,121	0.8	62.8	62.0
고용 여부기업체	50-299명	31,987	1.9	18,912	27.3	13,075	0.8	59.1	58.0
	300-999명	2,550	0.2	2,510	3.6	40	0.0	98.4	92.0
	1,000명 이상	781	0.0	775	1.1	6	0.0	99.3	98.0
산업별	계	1,699,638	100.0	69,194	100.0	1,630,445	100.0	4.1	4.3
	제조업	281,073	16.5	19,520	28.2	261,553	16.0	6.9	7.4
	서비스업 1	756,078	44.5	20,106	29.1	735,972	45.1	2.7	2.1
	서비스업 2	549,947	32.4	24,778	35.8	525,169	32.2	4.5	6.0
	기타	112,541	6.6	4,791	6.9	107,751	6.6	4.3	3.8
지역별	계	1,699,638	100.0	69,194	100.0	1,630,445	100.0	4.1	4.3
	수도권	1,217,166	71.6	30,977	44.8	1,186,189	72.8	2.5	2.7
	광역시권	421,496	24.8	30,946	44.7	390,549	24.0	7.3	7.2
	기타 지역	60,977	3.6	7,271	10.5	53,706	3.3	11.9	15.3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 전체기업체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19),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p.139-142.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장애인 고용 기업비율은 2017년 4.3%에서 0.2%p 감소한 4.1%임
-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2.8%인 46,997개 기업체, 5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62.8%인 22,197개 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비율은 90.1%임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2'는 4.5%, '기타 산업'은 4.3%, '서비스업 1'은 2.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광역시권'의 고용기업체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지역'은 4.1%, '수도권'은 3.8% 순으로 나타남



## (2)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17년 장애인 고용률
	전 체	비 율	장애인	비 율		
전 체	14,405,983	100.0	205,039	100.0	1.4	1.5
고용비의무 기업체	계	7,276,820	50.5	62,316	30.4	0.9
	1~4명	2,751,857	19.1	25,519	12.4	0.9
	5~49명	4,524,963	31.4	36,797	17.9	0.9
고용 의무기업체	계	7,129,163	49.5	142,724	69.6	2.0
	50~299명	3,137,362	21.8	61,275	29.9	2.0
	300~999명	1,315,992	9.1	29,206	14.2	2.1
	1,000명 이상	2,675,809	18.6	52,242	25.5	2.1
	계	14,405,983	100	205,039	100	1.4
산업별	제조업	3,832,322	26.6	60,345	29.4	1.6
	서비스업 1	3,166,132	22	32,516	15.9	1.0
	서비스업 2	6,327,340	43.9	98,401	48	1.6
	기 타	1,080,189	7.5	13,778	6.7	1.3
	계	14,405,983	100	205,039	100	1.4
지역별	수도권	8,192,215	56.9	110,277	53.8	1.4
	광역시권	2,257,998	15.7	35,927	17.5	1.6
	기타 지역	3,955,769	27.5	58,835	28.7	1.5
	계	14,405,983	100	205,039	100	1.4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19),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p.144-146.

- 1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체 14,405,983명이며,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4%로 2017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매우 낮은 수준임
- 고용비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9%로 2017년과 같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로 2017년과 같음
  - 고용의무기업체 중 '300~999명' 규모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1,000명 이상'에서는 1.95%, '50~299명'은 1.95%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57%, '서비스업 2'는 1.56%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1.42%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1'은 1.03%, '기타 산업'은 1.28%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율은 수도권이 56.9%로 가장 높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1.4%로 가장 낮음

## 4) 장애인기업

### (1) 장애인기업 수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소, %)

구분		기업 수	비율
전 체		39,967	100.0
규모별	소상공인	37,049	92.7
	중소기업	2,918	7.3
업종별	제조업	7,989	20.0
	도/소매업	12,002	30.0
	숙박/음식점업	6,024	15.1
	개인서비스업	8,339	20.9
	기타	5,613	14.0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22,577	56.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099	15.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292	18.2
	5억원 이상	3,999	10.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추정 수 및 비율임

3) 규모별 장애인기업 규정은 중소기업법(2009.5. 중소기업법) 중사자 규모별주에 따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소상공인(10인 미만), 소기업(10-50인 미만), 중기업(50인 이상)

- 그 밖의 모든 업종 : 소상공인(5인 미만), 소기업(5-10인 미만), 중기업(10인 이상)

4) 업종은 통계청의 20개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분석 시 5개로 재분류하였음

5) 개인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업종을 말함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기업 수는 39,967개소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92.7%, 중소기업 7.3%임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비율이 높고, 개인서비스업 20.9%, 제조업 20.0% 순임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원 미만인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8.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3% 순임

#### ※※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 (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전 체		96.0	4.0
규모별	소상공인	98.1	1.9
	중소기업	69.2	30.8
업종별	제조업	92.4	7.6
	도/소매업	98.7	1.3
	숙박/음식점업	100.0	-
	개인서비스업	97.6	2.4
	기타	88.5	11.5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99.7	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9.3	0.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7.4	2.6
	5억원 이상	67.3	32.7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의 조직형태 비율은 개인사업체가 96.0%, 회사법인이 4.0%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98.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0.8%가 회사법인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사업체로 나타남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억원 이상인 경우 32.7%가 회사법인이며, 5억 미만인 경우는 95.0% 이상 개인사업체임

### (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단독사업체	다수사업체	모름/무응답
전 체		89.7	5.5	4.8
규모별	소상공인	87.9	7.1	5.0
	중소기업	91.2	4.3	4.6
업종별	제조업	90.1	8.3	1.6
	도/소매업	100.0	-	-
	개인서비스업	87.0	8.2	2.5
	기타	87.0	3.4	9.6
5천만원 미만		73.8	8.5	17.8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	-	3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0	-	-
	5억원 이상	89.9	6.3	3.8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단독사업체가 89.7%이며, 다수사업체가 5.5%임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규모, 업종 및 전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수			신규채용인력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전체	117,237	42,560	36.3	5,017	509	
규모별	소상공인	77,366	38,457	49.7	2,430	270
	중소기업	39,871	4,103	10.3	2,586	239
업종별	제조업	34,022	8,626	25.4	1,389	110
	도/소매업	24,561	12,484	50.8	839	56
	숙박/음식점업	14,920	6,165	41.3	834	5
	개인서비스업	18,078	8,953	49.5	1,052	163
	기타	25,655	6,332	24.7	902	175

주: 2016년 12월 말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117,237명이며, 그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42,560명으로 36.3%를 차지함. 또한 2016년 한 해 신규 채용한 인력은 5,017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509명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49.7%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종사자임.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10.3%임. 2016년 신규 채용한 인력은 소상공인 270명, 중소기업 239명임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50.8%로 가장 높고, 개인서비스업 49.5%, 숙박/음식점업 41.3% 순임

##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 (1) 취업 관련 활동 경험 현황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전 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중증	경증	신체외부	감각	정신적	신체 내부	
1.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4.4	5.0	3.4	8.2	13.4	5.1	2.3	2.7	5.5	4.3	6.7	3.2	3.3	
2. 신문,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 창업정보 탐색	2.7	3.1	1.9	1.6	5.2	2.7	2.5	1.8	3.2	3.0	3.8	1.3	1.0	
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6.3	5.8	8.0	22.4	7.6	5.1	4.9	9.6	5.3	4.1	8.2	17.8	4.9	
4.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4.1	3.8	5.1	7.6	1.5	2.7	4.8	13.0	1.4	3.1	3.9	8.6	9.3	
5. 민간 취업알선업체 구직등록, 취업알선	1.8	1.6	2.1	2.9	2.2	2.2	1.4	1.2	1.9	1.4	3.7	1.2	0.7	
6.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	11.1	10.4	13.2	10.7	9.6	9.0	12.1	10.7	11.2	11.1	14.4	6.8	6.4	
7. 직접 일자리에 채용 문의	3.3	3.1	3.6	4.1	3.5	2.4	3.4	4.1	3.0	2.4	5.7	3.2	4.6	
8.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1.4	1.3	1.5	3.8	2.3	1.2	1.1	1.5	1.4	1.3	2.1	1.0	0.7	
9.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1.1	0.9	1.7	2.6	2.4	1.6	0.6	1.6	0.9	0.9	1.0	1.0	3.1	
10. 공공/민간/사업체/학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0.5	0.2	1.2	3.7	0.2	0.3	0.2	1.1	0.1	0.1	0.5	2.0	0.0	
11. 사설학원 외국어, 자격 취득, 채용시험 등 준비	0.1	0.1	0.2	0.4	0.3	0.3	0.0	0.1	0.1	0.1	0.3	0.1	0.0	
12. 자격증 취득 준비	0.7	0.7	0.6	2.0	1.8	1.0	0.2	0.6	0.7	0.4	1.4	0.5	1.2	
13. 일자리에서의 현장실습이나 인턴	0.4	0.5	0.2	0.9	0.2	0.7	0.2	0.3	0.4	0.4	0.5	0.4	0.2	
14. 채용시험 준비	0.4	0.4	0.2	1.3	1.4	0.4	0.1	0.3	0.4	0.4	0.8	0.0	0.2	
15. 창업을 위한 활동	0.9	0.3	2.6	1.0	1.3	0.9	0.8	2.1	0.5	0.3	3.0	0.0	2.1	
16. 장애인 자립, 창업 자금 등 지원, 용자	0.9	0.2	0.9	0.4	0.4	0.3	0.5	0.9	0.1	0.3	1.6	0.1	0.1	
1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활동 경험 비율"은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여 산출함

2) 1, 2, 10, 11, 12, 13, 14, 16은 전체 장애인에게 응답 받음

3) 3, 4, 5, 6, 7, 15는 최근 3년 내 구직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하고 응답 받음

4) 8, 9는 취업자에게 응답 받음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3차조사)」, p.186, pp.366-368.

- 전체 장애인 중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은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이 11.1%로 가장 높으며,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6.3%,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4.4% 순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의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이 1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취업자 중 지난조사 이후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경험은 1.4%,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경험은 1.1%로 나타남



## (2) 직업교육훈련 경험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횟수					
1회	83.6	94.2	79.5	80.9	92.8
2회 이상	16.4	5.8	20.5	19.1	7.2
종류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15.4	3.2	19.6	16.0	13.0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17.1	30.1	12.6	21.5	0.4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0.0	0.6	33.1	31.2	0.8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24.8	38.2	0.0	7.6	17.9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	9.8	0.0	11.0	2.9	28.3
학교 직업교육훈련	8.2	27.9	4.8	4.8	33.2
사설학원 교육훈련	10.7	0.0	17.0	16.0	0.0
모름/응답거절	1.3	0.0	1.8	0.0	6.4
분야					
농림어업, 광업 분야	0.0	0.0	0.0	0.0	0.0
섬유 분야	0.0	0.0	0.0	0.0	0.0
기계장비 및 금속 분야	0.0	0.0	0.0	0.0	0.0
건설 및 운송 분야	1.3	0.0	1.8	0.0	6.4
전기전자 분야	6.5	25.3	0.0	7.1	3.9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8.5	33.1	0.0	9.6	4.2
서비스 분야	32.6	6.5	41.5	39.1	7.9
사무, 업무관리 분야	12.6	12.6	12.6	12.1	14.5
의료 분야	9.5	0.0	12.8	4.6	28.3
산업응용 분야	0.0	0.0	0.0	0.0	0.0
공예 분야	0.0	0.0	0.0	0.0	0.0
공무원교원, 일반 입사 준비	1.9	0.0	2.6	0.0	9.1
토익, 토플 등 외국어 학습	4.9	19.2	0.0	0.0	23.4
모름/응답거절	0.5	1.9	0.0	0.0	2.3

주: 1)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및 성과"에서 '공공/민간/사업체/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사설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받음  
 2) 경험횟수는 훈련자 수 기준이며, 훈련 종류 및 분야는 훈련 총 수 기준임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19),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3차조사)', pp 192-194, 375, 376

-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험횟수 중 1회는 83.6%인 반면, 2회 이상은 16.4%로 현저히 낮음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여성은 '민간 직업 훈련기관 훈련'이 33.1%로 가장 높고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19.6%, '사설학원 교육훈련'이 17% 순임. 반면에 남성은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38.2%로 가장 높고,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30.1%, '학교 직업교육훈련'이 27.9% 순임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분야를 살펴보면, 남성은 '컴퓨터 정보 통신 분야'에서 33.1%, 여성은 서비스 분야에서 41.5%로 가장 높음

## 6) 직업재활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 장애인 수
		인원	시설 평균	
2014	541	3,160	5.8	15,651
2015	560	3,133	5.6	16,414
2016	582	3,256	5.6	17,131
2017	625	3,732	6.0	17,841
2018	651	4,024	6.2	18,205
서울	132	813	6.2	4,138
부산	39	189	4.8	1,121
대구	42	184	4.4	1,121
인천	34	195	5.7	903
광주	23	191	8.3	752
대전	24	154	6.4	584
울산	14	62	4.4	282
세종	4	20	5.0	94
경기	115	907	7.9	3,224
강원	35	165	4.7	801
충북	22	172	7.8	754
충남	20	159	8.0	675
전북	21	120	5.7	522
전남	20	94	4.7	445
경북	44	241	5.5	1,206
경남	52	232	4.5	1,213
제주	10	126	12.6	37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관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2-3.

-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수, 종사자수, 이용 장애인 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시설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2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기(115개소), 경남(52개소), 경북(44개소), 대구(42개소) 순임
- 시설 평균 종사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2.6명으로 가장 높으며, 광주(8.3명), 충남(8.0명), 경기(7.9명) 순임
- 이용 장애인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138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3,224명), 경북(1,206명), 경남(1,213명) 순임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지적	지체	정신	자폐성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14	계	15,651 (100.0)	11,353 (72.5)	1,386 (8.9)	843 (5.4)	737 (4.7)	483 (3.1)	424 (2.7)	292 (1.9)	56 (0.4)	43 (0.3)
	근로 사업장	2,721 (100.0)	1,541 (56.6)	535 (19.7)	164 (6.0)	74 (2.7)	155 (5.7)	89 (3.3)	124 (4.6)	23 (0.8)	9 (0.3)
	보호 작업장	12,930 (100.0)	9,812 (75.9)	851 (6.6)	679 (5.3)	663 (5.1)	328 (2.5)	335 (2.6)	168 (1.3)	33 (0.3)	34 (0.3)
2015	계	16,414 (100.0)	12,001 (73.1)	1,294 (7.9)	895 (5.5)	871 (5.3)	509 (3.1)	442 (2.7)	291 (1.8)	45 (0.3)	33 (0.2)
	근로 사업장	2,798 (100.0)	1,653 (59.1)	456 (16.3)	170 (6.1)	85 (3.0)	164 (5.9)	99 (3.5)	135 (4.8)	17 (0.6)	12 (0.4)
	보호 작업장	13,616 (100.0)	10,348 (76.0)	838 (6.2)	725 (5.3)	786 (5.8)	345 (2.5)	343 (2.5)	156 (1.1)	28 (0.2)	21 (0.2)
2016	계	17,131 (100.0)	12,582 (73.4)	1,285 (7.3)	930 (5.4)	986 (5.8)	539 (3.1)	434 (2.5)	290 (1.7)	42 (0.2)	38 (0.2)
	근로 사업장	2,762 (100.0)	1,650 (59.7)	427 (15.5)	160 (5.8)	96 (3.5)	162 (5.9)	92 (3.3)	136 (4.9)	19 (0.7)	14 (0.5)
	보호 작업장	14,335 (100.0)	10,905 (76.1)	831 (5.8)	769 (5.4)	884 (6.2)	377 (2.6)	342 (2.4)	154 (1.1)	23 (0.2)	24 (0.2)
2017	계	17,841 (100.0)	13,236 (74.2)	1,086 (6.5)	1,151 (5.3)	949 (2.3)	568 (2.2)	419 (2.3)	310 (1.7)	40 (0.2)	43 (0.2)
	근로 사업장	2,724 (100.0)	1,618 (66.7)	112 (4.6)	404 (16.6)	162 (6.7)	162 (6.7)	77 (3.2)	145 (6.0)	19 (0.8)	15 (0.6)
	보호 작업장	14,960 (100.0)	11,494 (76.8)	947 (6.3)	747 (5.0)	784 (5.2)	404 (2.7)	341 (2.3)	164 (1.1)	21 (0.1)	28 (0.2)
2018	계	18,205 (100.0)	13,642 (74.9)	1,073 (5.9)	894 (6.6)	1,220 (6.7)	523 (2.9)	432 (2.4)	301 (1.7)	39 (0.2)	48 (0.3)
	근로 사업장	11,498 (100.0)	8,355 (72.7)	900 (7.8)	621 (7.4)	722 (6.3)	233 (2.0)	294 (2.6)	277 (2.4)	32 (0.3)	34 (0.3)
	보호 작업장	6,707 (100.0)	5,287 (78.8)	173 (2.6)	273 (5.2)	498 (7.4)	290 (4.3)	138 (2.1)	24 (0.4)	7 (0.1)	14 (0.2)

주: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신장, 안면, 심장, 장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인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4-5.

- 2017년 대비 20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17,841명에서 18,205명으로 소폭 상승함
- 장애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지적 장애인이 74.9%로 가장 높으며, 자폐성장애인(6.7%), 정신장애인(6.6%), 지체장애인(5.9%) 순임
- 시설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근로사업장이 11,498명(63%), 보호작업장 6,707명(37%)으로 나타남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단위: 천원, %)

구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증감(수치)	전년대비증감(비율)
전체시설	근로장애인임금	567	591	24	4.2
	훈련장애인수당	96	86	-10	-10.8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임금	1,057	1,131	74	7
	훈련장애인수당	106	108	2	2.2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임금	423	439	16	3.8
	훈련장애인수당	95	87	-8	-8.4
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장애인수당	135	39	-96	-71.1

주: 월 평균 임금 및 수당 계산 시 임금을 받지 않는 이용장애인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4-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근로 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591천원이며, 근로시설은 1,131천원, 보호시설은 439천원임. 반면 전체 훈련 장애인의 월 평균수당은 86천원이며, 근로시설은 108천원, 보호시설은 87천원, 훈련시설은 39천원임.

- 시설유형에 따라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 및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며, 근로시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호시설, 훈련시설 순임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뉨.
-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 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직업적응훈련시설은 20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시설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III 권.



##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2018년 배정인원	17,352	6,271	10,044	1,037
참여인원	17,549	6,182	10,303	1,064
참여율	101	99	103	103
성별				
남	9,457	3,059	5,712	686
여	8,092	3,123	4,591	378
연령별				
29세 이하	3,968	1,248	2,493	263
39세 이하	2,172	1,144	928	105
49세 이하	2,369	1,409	877	109
59세 이하	2,672	1,443	1,062	191
65세 미만	1,448	1,074	771	146
65세 이상	4,823	401	4,172	250
장애 유형				
지체장애	6,329	2,875	3,454	-
뇌병변장애	1,804	819	985	-
시각장애	2,040	458	804	778
청각장애	1,209	392	817	-
언어장애	142	52	90	-
인면장애	19	16	781	-
신장장애	354	192	163	-
심장장애	42	27	61	-
호흡기장애	53	29	784	-
간장애	34	23	789	-
정류/요루장애	44	16	305	-
뇌전증(간질)장애	74	49	311	-
지적장애	4,135	889	2,974	272
자폐성장애	356	85	257	14
정신장애	867	260	607	-
장애 등급				
1급	1,810	298	878	634
2급	4,081	1,271	2,638	172
3급	5,751	2,269	3,283	199
4급	1,709	619	1,079	11
5급	2,027	775	1,236	16
6급	2,124	950	1,142	32
등급 외	47	-	47	47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17,549명으로 참여율은 101.1%임. 일자리 유형별로는 복지일자리 참여인원이 10,303명으로 가장 많고, 참여율은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가 102.6%임
- 성별 전체 참여인원은 남성이 9,457명으로 여성 8,092명보다 더 많으며, 일자리유형별 살펴보면, 일반형일자리에서는 여성이, 그 외 유형에서는 남성의 참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전체 참여인원은 65세 이상이 4,823명으로 가장 많았음.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일자리에서는 30~59세의 청장년층의 참여인원이 많은 반면 복지일자리에서는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즉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짐
- 장애유형별 전체 참여인원은 지체장애인이 6,329명으로 가장 많았음.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화형일 자리를 제외한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함
- 장애등급별 전체 참여인원은 3급이 5,751명으로 가장 많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단위: 개소)

구분	계	직업 재활센터	직업 평가센터	장애인 단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직업적응 훈련기관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관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행기관	현장중심 직업재활 센터
					직업 훈련시설	직업 활동시설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2008	182	34	6	32	8	29	43	-	10	12	8	-
2009	184	34	6	32	8	29	43	-	10	12	10	-
2010	186	34	6	32	8	29	43	-	10	14	10	-
2011	186	34	6	32	8	28	43	-	10	15	10	-
2012	190	34	6	32	8	28	43	-	10	19	10	-
2013	192	34	6	32	8	-	43	-	10	21	10	-
2014	191	34	6	32	-	-	88	-	-	21	10	-
2015	185	34	6	32	-	-	83	-	-	21	9	-
2016	176	34	6	32	-	-	75	-	-	20	9	-
2017	176	34	6	32	-	-	74	1	-	20	9	-
2018	177	34	6	30	-	-	74	1	-	20	5	7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7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체 수행기관 수는 177개로 전년도에 비해 1개소 증가함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단위: 명)

구분	계	구인등록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	자원고용		적응훈련		
								계	취업	계	수료	취업
2001	53,376	10,323	10,825	6,660	6,134	2,665	13,770	779	-	2,220	415	-
2002	90,485	13,076	28,450	10,996	7,692	3,467	22,912	565	438	3,327	415	163
2003	108,926	12,671	35,201	11,356	8,402	3,655	33,600	662	423	3,379	375	138
2004	107,173	18,366	36,283	16,608	8,563	3,678	21,022	488	364	2,165	512	90
2005	109,660	18,771	36,638	17,181	8,300	3,731	22,193	696	488	2,150	773	190
2006	104,539	12,583	31,516	16,886	8,593	3,977	28,134	734	524	2,116	798	235
2007	88,663	10,924	24,833	15,598	9,178	4,266	21,275	869	640	1,720	533	119
2008	96,371	13,336	32,671	13,167	11,471	4,846	18,145	905	498	1,830	719	173
2009	98,949	15,820	35,251	11,756	12,604	5,385	14,573	948	552	2,612	1,024	287
2010	98,915	16,179	31,576	12,750	13,884	5,500	15,017	1,195	690	2,814	752	300
2011	97,037	16,388	32,823	16,054	10,182	6,067	10,441	1,342	676	3,740	1,473	554
2012	96,125	16,559	31,041	16,282	10,526	6,312	10,253	1,497	807	3,655	1,340	481
2013	99,071	14,878	32,731	17,739	11,423	6,571	10,406	1,524	920	3,799	754	504
2014	90,072	11,958	32,205	15,116	9,309	6,780	9,463	1,155	609	4,086	1,089	318
2015	89,958	12,047	30,300	15,670	9,525	6,909	9,608	1,313	638	4,586	908	405
2016	90,028	12,365	28,900	17,065	9,089	7,001	9,889	1,442	777	4,277	933	455
2017	79,404	10,927	25,046	13,574	8,213	6,462	9,474	1,190	507	4,518	599	322
2018	82,890	11,644	25,464	14,005	9,009	7,102	10,104	957	444	4,605	568	356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자 수는 82,8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사업 내용 중 각 연도별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구직상담으로, 2018년에 총 25,464명이 구직상담을 지원 받음
  - 한편 취업이 확정된 지원자는 2018년 7,10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2007	155,702	-	48,158	-	1,153	-	30,454	-	44,513	-	32,577	-
2008	132,016	-	41,950	-	1,927	-	39,063	-	30,119	-	20,884	-
2009	165,811	-	44,153	-	3,576	-	56,113	-	39,545	-	26,000	-
2010	190,179	-	28,018	-	670	-	71,250	-	42,584	-	48,327	-
2011	235,808	0.55	45,780	0.47	1,288	1.06	59,286	0.53	50,672	1.19	80,070	0.46
2012	251,828	0.49	52,437	0.62	979	0.89	52,864	0.40	37,361	0.68	109,166	0.62
2013	295,836	0.72	40,144	0.62	1,563	1.12	84,422	0.71	36,814	0.68	134,456	0.76
2014	352,998	0.91	59,541	1.06	1,729	1.27	90,416	0.83	34,299	0.72	168,742	0.97
2015	464,046	1.02	74,709	1.10	2,569	1.36	97,124	0.80	43,740	0.89	248,473	1.15
2016	531,214	1.13	96,447	1.41	4,384	2.37	111,123	0.90	46,307	0.89	277,337	1.23
2017	538,701	1.01	107,893	1.17	1,822	1.12	87,860	0.76	49,198	0.81	293,750	1.11
2018	575,701	1.07	111,662	1.18	2,370	1.36	105,712	0.85	51,018	0.80	307,308	1.21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3) 보건복지부는 본부 구매실적에 한함(소속 및 산하기관 제외)

4)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및 지자체 관할 지방공기업 실적 포함

5) 국가기관 실적에 보건복지부 실적인 포함된 관제로 합계에는 보건복지부 구매실적이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해마다 모든 기관에서 구매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의무구매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3조)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 - 연도별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	장애인복지단체
2009	153	22	108	23
2010	196	28	130	38
2011	260	34	178	48
2012	352	48	213	91
2013	379	49	227	103
2014	402	53	246	103
2015	417	54	253	110
2016	492	55	304	133
2017	544	56	339	149
2018	580	57	381	142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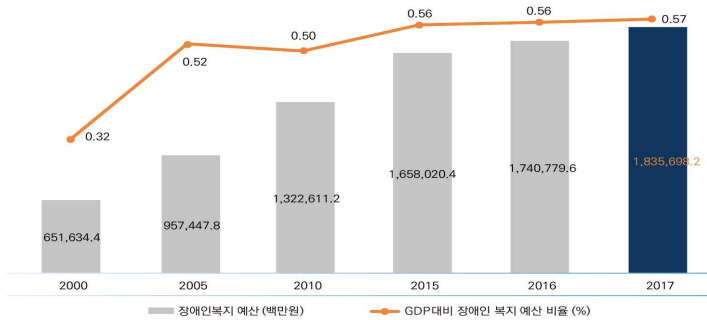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02	100.0	417	100.0	492	100.0	544	100.0	580	100.0
서울	78	19.4	80	19.2	93	18.9	99	18.2	102	17.6
부산	19	4.7	21	5.0	26	5.3	26	4.8	30	5.2
대구	13	3.2	14	3.4	20	4.1	23	4.2	29	5.0
인천	21	5.2	20	4.8	21	4.3	25	4.6	29	5.0
광주	14	3.5	15	3.6	18	3.7	19	3.5	22	3.8
대전	10	2.5	10	2.4	10	2.0	10	1.8	13	2.2
울산	8	2.0	8	1.9	10	2.0	12	2.2	12	2.1
경기	114	28.4	119	28.5	135	27.4	147	27.0	142	24.5
강원	18	4.5	18	4.3	20	4.1	22	4.0	25	4.3
충북	15	3.7	16	3.8	21	4.2	22	4.0	22	3.8
충남	17	4.2	17	4.1	18	3.7	19	3.5	22	3.8
전북	16	4.0	16	3.8	20	4.1	25	4.6	26	4.5
전남	9	2.2	12	2.9	14	2.8	13	2.4	17	2.9
경북	19	4.7	19	4.6	20	4.1	27	5.0	31	5.3
경남	20	5.0	19	4.6	30	6.1	37	6.8	39	6.7
제주	8	2.0	8	1.9	9	1.8	10	1.8	10	1.7
세종	3	0.7	5	1.2	7	1.4	8	1.5	9	1.6

주: 각연도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8년 580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유형별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이 381개소로 가장 많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역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4.5%(142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지역이 17.7%(102개소)로 두 번째로 높음

## 7. 재정

[그림 2-7-1]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835,698.2백만원으로 GDP대비 0.57%임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2000년 0.32%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0.52% 차지하였음. 다시 2010년에는 0.50%로 감소하여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0.56%, 2017년에는 0.57%로 소폭 증가함
-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2,724,292백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6.04%로 나타남
  -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3.76%로 2018년 3.42%에서 0.34%p 증가함
  -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6.04%로 2018년 5.81%에서 0.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 재정

## (1) 장애인 복지 예산

〈표 7-1-1〉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단위: 십억, 백만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GDP	651,634.4	957,447.8	1,322,611.2	1,658,020.4	1,740,779.6	1,835,698.2
장애인 복지 예산	2,095,087.2	4,942,264.4	6,633,875.3	9,206,109.2	9,750,760.6	10,407,873.4
비율	0.32	0.52	0.50	0.56	0.56	0.57

주: 장애인복지예산은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s)만을 합한 것으로,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2017), 「SOCX Statistics」(2019년 12월 검색)

-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0,407,873.4백만원으로 GDP대비 0.57%임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2000년 0.32%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0.52% 차지하였음. 다시 2010년에는 0.50%로 감소하여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0.56%, 2017년에는 0.57%로 소폭 증가함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단위: 억원,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지출액(A)	335,694	366,928	410,673	468,995	534,725	558,436	576,628	631,554	725,148
총계(B)	206,922	221,815	254,056	294,705	332,300	331,784	339,450	376,546	450,879
예산	일반회계	204,952	219,745	251,761	292,416	327,236	326,938	334,589	371,598
보건복지부 소관	특별회계	1,970	2,070	2,295	2,289	5,064	4,861	4,948	5,517
총 지출규모	총계	128,772	145,113	156,617	174,290	202,425	226,652	237,178	255,008
기금	건강증진기금	17,960	18,718	19,007	20,030	27,357	31,834	33,001	33,926
	국민연금기금	109,102	124,405	135,534	152,187	172,775	192,507	201,977	218,788
	응급의료기금	1,710	1,990	2,076	2,073	2,293	2,311	2,294	2,323
장애인 복지 예산	총계(C)	806,974	903,957	1,057,306	1,244,820	1,845,876	1,876,213	1,969,345	2,188,669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789,810	886,623	1,038,572	1,225,528	1,825,234	1,866,284	1,949,184	2,167,865
	장애인재활지원	17,164	17,334	18,734	19,292	20,642	19,929	20,161	20,794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2.40	2.46	2.57	2.65	3.45	3.44	3.42	3.47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3.90	4.08	4.16	4.22	5.55	5.65	5.80	6.04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복지예산은 예산을 기반으로 책정됨  
 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의 단위는 '억원'이며, 장애인복지예산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대한민국 국회(각년도), 「예산」

- 2019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2,724,292백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6.04%로 나타남
-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3.76%로 2018년 3.42%에서 0.34%p 증가함
- 2019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6.04%로 2018년 5.81%에서 0.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예산액	694,582	814,074	937,649	1,026,274	1,271,434	1,881,636	1,909,078	2,067,026	2,221,333	2,794,044	
증가액	-	119,492	123,575	88,625	245,160	610,202	27,442	101,869	154,307	572,711	16.7%
증가율	-	17.2	15.2	9.5	23.9	48.0	4.4	5.2	7.5	25.8	

주: 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2) 연평균증가율(%) = (2019년 예산/2010년 예산)<sup>1/9</sup>-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안)은 2,794,04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8% 증가함
- 최근 10년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임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증감액	증감율
합계	2,221,333	2,794,044	572,711	25.8
(일반회계) 계	2,211,917	2,785,919	574,002	26.0
장애인의료비	23,072	43,524	20,452	88.6
장애수당(기초)	74,985	75,490	505	0.7
장애수당(차상위 등)	54,779	54,253	△526	△1.0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26,902	32,422	5,520	20.5
장애인연금	600,877	719,735	118,858	19.8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242	4,204	962	29.7
장애인지원관리	1,379	889	△490	△35.5
장애인자립자금이자 및 손실보전금지원	208	156	△52	△25.0
장애인활동지원	690,674	1,014,902	324,228	46.9
장애아동가족지원	88,072	100,952	12,880	14.6
여성장애인지원	2,842	2,759	△83	△2.9
발달장애인지원	8,572	42,720	34,148	398.4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23,721	38,960	15,239	64.2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70,933	480,881	9,948	2.1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7,277	8,057	780	10.7
장애인단체지원	7,111	7,111	-	-
장애인일자리지원	95,745	120,787	25,042	26.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387	6,286	899	16.7
장애인전문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590	609	19	3.2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3,177	5,165	1,988	62.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1,855	1,840	△15	△0.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939	16,669	△2,270	△12.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89	89	-	-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97	114	17	17.5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942	2,945	2,003	212.6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	4,400	4,400	100.0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450	-	△450	△100.0
(증진기금) 계	9,416	8,125	△1,291	△13.7
재활병원건립	8,000	4,006	△3,994	△49.9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616	619	3	0.5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800	3500	2,700	337.5

주: 증감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은 2,794,04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72,711백만원(25.8%) 증가함
- 2018년 대비 2019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0개의 항목 중 8개의 항목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 세부항목 중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이 1,014,902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장애인연금 719,735백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480,881백만 원 순임
- 증감률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지원이 398.4%로 가장 높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 337.5%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212.6%,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100.0% 순임. 반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예산은 △100.0%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장애인지원관리 △35.5%, 장애인자립자금이자 및 손실보전금지원 △25.0% 순으로 나타남



## (3)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표 7-1-5〉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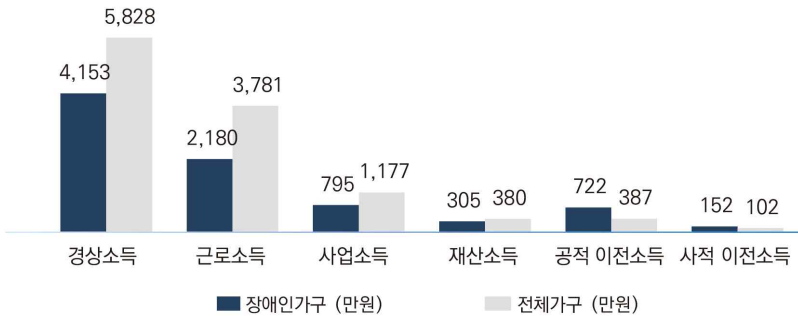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서울/지방)	2016년		2017년		2018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계	—	1,898,161	992,133	1,909,383	1,011,824	2,176,102	1,152,483
장애인의료비지원	50/80	35,774	10,789	27,275	9,576	22,772	7,575
장애수당(기초)	50/70	77,582	38,278	78,102	38,752	76,566	38,126
장애수당(차상위 등)	50/70	55,059	27,046	54,609	26,606	56,511	27,432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30/50	503	554	453	492	453	492
장애인연금	50/70	558,457	274,738	559,587	275,316	612,897	301,748
장애인보조기구지원	(보조기구교부사업) 50/80 (사례관리사업) 50/50	2,375	1,462	2,399	1,486	2,324	1,47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50/70	5,279	7,138	3,717	5,576	3,803	5,704
여성장애인지원사업	(교육지원) 80/80 (출산지원) 50/70	2,720	1,317	2,818	1,373	2,842	1,384
발달장애인 지원	(공공후견) 50/70 (부모심리상담) 50/8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0/50 (발달장애인 가족후식) 50/70	9,446	5,225	6,866	5,234	6,540	5,170
장애인활동지원	50/70	522,070	265,189	531,276	278,429	704,317	364,997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50/70 (양육지원) 30/70	78,732	39,309	73,772	36,996	87,965	42,50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거주시설) 50/50 (의료재활시설) 30/30 (생산물판매시설) 40/40 (직업재활시설) 50/50	34,479	35,775	29,367	29,367	23,025	24,00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50/70	436,988	208,948	454,874	217,330	470,680	225,099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일자리) 30/50 (복지일자리) 30/50 (시각장애인안마사) 80/80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50	70,012	68,194	80,652	82,137	95,066	96,89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50/50					925	925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기금)	80/80	685	171	616	154	616	154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건립(기금)	50/50					800	800
재활병원 건립(기금)	50/50	8,000	8,000	3,000	3,000	8,000	8,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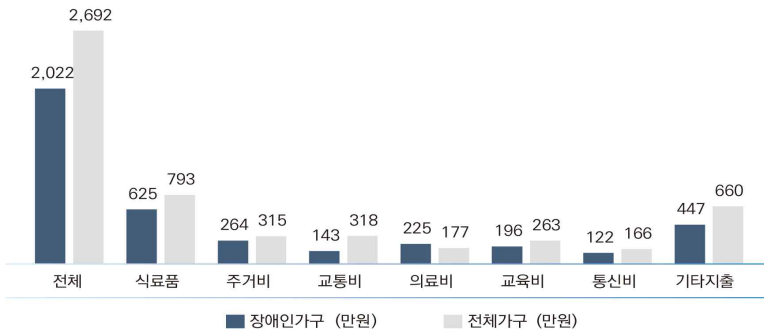
- 2018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액은 국고 2,176,102백만원, 지방비 1,152,48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66,719백만원, 140,659백만원 증가함
- 서울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의 국고보조율이 80%로 가장 높음
  - 지방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의 국고보조율이 80%로 가장 높음

## 8. 소득과 소비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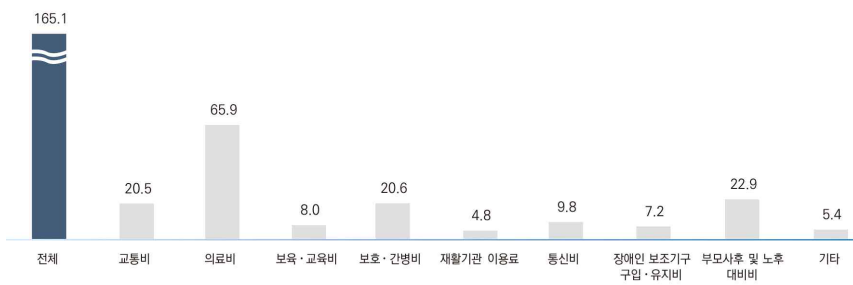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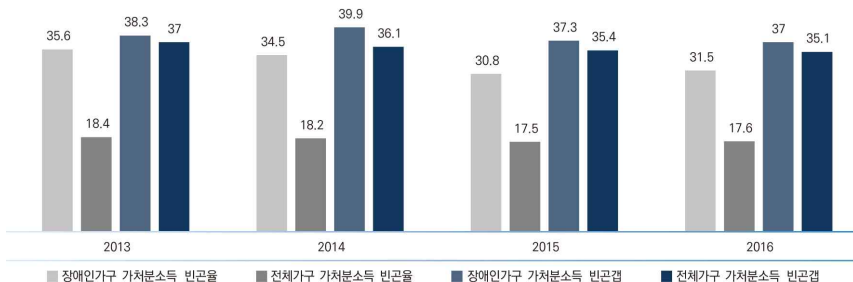
- 2019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가구 5,828만원의 71.3%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2.5%, 공적이전 소득은 17.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4.9%, 6.6%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 2019년 연간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2,2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는 2,692만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7.1%로 전체가구 약 11.8%에 비하여 약 4.7%p 적으며,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 약 11.1% 전체가구 약 6.6%로 약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



[그림 2-8-4] 연도별 빈곤율 및 빈곤갭 -전체가구 비교



- 2017년 기준으로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165,1천원으로 나타남
  - 추가비용의 주요 항목을 보면, 의료비가 65,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22,9천원, 보호 간병비 20,6천원, 교통비 20,5천원의 순임
-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012년 36,3%에서 2016년 31,5%로 약4,8%p 감소하였고, 전체 가구는 2012년 18,3%에서 2016년 17,6%로 약0,7%p 감소함
  - 2016년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1,5%로 전체가구의 17,6%에 비하여 약 1,8배 높으며, 빈곤갭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 소득

### (1) 월평균 가구소득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 가구
	총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00	108.2	-	-	-	-	-	-	-	-	-	-	-	-	-	-	-	-
2005	157.2	-	-	-	-	-	-	-	-	-	-	-	-	-	-	-	283.7
2011	198.2	204.4	179.4	198.2	185.6	227.1	215.8	297.7	148.1	230.2	181.1	208.2	243.7	108.0	128.4	148.0	371.3
2014	223.5	218.6	233.1	235.2	213.8	267.7	277.2	349.9	152.1	258.8	246.3	181.3	219.4	251.8	178.9	106.5	415.2
2017	242.1	243.2	227.7	239.9	209.2	310.9	294.0	435.6	180.4	251.4	283.4	239.3	376.3	428.3	209.4	304.5	423.1

주: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며,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6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00년 108.2만원에서 2017년 242.1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임

-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7년 6월 기준 423.1만원)의 약52.2% 수준으로, 2014년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6월 기준 415.2만원)의 53.8%에 비해 감소한 금액임(가계 동향 조사 기준)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자폐성장애가 435.6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안면장애 428.3만원, 간장애 376.3만원의 순임.
- 2017년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80.4만원, 청각장애 209.2만원, 장루요루 장애 209.4 만원 순임.



##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012	2,708	1,407	610	156	406	128	4,233	2,645	1,135	189	180	84
2013	2,864	1,511	683	141	415	114	4,479	2,889	1,125	204	187	74
2014	3,113	1,632	785	153	434	109	4,658	3,025	1,159	190	211	73
2015	3,423	1,832	853	148	497	94	4,770	3,130	1,142	191	240	67
2016	3,513	1,778	894	185	554	102	4,883	3,199	1,122	220	274	67
2017	4,093	2,170	894	305	609	114	5,478	3,499	1,217	353	328	81
2018	4,150	2,209	834	326	659	123	5,705	3,640	1,243	380	351	91
2019	4,153	2,180	795	305	722	152	5,828	3,781	1,177	380	387	102

주: 1)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3)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5)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6)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화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7)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8)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9)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연간)을 살펴보면, 2017년 4,093만원에서 2019년 4,153만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전체가구 역시 2017년 5,478만원에서 2019년 5,82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19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전체가구의 71.3%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2.5%, 공적이전 소득은 17.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4.9%, 6.64%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 (3)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2012	100.0	30.6	36.5	17.6	8.1	5.0	2.3	100.0	14.2	29.9	25.1	14.4	9.8	6.5
2013	100.0	27.5	37.9	17.8	8.2	6.1	2.6	100.0	12.9	27.9	25.2	15.9	10.8	7.3
2014	100.0	27.8	33.7	19.8	9.1	6.1	3.5	100.0	12.8	25.5	25.6	15.9	12.0	8.1
2015	100.0	22.9	34.1	19.9	10.4	7.9	4.8	100.0	12.2	25.6	25.0	15.9	12.5	8.8
2016	100.0	22.5	34.8	18.9	10.9	8.1	4.9	100.0	12.0	24.7	24.3	16.4	13.2	9.3
2017	100.0	17.3	34.9	19.5	11.4	9.0	7.9	100.0	10.0	25.1	22.0	16.2	14.0	12.7
2018	100.0	16.5	35.3	19.1	12.2	8.9	8.0	100.0	9.3	24.5	22.0	15.9	14.4	13.9
2019	100.0	15.6	36.4	19.3	11.4	9.6	7.9	100.0	8.6	24.5	21.4	16.4	14.3	14.8

주: 1)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연간 기준임

3)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소득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과반수 이상인 52.0%가 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33.1% 수준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는 2019년 장애인 가구의 36.4%가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 구간엔 15.6%의 분포를 보여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 2) 소비

## (1) 월평균 가구지출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전체 가구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00	98.9	-	-	-	-	-	-	-	-	-	-	-	-	-	-	-	-
2005	134.5	-	-	-	-	-	-	-	-	-	-	-	-	-	-	-	227.6
2011	161.8	165.0	156.7	156.2	149.4	200.1	177.8	244.3	121.9	189.0	137.8	171.4	253.3	100.8	118.3	125.2	300.4
2014	170.6	165.9	182.1	166.7	164.9	199.3	215.1	310.9	122.0	207.2	198.5	148.0	209.5	212.3	154.2	102.0	324.9
2017	190.8	188.4	192.8	158.2	163.6	223.5	232.0	349.7	150.5	217.2	232.9	202.7	295.7	296.1	183.4	238.0	361.7

주: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며, 2005년, 2011년, 2014년 6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지출은 2011년 161.8만원에서 2014년 170.6만원, 2017년 190.8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임
  -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17년 6월 기준 361.7만원)의 52.8% 수준으로, 2014년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14년 6월 기준 324.9만원)의 52.5%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금액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자폐성장애가 349.7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안면장애 296.1만원, 간 장애 295.7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지출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50.5만원, 시각장애 158.2만원임

## (2) 비목별 소비지출액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2012	1,664	505	244	179	158	171	111	296	2,302	638	292	349	132	267	161	463
2013	1,702	461	261	176	177	192	124	311	2,303	624	302	340	138	269	173	456
2014	1,722	483	254	178	186	189	128	303	2,306	633	303	335	148	268	175	445
2015	1,821	532	264	166	199	203	136	322	2,327	661	303	321	151	266	176	449
2016	1,753	529	264	139	195	183	133	309	2,339	671	306	313	153	257	174	465
2017	1,858	559	257	150	217	187	132	356	2,473	709	304	317	162	260	172	550
2018	1,969	605	266	161	220	187	132	397	2,601	757	318	317	167	265	170	607
2019	2,022	625	264	143	225	196	122	447	2,692	793	315	318	177	263	166	660

주: 1)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3)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료 서비스 등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7)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8)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9) 연간 기준으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의미함  
 10) 2018년부터 소득 및 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전체 소비 지출액은 2017년 1,858만원에서 2019년 2,022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 역시 2017년 2,473만원에서 2019년 2,69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임
  - 2019년 장애인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75.1% 수준임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7.1%로 전체가구 약 11.8%에 비하여 약 4.7%p 적으며,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 약 11.1% 전체가구 약 6.6%로 약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2012	378	71	124	23	44	116	757	186	239	75	77	181
2013	459	81	137	44	52	146	828	193	259	99	85	192
2014	480	103	149	40	53	135	839	206	274	91	85	183
2015	511	111	172	43	60	124	843	213	283	88	89	170
2016	509	104	168	32	63	142	860	215	294	89	86	177
2017	577	153	191	63	48	123	958	307	307	104	70	171
2018	614	167	197	77	46	127	1,034	343	322	125	66	179
2019	626	172	196	92	49	117	1,098	354	338	151	62	194

주: 1) 비 소비지출: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  
 2)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3)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5)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6)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7)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8) 연간 기준으로 평균 비소비지출액을 의미함  
 9)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은 주요 지출(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 소비지출 등) 외의 지출로서 2017년 577만원에서 2019년 626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 또한 2017년 958만원에서 2019년 1,098만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2019년 장애인가구 전체 비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57.0% 수준임

## ※ 비 소비지출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 (4) 최소 생활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11년	154.0	157.5	152.2	149.4	139.6	159.2	168.4	270.3
2014년	164.9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전체 평균	187.9	185.6	196.9	177.4	165.5	183.2	219.4	341.7
50만원	1.6	1.4	0.9	1.5	3.2	—	1.8	—
50~99만원	18.7	19.2	18.2	19.6	23.8	30.6	10.8	3.8
100~149만원	18.8	19.1	18.7	20.5	21.8	6.1	12.9	2.7
150~199만원	15.7	15.6	13.4	17.1	15.2	20.9	16.6	4.3
200~249만원	16.8	17.2	16.5	15.5	14.3	12.8	21.7	13.8
250~299만원	7.6	7.4	9.1	8.0	6.1	11.4	7.6	4.2
300~349만원	9.5	9.7	9.7	8.1	8.2	7.0	12.8	22.3
350~399만원	3.7	3.6	3.4	3.4	2.4	4.5	5.5	9.3
400~499만원	4.8	4.3	7.8	5.0	3.2	4.4	4.2	26.2
500만원	2.8	2.7	2.5	1.3	2.0	2.2	6.1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월간 기준임

2)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는 2017년 187.9만원으로 2014년 월평균 164.9만원 대비 23.0만원이 증가함  
 • 생활비 범주별로는 2017년 100~149만원 범주가 1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99만원 18.7%, 200~249만원이 16.8%의 순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계속)

(단위: %, 만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년	119.1	169.0	145.7	147.6	237.5	99.8	134.9	139.3
2014년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전체 평균	157.0	204.8	231.3	191.6	264.3	241.1	196.8	181.8
50만원	4.1	0.3	—	—	—	—	1.0	—
50~99만원	22.9	12.7	11.5	5.6	4.1	23.0	13.6	22.8
100~149만원	21.8	17.6	24.3	29.7	10.4	12.5	20.9	8.4
150~199만원	18.5	18.2	16.1	21.3	9.0	—	13.2	29.8
200~249만원	16.1	14.4	15.1	18.9	17.5	32.1	18.6	13.6
250~299만원	4.4	12.7	2.1	5.5	12.5	13.1	15.5	13.3
300~349만원	5.4	10.6	—	8.4	25.4	—	6.6	4.1
350~399만원	3.1	7.0	5.4	4.0	3.5	—	1.2	—
400~499만원	2.1	4.7	19.2	1.6	12.3	13.4	5.7	3.9
500만원	1.6	1.9	6.3	5.1	5.3	5.8	3.7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월간 기준임

2)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월 평균 생활비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341.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 장애 264.3만원, 안면장애 241.1만원, 심장 장애 231.3만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157.0만원, 청각장애 165.5만원, 시각장애 177.4만원임

## (5)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05년	155.4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2011년	160.7	141.5	274.2	84.2	119.6	126.4	188.4	503.2
2014년	164.2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65.1	121.5	342.2	87.0	83.1	146.9	287.0	608.4
2017년								
교통비	20.5	21.3	29.9	7.8	5.1	19.3	31.3	85.4
의료비	65.9	51.3	167.6	16.3	11.1	28.3	71.7	27.7
보육·교육비	8.0	0.2	5.1	0.4	1.1	45.8	44.7	368.4
보호·간병비	20.6	13.7	88.4	5.6	4.4	0.0	14.2	19.7
재활기관 이용료	4.8	1.0	7.9	0.6	0.7	0.3	34.1	59.0
통신비	9.8	2.3	3.2	29.0	24.9	21.3	9.8	6.8
보조기구 구입·유지비장애인	7.2	3.6	7.3	3.0	22.3	0.4	1.6	0.4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22.9	23.0	16.8	23.0	13.1	31.5	67.8	41.0
기타	5.4	5.0	16.0	1.3	0.2	0.0	11.7	0.0

주: 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총 추가비용은 2017년 165.1천원으로 2014년 164.2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추가비용의 주요 항목을 보면, 2017년 기준 의료비가 65.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22.9천원, 보호 간병비 20.6천원, 교통비 20.5천원의 순임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계속)

(단위: 천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류·요류	뇌전증
2005년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2011년	73.8	241.6	172.3	255.0	597.0	122.4	263.8	167.8
2014년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월 평균 총 추가비용	85.9	293.6	112.4	176.4	462.2	329.2	234.7	118.9
2017년	교통비	12.2	47.0	21.2	43.8	25.3	17.0	20.5
	의료비	47.5	199.1	83.7	71.5	415.5	122.2	65.9
	보육·교육비	0.0	0.0	0.0	0.0	0.0	0.0	8.0
	보호·간병비	0.2	14.6	0.0	21.2	7.7	0.0	20.6
	재활기관 이용료	8.3	0.2	0.0	0.0	0.0	2.4	4.8
	통신비	2.4	3.4	2.9	3.4	0.4	3.7	9.8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0.0	8.8	4.5	19.9	0.3	5.3	82.3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11.4	17.5	0.0	14.1	7.6	180.9	0.0
	기타	3.9	3.1	0.2	2.6	5.4	0.0	5.4

주: 월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608.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다음은 간장애 462.2천원, 뇌병변장애 342.2천원, 안면장애 329.2천원의 순임
- 반면에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이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청각장애 83.1천원, 정신장애 85.9천원, 시각장애 87.0천원임

### 3) 빈곤

#### (1)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시장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갭	시장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율	가처분소득 빈곤갭
2012	44.4	36.3	37.0	19.0	18.3	37.2
2013	43.2	35.6	38.3	19.1	18.4	37.0
2014	41.5	34.5	39.9	19.6	18.2	36.1
2015	39.0	30.8	37.3	19.5	17.5	35.4
2016	41.2	31.5	37.0	19.8	17.6	35.1
2017				19.7	17.3	35.5
2018				19.9	16.7	34.2

주: 1)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3)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4)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 소비지출

5)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빈곤율 및 빈곤갭은 전년 기준 자료임

6) 가구특성별 빈곤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에만 수록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분배지표

-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012년 36.3%에서 2016년 31.5%로 약4.8%p 감소하였고, 전체 가구는 2012년 18.3%에서 2016년 17.6%로 약0.7%p 감소함
  - 2016년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1.5%로 전체가구의 17.6%에 비하여 약 1.8배 높으며, 빈곤갭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는 2012년 8.1%p, 2016년 9.7%p로 전체가구의 2012년 0.7%p, 2016년 2.2%p에 비해 정부정책에 의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갭 :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 (2)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단위: 만원, 배)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분위별 소득					전체	분위별 소득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012	2,708	766	1,947	3,348	4,955	9,050	4,233	761	1,991	3,344	5,040	10,029
2013	2,864	817	2,134	3,557	5,312	9,443	4,479	814	2,179	3,589	5,389	10,420
2014	3,113	818	2,226	3,758	5,613	10,513	4,658	827	2,299	3,794	5,635	10,735
2015	3,456	867	2,319	3,872	5,747	10,257	4,767	862	2,354	3,895	5,791	10,930
2016	3,513	904	2,327	3,900	5,896	10,901	4,883	890	2,409	3,989	5,953	11,171
2017	4,093	1,013	2,533	4,303	6,537	12,407	5,478	1,001	2,556	4,323	6,590	12,921
2018	4,150	1,069	2,630	4,425	6,771	12,762	5,705	1,057	2,657	4,464	6,825	13,520
2019	4,153	1,097	2,650	4,525	7,021	13,104	5,828	1,104	2,725	4,577	6,977	13,754

주: 1) 경상소득 기준임

2)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3)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4)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5)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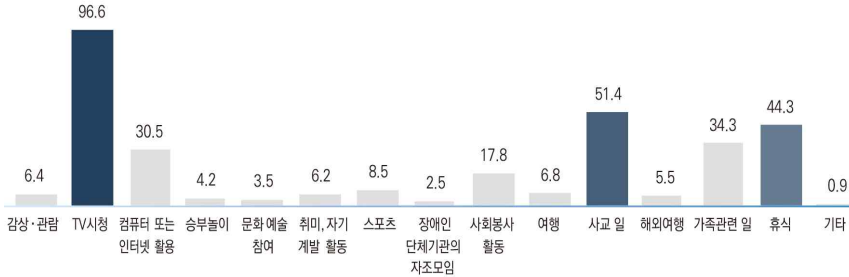
- 장애인가구의 2019년 1분위소득(연간)은 1,097만원으로 2017년 1,013만원에 비해 78만원 증가함. 5분위소득은 2019년 13,104만원으로 2017년 12,407만원에 비해 697만원 증가함
  - 전체가구의 2019년 1분위소득은 1,104만원으로 2017년 1,001만원에 비해 103만원 증가함
-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을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5분위소득간의 격차가 다른 분위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5분위 평균 소득은 13,104만원으로 전체가구 13,754만원에 비해 65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5분위 배율(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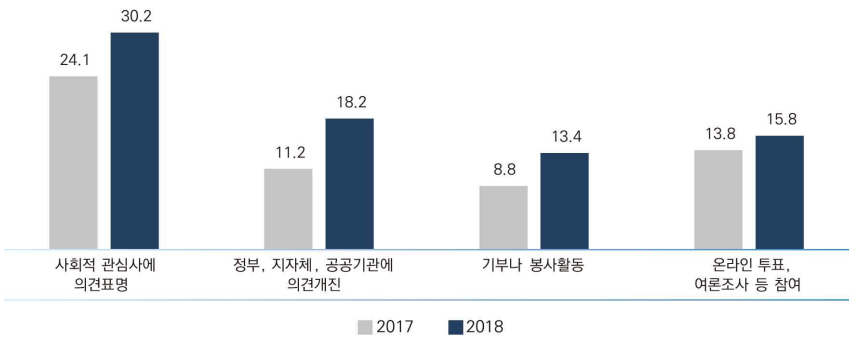
- 소득 5분위 평균소득/소득 1분위 평균소득
-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함

## 9. 문화 및 사회참여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TV 시청이 96.6%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 일 51.4%, 휴식 44.3%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전년도에 비해 전 영역에서 증가함



## 1) 문화 및 여가활동

## (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감상·관람 (연극, 영화 등)	6.4	5.3	3.9	9.5	5.0	9	11.7	7.5	9.9	9.1	5.4	0.0	14	19.2	9.9	7.4
TV시청 (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6	98.4	90.1	95.3	98.1	97.1	96	86.3	92.6	97.7	97.9	98.8	98.3	100.0	100.0	91.6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30.5	32.1	19.5	32.9	22.6	35	37.5	47.8	26.4	36.4	38.1	33.7	67.2	56.4	37	47.3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4.2	4.8	2.7	3.6	5.6	5.1	3.5	0.0	2.6	4.3	2.1	0.0	4.8	0.0	0.0	10.4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3.5	3.1	2.2	3.3	3.8	0.0	4.9	4.0	6.6	5.2	5.4	0.4	5.1	14.7	7.9	2.3
취미, 자기 계발 활동	6.2	5.6	5.2	7.8	7.8	6.4	5.8	2.9	6.8	5.7	14.0	6.5	13.0	17.2	3.2	16.0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8.5	8.6	3.9	9.9	8.2	5.1	13.6	32.7	4.4	7.5	11.6	4.4	8.2	0.0	4.5	13.7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2.5	1.5	3.5	3.1	2.0	0.7	4.3	13.2	6.5	1.0	0.0	2.4	8.0	0.0	1.2	0.4
사회(자원)봉사 활동	17.8	17.7	14.1	18.6	20.4	17.1	18.1	18.9	21.6	14.8	14.2	13.8	26.5	36.8	17.3	32.6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6.8	7.5	3.0	8.7	7.3	15.0	3.8	22.6	3.2	3.2	6.4	2.4	14.5	12.0	15.8	6.3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51.4	59.5	29.8	56.5	58.9	40.7	34.9	18.2	27.7	45.0	54.5	32.1	55.3	54.2	51.9	43.7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5.5	7.0	2.7	7.1	3.3	3.4	3.7	3.8	0.9	2.8	12.7	2.1	14.5	0.0	10.1	7.2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34.3	37.8	21.4	33.0	34.9	37.4	34.4	59.2	18.2	37.2	27.6	39.9	44.2	40.0	32.7	31.5
휴식(사우나 등)	44.3	47.3	36.6	47.1	42.9	31.4	39.9	41.5	35.9	46.6	47.6	40.2	54.3	47.2	45.2	29.2
기타	0.9	1.0	0.9	1.2	0.9	0.5	0.8	1.4	0.2	0.1	10.8	0.0	0.0	1.6	0.0	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57.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TV 시청이 96.6%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 일 51.4%, 휴식 44.3% 순으로 나타남
- 기타를 제외하고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이 2.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감상·관람 (연극, 영화 등)	6.4	6.9	5.9	9.5	19.1	6.8	2.2	7.3	6.2	6.6
TV시청 (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6	96.6	96.5	88.7	96.1	97.1	96.8	93.7	98.4	96.6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30.5	38.9	19.4	49.5	69.0	42.9	8.2	29.8	31.5	30.9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4.2	6.5	1.3	3.3	5.9	4.9	3.3	3.3	4.7	4.2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3.5	3.2	3.9	13.9	7.0	3.1	2.1	4.1	3.2	3.6
취미, 자기 계발 활동	6.2	5.2	7.4	14.4	10.6	6.6	3.9	6.0	6.2	6.1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8.5	10.3	6.2	25.7	16.1	7.2	6.1	7.6	9.1	8.5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2.5	2.8	2.0	5.4	5.3	2.2	1.7	4.5	1.2	2.5
사회(자원봉사) 활동	17.8	14.4	22.5	14.7	19.0	16.5	18.8	17.0	18.4	17.8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6.8	9.1	3.6	12.4	19.0	16.5	18.8	17.0	18.4	17.8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51.4	52.7	49.6	37.4	48.8	54.0	51.1	38.5	59.7	51.5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5.5	6.0	4.8	3.9	9.2	7.1	3.3	4.0	6.6	5.6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34.3	35.7	32.4	51.2	43.9	37.1	28.0	28.6	38.5	34.7
휴식(사우나 등)	44.3	46.6	41.3	52.1	47.2	45.4	42.1	40.3	47.7	44.8
기타	0.9	0.7	1.2	1.0	0.6	0.7	1.2	1.0	0.8	0.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18.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TV시청이 96.6%로 가장 높음
- TV시청을 제외하고 남성(52.7%)과 여성(49.6%) 모두 사교 일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TV시청을 제외하고 17세 이하의 휴식 52.1%, 18세~44세 이하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69.0%, 45세~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모두 사교 일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 사회참여

### (1) 장애인 투표 여부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11	71.6	80.9	50.5	77.4	82.2	52.9	32.6	8.7	48.4	72.5	70.6	71.2	75.6	58.3	74.1	51.3
2014	74.8	85.1	59.8	78.0	81.4	62.5	32.8	14.9	42.7	75.2	81.3	75.0	93.2	85.0	76.6	64.7
2017	84.1	89.9	64.9	88.3	91.9	88.2	61.3	55.9	66.1	88.3	99.2	81.9	96.0	92.1	82.5	69.1

주: 1) 2011년의 경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7년의 경우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비 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2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1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6.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71.6	73.7	68.8	0.0	54.6	80.1	76.9	47.4	78.9	71.7
2014	74.8	77.1	71.7	-	61.8	79.1	80.6	57.9	86.4	75.3
2017	84.1	86.8	80.6	-	77.0	87.3	83.7	73.0	91.0	84.4

주: 1) 2011년의 경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7년의 경우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비 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0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2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4.

- 2017년 장애인의 선거 참여율은 84.1%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 장애의 선거 참여율이 99.2%로 가장 높으며 간 장애 96.0%, 안면 장애 92.1%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자폐성 장애가 55.9%로 선거 참여율이 가장 낮았음
- 성별로는 남성 투표 참여율은 86.8%로 여성의 투표 참여율 80.6%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5~64세 이하의 투표 참여율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73.0%이고 경증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91.0%로 경증장애인의 투표율이 중증장애인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9-2-3〉 투표 미 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1.0	1.2	0.0	5.1	0.0	6.1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편의시설 부족	1.4	0.9	1.7	0.0	4.1	0.0	1.1	0.0	3.5	0.0	0.0	0.0	0.0	0.0	0.0	0.0
몸이 불편해서 도우미가 없어서	56.7	59.8	81.4	58.3	52.2	52.4	28.8	13.3	34.1	66.3	0.0	73.3	42.7	21.0	59.5	0.0
정보 부족	3.8	1.6	2.3	5.1	8.9	0.0	9.3	18.5	2.2	0.0	0.0	0.0	0.0	0.0	0.0	0.0
시간이 없어서	1.3	0.3	0.3	0.0	0.4	0.0	6.4	4.3	0.0	0.0	0.0	0.0	57.3	0.0	0.0	0.0
본인이 원치 않아서	3.7	7.7	0.4	7.5	1.1	0.0	1.0	0.0	2.8	0.0	0.0	0.0	0.0	0.0	0.0	9.7
주위의 시선 때문에	28.3	27.7	11.3	21.0	32.8	0.0	42.4	47.1	48.3	33.7	100.0	26.7	0.0	79.0	40.5	82.4
기타	1.7	0.0	0.8	1.1	0.0	0.0	6.0	2.3	5.1	0.0	0.0	0.0	0.0	0.0	0.0	7.9
기타	2.2	0.8	1.9	1.9	0.5	41.6	3.9	14.6	3.9	0.0	0.0	0.0	0.0	0.0	0.0	7.5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7.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가 56.7%,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28.3%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전증 장애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의 비율이 82.4%로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는 '몸이 불편해서'가 81.4%로 나타남



〈표 9-2-4〉 투표 미 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1.0	0.6	1.3	—	0.4	0.3	1.6	0.3	2.2	1.0
편의시설 부족	1.4	1.2	1.6	—	0.8	1.5	1.6	1.4	1.5	1.5
몸이 불편해서 도우미가 없어서	56.7	49.1	63.6	—	30.3	43.2	75.7	56.4	55.9	56.2
정보 부족	3.8	3.9	3.7	—	7.2	3.5	2.6	5.7	0.1	3.6
시간이 없어서	1.3	1.5	1.1	—	3.9	1.5	0.1	1.8	0.5	1.3
본인이 원치 않아서	3.7	5.8	1.8	—	3.4	6.9	1.8	0.9	8.9	3.8
주위의 시선 때문에	28.3	32.4	24.6	—	43.6	41.0	14.4	28.3	29.0	28.5
기타	1.7	2.2	1.2	—	5.8	1.5	0.2	2.7	0.2	1.8
기타	2.2	3.3	1.2	—	4.5	0.7	2.1	2.4	1.7	2.2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5.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49.1%, 여성은 몸이 불편해서가 63.6%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44세 이하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43.6%,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43.2%, 75.7%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과 경증 모두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56.4%, 55.9%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2) 장애인 공무원 수

〈표 9-2-5〉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연도별, 직급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08	6,551		1,040			3,983			1,528	
2009	7,553		1,292			4,761			1,500	
2010	7,859		1,360			4,703			1,796	
2011	8,117	282	559	552	2,169	1,123	1,590	235	689	918
2012	8,323	278	492	645	2,223	1,087	1,679	256	694	969
2013	8,488	277	576	575	2,316	1,118	1,813	220	692	901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2017	9,465	288	577	633	2,401	1,130	2,127	251	703	1,355
소계	9,457	288	577	629	2,400	1,129	2,125	251	703	1,355
일반직										
1급	-	-	-	-	-	-	-	-	-	-
2급	3	1	1	1	-	-	-	-	-	-
3급	6	-	2	1	1	-	2	-	-	-
4급	78	1	19	30	14	5	8	-	-	1
5급	531	22	75	102	122	59	47	5	41	58
6급	2,469	69	189	190	700	356	460	70	249	186
7급	3,165	128	206	162	926	410	758	74	186	315
8급	1,734	31	53	62	390	182	516	51	106	343
9급	1,281	25	5	28	192	80	328	50	121	452
시간선택제	2	-	-	-	2	-	-	-	-	-
전문경력관	9	1	1	-	1	4	1	1	-	-
전담직위	5	-	-	-	4	-	1	-	1	1
5급 이상	9	-	4	3	1	1	-	-	-	-
6급 이하	27	1	3	6	7	6	4	-	-	-
일반 임기제	-	-	-	-	-	-	-	-	-	-
연구관	-	-	-	-	-	-	-	-	-	-
연구사	-	-	-	-	-	-	-	-	-	-
지도관	-	-	-	-	-	-	-	-	-	-
지도사	-	-	-	-	-	-	-	-	-	-
연구관	22	2	6	13	1	-	-	-	-	-
연구사	54	6	9	30	9	-	-	-	-	-
지도관	6	-	1	1	3	1	-	-	-	-
지도사	56	1	3	-	27	25	-	-	-	-
특정직										
소계	3	-	-	3	-	-	-	-	-	-
소방직	-	-	-	-	-	-	-	-	-	-
교육직	3	-	-	3	-	-	-	-	-	-
자치경찰	-	-	-	-	-	-	-	-	-	-
별정직										
소계	4	-	-	1	1	1	1	-	-	-
5급 상당 이상	1	-	-	1	-	-	-	-	-	-
6급 상당 이하	3	-	-	-	1	1	1	-	-	-
정무직	1	-	-	-	-	-	1	-	-	-

주: 1) 각년도 12월 31일 기준

2) 디블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음(중증장애인의 경우, 디블카운트 적용 시 10,987명)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8년 6,551명에서 2017년 9,4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7급이 3,165명으로 가장 많음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시도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08	6,551		1,040			3,983			1,528	
2009	7,553		1,292			4,761			1,500	
2010	7,859		1,360			4,703			1,796	
2011	8,117	282	559	552	2,169	1,123	1,590	235	689	918
2012	8,323	278	492	645	2,223	1,087	1,679	256	694	969
2013	8,488	277	576	575	2,316	1,118	1,813	220	692	901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2017	9,465	288	577	633	2,401	1,130	2,127	251	703	1,355
서울	1,873	288	-	-	-	-	1,155	-	-	430
부산	638	-	125	-	-	25	344	4	1	139
대구	406	-	114	-	-	20	172	7	3	90
인천	362	-	105	-	-	17	171	1	9	59
광주	251	-	75	-	-	-	109	-	-	67
대전	218	-	67	-	-	-	120	-	-	31
울산	178	-	59	-	-	21	56	6	6	30
세종	44	-	32	-	-	-	-	4	5	3
경기	1,431	-	-	136	920	56	-	39	55	226
강원	457	-	-	66	172	119	-	23	48	29
충북	373	-	-	52	129	112	-	23	43	14
충남	539	-	-	70	205	119	-	20	98	27
전북	491	-	-	51	198	108	-	11	74	49
전남	647	-	-	64	153	241	-	28	139	22
경북	721	-	-	64	262	169	-	51	117	58
경남	659	-	-	65	298	124	-	21	94	57
제주	177	-	-	65	64	-	-	13	11	24

주: 1) 일반직 기준

2) 각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2017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873명, 경기도 1,431명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시(44명)를 제외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77명으로 가장 적음

### (3) 온라인 사회참여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단위: %)

구분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가구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
연도별	2017	24.1	11.2	8.8	13.8
	2018	30.2	18.2	13.4	15.8
성별	남성	32.1	20.1	14.4	16.6
	여성	26.1	14.1	11.2	14.0
연령별	19세 이하	49.3	18.8	11.6	18.8
	20대	56.1	26.4	17.6	11.8
	30대	38.4	27.7	22.0	22.0
	40대	32.9	21.9	13.8	20.6
	50대	29.3	15.4	12.5	13.9
	60대이상	24.4	15.7	11.5	13.5
학력별	초졸이하	24.7	16.0	14.2	17.1
	중졸	23.1	13.6	11.0	11.6
	고졸	30.1	17.8	12.5	15.6
	대졸이상	52.0	32.2	21.7	24.1
직업별	농/임/어업	17.0	10.9	7.9	10.9
	서비스/판매직	26.5	20.2	12.6	15.5
	생산관련직	35.2	21.4	13.8	16.3
	전문관리/사무직	59.8	31.5	16.7	22.8
	주부	25.4	15.4	12.2	15.2
	학생	57.4	22.0	13.4	21.0
	무직/기타	26.5	15.5	13.7	14.8
가구 소득별	100만원미만	24.1	15.8	13.3	14.9
	100~199만원	22.5	14.3	11.5	14.8
	200~299만원	34.1	20.7	13.4	13.4
	300~399만원	37.2	19.2	14.1	20.4
	400만원이상	44.7	26.3	17.4	19.0
	무응답	0.0	0.0	0.0	0.0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30.7	18.3	13.9	16.4
	뇌병변장애	36.6	25.7	17.2	17.4
	시각장애	24.9	11.5	8.0	9.2
	청각/언어장애	25.8	16.8	12.0	17.6

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하는 편+자주함)로 측정함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전/재능) 및 봉사활동, 지역/정치/사회참여 관련 커뮤니티(카페/모임) 활동을 하는 것

자료: 1)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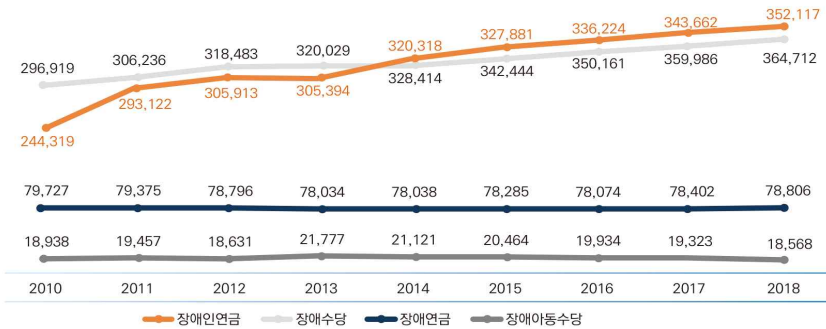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19.

- 2018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전년도에 비해 전 영역에서 증가함
-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참여율이 낮았음
-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20대(28.0)가 가장 높고, 50대(17.8%)와 60대 이상(16.3%)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2.5%)이 가장 높고, 고졸 이상(19%), 초졸이하(18%), 중졸(14.8%)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참여율은 전문 관리/사무직이 가장 높고, 학생, 생산관련직 순이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장애 유형별 참여율은 뇌병변장애가 가장 높고, 시각장애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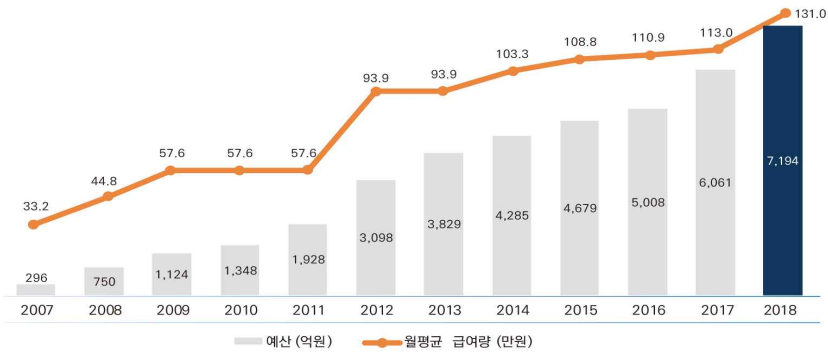


## 10. 사회보장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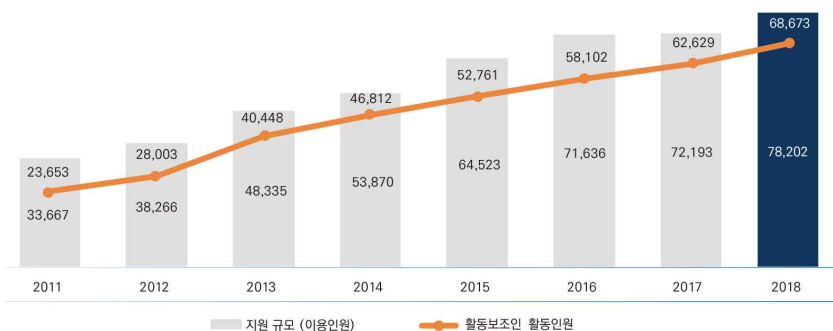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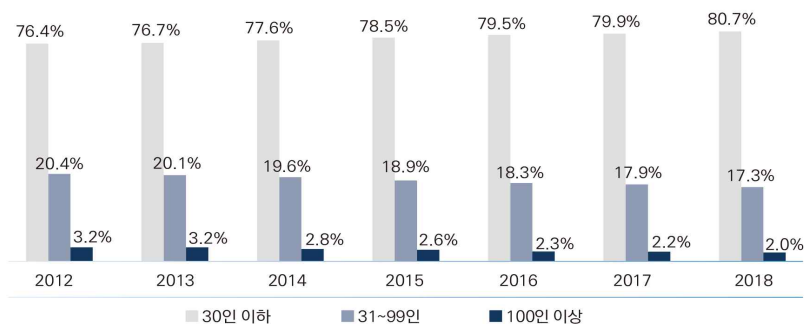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79,727명에서 2018년 78,806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244,319명에서 2018년 364,71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2010년 296,919명에서 2018년 352,117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0년 18,938명에서 2018년 18,568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18년 7,194억원으로,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18년 131.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보조인 활동인원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전체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규모(이용인원)는 2011년 33,667명에서 2018년 78,20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활동보조인의 활동인원은 68,67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의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소규모시설 비율'의 경우, 정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음(2012년 76.4% 대비 2018년 80.7%)

## 1) 사회보험

### (1) 사회보험

#### ① 가입한 연금 종류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2005	20.8	0.8	-	-	0.1	2.1	-
2011	32.9	1.4	0.2	0.4	1.9	3.2	0.1
2014	35.0	2.1	0.4	0.3	1.9	3.8	0.2
2017	37.7	2.1	0.4	0.3	1.5	3.0	-
남	48.6	3.1	0.6	0.3	2.1	3.7	-
여	23.1	0.8	0.2	0.4	0.8	2.2	-
계	37.9	2.1	0.4	0.3	1.5	3.0	-
중증(1-3급)	29.2	1.7	0.4	0.3	1.6	3.1	-
경증(4-6급)	43.0	2.4	0.5	0.4	1.4	3.6	-
지체	43.3	1.8	0.5	0.4	1.1	3.6	-
뇌병변	31.2	1.7	0.4	0.6	2.8	1.6	-
시각	43.1	2.5	0.9	-	2.0	3.7	-
청각	32.7	3.1	-	0.3	2.8	2.3	-
언어	37.8	-	-	-	0.7	4.3	-
지적	21.2	0.2	-	-	-	3.3	-
자폐성	19.7	-	-	-	-	4.4	-
정신	16.5	0.5	0.7	-	0.8	0.7	-
신장	35.1	6.1	-	1.5	0.7	1.9	-
심장	24.8	8.9	-	-	6.5	-	-
호흡기	48.6	6.5	-	-	5.4	-	-
간	40.9	11.8	1.9	-	-	8.3	-
안면	25.6	-	-	-	-	17.2	-
장루·요루	43.9	7.2	-	0.8	0.6	-	-
뇌전증	9.8	3.0	-	-	0.0	2.2	-

주: 1) 중복응답임

2) 전체 계와 장애정도 계의 차이는 추정 수 차이에 의해 발생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343, 49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0, 558.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99, 59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68, 722.

- 연금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37.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3.0% 이하의 낮은 가입률을 보임
-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연금의 가입률이 높으며 경증 또한 중증보다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연금 종류에 따른 장애유형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호흡기, 장루요루, 지체, 시각, 간 장애가 높은 가입률을 보임
-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간 장애만 가입되어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 지체, 뇌병변, 청각, 신장, 장루·요루 장애만 가입되어 있으며 두 연금 모두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보훈연금은 심장장애 6.5%, 호흡기장애 5.4%, 개인연금은 안면장애가 17.2%로 높은 가입률을 보임



## ② 장애연금 지급

〈표 10-1-2〉 장애연금 지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소계		1급		2급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2010	79,727	333,603,890	76,280	296,304,705	11,007	57,972,283	25,145	107,518,566
2011	79,375	347,466,360	75,895	305,547,438	11,229	61,569,109	25,218	112,288,852
2012	78,796	349,116,465	75,934	314,462,857	11,307	64,383,918	25,400	116,872,640
2013	78,034	364,904,555	75,041	326,167,915	11,292	66,879,131	25,302	121,795,089
2014	78,038	366,074,576	75,387	331,603,350	11,357	68,102,787	25,749	124,895,468
2015	78,285	372,089,942	75,688	336,567,621	11,393	69,260,983	26,081	127,855,760
2016	78,074	373,380,465	75,497	337,332,457	11,657	70,885,857	26,820	132,030,529
2017	78,402	391,147,481	75,486	349,016,676	12,099	76,657,680	27,517	140,482,777
2018	78,806	405,867,495	75,734	359,198,132	12,863	83,692,092	27,719	144,285,004
남	64,121	336,472,743	61,734	298,301,318	10,590	70,339,605	22,191	118,318,694
여	14,685	69,394,752	14,000	60,896,814	2,273	13,352,487	5,528	25,966,310
20세 미만	—	—	—	—	—	—	—	—
20-24세	61	267,905	43	138,821	7	38,665	13	45,432
25-29세	285	1,429,022	238	944,943	66	354,568	83	311,275
30-34세	1,095	5,699,549	949	4,074,600	216	1,226,527	363	1,580,752
35-39세	3,147	15,684,873	2,908	12,647,771	598	3,517,791	1,063	4,676,899
40-44세	5,260	27,456,692	4,907	22,648,389	894	5,548,095	1,791	8,982,198
45-49세	9,062	48,023,511	8,537	40,008,588	1,547	9,688,315	3,007	15,449,400
50-54세	12,195	65,758,953	11,592	55,638,284	2,031	13,351,528	4,039	21,750,139
55-59세	18,005	98,807,618	17,122	84,054,763	2,935	19,815,846	5,983	32,823,919
60-64세	12,688	64,198,956	12,434	60,536,459	2,183	14,881,451	4,690	24,804,201
65-69세	7,682	35,301,215	7,678	35,266,319	1,202	7,783,699	3,042	15,240,709
70세 이상	9,326	43,239,202	9,326	43,239,196	1,184	7,485,606	3,645	18,620,081

주: 1)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2)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 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1) 국민연금관리공단(각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2) 국민연금관리공단(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31호, pp. 274-277.

- 전체 장애연금 수급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2018년 수급액은 405,867,495천원으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체 수급자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2018년 78,806명으로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의 수가 64,121명으로 여성 수급자 14,68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 수급자 중 55-59세가 18,005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12,688명, 50-54세가 12,195명 순으로 나타남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계속)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2010	79,727	333,603,890	40,128	130,813,857	3,447	37,299,185
2011	79,375	347,466,360	39,448	131,689,477	3,480	41,918,922
2012	78,796	349,116,465	39,227	133,206,299	2,862	34,653,608
2013	78,034	364,904,555	38,447	137,493,695	2,993	38,736,640
2014	78,038	366,074,576	38,281	138,605,095	2,651	34,471,226
2015	78,285	372,089,942	38,214	139,450,878	2,597	35,522,321
2016	78,074	373,380,465	37,020	134,416,071	2,577	36,048,008
2017	78,402	391,147,481	35,870	131,876,219	2,916	42,130,805
2018	78,806	405,867,495	35,152	131,221,036	3,072	46,669,363
남	64,121	336,472,743	28,953	109,643,019	2,387	38,171,425
여	14,685	69,394,752	6,199	21,578,017	685	8,497,938
20세 미만	-	-	-	-	-	-
20-24세	61	267,905	23	54,724	18	129,084
25-29세	285	1,429,022	89	279,100	47	484,079
30-34세	1,095	5,699,549	370	1,267,321	146	1,624,949
35-39세	3,147	15,684,873	1,247	4,453,080	239	3,037,103
40-44세	5,260	27,456,692	2,222	8,118,096	353	4,808,303
45-49세	9,062	48,023,511	3,983	14,870,873	525	8,014,923
50-54세	12,195	65,758,953	5,522	20,536,617	603	10,120,669
55-59세	18,005	98,807,618	8,204	31,414,999	883	14,752,855
60-64세	12,688	64,198,956	5,561	20,850,807	254	3,663,498
65-69세	7,682	35,301,215	3,434	12,241,910	4	34,896
70세 이상	9,326	43,239,202	4,497	17,133,510	0	6

주: 1)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2)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 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1) 국민연금관리공단(각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2) 국민연금관리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31호, pp. 274-277.

- 전체 장애연금 수급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2018년 수급액은 405,867,495천원으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체 수급자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나, 2018년 78,806명으로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의 수가 64,121명으로 여성 수급자 14,68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 수급자 중 55-59세가 18,005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12,688명, 50-54세가 12,195명 순으로 나타남



## ③ 산재보험 수급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단위: 명, 원)

구분	수급자	금액
2005	55,781	922,185,208,280
2006	61,894	1,067,385,111,250
2007	67,227	1,170,646,840,950
2008	70,580	1,265,916,132,330
2009	74,584	1,291,083,501,960
2010	88,863	1,397,872,234,060
2011	91,906	1,509,244,845,760
2012	95,229	1,712,958,058,080
2013	93,524	1,629,026,710,510
2014	93,689	1,667,219,394,800
2015	93,953	1,710,783,723,310
2016	93,383	1,772,502,714,970
남	83,690	1,665,752,398,270
여	9,693	106,750,316,700
1급	3,386	138,310,795,750
2급	4,008	133,514,771,220
3급	4,376	134,874,802,370
4급	2,661	73,127,830,100
5급	8,477	189,526,447,210
6급	14,969	291,855,565,990
7급	15,497	247,022,250,560
8급	1,224	51,807,810,290
9급	1,549	45,835,007,790
10급	2,992	82,745,656,410
11급	7,590	120,967,923,080
12급	8,239	121,295,140,200
13급	7,554	78,609,561,500
14급	11,938	63,009,149,500
20세미만	153	1,201,761,900
20~29세	2,048	22,654,314,330
30~39세	6,617	94,693,815,250
40~49세	16,482	311,588,296,390
50~59세	30,089	621,301,359,460
60~69세	24,063	475,983,501,360
70~79세	11,937	214,291,384,990
80~89세	1,944	30,028,308,310
90~99세	50	759,972,980

주: 1) 2016년 12월 말 기준

2)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3)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2017),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p.320-321, 328-329.

- 2016년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93,383명이며, 수급액은 1,772,502,714,970원으로 나타났다
- 남성 수급자 수는 83,690명으로 여성 수급자 수 9,693명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장해등급은 7급이 15,497명으로 가장 많고 6급 14,969명, 14급 11,933명 순임
- 산재보험 수급자의 연령은 50~59세가 30,089명으로 가장 많고 60~69세 24,063명, 40~49세 16,482명 순으로 나타났다

## ※※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인,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단, 장해 1~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료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함

#### ④ 건강보험 가입

〈표 10-1-4〉 건강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계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2005	100.0	44.8	40.4	9.7	4.8	0.3
2011	100.0	53.1	29.4	14.4	2.7	0.4
2014	100.0	53.6	30.6	14.3	1.3	0.2
2017	100.0	56.9	28.3	13.1	1.6	0.1
남	100.0	56.3	29.6	12.4	1.7	0.1
여	100.0	57.8	26.5	14.1	1.5	0.1
중증(1-3급)	100.0	48.3	27.3	22.2	2.3	0.0
경증(4-6급)	100.0	62.6	28.6	7.5	1.2	0.1
지체	100.0	61.2	29.4	8.1	1.2	0.0
뇌병변	100.0	49.3	30.5	18.6	1.3	0.2
시각	100.0	60.0	28.9	10.1	1.0	0.0
청각	100.0	64.2	26.9	7.5	1.1	0.2
언어	100.0	48.7	22.0	22.7	6.6	0.0
지적	100.0	44.4	26.2	26.8	2.6	0.0
자폐성	100.0	75.7	20.2	2.9	1.2	0.0
정신	100.0	25.0	19.4	48.5	7.1	0.0
신장	100.0	48.4	29.7	20.6	1.3	0.0
심장	100.0	59.3	21.5	14.7	4.6	0.0
호흡기	100.0	61.1	23.9	14.6	0.4	0.0
간	100.0	56.4	26.8	16.8	0.0	0.0
안면	100.0	63.8	21.3	14.9	0.0	0.0
장루요루	100.0	65.8	20.0	11.2	3.0	0.0
뇌전증	100.0	52.3	16.2	25.4	6.1	0.0

주: 전체 계와 장애정도 계의 차이는 추정 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7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1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24, 517.

- 2017년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85.2%로 2014년에 비해 1.0%p증가함. 반면, 의료급여(1종+2종)의 경우 2017년 14.7%로 2014년에 비해 0.9%p 감소함
- 연금 종류별로는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률이 56.9%로 가장 높고, 지역건강보험 28.3%, 의료급여 1종 13.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의 가입률이 각각 3.1%p, 0.2%p 높고, 직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1종의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1.5%p, 1.7%p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의 가입률은 경증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1종+2종)의 경우 중증의 가입률이 높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은 자폐성장애가 75.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지역건강보험은 뇌병변장애 30.5%, 의료급여 1종은 정신장애 48.5%, 의료급여 2종은 정신장애 7.1%로 각각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임



## 2) 공공부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수(전체 수급자 비교)

(단위: 가구, 명, %, 백만원)

구분	전체수급자						장애인수급자
	총수급자		수급률	급여액			가구 (비율)
	가구	인원		계	국비	지방비	
2004	753,681	1,424,088	2.9	2,366,116	1,797,823	568,293	123,418 (16.38)
2005	809,745	1,513,352	3.1	2,818,411	2,139,727	678,684	136,892 (16.91)
2006	831,692	1,534,950	3.1	3,175,667	2,406,967	768,700	144,747 (17.40)
2007	852,420	1,549,848	3.1	3,437,763	2,599,698	838,065	154,066 (18.07)
2008	854,205	1,529,939	3.1	3,676,117	2,882,107	794,011	162,527 (19.03)
2009	882,925	1,568,533	3.2	3,923,031	3,082,479	840,552	171,330 (19.40)
2010	878,799	1,549,820	3.1	3,997,766	3,160,556	837,210	173,322 (19.72)
2011	850,689	1,469,254	2.9	4,017,270	3,200,277	816,992	173,751 (20.42)
2012	821,879	1,394,042	2.7	3,930,268	3,151,909	778,359	174,112 (21.18)
2013	810,544	1,350,891	2.6	4,088,384	3,275,973	812,411	175,867 (21.70)
2014	814,184	1,328,713	2.6	4,071,549	3,276,898	794,651	178,397 (21.91)
2015	1,014,117	1,646,363	3.2	3,409,522	2,770,603	638,919	191,723 (18.90)
2016	1,035,435	1,630,614	3.2	4,156,506	3,410,734	745,772	193,585 (18.70)
2017	1,032,996	1,581,646	3.1	4,437,654	3,644,287	793,368	197,081 (19.08)

주: 1) 전체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 주민등록인구 수) \* 100

2) 비율 = (장애인 수급자 가구 수 / 총수급자 가구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18),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p.371, 376.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581,646명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총 급여액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약 4조 437억임

• 2017년 장애인수급자구는 197,081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비 비율은 19.08%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함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7	15.0	16.2	14.4	1.4
남	14.1	15.2	13.6	1.5
여	16.2	17.4	15.5	1.3
중증(1-3급)	24.4	26.2	23.6	2.4
경증(4-6급)	9.2	9.9	8.7	0.8
지체	9.6	10.4	9.2	0.8
뇌병변	20.4	21.3	19.5	1.1
시각	11.6	12.3	10.7	1.5
청각	9.2	10.6	8.4	0.8
언어	26.9	29.3	28.8	4.2
지적	30.4	32.1	29.4	5.4
자폐성	6.5	6.5	6.5	2.7
정신	54.7	57.7	53.8	1.9
신장	19.3	24.1	19.3	0.5
심장	17.6	22.9	17.6	-
호흡기	16.9	17.3	16.4	7.2
간	15.1	16.8	15.1	7.6
인면	14.9	16.7	14.9	8.7
장루요루	12.4	14.4	12.4	1.2
뇌전증	34.5	37.3	34.5	2.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461-463, 719-720.

- 2017년의 급여현황은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순이며 교육급여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급여를 제외한 급여현황에서 높으며 장애등급에서는 중증이 경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수급률은 정신장애가 교육급여를 제외한 급여현황에서 가장 높고 뇌전증, 지적, 언어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정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
-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상),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상),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상)



## (2) 장애인연금

### ① 장애인연금 수급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수급자 수	305,394	56,339	24,614	27,465	1,534	69,406	58,142	3,165
2014 수급자 수	328,414	59,308	26,279	30,621	1,881	73,795	63,495	4,000
2015 수급자 수	342,444	59,661	26,935	32,380	2,156	78,755	65,542	4,953
2016 수급자 수	350,161	59,269	27,089	33,408	2,294	82,465	65,894	5,792
2017 수급자 수	359,986	59,311	27,478	34,196	2,426	86,338	67,164	6,728
수급권자 수	521,304	101,872	38,219	52,045	3,481	108,531	100,037	10,886
2018 수급자 수	364,712	58,420	27,523	34,511	2,416	89,948	66,391	7,706
수급률	(70.0)	(57.3)	(72.0)	(66.3)	(69.4)	(82.9)	(66.4)	(70.8)
남 수급권자 수	303,615	67,337	19,435	27,317	2,462	63,410	52,760	9,251
수급자 수	202,050	35,677	13,219	16,996	1,680	51,501	32,692	6,569
수급률	(66.5)	(53.0)	(68.0)	(62.2)	(68.2)	(81.2)	(62.0)	(71.0)
여 수급권자 수	217,689	34,535	18,784	24,728	1,019	45,121	47,277	1,635
수급자 수	162,662	22,743	14,304	17,515	736	38,447	33,699	1,137
수급률	(74.7)	(65.9)	(76.1)	(70.8)	(72.2)	(85.2)	(71.3)	(69.5)
1급 수급권자 수	179,544	32,706	31,060	6,273	94	43,911	49,833	6,657
수급자 수	131,706	20,284	22,577	4,566	71	38,730	33,441	4,903
수급률	(73.4)	(62.0)	(72.7)	(72.8)	(75.5)	(88.2)	(67.1)	(73.7)
2급 수급권자 수	317,906	61,926	6,347	43,243	2,012	60,784	46,991	4,220
수급자 수	218,178	34,030	4,385	28,250	1,403	48,380	30,787	2,797
수급률	(68.6)	(55.0)	(69.1)	(65.3)	(69.7)	(79.6)	(65.5)	(66.3)
3급 수급권자 수	21,207	7,240	812	2,529	1,375	3,836	3,213	9
수급자 수	14,742	4,097	559	1,692	939	2,838	2,140	6
수급률	(69.5)	(56.6)	(68.8)	(66.9)	(68.3)	(74.0)	(66.6)	(66.7)
기타 수급자 수	86	9	2	3	3	-	2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46,606	28,115	10,352	10,581	779	38,556	19,848	1,117
수급률	(28.1)	(27.6)	(27.1)	(20.3)	(22.4)	(35.5)	(19.8)	(10.3)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34,539	5,230	3,457	3,803	243	6,043	8,432	463
수급률	(6.6)	(5.1)	(9.0)	(7.3)	(7.0)	(5.6)	(8.4)	(4.3)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	155,812	22,983	12,882	19,641	1,347	30,175	34,236	5,860
수급률	(29.9)	(22.6)	(33.7)	(37.7)	(38.7)	(27.8)	(34.2)	(53.8)
시설수급자 수	27,755	2,092	832	486	47	15,174	3,875	266
수급률	(5.3)	(2.1)	(2.2)	(0.9)	(1.4)	(14.0)	(3.9)	(2.4)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임

2) 기타 수급자는 해당 월말 장애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으로 하락되거나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4) 소득별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득별 수급률은(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18년 수급권자 수) \* 100으로 구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현재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521,304명, 수급자는 364,712명으로 수급률은 70.0%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74.7%로 남성의 수급률 66.5%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 수급률은 1급이 73.4%로 가장 높고 3급 중북 69.5%, 2급 68.6% 순임

• 소득분위별 수급률은 차상위초과계층 29.9%로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1%, 차상위계층 6.6% 순임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3 수급자 수	32,971	26,527	531	3,006	356	241	56	404	637
2014 수급자 수	31,533	32,028	557	3,316	322	244	63	372	600
2015 수급자 수	31,184	35,879	536	3,468	295	64	248	372	16
2016 수급자 수	30,853	38,074	512	3,514	255	68	261	397	16
2017 수급자 수	30,517	40,716	540	3,586	226	73	269	408	10
수급권자 수	31,980	65,825	974	5,677	487	166	622	502	-
2018 수급자 수	29,921	42,785	525	3,565	215	82	278	417	9
수급률	(93.6)	(65.0)	(53.9)	(62.8)	(44.1)	(49.4)	(44.7)	(83.1)	(0.0)
남 수급권자 수	17,042	38,595	618	4,282	362	114	355	275	-
수급자 수	15,950	24,206	310	2,673	166	45	141	221	4
수급률	(93.6)	(62.7)	(50.2)	(62.4)	(45.9)	(39.5)	(39.7)	(80.4)	-
여 수급권자 수	14,938	27,230	356	1,395	125	52	267	227	-
수급자 수	13,971	18,579	215	892	49	37	137	196	5
수급률	(93.5)	(68.2)	(60.4)	(63.9)	(39.2)	(71.2)	(51.3)	(86.3)	-
1급 수급권자 수	2,097	5,318	111	1,639	207	8	98	82	-
수급자 수	1,901	3,929	56	1,029	84	4	56	75	-
수급률	(90.7)	(73.9)	(50.5)	(62.8)	(40.6)	(50.0)	(57.1)	(91.5)	-
2급 수급권자 수	27,812	60,490	590	3,435	244	101	414	347	-
수급자 수	26,224	38,817	311	2,173	111	50	177	283	-
수급률	(94.3)	(64.2)	(52.7)	(63.3)	(45.5)	(49.5)	(42.8)	(81.6)	-
3급 수급권자 수	2,071	17	273	603	36	57	110	73	-
수급자 수	1,795	8	158	363	18	28	45	56	-
수급률	(86.7)	(47.1)	(57.9)	(60.2)	(50.0)	(49.1)	(40.9)	(76.7)	-
기타 수급자 수	1	31	-	-	2	-	-	3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9,595	15,563	184	1,402	96	23	157	237	1
수급률	(61.3)	(23.6)	(18.9)	(24.7)	(19.7)	(13.9)	(25.2)	(47.2)	(0.0)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1,929	4,507	66	286	19	5	15	41	-
수급률	(6.0)	(6.8)	(6.8)	(5.0)	(3.9)	(3.0)	(2.4)	(8.2)	-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	3,541	22,613	273	1,859	100	53	106	135	8
수급률	(11.1)	(34.4)	(28.0)	(32.7)	(20.5)	(31.9)	(17.0)	(26.9)	(0.0)
시설수급자 수	4,856	102	2	18	-	1	-	4	-
수급률	(15.2)	(0.2)	(0.2)	(0.3)	-	(0.6)	-	(0.8)	-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기타 수급자는 해당 월말 장애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장애로 하락되거나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4) 소득별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득별 수급률은(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18년 수급권자 수) \* 100으로 구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유형별 수급률은 정신장애가 93.6%로 가장 높고 뇌전증 83.1%, 지적장애 82.9%, 시각장애 72.0%의 순으로 나타남

####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이면 제외됨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 3급 중증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하나 이상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함(주된 장애가 3급이며 그 외 부장애가 4~6급인 경우). 그러나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는 제외함
- 급여액은 2018년 9월~2019년 3월 : 기초급여-최고(월) 250,000원(65세 이상은 기초급여는 미지급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8만원), 차상위계층(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월 2만원)을 지급함



### (3) 장애수당

#### ① 장애수당 수급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320,029 (100.0)	157,255 (49.1)	28,339 (8.9)	30,327 (9.5)	2,972 (0.9)	22,385 (7.0)	29,827 (9.3)	117 (0.0)
2014	320,318 (100.0)	154,315 (48.2)	28,356 (8.9)	29,999 (9.4)	2,979 (0.9)	22,962 (7.2)	30,304 (9.5)	98 (0.0)
2015	327,881 (100.0)	155,880 (47.5)	29,123 (8.9)	30,404 (9.3)	3,081 (0.9)	24,100 (7.4)	31,560 (9.6)	112 (0.0)
2016	336,224 (100.0)	156,134 (46.4)	29,775 (8.9)	33,319 (9.9)	3,156 (0.9)	25,168 (7.5)	32,801 (9.8)	134 (0.0)
2017	343,662 (100.0)	154,867 (45.1)	30,128 (8.8)	38,475 (11.2)	3,182 (0.9)	25,808 (7.5)	33,640 (9.8)	150 (0.0)
2018	352,117 (100.0)	152,144 (43.2)	30,570 (8.7)	46,200 (13.1)	3,169 (0.9)	26,375 (7.5)	34,461 (9.8)	163 (0.0)
남	172,185 (100.0)	69,785 (40.5)	15,006 (8.7)	18,632 (10.8)	2,134 (1.2)	14,472 (8.4)	20,948 (12.2)	146 (0.1)
여	179,914 (100.0)	82,355 (45.8)	15,564 (8.7)	27,565 (15.3)	1,035 (0.6)	11,898 (6.6)	13,511 (7.5)	17 (0.0)
1급	29 (100.0)	2 (6.9)	11 (37.9)	1 (3.4)	-	-	8 (27.6)	-
2급	38 (100.0)	2 (5.3)	2 (5.3)	3 (7.9)	-	9 (23.7)	4 (10.5)	-
3급 중복	31 (100.0)	7 (22.6)	-	1 (3.2)	1 (3.2)	5 (16.1)	8 (25.8)	-
3급	130,221 (100.0)	29,017 (22.3)	2,635 (2.0)	7,439 (5.7)	1,517 (1.2)	26,356 (20.2)	13,158 (10.1)	163 (0.1)
4급	73,436 (100.0)	42,004 (57.2)	3,215 (4.4)	14,502 (19.7)	1,651 (2.2)	-	7,894 (10.7)	-
5급	78,341 (100.0)	44,228 (56.5)	4,011 (5.1)	18,280 (23.3)	-	-	6,932 (8.8)	-
6급	70,003 (100.0)	36,880 (52.7)	20,696 (29.6)	5,971 (8.5)	-	-	6,455 (9.2)	-
기초생활 수급자	229,697 (100.0)	94,146 (41.0)	18,438 (8.0)	24,216 (10.5)	2,390 (1.0)	21,238 (9.2)	22,601 (9.8)	113 (0.0)
차상위 계층	109,938 (100.0)	54,956 (50.0)	11,514 (10.5)	20,770 (18.9)	704 (0.6)	3,413 (3.1)	10,393 (9.5)	48 (0.0)
시설수급자	12,482 (100.0)	3,042 (24.4)	618 (5.0)	1,214 (9.7)	75 (0.6)	1,724 (13.8)	1,467 (11.8)	2 (0.0)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성별, 장애등급별 계에서 '장애유형 미상' 21명 미포함

3)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 1급, 2급, 3급 중복자 중 수급을 받은 장애인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경중에서 중증장애로 상향조정된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3	37,731 (11.8)	2,214 (0.7)	850 (0.3)	1,668 (0.5)	818 (0.3)	1,940 (0.1)	371 (0.6)	3,215 (1.0)	-
2014	40,487 (12.6)	2,166 (0.7)	771 (0.2)	1,529 (0.5)	807 (0.3)	2,003 (0.1)	365 (0.6)	3,176 (1.0)	1 (0.0)
2015	42,596 (13.0)	2,273 (0.7)	722 (0.2)	1,472 (0.4)	867 (0.3)	2,100 (0.6)	360 (0.1)	3,231 (1.0)	-
2016	44,213 (13.1)	2,581 (0.8)	694 (0.2)	1,460 (0.4)	976 (0.3)	2,197 (0.7)	363 (0.1)	3,253 (1.0)	-
2017	45,487 (13.2)	2,776 (0.8)	673 (0.2)	1,458 (0.4)	1087 (0.3)	2,297 (0.7)	354 (0.1)	3,280 (1.0)	-
2018	46,833 (13.3)	2,880 (0.8)	686 (0.2)	1,481 (0.4)	1123 (0.3)	2,408 (0.7)	335 (0.1)	3,289 (0.9)	-
남	24,061 (14.0)	1,544 (0.9)	397 (0.2)	1,049 (0.6)	754 (0.4)	1,302 (0.8)	161 (0.1)	1,794 (1.0)	-
여	22,771 (12.7)	1,336 (0.7)	289 (0.2)	432 (0.2)	369 (0.2)	1,106 (0.6)	174 (0.1)	1,492 (0.8)	-
1급	-	6 (20.7)	-	1 (3.4)	-	-	-	-	-
2급	7 (18.4)	7 (18.4)	1 (2.6)	3 (7.9)	-	-	-	-	-
3급 중복	7 (22.6)	-	2 (6.5)	-	-	-	-	-	-
3급	46,818 (36.0)	8 (0.0)	564 (0.4)	1,446 (1.1)	101 (0.1)	256 (0.2)	148 (0.1)	595 (0.5)	-
4급	-	197 (0.3)	13 (0.0)	1 (0.0)	53 (0.1)	1,606 (2.2)	166 (0.2)	2,134 (2.9)	-
5급	-	2,662 (3.4)	106 (0.1)	30 (0.0)	969 (1.2)	546 (0.7)	20 (0.0)	557 (0.7)	-
6급	-	-	-	-	-	-	1 (0.0)	-	-
기초생활 수급자	37,523 (16.3)	2,147 (0.9)	473 (0.2)	1,083 (0.5)	823 (0.4)	1,425 (0.6)	259 (0.1)	2,822 (1.2)	-
차상위 계층	5,070 (4.6)	732 (0.7)	208 (0.2)	381 (0.3)	299 (0.3)	955 (0.9)	72 (0.1)	423 (0.4)	-
시설수급자	4,240 (34.0)	1 (0.0)	5 (0.0)	17 (0.1)	1 (0.0)	28 (0.2)	4 (0.0)	44 (0.4)	-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성별, 장애등급별 계에서 '장애유형 미상' 18명 미포함

3)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임. 1급, 2급, 3급

중복자 중 수급을 받은 장애인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경중에서 중증장애로 상향조정된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52,11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수급률이 43.2%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인 13.3%, 청각장애인 13.1% 순임
-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 수가 179,914명으로 남성 수급자 172,185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3급 수급자 수가 130,221명으로 가장 많고 5급 78,341명, 4급 73,436명 순임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지체장애의 수급률이 각각 41.0%, 50.0%로 가장 높은 반면,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정신장애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하며, 소득의 범위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미적용함.



##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21,777 (100.0)	1,240 (5.7)	654 (3.0)	886 (4.1)	323 (1.5)	13,105 (60.2)	3,374 (15.5)	1,819 (8.4)
2014	21,121 (100.0)	1,026 (4.9)	619 (2.9)	773 (3.7)	307 (1.5)	13,130 (62.2)	3,189 (15.1)	1,754 (8.3)
2015	20,464 (100.0)	835 (4.1)	542 (2.6)	727 (3.6)	320 (1.6)	12,975 (63.4)	2,989 (14.6)	1,782 (8.7)
2016	19,934 (100.0)	730 (3.7)	496 (2.5)	700 (3.5)	344 (1.7)	12,834 (64.4)	2,739 (13.8)	1,799 (9.0)
2017	19,323 (100.0)	669 (3.5)	455 (2.4)	654 (3.4)	361 (1.9)	12,577 (65.1)	2,485 (12.9)	1,849 (9.6)
2018	18,568 (100.0)	583 (3.1)	411 (2.2)	632 (3.4)	373 (2.0)	12,211 (65.8)	2,247 (12.1)	1,869 (10.1)
남	11,567 (100.0)	334 (2.9)	229 (2.0)	328 (2.8)	251 (2.2)	7,485 (64.7)	1,299 (11.2)	1,513 (13.1)
여	7,001 (100.0)	249 (3.6)	182 (2.6)	304 (4.3)	122 (1.7)	4,726 (67.5)	948 (13.5)	356 (5.1)
1급	5,116 (100.0)	136 (2.7)	167 (3.3)	149 (2.9)	1 (0.0)	2,321 (45.4)	1,543 (30.2)	778 (15.2)
2급	5,769 (100.0)	69 (1.2)	17 (0.3)	259 (4.5)	20 (0.3)	4,159 (72.1)	235 (4.1)	959 (16.6)
3급 중복	175 (100.0)	5 (2.9)	1 (0.6)	1 (0.6)	12 (6.9)	147 (84.0)	5 (2.9)	-
3급	6,179 (100.0)	82 (1.3)	17 (0.3)	84 (1.4)	75 (1.2)	5,584 (90.4)	145 (2.3)	132 (2.1)
4급	527 (100.0)	68 (12.9)	30 (5.7)	48 (9.1)	265 (50.3)	-	89 (16.9)	-
5급	415 (100.0)	101 (24.3)	32 (7.7)	70 (16.9)	-	-	133 (32.0)	-
6급	387 (100.0)	122 (31.5)	147 (38.0)	21 (5.4)	-	-	97 (25.1)	-
기초생활 수급자	9,758 (100.0)	333 (3.4)	192 (2.0)	280 (2.9)	201 (2.1)	6,710 (68.8)	968 (9.9)	939 (9.6)
차상위 계층	5,727 (100.0)	210 (3.7)	158 (2.8)	283 (4.9)	146 (2.5)	3,303 (57.7)	732 (12.8)	796 (13.9)
시설수급자	3,083 (100.0)	40 (1.3)	61 (2.0)	69 (2.2)	26 (0.8)	2,198 (71.3)	547 (17.7)	134 (4.3)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18년 18,568명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비율이 65.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수급자 수가 11,567명으로 여성 수급자 7,00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3급이 6,179명으로 가장 많고, 2급 5,769명, 1급 5,116명 순임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3	53 (0.2)	68 (0.3)	95 (0.4)	8 (0.0)	65 (0.3)	12 (0.2)	33 (0.1)	42 (0.2)	-
2014	32 (0.2)	56 (0.3)	80 (0.4)	9 (0.0)	66 (0.3)	25 (0.1)	17 (0.1)	38 (0.2)	-
2015	21 (0.1)	51 (0.2)	73 (0.4)	8 (0.0)	62 (0.3)	10 (0.0)	24 (0.1)	45 (0.2)	-
2016	24 (0.1)	49 (0.2)	66 (0.3)	9 (0.0)	63 (0.3)	15 (0.1)	22 (0.1)	44 (0.2)	-
2017	24 (0.1)	49 (0.2)	66 (0.3)	9 (0.0)	63 (0.3)	15 (0.1)	22 (0.1)	44 (0.2)	-
2018	19 (0.1)	39 (0.2)	44 (0.2)	8 (0.0)	53 (0.3)	19 (0.1)	16 (0.1)	44 (0.2)	-
남	8 (0.1)	28 (0.2)	27 (0.2)	6 (0.1)	17 (0.1)	9 (0.1)	8 (0.1)	25 (0.2)	-
여	11 (0.2)	11 (0.2)	17 (0.2)	2 (0.0)	36 (0.5)	10 (0.1)	8 (0.1)	19 (0.3)	-
1급	1 (0.0)	6 (0.1)	1 (0.0)	3 (0.1)	-	-	-	10 (0.2)	-
2급	4 (0.1)	12 (0.2)	9 (0.2)	2 (0.0)	1 (0.0)	7 (0.1)	4 (0.1)	12 (0.2)	-
3급 중복	-	-	2 (1.1)	-	-	-	1 (0.6)	1 (0.6)	-
3급	14 (0.2)	-	30 (0.5)	1 (0.0)	-	5 (0.1)	1 (0.0)	9 (0.1)	-
4급	-	-	-	-	-	6 (1.1)	9 (1.7)	12 (2.3)	-
5급	-	21 (5.1)	2 (0.5)	2 (0.5)	52 (12.5)	1 (0.2)	1 (0.2)	-	-
6급	-	-	-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13 (0.1)	23 (0.2)	16 (0.2)	4 (0.0)	34 (0.3)	10 (0.1)	11 (0.1)	24 (0.2)	-
차상위 계층	3 (0.1)	14 (0.2)	26 (0.5)	4 (0.1)	18 (0.3)	9 (0.2)	5 (0.1)	20 (0.3)	-
시설수급자	3 (0.1)	2 (0.1)	2 (0.1)	-	1 (0.0)	-	-	-	-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소득분위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758명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 계층 5,727명, 시설수급자 3,083명 순임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

**(4) 정신질환 의료보장****① 만성 정신질환 급여****〈표 10-2-6〉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단위: 명, 일, 백만원)

구분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2006	1,852,458	35,471,637	147,359,332	1,328,246	1,114,468
2007	2,035,340	39,248,921	165,934,362	1,569,897	1,299,998
2008	2,098,927	42,709,802	180,075,209	1,991,178	1,599,179
2009	2,232,036	45,499,925	264,792,899	2,339,252	1,913,671
2010	2,345,642	48,704,589	289,496,830	2,658,294	2,179,126
2011	2,480,688	52,577,776	318,171,495	2,964,484	2,428,036
2012	2,640,366	57,388,812	351,814,052	3,267,902	2,666,329
2013	2,679,975	60,573,044	351,255,548	3,476,993	2,835,071
2014	2,741,609	63,965,263	404,192,088	3,848,742	3,122,054
2015	2,857,828	67,069,255	429,546,532	4,130,656	3,335,307
2016	3,039,137	71,005,336	467,315,609	4,511,888	3,625,008
2017	3,185,509	74,146,666	495,101,365	4,834,917	3,859,761
2018	3,421,605	77,668,892	542,754,520	5,280,105	4,225,370

주: 1) 만성질환 중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현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주요 만성질환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2) 연말 실거주지 기준임  
 3)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이며, 급여비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한 금액임  
 4) 수진기준(의료이용은 약국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이며, 의료급여 포함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018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2권, p.50

-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 실인원은 2006년 1,852,458명에서 2018년 3,421,605명으로 내원일수는 2006년 35,471,637일에서 2018년 77,558,892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일수는 2006년 147,359,332일에서 2018년 542,754,520일로, 급여비는 2006년 1,114,468원에서 2018년 4,225,370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진료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관 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2010		340,108	2,892,149	20,462,726	937,881,221	927,907,778	324,285	320,837	45,834	45,346	14,388	14,235
2011		351,427	2,862,985	21,226,595	995,154,335	985,786,593	347,593	344,321	46,882	46,441	15,132	14,989
2012		356,636	3,232,063	22,281,478	1,061,020,556	1,052,194,508	328,280	325,549	47,619	47,223	15,273	15,146
2013		353,289	3,302,454	22,903,389	1,106,842,965	1,098,006,186	335,158	332,482	48,327	47,941	15,300	15,178
2014	계	362,945	3,459,377	23,628,260	1,159,758,861	1,150,887,083	335,251	332,686	49,084	48,708	15,234	15,118
2015		381,137	3,616,648	24,264,510	1,198,994,952	1,189,894,900	331,521	329,005	49,414	49,038	15,077	14,962
2016		405,465	3,935,040	25,352,961	1,268,469,767	1,258,487,913	322,352	319,816	50,032	49,639	14,751	14,635
2017		415,077	4,374,889	25,756,717	1,303,508,991	1,284,404,519	297,952	293,952	50,648	49,906	15,034	14,813
2018		438,490	4,766,890	26,411,105	1,374,792,724	1,350,448,759	288,405	283,298	52,054	51,132	14,962	14,697
	계	93,910	817,448	6,934,287	469,195,616	454,566,839	573,976	556,080	67,663	65,554	31,643	30,657
1.차별 (F00-F03)	입원	34,367	238,711	6,358,261	430,229,998	416,337,646	1,802,305	1,744,108	67,665	65,480	66,781	64,624
	외래	69,844	446,946	444,235	20,294,509	19,615,661	45,407	43,888	45,684	44,156	5,341	5,162
	약국	26,740	131,791	131,791	18,671,109	18,613,531	141,672	141,235	141,672	141,235	4,072	4,059
	계	31,029	269,629	3,329,070	153,078,449	151,344,179	567,737	561,305	45,982	45,461	26,822	26,518
2. 일몰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 (F10)	입원	18,923	136,112	3,188,732	145,042,312	143,609,189	1,065,610	1,055,081	45,486	45,036	42,738	42,315
	외래	20,364	131,472	138,732	7,864,251	7,564,002	59,817	57,533	56,867	54,695	3,487	3,354
	약국	764	2,045	2,045	171,886	170,988	84,052	83,613	84,052	83,613	2,956	2,941
	계	1,702	5,707	13,309	1,102,992	1,074,033	193,270	188,196	82,876	80,700	11,692	11,385
3. 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F19)	입원	580	844	8,141	772,264	753,886	915,005	893,230	94,861	92,604	78,778	76,904
	외래	978	4,328	4,633	290,376	280,027	67,092	64,701	62,676	60,442	4,198	4,049
	약국	301	535	535	40,352	40,120	75,424	74,990	75,424	74,990	2,626	2,611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8 의료급여통계연보」, pp.84-85.

- 정신질환 의료급여 진료 실인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체로 증가 추이임
- 2018년 진료 실인원 수는 438,490명으로 2017년 415,077명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진료건수, 입·내원일수, 총 진료비, 기관부담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임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진료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관 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4.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계	96,775	1,262,790	10,636,490	483,765,125	480,786,831	383,092	380,734	45,482	45,202	16,487	16,386
	입원	39,452	349,164	9,599,230	423,925,866	422,571,405	1,214,117	1,210,238	44,162	44,021	42,893	42,756
	외래	71,294	907,929	1,031,563	59,448,955	57,827,665	65,478	63,692	57,630	56,058	3,078	2,994
	약국	1,889	5,697	5,697	390,303	387,761	68,510	68,064	68,510	68,064	2,668	2,651
	계	122,646	1,254,494	2,447,748	118,634,524	116,163,863	94,568	92,598	48,467	47,457	5,279	5,169
5. 기분(정동성) 장애 (F30-F39)	입원	10,290	52,058	1,228,401	55,469,201	55,003,166	1,065,527	1,056,575	45,156	44,776	41,911	41,559
	외래	116,029	1,176,691	1,193,602	61,685,828	59,692,584	52,423	50,729	51,680	50,010	3,003	2,906
	약국	8,564	25,745	25,745	1,479,495	1,468,112	57,467	57,025	57,467	57,025	2,436	2,417
	계	74,152	489,028	586,547	26,767,479	25,971,908	54,736	53,109	45,636	44,279	3,609	3,502
6.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장애 (F40-F49)	입원	2,118	5,452	102,460	5,092,257	5,024,201	934,016	921,533	49,700	49,036	43,760	43,175
	외래	70,849	453,258	453,769	20,407,544	19,692,368	45,024	43,446	44,973	43,397	3,051	2,944
	약국	11,119	30,318	30,318	1,267,679	1,255,339	41,813	41,406	41,813	41,406	2,074	2,054
	계	18,150	164,722	1,226,381	56,311,565	55,776,950	341,858	338,613	45,917	45,481	14,649	14,510
7. 정신 발육지체 (F70-F79)	입원	5,128	40,025	1,092,719	49,764,560	49,444,936	1,243,337	1,235,351	45,542	45,249	44,152	43,868
	외래	14,340	122,988	131,953	6,418,424	6,204,126	52,187	50,445	48,642	47,018	2,414	2,333
	약국	551	1,709	1,709	128,581	127,888	75,237	74,832	75,237	74,832	2,221	2,209
	계	78,215	483,910	1,179,913	57,151,382	56,121,626	118,103	115,975	48,437	47,564	7,652	7,514
8.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 F50-F69, F80-F99)	입원	5,028	27,521	721,393	35,529,034	35,061,159	1,290,979	1,273,978	49,251	48,602	47,675	47,047
	외래	71,959	399,728	401,859	17,771,477	17,230,491	44,459	43,106	44,223	42,877	3,542	3,434
	약국	17,790	56,661	56,661	3,850,870	3,829,976	67,963	67,595	67,963	67,595	2,258	2,245
	계	3,991	19,162	57,360	8,785,594	8,642,530	458,490	451,024	153,166	150,672	12,302	12,101
9. 간질 (G40-G41)	입원	686	2,253	40,553	6,161,212	6,030,154	2,734,670	2,676,500	151,930	148,698	127,556	124,843
	외래	1,026	6,410	6,308	337,057	329,067	52,583	51,336	53,433	52,167	6,083	5,939
	약국	2,888	10,499	10,499	2,287,324	2,283,309	217,861	217,479	217,861	217,479	3,747	3,740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2018 의료급여통계연보」, pp.84-85.

- 상병별 진료 실인원은 기분(정동성)장애가 122,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96,775명, 치매 93,910명 순임
- 건당 진료비는 치매가 573,976원으로 가장 많았고, 알콜 사용에 의한 행동장애가 567,737원, 뇌전증 458,670원 순으로 나타남

### ③ 정신보건 의료보장 이용

〈표 10-2-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2000	50,990 (100.0)	14,234 (27.9)	34,545 (67.7)		2,211 (4.3)	
2001	53,711 (100.0)	16,057 (29.9)	31,433 (58.5)	3,656 (6.8)	2,565 (5.8)	
2002	61,066 (100.0)	15,658 (25.6)	39,781 (65.1)	2,750 (4.5)	2,877 (4.7)	
2003	64,083 (100.0)	16,391 (25.8)	41,507 (64.4)	3,349 (5.3)	2,836 (4.5)	
2004	65,339 (100.0)	16,324 (25.0)	43,311 (66.3)	3,092 (4.7)	2,612 (4.0)	
2005	67,895 (100.0)	15,744 (23.2)	45,508 (67.0)	3,970 (5.9)	2,673 (3.9)	
2006	70,967 (100.0)	16,980 (23.9)	47,262 (66.6)	4,685 (6.6)	2,040 (2.9)	
2007	70,516 (100.0)	17,814 (25.3)	45,797 (64.9)	4,573 (6.5)	2,332 (3.3)	
2008	72,214 (100.0)	18,603 (25.8)	46,431 (64.3)	4,965 (6.9)	2,215 (3.1)	
2009	74,919 (100.0)	21,752 (29.0)	47,963 (64.0)	3,120 (4.2)	2,084 (2.8)	
2010	75,282 (100.0)	23,740 (31.5)	46,126 (61.3)	3,149 (4.2)	2,267 (3.0)	
2011	78,637 (100.0)	25,784 (32.8)	48,323 (61.5)	2,627 (3.3)	1,903 (2.4)	
2012	80,569 (100.0)	27,286 (33.9)	48,897 (60.7)	2,321 (2.9)	2,065 (2.6)	
2013	80,462 (100.0)	27,117 (33.7)	49,141 (61.1)	2,227 (2.8)	1,977 (2.5)	
2014	81,625 (100.0)	27,212 (33.3)	50,222 (61.5)	2,206 (2.7)	1,985 (2.4)	
2015	81,105 (100.0)	25,896 (31.9)	50,385 (62.1)	2,760 (3.4)	2,064 (2.5)	
2016	79,401 (100.0)	25,051 (31.5)	50,375 (63.4)	2,187 (2.8)	1,788 (2.3)	
2017	77,161 (100.0)	23,794 (30.8)	49,546 (64.2)	2,083 (2.7)	1,738 (2.3)	
소계	67,411 (100.0)	22,517 (33.4)	41,168 (61.1)	2,031 (3.0)	1,725 (2.6)	
정신 의료기관	국립정신병원	2,029 (100.0)	367 (18.1)	511 (25.2)	26 (1.3)	1,125 (55.4)
	공립정신병원	2,903 (100.0)	743 (25.6)	2074 (71.4)	80 (2.8)	6 (0.2)
	사립정신병원	29,820 (100.0)	9,680 (33.2)	19,094 (64.0)	798 (2.7)	248 (0.8)
	종합병원정신과	3,957 (100.0)	1,721 (43.5)	1,982 (50.1)	105 (2.7)	149 (3.8)
	병원정신과	25,764 (100.0)	8,526 (33.1)	16,127 (62.6)	929 (3.6)	182 (0.7)
	정신과의원	2,968 (100.0)	1,480 (49.9)	1,380 (46.5)	93 (3.1)	15 (0.5)
	정신요양시설	9,720 (100.0)	1,277 (13.1)	8,378 (86.2)	52 (0.5)	13 (0.1)

주: 1) 2010년부터 추계에서 소속인 시설 제외

2) 기타에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125.

-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는 2000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중 의료급여(1종+2종) 수급자가 67.7%로 건강보험 가입자 27.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정신의료기관별 입원·입소자 수는 사립정신병원이 29,8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과 공립정신병원은 합해서 4,932명으로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 사회서비스

####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① 예산 및 실적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단위: 억원, 명, 만원, 시간)

구분	예산	지원 규모(이용자)	월평균 급여량	월 평균 지원시간
2007	296	14,515	33.2	46
2008	750	19,498	44.8	56
2009	1,124	27,818	57.6	72
2010	1,348	29,409	57.6	72
2011	1,928	33,667	57.6	83
2012	3,098	38,266	93.9	83
2013	3,829	48,335	93.9	110
2014	4,285	53,870	103.3	120
2015	4,679	64,523	108.8	123
2016	5,008	71,636	110.9	123
2017	6,061	72,193	113.0	123
2018	7,194	78,202	131.0	122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18년 7,194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07년 14,515명에서 2018년 78,02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월평균 급여량은 2017년 113.0만원 2018년 131.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월 평균 지원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2시간임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9년 1월 기준)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 2, 3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2015.6월 3급으로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과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함
-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인 경우에 선정함,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정조사결과(기본조사+생활환경 조사+욕구 조사)에 따른 인정점수에 의하여,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결정됨(기본급여: 1~4등급,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 1인/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일시부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출산가구, 자립준비 등임)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 ② 수급자 수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60,435	11,648	9,439	361	52	19,651	9,874	7,430
2014	64,906	11,831	9,716	379	70	21,979	10,205	8,428
2015	72,212	12,344	10,199	404	141	25,603	11,120	9,574
2016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2017	86,926	13,232	11,044	476	284	33,128	12,744	12,141
2018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100.0)	(14.4)	(12.1)	(0.5)	(0.4)	(39.2)	(14.3)	(14.3)
장애등급	1급	58,412	10,944	10,678	315	10	18,031	10,008
		(100.0)	(18.7)	(18.3)	(0.5)	(0.0)	(30.9)	(17.1)
	2급	27,355	1,904	413	174	148	14,347	2,125
		(100.0)	(7.0)	(1.5)	(0.6)	(0.5)	(52.4)	(7.8)
	3급	8,729	722	380	30	186	4,682	1,348
		(100.0)	(8.3)	(4.4)	(0.3)	(2.1)	(53.6)	(15.4)
활동지원 등급	1등급	27,914	6,545	2,337	43	24	7,252	8,748
		(100.0)	(23.4)	(8.4)	(0.2)	(0.1)	(26.0)	(31.3)
	2등급	29,127	2,784	6,632	116	73	10,918	2,216
		(100.0)	(9.6)	(22.8)	(0.4)	(0.3)	(37.5)	(7.6)
	3등급	23,238	2,734	2,044	166	115	11,300	1,582
		(100.0)	(11.8)	(8.8)	(0.7)	(0.5)	(48.6)	(6.8)
	4등급	14,217	1,507	458	194	132	7,590	935
		(100.0)	(10.6)	(3.2)	(1.4)	(0.9)	(53.4)	(6.6)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18년 94,49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37,060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3,570명(14.4%), 자폐성장애 13,553명(14.0%), 뇌병변장애 13,481명(14.3%), 시각장애 11,471명(12.1%) 순임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장애유형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2013	641	971	29	225	24	9	1	80
2014	740	1,191	27	215	23	9	1	92
2015	1,034	1,347	35	251	23	9	6	122
2016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2017	1,668	1,638	46	297	20	13	14	181
2018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2.2)	(2.0)	(0.0)	(0.3)	(0.0)	(0.0)	(0.0)	(0.2)
장애 등급	1급	130	611	13	167	10	11	62
		(0.2)	(1.0)	(0.0)	(0.3)	(0.0)	(0.0)	(0.1)
	2급	1,101	1,234	21	78	7	1	86
		(4.0)	(4.5)	(0.1)	(0.3)	(0.0)	(0.0)	(0.3)
	3급	835	11	12	31	5	2	52
		(9.6)	(0.1)	(0.1)	(0.4)	(0.1)	(0.0)	(0.6)
활동 지원 등급	1등급	50	70	3	27	1	1	28
		(0.2)	(0.3)	(0.0)	(0.1)	(0.0)	(0.0)	(0.1)
	2등급	192	201	8	42	6	5	44
		(0.7)	(0.7)	(0.0)	(0.1)	(0.0)	(0.0)	(0.2)
	3등급	630	571	15	96	6	3	59
		(2.7)	(2.5)	(0.1)	(0.4)	(0.0)	(0.0)	(0.3)
	4등급	1,194	1,014	20	111	9	7	69
		(8.4)	(7.1)	(0.1)	(0.8)	(0.1)	(0.0)	(0.5)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1급이 58,412명(61.8%)으로 가장 많고, 2급 27,355명(28.9%), 3급 8,729명(9.2%) 순임
-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2등급이 29,127명(30.8%)으로 가장 많고, 1등급 27,914명(29.5%), 3등급 8,729명(9.2%) 순임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단위: 명)

구분	전체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2013	60,435	4,084	16,614	10,074	6,834	8,194	9,694	3,660	1,281
2014	64,906	4,519	17,668	11,639	7,026	8,496	10,064	3,877	1,617
2015	72,212	5,399	18,790	13,619	7,648	9,176	10,983	4,596	2,001
2016	79,926	4,912	19,966	16,408	8,556	9,464	12,045	5,474	3,101
2018	94,496	8,074	21,867	19,426	10,128	10,514	14,385	6,833	3,269
	(100.0)	(8.5)	(23.1)	(20.6)	(10.7)	(11.1)	(15.2)	(7.2)	(3.5)
남	58,374	5,615	14,419	12,581	6,008	5,969	8,259	3,794	1,729
	(100.0)	(9.6)	(24.7)	(21.6)	(10.3)	(10.2)	(14.1)	(6.5)	(3.0)
여	36,122	2,459	7,448	6,845	4,120	4,545	6,126	3,039	1,540
	(100.0)	(6.8)	(20.6)	(18.9)	(11.4)	(12.6)	(17.0)	(8.4)	(4.3)
장애등급									
1급	58,411	2,525	11,327	13,155	7,304	7,295	9,628	4,399	2,778
	(100.0)	(4.3)	(19.4)	(22.5)	(12.5)	(12.5)	(16.5)	(7.5)	(4.8)
2급	27,356	3,778	8,088	5,669	2,373	2,303	3,144	1,628	373
	(100.0)	(13.8)	(29.6)	(20.7)	(8.7)	(8.4)	(11.5)	(6.0)	(1.4)
3급	8,729	1,771	2,452	602	451	916	1,613	806	118
	(100.0)	(20.3)	(28.1)	(6.9)	(5.2)	(10.5)	(18.5)	(9.2)	(1.4)
활동지원 등급									
1등급	27,910	1,451	6,318	6,356	3,608	3,621	3,998	1,782	776
	(100.0)	(5.2)	(22.6)	(22.8)	(12.9)	(13.0)	(14.3)	(6.4)	(2.8)
2등급	29,130	2,387	6,645	6,264	3,112	2,922	4,232	2,068	1,500
	(100.0)	(8.2)	(22.8)	(21.5)	(10.7)	(10.0)	(14.5)	(7.1)	(5.1)
3등급	23,239	2,780	5,683	4,596	2,191	2,293	3,382	1,627	687
	(100.0)	(12.0)	(24.5)	(19.8)	(9.4)	(9.9)	(14.6)	(7.0)	(3.0)
4등급	14,217	1,456	3,221	2,210	1,217	1,678	2,773	1,356	306
	(100.0)	(10.2)	(22.7)	(15.5)	(8.6)	(11.8)	(19.5)	(9.5)	(2.2)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2017년 자료는 오류로 인해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94,49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10-19세가 21,867명(23.1%), 20-29세가 19,426명(20.6%), 50-59세가 14,385명(15.2%)의 순으로 나타남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등급별

(단위: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총계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소계	27,914	6,545	2,337	43	24	7,252	8,748	2,785	50	70	3	27	1	1	0	28
1등급	440-	2,111	65	72	2	1	788	1,161	18	2	-	-	2	-	-	-
430-	3,508	729	26	4	1	329	2,392	26	-	-	-	-	-	-	-	1
420-	3,354	1,698	38	1	2	325	1,249	21	5	7	-	3	1	-	-	4
410-	2,066	872	43	2	1	387	697	54	5	2	-	1	-	-	-	2
400-	2,749	671	146	5	2	754	952	197	5	9	1	4	-	-	-	3
390-	3,348	557	254	9	8	1,260	717	520	9	5	-	3	-	-	-	6
380-	10,778	1,953	1,758	20	9	3,409	1,580	1,949	24	47	2	14	-	1	-	12
소계	29,127	2,784	6,632	116	73	10,918	2,216	5,886	192	201	8	42	6	5	4	44
2등급	370-	1,083	123	109	3	4	469	162	196	9	2	-	2	2	-	1
360-	2,193	192	289	7	2	961	268	444	11	14	-	2	1	-	-	2
350-	3,946	217	732	9	6	1,704	251	988	23	13	1	1	-	-	-	1
340-	6,442	344	1,330	18	7	2,601	316	1,774	24	19	-	3	-	1	-	5
330-	5,854	547	1,651	22	18	2,093	456	962	47	38	1	8	1	-	-	10
320-	9,609	1,361	2,521	57	36	3,090	763	1,522	78	115	6	26	2	4	3	25
소계	23,238	2,734	2,044	166	115	11,300	1,582	3,910	630	571	15	96	6	3	7	59
3등급	310-	1,908	98	233	4	10	997	83	436	27	18	-	1	-	-	1
300-	2,882	192	334	19	7	1,471	156	592	65	28	-	9	2	-	-	7
290-	3,206	302	350	21	21	1,533	225	615	82	37	2	10	1	-	2	5
280-	3,914	398	385	30	25	1,911	272	741	74	59	1	8	-	-	2	8
270-	4,387	552	340	33	18	2,143	318	683	141	114	1	26	2	1	1	14
260-	6,941	1,192	402	59	34	3,245	528	843	241	315	11	42	1	2	2	24
소계	14,217	1,507	458	194	132	7,590	935	972	1,194	1,014	20	111	9	5	7	69
4등급	250-	1,685	110	84	21	17	1018	115	175	115	22	1	2	-	-	4
240-	2,681	239	94	32	24	1,593	190	233	189	68	2	8	2	-	-	7
230-	3,111	346	105	27	25	1,690	206	231	262	185	4	16	1	1	1	11
220-	6,740	812	175	114	66	3,289	424	333	628	739	13	85	6	4	5	47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를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2등급이 29,127명으로 가장 많고, 1등급 27,914명, 3등급 23,238명, 4등급 14,217명 순임. 구간 점수별로는 371~380점이 10,778명으로 가장 많음
- 1등급에서는 뇌병변장애가 8,748명으로 가장 많고, 2, 3, 4등급은 지적장애가 각각 10,918명, 11,300명, 7,59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③ 인정조사 실시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실시현황

구분	계		적합		부적합		재조사		각하	
2013	34,970	(100.0)	32,477	(92.9)	2,167	(6.2)	92	(0.3)	234	(0.7)
2014	45,097	(100.0)	41,864	(92.8)	2,886	(6.4)	110	(0.2)	237	(0.5)
2015	60,227	(100.0)	53,597	(89.0)	6,240	(10.4)	148	(0.2)	242	(0.4)
2016	74,425	(100.0)	65,106	(87.5)	8,903	(12.0)	170	(0.2)	246	(0.3)
2017	89,360	(100.0)	77,193	(86.4)	11,913	(13.3)	186	(0.2)	254	(0.3)
2018	105,207	(100.0)	89,996	(85.5)	14,944	(14.2)	198	(0.2)	267	(0.3)

주: 연도별 자료는 누적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를 받은 장애인은 105,207명이며, 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은 85.5%,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4.2%임



## ④ 기본급여 이용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소계	일반	심야	공휴	소계	차량 내	가정 내	소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2013	1,014,725	984,494	30,231	85,260	4,510	3,289	1,221	787	107	307	373
2014	1,175,466	1,136,746	38,720	85,434	5,426	3,965	1,461	853	64	356	433
2015	1,341,188	1,292,820	48,368	103,886	6,440	4,839	1,601	958	113	324	521
2016	1,594,834	1,442,438	54,023	98,373	6,827	5,299	1,533	816	-	-	-
2017	1,687,877	1,485,285	54,280	148,312	6,823	5,221	1,602	697	79	309	309
2018	2,082,360	1,828,073	59,574	194,713	7,229	5,626	1,603	778	135	281	362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방문목욕 소계는 중복제거 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 중 활동보조의 이용건수는 2018년 2,082,36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94,483건 증가함
- 2018년 방문목욕 이용건수는 7,22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06건 증가함
  - 2018년 방문간호 이용건수는 77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1건 증가함

⑤ 추가급여 이용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인			취약			출산 가구	자립 지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2013	34,424	1,787	1,571	4,485	711	705	2,248	41	25	18,755	3,317	74	705	
2014	39,081	1,958	1,669	4,738	904	894	2,832	41	40	20,576	4,176	76	1,177	
2015	45,816	2,214	1,832	5,764	1,036	989	3,432	46	66	23,302	5,445	115	1,575	
2016	54,169	2,441	1,971	7,185	1,287	1,194	4,615	24	50	26,289	6,975	91	2,047	
2017	59,817	2,605	2,059	8,207	1,348	1,263	5,456	36	63	28,234	8,142	100	2,304	
2018	61,417	2,879	2,201	9,704	1,428	1,368	6,475	33	66	30,342	9,634	85	2,504	
장애 등급	1급	36,464	2,788	2,055	5,630	1,384	1291	3,641	17	47	14,736	6,645	51	2,387
	2급	18,654	84	130	2,770	39	68	2,052	13	14	11,644	2,480	22	101
	3급	6,319	7	16	1305	5	9	782	3	5	3,962	509	12	16
활동 지원 등급	1등급	20,153	2,879	2,201	-	1,428	1368	-	6	34	8,070	1,638	25	2,504
	2등급	19,980	-	-	4,012	-	-	2,715	9	15	9,363	3,837	29	-
	3등급	16,173	-	-	3,008	-	-	2,120	8	9	8,400	2,615	13	-
	4등급	10,414	-	-	2,685	-	-	1640	10	8	4,509	1544	18	-
기초생활수급자	22,193	1,931	1,514	6898	940	876	4257	14	57	4,330	1,082	50	244	
차상위계층	6,364	298	201	729	170	130	518	4	3	3,270	801	7	233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24,504	432	354	1,599	183	201	834	13	5	15,366	4,076	19	1422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2,986	230	126	468	132	163	849	3	2	6,727	3,585	8	693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7,397	122	85	426	49	48	201	2	1	4,977	1,049	4	433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5,051	103	86	324	52	43	150	1	-	3,121	843	4	324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 이용건수는 2013년 34,424건에서 2018년 61,4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함
  - 추가급여 유형별로 보면, 학교생활이 30,342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과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가 24,50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2,193건으로 많음.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경우, 추가급여 유형 중 학교 생활이 15,366건으로 약 62.7%를 차지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가 10,343건으로 약 46.6%를 차지함



## ⑥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긴급 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계	계	처	남편	부	모	자	제	형수	매부	제부	사누이	기타
2013	50	47	15	1	2	3	3	—	—	1	—	—	20
2014	97	67	25	1	1	2	1	1	4	1	1	1	29
2015	166	68	20	—	2	2	1	1	1	3	1	1	36
2016	258	90	7	—	—	—	1	—	1	—	—	—	81
2017	341	100	5	—	—	—	—	—	1	—	—	—	94
2018	380	116	—	—	—	—	—	—	—	—	—	—	116
1급	228	89	—	—	—	—	—	—	—	—	—	—	89
2급	108	21	—	—	—	—	—	—	—	—	—	—	21
3급	44	6	—	—	—	—	—	—	—	—	—	—	6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기타'는 행복e음 시스템 상 관계코드 없이 입력 된 자료임

3)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상황과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안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기준 긴급지원이용자는 38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9명 증가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228명, 2급이 108명, 3급이 44명 긴급지원을 받고 있음
- 2018년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이용자는 1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6명 증가함
  -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89명, 2급이 21명, 3급이 6명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음

## ⑦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계	급여 이용률				1인 평균 생성액	1인 평균 이용액
		미사용	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전체	76,992	800	671	1,554	42,175	31,792	1,307,438
1등급	24,688	126	205	615	14,159	9,583	1,988,142
2등급	24,545	175	183	394	11,352	12,441	1,163,980
3등급	17,962	241	163	313	11,188	6,057	913,497
4등급	9,780	252	119	229	5,473	3,707	673,182
긴급활동지원	17	6	1	3	3	4	1,012,000
기초생활수급자	25,067	506	291	669	13,785	9,816	1,463,015
차상위계층	7,419	54	68	149	4,068	3,080	1,308,094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16,481	82	111	277	9,121	6,890	1,155,005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4,009	90	105	232	7,642	5,940	1,109,478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8,245	38	56	128	4,513	3,510	1,098,437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5,754	24	39	96	3,043	2,552	1,147,068

주: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80~100%미만이 42,175명으로 가장 많음. 또한, 100% 이용자는 31,792명인 반면, 미사용자는 800명임.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인 평균 생성액과 이용액은 각각 1,307,438원, 1,311,870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긴급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1인 평균 생성액이 이용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⑧ 본인부담금 수준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전체	면제	2만원	2~4만원	4~6만원	6~8만원	8~10만원	10~12만원	12만원 이상	1인 평균 부담액
2013	60,524	28,738	5,430	2,334	4,875	7,220	10,045	1,147	675	34,887
2014	64,419	28,634	6,005	2,666	5,949	8,239	10,637	1,461	828	36,870
2015	71,707	21,811	7,858	4,315	9,407	11,275	9,918	5,784	1,339	46,731
2016	79,233	24,292	8,121	3,866	10,882	13,006	6,640	10,544	1,882	47,459
2017	86,388	26,476	8,633	4,655	12,453	11,224	8,076	12,376	2,495	48,040
2018	93,823	29,303	8,891	2,481	7,548	16,367	9,421	15,662	4,110	53,065
기초생활수급자	29,286	29,286	-	-	-	-	-	-	-	-
차상위계층	8,886	-	8,886	-	-	-	-	-	-	2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20,088	-	5	2,476	5,114	10,768	1,251	122	342	61,809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7,752	-	-	5	2,433	4,087	5,398	4,489	1,322	89,773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10,504	-	-	-	1	1,247	2,250	5,771	1,222	106,422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초과	7,290	-	-	-	-	265	522	5,280	1,224	116,302
긴급활동지원	17	17	-	-	-	-	-	-	-	-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실·납부액 기준으로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1인 평균 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인 평균 부담액은 53,065원임

- 면제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으로 6~8만원 부담하는 경우가 16,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10~12만원 15,662건, 8~10만원 9,421건, 2만원 8,891건 순임

⑨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활동 보조인 교육 기관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활동	전체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관	IL센터	지역 자활센터	노인장기 요양기관	사회 복지관	기타사회 복지시설	기타	
2013	1,039	689	229	121	—	689	138	148	110	106	30	45	54	56	41
2014	1,057	723	224	110	—	723	157	143	114	108	47	31	59	64	42
2015	1,083	751	227	105	—	751	164	143	120	104	49	33	59	79	42
2016	945	756	143	33	13	756	130	125	158	80	20	23	4	216	53
2017	964	767	26	142	29	798	69	107	125	73	20	25	66	313	51
2018	973	774	26	138	35	799	69	105	127	70	20	24	66	318	56
서울	116	96	4	14	2	136	3	17	51	10	—	6	6	43	10
부산	70	63	1	1	5	63	8	5	11	3	—	1	11	24	3
대구	34	30	—	3	1	30	5	4	2	4	—	1	5	9	3
인천	45	34	1	9	1	33	2	3	5	3	3	—	1	16	2
광주	32	26	—	3	3	27	4	—	8	—	1	1	1	12	2
대전	25	23	—	—	2	22	4	3	2	2	—	—	1	10	2
울산	12	7	3	1	1	11	—	—	2	—	1	—	1	7	2
세종	6	5	1	—	—	6	—	—	—	—	—	—	—	6	1
경기	194	168	5	15	6	130	6	23	23	7	—	6	14	51	11
강원	48	32	1	15	—	37	2	8	2	6	4	1	1	13	2
충북	35	26	3	5	1	29	4	8	5	—	1	—	—	11	2
충남	56	44	—	9	3	45	5	9	4	4	2	—	5	16	2
전북	56	36	1	17	2	52	4	7	1	10	1	2	8	19	3
전남	75	57	2	15	1	71	8	5	7	8	2	2	3	36	3
경북	63	48	1	12	2	39	9	7	1	7	—	3	3	9	5
경남	96	74	1	17	4	62	5	6	3	6	5	1	4	32	2
제주	10	5	2	2	1	6	—	—	—	—	—	—	2	4	1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활동보조인 등록인원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인원을 의미하며, 계약해지자는 제외됨

3) 활동인원은 당월 결제 내역이 있는 인원을 의미함

4) 시도별로 활동지원인력이 중복 등록되어 시도별 합과 전체 등록인이 불일치 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활동지원기관은 973개소, 활동보조기관은 799개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56개소임

-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보조지원기관이 774개소로 가장 많은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목욕은 26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방문간호는 13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활동보조기관의 경우 IL센터가 127개소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복지관 105개소, 지역자활센터 70개소, 장애인단체 69개소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기관은 각각 서울, 경기, 경남이 많았고,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경우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남



## ㉑ 활동보조인 현황

〈표 10-3-12〉 활동보조인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 근무시간 및 월 평균 보수

(단위: 명, 시간, 원)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보수
2013	67,823	40,448	130	941,499
2014	56,531	46,812	128	916,323
2015	61,366	52,761	125	936,221
2016	64,145	58,102	135	1,267,490
2017	68,167	62,629	122	982,898
2018	72,981	68,673	96	1,106,269
남	8,351	7,744	94	1,120,250
여	64,623	60,929	96	1,104,494
20대 미만	62	49	50	555,197
20대	1,470	1,289	76	930,457
30대	4,119	3,743	85	1,004,367
40대	16,870	15,846	92	1,065,452
50대	31,780	29,759	99	1,137,879
60대	17,037	15,880	98	1,129,457
70대 이상	1,643	1,523	92	1,057,765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2014년 활동보조인 월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보수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활동보조인 38,356명의 것에 해당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활동보조인의 활동인원은 68,673으로 매해 증가 추세임
- 2018년 월 평균 근무시간은 96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월 평균 보수는 1,106,269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활동보조 활동인원이 60,929명으로 남성 7,744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연령별 활동인원은 40~50대가 전체의 약 75%로 나타남

## (2) 대상별 지원서비스

### 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42,779	801	3,070	28,313
2011	48,111	996	4,166	35,119
2012	56,111	1,178	4,647	39,486
2013	63,811	1,520	5,166	46,979
2014	62,911	1,570	5,526	50,769
2015	65,192	1,646	5,025	51,609
2016	70,019	1,791	5,358	52,200
2017	69,813	1,882	5,398	52,830
2018	76,288	2,207	5,667	55,702
2월		2,016	5,329	52,513
3월		2,017	5,503	52,159
4월		2,023	5,665	53,354
5월		2,023	5,827	53,820
6월		2,022	5,757	53,862
7월	—	2,028	5,699	54,079
8월		2,031	5,633	53,443
9월		2,035	5,475	53,855
10월		2,030	6,070	54,210
11월		2,028	5,678	54,998
12월		2,207	5,667	55,702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2) 월별추진실적은 2018년 각 월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2010년 42,779백만원에서 2018년 76,288백만원으로, 제공기관은 2010년 801개소에서 2018년 2,207개소로, 이용자는 2010년 28,313명에서 2018년 55,70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인력은 2018년 5,66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603	80	—	196
2011	2,412	517	64	1,083
2012	2,412	500	102	1,087
2013	1,930	503	249	924
2014	624	585	123	313
2015	1,930	636	145	398
2016	507	655	152	421
2017	507	682	128	387
2018	507	658	110	353
2월		679	127	381 (836)
3월		679	127	389 (845)
4월		677	135	389 (834)
5월		668	134	379 (817)
6월		668	131	371 (808)
7월	—	668	129	372 (799)
8월		668	132	359 (749)
9월		669	123	350 (715)
10월		667	122	347 (691)
11월		666	113	347 (688)
12월		658	110	353 (679)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2) 월별추진실적은 2018년 각 월

3) 이용자 수에 ( )안 수치는 바우처 생성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07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 ③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돌보미		이용자	
			등록	활동	계획	실 인원
2010	1,570	16	509	282	688	714
2011	4,038	17	1,372	994	2,500	3,149
2012	4,038	17	1,485	1,335	2,500	3,259
2013	4,663	18	1,647	1,443	3,000	3,684
2014	7,091	18	1,962	1,836	3,000	3,012
2015	8,043	18	2,205	2,073	3,300	3,331
2016	8,206	18	2,137	2,022	3,300	3,318
2017	8,960	17	2,252	2,013	3,725	3,349
2018	11,277	18	2,457	2,090	3,725	3,470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10년 1,570백만원에서 2018년 11,277백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의 수는 2010년 282명에서 2018년 2,090명으로, 이용 실 인원은 2010년 714명에서 2018년 3,47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④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	연 인원
2006	200	2	54	2,635
2007	400	8	95	23,223
2008	400	10	118	40,600
2009	640	16	230	61,786
2010	640	16	300	70,000
2011	640	28	340	63,682
2012	640	30	336	62,542
2013	576	31	307	50,024
2014	893	31	383	50,187
2015	612	35	296	45,782
2016	1,596	48	419	55,196
2017	1,596	42	421	69,888
2018	1,637	42	412	99,930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2012	876	388	579
2013	876	391	587
2014	639	410	610
2015	1,426	779	1,160
2016	1,124	850	1,271
2017	1,222	942	1,404
2018	1,122	1,122	1,219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2018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1백만원 증가함. 프로그램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연 이용인원수는 약 3만명 증가함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과 결산액은 1,222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집행건수는 1,219건임

##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 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양성인원	심판청구 건수	활동인원
2013	646	211	868	27	15
2014	1,158	504	714	290	127
2015	1,023	704	924	177	182
2016	1,501	776	815	119	211
2017	1,176	789	900	366	278
2018	1,176	1,061	721	399	337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제공기관	이용인원
2013	1,279	108	60	367
2014	1,608	360	247	682
2015	1,608	332	162	858
2016	900	335	137	661
2017	900	413	234	673
2018	601	450	287	847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1,176백만원, 1,061백만원임.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양성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심판청구 건수, 활동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은 60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결산액, 제공기관, 이용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증감함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지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단,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 제외 대상: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총 인원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2015	500	386	4,712	1,567	2,261	884
2016	1,000	905	9,028	2,816	4,592	1,620
2017	1,000	989	8,993	3,308	4,360	1,896
2018	1,210	1,104	10,556	2,979	6,025	1,552

주: 1) 2018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됨

3) 기존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은 1,21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가족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함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 (3) 복지시설

#### ① 장애인 거주시설

〈표 10-3-21〉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397	26,912	23,243	38	2,697	2,230	14	1,096	760	11	792	519	172	10,733	9,539
2010	452	28,571	24,39	40	2,640	2,055	14	1,092	744	10	732	462	196	11,463	10,178
2011	490	29,419	25,345	39	2,594	2,102	15	1,122	787	9	552	361	226	12,161	10,788
2012	1,348	35,545	30,640	40	2,563	2,057	16	1,151	786	8	519	335	278	13,366	11,748
2013	1,397	35,813	31,152	39	2,468	1,978	16	1,151	770	8	482	320	293	13,422	12,001
2014	1,457	35,860	31,406	44	2,627	2,208	15	991	632	7	373	270	309	13,562	12,136
2015	1,484	35,746	31,222	39	1,933	1,668	16	970	628	7	373	255	321	13,971	12,369
2016	1,505	35,232	30,980	40	2,178	1,766	17	1,010	711	7	373	228	317	13,450	12,112
2017	1,517	34,855	30,693	39	2,047	1,690	17	1,011	700	7	363	232	313	13,394	12,008
2018	1,527	34,345	30,152	33	1,754	1,418	16	907	662	7	363	223	320	13,319	11,865
서울	276	4,469	3,738	2	130	99	3	202	108	1	62	28	19	942	778
부산	75	1,610	1,402	3	157	122	1	36	23	0	0	0	14	785	703
대구	51	1,758	1,503	2	300	235	0	0	0	0	0	0	7	606	511
인천	71	1,318	1,062	2	154	77	1	70	50	1	50	19	8	264	238
광주	80	1,098	991	4	130	108	1	45	34	0	0	0	14	454	420
대전	74	1,350	1,209	1	70	60	1	70	54	0	0	0	8	412	368
울산	25	708	650	0	0	0	0	0	0	1	55	31	1	60	60
세종	4	169	158	0	0	0	0	0	0	0	0	0	3	109	102
경기	313	6,871	6,111	6	135	118	4	124	100	2	96	68	80	2,875	2,560
강원	68	1,684	1,543	1	29	22	1	80	67	0	0	0	18	680	617
충북	87	2,209	1,926	3	120	105	2	130	94	1	85	62	19	818	732
충남	60	2,030	1,788	0	0	0	0	0	0	0	0	0	20	1,146	1,024
전북	71	2,003	1,716	4	169	129	1	50	46	0	0	0	32	1,162	1,017
전남	58	1,518	1,303	2	129	127	1	100	86	1	15	15	27	874	759
경북	88	2,815	2,548	1	97	83	0	0	0	0	0	0	28	1,104	1,012
경남	94	2,121	1,920	2	134	133	0	0	0	0	0	0	15	780	727
제주	32	614	584	0	0	0	0	0	0	0	0	0	7	248	237

주 1)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생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2)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517개소로 나타남.

- 최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함.



〈표 10-3-21〉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계속)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153	11,042	9,728	9	552	467	-	-	-	-	-	-
2010	182	12,052	10,364	10	592	491	-	-	-	-	-	-
2011	191	12,404	10,798	10	586	509	-	-	-	-	-	-
2012	201	12,536	11,006	10	592	510	128	1,683	1,438	667	3,140	2,760
2013	216	12,904	11,412	9	528	473	131	1,724	1,432	685	3,134	2,766
2014	223	12,802	11,344	9	539	466	137	1,766	1,495	713	3,200	2,855
2015	233	12,762	11,314	10	622	541	141	1,783	1,548	717	3,276	2,862
2016	233	12,514	11,192	9	522	452	146	1,902	1,616	736	3,283	2,903
2017	1,517	34,855	30,693	39	2,047	1,690	17	1,011	700	7	363	232
2018	239	12,221	10,995	9	522	398	150	1,975	1,671	753	3,284	2,920
서울	25	1,818	1,519	2	95	85	40	455	432	184	765	689
부산	6	314	293	2	91	67	2	30	32	47	197	162
대구	9	586	523	1	96	80	2	26	22	30	144	132
인천	11	507	452	1	50	30	5	56	47	42	167	149
광주	5	199	179	0	0	0	4	59	53	52	211	197
대전	11	421	397	0	0	0	19	241	212	34	136	118
울산	8	465	447	0	0	0	6	92	80	9	36	32
세종	1	60	56	0	0	0	0	0	0	0	0	0
경기	50	2,540	2,357	1	100	80	27	339	236	143	662	592
강원	15	704	649	0	0	0	6	70	76	27	121	112
충북	12	814	716	0	0	0	3	45	38	47	197	179
충남	14	667	617	0	0	0	7	118	74	19	99	73
전북	12	463	400	1	50	30	2	20	18	19	89	76
전남	7	297	231	0	0	0	3	35	24	17	68	61
경북	32	1,392	1,260	0	0	0	9	141	125	18	81	68
경남	15	730	658	1	40	26	11	194	157	50	243	219
제주	6	244	241	0	0	0	4	54	45	15	68	61

주 1)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2)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3.

- 각 지역별 전체 시설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13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6개소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753개소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거주시설 376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39개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50개소 순임

〈표 10-3-22〉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시설 유형	시설 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장애인 유형별 시설	30인 이하	235	42.5%	4,893	18.5%	256	44.1%	5,412	20.1%	280	46.1%	5,987	22.1%
	31~99인	275	49.7%	14,936	56.5%	280	48.2%	14,870	55.2%	286	47.1%	14,991	55.4%
	100인 이상	43	7.8%	6,613	25.0%	45	7.7%	6,672	24.8%	41	6.8%	6,078	22.5%
	소계	553	100.0%	26,442	100.0%	581	100.0%	26,954	100.0%	607	100.0%	27,056	100.0%
단기거주 시설	30인 이하	128	100.0%	1,438	100.0%	131	100.0%	1,432	100.0%	137	100.0%	1,495	100.0%
	31~99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28	100.0%	1,438	100.0%	131	100.0%	1,432	100.0%	137	100.0%	1,495	100.0%
공동생활 가정	30인 이하	667	100.0%	2,760	100.0%	684	99.9%	2,735	98.9%	713	100.0%	2,855	100.0%
	31~99인	0	0.0%	0	0.0%	1	0.1%	31	1.1%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667	100.0%	2,760	100.0%	685	100.0%	2,766	100.0%	713	100.0%	2,855	100.0%
계	30인 이하	1,030	76.4%	9,091	29.7%	1,071	76.7%	9,579	30.7%	1,130	77.6%	10,337	32.9%
	31~99인	275	20.4%	14,936	48.7%	281	20.1%	14,901	47.8%	286	19.6%	14,991	47.7%
	100인 이상	43	3.2%	6,613	21.6%	45	3.2%	6,672	21.4%	41	2.8%	6,078	19.4%
	계	1,348	100.0%	30,640	100.0%	1,397	100.0%	31,152	100.0%	1,457	100.0%	31,406	100.0%

주 1) '시설유형' 구분에서 '장애인유형별 시설'은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영양아 거주시설을 포함

2) '시설규모' 구분 기준은 '시설소규모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 구분기준인 '100인 이상 대규모비율 축소'와 변경된 '30인 이하 시설 비율 확대'의 기준을 따라 '30인 이하',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함(김성희 외(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2017), 참고)

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년~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재산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18년 12월 현재 30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1,232개소로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거주인원도 2012년 9,091명(전체의 29.7%)에서 2018년 12,256명(전체의 40.6%)으로 약 3,160명 이상(10.9%p) 증가함
- 30인 이하 규모 장애인유형별 시설의 경우, 2012년 235개소(4,893명)에서 2018년 329개소(7,665명)로, 단기거주 시설의 경우 2012년 128개소(1,438명)에서 2018년 150개소(1,671명)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12년 667개소(2,760명)에서 2018년 753개소(2,920명)로 각각 증가 함
- 31~99인 규모 및 100인 이상 규모 장애인유형별 시설의 경우, 전자는 2012년 275개소(14,936명)에서 2018년 264개소(13,393명)로, 후자는 2012년 43개소(6,613명)에서 2018년 31개소(4,053명)로 각각 감소함
- ※ 31~99인 및 100인 이상 규모의 단기거주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거주인원 변동은 없었음



〈표 10-3-22〉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계속)

(단위: 개소, 명, %)

시설 유형	시설 규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장애유형 별 시설	30인 이하	308	49.2%	6,579	24.5%	314	50.4%	7,078	26.7%	313	50.6%	7,280	27.9%	329	52.7%	7,665	30.0%
	31~99인	279	44.6%	14,499	54.1%	275	44.1%	14,316	54.1%	272	44.0%	13,941	53.5%	264	42.3%	13,393	52.4%
	100인 이상	39	6.2%	5,734	21.4%	34	5.5%	5,067	19.1%	33	5.3%	4,834	18.6%	31	5.0%	4,503	17.6%
	소계	626	100.0%	26,812	100.0%	623	100.0%	26,461	100.0%	618	100.0%	26,055	100.0%	624	100.0%	25,561	100.0%
단가족 시설	30인 이하	141	100.0%	1,548	100.0%	146	100.0%	1,616	100.0%	147	100.0%	1,699	100.0%	150	100.0%	1,671	100.0%
	31~99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41	100.0%	1,548	100.0%	146	100.0%	1,616	100.0%	147	100.0%	1,699	100.0%	150	100.0%	1,671	100.0%
공동생활 가정	30인 이하	716	99.9%	2,786	97.3%	736	100.0%	2,903	100.0%	752	100.0%	2,939	100.0%	753	100.0%	2,920	100.0%
	31~99인	1	0.1%	76	2.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717	100.0%	2,862	100.0%	736	100.0%	2,903	100.0%	752	100.0%	2,939	100.0%	753	100.0%	2,920	100.0%
계	30인 이하	1,165	78.5%	10,913	35.0%	1,196	79.5%	11,597	37.4%	1,212	79.9%	11,918	38.8%	1,232	80.7%	12,256	40.6%
	31~99인	280	18.9%	14,575	46.7%	275	18.3%	14,316	46.2%	272	17.9%	13,941	45.4%	264	17.3%	13,393	44.4%
	100인 이상	39	2.6%	5,734	18.4%	34	2.3%	5,067	16.4%	33	2.2%	4,834	15.7%	31	2.0%	4,503	14.9%
	계	1,484	100.0%	31,222	100.0%	1,505	100.0%	30,980	100.0%	1,517	100.0%	30,693	100.0%	1,527	100.0%	30,152	100.0%

주: 1) '시설유형' 구분에서 '장애유형별 시설'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영양아 거주시설을 포함

2) '시설규모' 구분 기준은 '시설소규모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 구분기준인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축소'와 변경된 '30인 이하 시설 비율 확대'의 기준을 따라 '30인 이하',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함(김성희 외(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수립방안 연구」(2017). 참고)

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년~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재산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규모로 소규모화 하고 체험홈 등 시설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 또는 분리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권장하여 전체 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연차별로 확대함
- 보건복지부 중점과제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의 세부과제로서 정부 국정과제 반영 과제인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로의 이전'에 해당(김성희 외(2017). 참고)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③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표 10-3-2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수련시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2010	1,708	10,004	191	5,372	443	1,472	27	312	154	870	176	684	23	103	2	11	0	0
2011	1,834	10,803	199	5,825	485	1,624	27	327	156	875	180	700	27	106	4	10	0	0
2012	1,140	9,741	205	5,856	526	1,715	28	374	156	895	191	771	30	117	4	13	0	0
2013	1,184	10,437	219	6,271	558	1,958	29	334	155	946	199	830	23	92	1	6	0	0
2014	1,213	10,716	223	6,359	592	2,111	29	369	156	944	193	835	19	92	1	6	0	0
2015	1,248	11,037	224	6,423	625	2,291	30	388	156	959	193	877	19	93	1	6	0	0
2016	1,303	11,914	231	6,920	663	2,534	34	421	159	979	194	897	20	103	2	60	0	0
2017	1,333	12,229	237	7,041	690	2,743	33	414	157	961	194	911	20	106	1	53	0	0
2018	1,373	12,556	241	7,041	724	2,980	33	428	159	997	195	945	19	107	1	54	1	4
서울	208	2,775	49	1,776	121	387	7	182	1	210	26	155	2	7	1	54	1	4
부산	82	600	15	349	59	174	1	22	1	20	5	24	1	11	0	0	0	0
대구	63	394	6	165	48	156	2	23	1	17	5	27	1	6	0	0	0	0
인천	50	505	10	320	37	136	0	0	1	18	1	23	1	8	0	0	0	0
광주	44	377	7	196	34	141	1	5	1	14	1	21	0	0	0	0	0	0
대전	59	495	8	258	41	160	3	29	1	12	5	32	1	4	0	0	0	0
울산	47	320	4	119	38	119	2	48	1	16	1	14	1	4	0	0	0	0
세종	5	58	1	27	2	16	0	0	1	8	1	7	0	0	0	0	0	0
경기	233	2,558	35	1,355	127	785	4	42	31	189	31	156	5	31	0	0	0	0
강원	62	449	7	214	17	69	0	0	19	77	18	84	1	5	0	0	0	0
충북	51	498	12	295	16	80	1	20	11	51	10	44	1	8	0	0	0	0
충남	61	608	15	379	13	63	2	11	15	84	15	67	1	4	0	0	0	0
전북	81	568	13	299	32	112	4	20	15	68	15	61	2	8	0	0	0	0
전남	83	676	18	400	26	122	2	6	18	75	19	73	0	0	0	0	0	0
경북	113	767	20	407	45	185	3	17	22	75	22	77	1	6	0	0	0	0
경남	104	584	16	304	49	160	1	3	19	50	19	67	0	0	0	0	0	0
제주	27	324	5	178	19	115	0	0	1	13	1	13	1	5	0	0	0	0

주: 1)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2)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5.8.3., 일부개정)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따름.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음  
 4)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4.

- 2018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1,373개소, 12,556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이 72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과 수련시설은 각각 1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전체 233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8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체육관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그 수가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인천, 세종, 강원과 제주에는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광주, 세종, 전남, 경남 지역에 1개소도 없었으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시설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



##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10-3-2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시설 수	종사자수
2009	18	868
2010	18	921
2011	17	889
2012	18	-
2013	18	946
2014	18	892
2015	18	1,076
2016	20	1,279
2017	19	1,397
2018	19	1,397
서울	6	638
부산	1	8
대구	1	9
인천	2	152
광주	0	0
대전	2	229
울산	0	0
세종	0	0
경기	0	0
강원	1	160
충북	1	16
충남	1	6
전북	0	0
전남	0	0
경북	1	38
경남	2	113
제주	1	28

주: 1) 2012년 종사자 수는 미 조사됨

2)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4.

-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2015년까지 18개소(2011년 제외)를 유지하다가, 2016년 20개로 증가하고 2017년에 19개로 감소하여 유지되고 있음. 종사자수는 2016년 1,279명에서 2017년 1,397명으로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6개소로 가장 많았고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지역은 의료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시설 수	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종사자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정원	현원
2010	417	11,770	44	1,761	373	10,009	2,395	2,052
2011	456	12,870	53	2,190	403	10,680	2,504	2,260
2012	478	13,758	56	2,384	422	11,374	2,763	2,488
2013	511	14,739	64	2,653	447	12,086	3,187	2,820
2014	541	15,651	64	2,721	477	12,930	3,553	3,160
2015	560	16,414	64	2,798	496	13,616	3,590	3,133
2016	582	17,131	63	2,762	516	14,335	4,115	3,256
2017	625	17,841	62	2,724	553	14,960	4,534	3,732
2018	651	18,205	63	2,690	573	15,262	15	253
서울	132	4,138	12	674	115	3,358	5	106
부산	39	1,121	2	58	36	1,033	1	30
대구	42	1,121	5	209	37	912	0	0
인천	34	903	3	150	31	753	0	0
광주	23	752	4	159	19	593	0	0
대전	24	584	4	128	18	431	2	25
울산	14	282	1	30	13	252	0	0
세종	4	94	0	0	4	94	0	0
경기	115	3,224	13	562	95	2,570	7	92
강원	35	801	4	133	31	668	0	0
충북	22	754	1	76	21	678	0	0
충남	20	675	0	0	20	675	0	0
전북	21	522	2	59	19	463	0	0
전남	20	445	2	40	18	405	0	0
경북	44	1,206	2	102	42	1,104	0	0
경남	52	1,213	5	162	47	1,051	0	0
제주	10	370	3	148	7	222	0	0

주: 1) 종사자는 근로장애인을 관리 감독하는 비장애인 직원을 의미함

2)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5.

- 2018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651개소, 종사자 수는 4,77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보호작업장의 시설 수와 근로장애인의 수는 증가함
-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51개소 중 132개소(약 20.3%)가 서울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⑤ 정신보건기관

〈표 10-3-26〉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합계				2,015	2,069	2,144	2,214	2,270	2.5
정신 보건 시설	정신보건시설 소계			1,717	1,769	1,841	1,910	1,962	2.7
	의료 기관	병원	국립정신병원	6	6	6	6	6	-
			공립정신병원	12	12	12	12	12	-
			사립정신병원	169	174	174	164	136	-20.6
			종합병원정신과	181	186	185	197	198	0.5
			병원정신과	133	129	134	140	181	22.7
		의원	정신과의원	853	895	938	996	1,021	2.4
	의료기관 소계			1,354	1,402	1,449	1,515	1,554	2.5
	정신요양시설			59	59	59	59	59	-
	사회복귀시설			304	308	333	336	349	3.7
지역 사회 재활 기관	지역사회재활기관 소계			298	300	303	304	308	1.3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1	12	15	16	16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89	200	209	210	227	7.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50	50	50	50	-
	기본형정신건강증진사업 <sup>2)</sup>			48	38	29	28	15	-86.7

주 1) 2015년부터 국고미지원 시설을 포함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보건소 기본형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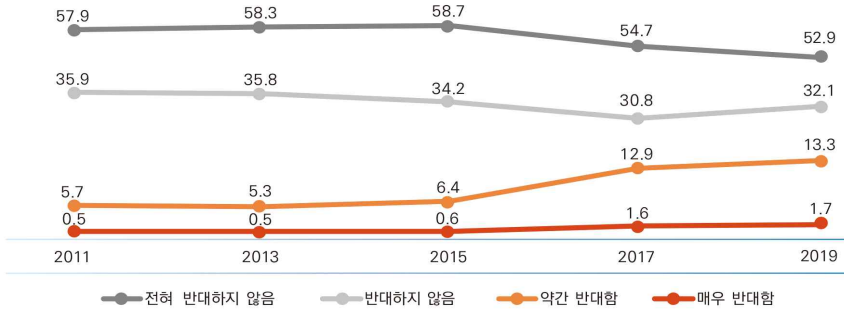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국가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94.

- 2017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은 2,270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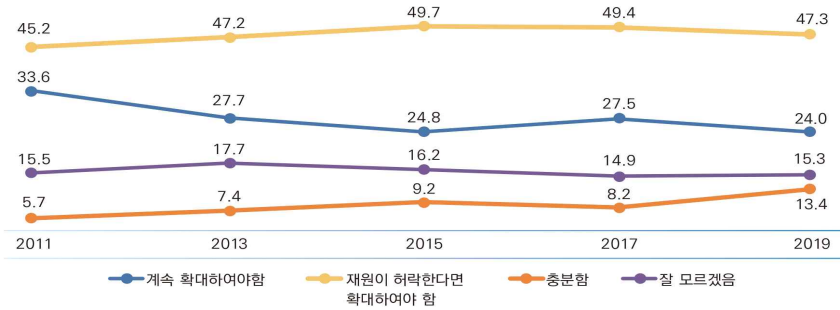
-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의료기관이 1,554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정신과의원이 1,021개소로 가장 많음
- 지역사회재활기관에서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22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1. 인권보호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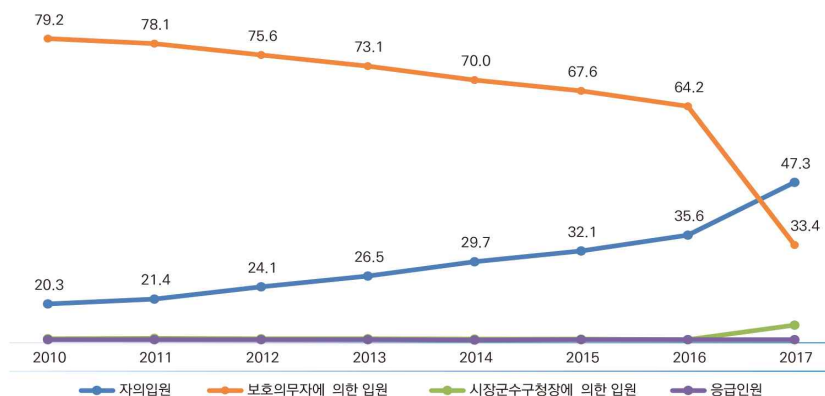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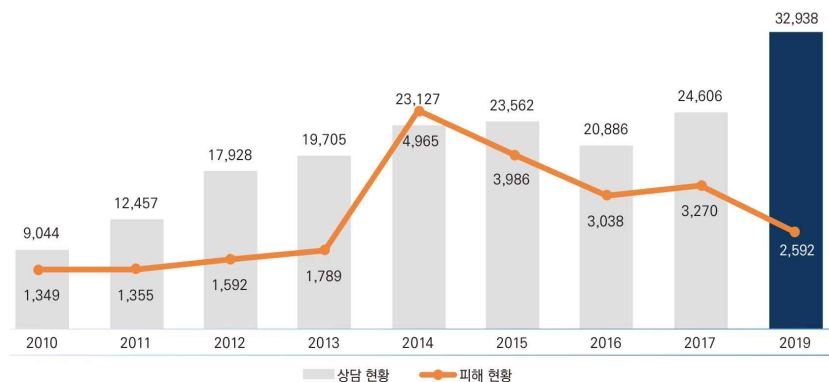
-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0%가 반대하지 않는 것(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15.0%로 2017년 14.5%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함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7.3%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19년 24.0%로 2017년 27.5%에 비해 감소함



[그림 2-11-3]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정신보건시설입원 현황은 2017년 전체 77,161명으로 자의에 의한 입원이 47.3%로 201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가족에 의한 입원은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특히 2018년 성폭력 상담건수는 32,938건으로 전년 대비 8,332건 증가함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592건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

## 1) 사회적 차별

### (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노년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37.1	29.9	41.5	19.9	19.7	34.9	43.8	58.9
	초등학교	40.3	37.8	44.6	18.7	29.7	58.1	49.7	67.0
	중학교	33.0	29.5	42.9	17.5	24.8	25.5	41.2	58.0
	고등학교	26.0	17.9	29.3	9.9	20.6	42.2	38.1	53.9
	대학교	11.6	6.1	18.2	3.0	16.6	—	18.6	44.6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9.8	15.7	20.3	7.8	14.2	19.3	31.6	27.8
	또래학생으로부터	50.7	49.7	46.0	29.4	41.4	61.1	66.7	53.7
	학부모로부터	18.4	12.5	19.8	7.6	8.3	38.8	32.6	24.4
결혼		17.9	15.0	19.9	14.4	18.1	18.3	51.2	—
취업		30.9	25.5	46.5	23.1	34.0	55.0	55.3	67.3
직장 생활	소득(임금)	19.4	15.3	32.6	11.9	21.3	42.2	54.3	67.3
	동료와의 관계	17.6	11.8	34.7	11.0	27.3	30.4	38.3	42.7
	승진	12.4	10.7	18.2	8.6	12.8	14.2	21.1	18.4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8.9	3.6	8.7	25.4	9.6	8.2	47.7	73.7
보험제도 상(계약 시)		36.4	29.9	46.0	32.6	27.4	52.3	65.7	78.4
의료기관 이용 시		4.0	1.8	5.9	2.7	6.0	3.1	11.7	24.1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9	0.3	1.0	4.0	8.4	3.9	1.7	—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8.1	3.9	11.7	5.3	10.3	7.6	25.7	48.9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19.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50.7%,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40.3%, '유치원 입학·전학 시' 37.1%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과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각각 49.7%, 37.8%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뇌병변장애인은 취업에서의 차별이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험제도 상(계약 시)에서의 차별과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이 46.0%로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남. 시각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에서의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각각 32.6%, 29.4%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청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 41.4%, 취업 34%,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29.7%로 여러 분야에서 높은 차별을 경험하였고, 언어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 61.1%,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58.1%, 보험제도 상(계약 시) 52.3%로 전 영역에 걸쳐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또한 전 영역에 걸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취업과 직장생활 중 소득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노년증
입학·전학	유치원(보육시설)	-	-	-	-	-	39.3	53.3	-
	초등학교	54.5	37.4	-	53.3	16.4	46.7	53.3	20.5
	중학교	35.7	37.4	19.1	61.9	-	51.9	40.2	21.2
	고등학교	25.2	22.8	-	34.9	-	33.4	40.2	18.4
	대학교	30.1	41.8	-	-	-	-	-	-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5.0	17.8	12.7	37.5	-	13.7	-	15.5
	또래학생으로부터	42.2	39.8	12.7	100.0	16.4	49.9	29.7	49.6
	학부모로부터	6.6	17.8	-	37.5	-	10.5	-	18.8
결혼		38.0	25.0	10.0	2.9	-	53.0	14.0	25.5
취업		61.5	46.3	-	6.3	17.4	59.8	32.1	33.5
직장 생활	소득(임금)	34.4	24.7	13.6	5.4	3.4	27.7	19.5	13.9
	동료와의 관계	44.0	17.7	-	-	4.2	1.7	24.7	32.8
	승진	27.3	17.6	-	-	10.2	6.6	7.8	6.6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14.4	6.5	-	1.9	-	-	-	61.0
보험제도 상(계약 시)		63.4	43.1	73.9	60.5	51.1	31.1	49.6	45.8
의료기관 이용 시		8.7	1.2	4.6	1.7	1.8	14.5	0.3	3.4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3	1.3	-	0.5	-	11.4	-	-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17.1	0.6	4.6	5.1	3.7	16.1	2.2	3.3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19.

- 신장장애인은 취업 46.3%, 보험제도 상(계약 시) 43.1%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심장장애인 또한 보험제도 상(계약 시) 73.9%로 높은 비율이 나타남
- 호흡기 장애인은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가장 높았고 대체적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 비율이 높음
- 간 장애인은 보험제도 상(계약 시) 51.1%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안면장애인은 전 영역에 있어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으며, 특히 결혼과 취업 영역에서 53.0%, 59.8%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루·요루장애인은 입학·전학 시와 보험제도 상(계약 시) 경험한 차별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37.1	36.2	38.5	40.8	39.6	27.5	14.7	43.1	19.2	36.8
	초등학교	40.3	37.8	43.8	42.7	44.2	39.7	29.5	47.3	28.9	40.4
	중학교	33.0	28.2	41.5	35.1	38.9	29.1	17.6	38.5	25.4	33.2
	고등학교	26.0	23.5	30.6	33.7	30.8	18.8	14.5	32.7	16.2	26.2
	대학교	11.6	10.1	14.6	33.0	15.1	6.1	5.4	19.0	5.0	11.4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19.8	18.5	21.9	19.1	24.1	19.1	10.1	24.9	11.9	19.7
	또래학생으로부터	50.7	47.8	55.4	50.0	53.5	51.3	42.3	58.0	40.4	50.9
	학부모로부터	18.4	18.3	18.5	20.8	22.6	16.4	9.3	23.6	10.5	18.4
결혼		17.9	15.8	21.7	—	27.5	21.6	11.7	27.5	13.2	17.9
취업		30.9	32.7	26.8	0.0	40.3	32.3	23.7	49.6	22.7	31.1
직장 생활	소득(임금)	19.4	20.3	17.5	0.0	29.5	19.1	15.0	35.1	12.9	19.6
	동료와의 관계	17.6	17.9	16.9	0.0	23.0	17.6	14.4	31.5	11.6	17.7
	승진	12.4	13.8	9.4	0.0	14.8	13.3	9.7	21.0	8.7	12.6
운전면허제도상(취득 시)		8.9	8.3	11.0	—	17.1	6.5	7.8	14.8	6.7	8.8
보험제도상(계약 시)		36.4	35.3	38.4	63.9	50.5	35.6	25.9	53.2	27.6	36.5
의료기관 이용 시		4.0	3.8	4.4	7.6	8.3	3.9	2.7	7.4	1.8	3.9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9	1.6	2.2	1.0	2.7	1.2	2.2	2.7	1.3	1.8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8.1	8.6	7.5	25.7	15.8	7.2	5.4	16.3	2.9	8.1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655-659.

-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특히 보험제도 상(계약 시)의 경우, 17세 이하의 차별 경험 비율이 63.9%이고, 65세 이상은 25.9%로 다른 영역에 비해 연령별 비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취업 그리고 보험제도상(계약 시)의 경우 중증이 경증에 비해 23.9%p, 26.9%p, 25.6%p 정도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11	항상 느낀다	8.7	5.8	11.1	7.9	10.5	27.7	18.1	29.5	18.7	5.1	1.1	4.9	7.8	25.9	10.0	19.4
	가끔 느낀다	31.2	27.3	35.2	30.6	39.7	40.8	40.5	31.6	38.6	24.4	23.3	26.1	27.0	72.4	17.2	39.1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8.4	38.4	34.9	36.5	25.8	24.5	17.0	28.5	36.2	30.3	46.6	40.6	-	47.1	34.3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8.6	15.4	26.5	13.3	5.7	16.9	21.9	14.2	34.3	45.3	22.5	24.5	1.7	25.7	7.2
2014	항상 느낀다	6.2	3.7	10.1	6.0	6.0	5.3	16.1	10.1	12.8	3.3	8.3	3.4	4.8	-	5.8	4.3
	가끔 느낀다	31.6	23.0	40.0	32.6	40.3	43.3	52.9	67.6	50.3	20.4	29.1	38.3	23.3	66.1	34.6	43.8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6.8	37.8	41.2	40.5	39.4	24.5	15.3	26.4	48.1	51.2	27.6	36.7	31.8	42.9	31.2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6.4	12.0	20.2	13.2	12.1	6.4	6.9	10.5	28.2	11.4	30.8	35.2	2.1	16.7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4.5	13.7	4.5	7.8	11.1	16.6	27.2	13.3	7.4	4.6	4.2	4.9	18.4	1.2	13.2
	가끔 느낀다	27.2	21.6	34.8	25.2	34	41.5	39.5	59.4	38.5	16.9	24.7	23.2	9.3	19.1	26.6	36.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8.2	39.1	47.8	46.4	42.3	35.1	11.2	43.6	53.5	46.7	50.0	51.0	26.0	46.1	3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25.6	12.3	22.5	11.8	5.1	8.8	2.3	4.7	22.2	24.1	22.7	34.7	36.5	26.0	15.3

주: 1) 무응답 제외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 2017년에 장애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인식한 장애인의 비율은 34.8%이며, 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65.2%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차별을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의 비율이 2014년에 비해 3.0%p 하락했음. 반면 '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비율은 2014년에 비해 3.0%p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인 중 86.6%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고, 지적장애인 56.1%, 언어장애 52.6%, 정신장애 51.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항상 느낀다	8.8	9.8	7.4	14.8	9.3	10.8	5.9	16.0	6.7	8.8
	가끔 느낀다	31.2	31.5	30.7	39	37.8	30.6	28.1	40.6	28.8	31.5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4.8	38.5	21.0	30.5	36.0	40.7	28.8	38.3	36.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3.9	23.4	25.1	22.3	22.6	25.3	14.7	26.2	23.6
2014	항상 느낀다	6.2	6.9	5.2	14.3	11.0	7.2	3.0	11.6	2.9	6.3
	가끔 느낀다	31.6	31.5	31.7	53.7	41.0	32.1	26.1	43.9	23.3	31.4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0.8	43.0	21.8	30.6	40.1	48.6	33.9	46.6	4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8.2	6.7	20.5	13.2	8.2	4.4	13.9	4.0	8.0
	가끔 느낀다	27.2	28.4	25.6	40.0	33.0	28.2	23.9	37.2	20.7	27.2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3.5	48.2	28.6	37.1	43.2	51.0	38.2	50.5	45.8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19.8	19.5	10.9	16.7	20.4	20.6	10.7	25.2	19.6

주: 무응답 제외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3.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59.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7세 이하는 60.5%로 다른 연령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별로 차별을 인식한 비율은 중증이 51.1%, 경증이 24.7%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3)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전혀 없다	0.8	1.0	0.7	0.9	0.6	1.1	1.4	-	0.3	-	-	-	-	-	-
	별로 없다	18.5	20.0	16.9	15.6	20.1	16.5	10.5	1.6	17.5	20.8	28.4	20.1	9.6	-	34.1
	약간 많다	48.3	48.3	47.1	50.9	51.1	27.1	45.0	41.2	45.6	43.9	44.8	62.2	66.8	61.2	52.2
	매우 많다	32.4	30.7	35.2	32.6	28.2	55.2	43.1	57.2	36.6	35.3	26.8	17.7	23.6	38.8	13.8
2014	전혀 없다	1.0	1.2	0.8	0.2	0.4	-	0.6	0.7	0.7	3.6	-	9.4	-	-	2.4
	별로 없다	26.4	30.4	20.5	28.5	24.7	28.2	9.8	14.1	19.9	28.0	21.0	15.3	26.4	23.4	33.2
	약간 많다	46.2	46.0	46.5	43.9	51.4	41.7	43.5	42.5	53.9	40.0	37.5	41.7	54.4	29.3	40.8
	매우 많다	26.4	22.4	32.1	27.4	23.5	30.1	46.2	42.8	25.4	28.4	41.5	33.7	19.2	47.2	23.6
2017	전혀 없다	1.8	2.1	2.2	1.3	2.0	1.6	1.0	-	1.6	0.6	-	-	0.9	-	1.2
	별로 없다	18.3	20.8	15.3	19.2	18.5	14.0	7.1	-	16.6	21.6	26.6	25.3	17.0	27.7	14.8
	약간 많다	46.0	46.2	44.8	48.9	50.7	42.2	41.6	24.0	40.5	44.9	45.6	48.6	55.9	19.1	53.2
	매우 많다	33.9	30.9	37.7	30.6	28.8	42.2	50.4	76.0	41.3	32.9	27.9	26.0	26.1	53.2	30.8

주: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 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조사 결과, '약간 많다'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많다' 33.9%, '별로 없다'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매우 많다'가 26.4%에서 33.9%로 7.5%p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의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76.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안면장애 53.2%, 뇌전증 51.0%, 지적장애 50.4%의 순임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전혀 없다	0.8	0.8	0.9	1.2	0.9	0.4	1.3	0.8	0.8	0.8
	별로 없다	18.5	17.0	20.5	9.4	11.6	16.2	24.7	14.0	19.6	18.3
	약간 많다	48.3	48.1	48.6	42.6	48.5	48.0	49.0	45.4	49.0	48.2
	매우 많다	32.4	34.1	30.0	46.9	39.0	35.4	25.0	39.8	30.6	32.7
2014	전혀 없다	1.0	0.8	1.3	0.4	0.3	0.4	1.9	1.1	0.9	1.0
	별로 없다	26.4	23.7	30.0	8.9	13.5	24.3	34.1	18.4	31.7	26.5
	약간 많다	46.2	47.0	45.2	44.9	47.1	45.1	47.0	46.2	45.6	45.8
	매우 많다	26.4	28.5	23.4	45.7	39.1	30.2	17.0	34.4	21.8	26.7
2017	전혀 없다	1.8	2.0	1.6	1.3	1.2	1.6	2.2	1.3	2.2	1.8
	별로 없다	18.3	17.4	19.5	7.1	10.8	14.9	24.0	13.6	21.4	18.3
	약간 많다	46.0	45.7	46.4	31.4	43.5	44.1	49.2	42.3	48.4	46.0
	매우 많다	33.9	34.9	32.5	60.2	44.5	39.4	24.6	42.8	28.1	33.9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는 '매우 많다'의 비율이 60.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매우 많다'의 비율은 24.6%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매우 많다'의 비율이 14.7%p정도 높게 나타남



## (4)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구분	계	전혀 반대하지 않음	반대하지 않음	약간 반대함	매우 반대함
2009	100.0	37.9	55.4	6.2	0.5
2011	100.0	35.9	57.9	5.7	0.5
2013	100.0	35.8	58.3	5.3	0.5
2015	100.0	34.2	58.7	6.4	0.6
2017	100.0	30.8	54.7	12.9	1.6
2019	100.0	32.1	52.9	13.3	1.7
도시(동부)	100.0	32.2	52.8	13.3	1.6
농어촌(읍면부)	100.0	31.8	53.2	13.3	1.8
남자	100.0	33.2	52.7	12.4	1.7
여자	100.0	31.1	53.1	14.2	1.7
장애인	100.0	42.1	47.5	9.1	1.3
비장애인	100.0	31.6	53.2	13.5	1.7
13 - 19세	100.0	36.4	50.6	11.5	1.5
20 - 29세	100.0	33.8	52.5	12.5	1.2
30 - 39세	100.0	31.7	52.3	13.9	2.1
40 - 49세	100.0	32.7	52.6	13.0	1.7
50 - 59세	100.0	32.9	52.1	13.7	1.4
60세 이상	100.0	29.0	55.2	14.0	1.9
65세 이상	100.0	28.1	56.0	14.1	1.9
초졸 이하	100.0	30.7	54.6	12.9	1.9
중졸	100.0	31.8	53.5	13.1	1.6
고졸	100.0	33.1	52.6	12.7	1.6
대졸 이상	100.0	31.8	52.4	14.1	1.7
전문 관리	100.0	33.8	50.9	14.0	1.3
사무	100.0	32.4	52.1	13.7	1.8
서비스판매	100.0	31.5	53.4	13.4	1.7
농어업	100.0	26.5	56.3	15.5	1.7
기능노무	100.0	33.2	52.7	12.4	1.8
100만원 미만	100.0	33.7	52.7	11.4	2.1
100~200만원 미만	100.0	34.2	51.0	13.2	1.6
200~300만원 미만	100.0	32.4	54.3	11.9	1.4
300~400만원 미만	100.0	30.0	55.0	13.7	1.3
400~500만원 미만	100.0	32.7	51.8	13.3	2.2
500~600만원 미만	100.0	32.3	51.6	14.6	1.6
600만원 이상	100.0	30.3	52.7	15.3	1.7

주: 1)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2) 2015년 사회조사까지 '장애인 관련 시설'의 문항에서 시설의 예시를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으로 명시한 반면, 2017년 사회조사에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함

자료: 통계청(2019),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0%가 반대하지 않는 것(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15.0%로 2017년 14.5%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함
-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인이 89.6%로 비장애인 84.8%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이상이 20대 이하 보다 높게 나타남

## (5)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계	계속 확대하여야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	100.0	34.4	59.8	5.4	0.4
2009	100.0	37.9	55.4	6.2	0.5
2011	100.0	33.6	45.2	5.7	15.5
2013	100.0	27.7	47.2	7.4	17.7
2015	100.0	24.8	49.7	9.2	16.2
2017	100.0	27.5	49.4	8.2	14.9
2019	100.0	24.0	47.3	13.4	15.3
도시(동부)	100.0	24.5	48.2	12.1	15.3
농어촌(읍면부)	100.0	21.9	43.3	19.6	15.3
남자	100.0	24.5	47.6	13.7	14.2
여자	100.0	23.5	47.1	13.1	16.3
장애인	100.0	31.2	43.2	12.9	12.6
비장애인	100.0	23.6	47.5	13.4	15.4
13 - 19세	100.0	27.7	38.7	11.1	22.5
20 - 29세	100.0	26.0	46.0	10.5	17.6
30 - 39세	100.0	25.8	49.5	10.4	14.3
40 - 49세	100.0	27.3	50.5	9.6	12.5
50 - 59세	100.0	22.8	51.1	14.0	12.1
60세 이상	100.0	18.9	44.1	20.1	16.8
65세 이상	100.0	17.8	42.1	21.8	18.2
초졸 이하	100.0	19.2	38.8	19.9	22.2
중졸	100.0	21.8	43.9	15.6	18.6
고졸	100.0	23.9	48.1	12.7	15.2
대졸 이상	100.0	26.5	50.6	11.1	11.8
전문 관리	100.0	29.0	51.6	8.7	10.7
사무	100.0	25.9	51.9	10.5	11.7
서비스판매	100.0	23.0	49.1	13.5	14.4
농어업	100.0	17.6	42.8	24.2	15.3
기능노무	100.0	22.5	48.3	14.0	15.2
100만원 미만	100.0	22.7	38.6	19.3	19.4
100 - 200만원 미만	100.0	22.7	43.5	16.8	17.0
200 - 300만원 미만	100.0	22.5	48.3	13.1	16.0
300 - 400만원 미만	100.0	24.0	49.2	12.5	14.3
400 - 500만원 미만	100.0	25.1	48.0	12.5	14.3
500 - 600만원 미만	100.0	26.5	50.6	9.9	13.0
600만원 이상	100.0	25.3	51.6	10.0	13.1

주: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9),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7.3%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19년 24.0%로 2017년 27.5%에 비해 감소함
-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장애인이 31.2%로 비장애인 23.6%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50대 이상부터 낮은 경향을 보임



## (6)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알고 있다	7.8	8.6	5.3	8.5	5.8	9.8	7.5	16.6	4.7	11.8	7.9	6.9	24.7	15.3	2.0	13.2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7	21.9	14.5	15.6	17.9	31.8	15.7	25.9	10.4	37.0	35.9	17.0	20.9	8.4
알지 못한다	70.8	67.3	77.0	69.6	79.7	74.6	74.6	51.6	79.6	62.3	81.7	56.1	39.4	67.7	77.2	78.4
알고 있다	8.3	8.9	7.3	7.4	5.3	2.5	10.4	28.9	4.2	9.0	18.4	11.7	15.1	15.5	8.5	4.8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4.0	23.7	24.5	18.1	19.0	21.1	40.2	20.7	26.5	13.0	7.9	27.1	46.8	13.4	33.6
알지 못한다	68.7	67.2	68.9	68.1	76.6	78.4	68.4	30.9	75.1	64.5	68.6	80.4	57.8	37.7	78.1	61.6
알고 있다	13.9	13.6	15.9	13.1	10.5	20.4	15.5	43.8	7.1	20.2	13.0	9.2	29.2	23.4	11.8	19.3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6.1	26.0	22.3	21.0	27.2	25.1	35.8	27.3	28.0	31.0	30.9	37.0	44.1	25.8	17.9
알지 못한다	60.7	60.4	58.1	64.6	68.5	52.4	59.4	20.3	65.6	51.8	56.0	59.9	33.8	32.5	62.5	62.8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5.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7.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지 못한다'가 60.7%로 가장 많았고 반면 '알고 있다'는 13.9%에 불과함.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청각장애가 68.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장애 65.6%, 시각장애 64.6%, 뇌전증 62.8%, 장루·요루 62.5% 순임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알고 있다	7.8	10.4	4.3	10.3	12.8	9.4	3.8	10.5	7.2	8.0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5	23.4	29.2	24.3	14.5	21.6	21.7	21.6
	알지 못한다	70.8	65.5	78.2	66.3	58	66.3	81.7	68	71.1	70.4
2014	알고 있다	8.3	10.0	6.0	18.6	12.7	10.9	3.6	10.5	7.2	8.5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6.4	18.5	35.6	33.9	26.6	15.1	23.9	23.3	23.6
	알지 못한다	68.7	63.6	75.5	45.8	53.4	62.5	81.2	65.7	69.5	68.0
2017	알고 있다	13.9	16.7	10.2	28.9	22.9	18.0	7.1	17.5	12.0	14.1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9.0	20.3	34.8	29.4	30.7	19.2	26.0	25.0	25.4
	알지 못한다	60.7	54.2	69.5	36.3	47.7	51.2	73.7	56.5	62.9	60.4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 성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69.5%로 남성 54.2%에 비해 높음
- 연령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증이 62.9%로 중증 56.5%에 비해 높음



## 2) 장애인 인권보호

## (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87	49	38	2
2010	6	—	6	—
2011	5	2	3	—
2012	4	3	1	—
2013	7	6	1	—
2014	7	3	3	1
2015	9	3	5	1
2016	15	10	5	—
2017	12	7	5	—
2018	87	49	38	2

주: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28.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권고, 의견표명,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총 누계 건수는 87건으로 그중 49건이 권고, 38건이 의견표명, 2건이 의견제출로 나타남
- 2018년도 현황은 권고 5건, 의견표명 7건으로 총 12건임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 중	권고 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 수용	불수용		
누 계	44	33	19	14	0	11	100.0
2010	0	0	0	0	0	0	—
2011	2	2	0	2	0	0	100.0
2012	3	2	0	2	0	1	100.0
2013	6	5	3	2	0	1	100.0
2014	3	3	2	1	0	0	100.0
2015	3	1	0	1	0	2	100.0
2016	10	2	2	0	0	8	100.0
2017	7	0	0	0	0	7	—
2018	5	0	0	0	0	5	—

주: 1)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2) 검토중인 경우 권고수용률에 포함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29.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2018년까지의 누적 권고건수 총 49건 중 수용은 21건, 일부 수용은 19건, 검토 중은 9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에는 총 5건이 권고되어 5건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2,871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1,511	1,113	1,103	
장애 유형별	지체	4,126	508	297	492	380	402	334	629	313	305
	시각	3,277	427	142	193	299	290	439	329	371	403
	뇌병변	931	136	57	87	71	92	93	101	97	93
	청각	1,314	275	72	142	251	112	101	93	98	79
	지적(발달)	1,521	181	214	231	115	104	100	246	102	126
	언어	98	8	8	13	7	13	5	7	12	13
	정신장애	498	73	48	47	50	55	30	62	52	22
	기타	1,106	87	48	135	139	71	43	44	68	62
차별 영역별	고용	769	82	64	82	75	94	69	56	81	57
	교육	1,173	55	62	96	45	66	55	535	90	58
	재화·용역	7,832	1,269	487	808	706	677	731	643	677	756
	사법행정	427	26	77	36	30	42	37	46	27	22
	참정권	178	13	3	57	41	19	—	16	4	11
	괴롭힘 등	1,373	176	105	111	303	123	121	89	91	108
	기타	1,119	74	88	150	112	118	131	126	143	91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p.110-111.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11건, 2017년 1,113건, 2018년 1,103건으로 점차 감소함

- 2018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403건, 지체장애 305건으로 많이 나타남.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의 경우, 2017년에 비해 증가함
- 2018년 기준으로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 756건으로 가장 많으며, 반면 참정권은 11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간접 구제	합의 중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중 지
누 계	12,410	809	4	5	446	11	8	1	384	11,545	6,782	49	4,702	12	6
2008	347	25	-	-	14	-	-	-	11	322	190	-	131	1	-
2009	716	55	-	-	8	-	-	-	47	661	351	6	300	4	-
2010	1,101	85	-	1	25	3	-	-	56	1,016	663	15	332	6	-
2011	952	156	1	-	119	4	-	-	32	796	381	4	410	1	-
2012	1,508	136	1	-	115	-	-	-	20	1,371	616	1	754	-	1
2013	1,563	108	-	-	27	1	1	-	79	1,455	755	1	699	-	-
2014	1,096	79	-	1	15	2	-	-	61	1,014	560	5	449	-	3
2015	1,085	36	-	-	14	-	3	-	19	1,049	663	6	380	-	-
2016	1,640	51	-	3	19	-	-	-	29	1,589	1199	7	383	-	-
2017	1,086	91	-	-	67	1	2	-	21	993	628	4	361	-	2
2018	1,316	37	2	-	23	-	2	1	9	1,279	776	-	503	-	-
고 용	소계	50	7	-	-	6	-	-	1	43	30	-	13	-	-
	모집·채용	18	5	-	-	4	-	-	1	13	9	-	4	-	-
	임금·복지 후생	6	-	-	-	-	-	-	-	6	4	-	2	-	-
	배치	8	1	-	-	1	-	-	-	7	6	-	1	-	-
	승진	1	-	-	-	-	-	-	-	1	-	-	1	-	-
	직무관련	8	-	-	-	-	-	-	-	4	3	-	1	-	-
	퇴직·해고	9	1	-	-	1	-	-	-	8	5	-	3	-	-
	교육	0	-	-	-	-	-	-	-	-	-	-	-	-	-
	기타	0	-	-	-	-	-	-	-	4	3	-	1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3) -는 건수가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p.195-198.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1,316건으로 2017년 1,086건에 비해 23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975건으로 가장 많고, 괴롭힘 등 103건, 교육 63건, 교육 50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계속)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가각	조사 중지	조사 종지
민생	소계	63	8	-	-	4	2	-	3	55	39	-	16	-	-
	전·입학 거부	16	1	-	-	1	-	-	-	15	9	-	6	-	-
	시설물 접근·이용	5	3	-	-	1	-	-	2	2	1	-	1	-	-
	수업·시험 편의제공	17	-	-	-	-	-	-	-	17	13	-	4	-	-
	수업·등교 내 활동배제	4	1	-	-	-	1	-	-	3	3	-	-	-	-
	특수학급 설치	3	1	-	-	1	-	-	-	2	1	-	1	-	-
	괴롭힘	6	1	-	-	-	1	-	1	5	4	-	1	-	-
	기타	12	1	-	-	1	-	-	-	11	8	-	3	-	-
재활·의료	소계	975	15	-	-	10	-	1	-	4	960	546	-	414	-
	재화·용역	401	7	-	-	4	-	1	-	2	394	124	-	270	-
	보험·금융	28	0	-	-	-	-	-	-	28	21	-	7	-	-
	시설물 접근	148	0	-	-	-	-	-	-	148	114	-	34	-	-
	이동교통 수단	202	2	-	-	2	-	-	-	200	172	-	28	-	-
	정보접근· 의사소통	145	2	-	-	2	-	-	-	143	85	-	58	-	-
	문화·예술 ·체육	21	3	-	-	2	-	-	1	18	14	-	4	-	-
	기타	30	1	-	-	-	-	-	1	29	16	-	13	-	-
사법행정		16	1	-	-	1	-	-	-	15	12	-	3	-	-
참정권		6	-	-	-	-	-	-	-	6	6	-	-	-	-
권리제한	소계	103	5	-	-	2	-	-	-	98	75	0	23	-	-
	따돌림	3	-	-	-	-	-	-	-	3	1	-	2	-	-
	유기·방치	0	-	-	-	-	-	-	-	-	-	-	-	-	-
	성폭행	1	-	-	-	-	-	-	-	1	1	-	-	-	-
	폭행·학대	10	2	1	-	1	-	-	-	8	6	-	2	-	-
	금전착취	4	-	-	-	-	-	-	-	4	2	-	2	-	-
	모욕·비하	70	2	-	-	1	-	-	-	68	54	-	14	-	-
	기타	15	1	1	-	-	-	-	-	14	11	-	3	-	-
기타		103	1	-	-	-	-	-	1	102	68	-	34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3) -는 건수가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197.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1,316건으로 2017년 1,086건에 비해 23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975건으로 가장 많고, 괴롭힘 등 103건, 교육 63건, 교육 50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859	63	66	549	39	13	89	40
2008	25	1	8	10	1	4	1	0
2009	55	5	5	35	1	0	8	1
2010	85	14	11	44	2	0	12	2
2011	156	8	1	126	4	0	14	3
2012	136	1	4	117	3	1	3	7
2013	108	4	6	78	2	0	8	10
2014	79	8	10	33	1	8	12	7
2015	36	7	1	18	0	0	8	2
2016	51	3	2	39	0	0	6	1
2017	91	5	10	34	24	0	12	6
2018	37	7	8	15	1	0	5	1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197.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재화·용역이 54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괴롭힘 89건, 교육 66건, 고용 63건, 사법·행정 39건 참정권 13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각하(제32조)											법 제32조 제3항	기각(제33조)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9,788	6,782	963	36	129	75	140	9	94	4,273	101	6	9	3,953	675	1,235	2,379
2008	321	190	50	1	6	10	1	1	1	116	4	0	2	131	16	48	67
2009	651	351	56	0	9	5	14	1	10	236	19	1	0	300	39	107	154
2010	995	663	227	2	10	19	16	0	6	369	13	1	0	332	61	94	177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0	410	59	146	205
2012	1,370	615	62	3	14	9	16	4	9	495	3	0	1	754	74	115	565
2013	1,454	754	215	5	37	2	20	0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4	1,009	556	52	3	8	11	17	1	2	452	10	0	4	449	86	123	240
2015	1,043	661	49	1	8	7	14	1	12	561	8	0	2	380	62	139	179
2016	1,582	1,199	101	12	11	4	16	0	3	1,048	3	0	1	383	66	119	198
2017	1,255	628	60	1	11	7	12	1	5	525	5	0	1	631	81	119	198
2018	1,279	776	125	1	12	4	6	0	8	614	4	0	2	503	69	129	305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8 인권통계」, p.196.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을 기각·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와 관련된 사유로는 제8호가 4,27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법 제39조(진정의 기각)와 관련된 사유로는 제3호가 2,37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정신보건시설 입원현황

〈표 11-2-7〉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시설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 입원	동의 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인원
				가족	시·군·구의 장	기타		
2009	74,919 (100.0)	12,087 (16.1)	—	50,575 (67.5)	11,154 (14.9)	851 (1.1)	176 (0.2)	76 (0.1)
2010	75,282 (100.0)	15,271 (20.3)	—	51,714 (68.7)	7,027 (9.3)	910 (1.2)	251 (0.3)	109 (0.1)
2011	78,637 (100.0)	16,833 (21.4)	—	53,533 (68.1)	6,853 (8.7)	1,045 (1.3)	323 (0.4)	50 (0.1)
2012	80,569 (100.0)	19,441 (24.1)	—	53,105 (65.9)	6,737 (8.4)	1,013 (1.3)	230 (0.3)	43 (0.1)
2013	80,462 (100.0)	21,294 (26.5)	—	51,132 (63.5)	6,320 (7.9)	1,401 (1.7)	262 (0.3)	53 (0.1)
2014	81,625 (100.0)	24,266 (29.7)	—	49,792 (61.0)	6,235 (7.6)	1,159 (1.4)	147 (0.2)	26 (0.0)
2015	81,105 (100.0)	26,064 (32.1)	—	47,235 (58.2)	6,432 (7.9)	1,200 (1.5)	131 (0.2)	43 (0.1)
2016	79,401 (100.0)	28,285 (35.6)	—	43,643 (55.0)	6,021 (7.6)	1,300 (1.6)	94 (0.1)	58 (0.1)
2017	77,161 (100.0)	36,465 (47.3)	12,325 (16.0)	24,234 (31.4)	—	1,570 (2.0)	2,514 (3.3)	53 (0.1)
정신 의료 기관	소계	67,441 (100.0)	31,061 (46.1)	10,814 (16.0)	21,827 (32.4)	— (1.7)	2,514 (3.7)	53 (0.1)
	국립정신병원	2,029 (100.0)	509 (25.1)	202 (10.0)	207 (10.2)	— (54.2)	9 (0.4)	2 (0.1)
	공립정신병원	2,903 (100.0)	1,149 (39.6)	392 (13.5)	1,086 (37.4)	— (0.1)	267 (9.2)	6 (0.2)
	사립정신병원	29,820 (100.0)	12,301 (41.3)	4,683 (15.7)	11,517 (38.6)	— (0.1)	1,285 (4.3)	11 (0.0)
	종합병원정신 과	3,957 (100.0)	2,065 (52.2)	775 (19.6)	1,017 (25.7)	— (0.2)	83 (2.1)	11 (0.3)
	병원정신과	25,764 (100.0)	13,183 (51.2)	3,941 (15.3)	7,713 (29.9)	— (0.1)	866 (3.4)	23 (0.1)
	정신과의원	2,968 (100.0)	1,854 (62.5)	821 (27.7)	287 (9.7)	— (0.1)	4 (0.1)	—
	정신요양시설	9,720 (100.0)	5,404 (55.6)	1,511 (15.5)	2,407 (24.8)	— (4.1)	—	—

주: 1) 2011년부터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제외

2) 기타에는 국립범무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 국가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p.129.

- 정신보건시설입원 현황은 2017년 전체 77,161명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임
  - 자의에 의한 입원이 47.3%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반면, 가족에 의한 입원은 31.4%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함
-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7년 기준 67,441개소이며, 정신요양시설은 9,720개소임



## 3) 가정폭력

## (1) 장애인 가정폭력

〈표 11-3-1〉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차별·폭력 정도	자주 있음	1.1	0.6	1.9	1.0	1.1	0.7	2.5	2.9	3.9	0.1	0.0	2.4	0.0	0.0	1.6	3.0
	가끔 있음	4.2	1.6	4.9	3.2	5.5	1.1	12.6	9.7	15.3	3.2	4.9	2.6	0.0	0.0	3.0	22.2
	없음	94.7	97.8	93.2	95.8	93.4	98.2	84.9	87.4	80.8	96.7	95.1	95.1	100.0	100.0	95.4	74.8
차별·폭력 유형	언어폭력	81.0	70.7	69.2	95.8	69.8	37.9	90.8	81.1	93.4	84.0	96.2	48.1	-	-	100.0	93.6
	정신적 폭력	47.6	61.2	58.4	36.6	42.6	100.0	31.4	23.2	53.1	63.3	13.8	48.1	-	-	63.9	53.2
	신체적 폭력	16.2	12.5	3.7	15.9	4.0	-	25.8	18.9	32.1	3.9	-	-	-	-	-	27.6
	성적학대	2.1	0.4	2.4	4.2	3.4	-	0.4	-	3.0	-	-	-	-	-	-	18.4
	방임 및 유기	16.4	14.8	37.1	11.1	20.8	-	8.4	23.2	7.1	19.2	86.2	48.1	-	-	-	11.9
	경제적 폭력	13.1	17.3	14	20.2	6.0	-	6.8	0.0	17.6	32.0	-	-	-	-	-	23.0
	기타	5.2	6.6	2.5	-	9.3	-	9.5	-	0.8	-	-	-	-	-	-	1.7
주 가해자	배우자	36.5	44.2	43.6	71.3	41.9	-	12.7	-	30.0	68.7	86.2	48.1	-	-	79.5	31.0
	부모	21.8	9.7	24.7	6.9	3.4	-	48.0	23.2	25.3	15.3	-	-	-	-	-	15.7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10.5	14.6	14.5	4.2	35.5	-	-	-	-	-	-	51.9	-	-	20.5	-
	형제, 자매	23.6	26.4	13.6	7.8	11.7	100.0	25.5	65.3	40.1	16.0	-	-	-	-	-	42.2
	조부모	1.2	0.5	1.8	-	-	-	2.9	11.5	-	-	-	-	-	-	-	-
	손자녀	-	0.9	1.8	-	-	-	-	-	-	-	-	-	-	-	-	-
	배우자의 가족	3.5	4.6	1.8	9.8	3.5	-	3.3	-	0.8	-	-	-	-	-	-	11.1
	기타	2.8	-	-	-	4.1	-	7.7	-	3.7	-	13.8	-	-	-	-	-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차별·폭력 정도' 중 '자주 있음'과 '가끔 있다'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 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403-405.

- 2017년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를 살펴보면, '없다'라는 응답이 94.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3%는 차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내 차별·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81.0%로 가장 많으며, 정신적 폭력 47.6%, 방임 및 유기 16.4%, 신체적 폭력 16.2% 순임
- 주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36.5%로 가장 많으며, 형제·자매 23.6%, 부모 21.8%, 자녀 10.5%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자주 있음)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3.9%, 2.9%, 2.5%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족 내 차별·폭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장루·요루, 심장, 뇌전증 장애인의 언어폭력 피해 경험비율은 각각 100.0%, 96.2%, 95.8%, 93.6%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배우자로부터 차별·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심장장애인 86.2%, 장루·요루 장애인 79.5%, 시각장애인 71.3%, 신장장애인 6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3-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차별·폭력 정도	자주 있음	1.1	0.8	1.5	1.4	1.8	1.7	0.5	1.8	0.6	1.1
	가끔 있음	4.2	4.0	4.4	9.6	6.0	4.5	3.0	7.6	2.1	4.2
	없음	94.7	95.2	94.1	89.1	92.2	93.8	96.6	90.6	97.3	94.7
차별·폭력 유형	언어폭력	81.0	78.3	83.9	83.6	82.2	87.1	71.0	84.8	71.8	80.8
	정신적 폭력	47.6	47.7	47.5	40.4	49.6	51.8	42.0	47.6	48.0	47.7
	신체적 폭력	16.2	13.4	19.2	18.9	24.1	19.0	6.3	20.2	6.3	15.9
	성적학대	2.1	0.8	3.4	0.0	2.2	1.9	2.7	1.6	1.8	1.7
	방임 및 유기	16.4	16.7	16.1	3.5	20.9	9.6	25.9	18.2	14.1	16.9
	경제적 폭력	13.1	8.2	18.3	0.0	14.3	13.3	14.8	13.2	12.3	12.9
	기타	5.2	5.1	5.2	14.4	2.0	3.8	8.5	5.7	4.6	5.4
주 가해자	배우자	36.5	26.4	47.7	—	9.8	42.8	53.8	27.6	54	35.9
	부모	21.8	28.7	14.2	51.4	52.4	15.1	4.1	27.7	7.5	21.4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10.5	8.0	13.3	—	—	4.8	28.0	5.9	21.5	10.8
	형제, 자매	23.6	30.5	16.1	38.3	26.6	31.4	7.4	30.0	11.6	24.2
	조부모	1.2	2.2	0.2	9.2	1.2	0.6	0.4	1.3	1.2	1.3
	손자녀	—	—	—	—	—	—	—	—	—	—
	배우자의 가족	3.5	2.1	4.9	—	8.0	2.6	2.5	4.1	2.3	3.6
	기타	2.8	2.1	3.6	1.1	2.0	2.7	3.9	3.4	1.8	2.9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차별·폭력 정도' 중 '자주 있음'과 '가끔 있다'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결문함

2)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 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649-652.

- 연령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높아지며, 차별·폭력 유형과 주 가해자도 연령에 따라 달라짐
  - 65세 이상의 가족 내 차별·폭력 경험비율(자주 있음과 가끔 있음의 합)은 3.5%인 것에 비해 17세 이하는 11.0%임
- 장애정도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차별·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신체적 폭력 비율은 중증이 경증에 비해 13.9%p 정도 높음
  - 주 가해자는 중증은 부모(27.7%), 배우자(27.6%), 자녀(5.9%)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증은 배우자(54.0%), 자녀(21.5%), 형제·자매 (11.6%) 순으로 나타남



## (2) 가정폭력 관련 시설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	203 (46)	32 (3)	11 (4)	5 (3)	8 (2)	9 (1)	6 (1)	4 (2)	40 (6)	11 (6)	6 (2)	13 (5)	8 (1)	10 (1)	21 (5)	14 (0)	4 (2)	1 (1)
계	66 (3)	11	3	3	1	4	1	1	12	5	3	4	4	4	2	6	2	0
보호 시설																		
일반시설	46	9	2	2	1	3	0	1	12	4	1	2	2	2	2	3	0	0
가족보호 시설	20	2	1	1	0	1	1	0	0	1	2	2	2	2	0	3	2	0

주: 1) 2018년 1월 1일 기준

2) ( )는 장애인 대상 시설 수임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1,5.

-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는 203개소이며, 그 중 장애인 상담소는 4곳으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매우 적은 설치율을 보임
- 전국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66개소로 그 중 장애인보호시설은 3곳에 불과함

## 4) 성폭력

### (1) 장애인 성폭력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정신· 유루	뇌전증
경험 여부	있다	0.8	0.5	0.7	0.3	0.1	0.0	3.0	2.4	3.5	0.4	0.0	0.0	0.0	0.0	2.2
	없다	99.2	99.5	99.3	99.7	99.9	100.0	97.0	97.6	96.5	99.6	100.0	100.0	100.0	100.0	97.8
주 가해자	근친(가족)	7.0	12.8	0.0	0.0	0.0	-	0.0	0.0	16.4	0.0	-	-	-	-	0.0
	이웃	11.6	19.1	0.0	0.0	48.5	-	11.5	0.0	8.1	0.0	-	-	-	-	0.0
	먼 친척	3.3	10.5	0.0	0.0	0.0	-	0.0	0.0	0.0	0.0	-	-	-	-	0.0
	모르는 사람	40.1	43.9	23.1	0.0	0.0	-	41.1	100	43.4	0.0	-	-	-	-	100.0
	학교관계자	3.4	0.0	0.0	91.6	0.0	-	0.0	0.0	0.0	0.0	-	-	-	-	0.0
	이성친구	11.4	0.0	0.0	0.0	0.0	-	28.4	0.0	16.5	0.0	-	-	-	-	0.0
	종교인	0.0	0.0	0.0	0.0	0.0	-	0.0	0.0	0.0	0.0	-	-	-	-	0.0
	채팅상대자	0.0	0.0	0.0	0.0	0.0	-	0.0	0.0	0.0	0.0	-	-	-	-	0.0
	서비스제공자 (복지인력 등)	5.4	0.0	0.0	8.4	0.0	-	17.1	0.0	0.0	0.0	-	-	-	-	0.0
	학원관계자	0.0	0.0	0.0	0.0	0.0	-	0.0	0.0	0.0	0.0	-	-	-	-	0.0
	기타	17.8	13.7	76.9	0.0	51.5	-	2.0	0.0	15.7	100.0	-	-	-	-	0.0
대처 방법	무시한다	16.0	0.0	0.0	8.4	0.0	-	26.5	0.0	43.1	0.0	-	-	-	-	0.0
	침는다	23.9	30.1	32.9	0.0	48.5	0.0	11.6	0.0	32.5	0.0	-	-	100.0	-	100.0
	그 자리에서 항의	21.7	28.3	44.0	0.0	0.0	-	28.1	0.0	0.0	0.0	-	-	-	-	0.0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7.4	0.0	23.1	91.6	0.0	-	24.8	100.0	0.0	100.0	-	-	-	-	0.0
	물라서 그냥 넘어감	17.6	41.6	0.0	0.0	0.0	-	2.0	0.0	20.9	0.0	-	-	-	-	0.0
	기타	2.7	0.0	0.0	0.0	0.0	-	7.1	0.0	3.6	0.0	-	-	-	-	0.0

주: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405-407.

- 2017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의 응답이 9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0.8%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0.1%로 가장 많으며, 기타 17.8%, 이웃 11.6%, 이성친구 11.4% 순임. 대처방법으로는 침는다가 23.9%, 그 자리에서 항의 21.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의 피해경험 비율이 각각 3.5%, 3.0%, 2.4%, 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100.0%, 43.9%, 43.4%, 4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인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48.5%로 상대적으로 높음. 기타의 경우 신장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100.0%, 76.9%, 5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경험 여부	있다	0.8	0.4	1.3	1.3	2.8	0.8	0.1	1.5	0.3
	없다	99.2	99.6	98.7	97.2	99.2	99.9	98.5	99.7	99.2
주 가해자	근친(가족)	7.0	11.3	5.5	0.0	6.1	11.2	0.0	0.0	15.7
	이웃	11.6	15.1	10.3	0.0	8.9	9.4	42.8	12.0	12.2
	먼 친척	3.3	0.0	4.5	0.0	0.0	9.1	0.0	0.0	12.8
	모르는 사람	40.1	20.5	47.1	48.5	26.8	52.6	57.2	38.9	49.6
	학교관계자	3.4	13.0	0.0	0.0	7.0	0.0	0.0	4.9	0.0
	남자친구	11.4	0.0	15.4	51.5	17.2	0.0	0.0	14.8	0.0
	종교인	-	-	-	-	-	-	-	-	-
	채팅상대자	-	-	-	-	-	-	-	-	-
	서비스제공자 (복지인력 등)	5.4	0.0	7.3	0.0	10.9	0.0	0.0	7.2	1.2
	학원관계자	-	-	-	-	-	-	-	-	-
	기타	17.8	40.0	9.9	0.0	23.2	17.7	0.0	22.3	8.5
	기타	17.8	40.0	9.9	0.0	23.2	17.7	0.0	22.3	8.5
대처 방법	그냥 있었음	16.0	22.2	13.8	0.0	31.3	1.6	0.0	18.1	1.2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	23.9	19.8	25.4	37.3	16.5	35.9	7.2	23.1	29.7
	그 자리에서 항의	21.7	0.0	29.5	0.0	26.0	15.2	38.6	21.3	26.4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2.7	0.0	3.7	14.2	1.1	3.9	0.0	3.9	0.0
	몰라서 그냥 넘어감	17.6	34.6	11.5	0.0	3.2	30.8	54.3	11.0	34.3
	진정 고발 등의 조치	17.4	23.4	15.2	48.5	20.5	12.5	0.0	22.6	5.9
	기타	0.7	0.0	0.9	0.0	1.4	0.0	0.0	0.0	2.6

주: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652-653.

- 성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3%로 남성 0.4%에 비해 피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주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기타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 47.4%로 남성의 모르는 사람 20.5% 보다 약 2배 이상 높음
  - 성별 대처방법은 남성의 경우 몰라서 그냥 넘어감이 34.6%, 진정 고발 등의 조치 23.4%, 그냥 있었음(무시) 22.2%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그 자리에서 항의 29.5%,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 25.4%, 진정 고발 등의 조치 15.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18-44세 이하의 피해경험 비율이 2.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주 가해자는 17세 이하의 경우 이성(남자친구) 51.5%, 모르는 사람 48.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5세 이상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대처방법은 연령이 낮을수록 진정 고발 등의 조치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몰라서 그냥 넘어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이 1.5%로 경증 0.3%에 비해 피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 주 가해자는 중증과 경증 모두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38.9%, 49.6%로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 대처방법 중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증이 22.6%로 경증 5.9%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성폭력 상담소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 수	168 (24)	20 (4)	7 (1)	4 (1)	4 (2)	8 (1)	5 (2)	4 (1)	2 (0)	34 (3)	9 (0)	9 (1)	16 (1)	7 (2)	9 (1)	11 (2)	15 (1)	4 (1)

주: 1) 신고 수는 휴지기관 1개소 포함임

2)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

3) 2019년 4월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2019년 11월 검색)

- 각 시도별 성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168개 상담소 중 경기도가 34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20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 상담소는 전국에 총 24개소가 있으며, 강원,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1~4개소가 있음



### (3)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표 11-4-4〉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종독	기타
2010	14,310	9,044	5,266	1,047	214	94	106	770	286	26	2,723
	100.0	63.2	36.8	7.3	1.5	0.7	0.7	5.4	2.0	0.2	19.0
2011	17,455	12,457	4,998	1,140	288	22	58	844	340	—	2,306
	100.0	71.4	28.6	22.8	5.8	0.4	1.2	16.9	6.8	—	46.1
2012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2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2013	26,065	19,705	6,360	1,242	172	43	71	1,350	762	10	2,711
	100.0	75.6	24.4	4.8	0.7	0.2	0.3	5.2	2.9	0.0	10.4
2014	29,135	23,127	6,008	1,020	144	91	124	1,771	721	12	2,125
	100.0	79.4	20.6	3.5	0.5	0.3	0.4	6.1	2.5	0.1	6.9
2015	30,196	23,562	6,634	1,048	103	120	66	2,136	1,239	24	1,898
	100.0	78.0	22.0	3.5	0.3	0.4	0.2	7.1	4.1	0.1	6.3
2016	28,203	20,886	7,317	1,090	113	86	234	2,241	496	7	3,050
	100.0	74.1	25.9	14.9	1.5	1.2	3.2	30.6	6.8	0.1	41.7
2017	34,418	24,606	9,812	1,774	195	25	77	2,793	651	95	4,202
	100.0	71.5	28.5	5.2	0.6	0.1	0.2	8.1	1.9	0.3	12.2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가족 문제	성상담	학교 폭력	기타	
2018	44,030	32,938	11,092	1,822	347	71	1,044	3,344	52	4,412	
	100.0	74.8	25.2	4.1	0.8	0.2	2.4	7.6	0.1	1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2.

-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특히 2018년 성폭력 상담건수는 32,938건으로 전년 대비 8,332건 증가함
- 2018년 장애인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74.8%로 2017년 보다 증가함
  - 기타 상담에서는 기타 상담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성상담 7.6% 가정폭력 4.1% 순임

#### (4)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표 11-4-5〉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965 (100.0)	3,986 (100.0)	3,038 (100.0)	3,270 (100.0)	2,592 (100.0)
피해 유형	강간	2,489 (50.1)	2,141 (53.7)	1,509 (49.7)	1,759 (54.0)
	강제추행	1,743 (35.1)	1,441 (36.2)	1,211 (39.9)	1,130 (34.6)
	기타	733 (14.8)	404 (10.1)	318 (10.4)	381 (11.6)
장애 유형	지체	418 (8.4)	251 (6.3)	169 (5.6)	127 (3.9)
	뇌병변	153 (3.1)	97 (2.4)	101 (3.3)	54 (1.7)
	시각	218 (4.4)	72 (1.8)	45 (1.5)	36 (1.1)
	청각, 언어	114 (2.3)	67 (1.7)	82 (2.7)	61 (1.9)
	정신 지체 (발달)	3,108 (62.6)	3,031 (76.0)	2,321 (76.4)	2,504 (76.6)
	정신 장애	413 (8.3)	339 (8.5)	176 (5.8)	277 (8.5)
	기타	541 (10.9)	129 (3.2)	144 (4.7)	211 (6.5)

주 1) 2013년까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 건수이며, 2014년부터는 장애인 전체 피해 건수임

2) 피해유형 중 기타에는 성희롱, 스토킹,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이 포함됨

3)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내부 장기 장애 등이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4.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592건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

- 피해유형은 강간이 52.5%로 절반 이상이며,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가 75.1%로 가장 높음



##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2	2	3	1	1	2	2	1	0	5	1	3	1	2	2	2	2	2
일반	16	2	1	1	1	1	-	1	-	3	1	1	-	2	1	-	-	1
장애인	8	-	1	-	-	1	1	-	-	1	-	1	1	-	1	-	-	1
특별지원 (친족피해 청소년)	4	-	-	-	-	-	1	-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 가정	4	-	1	-	-	-	-	-	-	-	-	1	-	-	-	1	1	-

주: 1) 2019년 12월 기준

2) 32개소 모두 국비 지원 시설임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2개소 중 장애인 시설은 8곳이며,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지역에만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9개 지역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2009 전체	312	299	142
장애인	90	69	66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2013 전체	238	230	218
장애인	103	79	83
2014 전체	258	222	285
장애인	113	92	167
2015 전체	277	262	286
장애인	110	107	165
2016 전체	201	193	295
장애인	84	70	180
2017 전체	201	203	285
장애인	91	97	173
2018 전체	180	181	284
장애인	79	92	164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장애인의 연도 중 입소인원은 91명으로 201명 전체인원의 45.2%를 차지함
- 연도 중 퇴소인원은 장애인 97명으로 전체 203명의 47.8% 수준임
  - 보호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전체 285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73명(60.7%)으로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5세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0)	—	(2.9)	(35.0)	(25.2)	(35.9)	(1.0)
2014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0)	—	(2.4)	(39.5)	(25.1)	(32.3)	(0.6)
2015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0)	(1.4)	(7.0)	(46.2)	(26.9)	(18.5)	(0.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0)	(0.0)	(2.4)	(37.6)	(32.7)	(27.3)	(0.0)
2016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0)	(0.0)	(1.1)	(30.0)	(38.3)	(30.6)	(0.0)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0)	(0.4)	(5.3)	(43.2)	(27.0)	(24.2)	(0.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0)	(0.0)	(1.7)	(31.2)	(34.7)	(32.4)	(0.0)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0)	(0.7)	(4.9)	(43.2)	(25.0)	(24.2)	(0.0)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0)	(0.0)	(2.4)	(29.3)	(31.1)	(36.6)	(0.0)

주: 2017년 12월 말 기준 현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인구에서는 13-18세 이하의 비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우 13-64세 이하의 비율이 약 30%를 보임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1개월 이하	2~6개월 이하	7개월~ 1년 이하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3년 초과
2013년	전체	230	67	86	30	24	19	4
		(100.0)	(29.1)	(37.4)	(13.0)	(10.4)	(8.3)	(1.7)
	장애인	79	13	37	12	7	9	1
		(100.0)	(16.5)	(46.8)	(15.2)	(8.9)	(11.4)	(1.3)
2014년	전체	222	62	77	31	31	10	11
		(100.0)	(28.0)	(34.7)	(14.0)	(14.0)	(4.5)	(5.0)
	장애인	92	14	38	16	14	6	4
		(100.0)	(15.2)	(41.3)	(17.4)	(15.2)	(6.5)	(4.3)
2015년	전체	262	70	95	33	33	11	20
		(100.0)	(26.7)	(36.3)	(12.6)	(12.6)	(4.2)	(7.6)
	장애인	107	21	33	15	17	8	13
		(100.0)	(19.6)	(30.8)	(14.0)	(15.9)	(7.5)	(12.1)
2016년	전체	193	43	48	33	37	14	18
		(100.0)	(22.3)	(24.9)	(17.1)	(19.2)	(7.3)	(9.3)
	장애인	70	9	21	13	13	7	7
		(100.0)	(12.9)	(30.0)	(18.6)	(18.6)	(10.0)	(10.0)
2017년	전체	203	43	54	36	26	23	21
		(100.0)	(21.2)	(26.6)	(17.7)	(12.8)	(11.3)	(10.3)
	장애인	97	15	23	15	15	18	12
		(100.0)	(15.5)	(23.7)	(14.4)	(15.5)	(18.6)	(12.4)
2018년	전체	181	28	51	30	26	14	32
		(100.0)	(15.5)	(28.2)	(16.6)	(14.4)	(7.7)	(17.7)
	장애인	92	11	26	14	9	9	23
		(100.0)	(12.0)	(28.3)	(15.2)	(9.8)	(9.8)	(25.0)

주: 2017년 피소인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8.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인구와 장애인에서 2~6개월 이하의 비율이 각각 26.6%,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보호기간이 길수록 전체인구 비율에 비해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11-5-1〉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전체		889	100.0
성별	남성	488	54.9
	여성	401	45.1
연령	1~19세 이하	127	14.3
	20대(20~29세)	211	23.7
	30대(30~39세)	165	18.6
	40대(40~49세)	151	17.0
	50대(50~59세)	142	16.0
	60대(60~69세)	66	7.4
	70대 이상	27	3.0
장애유형	지체장애	61	6.9
	뇌병변장애	46	5.2
	시각장애	15	1.7
	청각장애	26	2.9
	언어장애	13	1.5
	지적장애	587	66.0
	자폐성장애	22	2.5
	정신장애	50	5.6
	신장장애	3	0.3
	안면장애	2	0.2
	뇌전증장애	3	0.3
장애정도	미등록	61	6.9
	1~3급	790	88.9
	4~6급	37	4.2
	파악안됨	1	0.1

주: 1) 2018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자 현황임

2)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2018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이며, 그 중 학대피해자로 판정된 장애인은 889명임
- 장애인학대 피해자 중 남성은 488명(54.9%), 여성은 401명(45.1%)으로 남성이 좀 더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11명(23.7%)로 가장 많고 30대 165명(18.6%), 40대 151명(17.0%), 50대 142명(16.0%)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587명(66.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장애정도별로는 중증(1~3급)이 790명(88.9%)로 경증보다 중증일수록 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등의 장애인학대 대응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

〈표 11-5-2〉 장애인학대 유형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전체		1234 (100.0)	339 (27.5)	221 (17.9)	111 (9.0)	302 (24.5)	32 (2.6)	229 (18.6)
피해자 성별	남성	670 (100.0)	178 (26.6)	110 (16.4)	20 (3.0)	197 (29.4)	19 (2.8)	146 (21.8)
	여성	564 (100.0)	161 (28.5)	111 (19.7)	91 (16.1)	105 (18.6)	13 (2.3)	83 (14.7)
피해자 연령	1~19세 이하	178 (100.0)	77 (43.3)	46 (25.8)	18 (10.1)	8 (4.5)	4 (2.2)	25 (14.0)
	20대(20~29세)	304 (100.0)	87 (28.6)	61 (20.1)	37 (12.2)	57 (18.8)	9 (3.0)	53 (17.4)
	30대(30~39세)	216 (100.0)	52 (24.1)	38 (17.6)	30 (13.9)	44 (20.4)	5 (2.3)	47 (21.8)
	40대(40~49세)	220 (100.0)	51 (23.2)	31 (14.1)	13 (5.9)	68 (30.9)	10 (4.5)	47 (21.4)
	50대(50~59세)	193 (100.0)	48 (24.9)	27 (14.0)	9 (4.7)	73 (37.8)	2 (1.0)	34 (17.6)
	60대(60~69세)	88 (100.0)	19 (21.6)	12 (13.6)	3 (3.4)	37 (42.0)	1 (1.1)	14 (15.9)
	70대 이상	35 (100.0)	5 (14.3)	6 (17.1)	1 (2.9)	13 (37.1)	1 (2.9)	9 (25.7)
	지체장애	85 (100.0)	32 (37.6)	23 (27.1)	4 (4.7)	14 (16.5)	1 (1.2)	11 (12.9)
	뇌병변장애	60 (100.0)	19 (31.7)	12 (20.0)	7 (11.7)	8 (13.3)	—	14 (23.3)
	시각장애	21 (100.0)	6 (28.6)	9 (42.9)	—	4 (19.0)	1 (4.8)	1 (4.8)
피해자 장애유형	청각장애	36 (100.0)	10 (27.8)	7 (19.4)	2 (5.6)	15 (41.7)	—	2 (5.6)
	언어장애	17 (100.0)	7 (41.2)	5 (29.4)	1 (5.9)	3 (17.6)	—	1 (5.9)
	지적장애	803 (100.0)	197 (24.5)	127 (15.8)	87 (10.8)	205 (25.5)	17 (2.1)	170 (21.2)
	자폐성장애	28 (100.0)	19 (67.9)	7 (25.0)	1 (3.6)	—	—	1 (3.6)
	정신장애	75 (100.0)	18 (24.0)	13 (17.3)	1 (1.3)	23 (30.7)	8 (10.7)	12 (16.0)
	신장장애	4 (100.0)	1 (25.0)	—	—	3 (75.0)	—	—
	안면장애	2 (100.0)	—	—	2 (100.0)	—	—	—
	뇌전증장애	4 (100.0)	—	—	—	2 (50.0)	1 (25.0)	1 (25.0)

주: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2) 중복학대(263건)을 미분류하여 전체 학대 유형은 1,234임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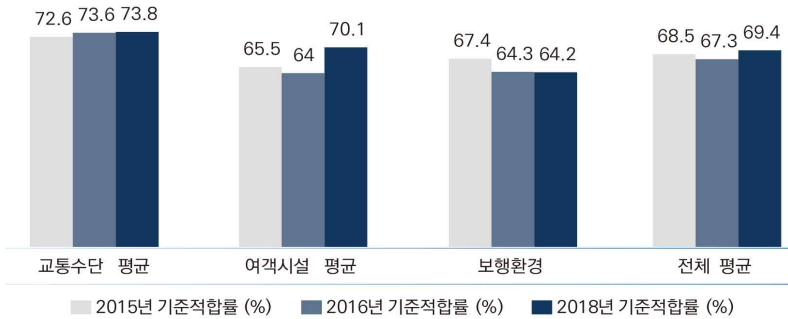
- 2018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889건의 학대사례를 학대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총 1,234건임(중복학대 263건 미분류)
-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39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02건(24.5%), 방임 229건(18.6%), 정서적 학대 221건(17.9%), 성적학대 111건(9.0%), 유기 32건(2.6%) 순임
-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착취가 197건(29.4%)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178건(26.6%) 방임 146건(21.8%) 순임. 여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151건(28.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105건(18.6%), 정서적 학대 111건(19.7%)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30대 이상은 경제적 착취 비율이 높음
- 피해자 장애유형별로는 지체·뇌병변·청각·언어·자폐성장애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은 반면, 지적·정신장애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착취 비율이 높은 편임

#### ※※ 장애인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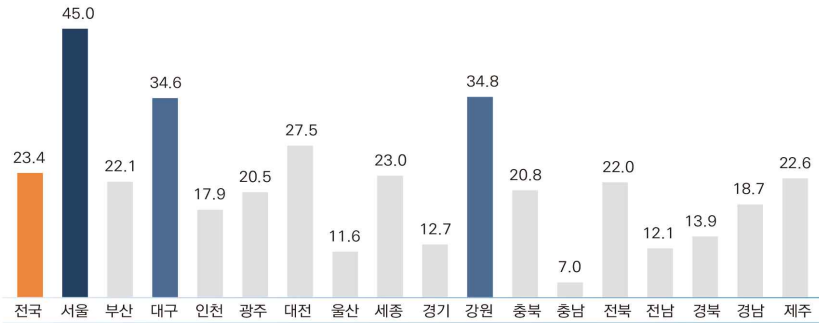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욕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주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12. 접근성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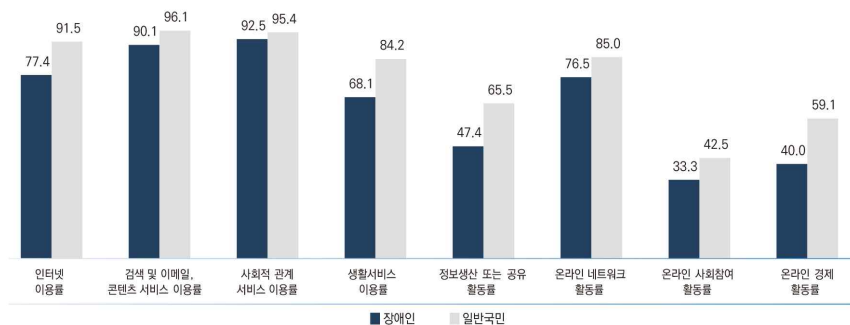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



- 2018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 적합률은 69.4%이며, 2016년 67.3%보다 2.1%p 향상됨
- 2018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23.4%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45.0%로 가장 높았고 강원 34.6%, 대구 34.6% 순임. 반면 충남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



-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0.1%, 인터넷 이용률 77.4%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수치가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남. 특히 온라인 경제활동률 19.1%p,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19.1%p, 생활서비스 이용률 16.1%p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1) 물리적 접근성

### (1)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여부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상지의지	1.6	1.5	시각장애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2.1	0.8
	하지의지	1.1	0.9		음성손목/탁상시계	12.4	4.9
	척추보조기	6.7	6.3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2.6	0.0
	상지보조기	1.3	1.1		점자프린터	1.3	0.1
	하지보조기	4.0	3.4		화면해설기	4.1	1.3
	맞춤형 고정용신발	2.6	1.9		음성유도장치	4.6	0.9
	지팡이	19.9	19.8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2.7	0.2
	목발	2.5	3.0		점자라벨기	0.4	0.0
	보행기	8.2	6.4		데이지플레이어	0.8	0.6
	전동휠체어	5.8	2.6		기타	3.9	3.2
	수동휠체어	7.0	6.1	청각장애	보청기	12.4	10.6
	전동스쿠터	4.3	1.7		화상전화기	4.9	1.4
	자세보조용구	2.1	0.4		골도전화기	1.0	0.0
	상하지운동기구	2.5	0.5		문자전화기	2.9	0.9
	팔받침대	0.9	0.4		문자송수신기	1.7	0.4
	기타	5.5	5.2		음성증폭기	3.3	0.4
시각장애	안경(콘텍트렌즈)	58.9	55.4		인공와우	4.8	3.4
	저시력보조기	10.0	4.9		자막수신기	7.3	2.8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9.4	7.2		신호표시(시각,음향)	4.0	0.3
	의안	11.7	10.3		진동시계	5.0	1.1
	스크린 리더	2.6	1.0		기타	0.5	0.2
	화면 확대기	8.5	1.9				

주: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중 굵은 글씨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291-292.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지팡이가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기 8.2%, 수동휠체어 7.0% 순이며, 소지여부는 지팡이 19.8%, 보행기 6.4%, 척추보조기 6.3%, 수동휠체어 6.1% 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안경(콘텍트렌즈)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성손목이 12.4%, 의안 11.7% 순이며, 소지여부는 안경(콘텍트렌즈) 55.4%, 의안 10.3%,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7.2% 순임
- 지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터치모니터가 4.3%, 교육관련 훈련용 보조기구는 4.2%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3.8%, 0.6%임
- 신장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복막투석기구가 11.1%였고 소지여부는 8.9%임
- 호흡기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산소발생기가 56.6%, 인공호흡기가 27.2%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산소발생기가 51.7%, 기타가 9.5%임
- 장루·요루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장루주머니가 94.4%, 피부보호판이 86.2%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94.0%, 83.7%임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계속)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적, 자폐성장애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구	4.2	0.6	전체	기저귀매트	3.2	2.3
	의사소통 보조기구	0.8	0.1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5.9	2.3
	터치모니터	4.3	3.8		이동변기	3.8	2.7
	기타	0.2	0.0		특수 키보드	0.2	0.0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1.1	8.9		특수 마우스	0.1	0.0
	기타	2.7	1.6		각종 스위치	1.2	0.1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56.6	51.7		음성인식장치	0.2	0.0
	인공호흡기	27.2	8.1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1	0.0
	호흡근육훈련기	19.6	8.3		환경제어장치	0.3	0.0
	기타	11.1	9.5		이동식 전동리프트	0.3	0.1
안면장애	압력옷	1.8	0.0		주택개조	3.7	0.4
	기타	12.9	1.5		장애인용 의복	0.1	0.0
장루, 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4.4	94.0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4	0.3
	피부보호판	86.2	83.7		정보 시스템	4.3	0.7
	기타	32.0	32.0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0	0.0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9.6	9.6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구	0.0	0.0
	음성증폭기	2.8	0.0		배회 감지기	0.5	0.0
	기타	2.1	0.0		안전 손잡이	6.9	1.7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3.4	2.1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0.5	0.4
	욕창방지용방석	2.2	1.4		기타 호흡보조기	0.5	0.4
	침대 (전동 및 수동)	5.0	1.7		산소발생기	0.3	0.2
	기립보조기구	1.5	0.5		인공호흡기	0.1	0.1

주: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중 굵은 글씨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291-292.

-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보청기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막수신기 7.3%, 진동시계 5.0% 순이며, 소지여부는 보청기 10.6%, 인공와우 3.4%, 자막수신기 2.8% 순임
- 언어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인공후두(성대)가 9.6%, 음성증폭기가 2.8%로 나타났고 소지여부는 각각 9.6%, 0.0%로 나타남

## (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실적

〈표 12-1-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단위: 억원, 개수, 건수)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과기부
과	보험급여과	요양보험제도과	기초의료보장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	장애인고용과	보훈의료과	정보활용 지원팀
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	산재보험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정보격차 해소지원
지원기관	건보공단	건보공단	시·군·구	시·군·구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보훈병원	정보문화 진흥원
2018년 결산	1,190	1,460	317	14	70	83	69	36
2019년 예산	-	-	-	14	869	80	61	32
2019년 품목 수	85	18	85	30	217	58	44	18
지급실적	137,426	3,382,890	35,338	5,294	28,838	7,593	9,302	3,295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	산재보험 가입자	장애인고용 사업주	국가유공 상이자	등록 장애인	
주요 지급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식 목욕의자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식, 음성시계 등	의지보조기, 직업용 특수 휠체어	정보접근, 보조기구, 작업기구	의지보조기, 욕창방식 등	정보통신보조 기기
DB 관리체계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행복e음	통합노동보험 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업무 시스템	통합보훈 시스템	정보문화 진흥원	

주: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이 1,4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이 1,190억원, 의료급여가 317억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83억원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 품목수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이 217개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각각 85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58개임
-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이 3,382,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137,426건, 의료급여 35,338건 순임



〈표 12-1-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천원)

구 분	전 체	
	건수	금액
2001	22,150	6,489,959
2002	24,566	6,693,043
2003	27,067	7,149,238
2004	32,079	8,599,146
2005	48,957	21,669,161
2006	68,359	37,969,972
2007	96,844	61,536,703
2008	89,155	44,046,494
2009	77,106	34,286,658
2010	66,132	28,902,450
2011	68,125	27,180,231
2012	64,407	27,362,806
2013	71,350	32,306,026
2014	74,268	34,240,129
2015	83,077	46,323,900
2016	131,731	110,073,298
2017	129,193	106,487,216
2018	137,685	119,224,002
서울	24,936	18,620,034
부산	8,438	7,306,855
대구	8,106	7,467,264
인천	6,730	6,403,072
광주	2,848	2,485,077
대전	4,378	3,483,942
울산	2,356	1,971,402
세종	624	505,573
경기	25,684	21,446,678
강원	3,743	3,430,573
충북	4,236	4,007,816
충남	8,034	7,837,533
전북	7,374	6,564,337
전남	7,745	6,632,505
경북	12,018	11,449,812
경남	8,765	8,040,447
제주	1,670	1,571,082

주: 지급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pp.116-117, 142-143.

-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건수는 129,193건이며 지급액은 106,487,21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이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통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9.19., 일부개정)

###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적

〈표 1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2012	588,483	—	—	—	—	—	—	—	
2013	800,020	—	—	—	—	—	—	—	
2014	650,542	81,352	104,946	107,331	96,178	187,506	73,138	91	
2015	638,285	81,227	105,256	105,014	96,905	186,465	63,399	19	
2016	498,164	66,161	88,891	85,064	76,646	146,446	34,946	10	
2017	502,777	71,224	94,147	88,085	80,861	152,329	16,126	5	
2018	517,458	73,438	99,064	90,027	83,931	156,763	14,232	3	
지체	지체(전환대상)	361	22	53	118	76	80	12	0
	지체(상지절단)	1,827	222	286	424	405	183	307	0
	지체(하지절단)	9,412	389	896	4,733	3,188	119	87	0
	지체(상지관절)	2,549	21	135	284	1,645	191	273	0
	지체(하지관절)	92,263	218	1,185	5,125	31,120	49,056	5,558	1
	지체(상지기능)	6,596	571	1,330	2,555	1,397	493	250	0
	지체(하지기능)	104,106	11,980	16,524	31,453	23,559	20,402	188	0
	지체(척추)	97,976	408	5,316	8,005	4,798	74,652	4,796	1
지체(변형)	1,000	18	24	80	98	565	215	0	
뇌병변	86,491	22,927	22,770	27,623	10,543	1,872	756	0	
시각	29,821	11,146	2,288	4,615	4,275	5,939	1,558	0	
청각	청각(전환대상)	9	1	1	5	0	1	1	0
	청각(청력)	5,899	2	1,155	1,163	1,802	1,546	231	0
	청각(평형기능)	261	0	0	73	53	135	0	0
언어	1,523	1	0	922	600	0	0	0	
지적장애	21,217	17,175	2,561	1,481	0	0	0	0	
자폐성장애	16,011	7,169	8,795	47	0	0	0	0	
정신	934	203	217	514	0	0	0	0	
신장	34,413	0	33,155	0	0	1,258	0	0	
심장	609	59	302	220	1	27	0	0	
호흡기	3,055	789	1,799	446	0	21	0	0	
간	432	117	136	17	0	162	0	0	
안면	86	0	17	27	41	1	0	0	
장루,요루	425	0	71	50	254	50	0	0	
뇌전증	182	0	48	47	76	10	0	1	

주: 1) 굵은 글씨 부분은 현행 보행장애기준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유형별 등급으로 주차 가능 표지를 회수해야 할 대상임(약 130천건)

2) 2018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8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17,45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하지기능)장애가 104,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척추)장애 97,976건, 지체(하지관절)이 92,263건 순임

####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4) 편의시설 설치

〈표 12-1-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편의시설 종류	2013년도					2018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3,486,425	2,726,127	78.2	2,391,468	68.6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매개시설	1,455,010	1,202,226	82.6	1,063,331	73.1	3,791,947	3,116,303	82.2	2,950,482	77.8
내부시설	1,030,043	969,146	94.1	867,051	84.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808,790	414,059	51.2	336,763	41.6	1,489,298	1,055,077	70.8	959,091	64.4
안내시설	77,309	43,077	55.7	35,019	45.3	295,558	197,551	66.8	181,197	61.3
기타시설	115,273	97,619	84.7	89,304	77.5	124,179	93,540	75.3	84,392	68

주: 1) 설치기준 항목 수: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

2)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268.

-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78.2%, 적정설치율은 68.6%이었으나, 2018년도의 설치율은 80.2%, 적정 설치율은 74.8%로 증가함
- 2018년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내부시설이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내시설이 6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2018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시도별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세종	—	—	—	—	—	—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시설	공공시설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주체별	민간시설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612,251	61.1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181,666	60.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65,840	66.9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89,431	62.6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52,750	66.2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118,955	66.1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573,285	61.9
	노유자 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606,439	52.4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20,930	63.4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29,982	64.3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355,133	63.0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124,925	47.5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22,541	62.7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6,373	65.3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1,303	65.2
	묘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2,426	57.8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7,492	72.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11,468	57.7
	공원	1,418	27,656	15,307	55.3	13,557	49.0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750,881	64.7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15,290	57.2

주: 2013년도 조사에서 세종시는 충청남도에서 포함되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34,221,372,385.

-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87.9%, 울산 85.1%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이 84.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6%, 울산 82.0%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각각 80.2%로 동일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설치율은 공공이 민간보다 2.6%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 85.3%, 자동차관련시설 84.3%, 공동주택 84.1%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교정시설 8.0%로 가장 높았고, 장례식장 7.2%, 수련시설 7.1% 순으로 나타남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단위: 개, %)

구분		2018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93.3
시도별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3,352	916,007	734,622	80.2	663,373	72.4
	민간시설	172,595	8,118,883	6,508,672	80.2	6,091,328	75.0
건물 유형별	1층 근린생활시설	33,656	1,485,132	1,177,667	79.3	1,088,170	73.3
	2층 근린생활시설	13,760	422,324	319,236	75.6	302,960	71.7
	문화·집회시설	2,101	160,677	135,851	84.5	126,715	78.9
	종교시설	5,449	188,172	147,054	78.1	136,018	72.3
	판매시설	1,824	120,309	102,656	85.3	96,985	80.6
	의료시설	3,830	320,052	267,648	83.6	251,111	78.5
	교육연구시설	19,243	1,422,689	1,190,633	83.7	1,105,823	77.7
	노유자 시설	23,950	1,324,789	966,538	73.0	884,849	66.8
	수련시설	518	39,212	31,932	81.4	29,142	74.3
	운동시설	1,653	60,604	49,979	82.5	47,096	77.7
	업무시설	12,323	861,319	720,108	83.6	671,801	78.0
	숙박시설	3,623	204,736	162,601	79.4	152,955	74.7
	공장	7,027	327,578	224,206	68.4	210,509	64.3
	자동차관련시설	1,546	38,250	32,241	84.3	30,840	80.6
	방송통신시설	208	12,818	10,420	81.3	9,561	74.6
	교정시설	47	2,829	2,299	81.3	2,074	73.3
	묘지관련시설	138	6,589	5,023	76.2	4,603	69.9
	관광휴게시설	297	14,724	12,704	86.3	11,893	80.8
	장례식장	338	25,305	20,589	81.4	18,787	74.2
	공원	1,949	66,393	43,989	66.3	41,474	62.5
	공동주택	51,753	1,888,072	1,587,369	84.1	1,501,216	79.5
	기숙사	714	42,317	32,551	76.9	30,119	71.2

주: 2013년도 조사에서 세종시는 충청남도에서 포함되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34,221,372,385.

-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87.9%, 울산 85.1%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이 84.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6%, 울산 82.0%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각각 80.2%로 동일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설치율은 공공이 민간보다 2.6%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 85.3%, 자동차관련시설 84.3%, 공동주택 84.1%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교정시설 8.0%로 가장 높았고, 장례식장 7.2%, 수련시설 7.1% 순으로 나타남

## (5) 이동 편의시설 설치

〈표 12-1-7〉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2015	2016	2018	증감율
교통 수단	버스차량	81.4	84.6	86.7	▲2.1
	철도차량	—	73.3	98.6	▲6.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	93.5	93.8	79.6	▲4.8
	항공기	98.3	98.7	69.7	▽29.0
	여객선	17.0	17.6	34.3	▲16.7
	평균	72.6	73.6	73.8	▲0.2
여객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56.2	51.1	60.9	▲9.8
	버스정류장	84.7	77.6	32.8	▲5.6
	철도역사	77.4	77.0	81.9	▲4.9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75.3	74.5	83.2	▲7.8
	공항	64.2	66.1	82.3	▲13.2
	여객선터미널	35.0	31.9	79.3	▲0.9
	평균	65.5	64.0	70.1	▲6.1
보행 환경		67.4	64.3	64.2	▽0.1
전체 평균		68.5	67.3	69.4	▲2.1

주: 2015년(10개도) 및 2016년(전국)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8년(9개도) 조사범위와 동일하게 재 산정한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2018), 「2018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p.82.

- 2018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 적합률은 69.4%이며, 2016년 67.3%보다 2.1%p 향상됨
- 2018년 기준으로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73.8%이며, 철도차량 98.6%, 버스차량 86.7% 순임
- 2018년 기준으로 여객시설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70.1%이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83.2%, 공항여객터미널 82.3% 순임



〈표 12-1-8〉 저상버스 도입 현황

(단위: 대, %)

구분	2017년		2018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7,556	22.4	8,038	23.4
서울특별시	3,112	43.6	3,332	45.0
부산광역시	528	21.0	557	22.1
대구광역시	473	31.1	526	34.6
인천광역시	379	16.3	423	17.9
광주광역시	200	19.2	213	20.5
대전광역시	247	24.3	279	27.5
울산광역시	93	12.6	96	11.6
세종특별자치시	45	24.5	54	23.0
경기도	1,316	13.0	1,343	12.7
강원도	193	29.3	193	34.8
충청북도	117	21.8	122	20.8
충청남도	57	7.2	61	7.0
전라북도	172	17.6	182	22.0
전라남도	80	10.9	87	12.1
경상북도	143	9.9	164	13.9
경상남도	333	20.2	318	18.7
제주특별자치도	68	17.4	88	22.6

주: 1) 2018년 12월 기준임

2) 저상버스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시내버스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8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p.174.

- 2018년 저상버스는 총 8,038대로 2017년 대비 482대가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은 2017년 22.4%에서 2018년 23.4%로 향상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45.0%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8%, 대구광역시 34.6% 순임

〈표 12-1-9〉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단위: 명, 대, %)

구분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법정대수산정 1, 2급 장애인	지표값	순위
2013	548,724	2,780	1,752	63.0
2014	538,775	2,692	2,298	85.4
2015	546,044	2,726	2,601	95.4
2016	543,659	2,731	2,820	103.3
2017	465,082	2,327	2,932	126
2018	539,388	2,699	3,187	118.1
소계	220,495	1,104	1,116	101.1
8개 특별 광역시	서울	85,955	437	101.6
	부산	36,727	128	69.6
	대구	25,787	140	108.5
	인천	28,350	145	102.1
	광주	15,357	116	150.6
	대전	15,935	82	102.5
	울산	10,157	55	107.8
	세종	2,227	13	118.2
소계	318,893	1,595	2,071	129.8
9개도	경기	113,816	949	167.4
	강원	20,520	110	107.8
	충북	20,615	90	86.5
	충남	26,518	120	89.6
	전북	26,473	149	112
	전남	28,435	125	88.7
	경북	35,848	159	88.3
	경남	38,792	328	168.2
	제주	7,876	41	105.1

주: 1) 2018년 12월 기준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법정기준대수

· 법정기준대수 산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의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산정하였음

·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1, 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중복이용 가능할 때에는 법정운행대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78.

-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3,187대로 법정대수 2,699대 대비 118.1%의 보급률로 나타남
- 8개 특별·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1.1%(1,116대)로 부산광역시(69.6%)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정기준대수를 초과함
  - 광주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50.6%로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보급률이 가장 낮은 부산광역시(69.6%)의 경우 대체수단 937대(바우처택시 914대,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 15대, 기타 8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개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29.8%(2071대)로 전체적인 보급률은 법정기준대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경기도(167.4%), 강원도(107.8%), 전라북도(112.0%), 경상남도(168.2%), 제주특별자치도(105.1%)의 보급률은 법정기준대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86.5%), 충청남도(89.6%), 전라남도(88.7%), 경상북도(88.3%)의 보급률은 법정기준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개도의 기초지자체 152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중 42개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를 달성하지 못함

## 2) 정보 접근성

## (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단위: %)

구분	디지털정보화수준 (디지털정보격차지수)	디지털정보접근지수	디지털정보역량지수	디지털정보활용지수
2014	60.2	79.9	45.0	59.7
2015	62.5	83.5	47.0	62.4
2016	65.4	88.1	49.8	64.6
2017	70.0	91.6	57.7	71.5
2018	74.6	92.0	66.9	73.6

주: 1)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 + 디지털정보역량지수(0.4) + 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2)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3)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4)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p.36-42.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단위: %, %p)

구분	일반국민	장애인	차이(%p)
인터넷 이용률	91.5	77.4	14.1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6.1	90.1	6.0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5.4	92.5	2.9
생활서비스 이용률	84.2	68.1	16.1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65.5	47.4	18.1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85.0	76.5	8.5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42.5	33.3	9.2
온라인 경제활동률	59.1	40.0	19.1

주: 1) 인터넷 이용률: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2)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정보 및 뉴스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3)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4) 생활 서비스 이용률: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약,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5)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6)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 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p.60-75.

–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지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임

• 디지털정보격차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 중 디지털정보접근지수가 91.6%로 가장 높으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66.9%로 가장 낮음

–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0.1%, 인터넷 이용률 77.4%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수치가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남. 특히 온라인 경제활동률 19.1%p,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19.1%p, 생활서비스 이용률 16.1%p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2) 정보 접근성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단위: 개, 점)

구분	사이트 수	배점	평균점수
전체	1,000	100	66.6
산업분야	도매 및 소매업	110	62.9
	숙박 및 음식점업	20	6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47	66.5
	금융 및 보험업	60	7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	62.1
	교육 서비스업	95	6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6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	65.6
인식의 용이성	소개	30	17.97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10	1.99
	자막제공	4	3.88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3	2.91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2	1.96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6	2.25
	배경음 사용금지	2	1.98
	콘텐츠 간의 구분	3	3.00
조사의 항목	계	38	24.32
	키보드 사용보장	6	2.48
	초점 이동	6	3.88
	조작 가능	3	2.99
	응답시간 조절	2	1.99
	정지 기능 제공	4	3.53
	깜빡임 및 번쩍임 사용제한	2	2.00
	반복 영역 건너뛰기	5	1.46
	제목 제공	6	2.00
	적절한 링크 텍스트	4	3.99
이해의 용이성	계	28	20.94
	기본 언어 표시	4	2.6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5	3.84
	콘텐츠의 선형화	3	2.77
	표의 구성	6	4.83
	레이블 제공	6	2.98
	오류정정	4	3.84
견고성	계	4	3.27
	마크업 오류 방지	4	3.27

주: 1)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2016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타 업종에 비하여 웹사이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8개를 모집단으로 삼음

2) 1,000개 웹 사이트별로 10개 주요 페이지를 선정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가표준)'의 검사 항목 기준으로 점검함

3) 접근성 수준은 우수(95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보통(75점 이상), 미흡(75점 이하)로 나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웹 접근성 실태조사'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8개 분야의 총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66.6점으로 미흡한 수준임

-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77.9점(양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그 외 산업 분야는 모두 평균 60점대 수준으로 정보 접근성이 저조함
- 23개 항목 중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1.99점/10점), '반복 영역 건너뛰기'(1.46점/5점), '제목 제공'(2.00점/6점),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2.25점/6점) 항목의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든 기관·기업의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 3) 사법 접근성

#### (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96.10.1. -'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민사 등 건	29,422	2,987	2,692	4,728	5,706	6,007	5,571	5,561	5,761	3,926	1,968	2,233	1,951	78,513
민사 등 금액	5,921	785	645	1,072	1,143	1,101	1,009	1,062	1,084	841	430	547	524	16,164
형사 등 건	4,356	516	317	461	384	359	362	393	343	279	187	166	80	8,203

주: 1)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장애인(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자부담)

2) 대상자 증빙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3)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송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무료는 1-6급),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정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4)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증빙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 명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신체감정서,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2019.11.검색, 법률구조안내-무료대상자별 도움정보-무료구조실적)

- 2018년 민사 등의 건수는 1,951건이며 금액은 52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2018년 형사 등의 건수는 8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8.2% 감소함

## 13. 재난 및 안전

[그림 2-13-1] 응급출동 현황



- 응급출동 현황은 2018년 1,3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87건 증가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1,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78건, 응급호출 58건 순으로 나타남
- 특히 119호출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1) 장애인 응급안전망

## (1) 응급 출동 실적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응급상황			
		화재	가스	응급호출	119호출
2013년	25	2	—	7	16
2014년	339	53	—	99	187
2015년	509	28	1	69	411
2016년	448	67	7	66	308
2017년	966	78	2	63	823
계	1353	78	4	58	1213
2017년	1월	122	4	0	3
	2월	105	10	0	6
	3월	142	7	0	7
	4월	99	3	1	1
	5월	121	14	0	8
	6월	122	2	1	2
	7월	125	3	1	8
	8월	117	4	1	8
	9월	89	7	0	6
	10월	112	11	0	3
	11월	91	9	0	1
	12월	108	4	0	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응급출동 현황은 2018년 1,3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87건 증가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1,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78건, 응급호출 58건 순으로 나타남
- 특히 119호출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2) 장애인 안전시설

### (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구분	2008년도					2013년도					2018년도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 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 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 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 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 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 율
계	28,994	14,350	49.5	7,498	25.9	77,309	43,077	55.7	35,019	45.3	296,558	197,551	66.8	181,197	61.3
유도 및 안내 설비	5,612	1,389	24.8	896	16.0	16,237	8,523	52.5	7,720	47.5	116,670	67,068	57.5	63,334	54.3
경보 및 피난 설비	5,612	3,824	68.1	1,339	23.9	32,564	25,522	78.4	19,840	60.9	97,673	79,105	81.0	70,247	71.9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17,770	9,137	51.4	5,263	29.6	28,508	9,032	31.7	7,459	26.2	81,215	51,378	63.3	47,616	58.6
승강기	173,763	152,065	87.5	138,852	79.9	73,350	70,813	96.5	68,211	93.0	-	-	-	-	-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승강기 설치현황은 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20.

-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은 2008년 49.5%에서 2013년 55.7%, 2018년 66.8%로 증가하였음. 적정 설치율 또한 2008년 23.2%에서 2013년 44.9%, 2018년 61.3% 증가하였음

•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은 81.0%로 가장 높으며 접근로 점자블록 63.3%, 유도 및 안내설비 57.5% 순으로 나타남

#### ※※ 장애인 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
-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 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았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10,641	67,047	55.3	63,313	52.4	97,663	79,095	75.9	55,915	66.5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7,285	9,028	52.2	8,556	49.6	26,274	17,000	64.7	14	54.6
	민간시설	93,356	58,019	58.4	54,757	55.1	71,389	62,095	87.0	55,901	78.3
계		109,077	66,588	52.6	63,001	49.8	97,673	79,105	78.5	70,247	68.9
건물 유형별	1층 근린생활시설	-	-	-	-	-	19,948	11,393	57.0	9,271	47.0
	2층 근린생활시설	-	-	-	-	-	128	108	84.4	84	65.6
	문화 및 집회시설	3,354	1,544	46.0	1,461	43.6	4,159	3,724	89.5	3,362	80.8
	종교시설	-	-	-	-	-	10,685	8,486	79.4	7,432	69.6
	판매시설	-	-	-	-	-	3,613	3,179	88.0	2,888	79.9
	의료시설	19,865	9,403	47.3	8,877	44.7	7,618	6,665	87.5	6,061	79.6
	교육연구시설	58,149	41,870	72.0	39,598	68.1	31,267	28,025	89.6	25,472	81.5
	노유자시설	10,395	4,722	45.4	4,488	43.2	4,226	3,608	85.4	3,232	76.5
	수련시설	-	-	-	-	-	1,000	844	84.4	689	68.9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17,314	9,049	52.3	8,577	49.5	6,754	5,855	86.7	5,232	77.5
	숙박시설	-	-	-	-	-	7,190	6,239	86.8	5,657	78.7
	공장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413	369	89.3	325	78.7
	교정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	-	-	-	-	672	610	90.8	542	80.7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받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p.283.359.

- 2018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다

-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은 교육연구시설 72.0%, 업무시설 52.3%, 문화 및 집회시설 46.0%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 설비의 설치율은 장례식장 90.8%, 교육연구시설 89.6%, 문화 및 집회시설 89.5% 순으로 높음
-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79.4%, 의료시설 71.8%, 숙박시설 67.6% 순으로 높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단위: 개, %)

구분	점자블록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81,203	51,366	63.6	47,604	58.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28,540	18,455	64.7	16,790	58.8
민간시설	52,663	32,911	62.5	30,814	58.5
계	78,390	50,130	63.8	46,690	59.7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4,206	13,864	57.0	12,449	51.0
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4,084	2,676	65.5	2,488	60.9
종교시설	—	—	—	—	—
판매시설	—	—	—	—	—
의료시설	7,691	5,519	71.8	5,284	68.7
교육연구시설	27,026	17,080	63.2	16,168	59.8
노유자시설	4,534	2,939	64.8	2,753	60.7
수련시설	—	—	—	—	—
운동시설	—	—	—	—	—
업무시설	7,942	6,302	79.4	5,906	74.4
숙박시설	2,097	1,417	67.6	1,336	63.7
공장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교정	—	—	—	—	—
모지관련시설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장례식장	810	333	41.1	306	37.8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p.283.359.

- 2018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다음

-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은 교육연구시설 72.0%, 업무시설 52.3%, 문화 및 집회시설 46.0%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 설비의 설치율은 장례식장 90.8%, 교육연구시설 89.6%, 문화 및 집회시설 89.5% 순으로 높음
-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79.4%, 의료시설 71.8%, 숙박시설 67.6% 순으로 높음



## 3) 장애인 보호구역

## (1) 보호구역 지정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06	8,346	8,346	—	—
2007	8,429	8,429	—	—
2008	9,096	8,999	97	—
2009	9,789	9,584	205	—
2010	13,472	13,207	265	—
2011	15,338	14,921	417	—
2012	15,730	15,136	566	28
2013	16,105	15,444	626	35
2014	16,537	15,799	697	41
2015	16,995	16,085	859	51
2016	17,531	16,355	1,107	69
2017	17,939	16,555	1,299	85
서울	1,857	1,733	118	6
부산	956	896	59	1
대구	837	779	52	6
인천	795	718	71	6
광주	663	604	48	11
대전	556	468	87	1
울산	372	346	24	2
세종	96	91	5	—
경기	3,830	3,615	188	27
강원	814	779	35	—
충북	784	750	33	1
충남	1,342	1,018	313	11
전북	1,041	1,006	35	—
전남	1,064	1,039	25	—
경북	1,301	1,198	103	—
경남	1,241	1,197	44	—
제주	390	318	59	13

주: 1) 2017년 12월 말 기준

2) 보호구역은 어린이(1995년), 노인(2008년), 장애인(2012년) 순으로 지정됨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19.]'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의미함

자료: 국민안전처(2017). 『2017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보호구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이 16,555개로 가장 많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85개로 가장 적음

• 장애인 보호구역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은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며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고 제주 13개소, 광주와 충남 11개소 순임

### Ⅲ

## 국외통계

1. OECD
2. 프랑스
3. 독일
4.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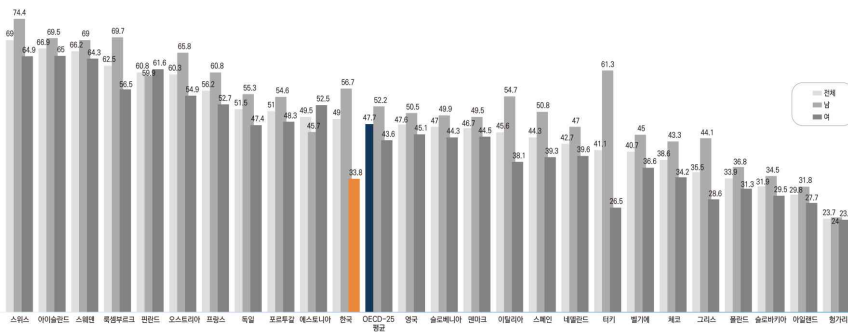
## Ⅲ. 국외통계

### 1. OECD 회원국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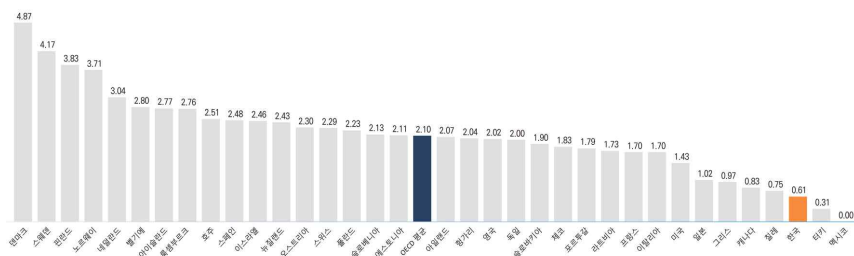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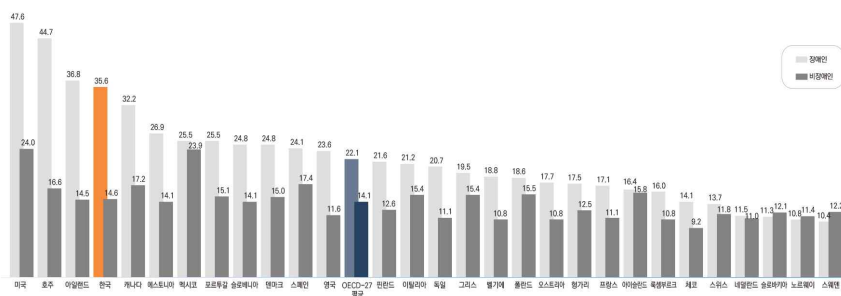
- 2017년 OECD 국가(30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18.8%이며, 한국 장애인 출현율은 5.4%임
- 유럽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 5.4%, 일본 7.4% 등임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7.7%로 비장애인 68.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49.0%이며, 남성 56.7%, 여성 33.8%임(2018년 기준)



[그림 3-1-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2012년)



[그림 3-1-4]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2012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0%로 한국의 0.61%에 비해 약 3.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2%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22.1%로 비장애인의 14.1%에 비하여 약 1.6배 높음.
  - 한국의 경우,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OECD 국가의 평균 22.1%보다 약 1.6배, 비장애인 14.6%에 비해 약 2.4배 높음

## 1) 장애인구

### (1) 장애출현율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17년)

(단위 :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벨기에	19.3	17.5	21.1
체코	19.4	17.9	20.4
덴마크	27.4	25.6	29.2
독일	17.5	16.9	18.2
에스토니아	24.3	24.0	24.5
아일랜드	12.9	13.1	12.7
그리스	12.6	11.9	13.3
스페인	12.2	11.6	12.8
프랑스	17.9	17.1	18.6
이탈리아	13.6	12.6	14.6
룩셈부르크	23.6	22.0	25.3
헝가리	17.5	16.1	18.8
네덜란드	25.4	21.0	29.8
오스트리아	27.1	25.9	28.4
폴란드	16.6	16.8	16.3
포르투갈	23.5	20.0	26.8
슬로베니아	29.7	28.4	31.1
슬로바키아	22.6	20.4	24.8
핀란드	27.4	24.5	30.6
스웨덴	10.3	7.7	13.1
영국	19.8	17.1	22.4
아이스란드	18.5	13.2	24.0
노르웨이	15.1	10.6	19.8
스위스	26.1	22.8	29.4
터키	16.2	13.5	18.8
미국	12.6	12.5	12.7
캐나다	22.3	20.2	24.3
한국	5.4	-	-
일본	7.4	-	-
호주	18.3	18.0	18.6
OECD-30	18.8	17.8	21.4



주: 1) OECD평균은 30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호주 : 활동 및 핵심활동제한(의사소통, 이동, 자기관리) 및 참여제한(학교 또는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 있는 사람
  - 미국 : 듣기, 보기, 집중 및 기억/의사결정(인지), 걷거나 계단오르기(보행), 옷입거나 목욕하기(자기관리), 병원 및 쇼핑(자립생활)의 어려움 등에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한국 :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사 관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등록장애인과 15개 법정장애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추가등록이 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함),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포함
  - 캐나다 :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보기, 듣기, 걷거나 계단 사용/손 및 손가락 사용, 학습/기억 또는 집중, 정서적/ 정신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다른 건강 문제 또는 장기간 지속되거나 6개월 이상 예상되는 장기간의 증상(앞의 5가지 제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때때로', '자주', '항상' 있는 사람)
  - 일본 : 신체장애인(국가, 시설 포함·고령자 시설입소자 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뇌전증과 알츠하이머 포함)을 의미함
- 3) 각 나라별로 출현율 연령 기준 및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16세이상-64세이하, 2017년(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2016년 자료)
  - 캐나다 : 15세 이상, 2017년
  - 미국, 호주, 한국, 일본 : 전 연령, 미국 2017년, 호주 2015년, 한국 2017년, 일본 2016년
-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자료 :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19)

호주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5.', 2016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2018

한국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2017

미국 - U.S. Census Bureau, 「2017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8

일본 - 내각부, 「2018 장애인백서」, 2018

- 2017년 OECD 국가(30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18.8%이며, 한국 장애인 출현율은 5.4%임

- 유럽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 5.4%, 일본 7.4%임

#### ※※ 한국의 2017년 장애인 출현율

- 한국의 2017년 장애인 출현율(재가·시설장애인 포함)은 5.39%로 2014년 5.59%, 2011년 5.61%에 비해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전체 연령 기준).

-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 증가율이 낮으며,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라 감소추이를 보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성별 장애인출현율은(재가장애인 기준) 남성 6.0%, 여성 4.4%임

#### ※※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비교 시 주의사항

- 장애인 출현율은 국가별 장애정의 및 조사된 장애측면(손상 중심 또는 활동 및 참여제한 중심 등),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목적, 자연재해,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의 추세, 전쟁 및 폭력 사태, 인구학적 노인 증가, 경제 및 빈곤, 접근가능한 환경 부재, 교육 및 건강상의 기회 부족, 문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별 장애출현율 단순 비교 시 유의해야 함(WHO & World Bank, 2011; Al Jubeh, 2017; Thompson, 2017).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2017년)

(단위: %)

구 분	16-24	25-34	35-44	45-64	65-74	75세 이상
벨기에	9.5	10.2	19.0	27.1	34.4	54.4
체코	7.9	11.0	14.0	28.2	43.3	67.0
덴마크	17.6	22.7	28.2	33.3	36.6	43.8
독일	6.8	8.8	13.7	26.3	31.9	42.6
에스토니아	12.7	14.3	18.5	36.7	57.6	77.4
아일랜드	6.3	8.1	10.2	19.4	28.0	42.3
그리스	3.4	6.4	8.7	20.1	45.4	73.9
스페인	3.6	6.8	9.6	18.6	28.9	53.6
프랑스	6.7	11.7	15.5	26.5	38.6	63.5
이탈리아	5.1	6.8	9.3	20.8	41.2	65.1
룩셈부르크	13.9	15.4	18.9	34.3	46.4	62.9
헝가리	6.4	6.7	12.3	27.6	49.9	71.1
네덜란드	16.7	18.3	22.3	33.2	43.3	54.8
오스트리아	13.3	18.1	22.7	37.8	50.5	70.6
폴란드	6.2	8.3	10.7	26.9	42.6	64.1
포르투갈	10.3	14.9	19.9	33.4	55.1	71.3
슬로베니아	17.9	18.3	23.3	42.3	54.5	70.8
슬로바키아	7.5	10.0	17.4	38.4	68.6	85.7
핀란드	18.5	22.5	25.0	34.3	42.3	64.0
스웨덴	6.9	9.4	8.7	13.1	16.8	28.7
영국	14.6	13.6	17.4	26.0	36.5	52.6
아이슬란드	14.6	16.3	17.1	22.1	26.9	30.4
노르웨이	9.3	10.1	14.3	20.4	18.8	29.9
스위스	17.0	19.8	24.3	33.0	43.6	60.8
터키	5.5	8.7	15.4	29.2	48.7	66.7
OECD-25	10.3	12.7	16.7	28.4	41.2	58.7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각 나라별로 출현율 연령 기준 및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2017년(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2016년 자료)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19)

- OECD 국가(25개 국가)의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16-24세 10.3%, 25-34세 12.7%, 35-44세 16.7%, 45-64세 28.4%, 65-74세 41.2%, 75세 이상 58.7%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음

※※ 한국 2017년 연령별 장애출현율

- 2017년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9세 1.67%, 30-39세 1.70%, 40-49세 3.18%, 50-59세 6.36%, 60-69세 11.13%, 70세 이상 20.07%임(재가장애인 기준)(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미국, 캐나다, 호주 연령별 장애출현율

- 미국은 2017년 18-34세 6.1%, 35-64세 12.9%, 65-74세 25.4%, 75세 이상 49.7% 임
- 캐나다는 2017년 15-24세 13.1%, 25-44세 15.3%, 45-64세 24.3%, 65세-74세 32%, 75세 이상 47.4% 임
- 호주는 2015년 15-24세 8.2%, 25-34세 8.3%, 35-44세 12.1%, 45-54세 16.4%, 55-59세 23.4%, 60-64세 31.5% 임

※ 참고자료

- 미국 : U.S. Census Bureau, 「2017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8
-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2018
- 호주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5」, 2016



## 2) 교육

## (1)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2017년)

(단위: %)

구 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29.1	20.1	11.7
체코	33.3	20.4	10.7
덴마크	31.1	28.9	23.5
독일	22.8	18.5	11.6
에스토니아	28.3	28.7	17.4
아일랜드	23.5	10.9	7.7
그리스	20.6	10.9	8.3
스페인	17.3	9.2	8.5
프랑스	24.8	18.7	12.4
이탈리아	18.0	11.1	10.2
룩셈부르크	33.8	22.2	15.5
헝가리	26.0	16.9	10.7
네덜란드	30.8	27.6	20.0
오스트리아	37.7	28.3	19.5
폴란드	22.3	18.6	9.0
포르투갈	29.4	17.1	16.1
슬로베니아	42.1	30.4	21.4
슬로바키아	27.0	24.2	15.3
핀란드	35.0	28.3	23.8
스웨덴	13.9	11.0	7.5
영국	33.2	22.5	17.1
아이슬란드	24.6	17.7	14.8
노르웨이	20.9	15.5	10.4
스위스	28.1	28.0	22.5
터키	20.7	9.0	6.9
OECD-25	27.0	19.8	14.1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격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각 나라별로 출현율 연령 기준 및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2017년(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2016년 자료)

4)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출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19)

- OECD 국가의 2017년 근로가능연령대(16~64세) 학력 수준별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ISCED 0~2) 출업 인구 중 27.0%, 중등 교육(ISCED levels 3~4)은 19.8%, 고등교육(ISCED levels 5~8)은 중 15.3%로 나타남

-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장애인 비율은 낮은 편임
- 국가별로는 저학력과 고학력 간 가장 작은 격차를 보이는 국가는 스위스와 스웨덴 임

※※ OECD 국가의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 16-29세 청년장애인 교육수준

〈표 14-2-2〉 OECD 국가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2017년)

(단위: %)

구 분	low(SCED levels 0~2)	medium(SCED levels 3~4)	high(SCED levels 5~8)
벨기에	12.1	9.4	4.6
체코	13.2	8.0	8.8
덴마크	19.3	19.4	19.9
독일	10.1	6.4	5.3
에스토니아	16.3	14.6	9.6
아일랜드	11.8	5.4	2.5
그리스	5.7	4.0	3.9
스페인	4.8	3.8	3.5
프랑스	10.2	8.1	7.5
이탈리아	5.9	5.3	4.9
룩셈부르크	19.0	12.5	10.9
헝가리	9.2	4.9	2.7
네덜란드	17.7	19.0	13.5
오스트리아	19.8	13.0	12.4
폴란드	9.2	6.7	5.1
포르투갈	14.2	10.0	9.5
슬로베니아	18.4	17.7	18.1
슬로바키아	7.9	8.6	5.4
핀란드	27.3	15.2	20.5
스웨덴	9.8	8.2	5.8
영국	21.8	15.3	10.7
아이스란드	19.1	12.4	16.3
노르웨이	10.3	10.1	5.7
스위스	17.4	18.1	18.5
터키	7.7	4.7	3.9
OECD-25	13.5	10.4	9.2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각 나라별로 출현율 연평균 및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2017년(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2016년 자료)

4)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19)

- OECD 국가의 2017년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졸업 이하(SCED levels 0-2)의 경우에는 장애인 이 13.5%, 중등 교육 10.4%, 고등 교육 9.2%임



## 3) 고용

## (1) 고용률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40.7	45.0	36.6	66.4	71.7	61.0
체코	38.6	43.3	34.2	68.5	77.1	59.6
덴마크	46.7	49.5	44.5	78.1	79.8	76.3
독일	51.5	55.3	47.4	72.1	77.7	66.7
에스토니아	49.5	45.7	52.5	68.6	71.8	65.6
아일랜드	29.8	31.8	27.7	60.9	64.6	57.1
그리스	35.5	44.1	28.6	58.5	69.3	47.5
스페인	44.3	50.8	39.3	60.5	66.3	54.5
프랑스	56.2	60.8	52.7	66.1	71.1	60.9
이탈리아	45.6	54.7	38.1	58.9	69.6	48.2
룩셈부르크	62.5	69.7	56.5	64.9	72.1	57.0
헝가리	23.7	24.0	23.4	61.1	66.9	55.3
네덜란드	42.7	47.0	39.6	80.1	84.3	75.7
오스트리아	60.3	65.8	54.9	75.6	81.2	70.1
폴란드	33.9	36.8	31.3	63.9	71.1	56.6
포르투갈	51.0	54.6	48.3	67.8	70.9	64.5
슬로베니아	47.0	49.9	44.3	68.4	71.4	65.3
슬로바키아	31.9	34.5	29.5	62.6	69.6	55.5
핀란드	60.8	59.9	61.6	73.2	75.4	70.9
스웨덴	66.2	69.0	64.3	75.7	77.4	73.8
영국	47.6	50.5	45.1	75.4	80.4	70.3
아이슬란드	66.9	69.5	65.0	84.0	83.7	84.3
스위스	69.0	74.4	64.9	81.6	87.3	75.4
터키	41.1	61.3	26.5	51.0	71.2	29.5
한국	49.0	56.7	33.8	-	-	-
OECD-25	47.7	52.2	43.6	68.5	74.2	62.6

주: 1)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LFS(2011) 및 한국의 연령 기준은 15-64세임

3)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2011년에 조사된 LFS(2011)자료로 장애정의는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뺀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잠고/깨고/돌리는 것 등임

- 한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이며, 동 조사에서의 장애는 2018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15세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4)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임(2018년 기준)

5)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 중 장애인 취업자 비율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7.7%로 비장애인 68.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49.0%이며, 남성 56.7%, 여성 33.8%임(2018년 기준)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위스 69.0%, 아이슬란드 66.9%, 스웨덴 66.2% 등임
  -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8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15-64세 이하)은 67.0%, 남성 76.3%, 여성 57.5% 임

## (2)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65.2	34.8	76.0	24.0
체코	86.4	13.6	96.0	4.0
덴마크	62.7	37.3	75.6	24.4
독일	68.5	31.5	75.0	25.0
에스토니아	88.2	11.8	91.3	8.7
아일랜드	69.3	30.7	77.3	22.7
그리스	92.2	7.8	93.9	6.1
스페인	83.2	16.8	85.6	14.4
프랑스	75.6	24.4	83.7	16.3
이탈리아	81.3	18.7	84.8	15.2
룩셈부르크	76.7	22.6	83.1	16.7
헝가리	74.1	25.9	94.7	5.3
네덜란드	39.3	60.7	52.6	47.4
오스트리아	77.0	23.0	77.0	23.0
폴란드	83.8	16.2	93.5	6.5
포르투갈	82.0	18.0	91.5	8.5
슬로베니아	85.1	14.9	91.8	8.2
슬로바키아	87.3	12.7	96.4	3.6
핀란드	83.0	16.9	86.7	13.2
스웨덴	65.0	35.0	77.2	22.8
영국	68.4	31.2	75.4	24.4
아이스란드	74.9	24.8	82.3	17.7
스위스	58.6	40.8	69.6	30.1
터키	79.9	20.1	89.9	10.1
OECD-24	75.3	24.6	83.4	16.6

주: 1) 24개국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27)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75.3%로 비장애인 8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국가는 취업 장애인 중 100명중 24.6명이, 비장애인은 100명 중 약 16.6명이 평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함
- 2018년 한국 임금근로 장애인(15-64세) 중 전일제 근로는 74.0%, 시간제 근로는 26.0%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82.6	17.4	44.5	55.5
체코	92.2	7.8	79.4	20.6
덴마크	77.8	22.2	50.0	50.0
독일	84.8	15.2	48.5	51.5
에스토니아	95.0	—	83.4	16.6
아일랜드	81.0	19.0	55.5	44.5
그리스	95.5	4.5	88.1	11.9
스페인	94.4	5.6	72.1	27.9
프랑스	90.8	9.2	62.5	37.5
이탈리아	91.1	8.9	69.9	30.1
룩셈부르크	94.5	5.0	58.5	40.7
헝가리	77.0	23.0	71.5	28.5
네덜란드	63.8	36.2	17.5	82.5
오스트리아	92.3	7.7	59.1	40.9
폴란드	85.5	14.5	82.1	17.9
포르투갈	87.0	13.0	77.7	22.3
슬로베니아	89.4	10.6	80.6	19.4
슬로바키아	90.6	9.4	84.0	16.0
핀란드	87.4	12.5	79.4	20.5
스웨덴	82.0	18.0	52.6	47.4
영국	83.6	15.9	53.9	45.7
아이스란드	91.1	—	62.4	37.6
스위스	83.0	16.6	36.8	62.4
터키	89.8	10.2	63.3	36.7
OECD-24	86.8	13.7	63.9	36.0

주: 1) 24개국의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27)

- OECD 국가 2011년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86.8%, 여성 장애인 63.9%로 여성장애인의 전일제 비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은 평균 13.7%, 여성 장애인 36.0%로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이 높음

### (3) 실업률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10.1	9.0	11.4	6.1	6.1	6.1
체코	15.7	14.5	17.1	6.3	5.4	7.4
덴마크	10.8	11.3	10.4	7.1	7.5	6.7
독일	12.2	12.4	12.0	6.4	6.7	6.1
에스토니아	18.4	23.2	14.6	11.5	12.0	11.0
아일랜드	17.9	19.5	16.0	14.8	18.1	10.7
그리스	14.6	13.3	16.2	16.7	13.9	20.6
스페인	23.3	23.6	23.1	21.9	21.5	22.5
프랑스	12.3	10.5	13.8	8.7	8.2	9.3
이탈리아	8.1	8.6	7.5	8.0	7.0	9.3
룩셈부르크	4.9	3.6	6.1	5.3	4.2	6.7
헝가리	19.4	20.2	18.6	10.3	10.3	10.3
네덜란드	8.6	10.4	7.0	4.1	4.0	4.1
오스트리아	6.0	6.1	5.9	3.8	3.6	4.0
폴란드	11.5	12.0	11.0	9.4	8.8	10.2
포르투갈	14.4	14.2	14.6	12.5	12.4	12.6
슬로베니아	9.9	10.7	9	7.5	7.7	7.3
슬로바키아	19.0	19.4	18.6	12.9	13.2	12.5
핀란드	9.1	10.8	7.6	7.5	8.1	6.9
스웨덴	9.6	9.9	9.3	7.3	7.4	7.2
영국	10.6	12.0	9.3	7.9	8.5	7.1
아이슬란드	9.8	12.2	7.8	8.2	9.1	7.2
스위스	6.1	6.1	6.1	3.8	3.5	4.2
터키	7.5	8.1	6.5	8.9	8.3	10.6
한국	6.8	6.0	9.2	-	-	-
OECD-25	11.9	12.3	11.5	9.0	9.0	9.2

주: 1) 25개국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임(2018년 기준)

3) LFS(2011) 및 한국 연령 기준은 15-64세임

4) 장애인 실업률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 중 장애인 실업자 비율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8-12-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11.9%로 비장애인 9.0%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2018년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은 6.8% 이며, 남성 6.0%, 여성 9.2%(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페인 23.3%, 헝가리 19.4% 등임
  -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8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15-64세 이하)은 4.2%, 남성 4.3%, 여성 4.0% 임.



## 4) 재정

## (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73	2.36	2.56	2.27	2.19	2.17	2.32	2.36	2.39	2.46	2.51	2.57	2.64	-
오스트리아	2.61	2.84	2.72	2.43	2.33	2.21	2.18	2.33	2.34	2.32	2.30	2.27	-	-
벨기에	2.56	2.90	2.06	2.21	2.23	2.21	2.39	2.60	2.63	2.68	2.80	2.90	-	-
캐나다	1.15	1.14	0.94	0.91	0.88	0.87	0.88	0.93	0.88	0.85	0.83	0.79	0.77	0.74
칠레	0.88	0.89	0.91	0.70	0.68	0.70	0.78	0.90	0.81	0.77	0.75	0.72	0.70	-
체코	2.18	2.24	2.43	2.22	2.29	2.19	2.06	2.07	1.99	1.92	1.83	1.83	-	-
덴마크	3.68	4.11	3.81	4.43	4.39	4.58	4.61	5.02	5.03	4.89	4.87	4.73	-	-
에스토니아	-	-	1.54	1.77	1.72	1.77	2.22	2.64	2.29	2.17	2.11	2.15	-	-
핀란드	4.15	4.93	3.69	3.67	3.59	3.44	3.51	3.93	3.90	3.79	3.83	3.83	-	-
프랑스	2.04	2.05	1.68	1.79	1.60	1.57	1.58	1.65	1.66	1.67	1.70	1.71	-	-
독일	1.95	2.26	2.14	1.98	1.89	1.81	1.87	2.02	1.99	1.95	2.00	2.06	-	-
그리스	1.19	0.79	0.85	0.90	0.86	0.86	0.88	0.93	0.94	0.97	0.97	-	-	-
헝가리	-	-	2.62	2.81	2.78	2.72	2.72	2.75	2.40	2.15	2.04	1.93	-	-
아이슬란드	1.27	1.78	2.18	2.60	2.55	2.14	2.32	2.56	2.50	2.64	2.77	2.85	-	-
아일랜드	1.72	1.89	1.26	1.56	1.61	1.73	2.01	2.30	2.35	2.17	2.07	2.05	-	-
이스라엘	-	1.80	2.07	2.39	2.37	2.35	2.44	2.48	2.48	2.47	2.46	2.46	2.53	2.53
이탈리아	1.89	1.49	1.37	1.54	1.55	1.57	1.62	1.77	1.74	1.67	1.70	1.72	-	-
일본	0.57	0.69	0.73	0.71	0.77	0.81	0.88	0.99	0.95	0.99	1.02	1.04	-	-
한국	0.29	0.35	0.36	0.60	0.64	0.64	0.66	0.66	0.57	0.58	0.61	0.61	0.61	-
라트비아	-	0.00	1.54	1.35	1.37	1.25	1.54	2.24	2.08	1.83	1.73	1.80	-	-
룩셈부르크	2.76	2.93	2.97	3.31	3.10	2.79	2.82	2.81	2.71	2.68	2.76	2.69	-	-
멕시코	0.02	0.06	0.07	0.06	0.05	0.06	0.06	0.06	0.06	0.06	0.00	0.00	-	-
네덜란드	5.95	4.70	3.63	3.29	2.70	2.76	2.74	2.88	3.08	3.07	3.04	3.11	-	-
뉴질랜드	2.79	2.61	2.61	2.77	2.87	2.66	2.85	2.76	2.57	2.47	2.43	2.51	2.53	-
노르웨이	4.63	4.56	4.56	4.30	4.13	4.14	3.93	4.56	4.18	3.80	3.71	3.69	-	-
폴란드	3.28	5.54	3.45	2.78	2.60	2.37	2.40	2.39	2.35	2.28	2.23	-	-	-
포르투갈	2.30	2.31	2.24	2.11	2.09	2.05	1.92	2.01	1.93	1.93	1.79	1.90	-	-
슬로바키아	-	1.99	2.21	1.45	1.47	1.44	1.45	1.83	1.83	1.84	1.90	1.89	-	-
슬로베니아	-	-	2.58	2.36	2.25	2.09	2.05	2.15	2.27	2.20	2.13	2.11	-	-
스페인	2.22	2.42	2.33	2.48	2.45	2.46	2.51	2.62	2.61	2.58	2.48	2.54	-	-
스웨덴	5.25	4.74	4.87	5.28	5.02	4.73	4.56	4.63	4.20	4.10	4.17	4.25	-	-
스위스	1.64	2.20	2.37	2.76	2.60	2.50	2.31	2.46	2.34	2.33	2.29	2.26	-	-
터키	0.17	0.19	0.21	0.23	0.20	0.22	0.26	0.31	0.29	0.29	0.31	0.33	-	-
영국	2.00	2.73	2.35	2.19	2.28	1.84	1.91	2.04	2.03	2.03	2.02	1.97	-	-
미국	0.97	1.13	1.04	1.21	1.23	1.21	1.26	1.39	1.41	1.42	1.43	1.42	-	-
OECD - Total	2.26	2.34	2.14	2.15	2.10	2.03	2.07	2.23	2.17	2.11	2.10	2.11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이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의미함

2) 현금급여(cash benefits)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3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1%로 한국의 0.61%에 비해 약 3.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OECD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0.61%로 제시덤(Social Expenditure Database)

## ※※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복지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장애인관련 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됨. 현금급여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되며,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 (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71	2.00	2.06	1.83	1.74	1.77	1.90	1.91	1.95	2.00	2.03	2.09	2.13	-
오스트리아	2.39	2.60	2.44	2.10	1.98	1.86	1.81	1.90	1.90	1.87	1.85	1.81	-	-
벨기에	2.52	2.10	1.73	1.81	1.81	1.80	1.96	2.13	2.16	2.20	2.28	2.38	-	-
캐나다	1.15	1.14	0.94	0.91	0.88	0.87	0.88	0.93	0.88	0.85	0.83	0.79	0.77	-
칠레	0.71	0.70	0.72	0.70	0.67	0.69	0.77	0.89	0.81	0.76	0.74	0.71	0.69	0.74
체코	2.18	2.09	2.25	2.06	2.12	2.13	2.00	2.01	1.90	1.83	1.73	1.73	-	-
덴마크	2.96	3.23	2.77	3.19	3.14	3.45	3.38	3.61	3.60	3.51	3.47	3.35	-	-
에스토니아	-	-	1.39	1.62	1.58	1.62	1.95	2.31	1.96	1.87	1.83	1.87	-	-
핀란드	3.75	4.21	2.96	2.80	2.72	2.58	2.61	2.89	2.84	2.68	2.65	2.60	-	-
프랑스	1.66	1.61	1.53	1.62	1.60	1.57	1.58	1.61	1.60	1.61	1.64	1.65	-	-
독일	1.60	1.64	1.47	1.29	1.22	1.16	1.19	1.28	1.25	1.23	1.25	1.28	-	-
그리스	1.15	0.77	0.80	0.84	0.80	0.81	0.83	0.87	0.89	0.91	0.90	-	-	-
헝가리	-	-	2.37	2.58	2.49	2.42	2.44	2.45	2.18	1.95	1.83	1.72	-	-
아이슬란드	0.76	1.13	1.34	1.60	1.54	1.46	1.59	1.84	1.78	1.92	1.94	1.98	-	-
아일랜드	1.68	1.83	1.19	1.47	1.53	1.64	1.92	2.19	2.19	2.01	1.93	1.92	-	-
이스라엘	-	1.40	1.67	1.95	1.93	1.92	1.99	2.06	2.07	2.05	2.04	2.03	2.09	2.1
이탈리아	1.86	1.44	1.29	1.46	1.46	1.48	1.53	1.66	1.63	1.57	1.61	1.63	-	-
일본	0.51	0.57	0.57	0.59	0.60	0.61	0.63	0.67	0.66	0.68	0.67	0.67	-	-
한국	0.26	0.28	0.27	0.38	0.39	0.41	0.41	0.40	0.38	0.37	0.39	0.39	0.39	-
라트비아	-	0.00	1.23	1.13	1.14	1.04	1.31	1.97	1.81	1.54	1.45	1.51	-	-
룩셈부르크	2.57	2.72	2.42	2.32	2.13	1.90	1.90	1.73	1.61	1.58	1.62	1.54	-	-
멕시코	0.02	0.05	0.06	0.06	0.05	0.05	0.05	0.06	0.06	0.05	0.00	0.00	-	-
네덜란드	5.95	4.54	3.43	3.11	2.53	2.41	2.40	2.50	2.67	2.69	2.67	2.84	-	-
뉴질랜드	2.71	2.61	2.61	2.77	2.87	2.66	2.85	2.76	2.52	2.42	2.39	2.47	2.50	-
노르웨이	3.93	3.55	3.71	3.54	3.42	3.45	3.40	3.99	3.63	3.29	3.21	3.19	-	-
폴란드	3.07	5.27	3.42	2.59	2.40	2.18	2.19	2.20	2.16	2.10	2.05	-	-	-
포르투갈	2.25	2.26	2.20	2.06	2.04	2.01	1.88	1.95	1.88	1.92	1.77	1.88	-	-
슬로바키아	-	1.87	2.05	1.27	1.30	1.28	1.29	1.63	1.63	1.64	1.69	1.67	-	-
슬로베니아	-	-	2.35	2.15	2.04	1.88	1.85	1.93	2.02	1.95	1.84	1.81	-	-
스페인	2.18	2.35	2.21	2.28	2.25	2.26	2.29	2.36	2.37	2.34	2.23	2.29	-	-
스웨덴	4.82	3.49	3.42	3.50	3.26	2.95	2.72	2.65	2.25	2.09	2.09	2.10	-	-
스위스	1.24	1.59	1.70	1.98	1.85	1.78	1.73	1.80	1.73	1.71	1.68	1.64	-	-
터키	0.13	0.12	0.18	0.23	0.20	0.22	0.26	0.31	0.29	0.29	0.31	0.33	-	-
영국	1.81	2.45	2.08	1.82	1.93	1.45	1.48	1.59	1.56	1.54	1.53	1.49	-	-
미국	0.97	1.13	1.04	1.21	1.23	1.21	1.26	1.39	1.41	1.42	1.43	1.42	-	-
OECD - Total	2.10	2.04	1.82	1.79	1.74	1.69	1.72	1.84	1.78	1.73	1.70	1.71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인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인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통수당, 장애인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OECD 국가의 경우 GDP 대비 장애인복지 관련 현금급여의 비중은 1990년대 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4%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2010년 1.78%로 다시 감소하여 현재까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2014년 현재 0.39%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1.71%의 약 1/5 수준임

• 한국은 1990년 0.26%에서 2005년에 약 0.4%로 증가하여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02	0.36	0.50	0.44	0.45	0.40	0.42	0.45	0.44	0.46	0.47	0.48	0.50	-
오스트리아	0.21	0.23	0.28	0.33	0.34	0.35	0.37	0.44	0.45	0.45	0.45	0.46	-	-
벨기에	0.05	0.80	0.34	0.40	0.42	0.41	0.44	0.48	0.47	0.48	0.52	0.51	-	-
캐나다	-	-	-	-	-	-	-	-	-	-	-	-	-	-
칠레	0.17	0.19	0.19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체코	-	0.15	0.18	0.16	0.17	0.06	0.06	0.06	0.10	0.09	0.10	0.10	-	-
덴마크	0.71	0.88	1.04	1.24	1.26	1.13	1.23	1.41	1.43	1.37	1.40	1.38	-	-
에스토니아	-	-	0.15	0.15	0.14	0.16	0.28	0.33	0.33	0.29	0.28	0.28	-	-
핀란드	0.40	0.73	0.73	0.86	0.86	0.86	0.91	1.04	1.06	1.10	1.18	1.22	-	-
프랑스	0.38	0.43	0.15	0.17	0.00	0.00	0.00	0.04	0.05	0.06	0.06	0.06	-	-
독일	0.35	0.62	0.67	0.69	0.66	0.65	0.68	0.74	0.74	0.73	0.75	0.78	-	-
그리스	0.04	0.02	0.05	0.06	0.06	0.05	0.05	0.06	0.06	0.06	0.06	-	-	-
헝가리	-	-	0.24	0.23	0.30	0.30	0.28	0.30	0.22	0.20	0.21	0.21	-	-
아이슬란드	0.51	0.64	0.85	1.00	1.01	0.69	0.73	0.71	0.73	0.73	0.83	0.87	-	-
아일랜드	0.04	0.06	0.07	0.09	0.08	0.09	0.10	0.11	0.16	0.15	0.15	0.14	-	-
이스라엘	-	0.40	0.41	0.44	0.44	0.43	0.45	0.42	0.41	0.41	0.42	0.44	0.44	0.43
이탈리아	0.03	0.05	0.08	0.08	0.08	0.08	0.09	0.11	0.11	0.10	0.09	0.09	-	-
일본	0.06	0.12	0.16	0.12	0.17	0.20	0.25	0.32	0.29	0.32	0.35	0.38	-	-
한국	0.03	0.07	0.09	0.22	0.26	0.23	0.25	0.26	0.19	0.21	0.23	0.22	0.21	-
라트비아	-	-	0.31	0.22	0.23	0.21	0.23	0.27	0.28	0.29	0.28	0.29	-	-
룩셈부르크	0.19	0.22	0.55	0.99	0.97	0.89	0.92	1.08	1.10	1.10	1.13	1.14	-	-
멕시코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	-
네덜란드	0.00	0.16	0.20	0.19	0.17	0.34	0.34	0.37	0.41	0.38	0.37	0.28	-	-
뉴질랜드	0.0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4	0.04	0.04	0.03	-
노르웨이	0.70	1.01	0.85	0.76	0.70	0.70	0.53	0.56	0.55	0.51	0.49	0.50	-	-
폴란드	0.21	0.28	0.03	0.19	0.20	0.19	0.21	0.19	0.19	0.18	0.19	-	-	-
포르투갈	0.05	0.05	0.04	0.04	0.04	0.04	0.05	0.06	0.05	0.02	0.02	0.01	-	-
슬로바키아	-	0.12	0.16	0.18	0.17	0.16	0.16	0.20	0.20	0.20	0.20	0.21	-	-
슬로베니아	-	-	0.24	0.21	0.21	0.21	0.20	0.22	0.25	0.25	0.29	0.30	-	-
스페인	0.04	0.06	0.12	0.19	0.20	0.20	0.22	0.25	0.25	0.24	0.25	0.25	-	-
스웨덴	0.43	1.25	1.45	1.78	1.76	1.78	1.84	1.97	1.95	2.01	2.08	2.15	-	-
스위스	0.39	0.60	0.67	0.78	0.75	0.71	0.58	0.65	0.61	0.62	0.61	0.62	-	-
터키	0.05	0.07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영국	0.19	0.27	0.26	0.37	0.35	0.40	0.43	0.45	0.46	0.50	0.49	0.48	-	-
미국	-	-	-	-	-	-	-	-	-	-	-	-	-	-
OECD - Total	0.18	0.33	0.34	0.38	0.38	0.36	0.37	0.41	0.41	0.41	0.40	0.40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는 2013년 0.4%로 2005년부터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0.22%로 OECD 평균(0.4%)에 비하여 약 절반수준임

- 한국의 경우 현물급여 수준은 2000년 0.09%에서 2005년 0.22%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2010년 0.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 0.21%로 다시 반등하여 2014년 0.21%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은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정책 대상자는 2급(‘13) → 3급(‘15)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음

#### (4)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0년)

(단위: %)

구분	201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42	—	0.53	—	0.01	1.95	—	0.00	0.44	0.44
오스트리아	1.37	0.13	—	0.21	0.19	1.90	0.29	0.05	0.11	0.45
벨기에	1.55	—	0.03	0.57	0.02	2.16	0.42	0.03	0.03	0.47
캐나다	0.38	0.44	—	0.06	—	0.88	—	—	—	—
칠레	0.54	0.01	0.01	0.25	0.00	0.81	0.00	0.01	0.00	0.01
체코	1.24	0.01	0.08	0.47	0.11	1.90	0.07	0.00	0.03	0.10
덴마크	2.24	—	0.20	1.02	0.15	3.60	0.70	0.25	0.49	1.43
에스토니아	1.19	—	—	0.26	0.51	1.96	0.28	0.05	0.00	0.33
핀란드	1.96	0.15	0.08	0.47	0.18	2.84	0.36	0.30	0.41	1.06
프랑스	0.95	0.02	—	0.50	0.13	1.60	0.01	0.00	0.05	0.05
독일	0.08	0.09	0.02	0.30	0.76	1.25	0.50	0.22	0.03	0.74
그리스	0.78	—	—	0.11	0.00	0.89	0.01	0.04	0.01	0.06
헝가리	1.10	—	—	0.51	0.56	2.18	0.12	0.05	0.05	0.22
아이슬란드	1.73	—	—	0.03	0.01	1.78	0.48	0.01	0.24	0.73
아일랜드	1.11	—	—	1.07	0.01	2.19	—	0.09	0.07	0.16
이스라엘	1.48	0.29	—	—	0.30	2.07	0.01	0.17	0.23	0.41
이탈리아	0.60	—	—	0.17	0.86	1.63	0.05	0.01	0.04	0.11
일본	0.40	0.10	0.02	0.07	0.07	0.66	0.24	0.00	0.05	0.29
한국	0.12	0.16	0.06	—	0.04	0.38	0.02	0.00	0.17	0.19
라트비아	0.94	—	—	0.53	0.34	1.81	0.18	0.02	0.08	0.28
룩셈부르크	0.96	0.26	—	0.29	0.10	1.61	1.10	—	—	1.10
멕시코	0.01	0.04	—	—	0.00	0.06	—	—	0.01	0.01
네덜란드	1.75	—	—	0.80	0.12	2.67	—	0.39	0.01	0.41
뉴질랜드	0.91	—	—	—	1.61	2.52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2.13	0.00	—	1.33	0.17	3.63	0.19	0.26	0.10	0.55
폴란드	1.03	0.04	—	0.71	0.38	2.16	0.17	0.02	—	0.19
포르투갈	1.56	—	—	0.30	0.02	1.88	0.00	0.04	0.01	0.05
슬로바키아	1.00	—	—	0.39	0.24	1.63	0.20	0.00	0.00	0.20
슬로베니아	0.78	0.00	0.00	0.98	0.27	2.02	0.19	0.06	0.00	0.25
스페인	1.28	—	—	0.97	0.12	2.37	0.12	0.10	0.03	0.25
스웨덴	1.53	0.10	0.00	0.61	0.00	2.25	1.47	0.16	0.33	1.95
스위스	1.05	0.29	0.27	0.00	0.11	1.73	0.48	0.08	0.04	0.61
터키	0.22	0.03	—	0.04	0.00	0.29	0.00	—	0.00	0.00
영국	1.40	—	—	0.14	0.03	1.56	0.24	0.02	0.20	0.46
미국	0.84	0.05	—	0.24	0.29	1.41	—	—	—	—
OECD - Total	1.07	0.12	0.11	0.45	0.23	1.78	0.27	0.08	0.11	0.4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 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0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8%로 장애연금 1.07%, 기타상병보조금 0.45%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7%의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6%, 장애연금 0.12%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에서는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1년)

(단위: %)

구분	201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46	—	0.53	—	0.02	2.00	—	0.00	0.46	0.46
오스트리아	1.35	0.12	—	0.21	0.19	1.87	0.30	0.05	0.10	0.45
벨기에	1.58	—	0.02	0.59	0.02	2.20	0.43	0.03	0.03	0.48
캐나다	0.38	0.41	—	0.06	—	0.85	—	—	—	—
칠레	0.51	0.01	0.01	0.24	0.00	0.76	0.00	0.01	0.00	0.01
체코	1.21	0.01	0.08	0.43	0.11	1.83	0.07	0.00	0.03	0.09
덴마크	2.27	—	0.12	1.00	0.13	3.51	0.66	0.23	0.48	1.37
에스토니아	1.13	—	—	0.27	0.47	1.87	0.24	0.05	0.00	0.29
핀란드	1.84	0.14	0.08	0.46	0.17	2.68	0.37	0.30	0.43	1.10
프랑스	0.96	0.02	—	0.50	0.13	1.61	0.01	—	0.06	0.06
독일	0.08	0.09	0.02	0.31	0.73	1.23	0.49	0.22	0.02	0.73
그리스	0.80	—	—	0.11	0.00	0.91	0.01	0.05	0.01	0.06
헝가리	0.99	—	—	0.41	0.55	1.95	0.10	0.06	0.05	0.20
아이슬란드	1.87	—	—	0.03	0.01	1.92	0.62	0.01	0.10	0.73
아일랜드	1.03	—	—	0.98	0.01	2.01	—	0.09	0.07	0.15
이스라엘	1.45	0.29	—	—	0.32	2.05	0.01	0.16	0.24	0.41
이탈리아	0.56	—	—	0.17	0.84	1.57	0.04	0.02	0.04	0.10
일본	0.41	0.10	0.02	0.07	0.08	0.68	0.27	0.00	0.05	0.32
한국	0.12	0.16	0.05	—	0.04	0.37	0.03	0.01	0.17	0.21
라트비아	0.82	—	—	0.38	0.35	1.54	0.18	0.02	0.08	0.29
룩셈부르크	0.95	0.26	—	0.29	0.08	1.58	1.10	—	—	1.10
멕시코	0.01	0.04	—	—	0.00	0.05	—	—	0.00	0.00
네덜란드	1.70	—	—	0.86	0.13	2.69	—	0.37	0.01	0.38
뉴질랜드	0.87	—	—	—	1.55	2.42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2.03	0.00	—	1.11	0.16	3.29	0.19	0.22	0.10	0.51
폴란드	0.97	0.03	—	0.69	0.42	2.10	0.16	0.02	—	0.18
포르투갈	1.59	—	—	0.31	0.02	1.92	0.00	0.01	0.01	0.02
슬로바키아	1.01	—	—	0.39	0.24	1.64	0.20	0.00	0.00	0.20
슬로베니아	0.75	0.00	0.00	0.93	0.27	1.95	0.19	0.06	0.00	0.25
스페인	1.31	—	—	0.90	0.12	2.34	0.14	0.08	0.02	0.24
스웨덴	1.33	0.09	0.00	0.68	0.00	2.09	1.52	0.16	0.33	2.01
스위스	1.04	0.29	0.27	0.00	0.11	1.71	0.49	0.09	0.04	0.62
터키	0.22	0.02	—	0.04	0.00	0.29	0.00	—	0.00	0.00
영국	1.31	—	—	0.18	0.04	1.54	0.24	0.01	0.24	0.50
미국	0.84	0.04	—	0.25	0.29	1.42	—	—	—	—
OECD - Total	1.05	0.11	0.10	0.43	0.22	1.73	0.28	0.08	0.10	0.4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1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3%로 장애연금 1.05%, 기타상병보조금 0.43%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으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8%의 가장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6%,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에서는 기타 현물 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3%로 나타남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2년)

(단위: %)

구분	2012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49	-	0.52	-	0.02	2.03	-	0.00	0.47	0.47
오스트리아	1.31	0.12	-	0.21	0.21	1.85	0.30	0.05	0.10	0.45
벨기에	1.64	-	0.02	0.61	0.02	2.28	0.46	0.03	0.03	0.52
캐나다	0.36	0.40	-	0.07	-	0.83	-	-	-	-
칠레	0.49	0.01	0.01	0.24	0.00	0.74	0.00	0.01	0.00	0.01
체코	1.17	0.01	0.08	0.41	0.07	1.73	0.07	0.00	0.03	0.10
덴마크	2.25	-	0.16	0.94	0.12	3.47	0.69	0.23	0.48	1.40
에스토니아	1.13	-	-	0.25	0.46	1.83	0.23	0.05	0.00	0.28
핀란드	1.81	0.15	0.08	0.46	0.16	2.65	0.40	0.30	0.48	1.18
프랑스	1.02	0.02	-	0.49	0.12	1.64	0.01	-	0.06	0.06
독일	0.08	0.09	0.02	0.33	0.74	1.25	0.51	0.22	0.02	0.75
그리스	0.80	-	-	0.11	0.00	0.90	0.01	0.05	0.01	0.06
헝가리	1.18	-	-	0.38	0.27	1.83	0.11	0.06	0.04	0.21
아이슬란드	1.90	-	-	0.04	0.01	1.94	0.68	0.01	0.15	0.83
아일랜드	1.02	-	-	0.90	0.01	1.93	-	0.09	0.06	0.15
이스라엘	1.45	0.30	-	-	0.29	2.04	0.01	0.17	0.24	0.42
이탈리아	0.58	-	-	0.17	0.86	1.61	0.04	0.02	0.04	0.09
일본	0.41	0.09	0.02	0.07	0.07	0.67	0.31	0.00	0.04	0.35
한국	0.12	0.18	0.05	-	0.04	0.39	0.02	0.01	0.20	0.23
라트비아	0.77	-	-	0.33	0.35	1.45	0.18	0.02	0.08	0.28
룩셈부르크	0.95	0.25	-	0.34	0.08	1.62	1.13	-	-	1.13
멕시코	0.00	0.00	-	-	0.00	0.00	-	-	0.00	0.00
네덜란드	1.68	-	-	0.88	0.11	2.67	-	0.36	0.01	0.37
뉴질랜드	0.84	-	-	-	1.55	2.39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2.02	0.00	-	1.04	0.15	3.21	0.19	0.21	0.10	0.49
폴란드	0.95	0.02	-	0.69	0.38	2.05	0.17	0.02	-	0.19
포르투갈	1.45	-	-	0.30	0.03	1.77	0.00	0.01	0.01	0.02
슬로바키아	1.03	-	-	0.42	0.24	1.69	0.20	0.00	0.00	0.20
슬로베니아	0.62	0.00	0.00	0.97	0.26	1.84	0.21	0.08	0.00	0.29
스페인	1.37	-	-	0.75	0.11	2.23	0.14	0.09	0.03	0.25
스웨덴	1.26	0.08	0.00	0.75	0.00	2.09	1.59	0.16	0.34	2.08
스위스	1.01	0.28	0.28	0.00	0.11	1.68	0.49	0.09	0.04	0.61
터키	0.23	0.03	-	0.05	0.00	0.31	0.00	-	0.00	0.00
영국	1.23	-	-	0.27	0.03	1.53	0.24	0.01	0.24	0.49
미국	0.86	0.04	-	0.24	0.29	1.43	-	-	-	-
OECD - Total	1.04	0.06	0.04	0.36	0.20	1.70	0.24	0.07	0.10	0.4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0%로 장애인  
금 1.04%, 기타상병보조금 0.36%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0%으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4%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8%,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기타현물급여  
0.2%,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은 현물급여 중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3년)

(단위: %)

구분	2013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산재보 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56	—	0.52	—	0.02	2.09	—	0.00	0.48	0.48
오스트리아	1.26	0.12	—	0.22	0.19	1.81	0.31	0.05	0.10	0.46
벨기에	1.71	—	0.02	0.64	0.02	2.38	0.45	0.03	0.03	0.51
캐나다	0.35	0.38	—	0.07	—	0.79	—	—	—	—
칠레	0.47	0.01	0.01	0.22	0.00	0.71	0.00	0.01	0.00	0.01
체코	1.15	0.01	0.08	0.44	0.06	1.73	0.07	0.00	0.03	0.10
덴마크	2.25	—	0.13	0.86	0.11	3.35	0.65	0.22	0.51	1.38
에스토니아	1.14	—	—	0.26	0.47	1.87	0.23	0.06	0.00	0.28
핀란드	1.78	0.15	0.08	0.45	0.15	2.60	0.41	0.31	0.51	1.22
프랑스	1.03	0.02	—	0.48	0.12	1.65	0.00	—	0.06	0.06
독일	0.09	0.09	0.02	0.33	0.75	1.28	0.54	0.21	0.02	0.78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1.14	—	—	0.37	0.21	1.72	0.11	0.06	0.04	0.21
아이슬란드	1.92	—	—	0.04	0.01	1.98	0.73	0.01	0.13	0.87
아일랜드	1.08	—	—	0.83	0.01	1.92	—	0.08	0.06	0.14
이스라엘	1.43	0.31	—	—	0.30	2.03	0.01	0.17	0.25	0.44
이탈리아	0.58	—	—	0.16	0.89	1.63	0.04	0.01	0.03	0.09
일본	0.41	0.09	0.02	0.07	0.08	0.67	0.33	0.00	0.05	0.38
한국	0.12	0.16	0.05	—	0.05	0.39	0.02	0.01	0.20	0.22
라트비아	0.76	—	—	0.36	0.39	1.51	0.18	0.03	0.08	0.29
룩셈부르크	0.90	0.23	—	0.34	0.07	1.54	1.14	—	—	1.14
멕시코	0.00	0.00	—	—	0.00	0.00	—	—	0.00	0.00
네덜란드	1.87	—	—	0.81	0.16	2.84	—	0.28	0.00	0.28
뉴질랜드	0.85	—	—	—	1.62	2.47	0.00	0.00	0.04	0.04
노르웨이	1.98	0.00	—	1.06	0.15	3.19	0.19	0.21	0.10	0.50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1.57	—	—	0.28	0.03	1.88	0.00	0.01	0.01	0.01
슬로바키아	1.05	—	—	0.38	0.25	1.67	0.21	0.00	0.00	0.21
슬로베니아	0.59	0.00	0.00	0.97	0.24	1.81	0.21	0.09	0.00	0.30
스페인	1.43	—	—	0.76	0.10	2.29	0.13	0.09	0.03	0.25
스웨덴	1.19	0.08	0.00	0.83	0.00	2.10	1.65	0.17	0.34	2.15
스위스	0.99	0.28	0.27	0.00	0.10	1.64	0.48	0.10	0.04	0.62
터키	0.25	0.03	—	0.06	0.00	0.33	0.00	—	0.00	0.00
영국	1.16	—	—	0.30	0.02	1.49	0.23	0.01	0.24	0.48
미국	0.85	0.04	—	0.24	0.29	1.42	—	—	—	—
OECD - Total	1.05	0.06	0.03	0.36	0.21	1.71	0.24	0.07	0.10	0.4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3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1%로 장애연금 1.05% 기타상병보조금 0.36%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0%으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4%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는 산재보험(산업재해) 0.16%,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에서는 기타 현물 급여 0.20%,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4년)

(단위: %)

구분	2014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산재보 험 (신제)	상병 급여 (신제)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1.59	—	0.53	—	0.02	2.13	—	0.00	0.50	0.50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0.33	0.37	—	0.07	—	0.77	—	—	—	—
칠레	0.43	0.01	0.01	0.25	0	0.69	0.00	0.01	0.00	0.01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1.44	0.31	—	—	0.34	2.09	0.01	0.17	0.26	0.44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0.12	0.16	0.05	—	0.06	0.39	0.02	0.00	0.19	0.21
라트비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0.83	—	—	—	1.67	2.5	0.00	0.00	0.03	0.03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OECD - Total	—	—	—	—	—	—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2016년 12월 26일 검색)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4년의 경우 현금 및 현물 급여에 해당하는 자료의 업데이트가 늦어 일부 항목만 표기함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5년)

(단위: %)

구분	2015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애 연금	산재보 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소계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0.43	0.01	0.01	0.29	0.00	0.74	0.00	0.01	0.00	0.01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1.42	0.32	-	-	0.37	2.10	0.01	0.16	0.25	0.43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OECD - Total	-	-	-	-	-	-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18-12-27)

- 2015년의 경우 현금 및 현물 급여에 해당하는 자료의 업데이트가 늦어 일부 항목만 표기함

## 5) 복지

### (1) 빈곤위험률

〈표 14-5-1〉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상대적 비율
미국	47.6	24.0	2.0
호주	44.7	16.6	2.7
아일랜드	36.8	14.5	2.5
한국	35.6	14.6	2.4
캐나다	32.2	17.2	1.9
에스토니아	26.9	14.1	1.9
멕시코	25.5	23.9	1.1
포르투갈	25.5	15.1	1.7
슬로베니아	24.8	14.1	1.8
덴마크	24.8	15.0	1.7
스페인	24.1	17.4	1.4
영국	23.6	11.6	2.0
핀란드	21.6	12.6	1.7
이탈리아	21.2	15.4	1.4
독일	20.7	11.1	1.9
그리스	19.5	15.4	1.3
벨기에	18.8	10.8	1.7
폴란드	18.6	15.5	1.2
오스트리아	17.7	10.8	1.6
헝가리	17.5	12.5	1.4
프랑스	17.1	11.1	1.5
아이슬란드	16.4	15.8	1.0
룩셈부르크	16.0	10.8	1.5
체코	14.1	9.2	1.5
스위스	13.7	11.8	1.2
네덜란드	11.5	11.0	1.0
슬로바키아	11.3	12.1	0.9
노르웨이	10.8	11.4	0.9
스웨덴	10.4	12.2	0.9
OECD-27	22.1	14.1	1.6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자료: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22.1%로 비장애인의 14.1%에 비하여 약 1.6배 높음.
  - 한국의 경우,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OECD 국가의 평균 22.1%보다 약 1.6배, 비장애인 14.6%에 비해 약 2.4배 높음
  - 특히 미국 47.6%, 호주 44.7%, 아일랜드 36.8%, 한국 35.6% 등의 순으로, 동 국가들은 높은 장애인 빈곤율을 보이는 동시에 두 집단 간(장애인 vs 비장애인) 격차가 큰 국가로 분류됨
- 이에 반해 스웨덴의 장애인 빈곤율은 10.4%, 노르웨이 10.8%, 네덜란드 11.5%로, 북유럽 국가들의 빈곤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빈곤율의 격차 역시 낮은 국가로 나타남

#### ※※ OECD 국가의 빈곤위험률

- OECD 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률(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 지표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6) 정신건강

### (1)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표 14-6-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39	0.39	0.40	0.41	0.41	0.41	0.41(2015)	—
오스트리아	0.63	0.63	0.62	0.62	0.62	0.61	0.61	—
벨기에	1.47	1.45	1.43	1.41	1.41	1.40	1.37	1.37
캐나다	0.36	0.36	0.37	0.37	0.35	0.35	0.35	0.34
칠레	0.17	0.14	0.10	0.10	0.10	0.10	0.10	—
체코	1.02	1.01	0.99	0.97	0.97	0.97	0.98	—
덴마크	0.57	0.53	0.53(2011)	0.54	0.54(2013)	0.54(2013)	0.40	0.41
에스토니아	0.53	0.54	0.54	0.56	0.56	0.55	0.54	—
핀란드	0.75	0.71	0.69	0.64	0.61	0.62	0.58	—
프랑스	0.88	0.87	0.88	0.88	0.88	0.86	0.86	—
독일	1.18	1.23	1.25	1.26	1.27	1.27	1.28	—
그리스	0.75	0.73	0.77	0.70	0.72	0.73	0.71	—
헝가리	0.89	0.90	0.90	0.90	0.89	0.89	0.90	—
아이슬란드	0.48	0.48	0.47	0.46	0.44	0.44	0.43	0.38
아일랜드	0.38	0.35	0.35	0.35	0.35	0.35	0.34	—
이스라엘	0.45	0.45	0.44	0.42	0.43	0.42	0.42	0.41
이탈리아	0.10	0.10	0.10	0.10	0.09	0.09	0.09	—
일본	2.71	2.69	2.68	2.67	2.66	2.65	2.63	—
한국	0.89	0.88	0.91	0.91	1.18	1.25	1.25	—
라트비아	1.28	1.29	1.29	1.25	1.26	1.26	1.28	—
룩셈부르크	0.88	0.88	0.86	0.83	0.81	0.79	0.77	0.76
멕시코	0.04	0.04	0.04	0.04	0.04	0.03	0.03	—
네덜란드	1.39(2009)	1.39(2009)	1.26	1.27	1.27(2013)	1.27(2013)	0.97	—
뉴질랜드	0.22	0.20	0.20	0.17	0.23	0.24	0.31	0.30
노르웨이	1.34	1.30	1.21	1.16	1.16	1.14	1.11	—
폴란드	0.63	0.64	0.64	0.64	0.65	0.65	0.66	—
포르투갈	0.64	0.64	0.62	0.65	0.63	0.64	0.64	—
슬로바키아	0.80	0.77	0.78	0.82	0.82	0.81	0.81	—
슬로베니아	0.65	0.65	0.67	0.66	0.66	0.67	0.66	—
스페인	0.40	0.38	0.36	0.36	0.36	0.36	0.36	—
스웨덴	0.48	0.47	0.46	0.46	0.45	0.44	0.43	—
스위스	0.97	0.93	0.93	0.93	0.91	0.92	0.90	—
터키	0.06	0.06	0.06	0.06	0.06	0.05	0.05	—
영국	0.54	0.52	0.50	0.48	0.46	0.42	0.40	—
미국	0.25	0.23	0.22	0.22	0.21	0.21	0.21(2015)	—
OECD - Total	0.72	0.71	0.70	0.69	0.70	0.70	0.68	—

주: 1)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2) OECD 평균은 당해년도(혹은 인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18-12-27)

-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는 평균(2016년 기준) 0.68 병상으로, 한국 1.25병상에 비해 적은 수준임
-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수는 1991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증가하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음(OECD, 2014)

## (2) 인구 10만명 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표 14-6-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단위: 개)

구 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멕시코	0.01
한국	0.01
폴란드	0.03
미국	0.06
포르투갈	0.07
에스토니아	0.15
일본	0.30
칠레	0.30
호주	0.67
독일	1.57
헝가리	2.07
프랑스	4.73
아이슬란드	16.67
아일랜드	17.89
OECD	3.18

자료: 1)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2) 원자료: OECD Mental Health Questionnaire 2012; WHO Mental Health Atlas 2011

- OECD 국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수는 평균 3.18개소에 비해 한국은 0.01개소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OECD 국가들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지원을 치료적 접근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변경하고 있음



### (3)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표 14-6-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단위: 1인당 USD, %)

구분	독일		한국		네덜란드		체코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병의원	146.7	33.0	71.7	66.4	294.6	45.4	36	69.4
장기요양	117.2	26.3	11.4	10.6	237.4	36.6	2.3	4.4
외래진료	78.1	17.5	14.7	13.6	48.4	7.5	11.7	22.6
조제약	55	12.4	6.9	6.4	33.7	5.2	0.1	0.2
기타 공급원	48.1	10.8	3.3	3.0	34.3	5.3	1.8	3.4
총지출	445	100.0	108.1	100.0	648.4	100.0	51.9	100.0

주: 1) 네덜란드: 병원지출의 89%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2) 체코: 병원지출의 75%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 주요 국가 및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과 체코의 경우 비교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총 의료비는 국민 1인당 108.1\$로 대부분의 비용이 병원에 집중되어 있음(OECD, 2014)

※※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은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을 의미함.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표 14-6-4〉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전체	3.4	2.8	2.9	2.8	2.9	2.9	2.9	2.8
	남	3.3	2.8	3	2.8	3	2.8	2.8	2.6
	여	3.6	2.8	2.6	2.8	2.8	3.1	3.1	3.1
핀란드	전체	5.3	5.7	4.6	4	5.2	3.9	3.3	2.9
	남	4.6	5.5	4.4	3.7	4.9	3.3	2.4	2.4
	여	6.7	6.1	5	4.4	5.5	5.2	5	4
이스라엘	전체	1.8	1.9	2.2	1.9	2.3	2.4	1.8	2.4
	남	1.7	1.7	1.9	2	2.3	2.2	1.8	2.5
	여	2	2.2	2.5	1.8	2.1	2.8	1.6	2.1
한국	전체	3.2	3.5	3.6	3.7	3.8	4	4.1	4.2
	남	3	3.1	3.4	3.4	3.6	3.9	4	4.1
	여	3.8	4.2	4.1	4.3	4.2	4.3	4.3	4.4
뉴질랜드	전체	1.3	2.7	2.6	2.4	3.6	3.3	5.7	3.2
	남	1.1	3.2	3	2.4	3.5	2.9	6.3	2.4
	여	1.6	2	2	2.4	3.5	3.7	4.9	4.2
노르웨이	전체	-	-	-	-	3.3	2.9	4.2	5.3
	남	-	-	-	-	3.3	2.6	3.9	5.8
	여	-	-	-	-	3.2	3.2	4.7	4.4
스웨덴	전체	2.6	2.7	3	2.7	2.8	2.6	2.9	2.7
	남	2.5	2.8	3.1	2.7	2.9	2.5	2.9	2.6
	여	2.7	2.5	2.8	2.8	2.5	2.7	2.8	2.7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18-12-27)

- OECD 인구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일생에 걸쳐 1번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질환의 부담이 상당히 큼(OECD, 2014a).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는 입원진료와 지역사회연계, 환자관리에 초점을 둔 지표임
-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음, 1 보다 높은 '초과 사망비'는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음을 의미함
- 2015년 조울증의 초과 사망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남성(4.1), 여성(4.4) 모두 노르웨이(5.3)와 함께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서 2015년에 걸친 초과사망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핀란드의 경우 2008년 5.3을 기록하여 매우 높은 초과사망비를 보였으나,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국의 경우는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흡연, 약물, 알코올 남용 등의 위험 요인들과 관련된 높은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 유병률, 정신과 치료의 부족함, 열악한 신체질환 치료, 높은 자살위험이 초과 사망비의 원인이 됨. 이러한 초과사망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차의료로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열악한 신체건강의 예방, 보다 나은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통합, 행동적 중재, 의료인의 태도 변화 등 질병과 관련된 다면적 접근법이 필요함. 예를 들어 스웨덴은 일차의료 또는 일차 예방이나 이차 예방이 충분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신체적 사유의 입원 진료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OECD, 2014a; OECD, 2014b).



〈표 14-6-5〉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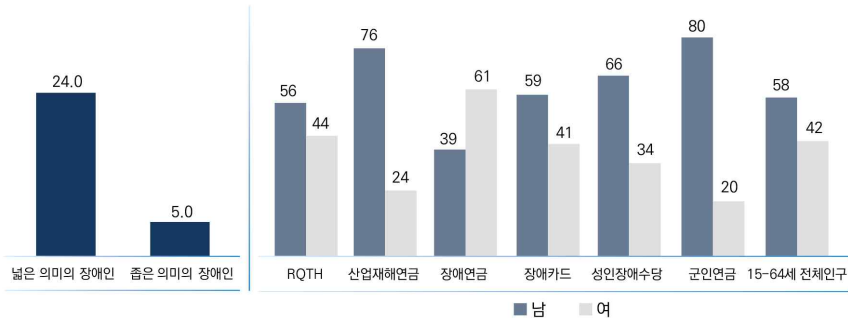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전체	3.8	4	3.7	4.1	4.1	3.9	4.5	4.1
	남	3.9	4.2	3.5	4.1	4	4	4.5	3.7
	여	3.7	3.8	3.9	4.1	4.2	3.6	4.6	4.6
핀란드	전체	6.3	5.9	6.2	6	6.9	6.5	4.5	4.8
	남	5.9	5.4	6.3	4.9	5.7	6.6	3.1	3.8
	여	7.1	6.9	6.1	8.4	9.3	6.1	7.2	6.8
이스라엘	전체	3.3	3.3	3.1	3.3	3.2	3.4	3.2	3.3
	남	3.1	3.4	2.8	3.1	3.1	3.2	3.3	3.1
	여	3.4	3.2	3.5	3.5	3.3	3.8	3	3.5
한국	전체	4.1	4.3	4.3	4.3	4.4	4.5	4.5	4.5
	남	3.7	3.9	4	3.9	4.1	4.2	4.1	4.1
	여	5	5.2	5	5.2	5.2	5.4	5.5	5.3
뉴질랜드	전체	4.5	4.7	3.7	5.2	5.3	4.9	4.9	4.5
	남	6.3	3.5	4.2	3.5	4.8	3.5	4.1	3.1
	여	2.2	6.3	3	7.3	6	6.9	6.1	6.6
노르웨이	전체	—	—	—	—	4.6	4.9	6.3	5.7
	남	—	—	—	—	4.7	4.5	6.4	4.9
	여	—	—	—	—	4.3	5.6	6.3	6.8
스웨덴	전체	4	4.3	4	4	5	4.5	4.3	4.8
	남	3.9	4	4	3.9	4.8	3.9	4.3	4
	여	4.2	4.6	4	4.2	5.1	5.2	4.2	6
라트비아	전체	—	—	1.9	1.9	1.9	1.9	2	1.9
	남	—	—	1.9	1.5	1.8	1.7	1.7	1.7
	여	—	—	2	2.9	2.2	2.4	2.7	2.1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18-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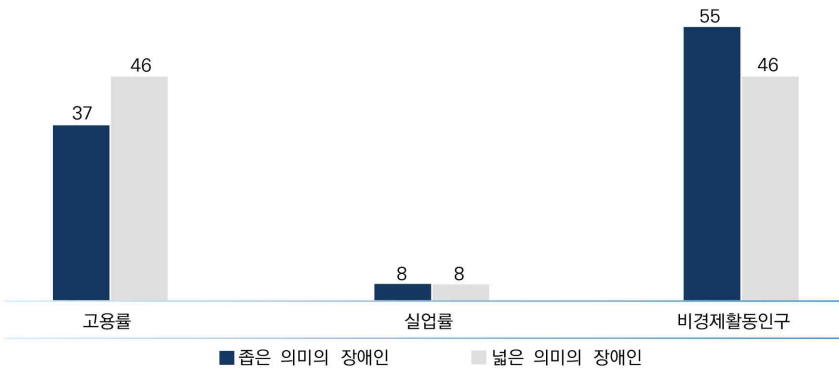
- 2015년 한국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는 남성기준 4.1로 노르웨이(4.9), 스웨덴(4.0)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
- 여성의 경우도 5.3을 기록해 핀란드·노르웨이(6.8), 뉴질랜드(6.6)를 뒤쫓고 있음

## 2. 프랑스

[그림 3-2-1] 장애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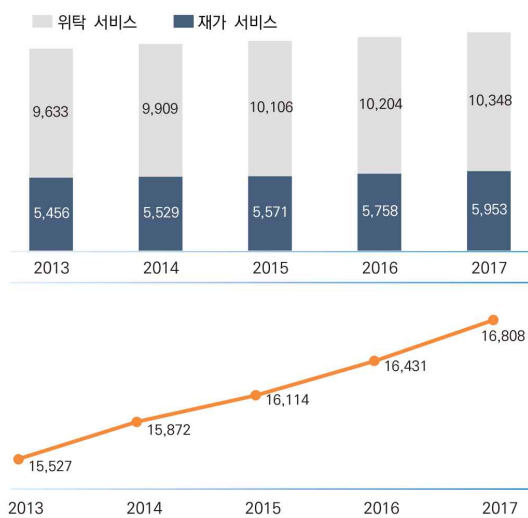
[그림 3-2-2]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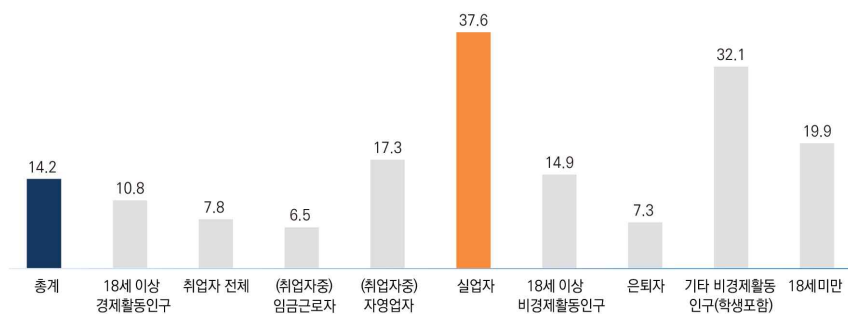
- 2013년 기준으로, 15~64세 전체 인구 중 24.0%는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제한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넓은 의미의 장애인), 5.0%가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 받고 있음(좁은 의미의 장애인)
- 2015년 기준으로 15~64세 전체인구 중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8.0%로 여성 42.0%에 비해 높음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중 남성의 경우 군인연금 80.0%, 산업재해연금 76.0%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2-3] 돌봄 지원 지출 현황



[그림 3-2-4] 장애인 빈곤율 - 경제활동참여별



- 돌봄지원(60세 이상 장기요양보험(APA), 제3자보상수당(ACP) 및 장애보상수당(PCH)) 지출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5년 기준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각각 10.8%, 14.9%임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빈곤율은 3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 장애인구

### (1) 정의에 따른 장애인구

〈표 15-1-1〉 장애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

구분	인구 수	넓은 의미의 장애인 비율	15~64세 전체 인구 비율
15~64세 전체 인구	39.4	—	100.0
넓은 의미의 장애인	14	100.0	24.0
좁은 의미의 장애인	2.4	20.0	5.0
넓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	11.6	80.0	19.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3년 기준임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2013년 기준으로, 가정에 머물고 있는 15~64세 인구 중 약 240만 명이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았으며, 약 550만 명이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제한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

- 남성인구에서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가, 여성인구에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높음

#### ※※ 장애 정의

-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114조에 의거함. 즉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의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114-1 조항에 의하면, "장애는 복합적, 심리적, 인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의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혹은 심각한 손상, 건강상의 장애문제로 인하여 한 사람의 모든 활동의 한계나 사회생활에의 참여 제한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
- 넓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 인구를 의미하며, 편의상 좁은 의미로 명명함
- 넓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업수행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



〈표 15-1-2〉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RQTH	산업재해 연금	장애연금	장애카드	성인 장애수당	군인연금	15~64세 전체인구
2013	남	58.0	57.0	76.0	39.0	59.0	66.0	80.0	58.0
	여	42.0	43.0	24.0	61.0	41.0	34.0	20.0	42.0
	15~24세	2.0	3.0	0.0	0.0	3.0	4.0	1.0	2.0
	25~39세	18.0	22.0	9.0	7.0	29.0	25.0	10.0	18.0
	40~49세	31.0	33.0	27.0	24.0	30.0	29.0	28.0	31.0
	50~64세	49.0	42.0	64.0	69.0	37.0	42.0	61.0	49.0
2015	남	58.0	56.0	76.0	39.0	59.0	66.0	80.0	58.0
	여	42.0	44.0	24.0	61.0	41.0	34.0	20.0	42.0
	15~24세	2.0	2.0	0.0	0.0	3.0	4.0	1.0	2.0
	25~39세	18.0	21.0	8.0	7.0	27.0	24.0	10.0	18.0
	40~49세	30.0	32.0	27.0	24.0	30.0	28.0	27.0	30.0
	50~64세	50.0	45.0	65.0	69.0	40.0	44.0	62.0	50.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2) 일인당 행정적 인정 종류가 중복될 수 있음

3) RQTH: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장애인 고용과 실업」 66호 2016년 11월

원자료: Insee, 2011년 고용조사 보충자료; Dares 분석

- 2015년 기준으로 15~64세 전체인구 중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8.0%로 여성 42.0%에 비해 높고, 연령별로는 50~64세가 50.0%로 전체 장애인구 중 절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중 남성의 경우 군인연금 80.0%, 산업재해연금 76.0%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중 50~64세는 장애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연금에 각각 69.0%, 65.0%, 62.0%를 차지하고 있음

#### ※※ 좁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인구를 지칭하는데, 이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인정(OETH) 자격 조건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함. 1987년 7월 10일 법 이후로 2005년 2월 11일 개정 및 강화되어 근로자 20인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사업장에서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의무적 고용하는 것임
- 이 때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인정(OETH)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기관마다 인적사항 및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인정(OETH) 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 근로자 자격 인정(RQTH)
  - 장애연금(P)
  - 산업재해(AT-MP)- 영구적으로 10% 이상의 기능장애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 군인연금
- 2005년 이후 추가된 자격 조건
  - 80% 이상의 장애율이 인정된 장애카드
  - 성인장애수당

## (2) 장애인 출현율

〈표 15-1-3〉 장애인 출현율 - 성별,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수(명)	1,276,000	1,109,000	2,645,000	2,890,000	19,380,000	20,060,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5.0	4.0	6.0	6.0	18.0	17.0
25-39세	18.0	16.0	18.0	17.0	29.0	29.0
40-49세	23.0	26.0	23.0	23.0	22.0	22.0
50-64세	54.0	54.0	53.0	54.0	31.0	32.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3년 기준임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장애출현율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임

- 넓은 의미의 장애인과 좁은 의미의 장애인에 속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데 반해 15~64세 전체인구에서는 약 30%를 차지함



## 2) 교육

## (1) 장애정의별 교육 수준

〈표 15-2-1〉 교육수준 - 장애정의별, 성별

(단위: %, 명)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15~64세 전체 인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수(명)	1,276,000	1,109,000	2,645,000	2,890,000	19,380,000	20,060,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	45.0	47.0	40.0	42.0	28.0	28.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3.0	26.0	33.0	24.0	26.0	20.0
고등학교 졸업	11.0	13.0	13.0	15.0	19.0	21.0
대학교육 이상	11.0	15.0	14.0	19.0	27.0	31.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2) 2013년 기준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표 15-2-2〉 좁은 의미의 장애인 교육수준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RQTH	산업재해 연금	장애연금	군인연금	장애카드	성인 장애수당	15~64세 전체인구
계	1,155 (100.0)	371 (100.0)	766 (100.0)	11 (100.0)	758 (100.0)	673 (100.0)	39,693 (100.0)
교육 무경험 (수료증 없음)	556 (48.0)	181 (49.0)	407 (53.0)	3 (30.0)	408 (54.0)	435 (65.0)	12,277 (31.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78 (33.0)	132 (36.0)	224 (29.0)	2 (23.0)	205 (27.0)	152 (22.0)	8,899 (22.0)
고등학교 졸업	134 (12.0)	38 (10.0)	91 (12.0)	4 (33.0)	91 (12.0)	68 (10.0)	7,914 (20.0)
대학교육 이상	87 (7.0)	20 (5.0)	44 (6.0)	2 (14.0)	54 (7.0)	18 (3.0)	10,603 (27.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1년 기준

3) 일인당 행정적 인정 종류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1년 고용조사 보충자료; Dares 분석

- 15~64세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에서 교육에 대한 무경험 또는 수료증이 없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은 넓은 의미의 장애인구 41%보다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46%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무경험 또는 수료증이 없는 비율이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연금 수급자가 5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2) 구직자 교육 수준

〈표 15-2-3〉 연도별 구직자 교육수준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교육 무경험 (수료증 없음) (노동자, 인부)	42.0	31.0	40.0	30.0	40.0	30.0	39.0	30.0	39.0	30.0	38.0	30.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0.0	19.0	29.0	18.0	29.0	19.0	27.0	18.0	26.0	17.0	25.0	17.0
고등학교 졸업 이상	22.0	42.0	24.0	44.0	23.0	43.0	25.0	45.0	26.0	45.0	27.0	46.0

주: 1)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대상

3) 무응답의 비율은 동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1)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2)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표 15-2-4〉 2015년 구직자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구직 중인 장애인구			구직 중인 전체 인구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인원 수(명)	256,054	212,369	468,423	2,755,566	2,773,402	5,528,9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율	55.0	45.0	100.0	50.0	50.0	100.0
중학교 수료 이하	26.0	29.0	27.0	18.0	18.0	18.0
고등학교 수료 이하	52.0	43.0	48.0	42.0	33.0	38.0
고등학교 졸업	13.0	17.0	15.0	19.0	23.0	21.0
대학 학부 졸업	5.0	7.0	6.0	10.0	12.0	11.0
대학원 이상	4.0	5.0	4.0	10.0	14.0	12.0

주: 1) 2015년 6월 말 구직자 카테고리 A,B,C 전체 대상 ; 프랑스 전체

2) 2015년 6월 기준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Dares-Pôle emploi, STMT ; Dares 분석

- 매년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 모두 교육 무경험자가 감소하고 교육 수준이 상승하는 추세임
  - 2017년 전체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 학력 보유자 비중은 46.0%로 전년도에 비해 1%p 증가하였고, 장애 인구에서도 27.0%로 전년도에 비해 1%p 증가함
- 중학교 수료 이하의 비율이 구직 중인 전체 인구는 18.0%, 장애 인구는 27.0%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직 중인 장애 인구에서 고등학교 수료 이하는 52.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표 15-2-5〉 고용 및 비활동 장애인구 교육수준 현황

(단위: %, 명)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15~64세 전체 인구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인원 수(명)	878,000	938,000	2,579,000	2,569,000	25,462,000	26,034,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	34.0	29.0	29.0	25.0	19.0
	고등학교 수료 이하	34.0	33.0	31.0	31.0	25.0
	고등학교 졸업	14.0	17.0	17.0	18.0	20.0
	대학교육 이상	18.0	21.0	23.0	26.0	36.0
	인원 수(명)	1,312,000	1,514,000	2,534,000	2,676,000	11,168,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경제 활동	교육 무경험(수료증 없음)	56.0	54.0	54.0	52.0	48.0
	고등학교 수료 이하	26.0	28.0	24.0	27.0	18.0
	고등학교 졸업	10.0	11.0	12.0	11.0	21.0
	대학교육 이상	8.0	8.0	10.0	9.0	13.0
	인원 수(명)	1,312,000	1,514,000	2,534,000	2,676,000	11,168,000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Dares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 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3년, 2015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2013년에 비해 2015년 고용상태인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에 반해 비경제활동 상태인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큰 변동은 없음

- 2013년과 2015년 사이 고용상태인 장애인의 교육 무경험 비율은 5%p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 상태인 장애인은 2%p 감소함
- 전체 비경제활동 상태인 인구와 장애인 모두에서 교육 무경험이 절반 가량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에서 54%를 차지하며 현저하게 높음

### 3) 고용

#### (1) 경제활동참여

〈표 15-3-1〉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인원 수 (명)	2,385,000	5,535,000	39,441,000
계	100.0	100.0	100.0
경제활동인구	고용	46.0	65.0
	실업	8.0	7.0
비경제활동인구	55.0	46.0	28.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를 의미함

2) 2013년 기준임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Insee, 2013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표 15-3-2〉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경제활동률	45.0	43.0	54.0	53.0	72.0	72.0
고용률	37.0	35.0	46.0	45.0	65.0	64.0
실업률	18.0	19.0	14.0	15.0	10.0	10.0
명 (수)	2,385,000	2,665,000	5,535,000	5,702,000	39,441,000	40,558,00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2) 경제활동률: 해당 연령층 인구 대비 직업 활동중이거나 실업중인 인구 수의 비율

3) 고용률: 해당 연령층 인구 대비 직업활동중인 인구 수의 비율

4) 실업률: 세계노동기구(BIT)의 의미로 해당 연령층의 직업 활동중이거나 실업중인 인구 대비 실업중인 인구 수의 비율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Dares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3년, 2015년 고용조사자료; Dares 분석

- 장애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해당인구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좁은 의미의 장애인에서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10% 더 높음
- 2013년과 2015년 사이 경제활동률은 전체인구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좁은 의미/넓은 의미)장애인구는 감소함
-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72%인 반면에,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43%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
- 전체인구의 고용률은 64%임에 반해, 넓은 의미의 장애인은 45%, 좁은 의미의 장애인 35%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19%로, 전체 인구 10%에 비해 약 두 배가 높음



## (2) 고용

〈표 15-3-3〉 고용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인원 수(명)		878,000	938,000	2,579,000	2,569,000	25,462,000	26,034,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55.0	51.0	50.0	48.0	52.0	52.0
	여성	45.0	49.0	50.0	52.0	48.0	48.0
연령	15 - 24 세	3.0	3.0	3.0	3.0	7.0	7.0
	25 - 39 세	23.0	20.0	23.0	22.0	36.0	35.0
	40 - 49 세	32.0	31.0	30.0	29.0	28.0	28.0
	50 세 이상	42.0	46.0	44.0	46.0	29.0	30.0
직급	농부, 장인, 상인, 사업자	6.0	6.0	8.0	8.0	8.0	8.0
	고위 간부직	7.0	8.0	10.0	10.0	17.0	17.0
	중간 관리직	20.0	19.0	21.0	22.0	25.0	26.0
	사무직	33.0	35.0	33.0	34.0	29.0	28.0
	노동직	34.0	31.0	28.0	26.0	21.0	20.0
소계		74.0	70.0	69.0	68.0	69.0	68.0
고용 소속	민간	43.0	-	35.0	-	32.0	-
	기업체	18.0	-	21.0	-	23.0	-
	정보 없음	13.0	-	13.0	-	14.0	-
	소계	19.0	22.0	21.0	22.0	20.0	21.0
	공공	13.0	-	14.0	-	14.0	-
	기업체	3.0	-	3.0	-	3.0	-
정보 없음		3.0	-	4.0	-	3.0	-
자영업		7.0	8.0	10.0	10.0	11.0	11.0
고용 상태	자영업	7.0	8.0	10.0	10.0	11.0	11.0
	정규직 및 공공직	83.0	80.0	84.0	80.0	77.0	76.0
	계약직	8.0	10.0	7.0	8.0	9.0	9.0
	도제, 실습, 임시직 및 기타	2.0	2.0	2.0	2.0	4.0	3.0
근로 시간	전일제	70.0	68.0	74.0	72.0	82.0	81.0
	시간제	30.0	32.0	26.0	28.0	18.0	19.0
종사 업종	농업	3.0	3.0	4.0	3.0	3.0	3.0
	산업, 공업	16.0	13.0	15.0	13.0	14.0	13.0
	건설업	6.0	4.0	7.0	6.0	7.0	6.0
	식료품 상업, 교통, 숙박, 식당업	18.0	19.0	19.0	20.0	21.0	22.0
	정보·커뮤니케이션업	2.0	1.0	2.0	2.0	2.0	3.0
	회계, 보험, 부동산업	4.0	4.0	4.0	4.0	4.0	5.0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8.0	9.0	9.0	9.0	10.0	11.0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39.0	40.0	34.0	37.0	31.0	31.0
	기타 서비스업	5.0	5.0	6.0	5.0	6.0	5.0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ARES, 「장애인의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3년, 2015년 고용 조사, DARES 분석

- 2015년 기준 15~64세 근로자 약 총 2,600만명에서 3.6%(938,000명)가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아(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된 장애인구는 15~64세 전체인구에 비하여 연령대가 높은 편임
- 2013년과 2015년 사이 모든 인구에서 전일제는 감소하고, 시간제는 증가함
- 장애를 인정받은 인구는 노동자인 비율이 31.0%로 높은 편이고 고위간부직은 8.0%에 불과함

〈표 15-3-4〉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구 근로자 및 근로자 인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수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용의무 기업체 수	99,800	101,000	99,800	100,200	103,700	
고용의무 기업체 전체에 고용된 전체 인구 수	9,019,900	9,255,000	9,482,300	9,862,800	10,239,900	
고용의무제 기준 원칙에 따라 기업체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구 수	490,400	503,900	517,800	540,500	561,500	
요구되는 장애인 고용률(%)	5.4	5.4	5.5	5.5	5.5	
계약협정 기업체 수	11,100	11,400	11,700	11,900	12,400	
계약협정 기업체 고용 전체 인구 수	2,053,800	2,318,400	2,427,000	2,701,900	2,772,800	
전체 고용의무 기업체의 근로자 수에 대한 계약협정 기업체의 근로자 부분 비율	23	25	26	27	27	
고용의무 기업체 (전체)	실질적으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수	386,700	400,400	431,600	457,900	489,1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322,900	333,200	357,400	377,100	396,7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6	3.6	3.8	3.8	3.9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295,400	304,300	325,600	343,000	359,900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3	3.3	3.4	3.5	3.5
계약협정 고용의무 기업체	실질적으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수	97,400	112,200	123,600	141,200	152,1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수	82,400	95,100	106,300	120,300	127,900
	반일제(이상)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4.0	4.1	4.4	4.5	4.6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74,700	86,300	95,900	108,700	114,900
	전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	3.6	3.7	4.0	4.0	4.1

주: 1) 기업체는 프랑스 전체,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상업 관련 민간, 공기업을 의미함

2) 근로자는 기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대상임. 즉 하청업체, 인턴 등은 해당되지 않음

3) 기업체의 장애인구에 대한 고용의무 장애인구 수는 기업체 고용 인구 수 정원의 6.0%임. 일반적으로 6.0%가 유지되지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면 33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6.0% x 33명 = 1.98명 이지만 소수점 자리를 빼면 1명으로, 1명(3%)을 의무고용 수로 인정하게 됨

4) 장애인구 근로자 단위 수: 계약 형식(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상관없이 근로시간으로 파악함. 반일제 이상 근로인 경우 1, 반일제 미만 근로인 경우 0.5로 계산함

5) 프랑스에서는 더블카운트제도(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고려함)는 없지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하는 페널티 금액을 삭감 또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배치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자료: 프랑스 경제산업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2014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66호, 2016년 11월 발행, 「2016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51호, 2018년 11월 발행, 「2017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53호, 2019년 11월 발행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traitements DARES

- 2017년 고용의무 기업체는 103,700개로, 2013년 이래로 증가추세이며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는 10,239,900명으로 2016년 9,862,800명에 비해 증가함
- 2017년 기준 고용된 전체 근로자 총 10,239,900명 중 561,500명이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OETH) 자격에 속함
- 전체 고용의무 기업체 내 반일제로 고용된 장애인구 근로자 비율은 3.9%, 전일제 비율은 3.5%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거나 같고, 계약협정 고용의무 기업체 내 반일제 비율 4.6% 및 전일제 4.1%으로 또한 증가세를 보임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0%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함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기여금(페널티)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페널티)을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에, 공공사업체는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에 납부해야함
-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



〈표 15-3-5〉 고용의무(OETH)로 고용된 장애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연도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 인구 중 고용의무(OETH)로 고용된 인구				20인 이상 고용된 기업 (공사(Epic) 포함)에 고용된 인구			
		2013	2014	2015	2017	2013	2014	2015	2017
성별	남성	58.0	58.0	56.0	54.0	59.0	58.0	58.0	58.0
	여성	42.0	42.0	44.0	46.0	41.0	42.0	42.0	42.0
연령	15 - 24세	2.0	2.0	2.0	2.0	7.0	7.0	8.0	8.0
	25 - 39세	18.0	18.0	18.0	17.0	37.0	37.0	37.0	37.0
	40 - 49세	31.0	30.0	29.0	28.0	29.0	29.0	28.0	27.0
	50세 이상	49.0	50.0	51.0	53.0	27.0	27.0	27.0	28.0
경력	1년 미만	9.0	9.0	10.0	11.0	10.0	9.0	9.0	11.0
	1년 이상 2년 미만	6.0	6.0	6.0	6.0	7.0	7.0	7.0	8.0
	2년 이상 5년 미만	13.0	13.0	12.0	11.0	15.0	17.0	16.0	15.0
	5년 이상 10년 미만	18.0	18.0	17.0	16.0	18.0	19.0	19.0	17.0
	10년 이상	54.0	54.0	55.0	56.0	50.0	48.0	49.0	49.0
직급	고위 간부직	7.0	7.0	8.0	9.0	21.0	20.0	21.0	22.0
	중간 관리직	16.0	17.0	17.0	18.0	27.0	26.0	26.0	26.0
	사무직	32.0	33.0	33.0	32.0	23.0	23.0	24.0	23.0
	노동직	45.0	43.0	42.0	40.0	29.0	30.0	29.0	29.0
고용상태	정규직	90.0	89.0	89.0	89.0	89.0	89.0	88.0	87.0
	계약직	7.0	7.0	7.0	8.0	6.0	6.0	7.0	6.0
	임시직 및 기타	3.0	4.0	4.0	4.0	5.0	5.0	5.0	7.0
근로시간	전일제	74.0	73.0	72.0	70.0	86.0	86.0	86.0	86.0
	시간제	26.0	27.0	28.0	30.0	14.0	14.0	14.0	14.0
종사업종	산업, 공업	30.0	29.0	28.0	25.0	28.0	26.0	26.0	24.0
	건설업	6.0	5.0	5.0	5.0	6.0	6.0	6.0	5.0
	식품, 상업, 교통, 숙박, 식당업	26.0	26.0	26.0	27.0	25.0	26.0	27.0	25.0
	정보·커뮤니케이션업	2.0	2.0	3.0	3.0	5.0	5.0	5.0	5.0
	회계, 보험, 부동산업	6.0	6.0	6.0	7.0	6.0	6.0	5.0	6.0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12.0	13.0	13.0	14.0	14.0	14.0	14.0	16.0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16.0	17.0	17.0	16.0	14.0	14.0	15.0	15.0
	기타 서비스업	2.0	2.0	2.0	2.0	2.0	3.0	2.0	4.0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거주자.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상업 관련 민간, 공기업

자료: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2015, 2016, 2017, 2019년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Insee. 2013, 2014, 2015, 2017 고용 조사, DARES 분석

- 전체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2017년 여성 비율이 2.0p% 증가함.
- 고용의무자격이 있는 장애 인구는 근로자 전체에 비하여 연령대가 높음. 특히 2017년의 경우 50세 이상은 전체인구에서 27.0%인 것에 비해 장애 인구는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경력의 경우, 고용의무자격 장애 인구에서 10년 이상이 56.0%로 절반 이상이며, 직급의 경우 노동직 비율이 40.0%로 높고 고위 간부직 비율은 9.0%로 낮음
- 고용상태의 경우 정규직이 대부분이며, 근로시간의 경우 전일제 비율이 높으나 전체인구 대비 시간제 비율이 장애 인구에서 높게 나타남
- 종사업종의 경우 고용의무자격 장애 인구에서 2015년까지 산업 및 공업 분야가 제일 높았지만 2017년에는 식품 상업, 교통, 숙박, 식당업이 27.0%로 제일 높고 2015년에 비해 1.0p% 상승함.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각각 3.0%, 2.0%로 가장 낮음

〈표 15-3-6〉 고용의무(OETH)로 고용된 장애인구의 행정적 인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연도	구분	장애인근로능 력인정 (RQTH)	산업재해 (AT-MP)	장애연금	장애카드 (장애율 80% 이상)	성인장애수당	군인연금	전체
	전체	74	12	10	1	2	1	100
성별	남성	55	75	38	57	66	78	56
	여성	45	25	62	43	34	22	44
연령	15 - 24세	2	0	0	3	3	1	2
	25 - 39세	21	8	7	27	23	10	18
	40 - 49세	31	25	24	30	28	25	29
	50세 이상	46	67	69	40	46	64	51
경력	1년 미만	12	2	1	12	7	7	10
	1년 이상 2년 미만	7	1	1	7	6	4	6
	2년 이상 5년 미만	14	5	5	14	14	12	12
	5년 이상 10년 미만	19	13	14	24	23	15	17
	10년 이상	48	79	79	43	50	62	55
직급	고위 간부직	8	9	8	6	14	17	9
	중간 관리직	17	19	20	13	18	24	17
	사무직	34	16	40	41	33	22	32
	노동직	41	56	32	40	35	37	42
근로시간	전일제	76	89	29	59	67	81	72
	시간제	24	11	71	41	33	19	28
종사업종	산업, 공업	26	39	25	20	21	28	28
	건설업	4	12	2	4	6	7	5
	식품품 산업, 교통, 숙박, 식당업	26	26	24	25	23	25	26
	정보·커뮤니케이션업	4	2	2	2	6	2	3
	회계, 보험, 부동산업	6	4	10	9	8	4	6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15	7	11	19	18	15	13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17	8	24	18	14	11	17
	기타 <sup>1)</sup>	2	2	2	3	4	8	2

주 1) 기타: 농업, 임업, 어업 및 각종 서비스업

2) 2015년 기준임

3)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거주자,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상업 관련 민간, 공기업

자료: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2015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71호 2017년 11월 발행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Insee, 2012, 2013, 2014, 2015 고용 조사, DARES 분석

- 2015년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로 고용된 장애인 인구의 56%가 남성, 44%가 여성임
- 장애인근로능력인정(RQTH) 인구가 대다수(74%)를 차지함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적(OETH)을 획득한 장애인을 고용함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표 15-3-7〉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구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인 이상 고용된 기업 (공사(Epic) 포함)에 고용된 인구
인원 수(명)	307,800	336,900	367,400	361,100	386,700	7,972,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65.0	64.0	61.0	59.0	58.0	59.0
여성	35.0	36.0	39.0	41.0	42.0	41.0
연령						
15 - 24세	2.0	2.0	2.0	2.0	2.0	7.0
25 - 49세	55.0	54.0	53.0	51.0	49.0	66.0
50세 이상	43.0	44.0	45.0	47.0	49.0	27.0
직급						
기업 운영자 및 고위 간부직	5.0	5.0	6.0	7.0	7.0	21.0
중간 관리직	13.0	13.0	16.0	16.0	16.0	27.0
사무직	28.0	29.0	32.0	33.0	32.0	23.0
노동직	54.0	53.0	46.0	44.0	45.0	29.0
근속 기간						
1년 미만	11.0	12.0	11.0	10.0	9.0	10.0
1년 이상 2년 미만	7.0	7.0	7.0	7.0	6.0	7.0
2년 이상 5년 미만	15.0	16.0	14.0	13.0	13.0	15.0
5년 이상 10년 미만	17.0	16.0	16.0	17.0	18.0	18.0
10년 이상	49.0	49.0	52.0	53.0	54.0	50.0

주: 범위: 상공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프랑스 전체

자료: Dares,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15년 11월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 Insee, 2013년 고용조사, Dares 분석

[그림 3-2-5] 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달성정도 (2016년 기준)



자료: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 고용과 실업」, 2019년 6월 발행

원자료: Agefiph-Dares 2016

- 고용의무 민간 기업체에 고용된 장애 인구수가 상승하는 추세임
- 고용의무 민간 기업체에 고용된 장애 인구에서 남성이 절반 이상이지만 성 불균형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연령대를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인구 27.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장애 인구에서는 49.0%를 차지함
- 전체인구에서 다양한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장애 인구에서는 노동직이 45.0%로 절반가량을 차지함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며 장애 인구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민간기업 중 장애인근로자를 직접 또는 간접 고용과 동시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41%로 제일 높고 장애인근로자 고용 없이 기여금만 납부하는 기업이 8%로 제일 낮음

〈표 15-3-8〉 고용의무 민간기업체의 전일제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  
- 규모 및 활동분야별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전체 기업	3.0	3.1	3.3	3.4	3.5	3.5
기업 규모	20-49인	2.9	2.9	3.0	3.1	3.1
	50-99인	3.1	3.2	3.3	3.4	3.4
	100-199인	3.1	3.2	3.3	3.4	3.5
	200-499인	3.2	3.3	3.4	3.5	3.6
	500인 이상	2.9	3.3	3.6	3.6	3.7
활동 분야	산업, 공업	3.6	3.6	3.9	3.9	3.9
	건설업	2.9	2.8	2.9	3.0	2.9
	식품품 상업, 교통, 숙박업, 식당업	2.9	2.9	3.5	3.4	3.5
	정보·커뮤니케이션업	1.4	1.7	1.4	2.1	2.2
	회계, 보험, 부동산업	2.4	2.5	2.7	3.1	3.2
	전문, 연구, 기술, 행정서비스지원	2.5	2.4	2.5	2.8	2.9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3.8	3.8	4.1	4.4	4.5
	기타 서비스업	3.0	2.9	3.0	3.4	3.5

주: 1) 대상: 상업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프랑스 전체  
 자료: Dares,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2018, 2019년 발행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Insee, Dares 분석

[그림 3-2-6] 그림으로 보는 2008-2015년 민간기업 기여금 납부액 변화



대상: 프랑스 전체  
 자료: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인 고용과 실업」, 2017년 12월 발행

- 전일제 고용 비율이 증가 추세임
  - 2015년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전일제 고용 비율이 3.1%로 가장 낮지만 2013년도에 비해 0.1%p, 2011년도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3.6%로 가장 높으며 2013년도와 동일함
- 전일제의 경우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분야에서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산업·공업에서 3.9%, 식품품 상업, 교통, 숙박업, 식당업 3.4% 순임. 가장 낮은 분야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2.1%이지만 2013년도의 1.4%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5년도 41,588개 민간기업체가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패널티 기여금을 지불하였으나(총 404,000 유로), 이는 2008년도 54,984개 기업이 지불한 총 574,000 유로에 비하여 감소함



〈표 15-3-9〉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장애인구

(단위: 명, %)

구분	정부부처	지방정부	의료부문	공공기관 전체
인원 수(명)	69,700	88,500	49,600	207,800
공공기관 고용 비율	34.0	42.0	24.0	100.0
성별				
남성	47.0	49.0	26.0	43.0
여성	53.0	51.0	74.0	57.0
연령				
15-25세	1.0	1.0	1.0	1.0
26-40세	22.0	15.0	15.0	17.0
41-55세	57.0	58.0	63.0	58.0
56세 이상	21.0	25.0	22.0	24.0
직급				
A	30.0	3.0	8.0	13.0
B	23.0	7.0	17.0	15.0
C	31.0	82.0	69.0	61.0
정부 소속 노동자	2.0	-	-	1.0
기타(카테고리 해당 없음)	14.0	8.0	6.0	10.0

주: 1) 대상: 20인 이상 전일제(동등인정) 근로자 고용 공공기관 (재판소 및 사회보장기금 제외); 프랑스 전체

2) 2013년 기준

3) 직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A: 대학학부과정 졸업요건으로 채용되는 고위관리직(더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특정 직급은 예외로 함)

- B: 대학학부과정 이수조건으로 채용되는 팀, 서비스, 작업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직

- C: 직업학교졸업 및 자격증 조건으로 채용되는 현장실천직

- 정부 소속 노동자: 일반적으로 국방부 소속의 기술자를 지칭함

자료: Dares,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15년 11월

원자료: FIPHPF

〈표 15-3-10〉 고용의무 공공기업체의 고용의무 달성 정도

(단위: 개, %)

구분	정부부처	지방정부	의료부문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제외한 공기업	전체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없음	72(19.0)	1,030(13.0)	231(10.0)	1,333(13.0)	56(20.0)	1,389(13.0)
고용의무자격자 고용+기여금	170(43.0)	2,044(27.0)	1,016(46.0)	3,230(31.0)	166(59.0)	3,396(32.0)
고용의무자격자 고용	149(38.0)	4,605(60.0)	997(44.0)	5,751(56.0)	60(21.0)	5,811(55.0)
합계	391(100.0)	7,679(100.0)	2,244(100.0)	10,314(100.0)	282(100.0)	10,596(100.0)

주: 1) 대상: 20인 이상 전일제(동등인정) 근로자 고용 공공기관 (재판소 및 사회보장기금 제외); 프랑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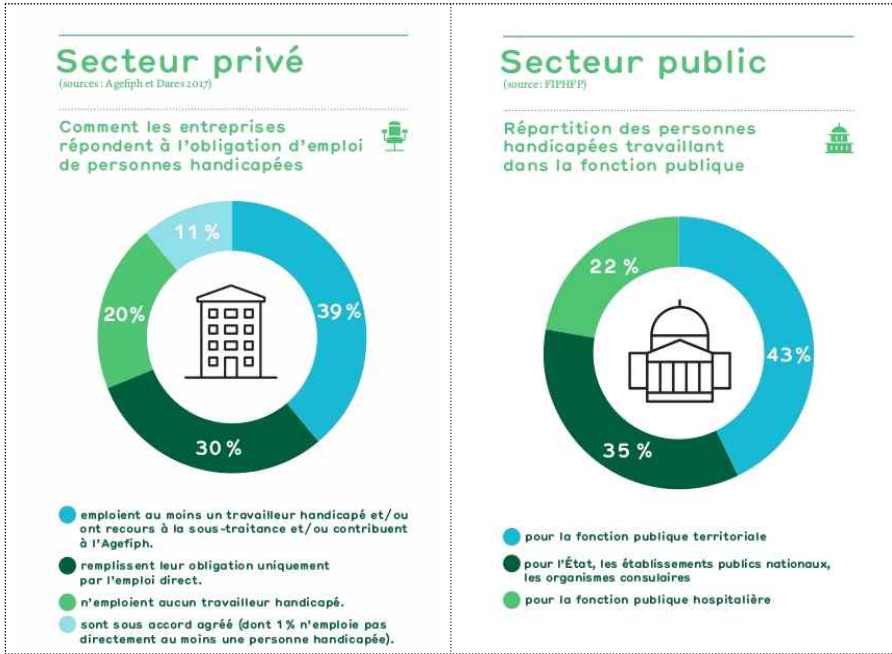
2) 2013년 기준

자료: Dares,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15년 11월

원자료: FIPHPF

- 2013년 207,800명의 장애인구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고용되었으며 정부부처 34%, 지방정부가 42%, 의료부문이 24%를 차지함
-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총 10,596개소로 그 중에서 55%는 고용의무자격자(OETH)를 고용하였고, 32%는 고용의무자격자 고용하면서 기여금 납부하였으며, 13%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지 않고 오직 기여금만을 납부함
  - 기여금(때널티) 납부를 선택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만을 한 경우는 지방정부가 60%로 가장 높고 의료부문이 44%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중앙정부는 38%를 차지함

[그림 3-2-7] 민간기업체와 공공기업체의 고용의무 달성 정도



주: 1) 대상: 20인 이상 민간기업체 및 상공업 직종 공공기업체; 프랑스 전체(Mayotte 제외)  
 2) 반일제 : 하청계약, 인턴 포함  
 3) 2017년 기준

자료: Dares. L'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en 2017, 2019년 11월  
 원자료: Agefiph-Dares, DOETH; traitement Dares

- 2017년 기여금 없이 전일제 및 반일제 고용을 한 기업체는 17%를 차지함
- 장애인근로자 고용을 하지 않고 기여금만 납부한 기업체는 9%를 차지함



## (3) 실업 및 구직

〈표 15-3-11〉 장애인구의 실업률

(단위: %)

구분		좁은 의미의 장애인			넓은 의미의 장애인			전체 인구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011	전체	20.0	23.0	21.0	12.0	14.0	13.0	8.0	10.0	9.0
	15-24세	-	-	-	30.0	31.0	31.0	19.0	24.0	22.0
	25-39세	21.0	19.0	20.0	16.0	21.0	18.0	9.0	11.0	10.0
	40-49세	21.0	25.0	23.0	11.0	12.0	11.0	6.0	7.0	7.0
	50-64세	18.0	23.0	20.0	9.0	10.0	10.0	6.0	7.0	7.0
2013	전체	19.0	17.0	18.0	15.0	13.0	14.0	10.0	10.0	10.0
	15-24세	31.0	35.0	33.0	29.0	30.0	30.0	24.0	25.0	24.0
	25-39세	19.0	19.0	19.0	18.0	15.0	17.0	11.0	10.0	11.0
	40-49세	18.0	17.0	17.0	14.0	12.0	13.0	7.0	8.0	7.0
	50-64세	19.0	15.0	17.0	13.0	11.0	12.0	7.0	7.0	7.0
2015	전체	20.0	17.0	19.0	17.0	13.0	15.0	11.0	10.0	10.0
	15-24세	-	-	30.0	-	-	34.0	-	-	26.0
	25-39세	-	-	19.0	-	-	17.0	-	-	11.0
	40-49세	-	-	17.0	-	-	14.0	-	-	8.0
	50-64세	-	-	18.0	-	-	13.0	-	-	7.0

주: 1)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2) 실업률: 세계노동기구(BIT)의 의미로 해당 연령층의 직업 활동중이거나 실업중인 인구 대비 실업중인 인구 수의 비율

자료: 프랑스 경제 통계연구소(Insee) 2011년 보완조사,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진입」 32호, 2017년 5월  
원자료: Insee, 2011년 고용조사 보충자료; 2013년 고용조사; Dares 분석

- 2013년에 비해 2015년 전체인구의 실업률은 변화가 없는 반면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증가함

- 2015년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19.0%이며 전체인구의 실업률 10.0%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임

〈표 15-3-12〉 장애인구 구직률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구직자			전체 인구 구직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인원 수(명)	256,054	212,369	468,423	2,755,566	2,773,402	5,528,968
비율	55.0	45.0	100.0	50.0	5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3.0	3.0	3.0	13.0	12.0	13.0
25-49세	51.0	48.0	50.0	64.0	63.0	63.0
50세 이상	46.0	49.0	47.0	24.0	25.0	24.0

주: 1) 구직센터에 등록된 구직자 A, B, C 카테고리, 프랑스 전체

2) 2015년 6월말 기준

자료: Dares, 「장애인 고용과 실업」 17호, 2015년 11월

원자료: Dares-Pole emploi, STMT; Dares 분석

- 2015년 장애인구의 구직자는 468,423명으로 전체인구의 8.5%를 차지함
- 장애인구의 구직자는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50세 이상의 구직자 비율도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구직자 (les demandeurs d'emploi)

- 프랑스 구직센터 (Pole emploi)에 등록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뉘며 실업자를 지칭할 때의 구직자 용어 사용은 A, B, C 카테고리를 일컬음. 장애인구의 구직자는 고용의무자격 장애인구를 뜻함
  - A: 완전 실업 상태
  - B: 짧은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하)
  - C: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상)
  - 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 상태
  - E: 고용된 상태



〈표 15-3-13〉 장애인구의 구직률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구직자	4,584,152	4,977,082	5,269,775	5,593,700	5,607,511	5,846,527	5,989,614	5,764,446
장애인 구직자	295,611 (6.4)	370,674 (7.4)	413,421 (7.8)	452,701 (8.1)	461,924 (8.2)	489,360 (8.4)	513,505 (8.6)	513,450 (8.9)
성별								
남성	56.0	56.0	55.0	55.0	54.0	54.0	53.0	52.0
여성	44.0	44.0	45.0	45.0	46.0	46.0	47.0	48.0
연령별								
50세 미만	59.0	57.0	57.0	55.0	54.0	52.0	51.0	51.0
50세 이상	41.0	43.0	43.0	45.0	46.0	48.0	49.0	49.0

주: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의무자격인구 카테고리 A, B, C 대상

자료: 프랑스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 년도), 「장애인고용-주요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 (Pôle emploi), Insee

〈표 15-3-14〉 구직 기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1년 이상	56.0	43.0	58.0	45.0	56.0	44.0	57.0	48.0	58.0	48.0
2년 이상	35.0	24.0	36.0	25.0	36.0	25.0	35.0	25.0	-	-
3년 이상	22.0	14.0	24.0	15.0	24.0	16.0	24.0	16.0	24.0	17.0
평균 구직기간	-	-	-	-	-	-	804일	602일	824일	639일

주: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의무자격인구 카테고리 A, B, C 대상

자료: 1)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 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2)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전체 구직자 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장애인 구직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임
  - 특히 2011~2012년은 전체 구직자 수와 장애인 구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에는 남성이 52.0%, 여성이 48.0%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미만은 감소하고 있음
- 구직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보다 장애인구의 구직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구직 기간이 매 년 늘어나는 추세임
  - 2018년 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인구에서 전년도에 비해 1.0%p 증가하여 17.0%이지만 장애인구에서는 24.0%로 전년 도와 동일
  - 의무고용자격인구 실업기간은 평균 824일로 전년도 804일에 비해 20일 증가함. (전체인구 경우 역시 평균 639일로 전년도 602일에 비해 37일 상승)

〈표 15-3-15〉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종사)업종군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구 (명)	장애인구 (%)	전체인구 (%)	장애인구 (명)	장애인구 (%)	전체인구 (%)	장애인구 (명)	장애인구 (%)	전체인구 (%)	장애인구 (%)
인적 및 지역사회서비스	97,466	24.0	21.0	108,940	24.0	21.0	114,681	24.0	21.0	25.0
기업 지원	62,316	16.0	12.0	67,145	15.0	12.0	70,485	15.0	12.0	15.0
상업, 판매 및 배급	43,596	11.0	15.0	49,777	11.0	15.0	52,552	11.0	15.0	11.0
교통 지원	44,495	11.0	9.0	50,495	11.0	9.0	52,255	11.0	9.0	11.0

주: 1)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 : 지역사회 안전 및 유지 역할

2) 기업 지원: 회계 및 구매 지원

3) 교통 지원: 운전, 배달, 운반

4) 범위: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구직자의 신청 업종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군에 대하여 매년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임

## 4) 재정

### (1) 장애인복지 지출

〈표 15-4-1〉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6-2017 변화율(%)	2013-2017 변화율(%)
<b>60세 이상 개인자활수당(APA) 경우</b>							
전체 수당(서비스) 제공 건수	1,374,830	1,388,130	1,399,470	1,417,660	1,432,160	1.0	4.2
재가 서비스	755,610	759,790	764,030	772,180	781,210	1.2	3.4
위탁 서비스	619,220	628,340	635,430	645,480	650,950	0.8	5.1
전체 지출	8,063	8,156	8,209	8,316	8,490	1.1	3.5
재가 서비스	3,364	3,371	3,337	3,428	3,557	2.7	3.9
위탁 서비스	4,475	4,564	4,643	4,630	4,635	-0.9	1.8
<b>60세 이상 제3자보상수당(ACP), 장애보상수당(PCH) 경우</b>							
전체 수당(서비스) 제공 건수	453,080	472,760	493,600	511,370	519,810	1.7	14.7
재가 서비스	305,720	322,940	340,020	354,170	360,730	1.9	18.0
위탁 서비스	147,360	149,820	153,580	157,190	159,080	1.2	8.0
전체 지출	7,464	7,716	7,905	8,115	8,318	1.5	9.5
재가 서비스	2,092	2,158	2,234	2,330	2,396	1.8	12.6
위탁 서비스	5,158	5,345	5,463	5,574	5,713	1.4	8.8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Mayotte 제외)

2) 전체 수당(서비스) 제공 횟수: n(해당연도)-1 12월 31일과 해당 연도의 평균값으로, 서비스 수혜자 수가 아닌 제공된 서비스 수임

3) 재가서비스: 장애인 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ACRP, PCH 및 APA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칭함

4) 위탁서비스: 위탁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가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가족수당 기여금 징수 연합(Urssa)에 신고하여 허가된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유료 돌봄서비스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 통계국(DREES). 「2017년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 2019년 1월

원자료: DREES, enquêtes Aide sociale, CNAF, MSA pour les allocataires du RMI, du RSA « socle », « socle majoré » et du RSA expérimental, DARES pour les bénéficiaires des contrats uniques d'insertion, des CTRMA, et des contrats d'avenir.

- 60세 이상 장기요양보험(APA), 제3자보상수당(ACP) 및 장애보상수당(PCH)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2017년 60세 이상 개인자활수당(APA)의 제공 건수는 1,432,16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고, 2013년에 비해 4.2% 증가함
- 2017년 60세 이상 제3자보상수당(ACP) 및 장애보상수당(PCH)의 제공 건수는 519,81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하였고, 2013년에 비해 14.7% 증가함
- 제3자보상수당(ACP) 및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제공 건수는 재가서비스가 위탁서비스 보다 높고 2016-2017년 변화를 또한 각각 1.9%, 1.2%로 재가서비스 제공 건수가 증가함

#### ※※ 제3자보상수당(AC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하며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제3자보상수당(ACP)은 2006년 1월부터 장애보상수당(PCH)으로 이름이 바뀌어 내용이 보완되어 대체됨
  - 장애보상수당(PCH)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른 보조금 액수 변동에 대한 혼란과 불평으로 인해 기존 ACP 수혜자들에 한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ACP를 유지하거나 PCH로 변경할 수 있음
  - ACP나 PCH를 수급 받는 도중 60세가 되면 APA로 서비스가 수급이 변경되지만, 수급자가 원할 시 기존에 받고 있던 ACP나 PCH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 가능함

#### ※※ 개인자활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 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을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표 15-4-2〉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단위: 유로(€))

유형	서비스형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인적도움	794	806	857	841	841	837	856	758
2	기술·전문적 도움	838	798	769	773	791	835	875	835
3	집안개조	3,333	3091	3125	2,921	2,999	3,007	3,083	2,861
	자동차 개조	2,381	2498	2532	2,679	2,758	2,481	2,612	2,541
	교통수단 보조수당	—	—	142	130	136	133	146	135
	교통수단 보조수당(일시적)	—	—	—	—	—	3453	3,069	4,069
4	특수·예외수당	225	262	294	338	543	587	658	698
5	안내·보호건	47	113	69	47	51	49	52	51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2) 월별 수령: 인적도움, 교통수단 보조수당, 안내 및 보호건 등임

3) 일시적 수령: 기술 및 전문적 도움, 집안개조,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특수 및 예외수당 등임

4) 사회가족복지법 245조 3항에 의하면 1. 인적도움 2. 기술·전문적 도움 3. 집안개조·자동차개조·교통수단 보조수당 4. 특수·예외수당 5.

안내·보호건으로 총 5가지 유형의 장애보상수당으로 분류됨. ① 인적도움: 일상생활(화장실, 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 등)하는 데에 활동보조인(가족부양자도 가능)의 도움, ② 기술·전문적 도움: 필요한 장애용구 구입 및 렌트, ③ 집안·자동차 개조: 장애인이 생활 및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맞춤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활동보조인과 동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또는 50km 이상 거리의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장애인 맞춤 교통수단 이용, ④ 특수·예외수당: PCH에 속한 유형(인적도움, 기술전문도움, 집안 및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안내보호건) 외의 장애 관련한 다른 필요한 수당(예: 의료용 침대 수리비용 등), ⑤ 안내·보호건: 자율성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과 본인이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경우에 (미리 훈련된)안내·보호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자료: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CNSA)(각 년도), 「장애 보상 수당 분석」 Les chiffres clés de l'aide à l'autonomie 2019

원자료: Enquete mensuelle PCH. CN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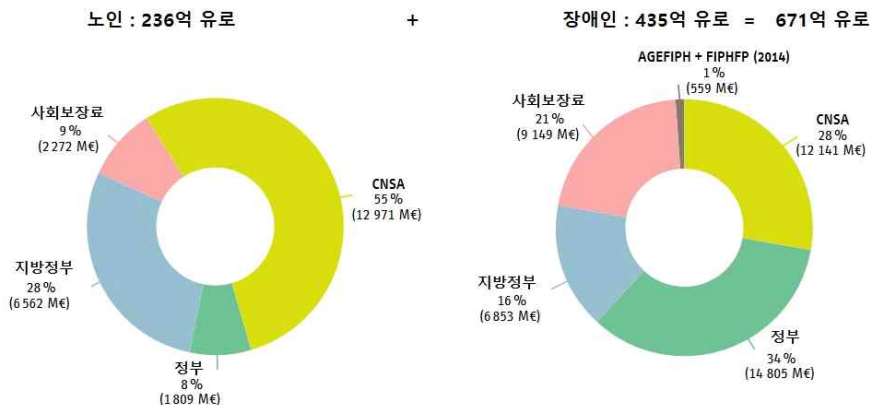
-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은 각 유형별로 특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음

- 월 단위로 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인적도움의 평균 금액이 758유로로 가장 높음
- 일시적 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교통수단 보조수당(일시적)의 평균 금액이 4,069유로로 가장 높음
- 특수·예외 수당이 증가 추세로 2017년 1인 평균 698유로임
- 장애보상수당(PCH) 중 안내·보호건 수당 금액이 가장 낮으며, 2017년 51유로임

※※ 장애보상수당(PCH)은 공식기관을 통한 간접 고용 뿐만 아니라 일대일 직접 고용에도 지급됨. 즉, 전문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자에게도 해당됨. 인적도움 지급금액은 지역장애인센터(MDPH)의 종합평가사정팀에 의하여 개인장애보상계획 시 책정됨



[그림 3-2-8] 그림으로 보는 노인 및 장애인 자율성 상실 보상 수당 공공재원 분포



주: 1) CNSA: 프랑스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

AGEFIPH: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

FIPFHP: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기금

2) 노인 및 장애인 자율성 상실 보상 수당 : 제3자보상수당(ACTP), 장애보상수당(PCH) 및 개인자율수당(APA)이 해당됨

3) 2017년 기준

자료: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CNSA)(2019), 「장애 보상 수당 분석」 Les chiffres clés de l'aide à l'autonomie

원자료: LFSS 2019

- 2017년 노인 및 장애인 정책 재정 비용은 노인 236억 유로, 장애인 435억 유로로, 총 671억 유로임

※※ 프랑스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 (CNSA)

- 2004년 6월 30일 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에 창설됨

- 주요 미션:

- 자립성 상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 및 건강보험 예산 관리 및 지출: 노인 및 장애인 개인 자립 수당, MDPH, 의료사회 기관 및 재가지원서비스 교육 재정
- 관련 전문가 및 지역장애인센터(MDPH) 기관에 정보 전달 및 회의 주최
- 노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 연구 재정 지원
- 22억 유로 공공예산 관리: MDPH 자원 및 MDPH 업무 경영에 사용됨
- 다양한 기관(각종 협회, 사용자 연맹단체 및 행정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재정 지원

## 5) 복지

### (1) 장애인구 빈곤율

〈표 15-5-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

(단위: %, 유로, 천명)

구분	2014				2015			
	인구 분포 (%)	중위소 득수준 (2014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인구 분포 (%)	중위소득 수준 (2015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총계	100.0	20,210	8,732	14.0	100.0	20,300	8,875	14.2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45.5	21,580	3,074	10.8	45.3	21,790	3,079	10.8
취업자	40.8	22,310	1,974	7.8	40.7	22,500	1,987	7.8
임금근로자	36.1	22,310	1,423	6.3	36.0	22,490	1,475	6.5
자영업자	4.7	22,340	551	18.7	4.7	22,680	512	17.3
실업자	4.7	14,230	1,100	37.3	4.6	14,060	1,092	37.6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32.0	19,510	2,885	14.4	32.3	19,560	3,005	14.9
은퇴자	22.3	20,880	1,000	7.2	22.4	21,080	1,028	7.3
기타 비활동인구 (학생 포함)	9.7	15,620	1,885	30.9	9.9	15,260	1,977	32.1
18세 미만	22.5	18,330	2,773	19.8	22.4	18,370	2,791	19.9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대상

자료: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2014년 삶, 소득수준」 2016년 9월, 「2015년 삶, 소득수준」 2017년 9월  
원자료: Insee, DGFiP, Cnaf, Cnav, CCMSA. 2014, 2015년도 사회·회계 소득 조사

- 2015년 기준 경제활동 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중위 소득 수준은 21,790 유로이며,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중위소득은 19,560 유로로 나타남
- 2015년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각각 10.8%, 14.9%로 나타남
- 2014년보다 2015년의 실업자 빈곤율이 37.6%으로 0.3p% 증가함



〈표 15-5-1〉 경제활동참여별 소득수준 및 빈곤율(계속)

(단위: 천명, 유로, %)

구분	2016				2017			
	인구 분포 (%)	중위소득 수준 (2016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인구 분포 (%)	중위소득 수준 (2017년, 유로)	빈곤 인구수	빈곤율 (%)
총계	100.0	20,520	8,783	14.0	100.0	20,820	8,889	14.1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45.4	21,960	3,072	10.8	45.4	22,210	3,097	10.8
취업자	40.8	22,720	1,979	7.7	41.4	22,920	2,144	8.2
임금근로자	35.9	22,680	1,443	6.4	36.6	22,850	1,625	7.1
자영업자	4.9	23,190	536	17.5	4.8	24,020	519	17.2
실업자	4.6	14,070	1,093	38.3	4.0	14,420	953	37.6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32.4	19,900	2,947	14.5	32.4	20,270	2,985	14.6
은퇴자	22.7	21,510	1,048	7.4	22.8	21,860	1,094	7.6
기타 비활동인구 (학생포함)	9.7	15,420	1,899	31.1	9.6	15,830	1,891	31.3
18세 미만	22.2	18,500	2,764	19.8	22.2	18,600	2,807	20.1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대상

자료: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2016년 삶, 소득수준」 2018년 9월, 「2017년 삶, 소득수준」 2019년 9월

원자료: Insee, DGFiP, Cnaf, Chav, CCMSA. 2016m 2017년도 사회-회계 소득 조사

- 2017년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은 10.8%로 전년도와 변함없음
  - 취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인구분포는 4.8%로 임금근로자 36.6%에 비하여 적고, 상대적으로 빈곤율은 17.2%으로 작년에 비해 0.3%p 감소함.
  - 2014년과 비교 시 2017년의 실업자 빈곤율은 37.3%에서 37.6%로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38.3%에 비하면 감소하였음.
- 18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은퇴자 빈곤율은 2014년 7.2%에서 2017년 7.6%로 0.4%p 증가함

〈표 15-5-2〉 기능 제한과 기능 제한 정도에 따른 빈곤율

(단위: 건 수, %)

기능 제한	정도		
	평균	경증	중증
청각	9.4	9.0	10.0
지적	19.8	14.0	30.3
지체	15.8	12.7	19.6
복합적	20.5	14.5	30.2
정신	16.6	14.0	22.6
시각	16.8	11.5	27.8
비 장애	12.7	—	—
15~64세 전체	13.8	—	—

주: 1) 201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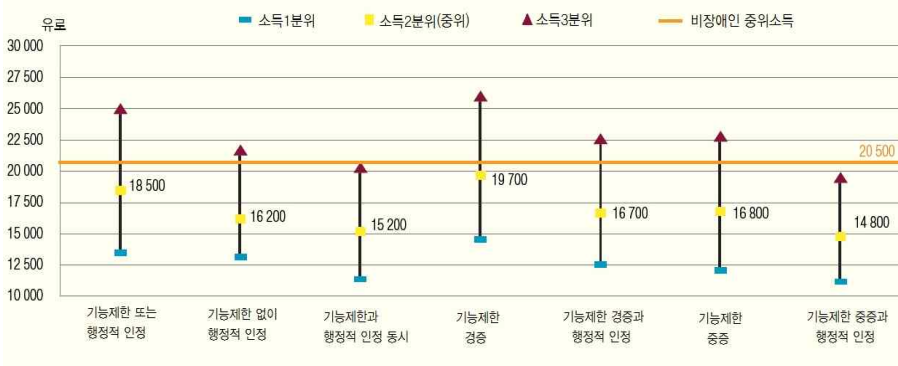
2) 빈곤선은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2010년 기준으로 연 소득 수준 11,600 유로임.

3)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REES, 장애인구의 소득 수준: 기능에 따른 차이, 2017년 3월

원자료: INSEE, enquête Emploi module ad hoc EEC 2011 s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 INSEE,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10 (ERFS).

[그림 3-2-9] 장애 정의와 기능제한 및 기능제한 정도에 따른 소득 수준



주: 1) 2010년 기준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REES, 장애인구의 소득 수준: 기능에 따른 차이, 2017년 3월

원자료: INSEE, enquête Emploi module ad hoc EEC 2011 s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 INSEE,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10 (ERFS).

- 15~64세 인구 중 비장애인구의 빈곤율은 12.7%를 보이는데,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 보다 빈곤율이 9.4로 낮음
  - 지적 장애 또는 복합적 장애를 가진 경우 빈곤율이 30%를 웃돌고 있음
- 15~64세 장애인구의 연 중위소득은 18,500유로로 비장애인구의 20,500유로보다 약간 적음
  - 기능제한이 중증인 경우 연 중위소득 16,800유로(월 1,400유로)로 경증인 경우보다 2,900유로, 비장애인구의 경우보다 3,700유로가 적음
  - 행정적 인정과 기능제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제한 정도에 상관없이 비장애인구에 비해 5,300유로가 적음



## (2) 성인장애수당(AAH)

〈표 15-5-3〉 성인장애수당(AAH) 신청 건수와 수급자격 인정 현황

(단위: 건 수,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청 건수	336,000	347,000	371,000	396,000	425,000	451,000	526,000
신청 연별 변화율	-	+3.2	+7.0	+6.7	+7.4	+6.2	+16.5
수급자격 인정 연별 변화율	354,000	360,000	362,000	396,000	426,000	454,000	499,000
연별 인정률	-	+1.5	+0.6	+9.5	+7.5	+6.5	+10.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대상

자료: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CNSA), 「2007-2013년 성인장애수당(AAH)관련 MDPH 활동통계보고서」, 3호, 2015년 3월 발행

- 2013년 526,000건의 성인장애수당(AAH)의 신청이 있었으며, 2012년 451,000건과 비교했을 때 16.5% 상승함
- 2007년과 2013년 동안 성인장애수당(AAH)의 신청 수는 336,000건에서 526,000건으로 56.5% 상승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약 3%의 신청 건수 증가가 있는 후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성인장애수당 판정 담당인 장애인 권리·자율위원회(CDAFH)는 수급자격인정 수를 신청건수 증가율에 따라 높이지 않았음
  - 즉 2013년 16% 증가로 가장 높은 신청건수를 보였으나, 10% 안팎으로 수급을 인정함
  -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신청 건수가 증가한 만큼 수당 인정 판정 기간도 연장되어 2012년엔 4개월 1주, 2013년엔 약 5개월 소요되었음

### ※※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 장애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20세 이상 공식적인 은퇴 연령까지(60~62세), 소득기준(아래 표 참고), 장애 정도가 최소 80%의 불능상태 혹은 50~79%의 불능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

〈성인장애보조금(AAH) 수혜대상 소득 기준표〉 (2019년 기준)

가족 상황	부양 의무 자녀 없음	부양 의무 자녀 있음
1인 가구	10,320 €	10,320 € + 5,160(자녀 한 명 당)
부부	19,505 €	19,505 € + 5,160(자녀 한 명 당)

### ※※ 성인장애수당(AAH)의 보충수당

- **자립생활을 위한 추가수당(Majoration pour la vie autonome, MVA)** : 본인의 장애에 맞게 집안 개조를 하는 비용 지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월 104,77유로가 지급됨. 수급조건으로 아래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수당수급 : AAH 완전 금액 수급자 또는 AAH 부분 금액 수급자이면서 노령, 장애 또는 산업재해연금 수급자
  - 장애율: 장애율 80% 이상인 자
  - 거주: 시설 또는 지역적 협약 거주지가 아니며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 자택이 아닌 독립된 일반 자택에 거주하는 자(자기소유해당됨)
  - 주택수당 수급자
  - 경제활동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보충(Complément de ressources, CPR)** : 취업가능성이 없는 장애인의 자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179,31유로가 지급됨. 수급조건으로 아래에 모두 부합해야 함.
  - 수당수급 : AAH 완전 금액 수급자 또는 AAH 부분 금액 수급자이면서 노령, 장애 또는 산업재해연금 수급자
  - 장애율: 장애율 80% 이상인 자
  - 장애로 근로 능력 5% 미만으로 인정받은 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경제활동소득이 없는 자
  - 시설 또는 지역적 협약 거주지, 가족 및 친지 또는 지인 자택이 아닌 일반 자택에 독립적(본인소유 및 배우자 소유 가능)으로 거주하는 자

〈표 15-5-4〉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세 이상 전체 인구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전체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전체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율 50~79%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율 80% 이상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전체	
합계		1,062,300	1,090,300	523,100	639,700	1,163,100	49,258,000
성별	남	51.0	52.0	51.0	52.0	52.0	52.0
	여	49.0	48.0	49.0	48.0	48.0	48.0
연령	20~29	13.0	13.0	15.0	11.0	13.0	15.0
	30~39	17.0	17.0	18.0	16.0	17.0	16.0
	40~49	26.0	25.0	25.0	24.0	25.0	18.0
	50~59	32.0	32.0	34.0	31.0	32.0	18.0
	60세이상	12.0	13.0	8.0	18.0	13.0	33.0
가족상황	미혼/자녀없음	71.0	72.0	66.0	76.0	72.0	22.0
	편부모	6.0	5.0	8.0	4.0	6.0	8.0
	무자녀부부	14.0	14.0	14.0	13.0	13.0	32.0
	유자녀부부	9.0	9.0	12.0	7.0	9.0	38.0
수당수급	완전수당	—	61.0	61.0	61.0	61.0	—
	부분수당	—	39.0	39.0	39.0	39.0	—
AAH보충수당	MVA	—	—	자격없음	25.0	14.0	—
	CPR	—	—	자격없음	11.0	6.0	—
구직자등록		—	—	19.0	6.0	12.0	—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2) 장애인정률 80% 이상인 경우 중증에 해당함

자료: DREES, '2017년 사회기초수당조사', 2019년 발행

원자료: CNAF et MSA pour les effectifs, CNAF pour les réparations (97% des allocataires de l'AAH relèvent des CAF); INSEE, enquête Emploi 2017 pour les caractéristiques de l'ensemble de la population.

- 2017년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총 1,163,100명으로 전년도 1,090,300명에 비해 증가함
  - 남녀 성비는 각각 52.0%, 48.0%으로 비교적 비슷하나 남성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50대가 32%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50세 이상은 45%를 차지함
- 장애인정률이 50~79%인 인구보다, 80%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높음



〈표 15-5-5〉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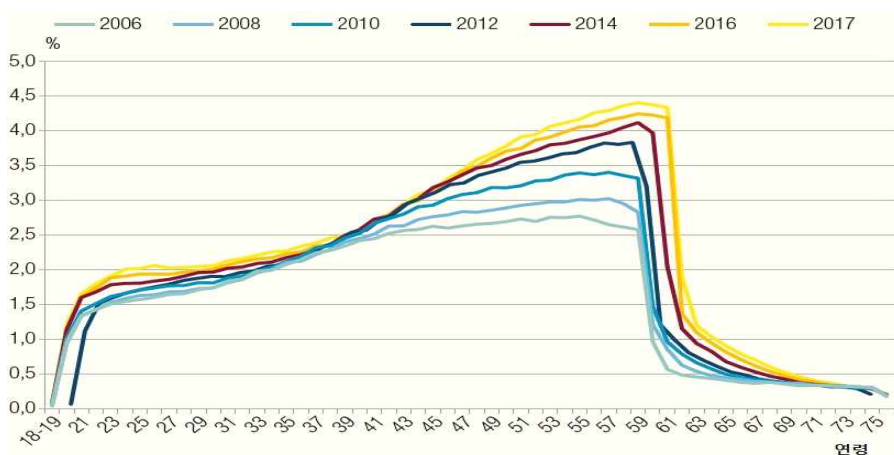
구분	2012(12월)		2013(9월)		2014(3월)		2015(9월)		2016(12월)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 자 구직자 수	고용 의무자격 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AAH 수혜자	86,634	23.0	92,898	23.0	94,526	22.0	107,602	22.0	111,321	23.0
AAH만 수혜	26,775	7.0	27,686	7.0	27,115	6.0	30,937	6.0	33,924	7.0
AAH 외 다른 보조금 동시 수혜	59,859	16.0	65,212	16.0	67,411	16.0	76,665	16.0	77,397	16.0

주: 범위: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그림 3-2-10] 연령에 따른 성인장애수당 출현율



해석: 2017년 12월 31일 기준, 60세의 경우 60세 전체 인구에서 AAH 수급자 출현율은 4.37%임.

대상: 프랑스 전체(프랑스령 영토 포함), 2017년 자료는 잠정 예상 자료임

자료: DREES, 통계연구 Études &amp; Résultats, 1087호, 2018년 10월 발행

원자료: CNAF, MSA, Insee

- 2013~2016년 사이 고용의무자격인정을 받은 인구 중 성인장애수당(AAH)을 수급하는 총 인구수는 2013년 9월 92,898명에서 2016년 111,321명으로 점차 증가함
-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고용의무자격을 받아 구직신청 중인 인구 가운데 23.0%가 성인장애수당(AAH)을 수급 중인 것으로 전년도 9월에 비해 1%p 증가함
- 23.0% 중 16.0%는 성인장애수당을 포함하여 행정적으로 장애를 두 가지 이상으로 인정 받은 경우임

## 6) 정신건강

### (1) 정신건강관련 시설

〈표 15-6-1〉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

(단위: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7
	시설 수	비율 (%)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시설 수
계	595	100	586	588	579	577	635	621	611
국립 시설	272	45.7	-	-	-	-	-	-	-
비영리 시설									
전체	165	27.7	-	-	-	-	-	-	-
국립병원과 연관된 시설	107	64.8	-	-	-	-	-	-	-
국립병원과 연관없는 시설	54	32.7	-	-	-	-	-	-	-
미확인	4	2.5	-	-	-	-	-	-	-
영리 사립 시설	158	26.6	-	-	-	-	-	-	-

주: 1) 법적으로 등록된 기관이며 정신질환 외 다른 복합적인 질환관련 시설 포함,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대상  
 2) 해당 연도 12월 기준  
 3) 2009-2012년 자료(2009년 통계자료임)부터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에 대한 총 합계를 제외한 상세한 통계 자료 나와있지 않음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2008년 정신질환돌봄-치료 지역적분포」, 2011년 발행,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년, 2019년 (2015년 미발행으로 2013년 통계자료 없음, 2018년 발행분에 2016년 시설 수 집계 정보없음)  
 원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프랑스 정신질환관련현황 보고서(RAPSY)

- 정신질환관련 지역사회 시설 수는 2008년 595개소에서 2017년 611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15-6-2〉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단위: 병상 수/일 수)

연도	2014				2015			
	구분	사립시설		합계	구분	사립시설		합계
		국립 시설	비영리	영리		국립 시설	비영리	영리
전일제 돌봄, 치료	입원치료시설 (일수)	35,132 (11,287,229)	7,024 (2,205,635)	13,056 (4,583,191)	55,212 (18,076,055)	34,776 (11,157,231)	6,944 (2,179,187)	13,138 (4,593,206)
	홈스테이 치료시설 (일수)	2,559 (659,915)	461 (45,442)	-	3,020 (705,357)	2,505 (653,161)	491 (45,004)	2,996 (698,165)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일수)	621 (161,605)	671 (176,923)	172 (61,181)	1,464 (399,709)	610 (152,364)	664 (174,304)	174 (61,576)
	거주시설 (일수)	849 (215,597)	189 (44,325)	-	1,038 (259,922)	1,192 (211,138)	205 (48,433)	-
	재가입원시설 (일수)	591 (145,040)	57 (14,588)	-	648 (159,628)	569 (143,076)	42 (11,337)	15 (1714)
	긴급시설센터 (일수)	376 (102,129)	12 (3,416)	12 (5,488)	400 (111,033)	407 (113,766)	27 (7,564)	18 (7,075)
	주간병원 (일수)	13,625 (2,534,912)	3,270 (596,339)	1,206 (354,141)	18,101 (3,485,392)	13,545 (2,514,506)	3,343 (591,403)	1,300 (413,511)
시간제 돌봄, 치료	야간병원 (일수)	849 (86,032)	225 (45,789)	137 (23,435)	1,211 (155,256)	812 (77,075)	223 (49,358)	129 (27,498)
	시간제 치료센터 (CATTP)치료 훈련시설 (일수)	275 (209,529)	15 (31,029)	1 (1,273)	291 (241,831)	230 (171,737)	40 (27,008)	1 (1,952)
	통원 치료	1,857 (8,907,483)	222 (1,104,833)	108 (6,655)	2,187 (10,018,971)	1,939 (9,127,731)	230 (1,089,100)	2 (7,655)
	정신질환 진찰치료센터 (일수)							2,171 (10,224,486)

주: 1) 소아·아동 대상 제외된 성인(만16세 이상) 일반 정신질환시설 자료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각 년도)

원자료: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2014, 2015,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 프랑스 정신질환관련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시간제 돌봄·치료시설과 통원치료센터로 나뉜다

## -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 입원치료시설: 다루기 힘든 심각한 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
- 홈스테이치료시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서 맡겨져 돌봄을 받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 다른 돌봄치료와 함께 이용 가능
-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심각한 증상으로의 입원치료 후 자치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재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치료 연장의 경우 이용
- 거주시설: 병원을 벗어난 주거돌봄치료시설. 제한된 기간 내, 계속적으로 돌봄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 사회적 재진입을 목적으로 함
- 재가입원시설(HAD): 환자의 가정과 공동거주시설도 포함. 제한된 기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재진단, 기간갱신 가능. 재가치료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들의 협력하에 방문치료가 이루어짐
- 긴급시설센터: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증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운영. 단기간 강화된 돌봄 제공

## - 시간제 돌봄·치료시설

- 주간병원: 주간 특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강화되어 복합적인 돌봄치료 제공
- 야간병원: 야간 돌봄치료.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있지만 밤과 주말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 시간제 치료센터: 주간병원 수준의 강화된 돌봄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과 자치적인 삶을 재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약화된 돌봄제공
- 치료재활시설: 사회 혹은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를 목적. 수공품, 예술품, 스포츠활동 등을 통한 작업요법 사용.

〈표 15-6-2〉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계속)

(단위: 병상 수/일 수)

연도	2016				2017			
	국립 시설	사립 시설		합계	국립 시설	사립 시설		합계
구분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입원치료시설 (일수)	34,224 (10,942,565)	6,953 (2,130,336)	13,422 (4,682,796)	54,599 (17,755,697)	33,013 (10,579,208)	6,860 (2,106,973)	13,551 (4,756,982)	53,424 (17,443,163)
홈스테이 치료시설 (일수)	2,494 (635,676)	179 (45,957)	—	2,673 (681,633)	2,421 (608,619)	183 (46,843)	—	2,604 (655,462)
사회복지 재적응치료시설 (일수)	618 (149,139)	709 (172,613)	186 (68,876)	1,513 (390,628)	569 (140,713)	677 (161,871)	249 (83,297)	1,495 (385,881)
전일제 돌봄, 치료	827 (215,576)	188 (46,788)	—	1,015 (262,364)	803 (200,069)	191 (45,834)	—	994 (246,903)
재가입원시설 (일수)	549 (143,346)	42 (11,927)	15 (5,615)	606 (160,888)	472 (125,076)	42 (11,834)	15 (5,446)	529 (142,356)
긴급시설센터 (일수)	419 (117,631)	30 (7,751)	20 (8,810)	469 (134,192)	413 (112,027)	34 (8,723)	20 (9,791)	467 (130,541)
시간제 돌봄, 치료	주간병원 (일수)	13,700 (2,475,808)	3,369 (599,820)	1,389 (462,531)	18,458 (3,539,159)	13,533 (2,390,391)	3,440 (600,519)	1,465 (504,230)
	야간병원 (일수)	845 (66,027)	242 (48,795)	150 (28,742)	1,237 (143,564)	771 (62,624)	221 (50,918)	155 (27,532)
	시간제 치료센터 (CATTP)치료훈련 시설 (일수)	215 (167,876)	13 (27,539)	1 (1,337)	229 (196,752)	192 (156,405)	14 (26,892)	206 (183,297)
통원 치료	정신질환 진찰치료센터 (일수)	2,036 (9,271,404)	243 (1,134,662)	2 (7,655)	2,281 (10,413,721)	2,443 (9,135,866)	346 (1,120,378)	— (0)
								2,789 (10,256,244)

주: 1) 소아·아동 대상 제외된 성인(만16세 이상) 일반 정신질환시설 자료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각 년도)  
 원자료: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2016, 2017.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2014년도부터 2017년 사이 전일제 입원치료 병상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시간제 입원치료 병상 수는 증가 추세에서 지난 해부터는 다시 감소함.
-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원치료 병상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치료 일수는 감소하였음.



〈표 15-6-3〉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단위: 명, %, 일 수, 횟수)

구분		2016년			2017년		
		정신질환 아동 및 청소년 (≤만16세)	정신질환 성인 (≥만16세)	총	정신질환 아동 및 청소년 (≤만16세)	정신질환 성인 (≥만16세)	총
입원 치료	환자 수(명)	43,120	376,276	417,680	44,076	379,306	421,551
	비율(%)	65.0	50.0	51.0	65.0	50.0	51.0
	입원일 수	1,741,174	22,426,083	24,167,257	1,713,889	22,252,019	23,965,908
	부분적 입원일 비율	65.0	17.0	20.0	64.0	17.0	20.0
	평균 입원 기간	40.4	59.6	57.9	38.9	58.7	56.9
통원 치료	환자 수(명)	467,519	1,597,440	2,055,739	467,871	1,632,547	2,090,366
	비율(%)	61.0	47.0	50.0	62.0	47.0	50.0
	통원치료 횟수	5,511,195	16,319,300	21,830,495	5,647,475	16,608,932	22,256,407
	정신의학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	76.0	55.0	60.0	75.0	55.0	60.0
	평균 통원치료 일 수	11.8	10.2	10.6	12.1	10.2	10.6

주: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Mayotte을 제외한 D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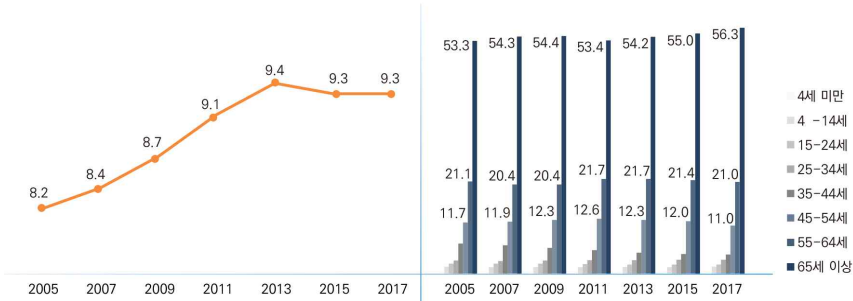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2018,2019).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원자료: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감통계(SAE) 2016, 2017.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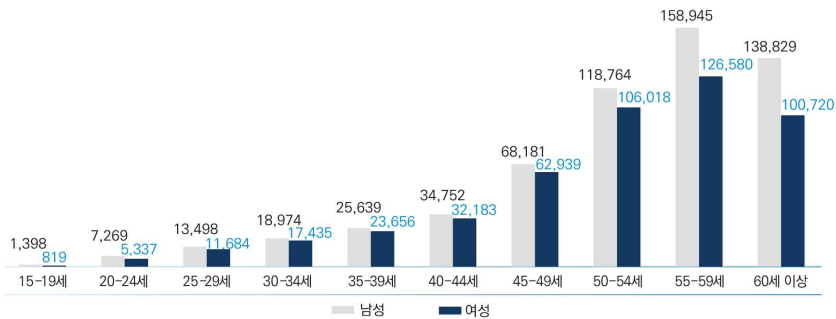
- 2016년도에 비해 2017년 입원치료 환자수와 통원치료 환자수는 모두 소폭 증가함
- 2017년 정신질환시설의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 환자 수가 높음
  - 약 2백만 명의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421,551명이 정신질환시설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음
  - 그러나 환자 수에 비하여 입원치료일수가 23,965,908일로 통원치료횟수가 22,256,407건 보다 높음(1인당 평균 입원 기간 일수가 56.9일 인데 반해, 평균 통원치료 일수는 10.6일 임)

### 3. 독일

[그림 3-3-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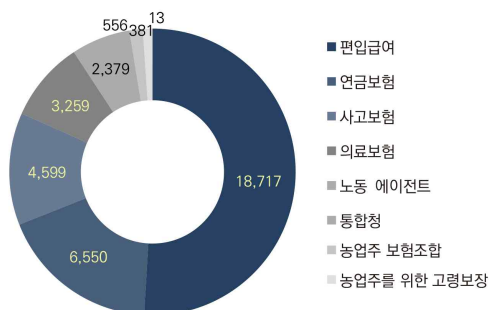
[그림 3-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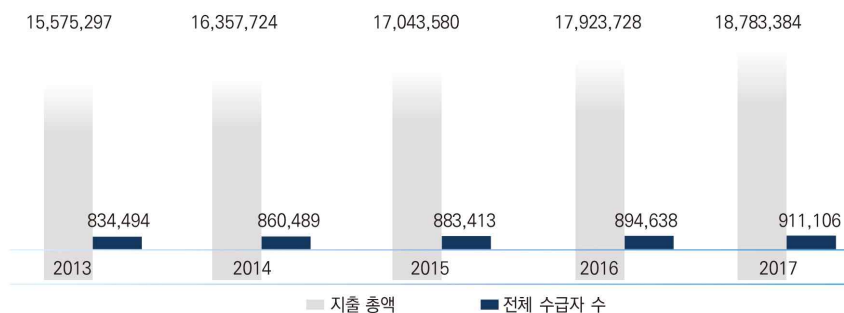
-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지난 2005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전체 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인구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약 9.4%로 독일 인구 중 약 10명당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56.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5세~64세 사이의 중증장애인이 21.0%로 나타나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 장애인 중 77.3%에 해당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2017년 총 1,073,641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생산가능연령인 20~59세의 장애인인 약 77.5%(831,875명)를 차지함
  - 연령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연령(50~59세)에서 가장 높은 47.5%(전년도에는 47.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18.4%(전년도 19.5%)와 22.3%(전년도 21.3%)를 차지함
  - 성별 고용현황으로는 남성장애인(586,263명)이 여성장애인(487,377명)보다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근로활동 비율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그러나 전년도 대비 여성장애인의 고용활동은 남성장애인의 고용활동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그림 3-3-3]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현황(2017년)



[그림 3-3-4] 중증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2017년)



–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재활급여의 총 지출은 36,508백만 유로임

- 장애인재활급여 중 사회부조 성격을 가지는 편입급여 지출이 18,717백만 유로로 총 지출액 중 거의 절반(약 5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6,364백만 유로(약 17.9%), 사고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4,599백만 유로(약 12.6%), 의료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3,295백만 유로(약 9.0%)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는 독일의 사회부조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서 총 지출금액과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 장애인구

### (1) 중증장애인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 인구(A)		82,217,837	81,802,257	80,327,746	80,767,463	82,175,700	82,521,653
중증장애인(B)		6,918,172	7,101,682	7,289,173	7,548,965	7,615,560	7,766,573
비율(B/A)		(8.4)	(8.7)	(9.1)	(9.4)	(9.3)	(9.4)
성별	남성	3,587,250 (51.9)	3,658,107 (51.5)	3,733,913 (51.2)	3,851,568 (51.0)	3,866,994 (50.8)	3 928 519 (50.6)
	여성	3,330,922 (48.1)	3,443,575 (48.5)	3,555,260 (48.8)	3,697,397 (49.0)	3,748,566 (49.2)	3 838 054 (49.4)
연령별	4세 미만	14,297 (0.2)	14,275 (0.2)	14,194 (0.2)	13,928 (0.2)	14,703 (0.2)	15,495 (0.2)
	4~14세	105,930 (1.5)	109,044 (1.5)	112,364 (1.5)	113,956 (1.5)	116,119 (1.5)	121,972 (1.6)
	15~24세	157,075 (2.3)	160,405 (2.3)	162,679 (2.2)	161,857 (2.1)	161,688 (2.1)	166,216 (2.1)
	25~34세	200,510 (2.9)	210,081 (3.0)	223,679 (3.1)	236,602 (3.1)	245,741 (3.2)	251,261 (3.2)
	35~44세	447,270 (6.5)	417,603 (5.9)	390,234 (5.4)	363,342 (4.8)	345,138 (4.5)	342,298 (4.4)
	45~54세	826,264 (11.9)	874,509 (12.3)	916,329 (12.6)	931,886 (12.3)	910,665 (12.0)	860,586 (11.0)
	55~64세	1,410,756 (20.4)	1,452,236 (20.4)	1,579,000 (21.7)	1,635,787 (21.7)	1,629,214 (21.4)	1,634,544 (21.0)
	65세 이상	3,756,070 (54.3)	3,863,529 (54.4)	3,890,694 (53.4)	4,091,607 (54.2)	4,192,292 (55.0)	4,374,201 (56.3)

주: 1) 독일전체인구 중 2011년 이전의 인구는 이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서독 1987년, 동독 1990)를 근거로 한 추정치이며, 2011년 이후에는 2011년에 실시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 독일 전체 인구수를 추정함  
 2) 중증장애인 수는 원호청(Vorsorgungsamt)에서 법적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수치를 근거로 매 2년(홀수년도)마다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자료: 연방건강보고 (<https://www.gbe-bund.de>)에서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연방통계청([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에서 '중증장애인' 통계

-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2017년에 7,766,573명으로 독일 전체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인구비율은 약 9.4%로 독일 인구 중 약 10명당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2007년 대비 약 12.2% 증가하였고 2015년과 비교하면 151,013명(약 1.9%)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증장애인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약 50.6%)이 여성(약 49.4%)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중증장애인의 남녀 성별비율을 분석한다면 남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56.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5세~64세 사이의 중증장애인이 21.0%로 나타나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 장애인 중 77.3%에 해당함
  - 이러한 결과는 의학적 발전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가 원인으로 중증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서 35~44세의 중증장애인은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연령에서의 중증장애인은 2017년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음

####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개념

- 2018년에 개정된 사회법전(제9권 제2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 침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침해가 인식과 환경으로 인한 장벽과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분명하게 6개월 이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 법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dB: Grad der Behinderung;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 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장애정도가 GdB 50 이상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음
  - 그와 함께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최소한 GdB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GdB 20이 되지 못한다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함. 그러나 GdB30~40까지의 장애인은 노동현장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법적인 권리에:해고보호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음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계		6,918,172 (100.0)	7,101,682 (100.0)	7,289,173 (100.0)	7,548,965 (100.0)	7,615,560 (100.0)	7,766,573 (100)
장애 정도 (GdB)	50	2,093,757 (30.3)	2,170,575 (30.6)	2,286,617 (31.4)	2,410,406 (31.9)	2,479,064 (32.6)	2,556,693 (32.9)
	60	1,119,760 (16.2)	1,143,002 (16.1)	1,173,261 (16.1)	1,202,750 (15.9)	1,203,371 (15.8)	1,217,048 (15.7)
	70	778,112 (11.2)	791,562 (11.1)	809,208 (11.1)	830,074 (11.0)	833,863 (10.9)	847,880 (10.9)
	80	842,713 (12.2)	861,327 (12.1)	876,456 (12.0)	904,636 (12.0)	915,363 (12.0)	935,474 (12.0)
	90	359,683 (5.2)	369,167 (5.2)	375,098 (5.1)	358,292 (4.7)	386,687 (5.1)	391,097 (5.0)
	100	1,724,417 (24.9)	1,766,049 (24.9)	1,768,533 (24.3)	1,815,807 (24.1)	1,797,212 (23.4)	1,818,381 (23.4)
장애 형태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73,831 (1.1)	68,796 (1.0)	64,332 (0.9)	62,390 (0.8)	59,625 (0.8)	55,766 (0.7)
	사지의 기능장애	953,675 (13.8)	996,689 (14.0)	976,663 (13.4)	985,086 (13.0)	959,762 (12.6)	912,339 (11.7)
	척추, 몸통의 기능 장애 및 흉부계 기형	870,049 (12.6)	885,733 (12.5)	867,029 (11.9)	906,221 (12.0)	886,920 (11.6)	852,252 (10.9)
	전맹과 시각장애	348,442 (5.0)	352,943 (5.0)	350,655 (4.8)	357,018 (4.7)	354,569 (4.7)	350,822 (4.5)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282,035 (4.1)	294,874 (4.2)	305,135 (4.2)	315,799 (4.2)	319,351 (4.2)	317,748 (4.1)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177,323 (2.6)	178,841 (2.5)	179,391 (2.5)	180,697 (2.4)	179,436 (2.4)	178,313 (2.3)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1,748,483 (25.3)	1,744,865 (24.6)	1,806,355 (24.8)	1,870,556 (24.8)	1,899,752 (24.9)	1,935,064 (24.9)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305,481 (18.9)	1,357,633 (19.1)	1,459,841 (20.0)	1,539,007 (20.4)	1,598,275 (21.0)	1,661,143 (21.4)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158,853 (16.8)	1,221,308 (17.2)	1,279,772 (17.6)	1,332,191 (17.6)	1,357,870 (17.8)	1,503,126 (19.4)

자료: 연방건강보고 (<https://www.gbe-bund.de/>)에서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현황은 장애정도가 GdB50인 중증장애인이 약 3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GdB 100이 약 23.4%(약 181만 명)를 차지하고 있어 두 그룹이 전체 장애인의 약 50% 이상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지만 장애정도 GdB50의 중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GdB60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장애형태별 현황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를 제외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약 61%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음
  - 신체장애는 세부적으로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24.9%)', '사지의 기능장애(11.7%)', '척추, 몸통 장애(10.9%)'를 포함하고 있음
  - 신체장애 다음으로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21.4%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와 신체장애 중 '내부 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및 장애유형

- 한 개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2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증가함
  - 장애정도가 GdB 500 이상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정도가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함
  - 독일의 장애형태는 크게 9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55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짐
  - 장애형태의 9가지 범주는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사지의 기능장애, 척추, 몸통의 기능 장애 및 흉부계 기형, 전맹과 시각장애,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기타 유방장애,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하반신마비, 뇌병변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가 속함
- 독일의 장애형태 구분은 원인적 질병(예: 다중경화증)진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능제한(기능변화)을 토대로 이루어짐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 (2017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정도(GdB)					
		50	60	70	80	90	100
계	7,766,573 (100)	2,556,693 (32.9)	1,217,048 (15.7)	847, 880 (10.9)	935,474 (12.0)	391,097 (5.0)	1,818,381 (23.4)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55,766 (0.7)	10,530 (18.9)	6,280 (11.3)	8,006 (14.4)	8,550 (15.30)	5,150 (9.2)	17,250 (30.9)
사지의 기능장애	912,339 (11.7)	180,104 (35.1)	181,409 (19.9)	124,849 (13.7)	102,628 (11.2)	50,897 (5.6)	132,134 (14.5)
척추, 몸통의 기능 장애 및 흉부계 기형	852,252 (10.9)	200,940 (45.8)	166,925 (19.6)	102,266 (12.0)	73,582 (8.6)	35,168 (4.1)	84,051 (9.9)
전맹과 시각장애	350,822 (4.5)	27,521 (15.1)	30,202 (8.6)	30,235 (8.6)	29,652 (8.5)	24,392 (7.0)	183,473 (52.3)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317,748 (4.1)	41,035 (26.9)	49,664 (15.6)	44,252 (13.9)	40,831 (12.9)	20,598 (6.5)	76,853 (24.2)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178,313 (2.3)	35,312 (40.4)	38,870 (21.8)	15,554 (8.7)	21,450 (12.0)	6,466 (3.6)	23,998 (13.5)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1,935,064 (24.9)	350,525 (32.1)	312,543 (16.2)	196,677 (10.2)	263,899 (13.6)	100,128 (5.2)	440,165 (22.7)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661,143 (21.4)	73,677 (30.2)	206,801 (12.4)	167,139 (10.1)	215,248 (13.0)	74,435 (4.5)	496,189 (29.9)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503,126 (19.4)	108,268 (33.4)	224,354 (14.9)	158,902 (10.6)	179,634 (12.0)	73,863 (4.9)	364,268 (24.2)

주: 1)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통계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각각의 비율은 전체 중증장애인 수를 모수로 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7), “중증장애인통계”, 연방건강보고(<https://www.gbe-bund.de/>)

-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 현황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를 제외한다면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장애’와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유형은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전 중증장애인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GdB50~90 사이에는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최중증에 해당하는 GdB100에서는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최중증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GdB 50에서는 ‘척추, 몸통의 기능장애 및 흉부계 기형’ 형태가 전체 중증장애인 중 평균 비율(10.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GdB 80~100 사이에서는 평균비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맹과 시각장애’ 형태의 경우 GdB 50~90에서는 다른 장애형태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GdB 100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맹과 시각장애’인이 최중증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계	6,918,172 (100.0)	7,101,682 (100.0)	7,289,173 (100.0)	7,548,965 (100.0)	7,615,560 (100.0)	7,766,573 (100)
선천적 장애	306,641 (4.4)	302,433 (4.3)	301,368 (4.1)	298,308 (4.0)	290,248 (3.8)	258,517 (3.3)
산업재해	74,965 (1.1)	71,881 (1.0)	69,069 (0.9)	67,190 (0.9)	63,585 (0.8)	57,994 (0.7)
교통사고	40,873 (0.6)	39,939 (0.6)	38,925 (0.5)	38,172 (0.5)	36,594 (0.5)	30,818 (0.4)
가정 내 사고	8,007 (0.1)	7,623 (0.1)	7,332 (0.1)	7,205 (0.1)	6,870 (0.1)	6,051 (0.1)
그 외의 사고	27,626 (0.4)	27,139 (0.4)	25,175 (0.3)	24,731 (0.3)	23,688 (0.3)	20,942 (0.3)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	76,989 (1.1)	60,067 (0.8)	46,357 (0.6)	34,171 (0.5)	24,425 (0.3)	17,106 (0.2)
일반적 질병	5,696,509 (82.3)	5,830,578 (82.1)	6,079,359 (83.4)	6,416,813 (85.0)	6,583,463 (86.4)	6,855,042 (88.3)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	686,562 (9.9)	762,022 (10.7)	721,588 (9.9)	662,375 (8.8)	586,687 (7.7)	520,103 (6.7)

자료: 연방통계청(2019), “중증장애인통계”

- 2017년도 중증장애인의 장애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병(예, 척추질환으로 인한 기능제한, 만성질환, 암 등을 통한 내장기관장애)이 중증장애의 가장 큰 원인(약 88%)으로 드러남
  - 이것은 장애원인 중 ‘선천적 장애(3.3%)’와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6.7%)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90%)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중증장애의 두 번째 큰 원인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6.7%) 및 선천적 장애(약 3.8%)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두 명중 한 명씩 선천적 원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병을 통한 장애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교량화에 기인한 다양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는 반면 예방과 안전조치로 인하여 장애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2) 교육

### (1) 특수교육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단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5/16	2017/18
장애 학생 비율	계	6.4	6.4	6.6	6.8	7.1	7.2
	특수학교 재학비율	4.9	4.8	4.8	4.7	4.4	4.2
	일반학교 재학비율	1.4	1.6	1.9	2.1	2.7	3.0
통합교육비율		22.3	25.0	28.2	31.4	37.7	41.7

- 주: 1) 독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전통적으로 특수학교(Sonderschule), '장애인학교(Schulen für Behinderte)'라는 불리었으나 그 명칭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현재 '촉진학교(Förderschule)' 또는 '특수교육적 촉진학교(Schule mit sonderpädagogischem Förderschwerpunkt)'로 명칭이 변하고 있음
- 2) 특수교육적 지원은 장애등록여부와 학습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을 현재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이나 학생으로 부르는 경향이 나타남
- 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은 전체 장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 자료: 1) 독일에서의 통합-정보와 요소(2018)  
2)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7/2018)

- 일반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비율은 7.2%로 2009/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0.9% 증가하였고 2015/16년 대비 0.1%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장애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에 있어서 2010년/11년도의 22.3%에서 2017/18년도에는 41.7%로 약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통합교육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09/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일반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비율은 20010/11년 대비 214% 증가하여 통합교육이 일반 교육 시스템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6-2-2〉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수치

(단위: 명, %)

년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특수교육적 지원 총 수치		학교별			
			특수학교		일반학교(통합교육)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11/12	494,744	100.0	355,139	75.0	139,605	25.0
2012/13	500,544	100.0	355,139	71.8	138,061	28.2
2013/14	508,386	100.0	334,994	68.6	173,392	31.4
2015/16	517,384	100.0	322,518	62.3	194,866	37.7
2017/18	544,630	100.0	317,480	57.5	227,150	42.5

주: 1) 독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전통적으로 특수학교(Sonderschule)', '장애인학교(Schulen für Behinderte)'라는 불리었으나 그 명칭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현재 '촉진학교(Förderschule)' 또는 '특수교육적 촉진학교(Schule mit sonderpädagogischem Förderschwerpunkt)'로 명칭이 변하고 있음

2) 특수교육적 지원은 장애등록여부와 학습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을 현재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이나 학생으로 부르는 경향이 나타남

3) 독일의 학기제는 가을학기(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가 신학기로 시작하여 다음해 여름학기까지 두 학기로 구성됨

4)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의 총 수치 비율, 특수학교 비율, 일반학교(통합교육)의 비율은 전체 비장애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5) 모든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은 전체 장애학생 대비 통합교육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세밀한 분석(독일통계청)

2)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07년부터 2016년)

3)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7/2018)

- 2017/18년에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수는 2011/2012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44,63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5/16년 대비 27,246명(5.2%)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특수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는 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2011년 이후로 계속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일반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보다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50%에서 15.0%) 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교육을 받으며 2015/16년 대비 3명에서 1명이 증가한 수치임
- 또한 2011년 이후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통합교육 경향을 알 수 있음

〈표 16-2-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2015/2016 대비 2017/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5/16년			2017/2018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전체 수	517,384			544,630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학습	104,742	85,634	190,376	86,200	88,955	175,155
시각	4,604	3,400	8,004	4,615	4,394	9,009
청각	10,528	8,632	19,160	10,615	9,741	20,356
언어	30,560	25,538	56,098	28,843	25,344	54,187
신체 및 운동발달	24,181	12,497	36,678	23,808	12,708	36,516
지적 발달	75,297	9,065	84,362	79,373	11,153	90,526
정서 및 사회적 발달	38,006	47,638	85,644	39,883	47,841	87,724
복합적 지원	2,502	509	3,011	3,246	1,494	4,740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11,902	—	11,902	19,755	0	19,755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10,455	964	11,419	10,917	419	11,336
복합적 지원(분류 어려움)	9,741	989	10,730	10,225	1,241	11,466
합계	322,518	194,866	517,384	317,480	203,290	544,630

주: 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추진)을 의미함  
 2)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과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추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되기도 함  
 3)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은 2012년 이후로 집계가 이루어진 영역임  
 4)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분류 어려움'은 2013/2014에는 복합적 지원에 포함되어 산정되었지만 2015/2016년에는 별도로 분리되어 산정됨  
 자료: 1)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 통계청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07년부터 2016년)  
 2)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 통계청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7/2018)

-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은 학생의 수는 2017/18년에 총 544,630명으로 2015/16년에 비하여 27,246명의 학생이 증가함
  - 2017/18년의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학습영역이 32.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추론 가능함
  - 다음으로 '지적 발달'과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이 각각 16.6%와 16.1%로 지원영역의 상위에 위치함
  -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더욱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통합 교육 경향을 추론 할 수 있음
  - '학습' 영역과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에서는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장애와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음
  -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영역은 다른 지원 영역과는 다르게 모두 특수학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18년의 특수교육적 지원영역을 2015/16년과 비교해 본다면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영역(7,853명),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2,080명) 및 '지적발달' 영역(6,164명)이 다른 영역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반면에 2015/16년 대비 2017/18년에서 '학습' 영역(15,221명)과 '언어' 영역(1,911명)이 대폭 감소한 결과를 보임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2/13	2013/14	2015/2016	2017/2018
학교 수	3,191	3,117	2,986	2,865
소계	36,079	35,086	33,871	33,305
학급 수				
학습영역 학급 수	11,989	11,075	10,100	8,270
기타 영역 학급 수	24,090	24,011	23,771	24,029
학급당 학생 수	9.5	9.5	9.5	9.5
교사 수	63,814	62,752	61,111	60,501
교사 당 학생 수	5.4	5.3	5.4	5.2

주: 학습영역의 학생 수와 기타영역의 학생 수 통계에 있어서 튀링겐 중(Thüringen)의 경우 지원영역을 나누지 않고 통계를 내기에 그 수치는 제외함  
 자료: 1)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MK)의 통계적 출판-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2017/2018)

2) 연방통계청, "학교"

- 2017/18년 특수학교 현황 통계로 2,865개(2015/2016년 2,986개) 학교, 33,305개(2015/2016년 33,871개) 학급, 60,501명 (2015/2016년 61,111명)의 교사가 있음
- 특수학교 수는 2012/13년 3,191 개소 대비 2017/18년에는 326개소 감소한 2,865개소로 나타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 체계에서 통합교육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학급 수 또한 2015/16년도(61,111 학급)에 비하여 2017/18년에 566여개가 줄어들었으며 2012/13년도(36,079 학급) 대비 2,774 여개가 감소함
- 학급 수의 감소 경향에는 특히 학습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2/13년도에 비하여 2017/18년도는 약 3,719 학급이 감소하여 학습영역에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특수학교의 교사 수 또한 특수학급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16년 대비 610명이 감소함
- 학급당 학생 수와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2/13년 이후로 거의 변동 없거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각각 9.5명, 5.2명으로 나타남

### 3) 고용

#### (1)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률 - 연도별

(단위: 개,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용 현황	의무고용 사업장	145,708	149,810	152,538	156,306	160,220
	전체 근로자	21,439,149	21,756,517	26,338,012	26,808,329	27,457,750
	(법적)의무고용인원	1,034,840	1,049,550	1,071,737	1,089,978	1,115,615
	(실제)의무고용인원	995,717	1,016,065	1,042,889	1,057,978	1,078,433
고용률	전체 고용률	4.6	4.7	4.7	4.7	4.6
	민간부문 고용률	4.1	4.1	4.1	4.1	4.1
	공공부문 고용률	6.6	6.6	6.6	6.6	6.5

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내용 중 '(실제)의무고용인원'은 장애인정도(GdB) 30-100 사이의 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통합청연례보고(2017), 연방건강보고

- 독일의 연평균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0%(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 방자치단체는 6.0%)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와 법정의무고용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2,699명(2015/16년에는 20,455명 증가)이 증가하였지만 중증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법적 의무고용률인 5.0%에 약간 못 미치는 4.6%로 나타나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0.1% 감소하였음
- 부문별로 본다면, 2017년의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4.1%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중 장장애인 고용률이 6.5%로 나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016년 대비 0.1% 감소한 결과를 보여 전체 중증장애인 고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독일의 고용의무제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하면 연평균 매달 20인 이상 규모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사업주는 최소한 근로자 일자의 의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4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은 민간부문과 같이 근로자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0%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음
- 의무고용 예외규정으로서 소규모의 기업, 20-40인 사이의 규모를 가진 고용주는 1인의 중증장애인을, 40-60인 사이 규모의 고용주는 2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함

#### ※※ 더블카운트 제도, 트리플카운트 제도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 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2017년 평균)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전체	1,073,641	586,263	487,377
연령별	15세 미만	*	*
	15-19세	2,217	819
	20-24세	12,606	5,337
	25-29세	25,182	11,684
	30-34세	36,409	17,435
	35-39세	49,296	23,656
	40-44세	66,935	32,183
	45-49세	131,120	62,939
	50-54세	224,781	106,018
	55-59세	285,525	126,580
	60세 이상	239,549	100,720
고용 대상	분류 제외	*	*
	직업훈련생	7,548	*
	중증장애인	882,454	402,345
	동등그룹	182,033	81,876
	기타그룹	1,607	*
산업 부문	분류제외	-	-
	제조업	264,000	-
	공공업무	215,000	-
	상업 수선 및 자동차 수리	87,000	-
	건강 및 보건	76,000	-
	돌봄 및 사회	73,000	-
	운수 및 유통업	63,000	-
	전문적인 기업 업무	58,000	-
	은행, 회계 및 보험	38,000	-
	기타 산업근무(시간제 포함)	40,000	-
	교육 및 교습업	37,000	-
	광산, 에너지, 수도	27,000	-
	기타	27,000	-
	정보 및 통신	24,000	-
	건축업	20,000	-
	시간아르바이트	12,000	-
	요식 및 숙박업	11,000	-
	농업 및 임업	2,000	-

주: 1) 근로자 현황과 업종별 현황 통계는 사회법전 제80조 제2항의 '고지절차'에 의한 연방노동에이전트의 통계로 20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으로 2017년 평균 수치임

2)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1 또는 2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익명으로 표기됨

3) 고용대상 중 '동등그룹'이란 GDB 30-40의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공학 기기 신청'과 '해고보호 조치'와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짐

4) 산업 부문에 따른 중증장애인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평균화된 수치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5) 제조업은 원재료와 중간상품을 가공하여 최종상품을 생산해 내는 분야로 원자재, 투자재 생산, 소비재 생산 기업, 그리고 식량 및 기호품 생산 기업이 여기에 포함됨

6) 공공업무는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가 포함됨

7) 기타 산업근무(시간제 포함)는 대여업, 노동중개업, 여행업, 보안업, 건물관리 및 정원 또는 조정관리업 등이 포함됨

자료: 통합청. 통합청연례보고 2018/2019, 연방노동에이전트(2019),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2017년 총 1,073,641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생산가능연령인 20~59세의 장애인이 약 77.5%(831,875명)를 차지함
- 연령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연령(50~59세)에서 가장 높은 47.5%(전년도에는 47.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18.4%(전년도 19.5%)와 22.3%(전년도 21.3%)를 차지함
- 이것은 청·중년층(20~39세)보다는 장년층(40~59세)에서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근로 활동하는 비율이 2016년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증장애인이 고령화 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고령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고용현황으로는 남성장애인(586,263명)이 여성장애인(487,377명)보다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근로활동 비율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그러나 전년도 대비 여성장애인의 고용활동은 남성장애인의 고용활동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고용대상별로는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GdB50~100)이 82.2%(전년도에는 약 8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적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경증장애인(GdB 30~40)이 약 17.0%(182,033명)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의 장애인 고용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부문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본다면 제조업, 공공업무, 상업, 수선 및 자동차 수리, 건강 및 보건 업무 순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과 공공업무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이 전체의 44.7%인 약 471,000명(전년도 469,000명, 46%)로 장애인이 근로활동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것은 독일 민간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발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공공업무에서의 많은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은 공공부문에서의 높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7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의무고용 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제 고용률	
		고용주	전체 근로자	(법적)의무 고용인원	(실제)의무 고용인원	미고용		
2017년	전체	164,631	28,195,647	1,146,111	1,101,131	285,754	4.6	
	민간부문	152,396	22,140,360	885,309	761,922	267,480	4.1	
	소계	12,235	6,055,287	260,802	339,209	18,274	6.5	
	공공 부문	연방 최고기관	33	131,892	5,954	9,465	*	7.9
		연방기관 *	21	164,085	9,197	15,475	*	10.1
		주(지방) 최고기관	185	1,882,129	83,707	99,723	5,706	6.0
		기타 공공기관	11,912	3,718,084	153,253	200,601	12,494	6.4
		기타 공공기관 *	84	159,097	8,690	13,946	51	9.6
2016년 대비 2017년 비교	전체	4,411(2.8)	737,899(2.7)	30,494(2.7)	22,699(2.1)	11,287(4.1)	-	
	민간 부문	4,451(3.0)	648,110(3.0)	25,716(3.0)	18,375(2.5)	10,185(4.0)	-	
	소계	-40(-0.3)	89,789(1.5)	4,778(1.9)	4,324(1.3)	1,102(6.4)	-	
	공공 부문	연방 최고기관	1(3.1)	2,801(2.2)	-5(-0.1)	356(3.9)	*	-
		연방기관 *	-6(-22.2)	-1,081(-0.7)	-62(-0.7)	9(0.1)	*	-
		주(지방) 최고기관	6(3.4)	110,442(6.2)	5,214(6.6)	6,640(7.1)	-141(-2.4)	-
		기타 공공기관	-25(-0.2)	-22,896(-0.6)	-312(-0.2)	-2,916(-1.4)	1,275(11.4)	-
		기타 공공기관 *	-16(-16.0)	522(0.3)	-57(-0.6)	235(1.7)	-6(-10.5)	-

주: 1)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항목들은 중증장애인(GdB 50~100)뿐 아니라 고용현장에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GdB 30~40 사이의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2) 연방최고기관이란 연방대통령기관, 독일연방의회기관(하원에 해당)과 독일연방참의원(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 해당)기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상급법원, 연방계관소(연방검찰청 포함), 연방철도공사를 의미함(사회법전 제9권 제71조)  
 3) 주 최고기관은 주의회기관, 회계감사기관, 주 법원, 복합적 주민행정기관 등을 의미함(사회법전 제9권 제71조)  
 4) '표시가 있는 연방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사회법전 제 9권 제15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기관, 공공재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방기관 및 주정부기관 중 1999년에 이미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를 달성한 기관으로 계속 6.0%를 유지하는 기관을 의미함  
 5) 2016년 대비 2017년 비교 내용은 2016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 유형별 인원수 차이와 증감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2019),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 2017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는 1,101,131명으로 독일 전체근로자(28,195,647명)중 법정 의무고용률인 5.0%(1,146,111명)보다 285,754명이 부족한 4.6%에 그치고 있음
- 민간부문의 경우 법정의무고용 인원보다 약 123,387명이 부족한 약 76만 명(4.1%)을 고용한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 78,407명을 초과하여 약 33만 명(6.5%)이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비 2017년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약 3.0%(25,716명 이상)가 증가하였으며 전년과 다르게 공공부문(1.3%)보다 민간부문에서 2016년 대비 더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2.5%)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전년도와는 다른 결과로 민간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수가 감소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도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7년의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방최고기관의 경우 의무고용기관의 수가 증가하여 실제 의무고용인원의 수도 3.9% 증가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연방최고기관을 제외한 연방기관의 수가 -22.2%의 감소율을 보여 그에 따라서 법정의무고용인원도 -0.7 감소하였지만 실제 의무고용인원의 수는 전년도 대비 0.1%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연방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은 모든 공공부문에서 2000년 이후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5%를 넘어 6%~9%대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방최고기관과 연방기관의 경우 각각 7.9%와 10.1%의 고용률을 보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3-4〉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2017년)

(단위: 명)

구분	조정금 납부 고용주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한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조정금 납부의무 없는 고용주	조정금1	조정금2	조정금3
민간부문	152,396	111,429	40,967	57,612	61,708	17,725	15,351
소계	12,235	10,984	1,251	7,560	3,470	753	452
공공 부문	연방 최고기관	33	26	7	*	*	*
	연방기관*	21	21	—	*	—	—
	주(지방) 최고기관	185	180	5	150	32	*
	기타 공공기관	11,912	10,683	1,229	7,314	3,407	449
	기타 공공기관*	84	74	10	56	22	6
전체	164,631	122,413	42,218	65,172	65,178	18,478	15,803

주: 1)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1 또는 2의 수치와 정보를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익명으로 표기됨  
2)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의 조정금 금액은 실제 조정금 납부 액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2019),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 독일에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고용주 수는 전체 164,631명(전년도 160,220명)으로, 그 중 중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약 74.4%(122,413명)이며,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는 25.6%에 해당함. 이러한 수치는 201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 조정금 납부현황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의 고용주의 약 39.6%(65,172명)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약 60.4%는 (실제)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납부하고 있음
  - 조정금 1은 실제고용률이 3~5%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125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39.6%(65,178명)에 해당함
  - 조정금 2는 실제고용률이 2~3%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220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11.2%(18,478명)에 해당함
  - 조정금 3은 실제고용률이 2%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320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9.6%(15,803명)에 해당함

#### ※※ 조정금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부담금」을 의미하며, 조정금의 액수는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산정됨. 20인 미만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됨
- 조정금은 1, 2, 3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부담기초액」을 의미함
  - 조정금 1: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3~5% 이하의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 만큼 한 명당 125유로(약 16만원)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을 위한 부담완화기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연평균 40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가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못하거나 연평균 60인보다 적은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1명보다 적은 의무고용을 하고 있다면 각각 125유로와 220유로를 납부해야 함. 그 외 연평균 40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1명 이상만 고용했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음. 또한 연평균 60인보다 적은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2명 이하의 1명을 의무고용하고 있다면 125유로를 납부해야 하지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음
  - 조정금 2: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2~3%의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 만큼 한 명당 220유로(약 25만원)를 납부해야 함. 또한 연평균 40~60인 사이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함
  - 조정금 3: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2% 미만의 중증장애인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320유로(약 36만원)를 납부해야 함
- 2016년부터는 각 조정금이 약 8.7%~10.3% 증가하여 조정금 1은 125유로(약 16만원), 조정금 2는 220유로(약 28만원), 조정금 3은 320유로(약 41만원)로 인상됨



### (3) 고용 관련 지출

(표 16-3-5) 연방 통합청(Integrationsamt) 지출 현황(2016/2017년)

(단위: 백만 유로, 건, 수)

구분		2016년		2017년	
		지출금액	건수/대상자	지출금액	건수/대상자
총합계		529.31	—	555.88	—
전체		198.38	57,772	197.94	57,066
고용주에 대한 급여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18.85	2,057	14.34	2,038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26.99	9,507	26.33	9,381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151.65	45,879	156.53	45,328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0.67	329	0.66	319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0.21	—	0.99	—
통합사업제 지원		82.50	12,000	92.34	12,965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44.11	—	52.17	—
전체		51.25	10,141	52.99	10,043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급여	공학적 근로지원	5.42	1,956	5.46	1,973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5.19	917	5.05	884
	경제적 자립 지원	1.20	131	1.35	136
	장애에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0.46	162	0.45	121
	직업적 지식 및 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병인참여 지원	3.99	1,813	4.40	1,806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2.55	1,020	2.44	1,043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30.95	3,673	32.51	3,680
지원고용		1.48	469	1.34	400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 급여		79.73	—	85.29	60,100
제도적 지원(기관 지원)		47.59	406	45.92	393
정보제공과 (직업)교육		6.17	—	6.83	—
기타 급여		2.55	—	2.51	—
모델계획 및 연구		16.86	—	1.50	—
포괄적 개인예산		0.18	—	0.37	—

- 주: 1)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은 사회법전 제9권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임
- 2) 연방통합청의 주된 기능은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연방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 3) 연방통합청의 지출항목 중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 4) 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 5) 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 등)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6) '통합프로젝트'는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함
- 7) 제도적 지원(기관지원)은 장애인작업장, 기술시설작업장 등 장애인고용기관의 지원을 의미함
- 자료: 1) 연방노동에이전트(2016), 독일의 노동시장-중증장애인의 노동 상황  
2) 통합청, 통합청연례보고 2016/2017

- 연방통합청의 2017년 총 지출은 약 558백만 유로로 2016년도에 비해 약 5.1%가 증가함
  - 이러한 수치는 2015년 대비 2016년 지출 약 1.7% 증가율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연방통합청의 지출과 대상인원 모두 증가하여 장애인고용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중 '고용주에 대한 급여'가 전년도(2016년)와 비슷하게 가장 큰 부분(약 3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15년 대비 1천만 유로가 증가한 '통합사업체' 지원비용(약 16%)과 '고용주 및 중증장애인의 통합전문가 및 상담전문가들의 운영비용'(약 1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7년의 연방통합청의 지출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기타급여' 항목의 지출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대신 '고용주 및 중증장애인의 통합전문가 및 상담전문가들의 운영비용'과 '통합사업체' 지원 비용 및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비용이 다른 항목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일반고용시장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통합사업체 지원' 비용의 증가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통합사업체가 독일 고용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포괄적 개인예산' 항목이 재작년부터 추가되어 2017년에도 증가하고 있어 독일의 개인예산제가 고용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어 장애 노동자의 상황에 맞게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게 지원함
- 고용주에 대한 급여와 관련해서는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지출(197백만 유로, 45,328건)이 가장 많은 비중(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약 79%)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조성을 위한 지출(26백만유로, 9,381건)이 두 번째 순으로 나옴
  - 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동기를 부여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상황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비장애인근로자와 같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서 연방통합청의 전체 지출 중 약 9.5%로 전년도 대비 약 0.2% 감소한 수치를 보임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중 '근로보조인 지원'(32백만 유로, 3,680건)이 약 61%(전년도 60% 대비 1%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학적 지원'(약 5백만 유로)약 10.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출이 전체 통합청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감소한 반면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6년 대비 2017년의 통합청의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들은 증가한 반면에 '제도적 지원(기관지원)'은 1백만 유로가 감소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 2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장애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고용 대신에 일반고용으로 편입되고 있는 경향으로 해석 가능함



#### (4)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표 16-3-6〉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율
2012년	2,896,985	176,040	6.1
2013년	2,950,250	178,631	6.1
2014년	2,898,388	181,110	6.2
2015년	2,794,664	179,809	6.4
2016년	2,690,975	170,508	6.3
2017년	2,532,837	162,373	6.4

주: 전체 실업자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매년 합계를 낸 평균화된 수치를 의미함  
 자료: 연방 통합사무소 및 중앙 부조사무소 연합계(BIH) 연례보고서 2016/2017

〈표 16-3-7〉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17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전년도 대비 중증장애인 실업 증감비율
전체	2,532,837(100)	162,373(100)	-8,135(-4.8)
성별	남성	1,398,108(55.2)	-4,810(-4.7)
	여성	1,134,724(44.8)	-3,325(-4.9)
연령	25세 미만	230,694(9.1)	-213(-3.9)
	25-54세	1,772,979(70.0)	-5,928(-6.3)
	55세 이상	529,002(20.9)	-1,994(-2.8)
국적	독일	1,870,996(73.9)	-7,945(-5.3)
	외국인	655,249(25.9)	-199(-1.0)

주: 전체 실업률과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연평균을 의미함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2018),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 2017년에 162,373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등록하여 독일 전체실업자 중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수치(170,508명)와 비교한다면 8,135명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 중 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결과를 보임
  - 2012년 이후 분석해 보면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독일 전체 실업자 중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음
- 2017년의 중증장애인의 실업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남성의 실업률(59.9%)이 비장애인 남성의 실업률(55.2%)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25-54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에서의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42.1%로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 실업률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2007년까지 지속되었던 노령인구를 위한 특별조항(사회법전 제3권 제 428조에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은 노령층은 조기퇴직 조건으로 인정하여 연금과 같은 급여를 쉽게 신청하고 이들은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의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의 실업상황을 2016년 대비 비교한다면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4.8% 감소하고 있으며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 있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알 수 있음

〈표 16-3-8〉 중증장애인 실업 지속기간(2017년 평균)

(단위: %)

연령	구분 \ 기간	3개월 이하	3개월~1년 이하	1년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22.0	34.0	44.0
	비장애인	31.0	34.0	35.0
15세~24세	중증장애인	39.0	43.0	18.0
	비장애인	53.0	38.0	10.0
25세~55세	중증장애인	23.0	33.0	44.0
	비장애인	30.0	35.0	35.0
55세 이상	중증장애인	19.0	34.0	47.0
	비장애인	21.0	31.0	48.0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2017), 독일의 노동시장-중증장애인의 노동 상황

- 2017년 중증장애인의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실업 중증장애인의 약 44%(전년도 46.0%)가 1년 이상의 실업상태를 경험하였으며 다음으로 약 34%(전년도 33.0%)의 실업 중증장애인이 3~12개월, 22%(전년도 21.0%)는 3개월 이내의 실업기간을 보임
- 비장애인의 실업기간 또한 1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35.0%, 전년도 37.0%)을 보이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1년 이상의 실업기간 비율(44.0%)에 비해 적은 수치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이 실업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오랜 실업기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실업기간을 보다면 중증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업기간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0%(전년도 48.0%)가 1년 이상의 실업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남
- 다만 15~24세의 연령대에서는 비장애인의 실업기간은 3개월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53.0%)을 보인 반면에 중증장애인의 실업기간은 3개월~1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43.0%, 전년도 44.0%)을 차지하고 있어,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이 비장애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15~24세의 청년기의 중증장애인은 직업훈련생 및 근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다른 연령대보다 노동시장에의 재편입이 보다 용이하지만 실업을 경험하면 노동시장으로의 재편입이 힘들다는 점과, 둘째, 고령장애인의 경우 실업 후 다시 노동현장에 편입되는 것이 고령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환경을 보여줌



## 4) 재정

## (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표 16-4-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2017년)

(단위: 백만 유로, %)

담당기관에 따른 급여항목	2016	2017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b>의료보험</b>	3,192	3,259	3.2
시설관련 재활 전체	1818	1,852	1.9
시설 재활 전체	406	418	2.9
부모를 위한 재활	13	12	-11.5
외래 재활 전체	128	131	2.3
재활을 위한 사고보험 부담금	60	65	8.9
재활스포츠/기능훈련	251	274	9.1
기타 보충급여	112	117	3.7
사회소아과 병원 급여	234	242	3.2
(근로)부담능력시험 및 노동치료	0.7	0.55	-22.2
조기치료실에서의 급여	126	135	7.9
재활 보충급여	16	34	120.4
개인예산제	27	14.05	-47.1
<b>연금보험</b>	6,364	6,550	2.9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	4,151	4,271	2.9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LTA)	1,331	1,339	0.6
§ 31 SGB VI에 따른 기타 급여	515	548	6.5
사회보험 부담금	367	392	6.9
개인예산제	0.6	0.24	-57.0
<b>농업주를 위한 고용보장</b>	13	13.2	3.9
<b>사고보험</b>	4,464	4,599	3.0
외래치료 및 의치	1,533	1,559	1.7
병원 치료 및 가정 환자돌봄	1,149	1,193	3.8
부상지원금과 특히 지원	712	737	3.5
기타 치료비용	885	928	4.9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LTA)	185	182	-1.8
<b>농업주 보험조합</b>	367	381	3.9
개인예산제	1.7	1.78	3.9
<b>노동 에이전트</b>	2,349	2,379	2.1
LTA의 의무급여	2,225	2,273	2.1
LTA의 심사급여	112	112	0.4
개인예산제	12	12.48	2.5
<b>통합청</b>	529	556	5.0
노동생활의 수반지원	412	429	4.1
노동시장프로그램	44	52	18.3
기타급여:	73	75	2.4
개인예산제	0.2	0.37	105.6
<b>편입급여</b>	17,924	18,717	4.4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	37	36	-3.8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28	35	27.4
공인 장애인직업장(WfbM) 급여	4,581	4,830	5.4
참여를 위한 기타 급여:	13,278	13,816	4.1
SGB IX § 55에 따른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11,335	11,788	4.0
SGB XII § 54dp 따른 편입급여의 추가 급여	1,440	1,568	8.9
편입급여의 기타 급여	503	526	4.5
<b>지출 전체</b>	35,201	36,508	3.7

주: '근로(부담)능력 시험 및 노동치료'는 의료적 치료 후 직업활동으로 재편입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점진적인 의학적 조치로서 예를 들면 의사의 감독하에 최소한의 노동시간으로부터 근로부담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지원임

(출처: [https://www.bgw-online.de/DE/Leistungen-Beitrag/Rehabilitation/Zurueck-ins-Berufsleben/Belastungserprobung/Belastungserprobung\\_node.html](https://www.bgw-online.de/DE/Leistungen-Beitrag/Rehabilitation/Zurueck-ins-Berufsleben/Belastungserprobung/Belastungserprobung_node.html))

자료: 재활정보 2018/1 재활을 위한 연방노동공동체

- 장애인 재활급여의 총 지출은 36,508백만 유로로 이는 2016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장애인재활급여 중 사회부조 성격을 가지는 편입급여 지출이 18,717백만 유로로 총 지출액 중 거의 절반(약 5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6,364백만 유로(약 17.9%), 사고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4,599백만 유로(약 12.6%), 의료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3,295백만 유로(약 9.0%)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대비 재활담당기관의 증감의 변화는 통합청 지출이 가장 많은 증가비율(5.0%)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편입급여 지출 비용이 4.4% 그리고 농업주를 위한 고령보장과 농업주 보험조합 지출비용이 3.9%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자영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편입급여와 고령화로 인한 고령 장애인의 증가로 두 영역에서의 지출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증가폭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청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개별적인 장애인 재활급여를 본다면 편입급여 중 ‘(사회)참여를 위한 급여’가 11,788백만 유로(총 재활급여지출액의 약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작업장 지원’이 4,830백만 유로(약 13.2%),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4,271백만 유로, 약 1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대비 개별적인 장애인 재활급여 항목을 살펴본다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출항목으로는 농업주를 위한 고령보장영역에서 무려 120.4%의 증가율을 보인 ‘재활보충급여’이며 다음으로 통합청의 ‘개인예산제’ 항목에서의 지출과 ‘직업생활 참여 급여’에서의 지출이 각각 105.6%, 27.4%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재활급여 중 고용 영역에서 ‘개인예산제’가 중요한 급여제공 형태로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급여이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감소율을 보인 지출항목으로는 우선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개인예산제가 각각 -47.1%와 -57.0%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5) 복지

### (1)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표 16-5-1〉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유형별, 연령별

(단위: 천유로,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총액		15,575,297	16,357,724	17,043,580	17,923,728	18,783,384
전체 수급자 수		834,494	860,489	883,413	894,638	911,106
유형	재가	390,047	409,753	429,146	442,650	451,898
	시설	533,306	540,735	549,381	549,941	556,086
연령	18세 이하	238,541	241,462	248,387	251,917	258,484
	18~39세	247,955	256,834	262,996	264,270	266,569
	40~64세	307,568	318,504	325,406	329,201	333,730
	65세 이상	40,430	43,689	46,624	49,250	52,323

- 주: 1) 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는 급여 실행 장소에 따라서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됨  
 2) 재가급여는 자신의 고유한 주거지 또는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시설 안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과는 구분됨. 재가급여 대상자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재활)병원에서 단기간 지내지만 평소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포함됨  
 3) 시설지원원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종일생활 또는 시간제 생활)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외부지원그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형태를 의미함. 이 중 시간제 생활시설은 주간 또는 야간병원, 장애인작업장, 주간생활시설, 야간생활시설, 그 밖의 일정시간만을 보내게 되는 기타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급여의 실행은 수급권자(장애인)가 그 시설 안에서 지원을 받을 때만 가능함  
 4)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에서 전체수급자 수는 편입급여 수급장소(재가, 시설)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요청할 수 있기에 한명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나온 수치임

자료: 연방건강보험고(https://www.gbe-bund.de/)

- 장애인 편입급여(E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는 독일의 사회부조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서 총 지출금액과 수급자가 2005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6년의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출 총액은 전체 사회부조 총 지출금액(30,306,354천유로)의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임
- 편입급여의 이용자 또한 2012년 이후 2016년도에 약 7.3만 명이 증가하여 약 89만 명의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5년에 비해 약 1.3%(11,225명)가 증가한 것임
-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급여가 549,941명, 재가급여 442,650명으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편입급여가 보다 많이 제공되었지만 전년도와 비교한다면 재가 장애인의 이용 수가 시설 장애인의 이용 수에 비해 더 높은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권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이며, 40~64세 사이에서 편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하였으며 18세~39세의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장애인 순으로 편입급여를 이용함

#### ※ 사회부조(Sozialhilfe)

- 사회부조는 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에게 기존의 복지시스템만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삶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제공되는 사회보장정책의 공적급여임
- 사회부조 급여체계는 '생계급여',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장애인편입급여', '의료급여', '돌봄부조',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다른 생활환경의 지원'으로 구분됨

#### ※ 장애인 편입급여(E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장애인 편입급여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즉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참여에 있어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사회청(Sozialamt)에서 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임
- 18~64세 사이의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감소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제공받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면 보충급여로서 '장애인 편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정해짐. 이때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함
- 지금까지 사회부조로서 장애인에게 중요하게 제공되었던 장애인편입급여는 2020년부터는 고유한 급여로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혁 예정임

〈표 16-5-2〉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 유형별(2017년)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전체		911,106	100.0
성별	남성	540,847	59.3
	여성	370,257	40.7
연령	18세 이하	258,484	28.4
	18 - 64세	600,299	65.9
	65세 이상	52,323	5.7
이용장소	재가	451,898	49.6
	시설	556,086	50.4

주: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은 2016년 동안 편입급여를 받았던 모든 사람의 수치임  
자료: 연방통계청(2018), 사회적급여 통계-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연방건강보고

-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11,106명의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편입급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6년도의 894,638명에 비해 1.8%의 지급대상자가 증가한 수치임
- 편입급여 수급 장애인 현황으로는 생산가능 연령대인 18~64세 사이의 장애인(65.9%)과 남성(59.3%)이 주로 신청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50.4%)이 더 많은 편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편입급여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의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사회부조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급여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16-5-3〉 장애인 편입급여 급여내용 및 지출액(2017년)

(단위: 명, 천유로)

구분		지출액		
		재가	시설 내	합계
전체		3,636,153	15,147,230	18,783,384
의료재활		22,378	13,590	35,968
노동생활참여		22,766	12,463	35,229
장애인자립작업장		-	4,830,126	4,830,126
사회생활 참여	전체	2,801,880	8,986,055	11,787,935
	아동의 특수교육적 지원	453,192	792,885	1,246,076
	실제적 지식과 기능습득 지원	11,490	702,332	713,822
	주거지에서의 자립생활	2,134,034	7,227,303	9,361,337
적절한 학교교육지원		614,010	888,065	1,502,074
직업을 위한 학교 직업교육		8,902	5,022	13,924
기타 활동을 위한 직업훈련		891	205	1,096
기타 고용기관에서의 지원		-	25,682	25,682
의료적 급여의 보장과 노동생활 보장을 위한 후속적인 지원		9,705	15,776	25,481
기타 급여		155,621	370,248	525,867

주: 편입급여의 주된 지원은 크게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시설작업장 노동 참여를 위한 급여', '사회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학교, 직업훈련 그리고 노동현장'으로 다양하게 구성됨(사회법전 제9권 제55조-제56조). 이러한 전체적인 급여는 개인예산제(원본 대신에 현금을 주어 장애인의 자기결정 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의 형태로 지원되기도 함

자료: 연방건강보고 (<https://www.gbe-bund.de/>)

- 2017년도 장애인의 편입급여는 911,10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187억 유로가 지출되었으며 1인당 평균 편입급여 액수는 약 20,620유로(약 2,68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2016년도에 비해 총지출은 8억 5천유로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편입급여는 620유로(약 80만원)가 증가한 액수임
- 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지출목록 중 '사회생활참여'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의 약 63.2%인 117억 유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지에서의 자립생활'의 지출이 약 49.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사회생활 참여에서 '자립생활' 지원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 급여'는 편입급여 전체 지출금액의 약 25.7%(약 48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학교교육을 위한 급여'는 약 8.0%인 약 15억 유로가 지출되고 있음
- 2017년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출을 급여장소로 구분해 본다면 재가장애인(19.4%)보다 시설장애인(80.6%)에게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 졌음
- 시설장애인의 편입급여 지출 항목 중 '주거지에서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작업장 급여' 지출이 가장 높아 재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지원과 시설장애인의 노동생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1인당 편입급여 지출액과 관련하여 시설장애인은 27,239유로(약 3,541만원), 재가장애인은 8,046유로(약 1,046만원) 로 시설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개별적인 편입급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 정신건강

### (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표 16-6-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2017년)

(단위: 명)

구분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	12월 31일 시점의 급여
합계	33,301	26,708	75,602
성별	남성	23,078	54,373
	여성	10,223	21,229
연령별	6세 이하	1,598	1,666
	6~8세	8,439	10,011
	9~11세	10,564	25,082
	12~14세	5,986	19,582
	15~17세	3,732	11,236
	18세 이상	2,982	8,025
장소별	외래/부분병동	27,058	61,619
	돌봄지원인	280	902
	생활시설	5,963	13,081

- 주: 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부조) 제35조에 근거한 공적부조 중 하나로 정서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급여 형태임
- 2)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두가지 기준을 충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음, 즉 '정서적 건강이 큰 개인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함
- 3)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제공함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화,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병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자료: 아동 및 청소년급여의 통계-사회법전 제8권 제35조에 따른 편입급여 2017(통계청, 2019)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12월 31일 시점에서 75,602명(전년도 64,074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 편입급여를 새로 제공받은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은 33,301명(전년도 27,624명)이고 편입급여 제공이 끝난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26,708명(전년도 24,375명)으로 나타남
- 편입급여 이용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12월 31일 시점으로 각각 약 72%, 28%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 분포로는 12월 31일 시점, 새로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에서 모두 9~11세가 가장 높은 수치(각각 25,082명, 10,564명, 7,027명)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2월 31일 시점에서는 12~14세가 두 번째 높은 수치(19,582명)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 시작된 급여에서는 6~8세가 두 번째로 많은 인원(8,439명)을 나타내고 있음
- 장소별로는 12월 31일 시점, 새로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에서 모두 치료와 강화를 제공받는 외래 지원과 학교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병동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생활시설에서의 지원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생활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음



## (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수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수 및 병상 수(2017년)

(단위: 개)

구분		2016	2017
전체		1,951	1,942
일반병원		1,607	1,592
기타 병원	기타병원 전체	334	350
	정신의학과 전체	282	285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99병상 이하	123	124
	100~199병상	75	76
	200~499병상	75	76
	500 이상 병상	9	9
주간 또는 야간 병동		62	65
국군병원		5	5
병상 수			
전체		498,718	497,182
일반병원		452,765	432,238
정신의학 관련 병원	정신의학 관련 전체	73,008	73,944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6,175	6,311
	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55,976	56,223
	(그 중 중독치료)	4,367	4,348
	정신치료적 의학/정신심체	10,857	11,410

주: 1)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병원은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이며 기타병원은 주로 정신의학관련 병원(정신의학, 정신요법,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원)을 의미하며 그 외 국군병원도 포함함

2) 병상 수는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규정된 병원의 모든 침대를 의미하며 매달 존재하는 침대 수를 조사하여 연 평균수를 구한 수치로 부분입원, 외래치료실에 있는 침대, 연구용 침대, 특별한 목적 공간에 있는 침대,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위한 침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연방통계청(2016, 2017). 병원기본통계

- 독일 병원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1,942개소로 전년의 1,951개소에 비해 9개소가 감소됨
  - 전체병원 중 일반병원은 1,592개이고 기타병원은 350개로 그 중 정신의학 관련병원은 285개, 주간 또는 야간병동은 65개로 나타남. 그리고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전체병원은 9개소, 일반병원은 15개소, 기타병원은 16개소가 감소한 반면 정신의학과 병원은 3개소가 증가하여 대조적 경향을 보임
  - 정신의학과 관련 병원만을 본다면 990이하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124개소(43.5%)이고 다음으로 100~199개의 병상과 200~499병상을 가진 병원은 각각 76개소(26.7%), 500개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9개소(3.2%)로 드러남
  - 2016년 대비 정신의학과 병원은 990이하의 병상을 가진 병원과 100~199개의 병상 및 200~499병상을 가진 병원이 각각 1개소씩 증가한 반면에 500 이상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변동이 없음. 이러한 결과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대형화를 지양하고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2017년의 병상 수는 전체 497,182개이며 그 중 일반병원의 병상 수는 432,238개이며 정신의학관련 병원은 73,944개를 차지하고 있음
  - 정신의학 관련 병원의 전체 병상 수 중 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병상은 56,223개(7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치료적 의학/정신심체 병상은 11,410개(15.4%),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및 정신치료 병상은 6,311개(8.5%)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7년 결과를 본다면 전체 병상 수는 1,536개, 일반병원의 병상 수는 20,527개 감소한 반면 정신의학과 관련전체 병상 수는 936개(1.3%)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17년)

(단위: 명)

구분	환자입원			환자퇴원					사망	평균 치료 기간
	입원 병동 치료	그 중 다른 병원으로부 터 입원	동일병원의 일시입원으 로부터 입원	입원병동으로 부터 퇴원	그 중 다른 병원으로 이송	예방 및 재활기관으 로의 이송	돌봄기관로 의 이송	동일 병원의 부분입원 병동으로 이송		
병원 전체	19,441,277	696,382	10,930	19,014,579	769,869	370,866	408,614	17,858	429,763	7.3
일반 병원	18,822,872	635,037	8,697	18,399,160	735,559	362,325	389,964	7,518	427,413	6.7
정신 의학과 전체	618,405	61,345	2,233	615,419	34,310	8,541	18,650	10,340	2,350	25.6
99병상 이하	59,359	2,370	130	59,287	2,104	1,104	346	691	35	30.8
100~199 병상	131,328	13,559	301	130,692	6,808	1,302	3,152	1,594	511	27.7
200~499 병상	340,999	34,551	1,677	339,682	19,946	4,652	9,774	7,258	1,268	24.3
500 이상 병상	86,719	10,865	125	85,758	5,452	1,483	5,378	797	536	23.8
주간 또는 야간병동	-	-	-	-	-	-	-	-	-	-

주: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에서는 전적으로 입원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만을 산출한 것으로 부분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한 수치임, 그리고 환자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것은 새로 입원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음. 환자입원은 병원의 전일입원형태로 입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자퇴원은 입원병동으로부터 퇴원하거나 입원하는 동안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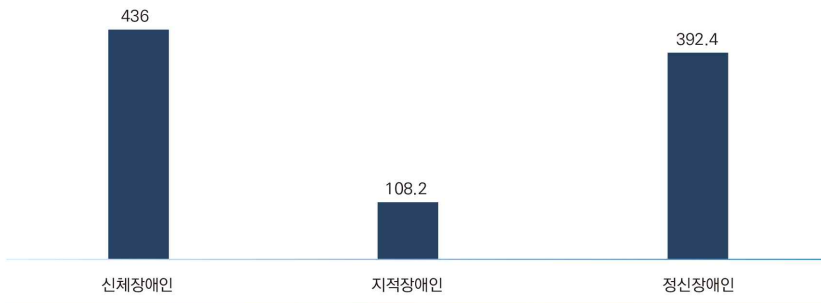
자료: 연방통계청(2016), 병원기본통계

- 2017년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9,441,227명(전년도 19,531,012명), 퇴원은 19,014,579명(전년도 19,113,711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입원기간은 7.3일(전년도와 동일)로 집계됨
  - 일반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은 18,822,872명(전년도 18,911,807명)이고 퇴원한 사람은 18,399,160명(전년도 18,497,410명), 그리고 사망은 427,413명(전년도 418,585명)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입원기간은 6.7일(전년도 6.8일)로 나타남
- 2017년에 정신의학 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19,205명(전년도 619,205명)이고 퇴원한 환자는 615,419명(전년도 616,301명), 사망은 2,350명(2,249명), 그리고 입원기간은 25.6(전년도 25.0)일로 나타남
  - 특히 정신의학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625,731명) 중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송되어 입원한 환자는 63,543명(전년도 63,543명)이며 부분입원병동으로부터 이송되어 입원한 환자는 2,233명(전년도 2,072명)으로 드러남
  - 정신의학관련 병원에 퇴원한 환자 중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34,310명(전년도 35,664명), 예방 및 재활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는 8,541명(전년도 8,831명), 그리고 돌봄시설로 이송한 환자는 18,650명(전년도 17,975명)임
  - 정신의학 관련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은 25.6일(전년도 25.0일)로 일반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입원기간보다 3.8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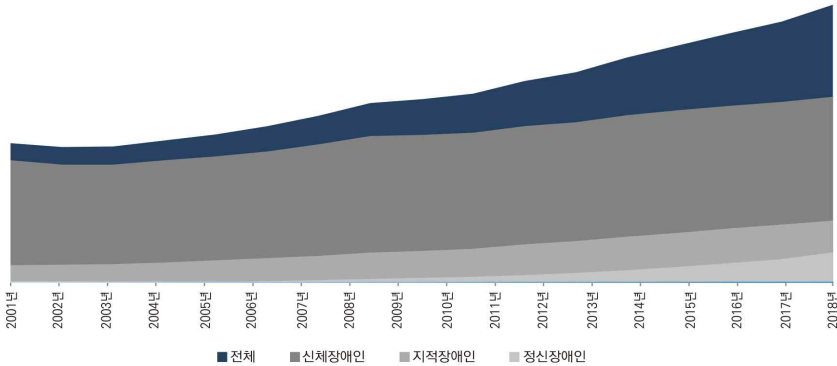


## 4. 일본

[그림 3-4-1] 일본 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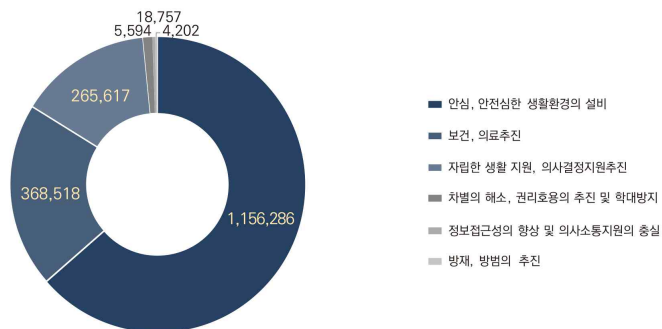
[그림 3-4-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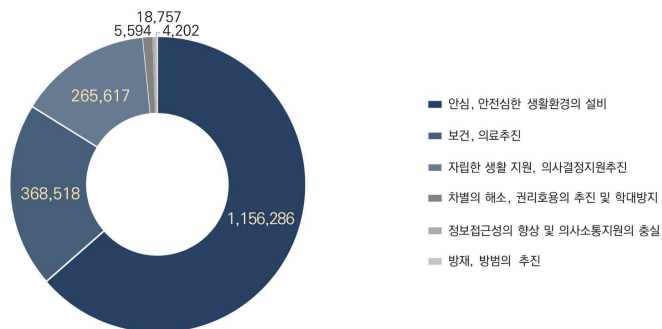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구분에 대해 각 세그먼트의 장애인수는 신체장애인 (신체장애 아동을 포함함. 이하동일) 436만 명, 지적장애인 (정신지체아동 포함. 이하 동일) 108만 2천명, 정신장애인 392만 4천명임
- 민간기업(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 법정고용률 2.2 %)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534,769.5명으로 전년대비 7.9%(38,974.5명) 증가 해, 15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3-4-3]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



[그림 3-4-4] 정신질환자 입원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유형



- 정신병상 퇴원환자의 퇴원 후 상황을 보면, 입원기간이 1년 미만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입원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1) 장애인구

〈표 17-1-1〉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18세 미만	7.1	6.8	0.3
	18세 이상	419.4	412.5	6.9
	연령미상	9.3	9.3	-
	전체	436	428.7	7.3
지적장애인	18세 미만	22.1	21.4	0.7
	18세 이상	84.2	72.9	11.3
	연령미상	1.8	1.8	-
	전체	108.2	96.2	12.0
		전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	20세 미만	26.9	26.6	0.3
	20세 이상	365.5	334.6	30.9
	연령미상	1.0	1.0	0.1
	전체	392.4	361.1	31.3

주: 1) 정신장애인은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의 수를 더한 환자 수임

2) 신체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시설 입소자는 포함하지 않음

3) 반올림이 된 관계로 각 항목의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하 동일)

자료: 「신체/지적장애인」

- 재가장애인 :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 : 후생노동성(2015).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

- 외래환자 : 후생노동성(2014). 「환자조사」

- 입원환자 : 후생노동성(2014). 「환자조사」.

〈표 17-1-2〉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성	전체	장애자수첩 소지자	장애자수첩 정류 (복수회답가능)			수첩비소지 및 자립지원 등을 받는 자
				신체장애자 수첩	양육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65세 미만	전체	2,382	2,237	1,082	795	594	145
	남성	1,359	1,280	593	497	307	79
	여성	1,014	950	486	295	282	64
	미상	9	8	3	3	5	1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	전체	3,550	3,358	3,205	168	247	193
	남성	1,756	1,691	1,627	89	106	64
	여성	1,772	1,645	1,565	73	130	127
	미상	23	21	13	5	11	1

자료: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3〉 일본 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18세 미만	7.1	6.8	0.3
	남성	—	3.2	—
	여성	—	3.4	—
	미상	—	0.1	—
	18세 이상	419.4	412.5	6.9
	남성	—	215.8	—
	여성	—	196.3	—
	미상	—	0.3	—
	연령미상	9.3	9.3	—
	남성	—	2.9	—
	여성	—	5.4	—
	미상	—	1.0	—
	전체	426	428.7	7.3
	남성	—	222.0	—
	여성	—	205.2	—
	미상	—	1.5	—
지적장애인	18세 미만	22.1	21.4	0.7
	남성	—	14.0	—
	여성	—	7.3	—
	미상	—	0.1	—
	18세 이상	84.2	72.9	11.3
	남성	—	44.1	—
	여성	—	28.8	—
	미상	—	0.1	—
	연령미상	1.8	1.8	—
	남성	—	0.6	—
	여성	—	0.6	—
	미상	—	0.5	—
	전체	108.2	96.2	12.0
	남성	—	58.7	—
	여성	—	36.8	—
	미상	—	0.8	—
		전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	20세 미만	26.9	26.6	0.3
	남성	16.6	16.5	0.2
	여성	10.1	9.9	0.2
	미상	—	—	—
	20세 이상	365.5	334.6	30.9
	남성	143.1	128.9	14.2
	여성	222.9	206.2	16.7
	미상	—	—	—
	연령미상	1.0	1.0	0.1
	남성	0.4	0.4	0.0
	여성	0.6	0.6	0.0
	미상	—	—	—
	전체	392.4	361.1	31.3
	남성	159.2	144.8	14.4
	여성	233.6	216.7	16.9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의 수를 더한 환자 수임

2) 신체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시설 입소자는 포함하지 않음

3) 반올림이 된 관계로 각 항목의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하 동일)

자료: 「신체/지적장애인」

- 재가장애인 :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 : 후생노동성(2015),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

- 외래환자 : 후생노동성(2014), 「환자조사」

- 입원환자 : 후생노동성(2014), 「환자조사」.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구분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의한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또는 「환자조사」에 근거해 추정된 기본적인 통계 수치를 게재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구분에 대해 각 세그먼트의 장애인수는 신체장애인(신체장애 이동을 포함함, 이하동일) 436만 명,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이동 포함, 이하 동일) 108만 2천명, 정신장애인 392만 4천명임
- 이를 인구 천 명당 인원수로 보면 신체장애인은 34명, 지적장애인은 9명, 정신장애인은 31명임. 여러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합계에 무리가 있지만, 전체 국민의 약 7.4% 장애를 가지고 있는 셈. 또한 해당 장애인 수 및 지적 장애인 수는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조사」를 근거로 추정 된 것임. 한편 정신장애인은 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정신장애인의 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있을 수 있음

〈표 17-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전체	1,408	1,977	2,506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0~17세	94	—	93	81	82	82	93	73	68
18세~64세	872	1,150	1,346	1,333	1,246	1,218	1,237	1,111	1,013
65세~	442	826	1,068	1,330	1,587	2,004	2,211	2,655	3,112
미상	—	—	—	58	99	22	35	25	93

주: 1980년에는 신체장애인 (0-17세)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자료: 후생노동성(2005).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후생노동성(2009-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5〉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전체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시각장애	357	311	306	315	316	312
청각/언어장애	369	366	361	360	324	341
지체부자유	1,602	1,698	1,797	1,810	1,709	1,931
내부장애	476	639	863	1,091	930	1,241
미상	—	—	—	—	585	462

자료: 후생노동성(2005).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2016년
전체	297	329	419	622	962
0~17세	86	94	117	152	214
18세~64세	188	212	274	408	580
65세~	8	14	12	58	149
미상	16	14	12	4	18

자료: 후생노동성(2005).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7〉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중 증	그 외	미 상
2016년	962	373	555	34
2011년	622	242	303	77
2005년	419	165	204	50
2001년	329	138	151	40
1996년	297	128	159	10
1991년	284	124	146	14

주: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8〉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1989년	1992년	1995년	1998년	2011년	2014년
전체	170.0	223.9	267.5	290.0	287.8	361.1
0-24세	18.5	22.8	27.2	27.7	27.9	36.3
25세-34세	25.2	34.9	39.5	35.8	33.7	36.2
35-44세	25.7	34.2	46.2	50.0	50.4	58.5
45-54세	29.9	36.8	37.7	41.6	40.2	52.4
55-64세	26.5	33.8	39.7	43.3	37.8	45.5
65-74세	26.3	32.0	36.0	39.9	33.3	47.8
75세-	18.1	28.9	40.6	51.4	64.2	84.9
미상	0.6	0.5	0.5	0.6	1.0	1.0

주: 2014년도의 조사에서는 미야기(宮城)현의 일부와 후쿠시마(福島)현을 제외함  
 자료: 후생노동성(2014), 「환자조사」

〈표 17-1-9〉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
남성	166	1,431
여성	101	2,229
소계	267	3,655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성	1,130	467
여성	1,290	1,040
소계	2,418	1,506

자료: 후생노동성(2014), 「환자조사」

- 재택장애인 428만 7천명의 연령계층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68,000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101만 3000명, 65세 이상 311만 2천명이며, 70세 이상으로 한정된 경우에도 253만 6천명으로 조사됨
- 일본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조사 시점인 2016년 기준 27.3%에 달함(총무성, 「인구추계」, 2016년 10월 1일 기준 확정치)
- 재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65세 이상 인구에서 재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에는 30% 정도였던 것이 2016년에는 70% 정도까지 상승함

- 재택 지적장애인 96만 2천명의 연령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21만 4천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58만명, 65세 이상이 14만 9천명임. 18세 미만의 비율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의 비율은 낮은 점에 특징이 있음
- 지적장애 인구는 2011년과 비교하여 약 34만명 증가함. 지적장애는 보통 발달기에 나타나며, 이후에 새롭게 지적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체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과거에 비해 지적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요육수첩(지적장애아의 치료교육에 관한 기록장) 보유자의 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 2014년 기준 외래진료 정신장애인은 총 361만 1천명으로, 이중 25세 미만은 36만 3천명, 25세 이상 65세 미만은 192만 6천명, 65세 이상은 132만 7천명으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이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

- 연령에 따른 정신장애인 성비 변화를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135만 9천명, 여성이 101만 4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은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175만 6천명, 여성이 177만 2천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신체장애자 수(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59만 3천명, 여성이 48만 6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162만 7천명, 여성이 156만 5천명임
- 지적장애자 수(요육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49만 7천명, 여성이 29만 5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8만 9천명, 여성이 7만 3천명임
- 정신장애자의 남녀별 수에 대해 2014년에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 16만 6천명 대비 여성 10만 1천명이었고, 20세 이상에서는 남성 143만 1천명 대비 여성 222만 9천명임

## 2) 교육

〈표 17-2-1〉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의무교육단계 (초, 중)	학생전체 (유, 초, 중, 고)	재학생중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학생 전체	9,874,138 (100%)	15,014,459 (100%)	-
특별지원학교 재학생	71,802 (0.7%)	141,944 (0.9%) (a)	486,377 (3.2%) (a+b+c)
특별지원학교 등록생	235,487 (2.4%)	235,487 (1.6%) (b)	
통급지도를 받고있는 학생	108,946 (1.1%)	108,946 (0.7%) (c)	
병약/발달장애에 의한 취학 유예 면제	39 (0.0004%)	-	-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2〉 특별지원학교의 재학생 수 - 장애별, 학교별

(단위: 명)

구분	학교 수 (학교)	교실 수 (교실)	재학생수 (명)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각장애	82	2,167	5,312	199	1,550	1,228
청각장애	116	2,818	8,269	1,141	2,935	1,853
지적장애	776	30,823	128,912	247	37,207	27,662
지체부자유	350	12,474	31,813	102	13,578	8,381
병약신체허약	149	7,521	19,435	38	7,306	5,158

주: 복수의 장애를 가진 학생은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중복 포함됨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 전체 학생 15,014,459명 중, 특별지원학교에 재학교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 수는 486,377명(전체의 3.2%)
- 특별지원학교 : 장애를 가진 아동이 가지는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화 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교육 욕구와 장애 상태를 반영하여, 특별지원학교 및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이나 통급에 의한 지도에서 특별교육과정, 소규모학급, 특별히 배려해서 만들어진 교과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직원, 장애에 대해 배려된 시설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인 : 양쪽 눈의 시력이 대략 0.3미만 또는 시력 이외의 시각기능장애가 발생한 사람들 중, 돋보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적 인지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
- 청각장애인 :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대략 60데시벨 이상인 사람들 중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정상적인 말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것
- 지적장애인
  - 지적 발달의 지체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자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
  - 지적 발달의 지체 정도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중,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
- 지체부자유자
  - 보장구를 사용해도 도보, 필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의 부자유
  - 지체부자유 상태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중 상시 의학적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자유
- 병약자
  - 만성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 신생물, 기타 질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질병 보유자
  - 신체 허약 상태가 계속해서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준



〈표 17-2-3〉 초/중학교에 의한 특별지원학교의 재학생 수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명, 개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지적장애	18,371	77,743	8,683	35,289	27,054	113,032
지체부자유	2,244	3,418	790	1,090	3,034	4,508
병약·신체허약	1,468	2,480	643	1,021	2,111	3,501
약시	358	413	119	134	477	547
난청	793	1,242	329	470	1,122	1,712
언어장애	539	1,570	126	165	665	1,735
자폐증·정서장애	18,091	80,403	7,636	30,049	25,727	110,452
총 합계	41,864	167,269	18,326	68,218	60,190	235,487
담임 교원 수(명)	44,854		20,093		64,947	
설치학교 수(개)	16,315		7,907		24,222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4〉 특별지원학교 수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1991	960	70	107	193	193	97
1996	975	71	107	511	191	95
2001	996	71	107	525	198	95
2006	1,006	71	104	543	197	91
2011	1,049	86	118	673	314	138
2017	1,135	82	116	776	350	149

주: 2006년까지는 학교별로 집계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복수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각각의 장애별로 중복해서 집계 함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 초·중학교 중 특별지원학교가 설치되어있는 학교 수는 24,222개이고, 교실의 수는 총 60,190개소임. 또한 담임교원의 수는 64,947명, 학생 수는 총 235,487명임
- 특별지원학교는 1991년에 960개였지만, 2017년에는 1,135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1991년에는 193곳이었으나, 2017년에는 776개소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17-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임교원수	83,802	1,516	81,989	297
겸임교원수	5,769	238	5,438	48
전임직원수	14,192	151	13,943	98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 합계	고등학교
1990년	2,742	1,564	4,306	—
1993년	2,381	1,228	3,609	—
1998년	1,685	1,000	2,685	473
2003년	1,447	803	2,250	1,038
2008년	1,399	768	2,167	957
2013년	1,443	832	2,275	940
2017년	1,240	782	2,022	806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 특별지원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수는 83,802명, 겸임교원 수는 5,769명, 전임직원 수는 14,192명임

-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면허증 등의 보유 비율 향상은 시급한과제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각 시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대하여 특별지원학교 교사면허증 등의 보유 비율 향상을 위해, 채용, 교육, 배치 등에 있어 면허증의 보유 여부를 고려하는 것 등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각 시도부현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방문교육 : 심신의 장애가 중증 또는 중북(복수의 중증장애)이기 때문에, 특별지원학교 등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한 아동·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병원·시설 등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함. 1969년 치바, 카나가와의 양현에서 시작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1974년에는 전 시도부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방문지도원의 경비 보조를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시작함



〈표 17-2-7〉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언어장애	37,134	427	37,561
자폐증	16,737	2,830	19,567
정서장애	12,308	2,284	14,592
약시	176	21	197
난청	1,750	446	2,196
학습장애	13,351	3,194	16,545
주의력 결핍 타동성 장애	15,420	2,715	18,135
지체부자유	100	24	124
병약/신체허약	20	9	29
합계	96,996	11,950	108,946
담임 교원 수	6,967	1,255	8,361
설치 학교 수	4,399	809	5,283

주: 1) 자교통급(自校通級)·타교통급(他校通級)·순회교육(巡回指導)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하는 모든 방법을 합산함

2) 위 표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전 사전과정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7-1〉 통급(通級)지도교실 설치 학교 수

구분	통급(通級)지도교실 설치학교수			
	장애별 설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특별지원학교	
언어장애	932	17	—	949
자폐증	118	18	—	136
정서장애	196	42	—	238
약시	11	2	11	24
난청	73	17	42	132
학습장애	164	54	—	218
주의력결핍·타동성장애	140	28	—	168
지체부자유	3	0	6	9
병약/신체허약	2	2	4	8
복수장애대응	3,471	681	17	4,169
합계	5,110	861	80	6,051

자료: 초·중등교육국특별지원교육과(2017년) 「통급에 의한 지도 실시 상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표 17-2-8〉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단위: 명)

구분	1993	1998	2003	2008	2013	2017
언어장애	9,654	20,461	27,718	29,860	33,606	37,561
난청,약시, 지체부자유,병약/신체허약	1,268	1,561	1,750	2,101	2,262	2,546
정서장애	1,337	2,320	4,184	3,589	8,613	14,592
지폐증	—	—	—	7,047	12,308	19,567
학습장애	—	—	—	3,682	10,769	16,545
주의력 결핍 타동성 장애	—	—	—	3,406	10,324	18,135
합계	12,259	24,342	33,652	49,685	77,882	108,946

주: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또는 “학습장애”, 그리고 “자폐증”이 2006년부터 새롭게 통급지도 대상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규정 (2005 년도 이전에는 주로 “정서장애”의 통급지도교실로서 대응)

2) 본교통급, 타교통급, 순회지도 중 복수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 학생은 해당되는 모든 방법에 중복 합산함

3)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전 사전교육과정 포함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 2017년 현재 통급에 의해 지도를 받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합쳐서 108,946명임
- 1993년에는 12,259명이었던 통급에 의해 지도를 받는 학생 수는 2017년에는 108,946명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

#### ※ 통급(通級)

- 초·중학교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언어 장애, 지폐증, 정서장애, 약시, 난청, 학습장애(L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각 교과 등의 지도를 일반 학급에서 실시하고, 장애에 근거한 학습 또는 생활의 어려움 개선·극복에 필요한 특별지도를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교육 형태
- 장애아동에게는 특별지원학교 및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 등 다양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이중 통급에 의한 지도내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초·중학교 등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2016년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실시한 후, 2018년부터 시작함
- 또한 2018년 3월에 고등학교 표준 시행령을 개정해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위한 가배(加配) 정수조치(학생 수에 따른 교원의 수 배정제도를 가능하게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은 학습지도요령 등에 대해 개별지도 계획 또는 개별교육지원 계획을 작성하는 등, 개별 아동 학생의 장애상태에 따른 지도 내용 및 방법의 연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함



〈표 17-2-9〉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10,500	10,342	98.5	23	0.2	7	0.07	52	0.5	76	0.7	
시각장애	164	162	98.8	—	—	—	—	1	0.6	1	0.6	
청각장애	434	432	99.5	—	—	—	—	—	—	2	0.5	
지적장애	7,975	7,860	98.6	20	0.25	5	0.06	39	0.5	51	0.6	
지체부자유	1,625	1,606	98.8	—	—	1	0.1	6	0.4	12	0.7	
병약/신체허약	302	282	93.4	3	1.0	1	0.3	6	2.0	10	3.3	

주: 1) 표는 2017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갱생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3) 중학교 특별지원학교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4)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1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합계	21,292	396	1.9	381	1.8	6,411	30.1	13,253	62.2	851	4.0	
시각장애	277	92	33.2	10	3.6	32	11.6	119	43.0	24	8.7	
청각장애	451	162	35.9	20	4.4	195	43.2	60	13.3	14	3.1	
지적장애	18,321	66	0.4	276	1.5	6,029	32.9	11,262	61.5	688	3.8	
지체부자유	1,856	57	3.1	42	2.3	94	5.1	1,574	84.8	89	4.8	
병약/신체허약	387	19	4.9	33	8.5	61	15.8	238	61.5	36	9.3	

주: 1) 표는 2017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갱생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3) 중학교 특별지원학교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4)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단위: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허약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문직/기술직	14	5	19	1	-	1	30	16	46	3	-	3	1	1	2	49	22	71
사무	-	2	2	13	30	43	344	168	512	25	28	54	2	4	6	384	232	616
판매	-	-	-	2	1	3	517	317	834	4	4	8	4	6	10	527	328	855
서비스	5	3	8	4	11	15	847	557	1,404	11	5	16	5	10	15	872	586	1,458
보안	-	-	-	-	-	-	3	1	4	-	-	-	-	-	-	3	1	4
농업	-	-	-	1	1	2	100	29	129	1	-	1	1	1	2	103	31	134
어업	-	-	-	-	-	-	5	-	5	-	-	-	-	-	-	5	-	5
생명공학	1	1	2	75	42	117	1,074	356	1,430	7	1	8	9	4	13	1,166	404	1,570
운송/기계운전	-	-	-	-	-	-	25	4	29	-	-	-	1	-	1	26	4	30
건설	-	-	-	2	-	2	63	3	66	1	-	1	1	-	1	67	3	70
운반/청소	-	1	1	3	5	8	1,045	327	1,372	2	-	2	5	2	7	1,055	335	1,390
기타	-	-	-	1	3	4	145	53	198	1	1	2	4	-	4	151	57	208
합계	20	12	32	102	93	195	4,198	1,831	6,029	55	39	94	33	28	61	4,408	2,003	6,411

자료: 문부과학성(2017),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12〉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항목	2017년도 예산금액	2018년도 예산금액
특별교육지원의 총실 등	2,430	2,340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비부담 등	12,209	11,567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 등 보조	7	4
의무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108,068	110,324
공립학교시설설비	-	-
사립고등학교경상비조성비 등 보조	7,486	7,719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운영비 등	1,089	1,087
합계	131,289	133,041

자료: 문부과학성 (2018) 「특별지원교육자료」

- 중등부의 졸업생의 98.5%는 진학하고, 고등부의 졸업생은 62.2%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30.1%가 취업을 하고 있음
- 장애인에 평생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에서의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적인 자립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자 중 복지시설 등 입소자의 비율이 약 62%에 달하는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약 30%를 보여, 직업 자립을 도모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3) 고용

〈표 17-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구분	기업 수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	명	명	%	개	%
민간기업	91,024	26,104,834.5	534,769.5	2.05	46,217	45.9

자료 :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구분	전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실고용률
	천명	천명	천명	천명	%
2001년	253	222	31	—	1.49
2002년	246	214	32	—	1.47
2003년	247	214	33	—	1.48
2004년	258	222	36	—	1.46
2005년	269	229	40	—	1.49
2006년	284	238	44	2	1.52
2007년	303	251	48	4	1.55
2008년	326	266	54	6	1.59
2009년	333	268	57	8	1.63
2010년	343	272	61	10	1.68
2011년	366	284	69	13	1.65
2012년	382	291	75	17	1.69
2013년	409	304	83	22	1.76
2014년	431	313	90	28	1.82
2015년	453	321	98	35	1.88
2016년	474	328	105	42	1.92
2017년	496	333	112	50	1.97
2018년	535	346	121	67	2.05

주: 1) 민간기업 법정 의무고용률은 2018년 4월 1일부터 2.2%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 (이전은 2.0%, 50명 이상)

2) 장애인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 1993년~2005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 2006년~2010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 2011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중증 이의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3) 각 연도 6월 1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민간기업(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 법정고용률 2.2%)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534,769.5명으로 전년보다 7.9%(38,974.5명) 증가해, 15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346,208.0명(전년대비 3.8%증가), 지적장애인은 121,166.5명(7.9% 증가), 정신장애인은 67,395.0명(34.7% 증가)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가폭이 컸음
- 실제 고용률은 7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 2.05%(전년 1.97%)를 기록하며, 법정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45.9%(전년 50.0%)임

## ※※ 장애인 고용 제도

- 직원이 일정 수 이상인 규모의 사업주는 직원이 차지하는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비율을 "법정고용"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음(장애인고용촉진법 43조 제 1항)
- 직원을 45.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함

〈표 17-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구분	기업 수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개	명	명	%	기업	%
규모 합계	100,586	26,104,834.5	534,769.5	2.05	46,218	45.9
45.5~100명 미만	49,370	3,275,003.0	54,927.0	1.68	21,795	44.1
100~300명 미만	36,173	5,582,387.5	106,521.5	1.91	18,127	50.1
300~500명 미만	6,965	2,469,779.5	46,877.0	1.90	2,795	40.1
500~1,000명 미만	4,720	3,036,954.5	62,408.0	2.05	1,895	40.1
1,000명 이상	3,358	11,740,710.0	264,036.0	2.25	1,606	47.8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 수는 45.5~50명미만의 규모 기업에서 4,252.5명, 50~100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50,674.5명 (전년 45,689.5명), 100~300인 미만의 기업은 106,521.5명, 300~500명 미만의 기업은 46,877.0명, 500~1,000인 미만인 기업은 62,408.0명, 1,000명 이상의 기업은 264,036.0명으로 모든 기업 규모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수가 전년보다 증가함
- 실제 고용률은 45.5~50명미만의 규모 기업은 1.69%, 50~100인 미만은 1.68%, 100~300인 미만은 1.91%, 300~500인 미만은 1.90%, 500~1,000인 미만은 2.05%, 1,000명 이상은 2.25%임
- 또한 민간기업 전체의 실고용률 2.05%와 비교하면 500~1,000인 미만과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실제 고용률 이상으로 나타남
- 법정고용률 달성기업 비율은 45.5~50명 미만의 규모 기업은 34.0%, 50~100인 미만이 45.4%, 100~300인 미만이 50.1%, 300~500인 미만이 40.1%, 500~1,000인 미만이 40.1%, 1,000인 이상이 47.8%로 모든 규모의 구분에 있어서 전년보다 감소함



〈표 17-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구분	기업 수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개	명	명	%	개	%
산업 합계	100,586	26,104,834.5	534,769.5	2.05	46,217	45.9
농·임·어업	359	40,690.5	983.0	2.42	212	59.1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73	10,463.5	208.5	1.99	44	50.3
건설업	4,157	785,272.0	14,379.0	1.83	1,890	45.5
제조업	24,979	6,990,815.0	144,425.5	2.07	13,025	52.1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248	215,413.0	4,701.5	2.18	112	45.2
정보통신업	5,263	1,514,800.5	25,794.5	1.70	1,335	25.4
운수업, 우편업	7,188	1,586,010.5	33,773.5	2.13	3,732	51.9
도소매업	15,955	4,300,319.0	80,540.5	1.87	5,771	36.2
금융·보험업	1,405	1,201,221.0	24,431.0	2.03	498	35.4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1,897	447,970.5	7,543.5	1.68	598	31.5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3,065	914,498.0	16,408.5	1.79	961	31.4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143	870,400.0	17,220.5	1.98	1,359	43.2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3,010	530,465.0	11,998.0	2.26	1,228	40.8
교육, 학습지원업	2,116	478,716.0	7,865.5	1.64	744	35.2
의료, 복지	16,601	2,858,196.5	76,637.5	2.68	9,876	59.5
복합서비스사업	956	306,252.0	5,864.0	1.91	383	40.1
서비스업	10,171	3,053,331.5	61,995.0	2.03	4,449	43.7

주: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구분	기업 수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개	명	명	%	기업	%
제조업 합계	24,979	6,990,815.0	144,425.5	2.07	13,025	52.1
식료품, 담배	3,989	898,084.5	20,715.0	2.31	2,477	62.1
섬유, 의복	985	145,299.0	3,370.0	2.32	634	64.4
목재 가구	539	78,665.5	1,621.0	2.06	311	57.7
펄프, 종이, 인쇄	1,923	376,470.5	7,312.0	1.94	950	49.4
화학 공업	2,605	891,316.0	18,075.0	2.03	1,205	46.3
요업·토석	686	149,278.5	2,512.5	1.90	356	51.9
철강	555	149,278.5	2,958.0	1.98	289	52.1
비철금속	427	127,539.0	2,537.0	1.99	251	58.8
금속 제품	2,497	357,067.0	6,974.0	1.95	1,280	51.3
전기 기계	2,495	1,188,010.5	25,360.0	2.13	1,337	53.6
기타 기계	5,642	1,956,962.0	39,399.5	2.01	2,743	48.6
기타	2,597	683,772.0	13,439.0	1.97	1,200	46.2

주: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산업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모든 업종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 산업별 실고용률은 “의료복지”(2.68%),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2.26%), “농림어업”(2.42%)이 법정 고용률을 상회함

〈표 17-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구분			전체	45.5~100미만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이상
부 족 인 원	미달성 기업 수	개	54,369	27,576	18,046	4,170	2,383	1,752
	0.5명 또는 1명	명	34,823	25,948	7,296	914	484	181
	1.5명 또는 2명	명	10,522	1628	7,244	905	519	226
	2.5명 또는 3명	명	4,209	—	2,552	883	557	217
	3.5명 또는 4명	명	2,269	—	762	781	464	262
	4.5명 이상 9명 이하	명	2,194	—	192	684	754	564
	9.5명 이상 20명 이하	명	291	—	—	3	47	241
	20.5명 이상 50명 이하	명	53	—	—	—	—	23
	50.5명 이상	명	8	—	—	—	—	8
고용장애인이 0명인 기업 수			31,439	25,826	5,553	55	4	1

주: 1) 부족인원이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구분	기업 수		장애인 수				A+B+C+D 합계
			A 중도신체장애인 중도신체장애인	B 중도신체/지적 장애인 단시간	C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D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개	명	명	명	명	명	명
특례자기업	486	33,093.0	9,158	151	13,923	256	32,518.0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서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장애인 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인 1명,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1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각각 산정함

3) 2018년 6월 1일 기준 현황.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의 상황

- 2018년 법정 고용률 미달성기업은 54,369개. 그중에서 부족수가 0.5명 또는 1명인 기업(1명 부족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31,439개이며, 미달성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임

— 특례 자회사(親会社)의 실고용률에 산입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에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의 상황

- 2108년 6월 1일 현재 특례자회사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486개사(전년 대비 22개사 증가)로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32,518명임
- 고용자 중 신체장애인은 11,478.5명, 지적장애인은 16,211.0명, 정신장애인은 4,828.5명

※※ ‘특례자회사’ 제도란?

- 일본의 ‘특례 자회사’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고용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특례자회사 인증 요구사항

- 모회사의 요구 사항: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의사결정기관(주주총회 등)을 지배하고 있을 것(구체적으로는 자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것 등)
- 자회사의 요건
  - ①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구체적으로는 모회사에서의 임원 파견 등)
  - ② 고용 된 장애인이 5명 이상이며, 전체 직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고용된 장애인이 차지하는 중증신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③ 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전임 지도원의 배치 등)
  - ④ 기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이 확실하게 달성 될 것으로 인정될 것



〈표 17-3-8〉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구분	기관 수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국가기관	43	320,654	3,902.5	1.22	8	18.6
도도부현기관	161	337,872.0	8,244.5	2.44	99	61.5
시정촌기관	2470	1,140,348.5	27,145.5	2.38	1,718	69.6
도도부현등 교육위원회	100	662,641.5	12,607.5	1.90	39	39.0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관 수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전체	43	320,654.0	3,902.5	1.22	8	18.6
행정기관	34	291,986.0	3,620.0	1.24	6	17.6
입법기관	5	3,655.0	37.5	1.03	2	40.0
사법기관	4	25,013.0	245.0	0.98	0	0.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5%임

2)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7,593.0	6,655.0	191.5	746.5
행정기관	6,867.5	5,964.5	184.5	718.5
입법기관	84.5	62.5	7.0	15.0
사법기관	641.0	628.0	0.0	13.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5%임

2)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은 모두 전년대비 높음

- 국가: 고용 장애인 수 7,593.0명(7,436.0명), 실고용률 2.50% (2.45%)
- 도시: 고용 장애인 수 8,633.0명(8,474.0명), 실고용률 2.65% (2.61%)
- 시정촌: 고용 장애인 수 2만 6,412.0명(2만 6,139.5명), 실고용률 2.44% (2.43%)
- 교육위원회: 고용 장애인 수 1만4,644.0명(1만 4,448.5명), 실고용률 2.22% (2.18%)

〈표 17-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관 수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전체	161	337,872.0		8,244.5	2.44	99	61.5
도도부현 지사부국	47	263,631.0		6,534.5	2.47	24	51.1
기타 도도부현 기관	114	74,241		1,720.0	2.32	75	65.8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縣)으로 구성됨  
2)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3)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8,633.0	8,242.5	120.5	270.0
도도부현 지사부국	6,880.0	6,573.0	109.5	197.5
기타 도도부현 기관	1,753.0	1,669.0	11.0	72.5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縣)으로 구성됨  
2)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17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7).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업 수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시정촌 기관	2,470	1,140,348.5		27,145.5	2.38	1,718	69.6

주: 1)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3)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정촌 기관	26,412.0	24,210.0	702.5	1,499.5

주: 1)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17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7).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도도부현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8,244.5명으로 전년대비 1.34%(6,163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2.44%로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함. 지사부국은 47기관중 24기관이 달성. 지사부국 이외는 114기관 중 75기관이 달성함
- 시정촌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7,145.5명이며, 전년대비 1.33%p(20,452명) 증가. 실제 고용률은 2.38%로 전년에 비해 0.09%p 상승함. 2,470기관 중 1,718기관이 달성함



〈표 17-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업 수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전체	100	662,641.5	12,607.5	1.90	39	39.0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47	577,583.0	10,822.5	1.87	5	10.6
시정촌 교육위원회	53	85,058.5	1,785.0	2.10	34	64.2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4%임

2)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4,644.0	13,446.0	399.0	799.0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12,782.0	11,780.0	311.5	690.5
시정촌 교육위원회	1,862.0	1,666.0	87.5	108.5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2)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7),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2,607.5명으로 전년보다 1.35%p(9,335 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1.90%(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10.6%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64.2%)임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47기관 중 5기관이 달성하며,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53기관 중 34기관이 달성

〈표 17-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구분	기업 수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전체	337	427,826.5	10,276.5	2.40	264	78.3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90	5,251.0	5,251.0	2.53	78	86.7
국립대학법인	90	3,412.0	3,412.0	2.34	69	76.7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157	1,613.5	1,613.5	2.18	117	74.5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18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0,276.5	7,539.5	1,345.0	1,392.0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5,251.0	4,166.5	342.0	742.5
국립대학법인	3,412.0	2,201.0	779.0	432.0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1,613.5	1,172.0	224.0	217.5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18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17).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독립행정법인 등(법정고용률 2.3%)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10,276.5명으로 전년보다 3.5%p(349.5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2.40%로 전년에 비해 0.04%p 상승함
- 독립행정법인 등(국립대학법인 등을 제외)은 90법인 중 78법인이 달성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등은 90개 법인 중 69개 법인이,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은 157개 법인 중 117개 법인이 달성함



〈표 17-3-19〉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유효구직자수	취직건수	취업률
	건	명	건	%
2008년	119,765	143,533	44,463	37.1
2009년	125,888	157,892	45,257	36.0
2010년	132,734	169,116	52,931	39.9
2011년	148,358	182,535	59,367	40.0
2012년	161,941	198,755	68,321	42.2
2013년	169,522	207,956	77,883	45.9
2014년	179,222	218,913	84,602	47.2
2015년	187,198	231,066	90,191	48.2
2016년	191,853	240,744	93,229	48.6
2017년	202,143	255,612	97,814	48.4
2018년	211,271	272,481	102,318	48.4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7-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별(2018년도)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취직건수
전체	211,271	102,318
신체장애인	61,218	26,841
(중도신체장애인)	(26,434)	(11,096)
지적장애인	35,830	20,342
(중도지적장애인)	(4,826)	(4,471)
정신장애인	101,333	48,040
기타	12,890	5,203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11,271건으로 전년 대비 4.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취업 건수는 102,318건으로 전년 대비 4.6%의 증가를 기록함. 이 중 정신장애인의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101,333건으로 전년 대비 8.1%의 증가, 취업 건수는 48,040건으로 전년 대비 6.6%의 증가를 기록함
- 취업률(취업 건수 / 신규 구직 신청 건수)은 48.4%로 전년 대비 0.0%p 로 전년도와 동일함

#### ※ Hello Work(공공직업안내소)

-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후생노동성)가 설치하는 행정기관. 공식적인 명칭은 공공직업안내소이며, 주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있음. 헬로우 워크의 기본적인 업무는 구직자와 기업의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알선을 할 수 있음. 고용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구인 소개, 상담창구에서 상담, 자기분석 지원,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 이력서작성 지원, 면접 대책, 추천서 발급 등
- Hello Work에서는 이처럼 구인 정보를 소개 할뿐만 아니라 전직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Hello Work에서 취급하고 있는 채용 정보는 Hello Work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검색·열람이 가능. 또한, Hello Work 인터넷 서비스에 게재 된 구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방출되어 민간이 운영하는 전직 사이트 등에 게재되는 경우도 있음. 기타 직업 소개 이외의 고용 보험 제도의 창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

〈표 17-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별

(단위: 명)

구분	해고 수	장애종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08년	2,774	1,856	795	123
2009년	2,354	1,561	711	82
2010년	1,333	773	492	68
2011년	1,253	852	342	59
2012년	1,539	1,002	394	143
2013년	1,248	732	376	140
2014년	1,192	714	379	99
2015년	1,448	723	395	330
2016년	1,335	588	428	319
2017년	2,272	714	735	823
2018년	1,980	782	607	591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7-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이유별

(단위: 명)

구분	사업 폐지	사업 축소	기타	합계
연도 합계	1,094 (1,583)	745 (598)	141 (91)	1,980 (2,272)
2018년4월	115 (130)	96 (56)	6 (4)	217 (190)
2018년5월	24 (57)	31 (31)	7 (5)	62 (93)
2018년6월	45 (139)	17 (45)	7 (5)	69 (189)
2018년7월	89 (271)	38 (29)	22 (4)	149 (304)
2018년8월	162 (67)	57 (62)	8 (12)	227 (141)
2018년9월	37 (182)	47 (64)	7 (3)	91 (249)
2018년10월	81 (112)	57 (68)	7 (7)	145 (187)
2018년11월	197 (156)	36 (54)	7 (11)	240 (221)
2018년12월	69 (78)	49 (20)	29 (7)	147 (105)
2019년1월	54 (97)	42 (34)	7 (2)	103 (133)
2019년2월	84 (144)	101 (57)	13 (3)	198 (204)
2019년3월	137 (150)	174 (78)	21 (28)	332 (256)

주: ( ) 내는 전년도 수치임

자료: 후생노동성(2018),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장애인위원회 해고 수가 2008년 2,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에 증가후 2018년에 다시 감소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Hello Work에 신고된 장애인의 해고자 수는 1,980명 이었음(2017년 도는 2,272명)
- 2018년 11월 장애인 해고 인원이 1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 재정

〈표 17-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16년~2017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도 예산금액	2017년도 예산금액	2017년도 결산금액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총 금액	1,813,932	1,925,523	1,845,458
분야별 시책 합계	1,813,855	1,925,441	1,845,408
[생활지원]	1,207,595	1,318,001	1,315,164
1.상당지원체세의 구축 (후생노동성)	1,019,503	1,090,985	1,075,437
2.재택 서비스 등의 총실()	16,510	16,570	25,974
3.장애인지원의 총실()	152,919	191,531	195,701
4.서비스의 질의 향상()	1,054	1,054	1,088
5.인재의 육성/확보()	-	-	-
6.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또는 신체장애인보조건의 육성()	17,609	17,861	16,964
7.장애 복지서비스 등의 단계적인 검토	-	-	-
[보건/의료]	376,866	377,688	312,837
1.보건/의료의 총실()	231,530	232,685	222,372
2.정신보건/의료의 제공()	19,518	18,727	898
3.연구개발의 추진	10,146	10,000	11,014
4.인재의 육성/확보	48	48	53
5.난치병에 관한 시책의 추진	115,624	116,228	78,500
6.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예방/치료()	-	-	-
[교육, 문화예능활동, 스포츠]	20,427	19,191	14,481
1.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의 구축()	16,575	15,591	13,504
2.교육환경의 설비	140	144	142
3.고등교육 지원의 추진	-	45	45
4.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의 진흥	3,712	3,411	790
[고용/취직, 경제적 자립의 지원]	203,978	206,410	198,646
1.장애인고용의 촉진	5,505	6,500	5,754
2.종합적인 취업지원	21,076	23,556	21,656
3.장애특성에 대응한 취업지원 또는 다양한 취업기회에 확보()	2,983	2,603	1,677
4.복지적 취업 끌어올리기(후생노동성)	0	0	0
5.경제적 자립의 지원()	174,414	173,751	169,559
[생활환경]	315	204	196
1.주택 확보	-	-	-
2.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화의 추진	55	62	51
3.공공적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추진	228	122	128
4.장애인에게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	32	20	17

〈표 17-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16년~2017년도(계속)

(단위: 백만)

[정보접근성]	570	565	502
1.정보통신에 있어서의 정보접근성 향상()	8	8	0
2.정보제공의 충실()	388	381	326
3.의사소통지원의 충실	158	162	162
4.행정정보의 배리어프리화	16	14	14
[안전/안심]	3,047	2,145	2,437
1.방재 대책의 추진	-	-	-
2.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구제	3,038	2,136	2,437
3.방범대책의 추진	9	9	0
4.소비자트러블 방지 또는 피해에서의 구제	-	-	-
[차별의 해소, 권리호용의 추진]	530	678	593
1.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	60	65	22
2.권리호용의 추진()	470	613	571
[행정서비스의 배려]	519	552	551
1.행정기관의 배려 또한 장애인이해의 촉진()	-	-	-
2.선거의 배려	0	3	0
3.사법절차의 배려	519	549	519
4.국가시험에 관한 배려	-	-	-
[국제교류]	8	7	1
1.국제적인 사업의 참가	0	0	0
2.정부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의 추진	-	-	-
3.국제적인 정보발신()	8	7	1
4.장애인의 국제교류의 추진	-	-	-
추진체제 합계	77	82	50
[연계/협력의 확보]	0	0	0
[홍보/계발활동의 추진]	45	51	26
1.홍보/계발활동의 추진	30	35	2
2.장애 또한 장애인이해의 추진	15	16	24
3.봉사활동의 추진	-	-	-
[진행 관리 및 평가(내각부)]	22	21	11
[법제적 정비()]	-	-	-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내각부·법무부)]	10	10	13

주: 1) 표는 장애인 기본 계획 (제4차) <2018~ 2022년도> 의 분야별 시책 추진 체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  
 2) 표는 백만엔 미만은 반올림해서 백만 단위로 나타내고 있음  
 3)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결산 금액 총계」 항목은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 있는 시책/사업에 합계액임  
 4)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없는 시책/사업은 '-'로 표기함  
 5) 각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제계 분은 계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내각부(2018), 「2018년 장애인백서」



〈표 17-4-2〉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18년도

(단위: 백만)

구분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총 금액	2,043,946	2,193,634	149,688
분야별 시책 합계	2,047,047	2,193,590	149,689
[안심, 안전한 생활환경의 실비]	1,156,286	1,242,332	86,046
1. 주택의 확보	1,156,194	1,242,212	86,018
2. 이동하기 쉬운 환경정비	59	58	-1
3. 접근성에 배려한 시설, 제품등의 보급촉진	15	46	31
4. 장애인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	18	16	-2
[정보접근성의 향상 및 의사소통지원의 충실]	5,594	5,815	221
1. 정보통신에 있어서 정보접근성 향상	4,990	5,202	212
2. 정보제공의 충실	576	610	34
3. 의사소통의 충실	-	-	-
4. 행정정보 접근성의 향상	28	3	-25
[방재, 방법의 추진]	4,202	2,644	-1,558
1. 방재대책 추진	-	-	-
2.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재해로부터의 구제의 추진	3,987	2,400	-1,587
3. 방범대책 추진	215	244	29
4. 소비자 문제 방지 및 피해에서의 구제	0	0	0
[차별의 해소, 권리옹호의 추진 및 확대방지]	18,757	19,839	1,082
1. 권리 옹호의 추진, 확대 방지	522	725	203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	18,235	19,114	879
[자립한 생활 지원, 의사결정지원추진]	265,411	315,310	49,899
1. 의사결정지원 추진	-	-	-
2. 상담 지원 체제 구축(내각부·후생노동성)	1,580	1,928	348
3. 지역 이행 지원 재택 서비스 등의 충실(후생노동성)	9,473	9,909	436
4. 장애 이동에 대한 지원의 충실(내각부·후생노동성)	238,173	287,138	48,965
5. 장애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후생노동성)	978	904	-74
6. 복지 용구 기타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기기의 보급 촉진·연구개발 및 장애인 보조견 육성 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15,207	15,431	225
7. 장애 복지를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확보(후생노동성)	-	-	-

〈표 17-4-2〉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18년도(계속)

(단위: 백만)

[보건·의료추진]	365,731	374,352	8,621
1. 정신 보건·의료의 적절한 제공 등(법무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7,815	8,218	403
2. 보건·의료의 충실 등(후생노동성)	229,541	230,060	519
3. 보건 의료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등의 추진(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10,384	10,773	389
4. 보건·의료 지원 인력의 육성·확보(후생노동성)	48	48	0
5. 난치병에 대한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후생노동성)	117,943	125,253	7,310
6.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의 예방·치료(후생노동성)	-	-	-
[행정 배려의 충실]	522	524	2
1. 사법 절차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경찰청·법무부·후생노동성)	522	524	2
2. 선거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총무성)	-	-	-
3. 행정기관 등의 배려와 장애인 이해의 촉진 등(전 부처)	-	-	-
4. 국가 자각에 대한 배려 등(전 부처)	0	0	0
[고용/취직, 경제적자립의 지원]	203,653	208,087	4,434
1. 종합적인 취업 지원(후생노동성)	25,302	26,039	737
2. 경제적 자립 지원(전 부처)	173,648	176,339	2,691
3. 장애인 고용 촉진(전 부처)	3,252	3,275	23
4. 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다양한 취업 기회 확보(총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국토교통성)	1,451	2,434	983
5. 복지적 취업 끌어 올리기(후생노동성)	-	-	-
[교육의 진흥]	22,025	24,005	980
1. 인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의 추진(문부과학성)	22,567	23,300	733
2. 교육 환경의 정비(문부과학성)	4	4	0
3. 고등 교육에서 장애 학생 지원의 추진(문부과학성)	40	34	-6
4. 평생을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의 충실(문부과학성)	414	667	253
[문화예술활동/스포츠등의 진흥]	702	664	-38
1. 문화 예술 활동, 여가·휴양 활동의 충실을 위한 사회환경의 정비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213	232	19
2.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장애인등 경쟁 스포츠에 관한 대책 추진(문부과학성)	489	432	-57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연계의 추진]	18	18	0
1. 국제 사회를 향한 정보 발신의 추진 등(내각부·외무성)	18	18	0
2. 국제적인 통과와 연계 추진(내각부·외무성)	-	-	-
3.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의 추진 등(외무성)	-	-	-
4. 장애인의 국제 교류 등의 추진(내각부·외무성·후생노동성)	-	-	-
시책의 원활한 추진	45	44	-1
[연계/협력의 확보]	25	25	0
[이해촉진/홍보개발의 추진]	20	19	-1

주: 1) 표는 장애인 기본 계획 (제4차) <2018~ 2022년도>의 분야별 시책 추진 체계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  
 2) 표는 백만엔 미만은 반올림해서 백만 단위로 나타내고 있음  
 3)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결산 금액 총계」 항목은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 있는 시책/사업에 합계책임  
 4)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없는 시책/사업은 '-'로 표기함  
 5) 각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계계 분은 계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내각부(2019), 「2019년 장애인백서」



## 5) 복지

〈표 17-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단위: 호)

구분	공영주택건설호수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임대조치호수
2004년	132	2,157
2005년	128	1,282
2006년	107	1,663
2007년	66	686
2008년	70	537
2009년	102	674
2010년	97	387
2011년	83	144
2012년	36	213
2013년	20	103
2014년	59	67
2015년	54	183
2016년	49	36

주: 1)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임대조치호수에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포함가구 등에 대한 임대조치호수도 포함함

2) 임대조치내용은 당월되는 확률을 일반보다 20배 높이고 있음

자료: 내각부(2018), 「2018년 장애인백서」

#### ※※ 공공 임대 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신설되는 모든 공영주택,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개량주택 및 공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신의 특성에 따른 설비 등의 설치에 배려해, 배리어프리를 표준 사양으로 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개축 혹은 개선을 함으로써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을 위한 공영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것이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사비에 따른 조성의 한도액을 특별적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

#### ※※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 한 주택 스톡 형성 추진

-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을 배려한 주택 스톡을 형성하기 위해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설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체기능이 저하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설계를 고려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증권화지원사업의 ‘플랫35S’는 배리어프리성이 우수한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의 인하를 실시하고 있음

〈표 17-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내는 2016년도 수치임

구분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2017년도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이며, 화장실을 설치한 여객 시설 수	2017년도	
		단차의 해소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철도역	3,575 (3,559)	3,192 (3,098)	89.3% (87.0%)	3,372 (3,343)	94.3% (93.9%)	3,340 (3,328)	2,846 (2,801)	85.2% (84.2%)
버스터미널	47 (46)	44 (42)	93.6% (91.3%)	43 (41)	91.5% (89.1%)	40 (39)	29 (28)	72.5% (71.8%)
여객선터미널	15 (15)	15 (15)	100% (100%)	11 (10)	73.3% (66.7%)	13 (13)	12 (11)	92.3% (84.6%)
	37 (35)	33 (31)	89.2% (88.6%)	37 (35)	100% (100%)	37 (35)	36 (34)	97.3% (97.1%)
공항								

자료: 내각부(2018), 「2018년 장애인백서」  
국토교통성(2018), 「이동원활화실적보고서」

- 2016년도 일본에서 1일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철도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 4가지 시설 중에서 단차의 해소는 여객선터미널이 100% 실행하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은 66.7%로 실행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공항에서는 100%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한 기본 방침에 의해서, 하루 평균 이용자 5,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에 대해 2010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책을 추진해왔음, 하지만, 목표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본 방침을 개정(2011년 3월 31일 고시)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 3,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표 17-5-3〉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내는 2016년도 수치임

구분		총 차량 수	이동 원활화기준을 따른 차량 수
버스	철도	52,527 (52,212)	37,420 (35,343) 71.2% (67.7%)
	논 스텝 버스	46,132 (45,467)	26,002 (24,241) 56.4% (53.3%)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	14,192 (14,962)	834 (868) 5.9% (6.0%)
	여객선	660 (663)	289 (267) 43.8% (40.3%)
	비행기	623 (612)	609 (594) 97.8% (97.1%)

자료: 내각부(2018). 「2018년 장애인백서」  
국토교통성(2017). 「이동원활화실적보고서」

〈표 17-5-4〉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단위: 기)

구분	가수
고령자 등 감응 신호기	6,771
보행자 감응 신호기	1,346
시각 장애인 용 부가 장치	19,483
음향 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	3,409
보행자 지원 장치	536

자료: 내각부(2018), 「2018년 장애인백서」

- 2016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자 감은 신호기는 6,771기, 보행자 감은 신호기는 1,346기,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는19,483기,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는 3,409기, 보행자 지원 장치는 536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 됨

## ❖❖ 장애인 이용을 배려한 신호기 등의 설치

- 음향을 이용해서 신호 표시 상태를 알려주는 음향신호등, 신호 표시판에 파란불이 켜지는 시간까지의 대기시간 및 파란불의 남은시간을 표시하는 경과시간 표시기능이 있는 보행자용 조명 장치, 보행자 등과 차량이 통행하는 시간을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보/차부리형 신호 등의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기 등의整備를 추진하고 있음

## 6) 정신건강

〈표 17-6-1〉 정신질환 환자 수

(단위: 만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204.1	258.4	302.8	323.3	320.1	392.4	419.3
외래환자 수	170	223.9	267.5	290	287.8	361.1	389.1
입원환자 수	34.1	34.5	35.3	33.3	32.3	31.3	30.2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표 17-6-2〉 정신질환 환자 수 - 질병별

(단위: 만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204.1	258.4	302.8	323.3	320.1	392.4	419.3
치매(혈관성 등)	12.1	13.8	14.5	14.3	14.6	14.4	14.2
치매(알츠하이머 병)	2.9	8.9	17.6	24.0	36.6	53.4	56.2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 및 망상성장애	66.6	73.4	75.7	79.5	71.3	77.3	65.2
감정장애(우울증포함)	44.1	71.1	92.4	104.1	95.8	111.6	140.0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및 신체표현장애	42.4	50.0	58.5	58.9	57.1	72.4	85.8
정신작용 물질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5.0	5.6	6.0	6.6	7.8	8.7	7.0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8.4	10.3	12.4	16.4	17.6	33.5	33.0
뇌전증	23.5	25.8	27.3	21.9	21.6	25.2	21.8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 정신질환 환자 수는 1999년 204.1만 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419.3만명이며, 해마다 증가함
- 입원환자 수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외래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의 증가가 더 큼
- 1999년~2002년에는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감정장애(우울증 포함)의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해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함

※ 각분류의 ICD-10에 따른 정확한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치매(혈관성 등): 혈관 및 상해 불명의 치매
- 치매(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병
- 정신분열증 등: 정신 분열증, 정신분열증형 장애 및 망상성장애
- 우울증 등: 기분 [감정] 장애 (양극성장애 포함)
- 불안 장애 등: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및 신체표현장애
- 약물·알코올 중독 등: 정신작용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기타: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표 17-6-3〉 정신질환 환자 수 - 연령별

(단위: 만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204.1	258.4	302.8	323.3	320.1	392.4	419.3
0~24세	19.4	23.6	27.9	28.3	28.5	36.8	39.0
25~34세	27.2	36.7	41.1	37.1	34.8	37.2	37.0
35~44세	29.1	37.0	48.9	52.5	52.7	60.7	60.1
45~54세	37.2	43.3	42.8	45.5	43.6	55.8	67.2
55~64세	34.5	41.4	47.9	50.9	44.9	51.3	52.6
65~74세	32.4	38.8	43.2	47.1	40.0	55.1	58.6
75세이상	24.4	37.1	50.3	61.5	75.2	95.8	104.8
미상	0.7	0.6	0.6	0.6	1.1	1.0	0.7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 1999년~2002년에는 45~54세의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2005년~2017년까지 75세 이상의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14년에는 95.8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24.4만 명 → 95.8만 명)과 0~24세(19.4만 명 → 36.8만 명)의 환자 수 증가가 현저한 것을 알수 있음

〈표 17-6-4〉 정신질환 외래환자 수 - 질병별

(단위: 만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170.0	223.9	267.5	290.0	287.8	361.1	389.1
치매(혈관성 등)	7.5	8.4	9.1	9.9	10.7	11.4	11.4
치매(알츠하이머 병)	1.9	7.0	14.7	20.7	32.5	48.7	51.3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 및 망상성장애	3.2	3.9	4.3	5.2	6.5	7.3	63.9
감정장애(우울증포함)	45.3	53.1	55.8	60.8	53.9	60.7	124.6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및 신체표현장애	41.6	68.5	89.6	101.2	92.9	108.7	82.8
정신적용 물질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41.7	49.4	58.0	58.4	56.5	71.8	6.4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7.1	9.1	11.1	15.0	16.2	32.0	31.4
뇌전증	22.7	25.1	26.6	21.2	20.9	24.5	21.1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표 17-6-5〉 정신질환 외래환자 수 - 연령별

(단위: 만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170.0	223.9	267.5	290.0	287.8	361.1	389.1
0~24세	18.5	22.8	27.2	27.7	27.9	36.3	38.5
25~34세	25.2	34.9	27.2	35.8	33.7	36.2	36.2
35~44세	25.7	34.2	46.2	50.0	50.4	58.5	58.2
45~54세	29.9	36.8	37.7	41.6	40.2	52.4	63.9
55~64세	26.5	33.8	39.7	43.3	37.8	45.5	47.7
65~74세	26.3	32.0	36.0	39.9	33.3	47.8	51.4
75세~	18.1	28.9	40.6	51.4	64.2	84.9	93.3
미상	0.6	0.5	0.5	0.6	1.0	1.0	0.7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 정신질환 외래환자 수는 1999년에 170.0만 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389.1만명이며, 해마다 증가함
- 1999년에는 감정장애(우울증 포함)의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 및 신체 표현 장애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연령별로 봤을 때, 1999년~2002년에는 45~54세의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2005년에는 35~44세가 46.2만 명으로 가장 많음. 또한 2008년~2017년 사이에는 75세 이상의 환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크게 증가함. 또한 2017년에는 93.3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 75세 이상(18.1만 명 → 93.3만 명) 및 0~24세(18.5만 명 → 38.5만 명)의 연령대에서 환자 수 증가가 두드러짐



〈표 17-6-6〉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질병별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34.1	34.5	35.3	33.3	32.3	31.3	30.2
치매(혈관성 등)	4.6	5.4	5.4	4.4	3.9	3.0	2.8
치매(알츠하이머 병)	1.0	1.9	2.9	3.3	4.1	4.7	4.9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 및 망상성장애	1.9	1.8	1.7	1.4	1.3	1.4	1.3
감정장애(우울증포함)	21.4	20.3	19.9	18.7	17.4	16.6	15.4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및 신체표현장애	2.6	2.6	2.8	2.9	2.9	2.9	3.0
정신작용 물질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0.7	0.6	0.5	0.5	0.6	0.6	0.6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1.3	1.2	1.3	1.4	1.5	1.5	1.6
뇌전증	0.8	0.7	0.7	0.7	0.7	0.7	0.7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표 17-6-7〉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34.1	34.5	35.3	33.3	32.3	31.3	30.2
0~24세	0.9	0.8	0.7	0.6	0.6	0.6	0.5
25~34세	2.0	1.8	1.6	1.3	1.1	1.0	0.8
35~44세	3.4	2.8	2.7	2.5	2.3	2.2	1.9
45~54세	7.3	6.5	5.1	3.9	3.4	3.4	3.3
55~64세	8.0	7.6	8.2	7.7	7.1	5.8	4.9
65~74세	6.1	6.8	7.2	7.2	6.8	7.3	7.2
75세~	6.3	8.2	9.7	10.1	11.0	11.0	11.5
미상	0.1	0.1	0.1	0.1	0.1	0.1	0.0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1999년 34.1만 명이지만, 2017년에는 30.2만 명이며,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질병별로 봤을 때 1999년~2017년 사이에 감정장애(우울증 포함)의 환자 수가 21.4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한편, 치매(알츠하이머 병)은 1999년에는 1.0만 명에서 2017년 4.9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봤을 때 1999년에는 55~64세의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2002년~2017년 사이에는 75세 이상의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0~64 세의 입원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에서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7-6-8〉 정신병상 입원환자 수 - 질병별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전체	32.9	32.1	32.4	30.7	29.3	28.9
치매(혈관성 등)	3.0	3.3	3.4	2.9	2.6	2.0
치매(알츠하이머 병)	0.7	1.1	1.9	2.3	2.8	3.3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장애 및 망상성장애	21.2	20.1	19.7	18.5	17.2	16.4
감정장애(우울증포함)	2.1	2.2	2.4	2.5	2.6	2.6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및 신체표현장애	0.5	0.4	0.4	0.4	0.4	0.5
정신적용 물질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1.8	1.7	1.7	1.3	1.2	1.3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1.2	1.1	1.1	1.2	1.2	1.3
뇌전증	0.4	0.4	0.3	0.2	0.2	0.2
지적장애	0.8	0.8	0.7	0.7	0.5	0.5
기타	1.4	1.0	1.0	0.7	0.7	0.9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표 17-6-9〉 정신병상 입원환자 수 -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전체	32.9	32.1	32.4	30.7	29.3	28.9
0~24세	0.7	0.6	0.5	0.5	0.5	0.5
25~34세	2.0	1.8	1.6	1.3	1.1	1.0
35~44세	3.5	2.9	2.8	2.5	2.3	2.2
45~54세	7.6	6.7	5.2	4.0	3.5	3.5
55~64세	8.2	7.8	8.4	7.8	7.2	5.9
65~74세	6.1	6.6	7.1	7.1	6.6	7.2
75세~	4.8	5.7	6.8	7.4	8.1	8.5
미상	0.1	0.1	0.1	0.1	0.1	0.0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 정신병상의 입원환자 수는 1999년에 32.9만 명이지만 2014년에는 28.9만 명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질병별로 봤을 때 1999년~2014년까지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환자 수가 21.2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환자 수가 16.4만 명으로 조사됨. 한편, 환자의 증가 수가 많은 것으로, 치매(알츠하이머 병) 및 감정장애(우울증 포함)를 들 수 있음. 치매(알츠하이머 병)는 1999년 0.7만 명에서 2014년에 3.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장애(우울증 포함)는 2.1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증가함
- 연령별로는, 1999년~2008년에는 55~64세의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2011년~2014년 사이에는 75세 이상의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0~64세의 입원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17-6-10〉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재원기간별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전체	32.9	32.1	32.4	30.7	29.3	28.9
1년 미만	9.4	9.5	10.3	10.1	10.0	10.3
1년 이상~5년 미만	8.8	8.9	9.0	8.7	8.5	8.5
5년 이상	14.6	13.6	12.9	11.8	10.8	10.0
불명	0.2	0.2	0.2	0.1	0.1	0.0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표 17-6-11〉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 - 입원상황별

(단위: 만 명)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전체	32.9	32.1	32.4	30.7	29.3	28.9
생명에 위기는 적지만 입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	19.7	19.0	18.8	19.1	22.5	22.2
생명에 위험이 있다	0.5	0.6	0.6	0.4	0.5	0.6
조건이 되면 퇴원가능	7.2	6.9	7.6	6.2	5.0	5.3
검사입원	0.0	0.0	0.0	0.0	0.0	0.0
기타	5.6	5.6	5.4	4.9	1.2	0.7

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 함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환자조사」

- 1999년에는 입원기간이 5년 이상인 환자 수가 14.6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2014년에는 1년 미만의 환자 수가 10.3만 명으로 가장 많음
- 입원환자의 입원기간별로 봤을 때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입원기간이 1년 미만의 환자 수는 9.4만 명 → 10.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1년 이상 5년 미만의 환자 수는 8.8만 명 → 8.5만 명, 5년 이상은 14.6만 명 → 1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원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입원상황별로 봤을 때, 매년 “생명에 위기는 적지만 입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19.7만 명(1999년)에서 22.2만 명(2014년)으로 증가함. 반면, 2번째로 많은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면 퇴원 가능한 환자” 수는 7.2만 명(1999년)에서 5.3만 명(2014년)으로 감소함

〈표 17-6-12〉 정신병상을 보유하는 병원 수

(단위: 개소)

구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병원 전체 수	9,490	9,286	9,187	9,026	8,794	8,605	8,493
정신병상을 보유하지 않는 병원	7,822	7,614	7,518	7,352	7,128	6,951	6,850
정신병상을 보유하는 병원	611	612	600	601	587	578	576
정신과 병원	1,057	1,060	1,069	1,073	1,079	1,076	1,067

자료: 후생노동성(각 년도), 「의료시설조사」

〈표 17-6-13〉 정신병상 수 및 입원환자 수

(단위: 만 명, 만상)

구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입원환자 수	만명	33.4	33.2	32.5	31.5	30.7	29.6
정신병상 전체 수	만상	35.8	35.6	35.4	34.9	34.4	33.8
일반병원	만상	9.9	9.5	9.4	9.1	8.8	8.5
정신과병원	만상	26.1	26.1	26.1	25.9	25.6	25.3

- 주: 1) 2011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미야기현의 일부와 후쿠시마현을 제외함  
 2) 정신과병원은 여기서 정신 병상만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의미함  
 3) 일반 병원은 여기서 정신 병상 외에 일반 병상과 요양 병상을 가진 병원을 의미함  
 자료: 1) 후생노동성(각 년도), 「의료시설조사」  
 2) 후생노동성(각 년도), 「병원보고」

〈표 17-6-14〉 정신병상 퇴원환자 퇴원 후 상황

구분	환자 수	가정	다른 병원에 입원	노인보건시설 입소	특별 양호 노인홈 입소	사회복지시설 입소	기타(사망, 불명 등)
	명	%	%	%	%	%	%
전체	33,200	66.6	14.5	2.7	3.0	5.7	7.2
3개월 미만	22,500	76.9	10.2	0.9	1.8	4.4	2.7
3개월 이상 1년 미만	6,900	56.5	14.5	7.2	4.3	8.7	8.7
1년 이상 5년 미만	2,600	19.2	30.8	3.8	3.8	3.8	26.9
5년 이상	1,200	8.3	41.7	0.0	0.0	8.3	33.3

- 주: 1) 표는 2017년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임  
 2) 여기서의 기간은 입원기간을 나타낸 것임  
 자료: 후생노동성, 「환자조사」

- 1996년의 병원 전체 수는 9,490개소였으나, 이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정신병상을 보유하지 않는 병원, 정신 병상을 보유하는 병원, 정신과 병원 모두 감소하고 있음
- 2014년의 병원 전체수는 8,493개소이며, 그 중 정신병상을 보유하지 않는 병원 수는 6,850개소, 정신병상을 보유하는 병원 수는 576개소, 정신과 병원 수는 1,067개소로 나타남
- 정신병상수는 2014년 33.8만상 정도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음. 정신병상의 입원환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33.4만 명 이었지만 2014년에는 29.6만 명이 됨

- 정신병상 퇴원환자의 퇴원 후 상황을 보면, 입원기간이 1년 미만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환자 수 가 가장 많으며, 입원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IV

###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2. 국외통계 지표



## IV. 지표설명

### 1. 국내통계 지표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함</li> <li>-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가구조사, 장애판별조사</li> <li>•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li> </ul> </li> </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건사회연구원</li> </ul>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인 출현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li> <li>▪ 3년 주기로 산출함</li> </ul> </li> <li>- <b>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li> <li>▪ 조사항목으로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이 있음</li> </ul> </li> <li>- <b>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li> <li>▪ 조사항목으로는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등이 있음</li> </ul> </li> <li>- <b>월평균 가구소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1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li> <li>▪ 현금, 현물, 사적·공적 이전소득은 포함하며, 바우처 금액은 제외함</li> <li>▪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계산</li> </ul> </li> <li>- <b>월평균 가구지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부채 및 이자 납부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li> <li>▪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li> <li>▪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li> </ul> </li> <li>- <b>장애로 인한 추가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li> <li>▪ 조사항목으로는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기타 등이 있음</li> </ul> </li> <li>- <b>건강보험 가입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건강보험: 시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li> <li>▪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li> <li>▪ 의료급여 1종·2종: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 의료급여 1종·2종에 가입된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li> <li>■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li> <li>■ 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는 화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화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가 지원됨</li> <li>• 교육: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급되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함</li> <li>• 자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함</li> <li>• 이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구들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li> </ul> </li> </ul> </li> <li>- 장애인보조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이나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li> </ul> </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 이후 5년 마다 조사</li> <li>-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li> <li>-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li> <li>- 총 10차례 실시(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stat.mw.go.kr">http://stat.mw.go.kr</a></li> <li>- <a href="http://www.khasare.kr">http://www.khasare.kr</a></li> </ul>

##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8), 「2018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li><li>-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나뉨</li></ul>					
조사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활체육 참여형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li><li>▪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li><li>▪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 안에서 운동하는 자</li></ul></li></ul>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 href="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a></li><li>- <a href="http://www.kosad.or.kr">http://www.kosad.or.kr</a></li></ul>					

## ○ 국립재활원(2019),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amp;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건강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함</li> <li>-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제시하고 보급하는게 주된 목적임</li> <li>-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장애인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사망현황'으로 나뉨</li> </ul>																		
조사기관	- 국립재활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법위 및 대상: 1차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피부양자'이며,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또는 만 70세, 만74세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판정자를 말함</li> <li>▪ 대상인원: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1차, 2차 대상자 수입</li> <li>▪ 수검인원: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1차, 2차 수검자 수입</li> <li>▪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인원/건강검진 대상인원*100</li> </ul> </li> <li>-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법위 및 대상: 1차검진 대상자는 만40세, 만66세에 해당하는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 근로자, 직장피부양자이며, 2차검진 대상자는 1차검진 대상자 전체를 말함</li> <li>▪ 수검률: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인원/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인원*100</li> </ul> </li> <li>- 암검진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법위 및 대상                   <table border="1" data-bbox="333 791 1077 1037"> <thead> <tr> <th>검진종류</th><th>검진대상</th></tr> </thead> <tbody> <tr> <td>위암</td><td>· 만40세 이상인 자</td></tr> <tr> <td>대장암</td><td>· 만50세 이상인 자</td></tr> <tr> <td></td><td>·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td></tr> <tr> <td>간암</td><td>·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td></tr> <tr> <td></td><td>-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td></tr> <tr> <td></td><td>-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td></tr> <tr> <td>유방암</td><td>· 만40세 이상인 여성</td></tr> <tr> <td>자궁경부암</td><td>· 만30세 이상인 여성</td></tr> </tbody> </table> </li> </ul> </li> <li>- 구강검진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인원/구강검진 대상인원*100</li> </ul> </li> <li>-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실 인원: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li> <li>▪ 입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li> <li>▪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li> <li>▪ 1회당 진료비: 총진료비/입내원일수</li> </ul> </li> <li>- 장애인 진료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li> <li>▪ 본인부담금: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li> </ul> </li> </ul>	검진종류	검진대상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간암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
검진종류	검진대상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간암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rc.go.kr																		



##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조사함</li>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함</li> <li>-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 9~24세 청소년 자녀'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구성표 : 가구 구성, 가구 특성</li> <li>•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li> <li>• 기타 일반사항</li> <li>•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li> <li>• 만 9~24세 청소년 자녀 :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자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 활동 상태</li> </ul> </li> </ul>
<b>조사기관</b>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다문화 가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li> </ul> </li> </ul>
<b>조사주기</b>	- 3년 주기
<b>정보출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mogel.go.kr">http://www.mogel.go.kr</a></li> <li>- <a href="http://www.kwdire.kr/">http://www.kwdire.kr/</a></li> </ul>

##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15), 「2015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li> <li>- 「주택법」, 제6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li> <li>- 조사내용으로는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주택 가치권,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등이 있음</li> </ul>
<b>조사기관</b>	- 국토연구원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li> <li>•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춘</li> <li>•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li> </ul> </li> <li>▪ 주택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li> <li>•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li> <li>•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li> <li>•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li> <li>•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옴막(주거용도로 사용되거나 건축 재료나 구조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li> </ul> </li> <li>▪ 점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li> <li>•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li> <li>•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li> <li>•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li> <li>•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li> </ul> </li> </ul> </li> </ul>

	<p>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p> <p>— 주거지원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가 포함됨</li> <li>▪ 공공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li> <li>•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li> <li>•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으로, 서울시와 S+공사가 공급하는 SH가 대표적인 예임</li> <li>•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li> <li>•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li> <li>•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li> </ul> </li> </ul>
조사주기	<p>— 1년 주기(일반조사는 짝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에 실시)</p> <p>— 특수조사 대상으로는 노인가구·장년가구·사설거주 노인, 장애인가구, 임대주택가구, 저소득가구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가구·장년가구·사설거주 노인 : 2007년 실시</li> <li>• 장애인가구 : 2009년, 2015년, 2017년 실시</li> <li>• 임대주택가구 : 2011년 실시</li> <li>• 저소득가구 : 2013년 실시</li> <li>• 신흥부부가구(패널) : 2014년, 2015년, 2016년</li> </ul>
정보출처	<p>— <a href="http://www.molli.go.kr">http://www.molli.go.kr</a></p> <p>— <a href="http://www.onnara.go.kr">http://www.onnara.go.kr</a></p>

##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개요	<p>—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p> <p>—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실시함</p>
조사기관	— 교육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p>— 특수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li> </ul> <p>— 특수학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li> </ul> <p>— 진학률, 취업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li> </ul> </li> <li>▪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li> </ul> </li> </ul>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a href="http://www.moe.go.kr">http://www.moe.go.kr</a>



## ○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b>조사개요</b>	-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b>조사기관</b>	- 보건복지부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아 전문 어린이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li> </ul> </li> <li>- <b>장애아 통합 어린이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알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알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li> </ul> </li> </ul>
<b>조사주기</b>	- 1년 주기
<b>정보출처</b>	- <a href="http://www.mohw.go.kr">http://www.mohw.go.kr</a>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li>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li> </ul>
<b>조사기관</b>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활동상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li> <li>•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li> </ul> </li> <li>▪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li> <li>•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li> <li>•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li> <li>•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li> </ul> </li> <li>▪ 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li> <li>•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li> <li>•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li> </ul> </li> <li>▪ 비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li> </ul> </li> </ul> </li> <li>- <b>종사상지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li> <li>▪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li> <li>•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정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li> <li>•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li> <li>•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li> </ul> </li> <li>▪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li> <li>•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li> </ul> </li> </ul> </li> </ul>

	<p>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li> <li>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성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li> </ul> <p>— 산업, 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li> <li>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li> </ul> <p>— 구직단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li> </ul> </li> <li>EDI 기준 구직단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서)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li> </ul> </li> </ul>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a href="https://edi.keadd.or.kr">https://edi.keadd.or.kr</a>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개요	<p>—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함</p> <p>—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p>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를 포괄할 수 있으며, 국내 여타 조사의 '사업체'를 단위로 하므로 비교 시 유의</li> </ul> </li> <li>상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산정기준일이 월16일 이상일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산입)</li> </ul> </li> <li>장애인 고용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기업체</li> </ul> </li> <li>장애인 미고용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체</li> </ul> </li> <li>장애인고용의무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체</li> </ul> </li> <li>장애인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근로자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li> </ul> </li> </ul>
조사주기	— 2년 주기 / 2019년부터 1년 주기
정보출처	— <a href="https://edi.keadd.or.kr">https://edi.keadd.or.kr</a>

#### ○ 중소기업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7), 「2017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개요	<p>—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조사함</p> <p>—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함</p>
조사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p>— 장애인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li> </ul>



	축진법, 제2조)
조사주기	- 2년 주기
정보출처	- www.smba.go.kr

##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9),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조사개요	-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함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p>- 소득원천별 가구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li> <li>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li> <li>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li> <li>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li> <li>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li> <li>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li> </ul> <p>- 소비지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li> <li>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li> <li>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li> <li>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li> <li>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li> <li>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li> <li>기타 소비지출: 의료,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아·미용 서비스 등</li> </ul> <p>- 비 소비지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li> <li>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li> <li>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li> <li>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li> <li>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li> <li>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li> </ul> <p>-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li> <li>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li> <li>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li> <li>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 소비지출</li> </ul>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kostat.go.kr

##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p>- 편의시설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li> <li>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li> <li>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li> <li>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파란설비</li> <li>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열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시설 설치율</li> <li>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주기</li> <li>총 5차례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ttp://www.mohw.go.kr</li> <li>http://www.kodi.or.kr</li> </ul>

####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2018), 「2018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함</li> <li>「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함</li> </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안전공단</li> </ul>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li> <li>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li> <li>특별 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주기</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ttp://weak.mtlm.go.kr</li> </ul>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li> </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정보화진흥원</li> </ul>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정보화 수준 및 세부지수</li> <li>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총합) =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 + 디지털정보역량지수(0.4) + 디지털정보활용지수(0.4)</li> <li>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여부'로 측정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li> <li>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으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li> <li>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주기</li> </ul>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ttp://www.nia.or.kr</li> </ul>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개요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따라 웹 사이트의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보접근성 정책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자동 재생 금지, 콘텐츠 간 구분</li> </ul> </li> <li>▪ 운영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보드 사용 보장, 초점 이동, 조작 가능, 응답 시간 조절, 정지 가능 제공,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li> </ul> </li> <li>▪ 이해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 선행 구조,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오류 정정</li> </ul> </li> <li>▪ 견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크업 오류 방지</li> </ul> </li> </ul> </li> </ul>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a href="http://www.nia.or.kr">http://www.nia.or.kr</a>

## ○ 기타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외)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등급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4월 중증장애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li> <li>▪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급심사는 의사중심의 체계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심사 인원이 적은 편이었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심사함으로써 장애 등급심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li> </ul> </li> <li>-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li> </ul> </li> <li>- 장애인 의무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li> <li>▪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li> </ul> </li> </ul>			
	기준연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3%	3%	3%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li> <li>▪ 부담금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li> <li>•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li> </ul> </li> </ul> </li> </ul>			

#### IV. 지표설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장장애인만마사파견사업/별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 장예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래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기금 기간 중 생계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만치 후회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재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금액에 말한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등급과 가입종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일당위로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당위로 지급함**

## － 산재보험

- 산업위해를 당한 근로자에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임 국가근로복지공단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위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금급,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산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위험률, 규모, 장소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 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해지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충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 장애인연금

- 나 신청일이 속한 월 당 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로 포함된 중·년인 예외로 인정함
- 중증장애인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합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장애가 하나 이상 추가되면 3급 중증장애(주된장애가 3급이며 그 외 부장애가 4~6급인 경우)인 그러나 중증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는 제외함
- 직업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병정유체국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인정액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15년 기준은 단독가구 930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임

##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양생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정해진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에서 가구구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에 뺀 것임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1,2,3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애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실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 만 6세이상 만 64세 이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인 경우로 선정함,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함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함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증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계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 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무료 이용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대상: 등록장애인(정원의 30%이하)
- 시군·구청장에게 사실서비스 이용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일부 지역주민(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인 의료재활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li> <li>▪ 진료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행할 수 있음.</li> </ul> </li> <li>- <b>장애인 직업재활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li> <li>▪ 직업재활시설 종류: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li> </ul> </li> <li>- <b>정신보건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함</li> <li>▪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 12조 제1항의 시설 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li> <li>▪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li> <li>▪ 사회복지시설로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이 있음</li> <li>▪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li> </ul> </li> <li>- <b>응급알림 e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알림 e서비스는 위험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임</li> </ul> </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내부자료</li> <li>- 제도별 사업안내서</li> <li>-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li> <li>-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li> </ul>



## 2. 국외통계 지표

### 1) OECD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li> <li>-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li> </ul>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li> <li>▪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li> </ul> </li> </ul>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위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율 =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li> <li>▪ OECD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li> <li>▪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임</li> <li>▪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li> <li>▪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li> </ul> </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li> <li>-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li> <li>-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li> <li>- 종합보고서 발간(2010)</li> <li>- 부정기</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www.oecd.org/els/disability">http://www.oecd.org/els/disability</a>

○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주요국가의 정신질환 관련 정책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li> <li>-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별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li> </ul>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li> </ul> </li> <li>- 정신건강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li> <li>▪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li> <li>▪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li> </ul> </li> </ul>
조사주기	- 부정기
정보출처	- <a href="http://www.oecd.org/">http://www.oecd.org/</a>

##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건강 및 보건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li> </ul> </li> <li>-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li> <li>▪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li> </ul> </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www.oecd.org/">http://www.oecd.org/</a>

##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EX)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로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자발적 민간(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Public Social Expenditure)을 포함</li><li>-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과 사회보험급여, 공기업의 교통 및 할인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사회복지보건노동과 관련된 지출과 사회보험지출을 포함</li><li>-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지출을 수집하고 있음</li></ul>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현금 + 현물급여) 비율</li><li>▪ 9개 항목 중 장애인복지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로서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li></ul></li></ul>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li><li>- 산재보험(산재보험)(pensions: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li><li>- 상병급여(산재보험)(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li><li>- 기타상병보조금(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li><li>- 기타 현금급여</li></ul>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거주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li><li>-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li><li>- 기타 현물급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 비율</li></ul></li><li>-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비율</li></ul></li></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a>		



##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출현율</li> <li>-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li> <li>※ For at least the past six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li> </ul> </li> <li>-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w(SCED levels 0~2), medium(SCED levels 3~4), high(SCED levels 5~8) 졸업 인구 중 장애인 비율</li> <li>※ 학력수준은 low(SCED levels 0~2), medium(SCED levels 3~4), high(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li> </ul> </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a>

## ○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는 목적을 가짐</li> <li>- '장애 고용' 조사는 2011년에 추가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ad-hoc module)임</li> </ul>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li> <li>▪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뽑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쥐고/돌리는 것 등임</li> </ul> </li> <li>-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li> </ul> </li> <li>-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15-64세 인구)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li> </ul> </li> <li>-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15-64세) 중 실업자 비율</li> </ul> </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a>

## 2) 프랑스

## ○ AGEFIPH, FIPHFP(2017), 「Les chiffres clés, Les personnes handicapées et l'emploi」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FIPH, FIPHFP(2017), 「장애인 고용」</li> <li>- AGEFIPH, 「장애인의 고용과 실업」</li> <li>- 프랑스 장애인과 고용에 대한 주요 통계 총괄</li> <li>- 장애인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고 유지를 도모함</li> </ul>
조사기관	-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기금(FIPHFP),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판별 기준	- 프랑스 구직센터에 장애인 근로자로 등록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가능 장애인 의무 고용(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 고용의무지력(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li> <li>▪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li> </ul> </li> <li>- 구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les demandeurs d'emploi) : 프랑스 구직센터 (Pole emploi)에 등록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누며 실업자를 지칭할 때의 구직자 용어 사용은 A,B,C 카테고리일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완전 실업 상태</li> <li>B: 짧은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하)</li> <li>C: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상)</li> <li>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 상태</li> <li>E: 고용된 상태</li> </ul> </li> </ul> </li> </ul>
조사주기	- 2017년을 조사점으로 2018년 6월 발간
정보출처	- <a href="http://www.agefiph.fr/">http://www.agefiph.fr/</a>

## ○ AGEFIPH (2017), 「Le tableau de bord,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France entière」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EFIPH, 「장애인의 고용과 실업」</li> <li>- 프랑스 장애인과 고용과 실업에 대한 주요 통계 총괄</li> <li>- 장애인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고 유지를 도모함</li> </ul>
조사기관	-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판별 기준	- 프랑스 구직센터에 장애인 근로자로 등록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가능 장애인 의무 고용(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 고용의무지력(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li> <li>▪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li> </ul> </li> <li>- 구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les demandeurs d'emploi) : 프랑스 구직센터 (Pole emploi)에 등록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누며 실업자를 지칭할 때의 구직자 용어 사용은 A,B,C 카테고리일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완전 실업 상태</li> <li>B: 짧은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하)</li> <li>C: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상)</li> <li>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 상태</li> </ul> </li> </ul> </li> </ul>



	E: 고용된 상태
<b>조사주기</b>	- 2017년 1-9월을 조사시점으로 2017년 12월 발간
<b>정보출처</b>	- <a href="http://www.agetiph.fr/">http://www.agetiph.fr/</a>

## ○ DARES(2015),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en 2013」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RES(2015), 「2013년 장애인 고용과 실업」</li> <li>- 장애인 고용과 실업 현황 파악</li> <li>- INSEE 2013년 고용조사 바탕으로 DARES에서 분석</li> </ul>
<b>조사기관</b>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b>장애판별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li> <li>• 넓은 의미의 장애인</li> </ul> </li> </ul>
<b>조사주기</b>	- 2013년 12월 31일 조사 시점으로 2015년 11월 발간
<b>주요 지표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114조에 의거함. 즉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의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114-1조항에 의하면 "장애는 복합적, 심리적, 인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의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인(거나 영구적인, 혹은 심각한 손상, 건강상의 장애문제로 인하여 한 사람의 모든 활동의 한거나 사회생활에의 참여 제한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li> <li>▪ 넓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구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직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li> <li>▪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 인구를 의미하며, 편익상 좁은 의미로 명명함.</li> <li>▪ 넓은 의미의 장애인 -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업수행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임</li> </ul> </li> <li>- <b>경제활동참여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인구와 비활동인구 정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li> <li>▪ 경제활동인구: 고용되어있거나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li> <li>▪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상태와 실업상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만15세 미만, 학생, 퇴직자(연금수령자), 가정주부, 근로불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타비경제활동인구": 학생이나 퇴직자(연금수령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퇴직(연금수령자) 상태는 아닌 경우. 예를 들면, 40세에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기타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li> <li>▪ 경제활동참여: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에 의하면 경제활동참여는 사회활동참여 카테고리(자율성, 동거·혼인 경험, 교육 수료, 경제활동) 중 한 가지 유형에 속함</li> </ul> </li> </ul>
<b>정보출처</b>	- <a href="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a>

## ○ DARES(2016), 「L'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en 2014」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RES(2016), 「2014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li> <li>-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li> </ul>
<b>조사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li> </ul>
<b>장애판별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의미의 장애인 -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장애인</li> <li>• 넓은 의미의 장애인</li> </ul> </li> </ul>
<b>조사주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12월 31일 조사 시점으로 2015년 11월 발간</li> </ul>
<b>주요 지표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li> <li>▪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li> <li>▪ 고용의무 인구 수 계산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구가 전일제인 경우 전체 포함하여 계산되고, 시간제인 경우 근로 주 당으로 할당하여 계산, 12월 31일 이전에 그만 둔 경우는 제외함, 계약직이나 외부 고용인, 임시직, 기간제, 등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노동 시간을 할당하여 계산</li> </ul> </li> <li>- 고용의무사항 이행 내용 :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임시(대리직 전일제, 시간제, 혹은 전문화수련 과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TH 자격을 가진 장애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호된 영역의 인가된 기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li> <li>▪ 하청업체, 납품업체, 맞춤 특수 기업(EA) 장애인 관리자를 위원회에 의해 노동시장으로 안내된 고용 근로가능 장애인구만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재가노동분배센터(COTD)</li> <li>▪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 담당하는 조직(ESAT),</li> <li>▪ 직업훈련 인턴 장애인도 의무고용 인구 수의 2%로 제한하여 고용 가능 (실습·인턴 장애인은 빈번하지 않은 까닭에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li> </ul> </li> <li>- 기여금(매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매넬티)을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에, 공공사업체는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IPH-FP)에 납부해야함.</li> <li>▪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li> </ul> </li> </ul>
<b>정보출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a></li> </ul>

## ○ DARES(2017), 「L'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2015」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RES(2017),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li> <li>-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체 현황</li> </ul>
<b>조사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li> </ul>
<b>주요 지표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li> <li>▪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li> <li>▪ 고용의무 인구 수 계산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구가 전일제인 경우 전체 포함하여 계산되고, 시간제인 경우 근로 주 당으로 할당하여 계산, 12월 31일 이전에 그만 둔 경우는 제외함, 계약직이나 외부 고용인, 임시직, 기간제, 등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노동 시간을 할당하여 계산</li> </ul> </li> <li>- 고용의무사항 이행 내용 :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임시(대리직 전일제, 시간제, 혹은 전문화수련 과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TH 자격을 가진 장애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호된 영역의 인가된 기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청업체, 납품업체 맞출 특수 기업(EA) 장애인 권리자율 위원회에 의해 노동시장으로 안내된 고용 근로가능 장애인구만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재가노동분배센터(CDID)</li> <li>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 담당하는 조직(ESAT).</li> <li>직업훈련 인턴 장애인도 의무고용 인구 수의 2%로 제한하여 고용 가능 (실습 · 인턴 장애인은 빈번하지 않은 까닭에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li> </ul> <p>— 기어급(패널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어급(패널티)을 민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관리기금(AGEFPA)에, 공공사업체는 공공부문장애인고용관리기금(FPAFP)에 납부해야함.</li> <li>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O)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li> </ul>
조사주기	— 2015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11월 발간
정보출처	— <a href="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a>

## ○ CNSA(2018), 「Les chiffres clés de l'aide à l'autonomie」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SA(2018), 「장애보상수당분석」</li> <li>— 장애인의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고 유지를 도모함</li> </ul>
조사기관	—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 (CNSA)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li> <li>▪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li> <li>▪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li> </ul> <p>— 개인자율수당(A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li> <li>▪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을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li> </ul>
조사주기	— 2016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발간
정보출처	— <a href="http://www.cnsa.fr/">http://www.cnsa.fr/</a>

## ○ DREES(2018), 「Depenses d'aide sociale departementale en 2016」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REES(2017), 「2015년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li> <li>— 복지부문 정부 지출 조사 목적</li> </ul>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li> <li>▪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li> <li>▪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li> </ul> <p>— 개인자율수당(A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li> <li>▪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을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li> </ul>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조사주기	- 2016년 조사 시점으로 2018년 1월 발간
정보출처	- <a href="http://www.drees.sante.gouv.fr/">http://www.drees.sante.gouv.fr/</a>

## ○ DREES(2018), 「Les établissements de sante en 2016」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REES(2017), 「2015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li> <li>- 프랑스 정신질환 치료, 수용시설 조사 목적</li> </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li> <li>- 프랑스 건강 관련 시설 연간 통계(SAE)</li> <li>- 프랑스 정신질환관련현황 보고서(RAPSY)</li> </ul>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신건강관련 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정신질환관련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시간제 돌봄·치료시설과 통원치료센터로 나뉜</li> <li>■ 종일제 돌봄, 치료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원치료시설 : 다루기 힘든 심각한 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li> <li>② 홀스데이치료시설 :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 맡겨져 돌봄을 받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 다른 돌봄치료와 함께 이용 가능</li> <li>③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 심각한 증상으로의 입원치료 후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재적응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치료 연장의 경우 이용</li> <li>④ 거주시설 : 병원을 벗어난 주거돌봄치료시설, 제한된 기간 내, 계속적으로 돌봄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 사회적 재진입을 목적으로 함</li> <li>⑤ 재가입원시설(HAD) : 환자의 가정과 공동거주시설도 포함 제한된 기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재진단, 기간갱신 가능, 재가치료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들의 협력하에 방문치료가 이루어짐</li> <li>⑥ 긴급시설센터 :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증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운영, 단기간 강화된 돌봄 제공</li> </ol> </li> <li>■ 시간제 돌봄, 치료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간병원 : 주간 특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강화되어 복합적인 돌봄치료 제공</li> <li>② 야간병원 : 야간 돌봄치료,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있지만 밤과 주말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li> <li>③ 시간제 치료센터 : 주간병원 수준의 강화된 돌봄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과 자치적인 삶을 재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약화된 돌봄제공</li> <li>④ 치료재활시설 : 사회 혹은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을 목적, 수공품, 예술품, 스포츠활동 등을 통한 직업요법 사용</li> </ol> </li> <li>■ 정신질환관련 미동의 입원 조치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동(의무)입원(HO) : L'hospitalisation d'office, 정신적 질환이 사회질서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 (사실 종사 의사가 아닌) 의사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됨(도지사 명령)</li> <li>② 제3자 요청 입원(HDT) : L'hospitalisation a la demande d'un tiers, 최근 15일 이내의 두 명의 의사 진단서 (입원 필요성 동의 및 정황 설명)를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 일원 중 한 명 또는 관련인의 신청 (단, 사실 종사 중인 요양사는 제외)으로 적용됨, 환자 부모가 의사인 경우 해당 되지 않음</li> <li>③ 비동의 입원(HSC) : L'hospitalisation sans consentement,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즉시 작성되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의사 진단서가 받아들여지면 시설 장은 도청, 지역 정신과 입원 위원회에 관련 서류들을 전송한다. 만일 환자가 입원을 유지할 시 첫 입원 15일이 만료되기 3일 전에 "15일" 입원 진단서를 작성하며 이 진단서로 1개월의 입원이 유지될 수 있음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매 월 갱신신청을 해야함</li> <li>④ 일반 정신질환시설 전일 입원 인소 건수(H) : Nombre d'entrees en hospitalisation complete en psychiatrie generale,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6세 이상의 성인 전일 입원 인소</li> </ol> </li> </ul> </li> </ul>
조사주기	- 2016년 조사 시점으로 2018년 발간
정보출처	- <a href="http://www.drees.sante.gouv.fr/">http://www.drees.sante.gouv.fr/</a>



## ○ DREES(2018), 「Les bénéficiaires de minima sociaux en 2016」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REES(2018), 「2016년 사회기초수당조사」</li> <li>- 프랑스 사회기초수당 수혜자, 재정지출 조사 목적</li> </ul>
<b>조사기관</b>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b>장애판별 기준</b>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b>주요 지표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애인거주시설,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li> <li>▪ 사회가족복지법 245조 3항에 의하면 1. 인적도움 2. 기술·전문적 도움 3. 집안개조·자동차개조·교통수단 보조수당 4. 특수·예외수당 5. 안내·보호견으로 총 5가지 유형의 장애보상수당으로 분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적도움: 일상생활화장실, 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 등하는 데에 활동보조인(가족부양지도 가능)의 도움</li> <li>② 기술·전문적 도움: 필요한 장애용구 구입 및 렌트</li> <li>③ 집안·자동차 개조: 장애인이나 생활 및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맞춤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활동보조인과 동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또는 50km 이상 거리의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장애인 맞춤 교통수단 이용</li> <li>④ 특수·예외수당: PCH에 속한 유형(인적도움, 기술전문도움, 집안 및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안내보호견) 외의 장애에 관련한 다른 필요한 수당(예: 의료용 침대 수리비용 등)</li> <li>⑤ 안내·보호견: 자율성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과 본인이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경우에 (미리 훈련된)안내·보호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li> </ul> </li> </ul> </li> <li>▪ 개인자율수당(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애인거주시설,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li> <li>▪ 37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APA)를 받지 않을 시 계속해서 PCH를 수급받을 수 있음</li> </ul> </li> <li>▪ 돌봄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서비스 : 장애인 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ACTP, PCH 및 APA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칭함</li> <li>▪ 위탁서비스 : 위탁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가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가족수당 기어급 징수 연합(Urssaf)에 신고하여 허가된 (혈연관계가 아닌)위탁가정에서 행해지는 유료 돌봄서비스</li> </ul> </li> </ul> </li> </ul>
<b>조사주기</b>	- 2016년 조사 시점으로 2018년 발간
<b>정보출처</b>	- <a href="http://www.drees.sanite.gouv.fr/">http://www.drees.sanite.gouv.fr/</a>

## ○ INSEE(2018), 「Les niveaux de vie en 2016」

<b>조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EE(2017), 「2015년 삶, 소득수준」</li> <li>- 프랑스 전체 2015년도 소득 수준 조사 목적</li> </ul>
<b>조사기관</b>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b>관련 지표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의미의 장애인: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li> <li>▪ 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를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인구. 본래 행정 의미의 장애인으로 편의상 좁은 의미로 재명명함</li> </ul> </li> <li>-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프랑스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경제적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음.</li> <li>▪ 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03유로, 무자녀 2인 가구 1,205유로, 14세 미만의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1,687유로, 14세 이상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2,008유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들을 지칭함(중위소득 50% 기준)</li> </ul> </li> <li>- 성인장애수당(AAH) 산정 간수 및 수급 인정 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20세 이상 공식적인 은퇴 연령까지(60~ 62세), 소득기준(아래 도표 참고), 장애 정도가 최소 80%의 불능상태 혹은 50~79%의 불능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li> </ul> </li> </ul>
<b>조사주기</b>	- 2016년 조사시점으로 2018년 9월 발간
<b>정보출처</b>	- <a href="http://www.drees.sante.gouv.fr/">http://www.drees.sante.gouv.fr/</a>

#### ○ DREES(2017), 「Le niveaux de v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b>조사개요</b>	- DREES(2017),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 기능에 따른 차이」 - 프랑스 정신질환 치료, 수용시설 조사 목적
<b>조사기관</b>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 프랑스 고용센터(POLE EMPLOI)
<b>주요 지표 및 내용</b>	-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넓은 의미의 장애인: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li> <li>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를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인구. 본래 행정 의미의 장애인으로 편의상 좁은 의미로 재명명함</li> </ul> -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프랑스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경제적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음.</li> <li>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803유로, 무자녀 2인가구 1,206유로, 14세 미만의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1,687유로, 14세 이상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2,008유로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들을 지칭함(중위소득 50% 기준)</li> </ul>
<b>조사주기</b>	- 2010년 조사 시점으로 2017년 3월 발간
<b>정보출처</b>	- <a href="http://www.drees.sante.gouv.fr/">http://www.drees.sante.gouv.fr/</a>



### 3) 독일

#### ○ Statische Bundesamt(DESTATIS)

조사개요	- 독일의 정치, 행정, 경제 및 시민 등 객관적이고 질적인 가치가 있는 주요 통계적 정보들을 제공 및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oB 2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o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oB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50 이상(GoB500이상)으로 중증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장애인(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 ▪ 한 사람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된 자
조사주기	- 매2년
정보출처	- <a href="https://www.destatis.de/DE/Startseite.html">https://www.destatis.de/DE/Startseite.html</a>

####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GBE) des Bundes

조사개요	- 독일 인구의 건강상황과 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 제공 - 국민보건의 현재조건, 건강 상황, 건강행동과 건강위험요소, 건강문제와 질병, 보건 관리, 보건 및건강지출, 비용 그리고 국민보건재정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 DESTATIS) - 로베르트 코흐연구소(Robert Koch-Institu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oB 2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o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의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과 동일 - 사회부조(Sozialhilfe) 중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 편입급여는 장애인만을 위한 공적급여로서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 편입급여는 2018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자격이 확대됨
조사주기	- 온라인정보시스템: 수시 업그레이드 - 출판물(중점보고서, 논문, 간행물 등): 정기(매달) 또는 비정기
정보출처	- <a href="https://www.gbe-bund.de/">https://www.gbe-bund.de/</a>

#### ○ Sta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

조사개요	- 독일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교육문화부협의회(De Kultusministerkonferenz)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정신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 또는 분류 어려움과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됨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a href="https://www.kmk.org/dokumentation-statistik/statistik/schulstatistik/sonderpaedagogische-foerderung-an-schulen.html">https://www.kmk.org/dokumentation-statistik/statistik/schulstatistik/sonderpaedagogische-foerderung-an-schulen.html</a>

## ○ Inklusion in Deutschland-Daten und Fakten

조사개요	- 독일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와 설문조사
조사기관	- 브레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비율</li> <li>▪ '장애학생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li> <li>▪ '특수학교재학생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li> <li>▪ '일반학교재학생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지원받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li> <li>▪ '통합비율'이란 전체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수 중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을 의미</li> </ul>
조사주기	- 비정기 (특집본 2015년 10월)
정보출처	- <a href="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I/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IB_Klemm-Studie_Inklusion_2015.pdf">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I/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IB_Klemm-Studie_Inklusion_2015.pdf</a>

## ○ 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eine differenzierte Analyse

조사개요	- 독일 특수교육의 최신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조사기관	- 독일 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현황</li> <li>▪ 특수교육적 지원장소 중 '특수학교(추진학교)'란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대표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로 비장애학생들과 분리되어 교육을 받는 학교시스템을 의미함</li> <li>▪ 특수교육적 지원장소 중 '일반학교'란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대표적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 시스템을 의미함</li> </ul>
조사주기	- 비정기 (2014년 10월 특집본)
정보출처	- <a href="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Wirtschaft/Statistik/Bildung/Forschung/Kultur/SonderpaedagogischerFoerderbedarf_102014.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Wirtschaft/Statistik/Bildung/Forschung/Kultur/SonderpaedagogischerFoerderbedarf_102014.pdf?__blob=publicationFile</a>

## ○ BIH Jahresbericht-Hilfen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m Beruf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li> <li>- 중증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급여</li> </ul>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li> <li>-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li> </ul>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 의무고용</li> <li>▪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li> <li>▪ 여기에서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5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li> <li>▪ 직접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심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발행</li> <li>▪ BIH Jahresbericht 2012/2013 (2013년 10월 발행)</li> <li>▪ BIH Jahresbericht 2013/2014 (2014년 11월 발행)</li> <li>▪ BIH Jahresbericht 2014/2015 (2015년 11월 발행)</li> <li>▪ BIH Jahresbericht 2015/2016 (2016년 8월 발행)</li> <li>▪ BIH Jahresbericht 2011/2012 (2017년 10월 발행)</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s://www.integrationsaemter.de/jahresbericht/67c56/index.html">https://www.integrationsaemter.de/jahresbericht/67c56/index.html</a>



## ○ ZB Info-Behinderung und Beruf

<b>조사개요</b>	-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현황과 다양한 정보 제공
<b>조사기관</b>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
<b>장애판별 기준</b>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용 관련 지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통합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의미</li> <li>▪ 동 지표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 통합프로젝트 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자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제도적 지원, 기타급여를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용주에 대한 급여: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li> <li>②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li> <li>③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공학적 근로지원,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직업적 지식×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한참여 지원,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지원고용</li> <li>④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자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li> <li>⑤ 제도적 지원</li> <li>⑥ 기타 급여</li> </ul> </li> <li>※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으로 인해를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근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li> <li>※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li> <li>※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li> <li>※ 연방통합청</li> <li>▪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 주된 기능으로는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li> <li>▪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포함하며, 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li> </ul> </li> </ul>
<b>조사주기</b>	- 매년 3~4회 발행
<b>정보출처</b>	- <a href="https://www.integrationsaemter.de/publikationen/65c54/index.html">https://www.integrationsaemter.de/publikationen/65c54/index.html</a>

##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b>조사개요</b>	-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시장의 현황 관찰 - 다양한 근로그룹(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실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b>조사기관</b>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b>장애판별 기준</b>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증장애인 실업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협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li> </ul> </li> </ul>
<b>조사주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9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li> <li>-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2016년 5월 발행)</li> <li>-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2017년 5월 발행)</li> </ul>
<b>정보출처</b>	- <a href="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Arbeitsmarktberichte/Personengruppen/Personengruppen-Nav.html">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Arbeitsmarktberichte/Personengruppen/Personengruppen-Nav.html</a>

## ○ 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Jahreszahlen)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b>중증장애인 의무고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li> </ul>
	- <b>중증장애인 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li> </ul>
	-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위한 자원정책과 방안에 대한 분석</li> </ul>
조사주기	-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tikdaten/Detail/201512/analyse/analyse-arbeitsmarkt-schwerbehinderte/analyse-arbeitsmarkt-schwerbehinderte-d-0-201512-pdfl.pdf">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tikdaten/Detail/201512/analyse/analyse-arbeitsmarkt-schwerbehinderte/analyse-arbeitsmarkt-schwerbehinderte-d-0-201512-pdfl.pdf</a>

## ○ Bundesagentur fuer Arbeit (Statistik)-Arbeitsmarkt in Zahlen

조사개요	- 사회보장보험(의료보험, 연금보험, 돌봄보험, 실업보험) 현황 총괄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b>조정금 납부 수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의 의무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부담금'과 동일한 기능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금 액수</li> </ul> </li> <li>60인 이상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율 중 실제 고용율에 따라서 115유로에서 290유로까지 다양하게 산정</li> <li>60인 미만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li> </ul>
조사주기	- (일반적) 고용통계: 매달 - 사회보장사무대상자 현황: 매 3개월 - 고용지속기간과 노동급여 현황: 매년
정보출처	- <a href="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Statistik-nach-Themen/Beschaeftigung/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Nav.html">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Statistik-nach-Themen/Beschaeftigung/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Nav.html</a>

##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조사개요	- 장애인 편입급여의 수급자와 지출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3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b>중증장애인 편입급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부조의 한 형태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함. 즉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사회청(Sozialamt)에서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편입급여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확정함</li> </ul> </li> <li>▪ 편입급여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함</li> </ul> </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2년</li> <li>-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2011 (2015년 5월 발행)</li> <li>-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2013 (2017년 5월 발행)</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Sozialhilfe/Eingliederungshilfe_Behinderte.html">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Sozialhilfe/Eingliederungshilfe_Behinderte.html</a>

## ○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조사개요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청소년부조(사회법전 제8권)'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예: 독자성과 사회적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임</li> <li>•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급여 중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기관임</li> <li>▪ 편입급여제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li> <li>•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병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li> <li>•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li> <li>• 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사설의 지원</li> </ul> </li> </ul> </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li> <li>- 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 Eingliederungshilfen nach § 35a SGB VIII - 2014 (2016년 4월 발행)</li> <li>- 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 Eingliederungshilfen nach § 35a SGB VIII - 2015 (2017년 6월 발행)</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KinderJugendhilfe/Erzieherische-HilfeEingliederungshilfe-5225118157004.html">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KinderJugendhilfe/Erzieherische-HilfeEingliederungshilfe-5225118157004.html</a>

## ○ 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조사개요	- 독일의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상태,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 병상수치, 그리고 의료기관형태에 따른 의료기계 등에 관한 통계적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형태: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함</li> <li>▪ 일반병원: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li> <li>▪ 기타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적으로 정신의학적 또는 정신요법적인 병상을 가진 병원</li> <li>•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신경학적 병상을 가진 병원</li> <li>•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li> <li>•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li> <li>• 순수한 주간 또는 야간병원</li> </ul> </li> </ul>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li> <li>-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3) Statistisches Bundesamt</li> <li>-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4) Statistisches Bundesamt</li> <li>-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5) Statistisches Bundesamt</li> </ul>

	- Gesundheit-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2016) Statistisches Bundesamt
<b>정보출처</b>	- <a href="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Gesundheit/Krankenhaeuser/GrunddatenKrankenhaeuser.html">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Gesundheit/Krankenhaeuser/GrunddatenKrankenhaeuser.html</a>

## ○ Reha-Info

<b>조사개요</b>	- 독일의 재활관련 공적기관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 재활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활급여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b>조사기관</b>	- 각 재활담당기관
<b>장애판별 기준</b>	-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o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o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b>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b>	- 장애인 급여는 사회법전 제9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적 재활: 장애를 극복 또는 완화하고,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급여</li> <li>▪ 근로에 참여: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li> <li>▪ 사회생활에 참여: 일상의 사회생활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li> <li>▪ 생계지원 및 보충적 급여: 재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급여</li> </ul> - 급여기관으로는 법정의료보험담당기관(연방보건부 소속), 연방노동에이전트, 법정사고보험담당기관, 법정연금보험담당기관, 장애헤생자원호와 전쟁화생자복지(사회부조기관(연방노동사회부), 아동·청소년 조력담당기관(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 소속), 통합청(연방노동사회부 소속)으로 구분
<b>조사주기</b>	- 일년에 6회 온라인 발행
<b>정보출처</b>	- <a href="https://www.bar-frankfurt.de/publikationen/reha-info/">https://www.bar-frankfurt.de/publikationen/reha-info/</a>



## 4) 일본

- 2016년 생활하기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전국재택장애아·장애인 등 실태조사) 결과의 개요 - 平成28年 生活のしづらさなどに関する調査(全国在宅障害児・者等実態調査) 結果の概要

조사개요	- 장애인 사책의 추진을 위한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택 장애 아동과 등 (난치병 등 환자와 지금까지의 법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함)의 생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보건복지부 기획과	
장애판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약 2,400 센서스 조사구</li> <li>▪ 1에 거주하는 재택 장애 아동과 장애인등 (장애인 수첩 소지자)</li> <li>▪ 2 의사로부터 난치병 진단 된 자, 장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하고 괴로움이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표 배포 수 12,601 명, 조사표 회수 수 7,179 명 (회수율 57.0 %), 유효 회답 수 6,175 명이었다.</li> <li>▪ 1 돗토리현 구라요시시는 돗토리 현 중부 자진의 영향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li> <li>▪ 2 장애인 수첩, 교육 수첩 또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li> <li>▪ 3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안경 등을 사용해도 보이지 않는다' '소리와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 '걷거나 계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기억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곤란하다' 등의 답변이 있는 자</li> </ul>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택장애인 수첩소지자 (추정치는 428.7 만명, 교육수첩소지자 (추정치는 96.2 만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 (추정치는 84.1 만명으로 모두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증가</li> <li>- 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의 추계치</li> </ul>	
	총	593.2만명 2011년 511.2만명
	障害者手帳所持者 장애인 수첩소지자	559.4만명 2011년 479.2만명
	身体障害者手帳所持者신체장애인 수첩소지자	428.7만명 2011년 386.3만명
	療育手帳所持者교육수첩 소지자	96.2만명 2011년 62.2만명
	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所持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소지자	84.1만명 2011년 56.8만명
	障害者手帳非所持者で'自立支援給付等を受けている者 장애인수첩 비소지자중 자립지원혜택을 받은자	33.8만명 2011년 32.0만명
-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수첩 소지자중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5세 미만은 32.1 %, 65 세 이상은 19.8 %임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s://www.mhlw.go.jp/toukei/list/seikatsu_chousa_b_h28.html">https://www.mhlw.go.jp/toukei/list/seikatsu_chousa_b_h28.html</a>	

## ○ 특별지원교육자료 - 特別支援教育資料 (2017년도)

조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의 목적</li> <li>▪ 특별 지원 교육의 실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을 향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li> <li>▪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발달 지연은 아니지만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학생의 실태를 밝히고, 향후 사책의 본연의 자세 나 교육의 본연의 자세 검토의 기초 자료로 함</li> </ul>
조사기관	-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 특수교육과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지원학교 수, 학교 설치 기준 학급 수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 국·공·사립 합계 -</li> <li>- 특별지원학교 지원 장애중별 학교 수, 설치 학급 기준 학급 수 및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 - 국·공·사립 합계 -</li> <li>- 특별지원학교 수, 특별지원학교 재적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특별 지원 학교 설치 학교 수 - 국·공·사립 -</li> <li>-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통급 지도 설치 학교 수 - 공립 -</li> <li>-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아동 학생 수</li> <li>- 특별지원학교 (학교 설치 기준) 장애 중별 중복 장애 학급 재적 비율 추이 - 국·공·사립 계 -</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material/1406456.htm">http://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material/1406456.htm</a>

## ○ 환자조사 - 患者調査

조사개요	- 이 조사는 병원 및 진료소 (이하 "의료 시설"이라한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내원시의 상황과 환자 이름 등의 실태를 밝히고, 아울러 지역별 환자 수를 추정함으로써 의료 행정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 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환자 수: 조사당일 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에서 진료 한 환자의 추정 수임</li> <li>- 추정 퇴원 환자 수: 조사 대상 기간 중 (2014 년 9 월 1 일 ~ 30 일)에 병원 일반 병원을 퇴원 한 환자의 추정 수임</li> <li>- 퇴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 조사 대상 기간 중 (2014 년 9 월 1 일 ~ 30 일)에 퇴원 한 환자의 입원 일수의 평균임</li> <li>- 진료율: 추정 환자 수를 인구 10 만 대로 나타낸 숫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율(인구 10 만 대) = 추정 환자 수 / 추계 인구 × 100,000</li> </ul> </li> <li>- 총 환자 수 (병상별 추계): 조사 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조사 일에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함)의 수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추정 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초진 외래 환자 수 + (기존 외래 환자 수 × 평균 진료 간격 × 조정 계수 (6/7))</li> </ul> </li> <li>- 병상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 병상: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li> <li>▪ 감염 병상: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14호)에 규정하는 일류 감염, 2 류 감염 (결핵을 제외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지정 감염 및 새로운 감염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li> <li>▪ 결핵 병상: 결핵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li> <li>▪ 요양 병상: 병원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을 제외함) 또는 일반 병원의 병상 중 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li> <li>▪ 일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 요양 병상 이외의 병상을 말함</li> </ul> </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anja/14/index.html">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anja/14/index.html</a>

## ○ 의료시설 (동태) 조사 · 병원보고의 개괄 - 医療施設 (動態) 調査 · 病院報告の概況

조사개요	- 이 조사는 전국의 의료 시설 (의료법에 규정 된 병원 · 진료소)의 분포 및 정비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시설의 진료 기능을 파악하고 의료 행정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총괄관
주요 지표 및 내용	I 의료 시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수: 시설의 종류별로 본 시설 수, 개설지별로 본 시설 수, 병상의 규모별로 본 시설 수, 진료 과목별로 본 시설 수</li> <li>- 병상 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병상 수, 개설지별로 본 병상 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의 병원 병상 수</li> </ul> II 병원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수: 1일 평균 입원 · 신 입원 · 퇴원 환자 수, 병원의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li> <li>- 병상 이용률</li> <li>- 평균 입원 일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li> <li>- 병원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100 병상 당 상근 환자 종사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 상근 환자 의사 수</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www.agefiph.fr/">http://www.agefiph.fr/</a>



## ○ 장애인백서 - 障害者白書

조사개요	- 장애인 백서는 장애인 기본법 (1970 년 법률 제 84 호) 제 13 조에 따라 1994 년부터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장애인을 위해 강구한 시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 임
조사기관	- 일본 내각부
	-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기타의 심신 기능의 장애가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기에 현저하게 곤란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제 1 장 : 장애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 새로운 장애인 기본 계획 (제 4 차)의 책정 - 제 2 장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제 3 장 : 사회 참여 향환 자립 기반 조성 제 4 장 : 일상생활의 기반 만들기 제 5 장 : 살기 좋은 환경의 기반 조성 제 6 장 : 국제 활동
정보출처	- <a href="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h30hakusho/zenbun/index-w.html">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h30hakusho/zenbun/index-w.html</a>

## ○ 장애인고용상태 - 障害者雇用状況

조사개요	- 현재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 상황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등에 보고를 요청하여 집계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민간 기업〉 (법정 고용률 2.0 %) - 고용 장애인 수, 실 고용률 모두 과거 최고를 갱신. ▪ 고용 장애인 수는 49 만 5,795.0 명, 전년 4.5 % (2 만 1,421.0 명) 증가 ▪ 실제 고용률 1.97 %, 전년 대비 0.05 포인트 상승 - 법정 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50.0 % (전년 대비 1.2 % 포인트 상승)  〈공공 기관〉 (동 2.3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2 %) ※ 0는 전년 값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국가 : 고용 장애인 수 7,593.0 명 (7,436.0 명), 실 고용률 2.50 % (2.45 %) ▪ 도시 : 고용 장애인 수 8,633.0 명 (8,474.0 명), 실 고용률 2.65 % (2.61 %) ▪ 시정촌 : 고용 장애인 수 2 만 6,412.0 명 (2 만 6,139.5 명), 실 고용률 2.44 % (2.43 %) ▪ 교육위원회 : 고용 장애인 수 1 만 4,644.0 명 (1 만 4,448.5 명), 실 고용률 2.22 % (2.18 %)  〈독립 행정법 인 등〉 (2.3 %) ※ 0는 전년 값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고용 장애인 수 1 만 276.5 명 (9,927.0 명), 실 고용률 2.40 % (2.36 %)
조사주기	- 매년 6 월 1 일에 실시
정보출처	- <a href="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87661.html">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87661.html</a>

## ○ 장애인의 취업소개 상태 등 - 障害者の職業紹介状況等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상황을 정리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02,143 건으로 전년 대비 5.4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취업 건수는 97,814건으로 전년 대비 4.9 %의 증가를 기록함 ▪ 이 중 정신 장애인의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93,701 건으로 전년 대비 9.0 %의 성장률을 기록, 또한 취업 건수는 45,064 건으로 전년 대비 8.9 %의 증가를 기록함 - 취업률 (취업 건수 / 신규 구직 신청 건수)은 48.4 %로 전년 차이 0.2 포인트 감소함 - 취업 건수 취업률 ▪ 신체장애인 26,756 건 44.2 % ▪ 지적장애인 20,987 건 58.7 % ▪ 정신장애인 45,064 건 48.1 % ▪ 기타장애인 5,007 건 4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계 97,814 건 48.4 %</li> <li>- 산업별 취업 건수는 많은 순으로 "의료 복지" (35,566 건, 구성비 36.4 %), "제조업"(13,595개, 동 13.9 %), "도매, 소매업" (12,412 건, 동 12.7 %), "서비스업" (10,288 건, 동 10.5 %) 순임</li> <li>-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헬로우 워크에 신고가 있던 장애인의 해고자 수는 2,272 명 이었다 (2016 년도는 1,335명)</li> </ul>
정보출처	- <a href="https://www.mhlw.go.jp/stf/houdou/0000208340.html">https://www.mhlw.go.jp/stf/houdou/0000208340.html</a>

## ○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 社会福祉施設等調査

조사개요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 재소자, 종사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회 복지 행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수 · 정원</li> <li>▪ 시설의 종류별 시설 수를 보면 '보육 등'은 27,137 시설로 전년에 비해 872 시설, 3.3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13,525 시설로 전년에 비해 955 시설, 7.6 % 증가. 시설의 종류별로 정원을 보면 '보육 등'은 2,645,050 명으로 전년에 비해 87,917 명, 3.4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518,507 명으로 전년에 비해 35,715 명, 7.4 % 증가</li> <li>- 경영 주체 별 시설 수</li> <li>▪ 시설의 종류별로 경영 주체별 시설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기타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제외한 각 유형에서 '사회 복지 법인의 비율이 가장 많아지고 있음.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제외)'는 비영리법인 (회사)가 82.6 %로 가장 많아짐</li> <li>- 사업소 수</li> <li>▪ 사업의 유형으로 사업소 수를 보면 '주택 개호 사업'이 23,074 사업소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131 사업소 0.6 % 증가함. 다음으로 많은 것은 '중도 방문 개호 사업'이 20,952 사업소이며, 전년에 비해 98업소 0.5 % 감소함. 또한 전년 증가율을 보면 '방과후 등 데이서비스 사업'이 20.4 %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이동 발달 지원 사업'이 20.0 %임</li> <li>-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li> <li>▪ 사업 유형별로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단기 입소 사업에서는 '사회 복지 법인'이 74.8 %로 가장 많으며, 주택 개호 사업, 중증 방문 개호 사업, 동행 원조 사업에서는 '영리 법인 (회사)'가 가장 많고, 각각 68.1 %, 69.2 %, 70.4 %임</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7/index.html">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7/index.html</a>

## ○ 공공교통이동 등 원활화 실적보고 - 公共交通移動等円滑化実績報告

조사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3 조에 따라 공공교통기관 등은 국토교통장관에게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등으로부터 제출 된 이동 등 원활화 실적 등 보고서의 집계 결과임
조사기관	- 일본 국토교통성 교통소비자행정/공공교통사고 피해지원
주요 지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교통의 배리어 프리 회의 진행 상황</li> <li>- 여객 시설의 배리어 프리 회의 추이</li> <li>- 차량 등의 배리어 프리 회의 추이</li> </ul>
조사주기	-
정보출처	- <a href="http://www.mlit.go.jp/sogoseisaku/barrierfree/sosei_barrierfree_mn_000003.html">http://www.mlit.go.jp/sogoseisaku/barrierfree/sosei_barrierfree_mn_000003.html</a>



## 2019 장애통계연보

---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최 경 속  
**저자명** 조 윤 화 외  
**발행처**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

ISBN 978-89-6921-362-4(933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